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변금선 김상일 김승연
김진하 안현찬 김성아
박민진 임아름 류아현
이종선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연구책임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진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성아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부연구위원

박민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임아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류아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종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조사수행

박종선 여론조사 사업2본부 본부장

최광선 여론조사 사업2본부 2부 부서장

최선아 여론조사 사업2본부 2부 수석

김지은 여론조사 사업2본부 2부 책임

이승찬 여론조사 사업2본부 2부 프로

김지영 여론조사 사업2본부 2부 프로

서울시·서울연구원 두 번째 서울청년패널조사 수행 서울 청년행복 증진 위한 청년정책 기초자료 마련

서울 청년 삶 실태와 정책 욕구 파악위해 서울 거주 청년 대상으로 2차 청년패널조사 시행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 청년의 삶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를 추진하였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청년 삶의 다차원적 변화양상을 다년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tudy)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최초의 패널조사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 거주 청년의 이행기 주요 과업(교육, 일,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과 삶의 실태를 장기간 추적 조사해 서울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서울시 거주 만 18~35세 청년 5,19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1차 서울청년패널(SYPS)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인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결과이다. 2022년 서울청년패널 유효표본은 원표본 3,762명, 원표본 중 위성패널 182명, 신규표본 1,321명을 포함하여 총 5,265명이며, 이 조사의 분석대상은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182명을 제외한 5,083명이다¹⁾. 조사영역은 청년의 독립과 가족형성(결혼), 가구유형, 교육·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과 평가에 따른 삶의 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2022년 8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청년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면 비대면 전자조사로 진행하였다. 패널마모에 대응하고자 신규표본을 구축하였으며, 신규표본은 표본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21년 제1차 서울청년패널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표집하였고, 표본설계 전문가 및 연구진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군복무 등으로 패널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위성패널로 구분해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1]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모집단 | 2021년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내국인(기숙사 거주자 포함, 집단거주시설 거주 내국인 제외) |
| 조사대상 | 2022년 만 19~35세 청년 5,194명(2020년 사전조사, 2021년 1차 조사 응답자), 신규표본 1,321명 |
| 조사기간 | 2022년 8월 20일 ~ 2022년 12월 29일 |
| 조사방법 | 비대면 전자조사 |
|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 통계청 집계구 활용(집계구 내 조사대상 가구 선정) |
| 최종 유효표본 | 2022년 기준 19~36세 청년 5,265명(위성패널 182명) |

1) 위성패널 182명 중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사유로는 일자리 관련이 28.3%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 15.2%, 거주 환경 개선 14.5%, 결혼, 독립 등의 이유 10.9% 순으로 높았다.



[그림 1] 데이터 구조

청년 87%는 미혼으로 그중 46.5% 결혼 의향 있어...서울 이주 34.2%, 대학 졸업 이상 64.4%

2022년 현재 19~36세 서울 거주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청년의 성별 분포는 여성 51.3%, 남성 48.7%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분포는 25~29세(37.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청년(서울 태생과 만 19세 이전 서울 이주자)은 65.8%이며,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34.2%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전문대학교, 4년제대학교, 대학원 등 대학 졸업 이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청년 중 미혼은 87.0%이며, 미혼 청년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은 46.5%,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은 19.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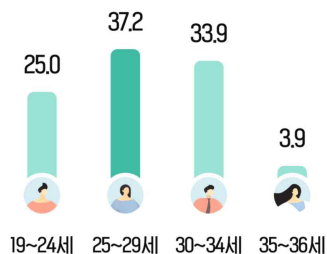
성별

(단위: %,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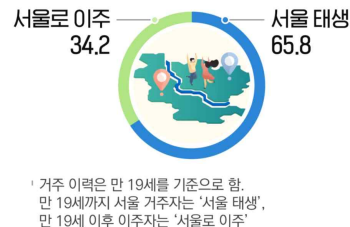
연령대

(단위: %,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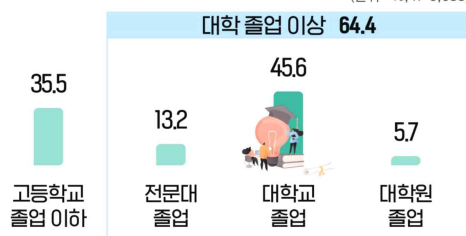
서울 거주 이력

(단위: %, n=5,083)



학력

(단위: %, n=5,083)



결혼 의향

(단위: %, n=4,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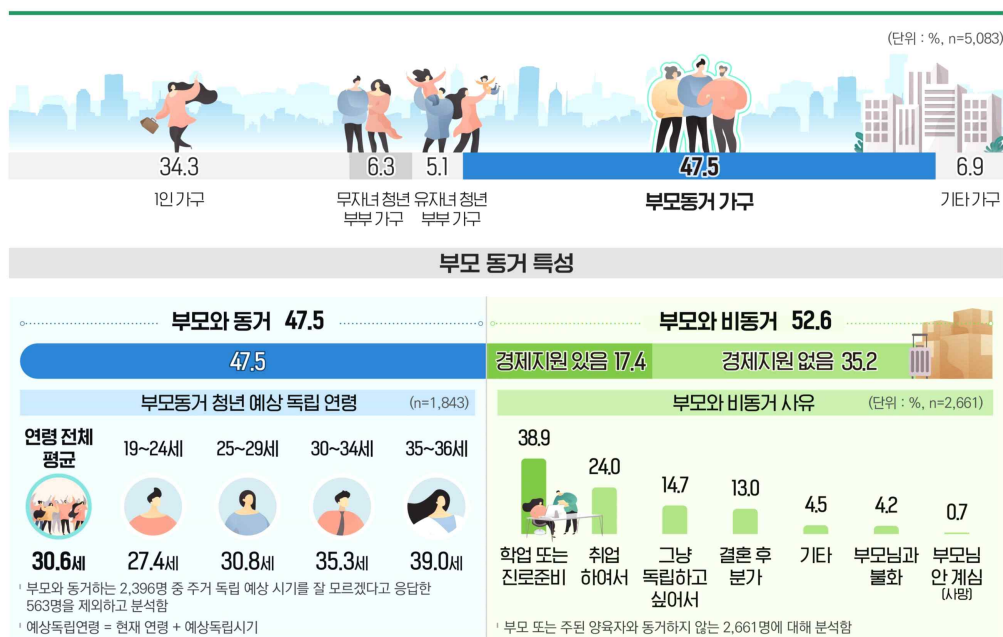
* 미혼 청년 4,598명에 대해 분석함

[그림 2] 기본 특성 1

청년 가구 중 부모와 동거 47.5%...예상 독립 나이 30.6세, 비동거 이유는 학업과 취업

서울 청년의 가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가구가 47.5%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 34.3%, 기타 가구 6.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독립 특성을 보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은 52.6%였으며, 그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은 17.4%,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은 35.2%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나이는 평균 30.6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예상 독립 나이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들은 그 이유로 학업 또는 진로 준비(38.9%)와 취업하여서(24.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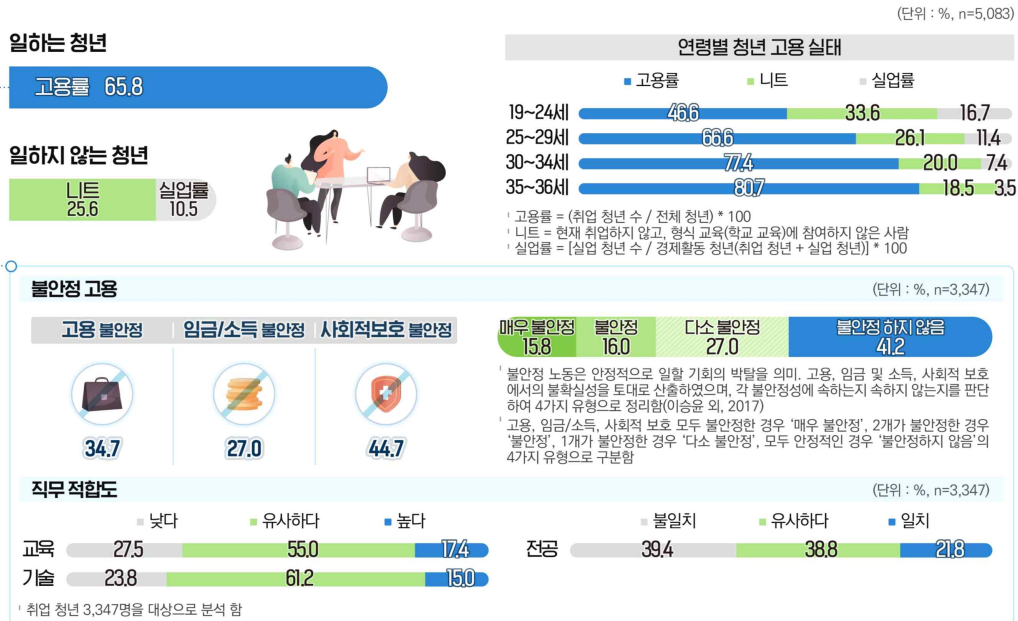
[그림 3] 기본 특성 2

서울 청년 고용률 65.8%, 니트 25.6%...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뚜렷, 하향 취업 27.5%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고용률은 65.8%, 실업률은 10.5%, 니트 비율은 25.6%였다. 취업은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가 1개라도 있을 경우를 의미하며(단, 주된 일자리 고용 형태가 무급가족종사자이고, 주당 근무 시간이 18시간 미만이면 제외),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는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나 학원/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니트 비율은 19~24세(33.6%)에서 가장 높았다. 불안정 노동자 유형 중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미가입인 경우를 의미하는 사회적 보호 불안정이 가장 높았고,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가 모두 불안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매우 불안정 비율은 15.8%였다. 취업 청년 중 본인의 전공 분야와 현재 일자리 직무가 불일치한다는 응답은 39.4%로, 일치한다는 응답(21.8%)에 비해 약 1.8배 높아 전공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현상이 뚜렷하다. 또한, 본인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직무에 하향 취업한 비율은 27.5%로, 상향 취업(17.4%)보다 약 1.6배 높았다.

청년 고용 실태



[그림 4] 고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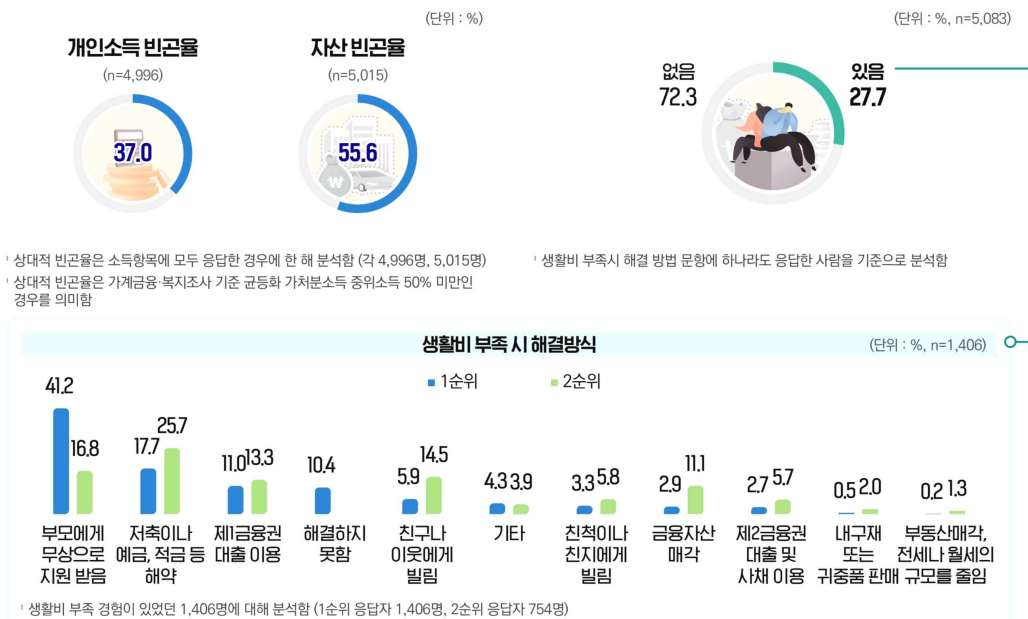
서울 청년 개인소득 빈곤율 37.0%, 자산빈곤율 55.6%...경제적 어려움엔 부모 의존도 높아

서울 청년의 개인소득 빈곤율은 37.0%, 자산 빈곤율은 55.6%로 조사되었다. 빈곤율은 2021년(소득조사 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연소득 1,587만원)인 경우로 측정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소득 빈곤율이 높았다. 19~24세는 73.4%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이행기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자산빈곤은 청년이 소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빈곤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균등화가처분 월 중위소득 50%의 3개월 치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특히 1인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청년은 27.7%였으며, 이들에게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해결 방식을 조사한 결과(1순위 기준), 부모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41.2%) 비율이 매우 높았고, 뒤이어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의 해약(17.7%)이었다. 즉 서울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적이전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뒤이어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생활비 부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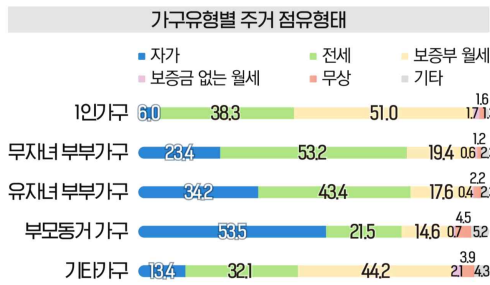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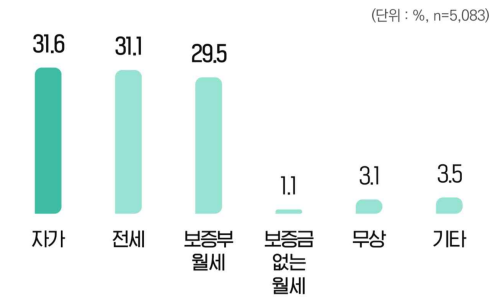
[그림 5] 상대적 빈곤율 및 생활비 부족 경험

부모 동거는 자가 53.5%, 유자녀 부부는 전세 43.4%, 1인가구는 월세 52.7% 가장 많아

서울 청년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가구의 자가 비율은 53.5%, 유자녀 부부가구 전세 비율 43.4%, 무자녀 부부가구 전세 비율 53.2%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의 경우 월세(보증부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다. 또한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할수록 주거 수준과 독립성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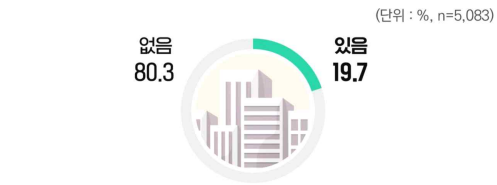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주거 불안을 경험한 사유에 대해(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 부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2%로 매우 높았고,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였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불안감을 경험한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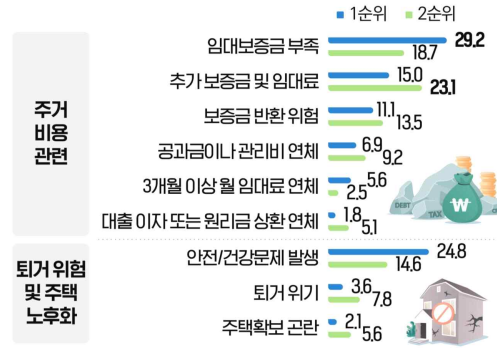


¹ 보증금 없는 월세는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를 합산한 비율임

주거불안 경험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 불안 상황 (단위 : %, n=1,003)



¹ 주거불안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해 분석함 (1순위 1,003명, 2순위 428명)

[그림 6] 주거 점유형태 및 주거불안 경험

실업, 미취업 등으로 청년 34.7% 우울 증상 의심돼...사회적 고립 3.4%, 가족돌봄 1.3%

서울 청년 중 34.7%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 중 16.7%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우울 증상 비율을 보면, 비재학 미취업 청년(44.3%)이 가장 높았고, 실업 청년(42.0%)이 뒤를 이었다. 우울 증상 의심은 CES-D11 척도로 측정했고, 척도의 총합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 증상 의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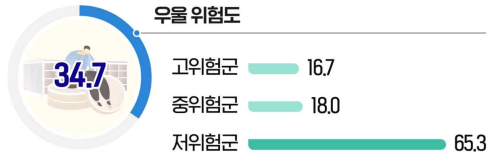
한 달 중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물리적 고립상태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 경험 청년 비율은 3.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에서 추정된 규모(4.5%, $\pm 1.18\%$)와 유사하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선택(55.9%), 정신적 어려움(36.4%), 대인관계 어려움(24.1%), 취업실패(2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은 1.3%로,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의 추정치(0.6~1.4%)와 유사했다. 이들 중 59.6%는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으로 인해 미래계획 설계에 어려움(매우 어려움+어려운 편임)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8%였다.

우울 증상 의심

(단위 : %, n=5,083)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



¹ CES-D 11 척도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² 우울 위험도 : CES-D 11 점수에 따라 16점 미만은 저위험군, 16~24점은 중위험군, 25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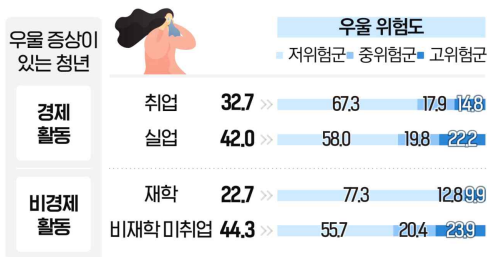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 경험

(단위 : %, n=5,083)

사회적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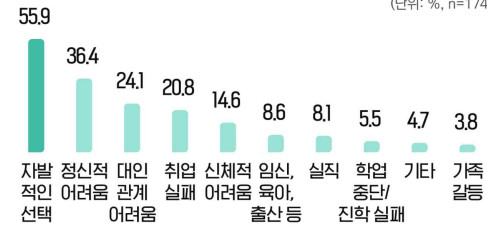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별 우울 증상 의심



고립 청년이 나가지 않은 이유 (복수 응답)

(단위 : %, n=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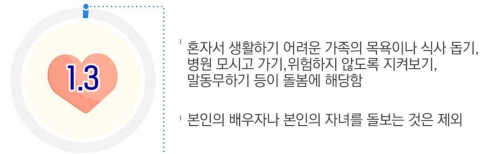
¹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그림 7] 우울 증상 의심 및 사회적 고립 경험

가족돌봄청년

(단위 : %, n=5,083)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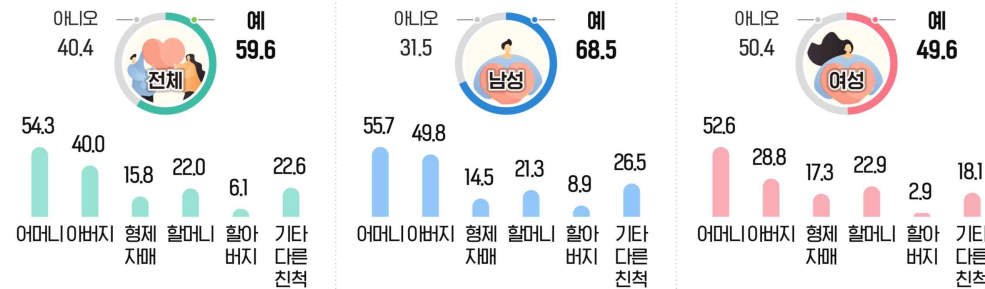


돌봄으로 인한 미래계획 어려움



정기적 돌봄 제공 여부

(단위 : %, n=69)



¹ 가족돌봄청년 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그림 8] 가족돌봄청년

청년 55.1%, 미래 전망 ‘나빠질 것’ 평가…삶의 만족도 평균 5.9점, 경제적 만족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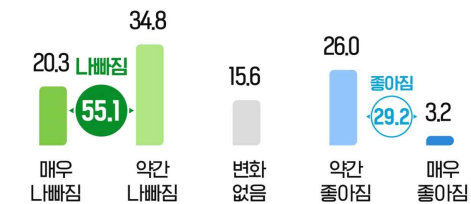
30년 후 한국의 미래 전망에 대해 청년의 55.1%가 나빠질 것(매우 나빠짐+약간 나빠짐)이라 평가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매우 좋아짐+약간 좋아짐)은 29.2%,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6%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 수준, 건강, 삶의 성취, 관계, 안전 등 13개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 중 평균 5.9점이었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와 나의 안전(6.8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나의 경제적 수준(4.7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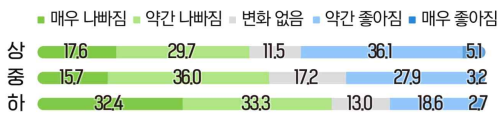
미래 전망

(단위 : %,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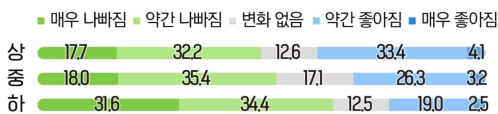
30년 후 한국의 미래 전망은?



본인 주관적 소득수준별 미래 전망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 미래 전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래 전망 나빠짐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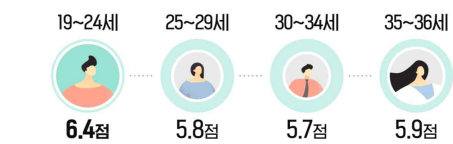
영역별 삶의 만족도

(단위 : 0~10점,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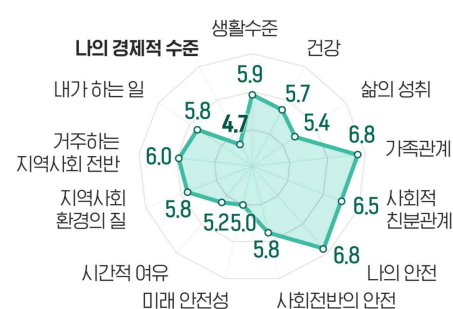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전체 평균

5.9점

연령별 삶의 만족도



영역별 삶의 만족도



[그림 9] 미래 전망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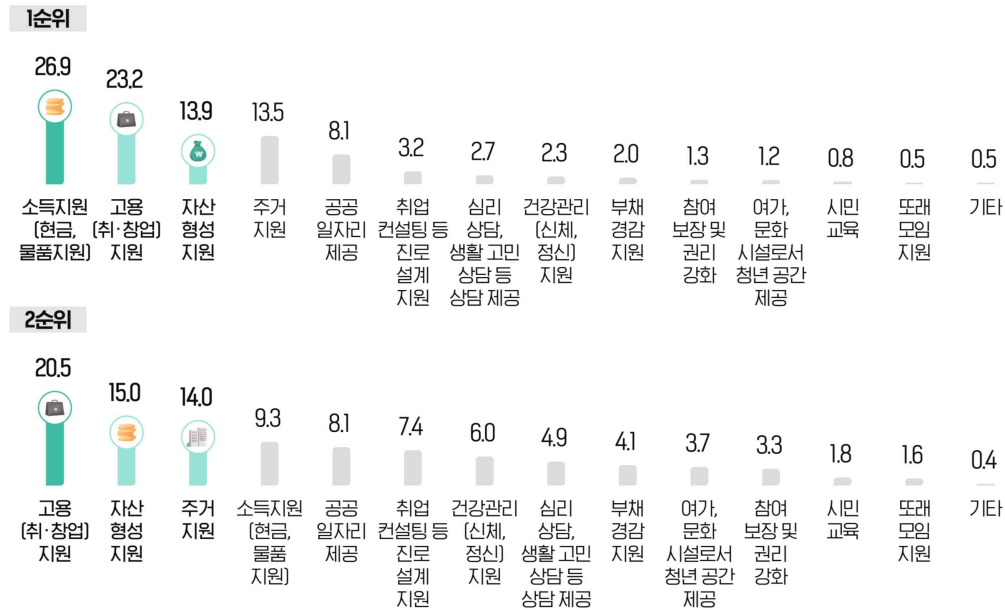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지도·만족도 다 높아…청년세대 위해 소득·고용 지원 강화해야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중 청년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수당의 경우 청년의 65.4%가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 만족도는 92.6%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인지도는 65.0%, 정책 만족도는 90.3%로 매우 높았다.

앞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1순위)로는 소득지원(현금, 현물지원) 26.9%, 고용(취·창업)지원 23.2%, 자산 형성 지원(13.9%) 순으로 높았다.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단위 : %, n=5,083)



[그림 10]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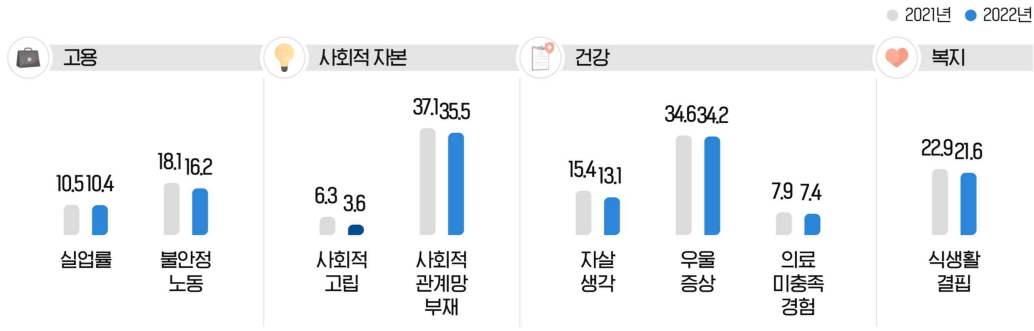
지난 2년간(2021-2022) 청년 삶의 지표는 노동·사회적자본·건강에서 개선, 주거·복지에서 악화

2021년과 2022년 모두 응답한 3,762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삶의 변화를 주요 지표 중심으로 분석했다. 모든 분석에는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패널탈락으로 인한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청년 삶 실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영역별 핵심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용 지표(실업률, 불안정 노동), 사회적 자본(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망 부재), 건강 지표(자살 생각, 우울 증상, 의료 충족 경험), 복지 중 식생활결핍 지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지표(개인소득 빈곤, 자산 빈곤, 부채 비율), 주거 지표(비적정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RIR), 복지 중 주관적 만족도와 긍정적 미래전망, 그리고 교육, 역량 중 니트 지표는 작년 조사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21년 → 2022년 핵심지표 종단분석

(단위 : %, n=3,762)

긍정적 변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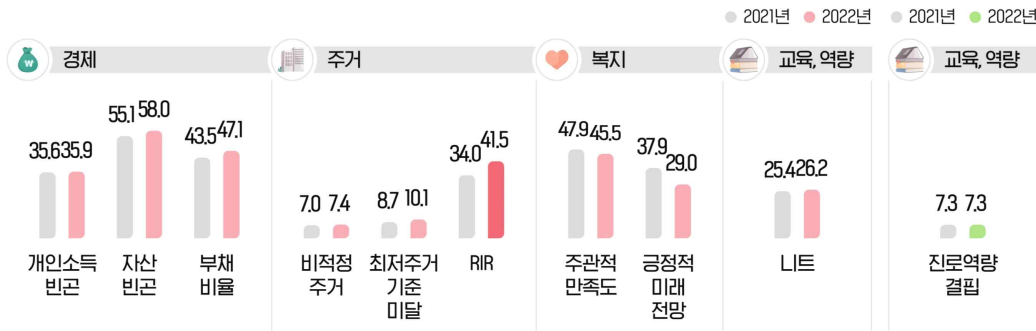
- ※ (고용) 실업률 및 불안정 노동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2021년 2,533명, 2022년 2,535명).
 '실업률'은 (실업 청년 수 / 경제활동청년) * 100을 의미하며, 불안정 노동은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험의 3가지 영역이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 수치를 의미함.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고립'은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사회적 관계망 부재'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 (건강) '자살 생각'은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함. '우울척도'는 CES-D11 척도를 활용하여 점수가 16점 이상일 때 우울 증상으로 간주함.
 '의료 미충족 경험'은 경제적 이유나 인프라 부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 (복지) '식생활 결핍'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어려움 문항에 (자주+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임.

2021년 → 2022년 핵심지표 종단분석

(단위 : %, n=3,762)

부정적 변화 지표

변화 없는 지표



- ※ (경제) '개인소득 빈곤'은 개인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 항목에 모두 응답한 3,695명에 대해 분석함. '자산 빈곤'은 순자산이 3개월 간 최저생활(중위소득 50%)을 유지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산 총액과 부채 항목에 모두 응답한 3,761명에 대해 분석함. 자산의 경우 측정 방식 변화로 1차 조사(2021년)에서 단일 문항 변수, 2차 조사에서는 자산 항목별 총액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부채'는 총자산 대비 총 부채(DTA)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자산 총액과 부채 항목 모두 응답한 3,761명에 대해 분석함.
 ※ (주거) '비적정 주거'는 비주택(고시원, 컨테이너 건물 등) 및 지하층, 옥탑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임.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동거 가구원 수 대비 방,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미달인 경우를 의미함.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부담(RIR)'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월소득 25%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4.7% 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전세/전세 보증금/월세, 가구 소득에 모두 응답한 2,0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복지) '주관적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긍정적 미래 전망'은 우리나라 미래 기대 정도에 대해 (약간 좋아질 것+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임.
 ※ (교육, 역량) '니트'는 현재 취업하지 않고, 지난주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수 없는 이유 또는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서 학교나 입시학원, 직업훈련 기관에 통학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들을 제외한 비율임. '진로역량 결핍'은 진로와 관련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임.

[그림 11] 핵심지표 종단분석

주: 2021,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19~36세 서울 거주 청년 3,7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목차

| | |
|-----------------------|------------|
| 01. 서론 | 2 |
| 1_ 조사 배경과 목적 | 2 |
| 2_ 조사 개요 | 6 |
| 3_ 조사 수행 결과 | 9 |
| 02. 표본설계 | 14 |
| 1_ 표본설계 | 14 |
| 2_ 표본 규모 | 17 |
| 3_ 표본 현황과 가중치 | 23 |
| 03.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 34 |
| 1_ 조사내용 | 34 |
| 2_ 조사방법과 체계 | 47 |
| 04. 기초분석 | 58 |
| 1_ 일반특성 | 58 |
| 2_ 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 | 67 |
| 3_ 교육과 훈련 | 85 |
| 4_ 일자리 | 99 |
| 5_ 경제 | 151 |
| 6_ 주거 | 176 |
| 7_ 삶의 여건과 인식 | 211 |
| 8_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 244 |
| 9_ 정책경험과 평가 | 249 |
| 10_ 위성패널 | 277 |
| 05. 중단분석 | 286 |
| 1_ 일반특성 | 286 |
| 2_ 청년기 주요 이행 중단적 특성 | 294 |
| 3_ 영역별 핵심지표 비교 | 302 |

| | |
|----------|-----|
| 참고문헌 | 321 |
| 부록 | 323 |
| Abstract | 479 |
| Contents | 480 |

표 목차

| | |
|---|----|
| [표 1-3-1] 원표본 지역/성/연령별 유효표본 현황 | 9 |
| [표 1-3-2] 유효표본 현황 | 10 |
| [표 1-3-3] 원표본 지역/성/연령별 미완료 표본 현황 | 11 |
| [표 2-1-1]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2021년 11월 말 기준) | 14 |
| [표 2-2-1] 패널 마모 대응(안) | 18 |
| [표 2-2-2] 추출 집계구 | 19 |
| [표 2-2-3] 2021년 1차 조사 목표 표본 수 | 20 |
| [표 2-2-4] 2022년 신규표본 목표 표본 수 | 21 |
| [표 2-2-5] 2022년 신규표본 완료 표본 수 | 22 |
| [표 2-3-1] 원표본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유효표본 현황(2021년 조사 당시 연령) | 23 |
| [표 2-3-2] 원표본 표본 유지율(2021년 조사 당시 연령) | 24 |
| [표 2-3-3] 신규표본 지역별, 성별, 연령별 유효표본 현황 | 25 |
| [표 2-3-4] 위성패널 유효표본 현황 | 26 |
| [표 2-3-5] 자치구별 위성패널 유효표본 현황 | 26 |
| [표 2-3-6] 최종 유효표본 현황(2022년 조사 기준 연령) | 27 |
| [표 3-1-1] 서울청년패널조사 프레임 | 35 |
| [표 3-1-2] 조사표별 응답 대상 | 36 |
| [표 3-1-3] 2022년 서울청년패널 조사표 유형별 조사 기준시점 | 36 |
| [표 3-1-4] 2차 조사(2022년) 조사 영역 | 37 |
| [표 3-1-5] 조사표 주요 변경 내용 | 38 |
| [표 3-1-6]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원표본, 신규표본 영역 구성 및 조사내용 | 44 |
| [표 3-1-7]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위성패널 영역 구성 및 조사 내용 | 45 |
| [표 3-1-8] 서울청년패널조사 주요 지표 | 46 |
| [표 3-2-1] 조사 진행 절차 | 50 |
| [표 3-2-2] 조사 중 응답 관리 내용과 예시 | 51 |
| [표 3-2-3] 조사 후 응답 내용 검증 예시 및 결과 | 53 |

| | |
|--|----|
|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 | 59 |
| [표 4-1-2]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62 |
| [표 4-1-3] 주거·경제 특성 | 64 |
| [표 4-1-4] 연령별 주거·경제 특성 | 66 |
| [표 4-2-1] 경제활동상태 | 67 |
| [표 4-2-2] 서울 이주 여부 및 이주 당시의 연령 | 69 |
| [표 4-2-3] 서울로 이주한 이유 | 70 |
| [표 4-2-4]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 71 |
| [표 4-2-5] 서울 태생이 아닌 경우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 72 |
| [표 4-2-6] 서울 거주 이력 | 73 |
| [표 4-2-7] 부모동거 특성 | 74 |
| [표 4-2-8]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 75 |
| [표 4-2-9]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 | 76 |
| [표 4-2-10] 혼인 특성 | 77 |
| [표 4-2-11]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 78 |
| [표 4-2-12]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 | 80 |
| [표 4-2-13] 자녀가 없는 청년의 향후 자녀 계획 | 81 |
| [표 4-2-14] 가족돌봄청년 여부 | 82 |
| [표 4-2-15] 정기적(규칙적) 돌봄 제공 여부 및 돌봄 대상 | 83 |
| [표 4-2-16]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 84 |
| [표 4-3-1]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유형 | 86 |
| [표 4-3-2] 대학경험 여부 | 87 |
| [표 4-3-3] 대학교 유형 | 88 |
| [표 4-3-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상황 | 89 |
| [표 4-3-5] 대학 소재지 | 90 |
| [표 4-3-6] 전공계열 | 91 |
| [표 4-3-7] 대학원 진학 경험 | 92 |
| [표 4-3-8] 부모 교육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 93 |
| [표 4-3-9] 부모 소득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 93 |
| [표 4-3-10] 직업훈련 경험 | 94 |
| [표 4-3-11] 직업훈련 경험 사항 | 95 |
| [표 4-3-12]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6 |
| [표 4-3-13] 자격증 취득 경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 97 |
| [표 4-3-14] 진로와 관련한 현재 상황 | 98 |
| [표 4-3-15]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 | 98 |

| | |
|---|-----|
| [표 4-4-1] 서울 청년 고용 실태 | 100 |
| [표 4-4-2] 특성별 실업률 및 고용률 | 101 |
| [표 4-4-3] 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및 니트 비율 | 102 |
| [표 4-4-4]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 일 경험 | 103 |
| [표 4-4-5]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104 |
| [표 4-4-6] 과거 일자리 경험 | 105 |
| [표 4-4-7]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 106 |
| [표 4-4-8]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 | 107 |
| [표 4-4-9] 실업급여 수급 경험 | 108 |
| [표 4-4-10]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 2순위) | 109 |
| [표 4-4-11]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순위) | 109 |
| [표 4-4-12] 비정규직 취업 의사, 비정규직이어도 취업하려는 이유 | 111 |
| [표 4-4-13]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 정도 | 111 |
| [표 4-4-14] 취업자의 근로형태 | 112 |
| [표 4-4-15]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 구직활동 기간 | 113 |
| [표 4-4-16]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 | 114 |
| [표 4-4-17]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 115 |
| [표 4-4-18] 종사상 지위 | 116 |
| [표 4-4-19] 현재 일자리의 플랫폼노동 여부 | 117 |
| [표 4-4-20] 사업장 유형 | 118 |
| [표 4-4-21] 현재 취업자의 근로 형태 | 119 |
| [표 4-4-22] 주된 일자리 임금 | 120 |
| [표 4-4-23] 전체 일자리 임금 | 121 |
| [표 4-4-24]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 | 122 |
| [표 4-4-25] 전체 일자리 근로시간 | 123 |
| [표 4-4-26]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 124 |
| [표 4-4-27]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업 분류 | 125 |
| [표 4-4-28]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 분류 | 126 |
| [표 4-4-29] 근무지 위치 및 장소 | 127 |
| [표 4-4-30] 왕복 통근시간 | 128 |
| [표 4-4-31] 주된 일자리 월평균 희망소득 | 129 |
| [표 4-4-32] 주된 일자리 희망 주당 근로시간 | 130 |
| [표 4-4-33] 주된 일자리 만족도 | 131 |
| [표 4-4-34] 주된 일자리 직무 유사성 | 132 |
| [표 4-4-35] 근로환경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 133 |

| | |
|---|-----|
| [표 4-4-36] 이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과 준비 경험 | 134 |
| [표 4-4-37] 이직 예정 시기 | 135 |
| [표 4-4-38]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 | 136 |
| [표 4-4-39] 미취업자 현황 | 137 |
| [표 4-4-40] 지난 4주간 구직활동 | 138 |
| [표 4-4-41]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 140 |
| [표 4-4-42]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1순위) | 141 |
| [표 4-4-43]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142 |
| [표 4-4-44]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 | 143 |
| [표 4-4-45]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 144 |
| [표 4-4-46]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 | 146 |
| [표 4-4-47]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 | 147 |
| [표 4-4-48] 구직 방법 | 148 |
| [표 4-4-49]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 | 149 |
| [표 4-4-50]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것 | 150 |
| [표 4-5-1] 가구 월소득 | 151 |
| [표 4-5-2] 본인 월소득 | 153 |
| [표 4-5-3] 본인 월평균 총소득과 항목별 소득 | 154 |
| [표 4-5-4]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 155 |
| [표 4-5-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률, 수령금액 | 156 |
| [표 4-5-6] 개인 월평균 생활비 | 157 |
| [표 4-5-7] 본인 생활비 항목별 지출 비중 | 158 |
| [표 4-5-8] 2021년 1년 동안 생활비 부족 경험 | 159 |
| [표 4-5-9]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 | 160 |
| [표 4-5-10] 본인 재산 총액 평균 금액 및 분포 | 161 |
| [표 4-5-11] 본인 재산 항목별 평균 금액 | 162 |
| [표 4-5-12] 본인 명의 자동차 보유 대수 | 163 |
| [표 4-5-13] 자산형성을 위한 재테크 여부 및 수단(복수응답) | 164 |
| [표 4-5-14] 재테크 목적 | 165 |
| [표 4-5-15] 재테크 목적(1순위) | 166 |
| [표 4-5-16] 재테크 목적(2순위) | 167 |
| [표 4-5-17]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 | 168 |
| [표 4-5-18]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 | 169 |
| [표 4-5-19] 본인 부채 총액 평균 및 분포 | 170 |
| [표 4-5-20] 본인 부채 항목별 평균 금액 | 171 |

| | |
|---|-----|
| [표 4-5-21] 부채용도 | 172 |
| [표 4-5-22] 부채용도(1순위) | 173 |
| [표 4-5-23] 부채용도(2순위) | 174 |
| [표 4-5-24]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 | 175 |
| [표 4-6-1] 주택유형 | 176 |
| [표 4-6-2] 주택 점유형태 | 178 |
| [표 4-6-3] 거주층 | 179 |
| [표 4-6-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 | 180 |
| [표 4-6-5] 주택 계약당사자 | 181 |
| [표 4-6-6] 방의 구조 | 182 |
| [표 4-6-7] 방 개수 | 183 |
| [표 4-6-8] 거실 개수 | 185 |
| [표 4-6-9] 화장실 개수 | 186 |
| [표 4-6-10] 주택 전용면적 | 187 |
| [표 4-6-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88 |
| [표 4-6-12] 주거지 상태 평가 | 190 |
| [표 4-6-13] 주거지 상태 평가(계속) | 191 |
| [표 4-6-14]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 192 |
| [표 4-6-15]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 193 |
| [표 4-6-16] 서울 이외 지역 이사 계획 유무 | 194 |
| [표 4-6-17] 서울 이외 지역 이사 계획 이유 | 195 |
| [표 4-6-18] 자가 가격 | 196 |
| [표 4-6-19] 전세 보증금 | 197 |
| [표 4-6-20] 전세 관리비 | 199 |
| [표 4-6-21] 보증부 월세 보증금 | 200 |
| [표 4-6-22] 보증부 월세 임대료 | 201 |
| [표 4-6-23] 보증부 월세 관리비 | 202 |
| [표 4-6-24]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 | 203 |
| [표 4-6-25]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 | 204 |
| [표 4-6-26]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 205 |
| [표 4-6-27] 자가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 | 206 |
| [표 4-6-28] 주택비용 마련방법 | 207 |
| [표 4-6-29] 주택비용 마련방법(1순위) | 209 |
| [표 4-6-30] 주택비용 마련방법(2순위) | 210 |
| [표 4-7-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물질적 박탈) 경험 | 211 |

| | |
|--|-----|
| [표 4-7-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물질적 박탈) 경험 수 | 212 |
| [표 4-7-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결핍 경험 | 214 |
| [표 4-7-4]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법 | 215 |
| [표 4-7-5]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 215 |
| [표 4-7-6]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1순위) | 216 |
| [표 4-7-7]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2순위) | 217 |
| [표 4-7-8]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18 |
| [표 4-7-9] 생활영역별 만족도 1 | 219 |
| [표 4-7-10] 생활영역별 만족도 2 | 220 |
| [표 4-7-11]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 | 221 |
| [표 4-7-12]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223 |
| [표 4-7-1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1 | 224 |
| [표 4-7-1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2 | 225 |
| [표 4-7-15] 주관적 건강 상태 | 226 |
| [표 4-7-16]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 | 227 |
| [표 4-7-17]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228 |
| [표 4-7-18] 외로움 정도 | 228 |
| [표 4-7-19] 우울 증상 여부 및 위험도 | 229 |
| [표 4-7-20]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 230 |
| [표 4-7-21]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이유 | 231 |
| [표 4-7-22] 노력 대비 공정성 인식 | 233 |
| [표 4-7-23]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중요성 | 234 |
| [표 4-7-24] 40~50대 대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 | 236 |
| [표 4-7-25]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 | 237 |
| [표 4-7-26]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 238 |
| [표 4-7-27]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239 |
| [표 4-7-28]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241 |
| [표 4-7-29]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 242 |
| [표 4-7-30] 30년 뒤 한국의 미래전망 | 243 |
| [표 4-8-1]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회복 정도 | 244 |
| [표 4-8-2]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예상 회복 시기 | 245 |
| [표 4-8-3]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 | 246 |
| [표 4-8-4]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1순위) | 247 |
| [표 4-8-5]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2순위) | 248 |
| [표 4-9-1] 일자리 관련 사업 | 249 |

| | |
|---|-----|
| [표 4-9-2] 일자리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250 |
| [표 4-9-3] 일자리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취업사관학교 | 251 |
| [표 4-9-4] 일자리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 뉴딜형 일자리 | 252 |
| [표 4-9-5] 주거 관련 사업 | 254 |
| [표 4-9-6] 주거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역세권 청년주택 | 254 |
| [표 4-9-7] 주거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월세지원 | 256 |
| [표 4-9-8] 복지 관련 사업 | 257 |
| [표 4-9-9]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수당 | 258 |
| [표 4-9-10]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영테크 | 259 |
| [표 4-9-11]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마음건강 지원 | 260 |
| [표 4-9-12]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희망두배 청년통장 | 262 |
| [표 4-9-13]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대중교통비 지원 | 263 |
| [표 4-9-14] 참여·공간 사업 | 264 |
| [표 4-9-15] 참여·공간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청년센터 | 264 |
| [표 4-9-16] 중앙정부 주요 사업 | 266 |
| [표 4-9-17]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정부일자리사업 | 267 |
| [표 4-9-18]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국민취업지원제도 | 268 |
| [표 4-9-19]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주택 공급 | 269 |
| [표 4-9-20]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 | 270 |
| [표 4-9-21]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주거비용지원 | 271 |
| [표 4-9-22]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자산형성 지원 | 273 |
| [표 4-9-23]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 274 |
| [표 4-9-24]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1순위) | 275 |
| [표 4-9-25]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2순위) | 276 |
| [표 4-10-1] 위성패널 인구사회학적 특성 | 277 |
| [표 4-10-2]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한 이유 | 279 |
| [표 4-10-3] 향후 서울로 이사 의향 및 이유 | 280 |
| [표 4-10-4] 정기적 통근/통학 | 281 |
| [표 4-10-5] 주된 생활권 | 282 |
| [표 4-10-6] 이사 이후 삶의 만족도 | 283 |
| [표 5-1-1] 인구사회학적 특성 | 287 |
| [표 5-1-2]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289 |
| [표 5-1-3] 주거·경제 특성 | 291 |
| [표 5-1-4] 연령별 주거·경제 특성 | 293 |
| [표 5-2-1] 경제활동상태 | 294 |

| | |
|----------------------------------|-----|
| [표 5-2-2] 부모 동거 특성 | 296 |
| [표 5-2-3]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 297 |
| [표 5-2-4]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 | 298 |
| [표 5-2-5] 혼인 특성 | 299 |
| [표 5-2-6]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 300 |
| [표 5-2-7]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 | 301 |
| [표 5-3-8] 서울청년패널조사 주요 지표 | 305 |
| [표 5-3-9] 경제 지표 | 307 |
| [표 5-3-10] 교육, 역량 지표 | 309 |
| [표 5-3-11] 고용안정 | 311 |
| [표 5-3-12]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 지표 | 313 |
| [표 5-3-13] 주거 지표 | 315 |
| [표 5-3-14] 건강 지표 | 317 |
| [표 5-3-15] 복지 지표 | 319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1] 서울청년패널조사 운영체계 | 5 |
| [그림 1-2-1] 2022 서울청년패널 설문 구성도 | 7 |
| [그림 2-3-1] 서울청년패널(SYPS)의 가중치 부여 체계 | 28 |
| [그림 2-3-2] 자치구별 일반 가중치 분포 | 30 |
| [그림 3-1-1] 조사 설문의 구성 | 35 |
| [그림 3-1-2] 2022 서울청년패널 설문 구성도 | 38 |
| [그림 3-2-1] 조사 명부 및 데이터 관리 매뉴얼 | 54 |
| [그림 3-2-2] 조사 명부와 데이터 관리 | 54 |
| [그림 3-2-3] 조사 명부와 데이터 파기 1 | 55 |
| [그림 3-2-4] 조사 명부와 데이터 파기 2 | 55 |
| [그림 3-2-5] 투입인력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 55 |
| [그림 5-3-1] 청년의 이행과정 및 과업에 따른 삶의 영역별 지표 | 302 |

01

서론

1_조사 배경과 목적

2_조사 개요

3_조사 수행 결과

01. 서론

1_조사 배경과 목적

1) 서울청년패널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들의 삶의 국면도 변화하였고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남.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규모와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인식과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청년정책은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일자리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 금융, 복지, 정신건강, 사회참여, 공간, 공정성과 사회 인식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 삶의 전반으로 영역이 확대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청년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분석에 대해 실증적 분석 요구가 증대됨
 - 최근 수년간 청년의 삶과 고용 상황 및 일자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특히 노동과 일자리, 복지, 경제 등 주요 분야의 정부 정책은 패널조사를 통해 구축한 장기적인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수립하여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청년 삶의 변화와 정책성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분석과 관리,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정책 효과성 점검이 필요함
 - 하지만 단편적 조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 청년기는 삶의 변화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변화의 폭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횡단면조사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 청년의 삶 변화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조사가 필요함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전국단위의 ‘청년 삶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조사내용이 광범위하여 서울시 청년의 특성을 반영할 내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이 직면하게 되는 변화양상을 지속 추적하는 것이 어려움
-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이행기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함
-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정책 수요를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수집이 필수적임
- 이러한 배경과 문제 인식하에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서울청년패널(Seoul Young Adult Panel Study)을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2020년 사전조사를 시행함. 2021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2차 조사를 진행함
- 서울청년패널 조사의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서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 생산
 - 청년 현안 파악 및 청년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마련
 - 서울연구원이 조사책임기관으로서 표본설계 및 실사 관리, 문항 개발, 조사결과 분석, 패널 유지·관리 등을 총괄 수행

2) 서울청년패널의 목적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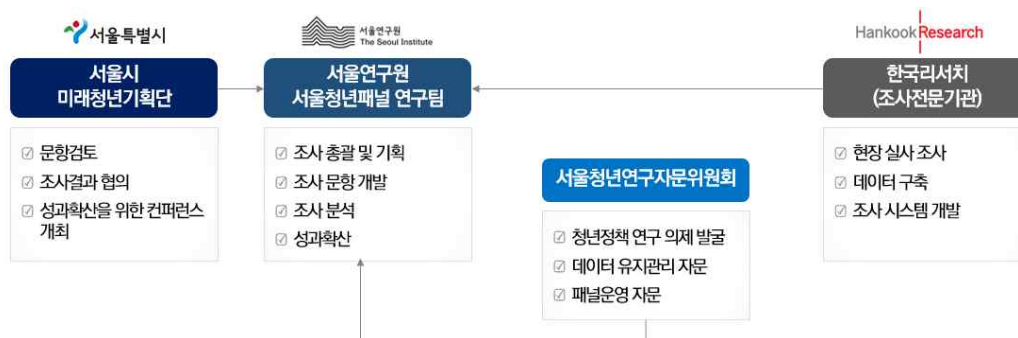
- 서울청년패널(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서울 청년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겪고 있는 다차원적 변화와 생애주기의 이행과정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경제활동상태, 노동시장 진입 준비 과정, 가구 배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반하여 청년세대 내의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생애 위험사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정책 집행과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학계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2022년 9월 22일 서울시, 국무조정실, 학회(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협력하여 서울청년주간 중 「2022년 서울청년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함
- 서울청년패널은 지자체 최초의 패널조사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시기에 성인 이행기(Transitional adulthood)를 보낸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실태와 변화를 추적하는 유일한 자료임. 서울청년패널

은 2021년 당시 만 18-35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이행기 특성과 다차원적 삶의 실태, 코로나19 경험,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구성원에게 미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시기 서울청년의 삶을 추적하는 것은 한국사회 청년세대의 삶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청년패널은 전국단위 횡단면조사인 ‘청년 삶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청년 삶 실태조사’는 전국 청년의 특성을 횡단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청년 개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조사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청년패널은 개인 중심의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청년 삶의 궤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 이에 더해 서울청년패널은 서울 거주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지만,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이주하는 한국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의 한국사회 청년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함
- 서울청년패널은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첫 조사이며, 서울 청년 삶의 현실을 과학적 조사데이터로 구현함. 서울청년패널은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이 제안한 과제이며, 서울청년패널 조사표는 패널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연구자, 청년활동가,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서울청년패널 조사표는 이행기 청년의 특성과 경제 외의 다차원적 영역의 삶의 실태, 나아가 청년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환경에 관한 청년의 인식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됨. 이를 사회 전체 맥락에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청년과 관련한 3가지 쟁점(① 성인이행기의 지연-교육기간 연장과 노동시장 진입, 정착의 지연, ②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에게 전승되는 불평등-계층이동 사다리 단절, ③ 새로운 가구의 형성 기회 격차의 관점에서 저출생 등 사회 지속가능성 약화)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함
- 조사방법에 있어서 서울청년패널은 전면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적용해 안정적인 데이터를 생산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서울청년패널은 대면조사에 관한 거부감이 높은 청년세대의 특성,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기존 사회조사의 전통적 조사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이에 더해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에 관한, 그리고 청년 개인에 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인식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접원을 통한 대면조사보다는 비대면 자기응답 방식이 적합할 수 있음. 이에 서울청년패널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기존 전통적 조사에서 (응답거부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청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 장기적으로 서울청년패널은 사회조사를 통한 정책 발전의 혁신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함. 서울청년패널은 지자체 단위에서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패널조사로, 서울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살피고, 나아가 근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서울청년패널 연구진은 서울청년패널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사 안정성과 전문성,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전문가, 정책전문가,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청년패널의 데이터 품질 향상과 체계적 패널 관리를 위해 패널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함. 또한 조사 결과가 서울시 청년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그림 1-1-1] 서울청년패널조사 운영체계

2_조사 개요

1) 표본추출

- 서울청년패널은 2021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이 되는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만 18세에서 35세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2022년 2차 서울청년패널 조사대상은 2021년 1차 서울청년패널 조사완료자(5,194명)²⁾이며, 원표본 3,944명과 신규표본 1,321명, 위성패널 182명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5,265명 조사 완료
 - 원표본 중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응답 시점에 군복무 또는 서울 외 지역 이사진 표본에 대해서는 위성패널을 구축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함
 - 최종조사 완료자는 원표본 3,944명으로 표본유지율은 75.9%였음. 위성패널은 182명(1차 조사 완료 원표본의 3.5%)이었음
- 2022년 2차 조사에는 표본 마모를 고려하여 신규표본을 추가함. 신규표본의 표본추출틀은 원표본과 추출 시 사용한 집계구를 최대한 유지하였음. 또한 1차 이후 이탈한 패널의 성, 연령을 고려한 자치구의 총표본을 유지하는 등의 표본할당을 하여 성별, 연령이 골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함
 - 신규표본 구축 시 조사대상자 확보를 위해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함. 통신사 데이터는 조사대상 집계구를 확인한 뒤 해당 집계구 내 거주하는 통신사 가입자 중 조사참여 의향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용함
 - 추출된 집계구 내 통신사(SKT 텔레콤) 가입자 중 출생 연도가 1987-2003년이면 서, 조사대상 집계구 내에 있는 행정동 거주하는 가입자 총 463,553명을 대상으로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 의향을 묻는 사전조사 링크를 발송하였음. 이 중 총 18,400명이 사전조사에 자계식으로 응답함. 자계식 사전조사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성, 연령, 주소 정보를 검증하여 추출 집계구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적합한 조사대상자에 한정해 이 조사를 진행함
 - 조사 집계구를 먼저 확정하였고, 응답자에게는 집계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 정보를 파악하여 추출 집계구 내 실제 거주하는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표본 편향(bias)인 응답자 편의가 생길 가능성이 낮음
 - 또한 서울청년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이며, 표집틀은 집계구임. SKT 통신사 협조를 받아 사전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응답자 모

²⁾ 목표 표본은 5,000명이었으며, 1차 조사 결과 5,194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2021년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 앞서 실시한 2020년 사전조사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하여 2020년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

집이나 조사 방법을 다각화한 것으로 2021년 조사 완료자와 모집단이나 표집틀은 동일함. 즉, 서울청년을 단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사방법이 가중치(설계, 무응답, 사후층화)를 고려하는데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SKT 텔레콤 협조를 통한 최종 유효표본은 1,321명임

2) 조사표 구성

- 2022년 서울청년패널의 조사표는 원표본 조사표, (원표본)위성패널 조사표, 신규표본 조사표로 구성됨
 - 원표본 조사표와 (원표본)위성패널 조사표는 원표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나 조사 응답 시점에 서울 거주 여부에 따라서 서울 거주자는 원표본 조사표를, 군복무자 또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원표본)위성패널 조사표에 응답함
 - 2022년 신규조사 참여자는 신규표본 조사표에 응답함



[그림 1-2-1] 2022 서울청년패널 설문 구성도

3) 조사방법

- 2022년 서울청년패널 조사방식은 CAWI / CAMI / TAPI를 결합한 다중 방식(Multi Method)을 활용함
 - 첫째,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는 조사설문지를 응답자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사임. 둘째, CAMI(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ing)는 조사설문지를 응답자의 모바일

일을 통해 조사하여 신속한 의견 취합 가능한 방식임. 마지막으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는 면접원이 태블릿을 통해 구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직접 응답자에게 질의 응답하여 조사하는 방식임

- 원표본은 조사전문기관의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활용해 응답자 핸드폰과 이메일로 개인별 조사 링크를 발송한 뒤 조사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계식으로 진행하였음
- 2022년에 모집한 신규표본은 CAWI/CAMI 조사링크를 응답자에게 발송하여 자계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3_조사 수행 결과

1) 주요 변경사항

- 2022년 서울청년패널에서는 원표본 중 2022년 서울청년패널 응답시점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일부 원표본에 대해서는 위성패널을 구축하였음
 - 서울 청년의 높은 지역 이동률을 고려하여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한 표본은 위성패널로 관리하며 추적조사 병행, 서울에서 서울 외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표본의 연령이 낮을수록 표본이탈 위험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이경희·민인식, 2015; 이상호·이혜정, 2017)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일수록 표본이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이경희·민인식, 2015; 이상호·이혜정, 2017; 천영민·조아름, 2017)를 고려하여 2022년 서울청년패널 조사에서 신규표본을 추가함
 - 원표본 유지율과 서울청년패널의 향후 표본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신규표본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표본 감소의 문제를 완화하고 분석의 안정성을 높임
- 조사내용 관련 변경사항
 - 최종 조사표는 내부 연구진 회의, 전문가 서면 검토, 서울시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문항 검토 시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함. 첫째, 조사 신뢰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문항 축소 둘째, 연 단위 반복조사에서 주기조사로 변경이 필요한 문항 선정임
 - 최종적으로 2021년 8개 영역에서 2022년 7개 영역으로 축소하였으며, 코로나 관련 영역을 부가조사와 삶의 여건과 인식 파트로 조정함. 청년정책 경험과 평가 영역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의 협의로 최종 확정함
 - 조사문항수는 2021년 216개에서 2022년 178개로 조정됨

2) 조사결과

- 2021년 1차 서울청년패널조사 완료 표본 기준으로 2차 서울청년패널조사 예정 표본은 총 5,194명임. 이 중 2020년도 사전조사로 구축한 표본은 754명이며, 2021년도 조사로 구축한 표본은 4,440명임

[표 1-3-1] 원표본 지역/성/연령별 유효표본 현황

| 구분 | 2021년 완료 기준 조사 예정 표본 수(명) |
|--------------|---------------------------|
| 20년 사전 조사 구축 | 754 |
| 21년 1차 조사 구축 | 4,440 |
| 총계 | 5,194 |

- 2021년 1차 조사를 완료한 2차 연도 조사 예정자 5,194명 중 3,948명이 2022년 2차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완료율은 76.0%임. 2차 조사 완료자 중 사후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응답 비적격자로 판별되는 경우 유효표본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결과 4명이 제외되어 최종 3,944명의 유효표본을 확정함. 유효표본 기준 최종 조사 완료율은 75.9%임
- 2021년 1차 조사를 완료한 2차 조사 예정 표본 5,194명 중 다른 지역 이어나 군입대로 2022년 조사 시점 당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성패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조사 완료자 3,944명 중 4.6%인 182명이 위성패널 조사를 완료함

[표 1-3-2] 유효표본 현황

| 구분 | 18-24세 | | 25-29세 | | 30-35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기존 패널 전체 | 560 | 646 | 625 | 797 | 621 | 695 | 3,944 |
| 본조사 | 488 | 625 | 601 | 772 | 599 | 677 | 3,762 |
| 위성패널 조사 전체 | 72 | 21 | 24 | 25 | 22 | 18 | 182 |
| 이사 | 31 | 21 | 21 | 25 | 22 | 18 | 138 |
| 군복무 | 41 | 0 | 3 | 0 | 0 | 0 | 44 |

- 2021년 1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5,194명 중 2022년 2차 조사 미완료 표본은 1,246명임. 완료자 중 4명이 사후 검증 과정에서 비적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미완료 표본으로 추가 분류되어 2차 조사대상자 중 총 1,250명이 미완료임. 2차 미완료인 1,250명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8-24세 남성의 미완료 비율이 31.3%(255명)로 가장 높고, 이어서 18-24세 여성(28.0%, 251명), 25-29세 남성(27.0%, 231명) 순임. 20대 남성이 미완료 응답 비율이 특히 높은데, 18-29세 남성의 미완료자가 총 486명으로 전체 미완료자 중 38.9%에 달함
- 2차 미완료로 인한 패널 마모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표본을 구축하였으며 총 1,321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함

[표 1-3-3] 원표본 지역/성/연령별 미완료 표본 현황

| 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5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18 | 12 | 9 | 10 | 7 | 6 | 62 |
| 강동구 | 15 | 9 | 11 | 7 | 7 | 6 | 55 |
| 강북구 | 4 | 12 | 9 | 8 | 9 | 5 | 47 |
| 강서구 | 11 | 16 | 11 | 12 | 8 | 7 | 65 |
| 관악구 | 13 | 14 | 22 | 19 | 7 | 4 | 79 |
| 광진구 | 1 | 2 | 7 | 2 | 4 | 5 | 21 |
| 구로구 | 11 | 13 | 14 | 13 | 13 | 8 | 72 |
| 금천구 | 5 | 2 | 10 | 2 | 3 | 2 | 24 |
| 노원구 | 18 | 13 | 8 | 9 | 9 | 5 | 62 |
| 도봉구 | 10 | 6 | 7 | 7 | 4 | 5 | 39 |
| 동대문구 | 14 | 12 | 5 | 10 | 6 | 10 | 57 |
| 동작구 | 12 | 5 | 7 | 9 | 2 | 7 | 42 |
| 마포구 | 9 | 14 | 8 | 14 | 9 | 8 | 62 |
| 서대문구 | 13 | 12 | 9 | 4 | 9 | 4 | 51 |
| 서초구 | 18 | 11 | 12 | 10 | 14 | 11 | 76 |
| 성동구 | 5 | 9 | 6 | 1 | 1 | 1 | 23 |
| 성북구 | 3 | 10 | 3 | 8 | 6 | 0 | 30 |
| 송파구 | 7 | 8 | 9 | 3 | 5 | 5 | 37 |
| 양천구 | 11 | 8 | 4 | 3 | 3 | 5 | 34 |
| 영등포구 | 11 | 11 | 9 | 15 | 8 | 13 | 67 |
| 용산구 | 6 | 6 | 7 | 3 | 4 | 5 | 31 |
| 은평구 | 17 | 15 | 14 | 4 | 9 | 6 | 65 |
| 종로구 | 13 | 11 | 9 | 7 | 9 | 4 | 53 |
| 중구 | 2 | 3 | 5 | 5 | 3 | 2 | 20 |
| 중랑구 | 8 | 17 | 16 | 16 | 10 | 9 | 76 |
| 합계 | 255 | 251 | 231 | 201 | 169 | 143 | 1,250 |

- 본 보고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 통합표본을 활용한 영역별 세부 문항의 기초통계와 2021년 1차 조사와 2022년 2차 조사 모두 참여한 원표본을 대상으로 핵심 지표에 대해 종단적 변화를 분석함
 - 2장에서는 통합표본 5,194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횡단면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과 훈련, 일자리, 삶의 여건과 인식 등 청년의 전반적 삶을 분석함
 - 3장에서는 원표본을 대상으로 2021년과 2022년 2년간 종단적 변화를 확인함. 표본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주요 핵심지표는 종단면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핵심 지표는 변금선·이혜림(2021)의 연구에서 도출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활용함
- 서울청년패널을 활용한 다양한 영역의 심층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4개 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와 협력하여 연구주제를 발굴함. 선정된 연구주제는 ‘2023 서울청년정책 콘퍼런스’에서 발표 후 심층분석 보고서로 별도 발간할 예정임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decorated with a series of vertical lines and rounded rectangular shapes. These shapes are arranged in a symmetrical pattern, with the central column being the widest and the outer columns being narrower. The lines are light gray and the rounded rectangles are a slightly darker shade of gray.

02

표본설계

1_표본설계

2_표본 규모

3_표본 현황과 가중치

02. 표본설계

1_표본설계

1) 모집단의 정의

- 목표 모집단은 2021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이 되는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만 18-34세의 내국인임
 - 서울시 만 18-34세 청년의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18-24세, 25-29세, 30-34세) 분포는 다음 [표 2-1-1]과 같음
 - 목표 모집단은 총 2,313,636명으로 여성은 1,182,549명(51.1%), 남성은 1,131,087명(48.9%)임
 - 조사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가구방문조사로 접촉이 가능한 주택(아파트와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내국인임

[표 2-1-1]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2021년 11월 말 기준)

| 자치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4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21,349 | 22,013 | 18,243 | 20,534 | 17,734 | 20,042 | 119,915 |
| 강동구 | 16,971 | 16,697 | 16,723 | 17,981 | 16,985 | 17,353 | 102,710 |
| 강북구 | 11,259 | 12,171 | 11,436 | 11,073 | 9,570 | 8,909 | 64,418 |
| 강서구 | 20,161 | 22,281 | 23,888 | 28,794 | 25,125 | 25,452 | 145,701 |
| 관악구 | 20,180 | 24,362 | 35,596 | 34,417 | 27,805 | 21,930 | 164,290 |
| 광진구 | 14,049 | 16,446 | 17,500 | 19,051 | 14,503 | 14,717 | 96,266 |
| 구로구 | 14,157 | 14,498 | 15,382 | 16,013 | 15,505 | 15,227 | 90,782 |
| 금천구 | 8,152 | 8,801 | 11,782 | 11,587 | 10,993 | 8,926 | 60,241 |
| 노원구 | 23,960 | 23,016 | 17,625 | 16,660 | 15,265 | 15,141 | 111,667 |
| 도봉구 | 12,533 | 12,306 | 11,374 | 10,940 | 9,699 | 9,373 | 66,225 |
| 동대문구 | 14,213 | 16,847 | 15,798 | 14,610 | 12,557 | 11,954 | 85,979 |
| 동작구 | 15,545 | 17,306 | 18,874 | 19,371 | 16,162 | 15,828 | 103,086 |
| 마포구 | 13,856 | 17,015 | 16,516 | 19,627 | 14,943 | 17,306 | 99,263 |
| 서대문구 | 12,371 | 14,604 | 13,395 | 13,606 | 10,920 | 11,288 | 76,184 |

| 자치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4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서초구 | 15,833 | 16,273 | 13,352 | 14,848 | 13,197 | 15,302 | 88,805 |
| 성동구 | 11,005 | 11,979 | 12,503 | 12,445 | 11,069 | 11,984 | 70,985 |
| 성북구 | 18,329 | 21,359 | 17,031 | 16,930 | 14,227 | 14,155 | 102,031 |
| 송파구 | 24,711 | 25,428 | 24,318 | 27,677 | 25,095 | 27,398 | 154,627 |
| 양천구 | 19,331 | 18,161 | 15,053 | 14,923 | 13,220 | 13,156 | 93,844 |
| 영등포구 | 12,632 | 14,099 | 17,234 | 19,782 | 18,399 | 18,252 | 100,398 |
| 용산구 | 7,811 | 8,723 | 9,215 | 10,157 | 9,601 | 9,757 | 55,264 |
| 은평구 | 17,925 | 18,680 | 17,396 | 19,465 | 16,052 | 17,050 | 106,568 |
| 종로구 | 5,737 | 6,638 | 6,395 | 6,376 | 5,111 | 5,066 | 35,323 |
| 중구 | 4,035 | 4,858 | 5,148 | 5,695 | 5,104 | 5,155 | 29,995 |
| 중랑구 | 13,972 | 14,083 | 15,621 | 16,340 | 14,771 | 14,282 | 89,069 |
| 합계 | 370,077 | 398,644 | 397,398 | 418,902 | 363,612 | 365,003 | 2,313,636 |

2) 표본추출틀

- 2022년 서울청년패널은 2021년 1차 조사에서 구축한 패널을 표본추출틀로 하여 전 수 재접촉 및 패널 유지를 목표로 하며, 2022년 당해연도 패널 이탈과 향후 패널 유지를 고려하여 추가로 신규표본을 구축하고자 함
 - 본 조사는 2021년 당시 만 18-34세 청년을 추적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표본은 1세 증가한 만 19-35세 청년이 대상임
- 신규표본 구축을 위한 표본추출틀은 2020년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2020년 통계청 집계구를 사용함
 - 서울청년패널의 표집틀은 2020년 기준 통계청 집계구임.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시 전체 집계구 수는 18,748개이며, 이 중 표본 집계구를 추출하여 조사 수행
 - 집계구는 조사구와 다르게 가구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집계구 내 가구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청년패널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추출집계구 방식은 차선택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표본설계라고 볼 수 있음
 - 조사구는 통계조사 시 조사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전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화한 것으로, 읍·면·동별 지도상에 건물, 거처, 가구 수 등을 감안하며 구역을 분할한 것임. 조사구의 인구 규모는 개별조사구의 경우 평균 30가구 내외이며 병합조사구는 평균 60가구 내외임. 통계청에서는 조사구에 대해 등록(행정)자료³⁾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주소, 가구주 성명 및 거처번호 등이 포함된 가구명부를 작성하여 조사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따

3)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한 것으로 등록센서스 자료를 말함

라서 조사구를 표집틀로 사용할 경우 가구명부를 활용할 수 있어 조사의 편의성이
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집계구 역시 조사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전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한 것임. 집계구는 기초단위구⁴⁾를 기반으로 인구 규모(최적 500명), 사회
경제적 동질성(주택유형, 지가), 집계구 형상을 고려하여 구축한 통계 집계구역임.
집계구의 인구 규모는 최소 300명, 최적 500명, 최대인구 1,000명으로 집계구 단
위로 산출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구 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 개
인정보를 보호하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함. 또한 건물을 단독,
아파트, 비거주용으로 분류하고 기초단위구별로 주택유형을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
로 각 집계구가 비슷한 주택유형을 가지게끔 구획화하여 집계구 내 사회경제적 동
질성을 확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필지별 지가를 기반으로 평균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집계구가 유사한 평균지가를 가지도록 하여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
함. 조사 단계에서 조사 수행자의 지역 형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분석 단계에
서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계구의 형태를 단순하게 구획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집계구는 정방형의 형상을 함
- 조사구 조사는 가구명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하지만 청
년패널조사는 집계구역 내 만18-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층의 인구 구성
비를 고려할 때, 집계구역 규모가 작으면 조사 난이도가 높아져 조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함. 또한 집계구역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작아지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승인통계가 아니라 조사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사구를 사용
한다 하더라도 청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구 사용으로 인한 한계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집계구 방식이 적절한 표본설계라고 볼 수 있음

⁴⁾ 도로, 하천 등 준 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획정한 구역으로 조사구 설정 또는 근린지역 통계서비스를 위한 최하 단위구역을
말함

2_표본 규모

1) 표본 크기와 배분

- 2021년 1차 조사 완료한 원표본을 추적 조사하여 1차 조사의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표본 크기와 배분을 유지하고자 함
- 서울청년패널은 서울시라는 지역, 청년이라는 연령집단의 특성이 중첩되는 서울청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로 표본이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패널조사 대상 표본의 연령이 낮을수록(이경희·민인식, 2015; 이상호·이혜정, 2017),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일수록 표본이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경희·민인식, 2015; 이상호·이혜정, 2017; 천영민·조아름, 2017)을 보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의 표본이탈 위험이 클 수 있음
 - 다른 패널조사(한국복지패널,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 등)에서도 표본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표본을 추가한 바 있으며, 신규표본 구축 이후에는 표본 유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⁵⁾
- 2022년 서울청년패널은 2021년 구축한 원표본의 추적 불가나 강력 거절로 인한 표본이탈을 고려하여 1-5차 종단 및 횡단 분석을 위한 유효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표본을 추가함
 - 표본이탈로 인한 패널마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패널 지속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서면검토, 조사 수행 기관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함. 패널 마모 대응 방안에 대한 총 2개의 안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규표본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신규표본 추가 시 2022년 구축한 신규표본을 포함하여 2-5차(2022-2025년) 종단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종단분석 가능 차수가 2-4차로 한정되며(1차 제외), 패널조사 특성상 차수가 높아질수록 전체 표본 수는 감소하며 횡단 분석을 위한 가중값이 2차 이후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
 - 표본 대체 방식은 원표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므로 1-5차(2021-2025년) 종단분석이 가능하며, 횡단 분석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2022년 이후 전체 표본이 4,000명으로 감소한다는 한계를 가짐

⁵⁾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 신규표본을 구축해 청년 표본 유지율이 구축 전 75.5%(2011년)에서 90.4%로 증가함. 청년패널은 2015년 신규표본 구축으로 청년 표본 유지율이 73.0%(2014년 기준)에서 89.4%로 올라감. 한국노동패널은 2018년 신규표본 구축에 따라 청년 표본 유지율이 84.4%(2017년)에서 87.2%로 증가함.

[표 2-2-1] 패널 마모 대응(안)

| 구분 | 신규표본 추가 | 표본 대체 |
|----|---|----------------------------|
| 장점 | 2022년 구축한 신규표본 포함 2-5차 종단분석 가능 | 1-5차 종단분석 가능, 횡단분석 안정성 높음 |
| 단점 | 신규표본은 종단분석이 2-5차로 한정 횡단분석 가중값 증가(특정 사례 과대대표) | 2차 조사 이후 표본 규모 4,000명으로 감소 |

- 2022년 신규표본 규모는 최종 5차 조사의 예상 표본 규모와 각 차수의 횡단 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 수를 고려하여, 1,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표본이탈률이 높은 대상자의 특성(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469명의 신규표본을 구축함
- 신규표본은 1차 조사 후 이탈한 패널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2022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시 사용한 집계구를 최대한 유지하고 기존 집계구에서 추가 조사가 어려운 경우 목표 표본인 1,469명을 조사하기 위해 신규 집계구 238개를 추가 추출함. 구별 기존 및 신규 집계구 현황은 [표 2-2-2]와 같음
- 신규표본 집계구는 구별 표본 집계구가 행정동에서 고르게 추출될 수 있도록 행정동의 행정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조사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으로 추출함

[표 2-2-2] 추출 집계구

| 구별 | 추출 집계구(개) | | |
|------|-----------|-----------------|-----------------|
| | 모집단 | 2021년 추출 기존 집계구 | 2022년 추출 신규 집계구 |
| 강남구 | 1,017 | 71 | 15 |
| 강동구 | 823 | 63 | 9 |
| 강북구 | 603 | 41 | 11 |
| 강서구 | 1,136 | 88 | 10 |
| 관악구 | 953 | 100 | 11 |
| 광진구 | 674 | 59 | 0 |
| 구로구 | 783 | 55 | 14 |
| 금천구 | 436 | 36 | 4 |
| 노원구 | 1,078 | 80 | 13 |
| 도봉구 | 652 | 49 | 15 |
| 동대문구 | 685 | 46 | 9 |
| 동작구 | 754 | 64 | 7 |
| 마포구 | 730 | 61 | 18 |
| 서대문구 | 615 | 50 | 5 |
| 서초구 | 828 | 58 | 19 |
| 성동구 | 582 | 39 | 2 |
| 성북구 | 883 | 67 | 1 |
| 송파구 | 1,286 | 96 | 17 |
| 양천구 | 874 | 60 | 7 |
| 영등포구 | 722 | 61 | 9 |
| 용산구 | 431 | 32 | 2 |
| 은평구 | 912 | 73 | 15 |
| 종로구 | 282 | 39 | 8 |
| 중구 | 237 | 26 | 4 |
| 중랑구 | 772 | 50 | 13 |
| 합계 | 18,748 | 1,464 | 238 |

- 21년 1차 조사 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했으며, 2차 조사의 신규표본은 1차 이후 이탈한 표본의 자치구, 성, 연령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총표본 규모를 유지하며 성별, 연령대별로 골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표본을 할당함

[표 2-2-3] 2021년 1차 조사 목표 표본 수

| 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4세 | | 합계(명) | 추출 집계구 (개)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강남구 | 46 | 48 | 39 | 44 | 38 | 43 | 258 | 81 |
| 강동구 | 37 | 36 | 36 | 39 | 37 | 37 | 222 | 63 |
| 강북구 | 24 | 26 | 25 | 24 | 21 | 19 | 139 | 42 |
| 강서구 | 44 | 48 | 52 | 62 | 54 | 55 | 315 | 90 |
| 관악구 | 44 | 53 | 77 | 74 | 60 | 47 | 355 | 96 |
| 광진구 | 30 | 36 | 38 | 41 | 31 | 32 | 208 | 60 |
| 구로구 | 31 | 31 | 33 | 35 | 33 | 33 | 196 | 57 |
| 금천구 | 18 | 19 | 25 | 25 | 24 | 19 | 130 | 42 |
| 노원구 | 52 | 50 | 38 | 36 | 33 | 33 | 242 | 75 |
| 도봉구 | 27 | 27 | 25 | 24 | 21 | 20 | 144 | 45 |
| 동대문구 | 31 | 36 | 34 | 32 | 27 | 26 | 186 | 51 |
| 동작구 | 34 | 37 | 41 | 42 | 35 | 34 | 223 | 63 |
| 마포구 | 30 | 37 | 36 | 42 | 32 | 37 | 214 | 60 |
| 서대문구 | 27 | 32 | 29 | 29 | 24 | 24 | 165 | 48 |
| 서초구 | 34 | 35 | 29 | 32 | 28 | 33 | 191 | 60 |
| 성동구 | 24 | 26 | 27 | 27 | 24 | 26 | 154 | 45 |
| 성북구 | 40 | 46 | 37 | 37 | 31 | 31 | 222 | 63 |
| 송파구 | 53 | 55 | 53 | 60 | 54 | 59 | 334 | 102 |
| 양천구 | 42 | 39 | 33 | 32 | 29 | 28 | 203 | 63 |
| 영등포구 | 27 | 30 | 37 | 43 | 40 | 39 | 216 | 57 |
| 용산구 | 17 | 19 | 20 | 22 | 21 | 21 | 120 | 42 |
| 은평구 | 39 | 40 | 38 | 42 | 35 | 37 | 231 | 66 |
| 종로구 | 12 | 14 | 14 | 14 | 11 | 11 | 76 | 39 |
| 중구 | 9 | 10 | 11 | 12 | 11 | 11 | 64 | 36 |
| 중랑구 | 30 | 30 | 34 | 35 | 32 | 31 | 192 | 54 |
| 합계 | 802 | 860 | 861 | 905 | 786 | 786 | 5,000 | 1,500 |

- 2022년 추가한 신규표본의 연령은 1세가 증가한 만 19세에서 35세 청년으로, 신규 추출한 집계구와 목표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음

[표 2-2-4] 2022년 신규표본 목표 표본 수

| 구별 | 19-25세 | | 26-30세 | | 31-35세 | | 합계(명) | 추출 집계구 (개)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강남구 | 23 | 17 | 10 | 12 | 9 | 6 | 77 | 15 |
| 강동구 | 15 | 11 | 14 | 7 | 8 | 7 | 62 | 9 |
| 강북구 | 6 | 12 | 11 | 8 | 9 | 5 | 51 | 11 |
| 강서구 | 17 | 17 | 12 | 13 | 9 | 9 | 77 | 10 |
| 관악구 | 17 | 18 | 25 | 20 | 7 | 4 | 91 | 11 |
| 광진구 | 2 | 3 | 8 | 4 | 5 | 6 | 28 | 0 |
| 구로구 | 17 | 18 | 16 | 14 | 15 | 11 | 91 | 14 |
| 금천구 | 6 | 3 | 10 | 3 | 4 | 4 | 30 | 4 |
| 노원구 | 25 | 18 | 10 | 10 | 9 | 6 | 78 | 13 |
| 도봉구 | 13 | 6 | 9 | 7 | 4 | 5 | 44 | 15 |
| 동대문구 | 14 | 14 | 5 | 10 | 6 | 10 | 59 | 9 |
| 동작구 | 17 | 5 | 9 | 10 | 6 | 9 | 56 | 7 |
| 마포구 | 11 | 19 | 9 | 17 | 9 | 8 | 73 | 18 |
| 서대문구 | 14 | 16 | 9 | 5 | 9 | 6 | 59 | 5 |
| 서초구 | 19 | 12 | 12 | 11 | 17 | 12 | 83 | 19 |
| 성동구 | 5 | 11 | 6 | 2 | 2 | 2 | 28 | 2 |
| 성북구 | 5 | 11 | 5 | 8 | 6 | 1 | 36 | 1 |
| 송파구 | 9 | 8 | 10 | 5 | 5 | 6 | 43 | 17 |
| 양천구 | 14 | 10 | 5 | 4 | 3 | 6 | 42 | 7 |
| 영등포구 | 11 | 12 | 12 | 19 | 11 | 14 | 79 | 9 |
| 용산구 | 11 | 6 | 7 | 3 | 4 | 6 | 37 | 2 |
| 은평구 | 24 | 17 | 16 | 6 | 10 | 6 | 79 | 15 |
| 종로구 | 15 | 12 | 9 | 7 | 8 | 6 | 57 | 8 |
| 중구 | 2 | 4 | 6 | 6 | 3 | 3 | 24 | 4 |
| 중랑구 | 9 | 17 | 20 | 18 | 11 | 10 | 85 | 13 |
| 합계 | 321 | 297 | 265 | 229 | 189 | 168 | 1,469 | 238 |

- 2022년 신규표본 목표 수립 이후, 이탈로 추정되었던 원표본의 조사 성공으로 자치구의 총표본 규모를 유지하고, 자치구 내에서 성별 및 연령대별로 골고루 조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여 최종 완료 신규표본 수는 1,321명임

[표 2-2-5] 2022년 신규표본 완료 표본 수

| 구별 | 19-25세 | | 26-30세 | | 31-35세 | | 합계(명) | 추출 집계구 (개)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강남구 | 18 | 15 | 8 | 15 | 9 | 7 | 72 | 15 |
| 강동구 | 15 | 13 | 9 | 3 | 6 | 2 | 48 | 9 |
| 강북구 | 2 | 19 | 14 | 4 | 8 | 3 | 50 | 11 |
| 강서구 | 15 | 13 | 14 | 14 | 7 | 5 | 68 | 10 |
| 관악구 | 19 | 21 | 23 | 24 | 8 | 6 | 101 | 11 |
| 광진구 | 3 | 2 | 6 | 2 | 1 | 4 | 18 | 0 |
| 구로구 | 17 | 16 | 13 | 9 | 13 | 7 | 75 | 14 |
| 금천구 | 4 | 2 | 13 | 5 | 3 | 4 | 31 | 4 |
| 노원구 | 22 | 19 | 11 | 7 | 6 | 7 | 72 | 13 |
| 도봉구 | 11 | 4 | 6 | 3 | 4 | 6 | 34 | 15 |
| 동대문구 | 13 | 18 | 5 | 7 | 5 | 8 | 56 | 9 |
| 동작구 | 16 | 1 | 6 | 14 | 2 | 4 | 43 | 7 |
| 마포구 | 12 | 18 | 6 | 19 | 7 | 5 | 67 | 18 |
| 서대문구 | 14 | 15 | 6 | 5 | 6 | 5 | 51 | 5 |
| 서초구 | 14 | 15 | 20 | 9 | 9 | 13 | 80 | 19 |
| 성동구 | 6 | 8 | 7 | 3 | 4 | 2 | 30 | 2 |
| 성북구 | 7 | 11 | 2 | 8 | 4 | 1 | 33 | 1 |
| 송파구 | 24 | 19 | 16 | 5 | 6 | 7 | 77 | 17 |
| 양천구 | 12 | 5 | 1 | 2 | 2 | 3 | 25 | 7 |
| 영등포구 | 10 | 13 | 5 | 19 | 9 | 8 | 64 | 9 |
| 용산구 | 4 | 6 | 6 | 3 | 3 | 4 | 26 | 2 |
| 은평구 | 16 | 17 | 15 | 3 | 9 | 4 | 64 | 15 |
| 종로구 | 9 | 14 | 8 | 5 | 5 | 4 | 45 | 8 |
| 중구 | 1 | 4 | 3 | 2 | 2 | 4 | 16 | 4 |
| 중랑구 | 5 | 17 | 20 | 20 | 8 | 5 | 75 | 13 |
| 합계 | 289 | 305 | 243 | 210 | 146 | 128 | 1,321 | 238 |

3_표본 현황과 가중치

1) 유효표본 현황

(1) 원표본 현황

- 2021년도 1차 조사에서 구축한 5,194명에 대해 조사 후 응답자 본인이 응답하는 자
제식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오류를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3,944명의 유효표본
을 확정하였음
 - 해당 수치에는 위성패널 182명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청년패널조사(SYPS)의 모집단은 만 18-34세이나, 2021년도 1차 조사 표본 구축
시 2020년 사전조사 예비패널 만 34세 응답자가 포함되어 당시 유효표본에 만 35세
청년을 포함함. 따라서 원표본의 유효표본은 2021년 당시 만 18-35세 청년임
 - 목표 모집단의 연령은 만 18-34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의 범위는 만 19-39세이므로 기존 응답자가 만 39세가 되는 시점까지 조
사에 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2021년도 1차 조사 기준 모집단 연령이 만 18-34세 청년이지만, 실제 유효
표본에 35세 청년이 있어 모집단 추정 관련 통계 자문위원에게 문의한 결과, 가중
치 부여 시 연령 구간별로 하고 있으며, 35세 청년의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2-3-1] 원표본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유효표본 현황(2021년 조사 당시 연령)

| 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5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27 | 33 | 31 | 38 | 29 | 37 | 195 |
| 강동구 | 24 | 27 | 19 | 35 | 32 | 32 | 169 |
| 강북구 | 18 | 14 | 12 | 18 | 10 | 14 | 86 |
| 강서구 | 23 | 35 | 32 | 52 | 49 | 51 | 242 |
| 관악구 | 38 | 43 | 62 | 57 | 53 | 51 | 304 |
| 광진구 | 23 | 27 | 35 | 45 | 26 | 26 | 182 |
| 구로구 | 19 | 26 | 21 | 29 | 22 | 27 | 144 |
| 금천구 | 9 | 18 | 9 | 24 | 22 | 18 | 100 |
| 노원구 | 49 | 47 | 35 | 31 | 24 | 34 | 220 |
| 도봉구 | 16 | 29 | 13 | 21 | 22 | 17 | 118 |
| 동대문구 | 17 | 21 | 26 | 24 | 17 | 17 | 122 |
| 동작구 | 28 | 36 | 28 | 44 | 36 | 29 | 201 |
| 마포구 | 21 | 32 | 35 | 41 | 20 | 31 | 180 |
| 서대문구 | 23 | 22 | 23 | 25 | 18 | 23 | 134 |
| 서초구 | 18 | 16 | 22 | 26 | 19 | 22 | 123 |
| 성동구 | 17 | 12 | 20 | 28 | 17 | 18 | 112 |

| 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5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성북구 | 36 | 35 | 34 | 32 | 19 | 33 | 189 |
| 송파구 | 25 | 36 | 33 | 56 | 40 | 53 | 243 |
| 양천구 | 29 | 33 | 26 | 30 | 29 | 30 | 177 |
| 영등포구 | 17 | 19 | 25 | 30 | 38 | 30 | 159 |
| 용산구 | 12 | 14 | 14 | 21 | 10 | 17 | 88 |
| 은평구 | 24 | 33 | 25 | 47 | 26 | 34 | 189 |
| 종로구 | 18 | 12 | 13 | 15 | 11 | 11 | 80 |
| 중구 | 8 | 11 | 9 | 9 | 12 | 15 | 64 |
| 중랑구 | 21 | 15 | 23 | 19 | 20 | 25 | 123 |
| 합계 | 560 | 646 | 625 | 797 | 621 | 695 | 3,944 |

[표 2-3-2] 원표본 표본 유지율(2021년 조사 당시 연령)

| 구별 | 18-24세 | | 25-29세 | | 30-35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60.0 | 73.3 | 77.5 | 79.2 | 80.6 | 86.0 | 75.9 |
| 강동구 | 61.5 | 75.0 | 63.3 | 83.3 | 82.1 | 84.2 | 75.4 |
| 강북구 | 81.8 | 53.8 | 57.1 | 69.2 | 52.6 | 73.7 | 64.7 |
| 강서구 | 67.6 | 68.6 | 74.4 | 81.3 | 86.0 | 87.9 | 78.8 |
| 관악구 | 74.5 | 75.4 | 73.8 | 75.0 | 88.3 | 92.7 | 79.4 |
| 광진구 | 95.8 | 93.1 | 83.3 | 95.7 | 86.7 | 83.9 | 89.7 |
| 구로구 | 63.3 | 66.7 | 60.0 | 69.0 | 62.9 | 77.1 | 66.7 |
| 금천구 | 64.3 | 90.0 | 47.4 | 92.3 | 88.0 | 90.0 | 80.6 |
| 노원구 | 73.1 | 78.3 | 81.4 | 77.5 | 72.7 | 87.2 | 78.0 |
| 도봉구 | 61.5 | 82.9 | 65.0 | 75.0 | 84.6 | 77.3 | 75.2 |
| 동대문구 | 54.8 | 63.6 | 83.9 | 70.6 | 73.9 | 63.0 | 68.2 |
| 동작구 | 70.0 | 87.8 | 80.0 | 83.0 | 94.7 | 80.6 | 82.7 |
| 마포구 | 70.0 | 69.6 | 81.4 | 74.5 | 69.0 | 79.5 | 74.4 |
| 서대문구 | 63.9 | 64.7 | 71.9 | 86.2 | 66.7 | 85.2 | 72.4 |
| 서초구 | 50.0 | 59.3 | 64.7 | 72.2 | 57.6 | 66.7 | 61.8 |
| 성동구 | 77.3 | 57.1 | 76.9 | 96.6 | 94.4 | 94.7 | 83.0 |
| 성북구 | 92.3 | 77.8 | 91.9 | 80.0 | 76.0 | 100.0 | 86.3 |
| 송파구 | 78.1 | 81.8 | 78.6 | 94.9 | 88.9 | 91.4 | 86.8 |
| 양천구 | 72.5 | 80.5 | 86.7 | 90.9 | 90.6 | 85.7 | 83.9 |
| 영등포구 | 60.7 | 63.3 | 73.5 | 66.7 | 82.6 | 69.8 | 70.4 |
| 용산구 | 66.7 | 70.0 | 66.7 | 87.5 | 71.4 | 77.3 | 73.9 |
| 은평구 | 58.5 | 68.8 | 64.1 | 92.2 | 74.3 | 85.0 | 74.4 |
| 종로구 | 58.1 | 52.2 | 59.1 | 68.2 | 55.0 | 73.3 | 60.2 |
| 중구 | 80.0 | 78.6 | 64.3 | 64.3 | 80.0 | 88.2 | 76.2 |
| 중랑구 | 72.4 | 46.9 | 59.0 | 54.3 | 66.7 | 73.5 | 61.8 |
| 합계 | 68.7 | 72.0 | 73.0 | 79.9 | 78.6 | 82.9 | 75.9 |

(2) 신규표본 현황

- 2021년 구축한 표본 마모를 보완하고자, 신규표본을 구축함. 신규표본은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표본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모집함. SKT 텔레콤의 협조를 통해 출생연도가 1987-2003년도이며 조사대상 집계구가 속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청년 중 서울청년패널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 연령, 주소 정보를 재확인하여 추출 집계구에 거주하고 성별과 연령이 적합한 응답자만 조사를 진행함
- 신규표본 역시 조사 완료 후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웹조사 시스템상 에러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응답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응답 값을 검증하여, 최종 1,321명의 유효표본을 확정함

[표 2-3-3] 신규표본 지역별, 성별, 연령별 유효표본 현황

| 구별 | 19-25세 | | 26-30세 | | 31-35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18 | 15 | 8 | 15 | 9 | 7 | 72 |
| 강동구 | 15 | 13 | 9 | 3 | 6 | 2 | 48 |
| 강북구 | 2 | 19 | 14 | 4 | 8 | 3 | 50 |
| 강서구 | 15 | 13 | 14 | 14 | 7 | 5 | 68 |
| 관악구 | 19 | 21 | 23 | 24 | 8 | 6 | 101 |
| 광진구 | 3 | 2 | 6 | 2 | 1 | 4 | 18 |
| 구로구 | 17 | 16 | 13 | 9 | 13 | 7 | 75 |
| 금천구 | 4 | 2 | 13 | 5 | 3 | 4 | 31 |
| 노원구 | 22 | 19 | 11 | 7 | 6 | 7 | 72 |
| 도봉구 | 11 | 4 | 6 | 3 | 4 | 6 | 34 |
| 동대문구 | 13 | 18 | 5 | 7 | 5 | 8 | 56 |
| 동작구 | 16 | 1 | 6 | 14 | 2 | 4 | 43 |
| 마포구 | 12 | 18 | 6 | 19 | 7 | 5 | 67 |
| 서대문구 | 14 | 15 | 6 | 5 | 6 | 5 | 51 |
| 서초구 | 14 | 15 | 20 | 9 | 9 | 13 | 80 |
| 성동구 | 6 | 8 | 7 | 3 | 4 | 2 | 30 |
| 성북구 | 7 | 11 | 2 | 8 | 4 | 1 | 33 |
| 송파구 | 24 | 19 | 16 | 5 | 6 | 7 | 77 |
| 양천구 | 12 | 5 | 1 | 2 | 2 | 3 | 25 |
| 영등포구 | 10 | 13 | 5 | 19 | 9 | 8 | 64 |
| 용산구 | 4 | 6 | 6 | 3 | 3 | 4 | 26 |
| 은평구 | 16 | 17 | 15 | 3 | 9 | 4 | 64 |
| 종로구 | 9 | 14 | 8 | 5 | 5 | 4 | 45 |
| 중구 | 1 | 4 | 3 | 2 | 2 | 4 | 16 |
| 중랑구 | 5 | 17 | 20 | 20 | 8 | 5 | 75 |
| 합계 | 289 | 305 | 243 | 210 | 146 | 128 | 1,321 |

(3) 위성패널 현황

- 일부 원표본(이사 또는 군복무 등으로 서울시 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성패널을 구축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함
- 2022년 서울청년패널의 위성패널 조사 응답자는 총 182명으로, 이사 138명, 군복무 44명임

[표 2-3-4] 위성패널 유효표본 현황

| 구분 | 19-25세 | | 26-30세 | | 31-36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위성패널 조사 | 72 | 21 | 24 | 25 | 22 | 18 | 182 |
| 이사 | 31 | 21 | 21 | 25 | 22 | 18 | 138 |
| 군복무 | 41 | 0 | 3 | 0 | 0 | 0 | 44 |

[표 2-3-5] 자치구별 위성패널 유효표본 현황

| 구별 | 19-25세 | | 26-30세 | | 31-36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3 | 1 | 0 | 0 | 1 | 2 | 7 |
| 강동구 | 2 | 1 | 2 | 0 | 2 | 0 | 7 |
| 강북구 | 1 | 0 | 2 | 0 | 0 | 1 | 4 |
| 강서구 | 4 | 1 | 0 | 2 | 2 | 1 | 10 |
| 관악구 | 4 | 2 | 3 | 5 | 5 | 3 | 22 |
| 광진구 | 1 | 0 | 0 | 1 | 1 | 1 | 4 |
| 구로구 | 2 | 1 | 0 | 0 | 2 | 0 | 5 |
| 금천구 | 0 | 0 | 1 | 0 | 1 | 0 | 2 |
| 노원구 | 4 | 1 | 3 | 2 | 0 | 0 | 10 |
| 도봉구 | 3 | 1 | 0 | 1 | 1 | 1 | 7 |
| 동대문구 | 3 | 1 | 0 | 0 | 0 | 0 | 4 |
| 동작구 | 4 | 1 | 1 | 1 | 0 | 1 | 8 |
| 마포구 | 1 | 1 | 0 | 0 | 2 | 1 | 5 |
| 서대문구 | 3 | 1 | 1 | 1 | 1 | 3 | 10 |
| 서초구 | 4 | 0 | 2 | 1 | 0 | 1 | 8 |
| 성동구 | 2 | 1 | 1 | 1 | 0 | 0 | 5 |
| 성북구 | 5 | 1 | 0 | 1 | 1 | 1 | 9 |
| 송파구 | 4 | 1 | 2 | 1 | 0 | 1 | 9 |
| 양천구 | 4 | 0 | 0 | 0 | 1 | 1 | 6 |
| 영등포구 | 1 | 1 | 1 | 4 | 1 | 0 | 8 |
| 용산구 | 3 | 2 | 0 | 1 | 0 | 0 | 6 |
| 은평구 | 8 | 1 | 1 | 2 | 1 | 0 | 13 |
| 종로구 | 4 | 1 | 2 | 0 | 0 | 0 | 7 |

| 구별 | 19-25세 | | 26-30세 | | 31-36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중구 | 1 | 0 | 0 | 1 | 0 | 0 | 2 |
| 중랑구 | 1 | 1 | 2 | 0 | 0 | 0 | 4 |
| 합계 | 72 | 21 | 24 | 25 | 22 | 18 | 182 |

(4) 최종 유효표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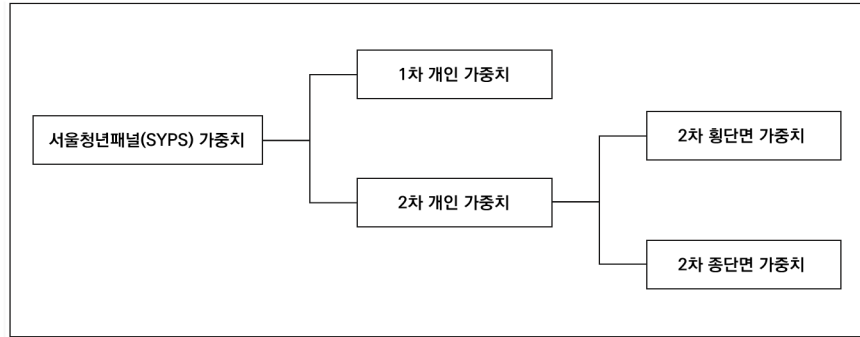
- 2021년 1차 조사에 응답하고 2022년 2차 조사에도 응답한 원표본 3,944명(위성패널 포함)과 표본 마모 보완을 목적으로 새롭게 구축한 신규표본 1,321명을 포함한 5,265명이 2022년 2차 청년패널조사의 최종 유효표본임

[표 2-3-6] 최종 유효표본 현황(2022년 조사 기준 연령)

| 구별 | 19-25세 | | 26-30세 | | 31-36세 | | 합계(명)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강남구 | 45 | 48 | 39 | 53 | 38 | 44 | 267 |
| 강동구 | 39 | 40 | 28 | 38 | 38 | 34 | 217 |
| 강북구 | 20 | 33 | 26 | 22 | 18 | 17 | 136 |
| 강서구 | 38 | 48 | 46 | 66 | 56 | 56 | 310 |
| 관악구 | 57 | 64 | 85 | 81 | 61 | 57 | 405 |
| 광진구 | 26 | 29 | 41 | 47 | 27 | 30 | 200 |
| 구로구 | 36 | 42 | 34 | 38 | 35 | 34 | 219 |
| 금천구 | 13 | 20 | 22 | 29 | 25 | 22 | 131 |
| 노원구 | 71 | 66 | 46 | 38 | 30 | 41 | 292 |
| 도봉구 | 27 | 33 | 19 | 24 | 26 | 23 | 152 |
| 동대문구 | 30 | 39 | 31 | 31 | 22 | 25 | 178 |
| 동작구 | 44 | 37 | 34 | 58 | 38 | 33 | 244 |
| 마포구 | 33 | 50 | 41 | 60 | 27 | 36 | 247 |
| 서대문구 | 37 | 37 | 29 | 30 | 24 | 28 | 185 |
| 서초구 | 32 | 31 | 42 | 35 | 28 | 35 | 203 |
| 성동구 | 23 | 20 | 27 | 31 | 21 | 20 | 142 |
| 성북구 | 43 | 46 | 36 | 40 | 23 | 34 | 222 |
| 송파구 | 49 | 55 | 49 | 61 | 46 | 60 | 320 |
| 양천구 | 41 | 38 | 27 | 32 | 31 | 33 | 202 |
| 영등포구 | 27 | 32 | 30 | 49 | 47 | 38 | 223 |
| 용산구 | 16 | 20 | 20 | 24 | 13 | 21 | 114 |
| 은평구 | 40 | 50 | 40 | 50 | 35 | 38 | 253 |
| 종로구 | 27 | 26 | 21 | 20 | 16 | 15 | 125 |
| 중구 | 9 | 15 | 12 | 11 | 14 | 19 | 80 |
| 중랑구 | 26 | 32 | 43 | 39 | 28 | 30 | 198 |
| 합계 | 849 | 951 | 868 | 1,007 | 767 | 823 | 5,265 |

2) 가중치 조정

- 서울청년패널의 가중치 구조는 다음과 같음



[그림 2-3-1] 서울청년패널(SYPS)의 가중치 부여 체계

(1) 가중치 산출 방법

-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분포특성과 모집단의 분포특성 간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줄이는 것이며 패널조사에서 가중치는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로 구분됨
- 종단면 가중치는 패널의 변동 또는 변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패널조사를 처음 구축하는 시점에서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가 동일함. 2022년 서울청년패널은 2차 조사로,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함
- 2차 조사에서 응답한 패널은 원표본과 추가표본(신규)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합한 통합패널의 가중치는 표본 크기를 가중값으로 하여 원표본과 추가 패널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음

$$\frac{n_{h0}}{n_h} \sum_{(i) \in s_0} w_{0hi} + \frac{n_{h1}}{n_h} \sum_{(i) \in s_1} w_{1hi} = M_h$$

- n_{h0} 와 n_{h1} 은 각각 h 층의 원표본 크기와 추가 표본 크기를 나타내며 M_h 는 h 층의 2022년도 11월 기준 인구임

- 2차 조사의 가중치 산출은 종단 가중치 산출 → 횡단 가중치 산출의 과정으로 수행됨
-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응답률 보정 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최종 가중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됨

(2) 설계 가중치

-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는 각 표본조사대상자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 가능하며 서울청년패널의 표본설계는 층화집락추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친 추출

확률을 기초로 설계 가중치를 계산함

- 설계 가중치는 표본 집계구 추출률의 역수, 표본 집계구 내 가구 추출률의 역수와 가구 내 조사적격자의 추출률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냄

$$w_{hij} = \frac{\sum_{i=1}^{N_h} M_{hi}}{m_h M_{hi}} \times \frac{M_{hi}}{m_{hi}} \times H_{hij}$$

- 여기서, m_h 는 h 층에 할당된 표본 집계구 수, N_h 는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M_{hi} 는 h 층의 i 집계구 내 가구수, m_{hi} 는 h 층 i 집계구 내 표본조사 가구수를 나타내며 H_{hij} 는 h 층 i 집계구 j 가구 내 조사적격가구원 수를 의미함

(3) 무응답 보정 가중치

- 무응답은 단위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구분하며, 단위무응답에 대한 보정방법은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응답률의 역수를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사용함
- 여기서는 단위무응답은 표본대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연도 조사 시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없지만, 패널의 특성상 차수에 따른 실제 표본 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다음과 같음

$$w_t = w_{\text{기본}t\text{차}} \times \hat{p}_t^{-1}$$

- t 차수의 기본 가중치를 $w_{\text{기본}t\text{차}}$,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예측된 예측 응답 확률을 \hat{p}_t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으로 얻어지는 가중치 w_t 는 위 식과 같이 표현됨
- \hat{p}_t 은 조사시점 t 에서 응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응답 확률임

(4)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

-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는 자치구별로 전체 조사대상인 청년의 정보(성별과 연령대)를 이용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보정해주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성별과 연령대별 청년 수와 가중치 합계의 비를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BF)로 사용

$$BF_g = \frac{NPS_g}{\sum_{h=1} \sum_{i=1} \sum_{j=1} W_{hij}}$$

- NPS_g 는 사후 층화 변수 g 에 대한 조사모집단에서 구한 합계이고 분모의 가중치 합계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보정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에 대해서 사후 층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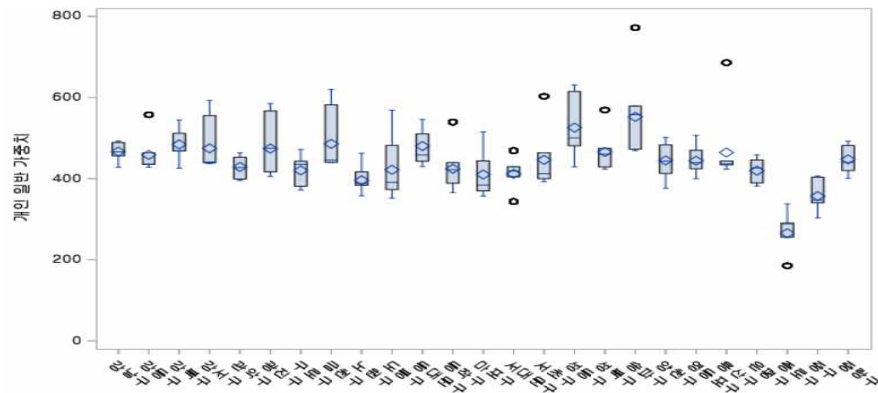
g를 기준으로 합계한 값임

(5) 최종 가중치

- 응답자 개인별로 적용할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와 사후 층화 보정 가중치를 곱해서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됨

$$W_{hijk}^f = W_{hij} \times w_t \times BF_g$$

- 자치구별 일반가중치 분포는 다음과 같음



[그림 2-3-2] 자치구별 일반 가중치 분포

(6) 가중치 산출방법

- 일반가중치(모수가중치)는 특정 표본이 구별/성별/연령별 전체인구 중 몇 사람을 대변 하는지를 의미하며, 이런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은 표본조사 정보를 근거로 모집단 전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함
- 표본 조사된 사람을 근거로 모집단 특성을 추론하는 경우 표준화 가중치 (standardized weight)를 사용해야 함
 - 표준화 가중치는 표본가중치(샘플가중치)라고도 하며 일반가중치에 전체 표본 크기를 곱하고, 일반가중치의 합계로 나눈 값이므로, 표준화 가중치를 모두 합하면 표본 크기와 동일한 값이 됨
 - 특히 표준화 가중치는 두 변수 간 연관성 분석이나 카이제곱 분석할 경우와 통계적 가설검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일반가중치는 표본사례 수에 비해서 큰 값의 자유도를 나타내지만, 표준화 가중치는 자유도가 표본사례 수와 유사한 값을 갖기 때문임
- 표준화 가중치는 모평균이나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적용할 수 있지만, 모총계를 추정 시에는 일반가중치를 적용해야 함

(7) 모수추정

- 본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단계의 추출과정을 거쳐서 표본을 선정한 복합표본설계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사용해야 함
- 주요 관심 대상의 추정량이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량일 경우에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지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1 또는 0의 값을 갖게 됨
 - 이 조사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모평균(모비율) 추정식

$$\hat{\bar{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 w_{hij}^f y_{hij}}{\sum_{h=1}^H \sum_{i=1}^{n_h} \sum_{j=1}^m w_{hij}^f}$$

② 모평균에 대한 분산추정

$$\hat{V}(\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f_h = \frac{N_h}{n_h}, \quad e_{hi\cdot} = \left[\sum_{j=1}^m w_{hij} (y_{hij} - \hat{\bar{Y}})^2 \right] / w_{h\cdot}, \quad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 / n_h$$

③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widehat{SE}(\hat{\bar{Y}}) = \sqrt{\hat{V}(\hat{\bar{Y}})}$$

④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계산

- 표본오차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오차이므로 표본의 크기가 점차 커질수록 점점 작아짐. 또한 추정량의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그 추정량의 통계적 정도(precision)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데, 추정량의 표준오차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달라져서 표준오차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추정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대적인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를 많이 이용하며, 상대표준오차는 추정량의 표준오차를 모수의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음

$$RSE(\hat{\bar{Y}}) = \frac{\sqrt{\hat{V}(\hat{\bar{Y}})}}{\hat{\bar{Y}}} \times 100(\%)$$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값의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작아지는데, 상대표준오차의 값이 작을 때 추정량의 정도가 높다고 하며, 그러한 추정값은 믿을 만한 값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반면, 상대표준오차의 값이 클 때는 추정량의 정도가 낮다고 하고, 상대표준오차의 크기에 따라서 추정치의 결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이면 대외적인 공표보다는 업무상 내부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03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1_조사내용

2_조사방법과 체계

03.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1_조사내용

1) 문항 설계

- 서울청년패널은 이행기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변화를 고려하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과 미시적 삶의 자원, 네트워크, 관계, 활동과 관련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
- 이를 위해 이행기 특성, 다차원적 삶의 영역, 다층적 삶의 격차, 정책 경험과 평가를 조사 프레임으로 설정함
 - 이행기 특성은 청년의 생애주기에서 교육-노동-독립-가족형성에 이르는 이행경로와 이행기의 위험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이행상태 변화를 측정하고자 함
 - 다차원적 삶의 영역은 교육 및 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생활여건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건강, 사회참여, 사회인식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상호 연결되고 중첩된 삶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다층적 삶의 격차는 성, 연령, 계층, 가구배경, 이행상태에 따른 평균 차이, 불평등 수준 및 격차, 박탈 등 청년세대 내 다층적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교차성을 반영한 격차를 측정하고자 함
 - 정책 경험과 평가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인지율, 이용 여부, 향후 이용 의향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청년 중심의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표 3-1-1] 서울청년패널조사 프레임

| 구분 | 내용 | 활용방안 |
|------------|--|----------------------|
| 이행기 특성 | • '교육-노동-독립-가족형성'에 이르는 이행경로와 위험사건 | 연속적, 누적적 이행상태의 측정 |
| 다차원적 삶의 영역 | •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주거, 소득과 자산, 주관적 삶의 질과 박탈, 건강, 사회관계와 사회참여, 생활양식(life-style) | 상호 연결되고 중첩된 삶의 실태 분석 |
| 다층적 삶의 격차 | • 성별, 연령, 계층, 이행상태에 따른 평균 차이, 불평등 수준, 상·하위 격차, 박탈 | 교차성을 반영한 격차 측정 |
| 정책 경험과 평가 | • 청년정책 수요 및 효과 | 청년 중심, 증거기반 정책 수립 |

- 이행기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변화 고려
- 청년을 둘러싼 환경과 미시적 삶의 자원, 네트워크, 관계, 활동에 관한 종합실태 파악

2) 조사 설문의 구성

-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조사표는 크게 원표본 조사표, 위성패널 조사표, 신규표본 조사표 3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3종의 조사표는 서울청년패널조사 1차 조사(2021년) 참여 여부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이때 서울 거주 여부는 조사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서울청년패널조사 1차 조사(2021년) 참여한 표본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원표본 조사표를, 서울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위성패널 조사표에 응답함
 - 서울청년패널조사 1차 조사(2021년) 참여하지 않고 2차 조사(2022년)부터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경우 신규표본 조사표에 응답함



[그림 3-1-1] 조사 설문의 구성

[표 3-1-2] 조사표별 응답 대상

| 구분 | 대상 |
|----------|--|
| 원표본 조사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청년패널조사 1차 조사(2021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조사 응답 시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위성패널 조사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청년패널조사 1차 조사(2021년)에 참여하였지만, 1차 조사 응답 이후 서울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한 사람 |
| 신규표본 조사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청년패널조사 2차 조사(2022년)부터 조사에 참여하였고, 현재(조사 응답 시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청년 개인단위 조사이며, 청년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사 기준연도는 2022년, 조사 기준시점은 영역 특성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였음
 - 조사 기준시점은 경제영역, 결핍과 관련된 문항은 지난 한 해(원표본 대상 2차 조사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정신건강, 정책경험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함

[표 3-1-3] 2022년 서울청년패널 조사표 유형별 조사 기준시점

| 원표본 조사표 | 신규표본 조사표 | 위성패널 조사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영역 : 지난 한 해 동안(2021년 1년 동안) 일자리 경험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취업자 이직활동/창업준비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미취업자 구직활동/창업준비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결핍 : 지난 한 해 동안(2021년 1년 동안) 정신건강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정책경험 및 평가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영역 : 지난 한 해 동안(2021년 1년 동안) 일자리 경험 : 최근 3년간 취업자 이직활동/창업준비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미취업자 구직활동/창업준비 :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결핍 : 지난 한 해 동안(2021년 1년 동안) 정신건강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정책경험 및 평가 : (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영역 : 지난 한 해 동안 (2021년 1년 동안) |

3) 조사 문항 내용

-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설문 조사 영역은 [표 3-1-4]와 같음
 - 원표본과 신규표본의 영역은 동일하며, 일부 문항은 신규표본을 대상으로 함
 - 위성패널은 서울 외 지역 이주 이유를 기준으로 군복무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군복무 외의 사유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 문항을 상이하게 구성하였음

- 원표본 조사표와 신규표본 조사표는 7개 영역으로, 위성패널 조사표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영역별 문항은 서울청년패널 프레임에 따라 청년의 삶 전반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원표본 조사표와 신규표본 조사표는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 및 평가, 가구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성패널 조사표는 선문에서 조사대상 및 군입대자를 확인하고, 군입대자의 경우 설문 종료,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는 주거, 경제, 가구정보의 3개 영역을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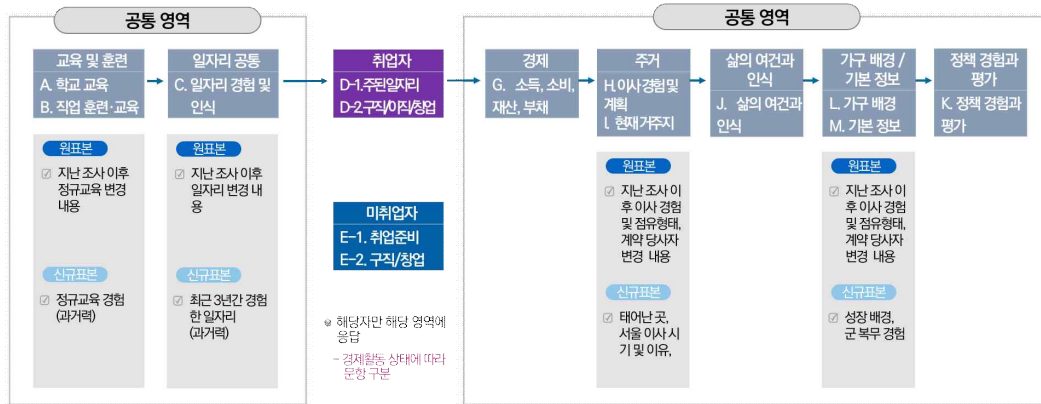
[표 3-1-4] 2차 조사(2022년) 조사 영역

| 구분 | 조사 영역 | |
|-----------------------|---|---|
| 원표본 조사표 ⁶⁾ | I. 교육·훈련 II. 일자리 공통 III. 취업자 IV. 미취업자 | VI. 경제 VII. 주거 VIII. 삶의 여건과 인식 IX. 정책 경험 및 평가 X. 가구 배경 |
| 위성패널 조사표 | [군복무자] 선문) 조사 대상여부 확인 선문) 군입대자(군복무 경험) | [군복무 제외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 선문) 조사 대상여부 확인 I. 주거 II. 경제 III. 가구 정보 |
| 신규표본 조사표 | I. 교육·훈련 II. 일자리 공통 III. 취업자 IV. 미취업자 | VI. 경제 VII. 주거 VIII. 삶의 여건과 인식 IX. 정책 경험 및 평가 X. 가구 배경 |

- 청년의 이행기를 고려한 조사의 흐름도는 [그림 3-1-2]와 같으며,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원표본과 신규표본의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설문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첫째, 공통 조사영역 중 교육 및 훈련 영역과 일자리 공통영역에 응답함
- 둘째, 일자리 공통영역에서 일자리 이력을 파악하고, 문항 로직에 따라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판별함
- 셋째,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각 영역의 문항에 응답함
- 넷째,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각 영역의 문항에 응답한 뒤 모두 창업 준비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함

6) V. 창업 준비 영역은 홀수 연도에만 조사하는 항목이며, 1차 조사(2021년)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진행된 XI. 코로나 19에 따른 변화와 전망(부가조사)는 2차 조사에서 삶의 여건과 인식 영역에 일부로 포함하는 등의 영역을 재배치함

- 다섯째, 모든 응답자(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는 공통 조사영역인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가구배경, 기본정보, 정책경험과 평가 순으로 응답하고 설문을 종료함



[그림 3-1-2] 2022 서울청년패널 설문 구성도

- 2차 조사(2022년) 문항은 응답자 편의와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1차 조사(2021년) 대비 문항을 축소 및 수정·보완하였음

[표 3-1-5] 조사표 주요 변경 내용

| 영역 | 1차 연도 | | 2차 연도 변경 항목 |
|----------|------------|---|---|
| | 세부 영역 | 세부 항목 | |
| I. 교육·훈련 | A. 학교교육 | 1) 정규교육 경험 - 고등학교 경험, 대학 경험, 대학원 경험, 교육 기회 | • 정규교육 경험 (변경: 원표본은 지난 조사 이후 교육 경험 변경사항 확인 항목으로 변경) • 교육 기회 (삭제) |
| | | 2) 진학계획 - 진학계획 | • 진학계획 (삭제) |
| | B. 직업훈련·교육 | 1) 취·창업 준비 - 취·창업 준비 사항, 교육 경험, 필요 지원, 도움 경험, 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 • 취·창업 준비 문항, 도움 경험, 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기준 시점 변경: 원표본은 지난 조사 이후, 신규표본은 지난 1년간) • 취·창업을 위한 교육 경험 (삭제) • 취·창업 준비 도움 경험 (질문 수정) |
| | | 2) 진로와 직업계획 - 직업인식 및 계획 | •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한 점 (이동: B.직업훈련·교육 → C.일자리경험) • 경험 도움 정도 (일부 선택 응답지 삭제 및 수정) •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어려움 (이동: B.직업훈련·교육 → C.일자리경험) |

| 영역 | 1차 연도 | | 2차 연도 변경 항목 |
|------------------|----------------------|--|--|
| | 세부 영역 | 세부 항목 | |
| II. 일자리 공동 | C. 일자리 경험 | 1) 경험일자리 - 일자리 경험 유무, 최근 3년간 일자리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일자리 시기 (신규표본만 조사) • 최근 3년간 일자리 경험 (변경: 원표본은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변경사항 확인 문항으로 변경) • 일자리 경험 주당 평균 근로일, 일평균/주평균 근로소득 (신규) • 최근 그만둔 일자리 이유, 실업급여 받지 못한 이유 (선택 응답지 수정) |
| III. 취업자 | D-1. 주된 일자리 | 1) 일자리 정보 - 주된 일자리 정보, 이직 의향, 일자리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일자리 장소 (선택 응답지 수정) • 전공지식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삭제) • 주된 일자리 희망 소득, 현재 전체 일자리 희망 월평균 소득 (기준 변경: 세후 소득으로 명시) • 플랫폼 일자리 (질문 및 기준 변경: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 지난 1년간 경험 일자리) • 정규직 선호 여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질문 변경 및 영역 이동: D-1.주된 일자리 → C.일자리경험)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대상 변경: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 → 주된 일자리) • 현재 일자리가 하고 싶은 일인지 여부, 희망 직업명 (삭제) |
| | D-2. 구직/이직/ 창업 | 2) 취업자 구직활동 - 구직활동 경험, 필요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 (삭제) •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직하지 않은 이유 (삭제) • 이직 및 창업 경험 유무 (기준 시점 변경: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으로 명시) • 새로운 일자리 알아본 경로 (선택 응답지 수정) |
| IV. 미취업자 | E-1. 취업준비 | 1) 취업준비 - 지난 4주간 취업준비 경험, 향후 취업준비 의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주간 일자리 구하지 않은 이유 (선택 응답지 수정) • 희망 직업명 (삭제) |
| | E-2. 구직/창업 | 2) 구직 및 창업 활동 - 구직활동 경험, 필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및 창업 활동 여부 (기준 시점 변경: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으로 명시) • 마지막 구직활동 시기 (삭제) • 구직활동 기간 (신규) • 구직활동 방법 (질문 및 선택 응답지 수정) |
| V. 창업 준비 | F. 창업준비 | 1) 창업준비 - 창업준비 경험, 필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준비 (일시 삭제: 주기조사 영역으로 흡수 연도에만 조사) |

| 영역 | 1차 연도 | | 2차 연도 변경 항목 |
|--------------------------|-----------------|---|--|
| | 세부 영역 | 세부 항목 | |
| VI. 경제 | G. 경제 | 1) 경제 - 소득, 소비, 자산, 부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기준 시점 변경: 2020 → 2021년 1년 동안으로 변경) 월평균 가구 총소득 (가구 개념 변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용어설명 최신화) 본인 생활비 (기준 변경: 1년 총 생활비 → 월평균 생활비로 변경) 가구 전체 생활비(삭제) 생활비 부족 경험 (삭제) 생활비 부족 해결 방법, 생활에 부담이 되었던 항목 (이동 및 선택 응답지 수정: G.경제 → J.삶의 여건과 인식) 자산 유형의 기타자산 (신규) 재산 총액 (문항 통합: 항목별 재산 확인 문항으로 통합) 재테크 여부 (삭제 및 문항 통합) 재테크 하지 않는 이유 (선택 응답지 추가)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 경험 (신규) 부채 총액 (항목 세분화 및 항목별 부채 확인 문항의 합계로 통합) 부채 주된 용도 (질문 변경: 일반 부채의 주된 용도 확인 문항으로 변경) |
| VII. 주거 | H. 이사경험 및 계획 | 1) 이사 경험 및 계획 - 출생지역, 서울 이주 시기, 이주 사유, 2022년 이사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지역, 서울 이주 시기, 이주 사유 (2차년도 신규표본만 조사) 이사 계획 (이동 및 기준 시점 변경: H.이사 경험 및 계획 → I.현재 거주지 / 2022년 → 2023년) 지난 조사 이후 이사(또는 독립) 경험, 점유형태 및 계약당사자 변경 (신규: 2차년도 원표본 대상) |
| | I. 현재 거주지 | 2) 현재 거주지 - 주거상태, 주거환경, 주거 불안, 주거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면적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 수정) 주택 가격 (문항 통합: 자가와 임차 주택 가격 통합) 주택 관련 부채 (이동: I.현재 거주지 → G.경제) 주거 인식 관련 문항 (일시 삭제: 주기조사 영역으로 흡수 연도에만 조사) |
| VIII. 삶의 여건과 인식 | J. 삶의 여건과 인식 | 1) 삶의 여건과 인식 결핍, 사회관계, 건강, 사회 인식 및 참여, 시간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 (신규) 사회적 관계망 수 (삭제) 각 집단별 대면 형태 및 교류 주기 (삭제) 외로움 척도 (신규) 건강검진, 불안을 느꼈던 사회적 문제, 사회 신뢰, 시간 사용 (일시 삭제: 주기조사 영역으로 흡수 연도에만 조사) 사회참여 (신규) |

| 영역 | 1차 연도 | | 2차 연도 변경 항목 |
|-------------------------|------------------------------|---|--|
| | 세부 영역 | 세부 항목 | |
| IX. 정책 경험 및 평가 | K. 정책 경험과 평가 | 1) 정책 경험 및 평가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의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경험 및 평가 (영역 순서 변경: 정책 영역 설문지 마지막으로 순서 변경) 주요 정책 항목 (수정: 서울시 의견 반영하여 리스트 추가) 서울시, 중앙정부 정책 이용 만족도 (추가) 중앙정부 청년지원정책 이용 의향 (삭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명칭 변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서울청년 마음있다 (명칭 변경: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청년센터 (명칭 변경: 서울청년센터 오랑) |
| X. 가구 배경 | L. 가구배경 | 1) 가구배경 - 가구원 정보, 혼인상태 및 계획, 자녀 여부 및 계획, 독립 여부, 생계 기여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문항 구조 변경: 함께 살고 있는 가구구성원 및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분하여 확인) 가구원 생년, 교육수준 (삭제) 배우자 최종학력, 자녀 출생연도 (신규) 주된 양육자 경제적 지원 및 동거 여부 (질문 수정: 주된 양육자 →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 질문 수정) 경제적 독립 이유 (선택 응답지 수정) 영계어려 문항 (신규) |
| | M. 기본정보 | 2) 기본정보 - 성장배경, 군대 경험, 장애 유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 (이동: M.기본정보 → H.이사 경험 및 계획)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 만 14세 무렵 귀하의 부모님 소득수준 (2차년도 신규표본만 조사) |
| XI. 부가 조사 | N.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 • 코로나19 경험 및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경험 및 전망 (변경 및 이동: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정보, 회복 시기, 회복 정도 문항으로 변경하여 VIII.삶의 여건과 인식으로 이동) |

- 조사 영역별 문항은 서울청년패널조사 프레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삶 전반과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신규표본은 원표본과 영역과 주요 조사 내용은 동일하나, 기본특성 일부 문항 중 패널 진입 첫 해에 파악해야 하는 문항⁷⁾은 추가로 질의하였음
 - 해당 문항은 최근 3년간 일자리 경험, 태어난 지역,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 과거 부모님 소득 수준 등임
- 원표본 조사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훈련 영역은 학교

7) 해당 문항의 경우 원표본은 1차 조사(2021년)에서 확인 한 내용으로 시불변 조사 항목이므로 원표본은 2차 조사(2022년) 이후로 질문하지 않음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학교 교육은 학교 재학 상태, 유형, 입학 및 졸업 시기, 전공계열, 학교 소재지 등 정규교육 경험 전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 직업훈련·교육은 취·창업을 위해 준비했던 사항, 취·창업 지원 및 도움 경로, 자격증 및 시험 준비, 진로와 직업계획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됨
- 일자리 공통영역은 조사시점 기준 현재의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과거 3년간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청년 대상 조사는 이행기 관점에서 일자리 이력에 대한 파악이 핵심이며, 따라서 과거 일자리 이력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영역을 구성함
 - 원표본은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일자리에 대해 변경 및 신규 진학 경험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함
 - 신규표본은 첫 일자리 시작 시기, 최근 3년간 일자리 개수, 일자리 시작시기, 재직 여부, 고용형태, 직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 현재 일자리를 포함 최근 3년간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이력을 파악하도록 함
 - 현재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응답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 취업자 영역은 주된 일자리, 구직/이직/창업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자리 공통영역에서 취업자로 판별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주된 일자리는 산업분류, 사업체 유형 및 종사자 수, 일하는 장소 등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전체 일자리(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모든 일자리)에 대해 플랫폼 일자리 여부,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이유 등을 조사함
 - 구직/이직/창업은 구직활동 기간, 이직 또는 창업 의향 및 준비 경험 등을 조사함
- 미취업자 영역은 취업준비, 구직/창업 준비 활동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자리 공통영역에서 미취업자로 판별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취업준비는 지난 4주간 취업 준비(구직) 경험, 구직하지 않은 이유,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희망 직업 등을 조사함
 - 구직/창업은 지난해 구직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향후 취·창업 준비 의향, 필요 지원 등을 조사함
- 창업 준비 영역은 주기조사 영역으로 2차 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 경제영역은 소득, 소비, 재산, 부채 실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소득은 본인 소득(종류별 소득)과 가구소득(가구 전체 소득금액)을 조사함

- 소비는 본인의 생활비 지출(항목별 지출)을 조사함
- 재산은 본인의 재산 총액과 항목별 재산 금액을 조사함
- 부채는 본인의 부채 총액과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용도 등을 조사함
- 주거영역은 이사 경험 및 계획과 현재 거주지의 정보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이사 경험 및 계획에서 원표본은 지난 조사 이후 이사(또는 독립) 경험, (등기상) 점유형태 변경 내용, 계약당사자 변경 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신규표본은 태어난 지역, 서울 이사 시기 및 이유, 이사 계획 등을 조사함
 - 현재 거주지는 주택 유형, 점유형태 등의 주거 특성, 주거환경, 자가, 전·월세 가격 등 주거비용, 주거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함
- 삶의 여건과 인식 영역은 생활 여건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망, 건강, 사회 인식 및 참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과 식생활 결핍 경험, 생활비 부족 해결 방식, 생활에 부담이 되었던 항목,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함
 - 사회적 관계망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외출, 교류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사항, 외로움 척도 등을 조사함
 - 건강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 및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을 조사함
 - 사회 인식 및 참여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조사함
- 정책 경험과 평가 영역은 서울시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가구배경 영역은 본인과 가구배경과 기본정보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가구 배경은 동거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정보와 혼인상태 및 계획, 자녀 여부 및 계획, 경제적 독립, 생계 기여 여부, 가족돌봄 문항 등을 조사함
 - 기본정보는 원표본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장애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신규표본에 대해서는 추가로 성장 배경(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 만 14세 무렵 부모님 소득수준), 군 복무 등을 조사함

[표 3-1-6]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원표본, 신규표본 영역 구성 및 조사내용

| 구분 | 영역 | 주요 문항 | 조사 기준시점 |
|------------------------|----------------------------|---|---|
| I. 교육·훈련 | A. 학교교육 | • 정규교육 경험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경험 | |
| | B. 직업 훈련·교육 | • 취·창업 준비 : 준비 경험, 지원 및 도움 경로, 자격증 및 시험 준비 • 진로와 직업계획 : 진로 상황, 진로 관련 경험 및 도움 정도 | |
| II. 일자리 공통 | C. 일자리 경험 | • 경험일자리 : 과거 일자리 경험, 일자리 인식 | • (원표본)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 (신규표본) 최근 3년간 |
| III. 취업자 | D-1. 주된 일자리 | • 일자리 정보 : 주된 일자리 및 전체 일자리 정보 | |
| | D-2. 구직/이직/창업 | • 취업자 구직활동 : 구직활동 기간, 이직 또는 창업 의향 및 준비 경험 |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
| IV. 미취업자 | E-1. 취업준비 | • 취업준비 : 지난 4주간 취업준비 경험, 구직하지 않은 이유, 일 가능 여부 및 불가능 이유, 희망 직업 | |
| | E-2. 구직/창업 | • 구직/창업 : 취업 또는 창업 의향 및 준비 경험, 구직활동 기간, 일자리 알아본 경로, 필요 지원 |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
| V. 창업 준비 ¹⁾ | F. 창업 준비 | • 창업 준비 : 창업 준비 경험 | |
| VI. 경제 | G. 경제 | • 소득, 소비, 자산, 부채 : 응답자 본인 및 가구 소득, 소비, 자산, 부채 | • 지난 한 해 동안(2021년 1년 동안) |
| VII. 주거 | H. 이사경험 및 계획 | • 이사경험 및 계획 - (원표본) 지난해 이사(또는 독립) 경험 - (신규표본) 태어난 지역, 서울 이사 시기 및 이유 | |
| | I, 주거 ²⁾ | • 주거상태 : 주거특성, 주거점유형태, 주거비용, 주거환경, 주거불안 | |
| VIII. 삶의 여건과 인식 | J. 삶의 여건과 인식 ³⁾ | • 생활 여건과 삶의 질 : 결핍 경험, 주관적 만족도 • 사회적 관계망 :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적 고립, 외로움 척도 • 건강 : 신체 및 정신건강 • 사회 인식 및 참여 :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현재와 미래의 전망 | • 결핍 : 지난 한 해 동안(2021년 1년 동안) • 정신건강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
| X. 가구배경 | L. 가구배경 | • 가구 및 본인 정보 : 가구원 정보, 혼인상태 및 계획, 자녀여부 및 계획, 독립여부, 영케어러 등 | |
| | M. 기본정보 | • 기본정보 : 군입대 경험, 장애 여부 | |
| IX. 정책 경험 및 평가 | K. 정책 경험과 평가 | • 정책 경험 및 평가 : 청년정책 인지,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

주: 1) V. 창업 준비 영역은 주기조사 영역으로 흡수 연도에 조사

2) I. 주거 영역 문항 중 주거 인식에 대한 문항은 주기조사 문항으로 흡수 연도에 조사

3) J. 삶의 여건과 인식 문항 중 건강검진에 대한 문항과 가족가치관 문항은 주기조사 문항으로 흡수 연도에 조사

- 위성패널 조사표의 영역별 문항을 보면, 먼저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선문은 군복무자인지, 군복무 외의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인지를 판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군복무자의 경우 군복무 경험과 관련하여 현재 복무 여부와 군 복무 기간을 확인한 후 설문을 종료함
- 군복무 외의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조사 대상여부 확인 후 이사 경험과 현재 거주지에 대하여 조사함
 - 구체적으로 이사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사 시기, 이사 지역, 이사 이유, 통근 또는 통학 여부/지역/소요시간, 주된 생활권 등으로 문항을 구성함
 -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 주거지 면적, 주택 구조 및 방 개수, 점유 형태, 주택 가격 또는 임차료, 주거만족도를 조사함
- 이후 경제 영역에서 본인과 가구 월평균 소득을, 가구 배경에서 가구원 정보를 확인 후 조사를 종료함

[표 3-1-7]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위성패널 영역 구성 및 조사 내용

| 구분 | 영역 | 주요문항 |
|------------|------------|---|
| 선문 | 위성패널 대상 유형 | • 위성패널 대상 유형 |
| | 군복무 경험 | • 군복무 기간 |
| I. 주거 | O. 이사 경험 | • 이사 시기, 이사 지역, 이사 이유, 통근 또는 통학 여부, 통근 또는 통학 지역, 통근 또는 통학 소요시간, 주된 생활권, 이사 후 삶의 만족도 |
| | P. 현재 거주지 | • 주택 유형, 주거지 면적, 주택 구조 및 방 개수, 점유형태, 주택 가격과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
| II. 경제 | Q. 소득 | • 본인 및 가구 월평균 소득 |
| III. 가구 정보 | R. 가구 배경 | • 가구원 정보 |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 서울청년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 이므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금선·이혜림(2021)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이행기의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 시 필요한 자원, 기회로부터의 박탈, 배제와 결핍 등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지표는 7개 분야 18개 지표이며, 해당 지표는 아래와 같음
 - 경제영역은 3개의 주요 지표가 있으며, 상대적 소득 빈곤(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소득 결핍), 자산 빈곤(불충분한 소득안정성 및 자산형성 기회 결핍), 부채 비율(자산형성 기회 박탈)에 대해 파악함
 - 교육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는 니트(일, 교육·훈련,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서의 배제), 진로역량(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역량의 결핍)로 구성함
 - 노동은 실업(일할 기회로부터의 배제), 고용안정(안정적으로 일할 기회의 박탈)을

주요 지표로 보고 청년의 삶을 파악함

-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은 사회적 고립(인적자본 역량의 결핍), 사회적 관계망(사회적 관계의 결핍-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으로 파악함
- 주거는 비적정주거(안전 등 적정 주거 자원 결핍), 최저주거기준(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자원 결핍),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비율)이 주요 지표임
- 건강은 자살생각(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건강 박탈), 우울(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정신건강 결핍), 미충족 의료 경험(건강을 위한 기초적 의료서비스 자원의 결핍)을 주요 지표로 함
- 마지막으로 복지는 식생활 결핍(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원 결핍), 주관적 행복(삶의 회복력 결핍), 미래전망(미래의 희망 자본의 결핍) 3가지를 주요 지표로 하여 청년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함

[표 3-1-8] 서울청년패널조사 주요 지표

| 영역 | 지표명 | 내용 |
|-------------|-------------|---|
| 경제 | 상대적 소득 빈곤 | •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소득 결핍 |
| | 자산 빈곤 | • 불충분한 소득안정성 및 자산형성 기회 결핍 |
| | 부채 | • 자산형성 기회 박탈 |
| 교육, 역량 | 니트 | • 일, 교육·훈련,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서의 배제 |
| | 진로역량 | •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역량의 결핍 |
| 노동 | 실업 | • 일할 기회로부터의 배제 |
| | 고용안정 | •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의 박탈 |
|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 사회적 고립 | • 인적자본 역량의 결핍 |
| | 사회적 관계망 | • 사회적 관계의 결핍(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
| 주거 | 비적정주거 | • 안전 등 적정 주거 자원 결핍 |
| | 최저주거기준 | •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자원 결핍 |
| |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 | •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부담 비율(RIR) |
| 건강 | 자살 생각 |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건강 박탈 |
| | 우울 |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정신건강 결핍 |
| | 미충족 의료 경험 | • 건강을 위한 기초적 의료서비스 자원의 결핍 |
| 복지 | 식생활 결핍 | •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원 결핍 |
| | 주관적 행복 | • 삶의 회복력 결핍 |
| | 미래전망 | • 미래의 희망 자본의 결핍 |

2_조사방법과 체계

1) 조사방법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CAWI/CAMI/TAPI를 결합한 다중 방식(Multi Method)으로 설계함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1차 연도)는 면접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과 종이 설문보다 컴퓨터나 모바일 응답을 선호하는 청년층 성향을 고려하여 웹조사 방법으로 기획함
 - CAWI/CAMI/TAPI는 설문 문항 로직에 따라 이동 경로를 사전에 지정하여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자동으로 문항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면접원이나 응답자가 잘못된 경로로 이동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응답자의 현재 상황과 응답 내용에 맞는 문항만 선별하여 질문하므로 응답자가 불필요한 안내문을 읽거나 문항 이동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문항에 따라 응답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논리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값을 입력하는 경우 팝업창을 띄워 응답한 값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장착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실수를 최소화함
-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조사전문기관의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CAWI/CAMI 조사 링크 발송,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 및 전화 면접조사 후 TAPI를 활용한 CAWI/CAMI 조사 링크 발송, 전문면접원에 의한 면접조사 후 TAPI를 활용한 직접 조사 방식으로 설계함
 - 2020년도 사전조사에서 기존에 구축한 예비패널과 2021-2022년 조사회사에서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 의향을 확인한 집계구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활용해 응답자 핸드폰과 이메일로 개인별 조사 링크를 발송하여 이 조사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계식으로 진행함
 - 2022년도 신규 구축 패널에 대해서는 전문면접원이 집계구 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적합 여부, 집계구 거주 여부 및 패널조사 참여 의향을 확인 후, 조사원이 패널에게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질문하고,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응답 내용을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입력한 연락처 정보로 CAWI/ CAMI 조사링크를 발송하여 자계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함
 - 2022년도 신규표본 구축을 위해 전문면접원이 집계구 내 표본가구를 방문했을 때 가구에 거주자가 없으면 우편함과 현관 앞에 사전조사 링크와 QR코드가 탑재된 유인물을 유치함

- 거주자가 사전조사에 링크에 접속해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응답자 기본정보를 응답하면 조사전문기관 담당자가 면접원에 전달하여 면접원이 전화면접을 통해 패널구축 대상자 거주 여부, 패널조사 참여 의향 확인 후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입력한 연락처 정보로 CAWI/CAMI 조사링크를 발송하여 자계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함
- 응답자가 신체 등 물리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CAWI/CAMI 조사를 자계식으로 조사할 수 없거나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면접원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TAPI 방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응답자 수요가 없어 실제 이 조사에서 활용하지는 않았음

2) 조사 운영체계와 조사과정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 연구팀이 기획하였으며 조사문항 개발, 조사분석 등을 총괄 진행함
-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청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문항 개발과 표본설계, 패널 운영 등 관리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
- 조사전문기관은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 연구팀이 개발한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와 데이터 구축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년층에 특화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시스템을 개발함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전년도 조사에서 구축한 원표본 유지 및 신규표본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표 3-2-1]과 같은 절차로 수행됨
- 2021년 구축한 원표본 유지 및 신규표본 구축을 진행하기 위해 조사설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함
 - 조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청년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하였으며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 및 서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함
- 조사전문기관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심사를 거쳐 (주)한국리서치로 최종 결정하였음
-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 문항 개발은 2021년 조사 문항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 문항을 확정함
 - 일차적으로 서울연구원 내부 연구진의 회의 및 검토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 일자리, 교육, 주거, 경제 등 주요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검토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문항 영역에 대해 서울시 청년정책 실무 부서의 의견

을 수렴하여 반영함

- 현재 상태(대학 재학, 취업 여부, 취창업 준비), 성별, 연령, 분가 여부 등을 고려해 인지면접 참여자를 모집하여 응답자 인지면접을 실시함. 인지면접을 통해 조사 문항의 난이도와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청년의 특성과 웹조사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문 용어 및 문항의 길이 등을 검토하고 설문 구조와 순서를 변경함
- 이상의 검토과정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조사수행기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조사 문항을 확정함
- 실사 준비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조사협조 공문, 조사원 신분증, 조사 안내문 등을 준비하였으며, 집계구 일치 여부와 정확한 조사대상자 선별을 위해 사전조사 URL과 QR코드가 기입된 이 조사 유인물을 준비함
 - 포스터, 보안각서, 응답자 답례품 등도 함께 준비하였음
- 2021년 사전조사 예비표본에 대해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 의향과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 사전조사를 실시함
 - 2021년 조사참여자 5,194명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정보 및 변동사항, 패널관련 선호답례품, 선호 응답시간대 등 패널 개선사항 조사
- 체계적인 현장 실사를 위한 조사도구로 웹 조사 및 조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웹조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오류 방지를 위한 문항 간 이동 로직, 문항 별 응답 범위 및 이상값 확인창, 무응답 확인창 등이 있음
 - 조사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집계구와 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조사링크 발송, 응답자별 진행상황 관리 등이 있음
- 본조사(현장실사) 전 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동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
 - 조사원 교육은 조사전문기관이 진행하였으며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 연구팀이 직접 참관하여 모니터링하였음
- 조사원 교육 이후 패널구축 및 본조사를 진행하였음
 - 현장조사의 진행상황과 조사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주 조사 진행 실적을 조사전문기관에게 보고받아 확인하였음

[표 3-2-1] 조사 진행 절차

| 진행 일정 | 진행 단계 | 내용 |
|--------------------|----------------|---|
| 2022년 1-3월 | 계획 수립 | 서울청년패널조사 패널 구축, 조사계획 수립 등 |
| 2022년 4-7월 | 조사문항 개발 | 전문가 서면검토(핵심지표, 영역별 문항 등) 청년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조사문항 개발 및 확정, 조사문항 점검을 위한 FGD 실시 |
| 2022년 6월 | 조사기관 선정 | 이 조사의 실사를 진행할 조사기관 선정 |
| | 사전조사 실시 |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응답자 대상 사전조사 |
| 2022년 7월 | 조사표 확정 | 조사표 확정 |
| | 웹설문지 개발 | 웹설문지 개발 |
| 2022년 8월 | 조사원 교육 |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원 집체교육 실시 |
| 2022년 8월-2022년 12월 | 패널 구축 및 본조사 진행 | 패널 구축 및 조사 실시(원표본, 위성패널, 신규표본) |

3) 조사자료 처리

- 비대면 자기응답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조사 중 응답 과정 관리와 조사 완료 후 응답 내용 검증을 거쳐 처리함. 자계식 응답으로 인한 오류를 검증하여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조사 중 응답 관리 방안은 웹조사 로직 설정을 통한 불성실 응답 통제, 응답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요 문항 응답 지침 삽입, 이상값에 대한 확인창 및 경고창 설정 등임

[표 3-2-2] 조사 중 응답 관리 내용과 예시

| 구분 | 내용 |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성실 응답 통제 | 무응답 방지 | 질문에 답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 유형 확인 (텍스트/숫자) | 입력란이 비어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응답 시 다음 문항으로 넘어 갈 수 없도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 개수 확인 | 응답 유형 확인 (텍스트/숫자) | NA1-2. 귀하는 고등학교에 언제 입학하셨습니다? <div>2001 ~ 2019년 숫자만 입력해주세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에 맞게 텍스트 혹은 숫자로 응답하도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 개수 확인 |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2개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에 맞게 응답 보기 선택하도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 정확성 제고 | 일괄 응답 확인 | C7. 최근 청년들이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할 때 아래 제시된 항목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head><tr><th></th><th>매우 그렇다</th><th>대체로 그런 편이다</th><th>그저 그렇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r></thead><tbody><tr><td>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td><td>✓</td><td>○</td><td>○</td><td>○</td><td>○</td></tr><tr><td>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td><td>✓</td><td>○</td><td>○</td><td>○</td><td>○</td></tr><tr><td>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td><td>✓</td><td>○</td><td>○</td><td>○</td><td>○</td></tr><tr><td>경험이 부족하다</td><td>✓</td><td>○</td><td>○</td><td>○</td><td>○</td></tr><tr><td>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td><td>✓</td><td>○</td><td>○</td><td>○</td><td>○</td></tr><tr><td>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이 제한이 있다</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 | ○ | ○ | ○ | ○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 | ○ | ○ | ○ | ○ |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 | ○ | ○ | ○ | ○ | 경험이 부족하다 | ✓ | ○ | ○ | ○ | ○ |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 | ○ | ○ | ○ | ○ |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 | ○ | ○ | ○ | ○ | 나이 제한이 있다 | ✓ | ○ | ○ | ○ | ○ |
| |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험이 부족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이 제한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문항에 동일한 값을 응답하셨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div>아니오(재입력)네(다음 문항으로)</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응답을 반복할 경우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예시 |
|--------------|-------------|---|
| 응답 정확성 제고 | 응답 지침 제시 | <p>B5. 귀하는 지난 1년간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p> <div> <p>※ 시험준비 :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 경험 포함되지 않음</p> </div> |
| | | <p>질문의 용어를 응답자마다 상이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정의 제시</p> |
| | | <p>C2-1-2. 귀하는 최근 3년간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 포함) ※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p> <div> <p>0 ~ 10 개</p> </div> <p>G1. 2021년 1년 동안 다음 항목별로 본인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소득 제외)</p> <div> <p>※ 세후 실수령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받는 금액) ※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p> </div> |
| | 응답 기준 제시 | |
| | 응답 가능 범위 제시 | <p>NA1-2. 귀하는 고등학교에 언제 입학하셨습니다?</p> <div> <p>2001 ~ 2019 년</p> </div> |
| | | 연령과 응답시기 등 조건을 고려하여 응답 가능 범위를 제시 |
| | 이상값 확인 | <p>0부터 10사이의 값을 입력해주세요.</p> <div> <p>확인</p> </div> |
| | | 응답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여 나올 수 없는 값 응답 통제 |
| | | <p>월평균 소득이 (81000 만원)이 맞습니까?</p> <div> <p>아니오(재입력) 네(다음 문항으로)</p> </div> |
| | | 이상값 응답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창으로 실시간 검증 |

| 구분 | 내용 | 예시 |
|----------------------|------------------|--|
| 기존 패널 응답 검증 | 지난 조사 응답 값 제시 | <p>A2-3. 지난 조사 당시 귀하와 최종 대학(대학원 제외) 경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고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하신(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이 있으십니까?</p> <p>1) 대학 이름 : 한국외국어대학교</p> <p>2) 지난조사시 재학상태 : 졸업</p> <p><input type="radio"/> 새로 진학한 대학(대학원 제외)이 있다 *goto q220</p> <p><input type="radio"/> 새로 진학한 대학(대학원 제외)이 없다 *goto q280</p> <p>지난 조사 응답 값 제시</p> |

- 조사 후에는 이전 차수 응답 내용과의 연계성이나, 동 차수 타 문항과의 응답 내용 정합성을 검토함.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수행 담당자가 비교 집단과의 응답 내용 대조와 논리적 추론으로 오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응답자 재확인 조사를 통해 검증함. 검증 결과 오류로 판명된 경우 응답자 재확인 내용으로 응답 값을 수정함

[표 3-2-3] 조사 후 응답 내용 검증 예시 및 결과

| 서울연구원 데이터 사후 검증 예시 | | | | | | | 조사수행 검증 결과 | |
|--|--------|--------|-----------|--------|------------|-----------|------------|---|
| <p>□ 대학원 진학 내용 확인</p> <p>지난 조사 이후 대학원 재학 상태가 졸업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새로 진학한 대학원이 있다고 응답한 케이스 확인 필요</p> | | | | | | | no | 확인 결과 |
| 2310 | 1 (석사) | 1 (변경) | 1 (재학) | 1 (있다) | 1 (석사) | 1 (재학) | 2310 | 석사 재학 상태로 변경되었는데, |
| 3509 | 1 (석사) | | 1 (재학) | | 4 (석·박 통합) | 1 (재학) | 3509 | 새로운 과정에 진학. 응답자 확인 결과 재학 상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됨. 새로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으므로 기존 재학 상태는 '중퇴'로 수정할 예정임. |
| 226 | 1 (석사) | | 1 (재학) | | 2 (박사) | 1 (재학) | 226 | 석사 졸업하지 않았는데, 새로 박사과정 진학함. 석사 졸업하지 않았는데 새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와 박사과정 졸업유예인데 박사 재학, 졸업한 경우는 석사 수료과정 혹은 다른 석사 학위 소지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어 기존 응답 값 유지하고자 함. |
| 2155 | 1 (석사) | | 3 (졸업 유예) | | 2 (박사) | 3 (졸업 유예) | 2155 | |
| 3521 | 1 (석사) | | 3 (졸업 유예) | | 2 (박사) | 1 (재학) | 35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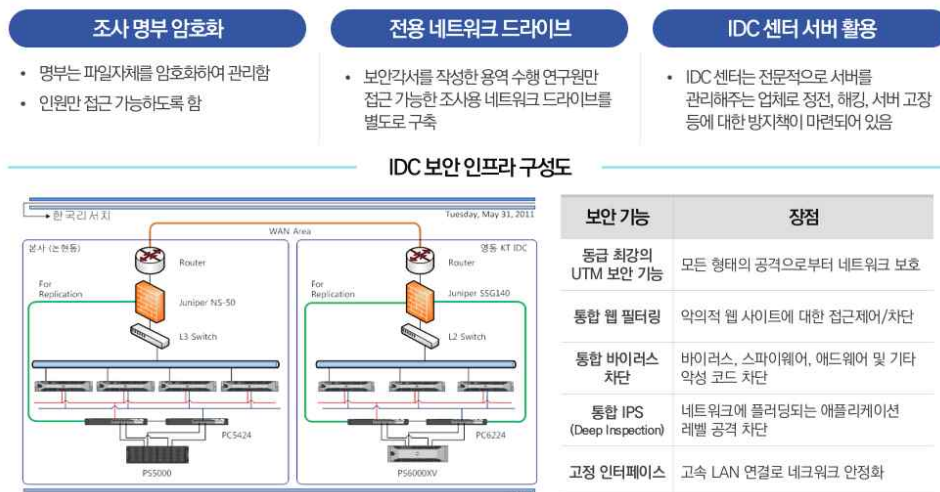
- 또한 조사 마감 전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응답자 기본 정보(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자치구 등)의 할당을 타 조사(서울청년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시주거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와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전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내용을 점검하였음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조사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 데이터에는 학력, 소득, 지출,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패널조사로 다음 차수 조사를 위해 조사 명부나 데이터 폐기가 불가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조사 명부 및 데이터 관리와 파기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관련 교육 후 투입하며 각서 작성
- 조사 명부 및 데이터 관리 절차는 [그림 3-2-1]과 같음



[그림 3-2-1] 조사 명부 및 데이터 관리 매뉴얼

- 조사 명부와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3-2-2] 조사 명부와 데이터 관리

- 조사 명부와 데이터 파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삭제 | 개인정보 수시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결과 보고 |
|---|--|----------------------|
| 조사 용역 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검색 및 삭제 프로그램(리얼스캔)을 통해 파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수시로 삭제 개인정보 검색 프로그램(리얼스캔)을 정기적으로 구동하여 개인 PC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 내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함 |

[그림 3-2-3] 조사 명부와 데이터 파기 1

-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음

01 | 리얼스캔 실행



02 | 검색영역 설정



03 | 개인정보 포함 파일 검색



04 | 검색된 개인정보 파일 삭제



[그림 3-2-4] 조사 명부와 데이터 파기 2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각서 작성
-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해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전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개인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수집, 제공, 위탁 시 관계자 준수사항
- 수집·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저장, 활용, 파기 시 준수사항

담당자 보안교육

본 조사 투입 전 연구원, 실사 연구원, 콜센터, 면접원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조사 대상자 명부의 구성
- 개인정보 저장, 관리 시 주의사항 및 암호화 방법
- 리스트 개인정보 면접원 제공 시 주의사항
- 리스트 개인정보 파쇄 및 폐기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각서

연구진, 면접원 포함 모든 용역수행자 보안각서 작성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용성을 지닌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없이 감수하였음을 서약함



[그림 3-2-5] 투입인력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04

기초분석

- | | |
|----------------|----------------|
| 1_일반특성 | 6_주거 |
| 2_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 | 7_삶의 여건과 인식 |
| 3_교육과 훈련 | 8_코로나19에 따른 변화 |
| 4_일자리 | 9_정책경험과 평가 |
| 5_경제 | 10_위성패널 |

04. 기초분석

1_일반특성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과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함. 전체 표본은 5,083명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이하 모든 문항) 원표본은 3,735명, 신규표본은 1,348명이었음. 먼저 서울청년의 기본특성을 표본별, 연령별로 나눠 확인하고, 서울청년의 주거·경제 특성을 표본별, 연령별로 분석함

1) 서울청년의 기본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표 4-1-1]은 서울청년패널 조사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본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며, 성, 연령, 권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 유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의 특성을 분석함. 이 보고서에서는 전체 표본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응답자 전체 표본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1.3%로 남성(48.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분포는 19-24세는 25.0%, 25-29세는 37.2%, 30-34세는 33.9%, 35-36세는 3.9%이었음
- 거주하는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남권 33.2%, 동북권 29.2%, 동남권 19.5%, 서북권 12.6%, 도심권 5.5% 순으로 높았음
- 학력별 분포 분석 결과, 대학교 졸업이 45.6%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5%, 전문대 졸업 13.2%, 대학원 졸업 5.7%이었음
-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 미혼이 87.0%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12.4%, 배우자와 사별(0.1%)하거나 이혼(0.5%) 또는 별거(0.1%) 중인 응답자는 0.7%이었음
- 가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가구가 47.5%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 34.3%, 기타 가구 6.9%, 무자녀 부부가구 6.3%, 유자녀 부부가구 5.1% 순으로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94.2%,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5.8%이었음
- 가구 규모는 두 가지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거주지를 기준으로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만을 포함한 거주기준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경제생활 기준으로 구분됨
 - 거주기준 가구 규모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4인가구는 23.8%, 3인가구는 19.6%, 2인가구는 16.3%, 5인 이상 가구는 6.1%이었음
 - 경제생활 기준 가구 규모를 분석한 결과 4인가구가 32.5%로 가장 높았고, 3인가구는 22.1%, 1인가구는 20.1%, 2인가구는 13.5%, 5인 이상 가구는 11.8% 순으로 높았음
-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는 47.5%,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52.6%이었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응답자는 35.2%,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응답자는 17.4%이었음
- 부모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응답자는 46.3%였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응답자는 53.7%이었음
- 가구 내 지위를 분석한 결과, 청년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36.6%이며, 가구주는 아니지만 가구 생계에 기여하는 경우는 43.2%이었음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전체 표본 | 원표본 | 신규표본 |
|------------------|-------------|-------|-------|-------|
| 전체(n=5,083) | | 5,083 | 3,735 | 1,348 |
| 성별 | 남성 | 48.7 | 47.4 | 52.4 |
| | 여성 | 51.3 | 52.6 | 47.6 |
| 연령 | 19~24세 | 25.0 | 22.3 | 32.5 |
| | 25~29세 | 37.2 | 36.5 | 39.1 |
| | 30~34세 | 33.9 | 36.0 | 28.3 |
| | 35~36세 | 3.9 | 5.3 | 0.1 |
| 연령대 | 20대(19세 포함) | 62.2 | 58.7 | 71.7 |
| | 30대 | 37.8 | 41.3 | 28.3 |
| 권역 ¹⁾ | 도심권 | 5.5 | 5.4 | 6.0 |
| | 동북권 | 29.2 | 29.6 | 28.3 |
| | 동남권 | 19.5 | 18.9 | 21.1 |
| | 서북권 | 12.6 | 12.3 | 13.4 |
| | 서남권 | 33.2 | 33.9 | 31.3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5.5 | 34.0 | 39.8 |
| | 전문대 졸업 | 13.2 | 13.8 | 11.7 |
| | 대학교 졸업 | 45.6 | 46.4 | 43.5 |
| | 대학원 졸업 | 5.7 | 5.9 | 5.1 |

[단위: 명, %]

| 구분 | | | 전체 표본 | 원표본 | 신규표본 |
|--------------------------|--------------------------------|------------------|-------|------|------|
| 장애 유무 | 있음 | | 2.9 | 2.8 | 3.1 |
| | 없음 | | 97.1 | 97.2 | 96.9 |
| 혼인상태 | 미혼 | | 87.0 | 86.1 | 89.4 |
| | 배우자 있음 | | 12.4 | 13.3 | 9.7 |
| | 사별 | | 0.1 | 0.1 | 0.1 |
| | 이혼 | | 0.5 | 0.4 | 0.7 |
| | 별거 | | 0.1 | 0.1 | 0.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4.3 | 34.8 | 33.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3 | 6.7 | 5.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1 | 5.4 | 4.1 |
| | 부모동거 가구 | | 47.5 | 46.3 | 50.8 |
| | 기타 가구 | | 6.9 | 6.9 | 6.9 |
| 자녀 유무 | 자녀 있음 | | 5.8 | 6.2 | 4.5 |
| | 자녀 없음 | | 94.2 | 93.8 | 95.5 |
| 가구 규모 | 거주기준 가구 규모 | 1인 | 34.3 | 34.8 | 33.0 |
| | | 2인 | 16.3 | 16.4 | 15.8 |
| | | 3인 | 19.6 | 19.7 | 19.1 |
| | | 4인 | 23.8 | 23.5 | 24.7 |
| | | 5인 이상 | 6.1 | 5.6 | 7.5 |
| | 경제생활 기준 가구 규모 ²⁾ | 1인 | 20.1 | 21.2 | 17.1 |
| | | 2인 | 13.5 | 14.0 | 12.1 |
| | | 3인 | 22.1 | 22.2 | 21.6 |
| | | 4인 | 32.5 | 31.7 | 34.6 |
| | | 5인 이상 | 11.8 | 10.9 | 14.5 |
|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 부모와 동거 | | 47.5 | 46.3 | 50.8 |
| | 부모 비동거 | 경제지원 있음 | 17.4 | 16.4 | 20.0 |
| | | 경제지원 없음 | 35.2 | 37.3 | 29.2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³⁾ | 경제적 지원 있음 | | 46.3 | 43.8 | 53.1 |
| | 경제적 지원 없음 | | 53.7 | 56.2 | 47.0 |
| 가구 내 지위 | 가구주 | | 36.6 | 37.7 | 33.4 |
| | 가구 생계 기여 |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 20.2 | 19.1 | 23.5 |
| | |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37.6 | 37.4 | 38.2 |
| | |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 4.5 | 4.7 | 3.8 |
| | |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1.1 | 1.1 | 1.1 |

주: 1)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으로 구분함

2) 가구 규모의 경제적 기준은 가구 내에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기준으로 함

3) 부모 또는 주된 양육자의 경제적 지원 유무를 분석함

- [표 4-1-2]는 서울청년패널 조사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령별로 정리한 것이며, 성, 권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 유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의 특성을 분석함
- 응답자 전체 표본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19-24세와 35-36세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25-29세와 30-34세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았음
 - 19-24세는 남성은 45.6%, 여성은 54.4%, 35-36세는 남성은 38.5%, 여성은 61.5%이었음. 25-29세에서는 남성은 50.2%, 여성은 49.8%, 30-34세는 남성은 50.6%, 여성은 49.4%이었음
- 연령별 거주지역을 분석한 결과, 25-29세와 30-34세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순으로 높았으나 19-24세는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순으로, 35-36세는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도심권 순으로 높았음
- 연령별 학력을 분석한 결과, 19-24세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0.4%로 가장 높았고, 그 외 25-29세(54.3%), 30-34세(60.4%), 35-36세(55.2%)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 비율이 낮았으며 19-24세의 98.1%, 25-29세의 95.2%, 30-34세의 73.4%, 35-36세의 55.7%가 미혼이었음
- 연령별 가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동거 가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가구가 높아졌음. 19-24세는 부모동거 가구가 71.0%, 무자녀 부부가구 0.4%, 유자녀 부부가구 0.1%이었으나, 35-36세는 부모동거 가구가 22.4%, 무자녀 부부가구 14.5%, 유자녀 부부가구 27.6%이었음
- 연령별 거주기준 가구 규모를 분석한 결과 19-24세는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 25세 이상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연령별 경제생활기준 가구 규모를 분석한 결과 19-24세와 25-29세에서는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34세는 1인가구, 35-36세는 3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연령별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 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낮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의 비율은 높았음
- 연령별 가구 내 지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고 생계에도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음

[표 4-1-2]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
| 전체(n=5,083) | | | 1,270 | 1,889 | 1,725 | 198 |
| 성별 | 남성 | | 45.6 | 50.2 | 50.6 | 38.5 |
| | 여성 | | 54.4 | 49.8 | 49.4 | 61.5 |
| 권역 ¹⁾ | 도심권 | | 6.2 | 4.7 | 5.6 | 8.1 |
| | 동북권 | | 31.6 | 30.5 | 26.1 | 29.1 |
| | 동남권 | | 18.2 | 18.3 | 22.3 | 14.3 |
| | 서북권 | | 14.0 | 11.6 | 11.9 | 18.4 |
| | 서남권 | | 30.0 | 34.8 | 34.2 | 30.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80.4 | 26.5 | 14.9 | 13.9 |
| | 전문대 졸업 | | 8.1 | 14.8 | 14.6 | 19.3 |
| | 대학교 졸업 | | 11.1 | 54.3 | 60.4 | 55.2 |
| | 대학원 졸업 | | 0.4 | 4.5 | 10.2 | 11.7 |
| 혼인상태 | 미혼 | | 98.1 | 95.2 | 73.4 | 55.7 |
| | 배우자 있음 | | 1.2 | 4.4 | 25.7 | 43.5 |
| | 사별 | | 0.2 | 0.1 | 0.1 | 0.0 |
| | 이혼 | | 0.4 | 0.3 | 0.8 | 0.8 |
| | 별거 | | 0.1 | 0.0 | 0.1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22.4 | 39.2 | 38.1 | 30.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0.4 | 2.6 | 13.7 | 14.5 |
| | 유자녀 부부가구 | | 0.1 | 1.0 | 10.6 | 27.6 |
| | 부모동거 가구 | | 71.0 | 49.4 | 30.9 | 22.4 |
| | 기타 가구 | | 6.0 | 7.8 | 6.7 | 5.4 |
| 자녀 유무 | 자녀 있음 | | 0.3 | 1.4 | 11.8 | 29.8 |
| | 자녀 없음 | | 99.7 | 98.6 | 88.2 | 70.2 |
| 가구 규모 | 거주기준 가구 규모 | 1인 | 22.4 | 39.2 | 38.1 | 30.1 |
| | | 2인 | 9.4 | 13.1 | 23.9 | 24.0 |
| | | 3인 | 19.3 | 17.4 | 20.9 | 29.8 |
| | | 4인 | 37.4 | 24.7 | 14.2 | 13.0 |
| | | 5인 이상 | 11.5 | 5.7 | 2.9 | 3.1 |
| | 경제생활 기준 가구 규모 ²⁾ | 1인 | 6.3 | 22.0 | 27.7 | 24.5 |
| | | 2인 | 5.5 | 10.3 | 22.0 | 22.6 |
| | | 3인 | 20.3 | 21.7 | 22.8 | 29.9 |
| | | 4인 | 47.9 | 33.7 | 21.4 | 18.6 |
| | | 5인 이상 | 20.0 | 12.4 | 6.1 | 4.5 |
|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 부모와 동거 | | 71.0 | 49.4 | 30.9 | 22.4 |
| | 부모 비동거 | 경제지원 있음 | 21.3 | 19.5 | 13.1 | 9.1 |
| | | 경제지원 없음 | 7.7 | 31.1 | 56.0 | 68.5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지원 있음 | | 79.4 | 48.4 | 22.9 | 16.9 |
| | 경제적 지원 없음 | | 20.6 | 51.6 | 77.1 | 83.1 |

[단위: 명, %]

| 구분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
| 가구 내 지위 | 가구주 | | 14.1 | 36.3 | 51.5 | 54.2 |
| | 가구 생계 기여 |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 40.3 | 20.0 | 7.5 | 4.9 |
| | |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41.9 | 39.9 | 32.6 | 32.3 |
| | |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 3.1 | 3.1 | 6.9 | 5.4 |
| | |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0.6 | 0.8 | 1.5 | 3.2 |

주: 1)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으로 구분함

2) 가구 규모에서 경제적 기준은 가구 내에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기준으로 함

(2) 주거·경제 특성

- [표 4-1-3]은 2022년 서울청년패널 응답자의 주거·경제 특성을 표본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며, 표본별 서울 거주 이력, 주거점유 형태, 경제활동상태, 본인 소득 및 부채, 주관적 소득수준 등의 특성을 분석함. 응답자 전체 표본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 응답자 전체 표본의 서울 거주 이력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태어난 응답자는 57.8%이었으며, 서울 태생이 아니면서 서울로 이주한 응답자는 42.2%이었음
- 주거점유 형태는 월세/기타가 37.3%로 가장 높았고, 자가는 31.6%, 전세는 31.1%이었음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73.5%이며 취업자는 65.8%, 실업자는 7.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재학생은 8.0%, 재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는 비재학 미취업자는 18.4%이었음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91.9%이며,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8.1%이었음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분포(월평균 소득)를 분석한 결과 200-300만 원이 33.1%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 원 미만 19.9%, 300-400만 원 미만 14.9%, 50-100만 원 미만 13.1%, 50만 원 미만 10.8%, 400만 원 이상 8.3% 순으로 높았음
-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36.3%이며, 그중에서 본인의 부채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33.5%로 가장 높았음
- 응답자가 인식하는 본인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66.1%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하였고, 하층은 26.8%, 상층은 7.1%이었음

[표 4-1-3] 주거·경제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 전체 표본 | 원표본 | 신규표본 |
|----------------------|--------|---------|-------|-------|-------|
| 전체(n=5,083) | | | 5,083 | 3,735 | 1,348 |
| 서울 거주 이력 | 서울 태생 | | 57.8 | 58.1 | 56.9 |
| | 서울로 이주 | 국내 | 41.5 | 41.2 | 42.6 |
| | | 국외 | 0.7 | 0.7 | 0.5 |
| 주거점유 형태 | 자가 | | 31.6 | 30.6 | 34.3 |
| | 전세 | | 31.1 | 32.3 | 27.6 |
| | 월세/기타 | | 37.3 | 37.1 | 38.0 |
| 경제활동상태 ¹⁾ | 경제활동 | 취업 | 65.8 | 67.3 | 61.9 |
| | | 실업 | 7.7 | 7.5 | 8.3 |
| | 비경제활동 | 재학생 | 8.0 | 6.4 | 12.6 |
| | | 비재학 미취업 | 18.4 | 18.8 | 17.2 |
| 본인 소득 유무 | 없음 | | 8.1 | 6.0 | 13.8 |
| | 있음 | | 91.9 | 94.0 | 86.2 |

| | | [단위: 명, %] | | |
|------------------------|--------------------|------------|------|------|
| 구분 | | 전체 표본 | 원표본 | 신규표본 |
| 본인 소득 ²⁾ | 50만 원 미만 | 10.8 | 9.0 | 16.1 |
| | 50만~100만 원 미만 | 13.1 | 12.6 | 14.5 |
| | 100만~200만 원 미만 | 19.9 | 20.0 | 19.6 |
| | 200만~300만 원 미만 | 33.1 | 34.6 | 28.5 |
| | 300만~400만 원 미만 | 14.9 | 15.1 | 14.1 |
| | 400만 원 이상 | 8.3 | 8.7 | 7.2 |
| 부채 유무 | 부채 없음 | 63.7 | 61.9 | 68.5 |
| | 부채 있음 | 36.3 | 38.1 | 31.5 |
| 본인 부채 규모 ³⁾ | 500만 원 미만 | 12.2 | 11.5 | 14.5 |
| | 500만~1,000만 원 미만 | 7.7 | 7.9 | 7.3 |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27.5 | 27.5 | 27.7 |
| | 5,000만~1억 원 미만 | 19.0 | 19.0 | 18.8 |
| | 1억 원 이상 | 33.5 | 34.1 | 31.6 |
| 주관적 소득수준 ⁴⁾ | 하 | 26.8 | 27.2 | 25.9 |
| | 중 | 66.1 | 66.2 | 65.5 |
| | 상 | 7.1 | 6.6 | 8.6 |

주: 1) '취업'은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이며, '실업'은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

2) 본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4,671명 중 결측치 제외하고 4,585명을 분석함

3) 본인 부채 규모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1,848명 중 결측치 제외하고 1,847명을 분석함

4) 주관적 소득수준은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1(최하)-3점은 '하', 4-7점은 '중', 8-10(최상)점은 '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것임

- [표 4-1-4]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 응답자의 주거·경제 특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것이며, 연령별 서울 거주 이력, 주거점유 형태, 경제활동상태, 본인 소득 및 부채, 주관적 소득수준 등의 특성을 분석함
- 연령별로 서울 태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19-24세가 65.0%로 가장 높았고, 35-36세는 57.9%, 30-34세는 55.4%, 25-29세는 55.1%이었음. 서울로 이주는 국내는 25-29세가 44.2%로 가장 높았고, 국외는 35-36세가 0.9%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주거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 19-24세에서는 자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으나, 25-29세는 월세/기타가 39.5%로 가장 높았고, 30세 이상에서는 전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고 실업자와 재학생의 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으며, 비재학 미취업자(재학 중이 아니면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는 19-24세가 23.2%로 가장 높았음
- 본인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고, 본인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음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19-24세는 50-100만 원 미

만이 31.1%로 가장 높았고, 25-29세(37.5%), 30-34세(41.3%), 35-36세(32.5%)에
서는 200-3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주관적 소득수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간층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1-4] 연령별 주거·경제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
| 전체(n=5,083) | | | 1,270 | 1,889 | 1,725 | 198 |
| 서울 거주 이력 | 서울 태생 | | 65.0 | 55.1 | 55.4 | 57.9 |
| | 서울로 이주 | 국내 | 34.3 | 44.2 | 44.0 | 41.2 |
| | | 국외 | 0.7 | 0.7 | 0.6 | 0.9 |
| 주거점유 형태 | 자가 | | 38.9 | 30.3 | 27.6 | 30.7 |
| | 전세 | | 23.1 | 30.2 | 36.5 | 44.3 |
| | 월세/기타 | | 38.0 | 39.5 | 35.9 | 25.0 |
| 경제활동상태 ¹⁾ | 경제활동 | 취업 | 46.6 | 66.6 | 77.4 | 80.7 |
| | | 실업 | 9.3 | 8.6 | 6.2 | 2.9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0.8 | 6.0 | 1.7 | 0.3 |
| | | 비재학 미취업 | 23.2 | 18.8 | 14.7 | 16.1 |
| 본인 소득 유무 | 없음 | | 15.2 | 7.0 | 4.7 | 3.0 |
| | 있음 | | 84.8 | 93.0 | 95.3 | 97.0 |
| 본인 소득 ²⁾ | 50만 원 미만 | | 23.3 | 10.4 | 3.9 | 4.4 |
| | 50만~100만 원 미만 | | 31.1 | 11.8 | 3.6 | 6.1 |
| | 100만~200만 원 미만 | | 27.8 | 22.6 | 13.0 | 10.3 |
| | 200만~300만 원 미만 | | 13.2 | 37.5 | 41.3 | 32.5 |
| | 300만~400만 원 미만 | | 3.0 | 12.9 | 23.5 | 25.0 |
| | 400만 원 이상 | | 1.6 | 4.8 | 14.8 | 21.6 |
| 부채 유무 | 부채 없음 | | 85.8 | 65.3 | 47.8 | 43.5 |
| | 부채 있음 | | 14.2 | 34.7 | 52.2 | 56.5 |
| 본인 부채 규모 ³⁾ | 500만 원 미만 | | 43.1 | 15.1 | 5.3 | 1.7 |
| | 500만~1,000만 원 미만 | | 15.0 | 9.9 | 5.4 | 2.9 |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 24.4 | 30.3 | 26.9 | 21.0 |
| | 5,000만~1억 원 미만 | | 8.2 | 22.2 | 19.1 | 16.6 |
| | 1억 원 이상 | | 9.3 | 22.5 | 43.4 | 57.8 |
| 주관적 소득수준 ⁴⁾ | 하 | | 24.5 | 28.6 | 27.2 | 21.7 |
| | 중 | | 66.0 | 64.6 | 67.3 | 69.5 |
| | 상 | | 9.5 | 6.8 | 5.5 | 8.8 |

주: 1) '취업'은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이며, '실업'은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

2) 본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4,671명 중 결측치 제외하고 4,585명을 분석함

3) 본인 부채 규모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1,848명 중 결측치 제외하고 1,847명을 분석함

4) 주관적 소득수준은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1(최하)~3점은 '하', 4~7점은 '중', 8~10(최상)점은 '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것임

2_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 응답자 전체 표본의 경제활동상태, 거주 이력, 부모와 독립, 혼인상태 등 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을 분석함

1) 경제활동상태

- 아래 [표 4-2-1]은 전체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우선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3.5%이며, 그중 취업자는 65.8%, 실업자는 7.7%이었음.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6.4%이며, 그중 재학생은 8.0%, 비재학 미취업자는 18.4%이었음
- 성별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취업자 62.6%, 실업자 8.4%이며, 여성은 취업자 68.9%, 실업자 7.1%로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재학 9.8%, 비재학 미취업 19.2%, 여성은 재학 6.4%, 비재학 미취업 17.6%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실업자, 재학생 및 비재학 미취업자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임
-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은 높고,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 비율은 낮았음
- 가구 유형별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가 82.2%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 비율은 기타 가구가 10.2%로 가장 높았음. 재학생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가 10.6%로 가장 높았고, 비재학 미취업자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25.8%로 가장 높았음

[표 4-2-1]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구분 |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취업 | 실업 | 재학 | 비재학 미취업 |
| 전체(n=5,083) | | 65.8 | 7.7 | 8.0 | 18.4 |
| 성별 | 남성 | 62.6 | 8.4 | 9.8 | 19.2 |
| | 여성 | 68.9 | 7.1 | 6.4 | 17.6 |

[단위: %]

| 구분 |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취업 | 실업 | 재학 | 비재학 미취업 |
| 연령 | 19-24세 | 46.6 | 9.3 | 20.8 | 23.2 |
| | 25-29세 | 66.6 | 8.6 | 6.0 | 18.8 |
| | 30-34세 | 77.4 | 6.2 | 1.7 | 14.7 |
| | 35-36세 | 80.7 | 2.9 | 0.3 | 16.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9.1 | 9.9 | 17.8 | 23.2 |
| | 전문대 졸업 | 70.3 | 8.6 | 0.9 | 20.2 |
| | 대학교 졸업 | 75.7 | 6.2 | 3.2 | 14.9 |
| | 대학원 졸업 | 80.8 | 4.6 | 2.0 | 12.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0.9 | 7.2 | 7.0 | 14.9 |
| | 무자녀 부부가구 | 82.2 | 3.2 | 2.1 | 12.5 |
| | 유자녀 부부가구 | 69.6 | 3.5 | 1.1 | 25.8 |
| | 부모동거 가구 | 59.4 | 8.8 | 10.6 | 21.2 |
| | 기타 가구 | 67.0 | 10.2 | 6.3 | 16.4 |

2) 거주 이력

- 다음으로 청년의 이행 특성 중 거주 이력을 분석함. 거주 이력은 서울 태생 여부, 서울로 이주 당시 연령대, 서울 이주 사유,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1) 서울 이주

- [표 4-2-2]는 서울 태생 여부 및 서울 이주 당시 연령대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
- 우선 전체 응답자 중 서울 태생은 57.8%, 서울로 이주는 42.2%이었음
- 성별에 따라 거주이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60.7%, 여성의 55.1%가 서울 태생임
- 연령별 거주이력을 분석한 결과, 19-24세에서 서울 태생인 경우가 65.0%로 가장 높았고, 25-29세에서 서울 태생이 55.1%로 가장 낮았음
- 학력에 따라 거주이력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5.5%, 대학원 졸업은 49.8%로 학력이 낮을수록 서울 태생의 비율이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 거주이력을 분석한 결과, 서울 태생의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에서 81.4%로 가장 높았으며, 1인가구에서 31.5%로 가장 낮았음
- 다음으로 서울 이주 당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2-28세가 39.6%로 가장 높았고, 15-21세 31.8%, 8세 미만 14.3%, 8-14세 7.7%, 29세 이후 6.7% 순으

로 높았음

- 성별로 서울 이주 당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남성(41.5%)과 여성(38.0%) 모두 22-28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연령별 서울 이주 당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9-24세(48.3%)는 15-21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25-29세(50.7%), 30-34세(42.2%), 35-36세(32.9%)는 22-28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 서울 이주 당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42.3%)는 15-21세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졸업(46.8%), 대학교 졸업(46.6%), 대학원 졸업(40.0%)은 22-28세에서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서울로 이주한 당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는 8세 미만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모든 가구 유형에서는 22-28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았음

[표 4-2-2] 서울 이주 여부 및 이주 당시의 연령

[단위: %]

| 구분 | | 서울 이주 여부 (n=5,083) | | 서울로 이주 - 이주 당시 연령 ¹⁾ (n=2,145) ²⁾ | | | | |
|----------|------------|-----------------------|-----------|--|-------|--------|--------|--------|
| | | 서울 태생 | 서울로 이주 | 8세 미만 | 8-14세 | 15-21세 | 22-28세 | 29세 이후 |
| 전체 | | 57.8 | 42.2 | 14.3 | 7.7 | 31.8 | 39.6 | 6.7 |
| 성별 | 남성 | 60.7 | 39.3 | 15.3 | 8.4 | 28.0 | 41.5 | 6.8 |
| | 여성 | 55.1 | 44.9 | 13.4 | 7.1 | 34.9 | 38.0 | 6.6 |
| 연령 | 19-24세 | 65.0 | 35.0 | 27.1 | 9.6 | 48.3 | 15.0 | 0.0 |
| | 25-29세 | 55.1 | 44.9 | 12.5 | 7.4 | 29.4 | 50.7 | 0.0 |
| | 30-34세 | 55.4 | 44.6 | 9.9 | 6.8 | 25.4 | 42.2 | 15.7 |
| | 35-36세 | 57.9 | 42.1 | 4.9 | 8.7 | 26.3 | 32.9 | 27.2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5.5 | 34.5 | 23.2 | 8.9 | 42.3 | 23.8 | 1.8 |
| | 전문대 졸업 | 63.5 | 36.5 | 16.0 | 7.7 | 21.8 | 46.8 | 7.8 |
| | 대학교 졸업 | 51.2 | 48.8 | 9.7 | 7.4 | 27.8 | 46.6 | 8.5 |
| | 대학원 졸업 | 49.8 | 50.2 | 9.4 | 4.4 | 34.4 | 40.0 | 11.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1.5 | 68.6 | 4.5 | 2.0 | 36.7 | 48.9 | 8.0 |
| | 무자녀 부부가구 | 52.7 | 47.4 | 8.8 | 4.0 | 27.3 | 43.4 | 16.5 |
| | 유자녀 부부가구 | 57.2 | 42.8 | 8.3 | 8.8 | 19.5 | 50.6 | 12.8 |
| | 부모동거 가구 | 81.4 | 18.7 | 48.2 | 25.9 | 18.1 | 7.4 | 0.4 |
| | 기타 가구 | 31.7 | 68.3 | 5.9 | 3.4 | 41.5 | 46.1 | 3.1 |

주: 1) 이주 당시 연령 = 서울 이주 연도 - 생년

2) 거주이력은 응답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울로 이주는 서울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2,145명을 대상으로 함

- 서울 이외 지역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한 응답자의 서울 이주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한 경우가 36.1%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 33.6%,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을 따라서 이사 22.8%, 결혼, 독립 등의 이유 3.8%, 거주 환경을 개선 1.7% 등의 순으로 높았음([표 4-2-3] 참조)

[표 4-2-3] 서울로 이주한 이유

[단위: %]

| 구분 | (n=2,145) ¹⁾ |
|------------------------|-------------------------|
| 학업을 위해서 이사 | 36.1 |
|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이사 | 33.6 |
|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을 따라서 이사 | 22.8 |
|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이사 | 3.8 |
|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 | 1.7 |
| 주거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이사 | 0.3 |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사 | 0.4 |
| 자녀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해서 이사 | 0.3 |
| 주거자원을 받게 되어서 이사 | 0.3 |
| 내 집을 마련하여서 이사 | 0.1 |
| 기타 | 0.4 |

주: 1) 서울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2,1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 다음으로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함([표 4-2-4] 참조)
-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은 서울이 59.6%, 서울 이외 국내 39.6%, 국외 0.7%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62.1%)과 여성(57.3%) 모두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 18세 이전 서울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만 18세 이전 서울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는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응답자는 부모동거 가구에서 89.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이외 지역은 1인가구에서 73.4%, 국외는 기타 가구에서 1.4%로 가장 높았음

[표 4-2-4]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단위: %]

| 구분 | | 서울 | 서울 이외 | 국외 |
|-------------|------------|------|-------|-----|
| 전체(n=5,083) | | 59.6 | 39.6 | 0.7 |
| 성별 | 남성 | 62.1 | 37.4 | 0.6 |
| | 여성 | 57.3 | 41.8 | 0.9 |
| 연령 | 19-24세 | 72.9 | 26.3 | 0.8 |
| | 25-29세 | 56.5 | 42.6 | 0.9 |
| | 30-34세 | 53.9 | 45.6 | 0.5 |
| | 35-36세 | 54.4 | 45.2 | 0.4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0.6 | 28.5 | 0.9 |
| | 전문대 졸업 | 65.7 | 34.1 | 0.1 |
| | 대학교 졸업 | 50.7 | 48.6 | 0.7 |
| | 대학원 졸업 | 48.9 | 50.0 | 1.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5.8 | 73.4 | 0.7 |
| | 무자녀 부부가구 | 49.9 | 49.0 | 1.1 |
| | 유자녀 부부가구 | 57.1 | 42.5 | 0.4 |
| | 부모동거 가구 | 89.9 | 9.4 | 0.6 |
| | 기타 가구 | 29.7 | 68.9 | 1.4 |

- 서울 태생이 아닌 응답자의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18.9%, 서울 이외는 80.0%, 국외는 1.1%이었음([표 4-2-5] 참조)
- 성별에 따라서 서울 태생이 아닌 응답자의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남성(79.7%)과 여성(80.2%) 모두 서울 이외 지역이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태생이 아닌 경우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 이외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35-36세(86.6%)에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학력에서 서울 이외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 87.4%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에서는 서울이 64.2%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모든 가구 유형에서는 서울 이외 지역이 가장 높았음

[표 4-2-5] 서울 태생이 아닌 경우 만 18세 이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

[단위: %]

| 구분 | | 서울 | 서울 이외 | 국외 |
|---------------------------|------------|------|-------|-----|
| 전체(n=2,145) ¹⁾ | | 18.9 | 80.0 | 1.1 |
| 성별 | 남성 | 19.3 | 79.7 | 1.0 |
| | 여성 | 18.7 | 80.2 | 1.1 |
| 연령 | 19-24세 | 34.0 | 65.0 | 1.0 |
| | 25-29세 | 16.1 | 82.6 | 1.4 |
| | 30-34세 | 14.1 | 85.0 | 0.8 |
| | 35-36세 | 12.4 | 86.6 | 1.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9.3 | 69.1 | 1.6 |
| | 전문대 졸업 | 21.7 | 77.9 | 0.3 |
| | 대학교 졸업 | 13.6 | 85.5 | 0.9 |
| | 대학원 졸업 | 11.5 | 87.4 | 1.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3 | 93.7 | 0.9 |
| | 무자녀 부부가구 | 12.2 | 86.2 | 1.6 |
| | 유자녀 부부가구 | 15.2 | 83.9 | 0.9 |
| | 부모동거 가구 | 64.2 | 34.7 | 1.2 |
| | 기타 가구 | 7.8 | 90.6 | 1.6 |

주: 1) 서울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2,145명을 분석함

- [표 4-2-6]은 만 19세 이전 서울 이주자를 포함하여 서울 거주 이력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서울에 거주했던 청년은 65.8%이며, 서울 이외에서 서울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은 34.2%임
-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청년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비율이 각 42.2%, 44.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 유형별 거주 이력을 보면, 1인가구와 기타 가구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비율이 각 64.9%, 63.0%로 과반이었고, 부모동거 가구는 서울 거주 비율이 93.3%로 매우 높았음

[표 4-2-6] 서울 거주 이력

[단위: %]

| 구분 | | 서울 ¹⁾ | 서울 이외 |
|---------------|------------|------------------|-------|
| 전체(n = 5,083) | | 65.8 | 34.2 |
| 성별 | 남성 | 68.3 | 31.7 |
| | 여성 | 63.5 | 36.5 |
| 연령 | 19-24세 | 76.9 | 23.1 |
| | 25-29세 | 62.3 | 37.7 |
| | 30-34세 | 61.7 | 38.3 |
| | 35-36세 | 63.1 | 36.9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5.6 | 24.4 |
| | 전문대 졸업 | 71.5 | 28.5 |
| | 대학교 졸업 | 57.8 | 42.2 |
| | 대학원 졸업 | 55.6 | 44.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5.1 | 64.9 |
| | 무자녀 부부가구 | 58.4 | 41.6 |
| | 유자녀 부부가구 | 63.7 | 36.3 |
| | 부모동거 가구 | 93.3 | 6.7 |
| | 기타 가구 | 37.1 | 63.0 |

주: 1) 19세 이전 서울 이주자는 서울에 포함하여 분석함

3) 가구 배경

- 다음으로 청년의 이행 특성 중 가구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 전망, 혼인 특성, 가족돌봄청년 특성 등을 분석함

(1)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전망

- [표 4-2-7]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은 전체 응답자 중 47.5%이며, 동거 중이지 않은 청년은 52.6%이었음. 동거 중이지 않은 청년 중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청년은 남성이 49.9%, 여성이 45.2%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았고, 비동거 청년

중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의 비율도 낮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부모 동거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동거 비율이 낮았음
- 가구 유형에 따라서 부모동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비동거 청년 중 경제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타 가구에서 36.5%, 1인가구에서 36.4%로 높았으며, 경제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89.9%) 및 유자녀 부부가구(72.5%)에서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가 42.8%로 가장 낮았음

[표 4-2-7] 부모동거 특성

[단위: %]

| 구분 | | 부모와 동거 | 비동거 | |
|-------------|------------|---------|---------|---------|
| | | | 경제지원 있음 | 경제지원 없음 |
| 전체(n=5,083) | | 47.5 | 17.4 | 35.2 |
| 성별 | 남성 | 49.9 | 15.6 | 34.5 |
| | 여성 | 45.2 | 19.0 | 35.8 |
| 연령 | 19-24세 | 71.0 | 21.3 | 7.7 |
| | 25-29세 | 49.4 | 19.5 | 31.1 |
| | 30-34세 | 30.9 | 13.1 | 56.0 |
| | 35-36세 | 22.4 | 9.1 | 68.5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2.1 | 19.4 | 18.5 |
| | 전문대 졸업 | 50.3 | 12.2 | 37.5 |
| | 대학교 졸업 | 37.8 | 16.9 | 45.4 |
| | 대학원 졸업 | 27.0 | 20.9 | 52.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0.0 | 36.4 | 63.6 |
| | 무자녀 부부가구 | 0.0 | 10.1 | 89.9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27.5 | 72.5 |
| | 부모동거 가구 | 100.0 | 0.0 | 0.0 |
| | 기타 가구 | 0.0 | 41.1 | 58.9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2.8 | 14.2 |
| | | 실업 | 54.1 | 20.8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2.4 | 31.8 |
| | | 비재학 미취업 | 54.7 | 20.9 |

- 다음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를 성, 연령, 학력별로 분석함([표 4-2-8] 참조)
-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연령은 평균 30.6세이며, 남성(30.9세)이 여성(30.4세)보다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예상 독립 연령이 높았음
-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의 예상 독립 시기는 2-5년 이내가 42.4%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이 10.3%로 가장 낮았음
- 연령별로 예상 독립 시기를 분석한 결과, 19-24세(41.9%)에서는 5-10년이내, 35-36세(34.5%)는 2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나, 25-29세(50.6%)와 30-34세(45.5%)는 2-5년 이내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예상 독립 시기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5-10년 이내가 38.1%로 가장 높았으나, 그 외 학력은 2-5년 이내가 가장 높았음

[표 4-2-8]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단위: 세, %]

| 구분 | | 예상독립연령 ²⁾ | 2년 미만 | 2-5년 이내 | 5-10년 이내 | 10년 이상 |
|---------------------------|------------|----------------------|-------|---------|----------|--------|
| 전체(n=1,843) ¹⁾ | | 30.6 | 15.8 | 42.4 | 31.4 | 10.3 |
| 성별 | 남성 | 30.9 | 15.8 | 43.1 | 31.2 | 9.9 |
| | 여성 | 30.4 | 15.8 | 41.6 | 31.8 | 10.8 |
| 연령 | 19-24세 | 27.4 | 9.6 | 32.7 | 41.9 | 15.9 |
| | 25-29세 | 30.8 | 14.3 | 50.6 | 28.1 | 7.0 |
| | 30-34세 | 35.3 | 27.9 | 45.5 | 19.7 | 7.0 |
| | 35-36세 | 39.0 | 34.5 | 26.3 | 30.5 | 8.7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9.0 | 12.0 | 36.5 | 38.1 | 13.4 |
| | 전문대 졸업 | 31.2 | 18.1 | 44.8 | 29.3 | 7.8 |
| | 대학교 졸업 | 32.3 | 18.8 | 49.0 | 24.6 | 7.6 |
| | 대학원 졸업 | 33.9 | 28.8 | 45.3 | 19.1 | 6.8 |

주: 1) 부모와 동거하는 2,396명 중 주거 독립 예상 시기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55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예상독립연령 = 현재 연령+예상독립시기

- 현재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를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4-2-9] 참조), 학업 또는 진로 준비가 38.9%로 가장 높았고, 취업하여서 24.0%,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14.7%, 결혼 후 분가 13.0%, 기타 4.5%, 부모님과 불화 4.2%, 부모님 안 계심(사망) 0.7%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비동거 사유를 분석한 결과, 남성(39.9%)과 여성(37.9%) 모두 학업 또는 진로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 외 남성과 여성의 비동거 사유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여성(4.6%)에서는 부모님과 불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3.7%)보다 비교적 높았음

- 연령별로 비동거 사유를 분석한 결과, 19-24세는 학업 또는 진로 준비가 69.6%로 가장 높았으나, 35-36세는 결혼 후 분가가 33.2%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비동거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46.7%), 대학교 졸업(37.9%), 대학원 졸업(46.5%)에서 학업 또는 진로준비가 가장 높았으나, 전문대 졸업은 취업하여서가 27.6%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비동거 사유를 분석한 결과, 모두 학업 또는 진로 준비가 가장 높았음. 비경제활동 청년 중 재학생은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가 6.2%, 비재학 미취업은 결혼 후 분가가 16.9%로 두 번째로 높았음

[표 4-2-9]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

[단위: %]

| 구분 | | 학업 또는 진로준비 | 취업 하여서 | 결혼 후 분가 | 부모님과의 불화 |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 부모님 안계심 (사망) | 기타 | |
|---------------------------|------------|---------------|-----------|------------|-------------|-------------------|--------------------|-----|-----|
| 전체(n=2,661) ¹⁾ | | 38.9 | 24.0 | 13.0 | 4.2 | 14.7 | 0.7 | 4.5 | |
| 성별 | 남성 | 39.9 | 23.2 | 11.7 | 3.7 | 15.4 | 0.6 | 5.5 | |
| | 여성 | 37.9 | 24.7 | 14.2 | 4.6 | 14.1 | 0.7 | 3.7 | |
| 연령 | 19-24세 | 69.6 | 9.7 | 0.4 | 2.8 | 10.9 | 0.5 | 6.2 | |
| | 25-29세 | 43.6 | 29.1 | 3.3 | 3.7 | 14.7 | 0.6 | 5.1 | |
| | 30-34세 | 28.3 | 24.1 | 21.9 | 5.2 | 16.0 | 0.8 | 3.7 | |
| | 35-36세 | 20.4 | 24.8 | 33.2 | 3.5 | 14.0 | 0.6 | 3.3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6.7 | 11.1 | 6.8 | 7.3 | 18.6 | 1.1 | 8.5 | |
| | 전문대 졸업 | 22.5 | 27.6 | 17.4 | 4.9 | 20.3 | 1.1 | 6.2 | |
| | 대학교 졸업 | 37.9 | 30.2 | 14.3 | 2.9 | 11.9 | 0.4 | 2.4 | |
| | 대학원 졸업 | 46.5 | 17.2 | 17.3 | 2.3 | 12.9 | 0.0 | 3.8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34.1 | 27.6 | 13.6 | 4.2 | 15.7 | 0.7 | 4.2 |
| | | 실업 | 42.4 | 20.4 | 5.2 | 9.6 | 14.9 | 0.6 | 6.9 |
| | 비경제활동 | 재학 | 81.2 | 3.1 | 4.6 | 0.0 | 6.2 | 0.0 | 5.0 |
| | | 비재학 미취업 | 44.2 | 16.6 | 16.9 | 3.6 | 13.0 | 0.6 | 5.0 |

주: 1) 부모 또는 주된 양육자와 동거하지 않는 2,661명을 분석함

(2) 혼인 특성

- [표 4-2-10]에서는 혼인 특성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주거점유 형태에 따라 분석함
- 전체 응답자 중 90.5%가 결혼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73.2%는 현재 결혼하지 않았으나 향후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이며, 17.3%는 현재 결혼하지 않았으며 향후 결혼 의사도 없는 비혼임
- 성별에 따른 혼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79.9%가 미혼, 11.9%가 비혼이었으며, 여성은 66.8%가 미혼, 22.4%가 비혼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비혼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의 비율이 높게,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의 비율이 높았음. 비혼 비율은 25-29세에서 19.0%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혼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의 비율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의 비율이 높았음
- 가구 유형을 부부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1인가구(81.3%), 부모동거 가구(80.2%), 기타 가구(78.3%)에서는 미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혼인 경우는 기타 가구가 21.4%로 가장 높았음
- 주거점유 형태별로 혼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미혼은 자가 형태에서 75.0%로 가장 높았고, 비혼은 월세/기타에서 20.2%로 가장 높았음. 기혼에서는 전세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음

[표 4-2-10] 혼인 특성

[단위: %]

| 구분 | | 미혼 ¹⁾ | 비혼 ²⁾ | 기혼 |
|-------------|------------|------------------|------------------|------|
| 전체(n=5,083) | | 73.2 | 17.3 | 9.5 |
| 성별 | 남성 | 79.9 | 11.9 | 8.2 |
| | 여성 | 66.8 | 22.4 | 10.8 |
| 연령 | 19-24세 | 81.2 | 18.5 | 0.3 |
| | 25-29세 | 78.6 | 19.0 | 2.4 |
| | 30-34세 | 64.3 | 14.8 | 20.9 |
| | 35-36세 | 46.5 | 15.8 | 37.7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6.5 | 19.7 | 3.8 |
| | 전문대 졸업 | 72.4 | 17.2 | 10.4 |
| | 대학교 졸업 | 71.7 | 16.0 | 12.3 |
| | 대학원 졸업 | 65.4 | 13.4 | 21.1 |

[단위: %]

| 구분 | | 미혼 ¹⁾ | 비혼 ²⁾ | 기혼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81.3 | 18.5 | 0.2 |
| | 무자녀 부부가구 | 0.0 | 0.0 | 10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0.0 | 100.0 |
| | 부모동거 가구 | 80.2 | 18.9 | 0.9 |
| | 기타 가구 | 78.3 | 21.4 | 0.2 |
| 주거점유 형태 | 자가 | 75.0 | 15.8 | 9.2 |
| | 전세 | 70.2 | 15.4 | 14.4 |
| | 월세/기타 | 74.1 | 20.2 | 5.7 |

주: 1) '미혼'은 현재 배우자가 없고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임

2) '비혼'은 현재 배우자가 없고 향후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임

- 다음으로 현재 미혼인 청년의 결혼 의향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함([표 4-2-11] 참조). 전체 미혼 청년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46.5%,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19.1%,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이었음
- 성별에 따른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55.7%로 여성(37.6%)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여성은 결혼할 의향(37.6%)과 모르겠다고(37.2%)고 응답한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음
- 학력별로 결혼 의향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 유형별 결혼 의향을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로 가장 높았음.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에서 35.6%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결혼 의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재학생에서 53.6%로 가장 높았고,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재학 미취업자에서 22.7%로 가장 높았음

[표 4-2-11]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단위: %]

| 구분 | | 결혼할 의향 있음 | 결혼할 의향 없음 | 모르겠다 |
|---------------------------|----|-----------|-----------|------|
| 전체(n=4,598) ¹⁾ | | 46.5 | 19.1 | 34.3 |
| 성별 | 남성 | 55.7 | 13.0 | 31.4 |
| | 여성 | 37.6 | 25.1 | 37.2 |

[단위: %]

| 구분 | | | 결혼할 의향 있음 | 결혼할 의향 없음 | 모르겠다 |
|--------|------------|---------|-----------|-----------|------|
| 연령 | 19-24세 | | 44.6 | 18.5 | 36.8 |
| | 25-29세 | | 46.4 | 19.4 | 34.2 |
| | 30-34세 | | 49.3 | 18.7 | 31.9 |
| | 35-36세 | | 37.1 | 25.4 | 37.5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4.0 | 20.5 | 35.5 |
| | 전문대 졸업 | | 44.7 | 19.2 | 36.1 |
| | 대학교 졸업 | | 48.1 | 18.2 | 33.7 |
| | 대학원 졸업 | | 56.6 | 17.0 | 26.3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47.4 | 18.5 | 34.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78.9 | 7.8 | 13.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9.6 | 11.0 | 29.4 |
| | 부모동거 가구 | | 45.3 | 19.1 | 35.6 |
| | 기타 가구 | | 40.0 | 26.3 | 33.7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8.7 | 18.4 | 33.0 |
| | | 실업 | 42.2 | 20.2 | 37.7 |
| | 비경제활동 | 재학 | 53.6 | 16.2 | 30.3 |
| | | 비재학 미취업 | 37.7 | 22.7 | 39.6 |

주: 1) 미혼 청년 4,598명을 분석함

- 다음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함([표 4-2-12] 참조)
-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5.7%,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94.3%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6.8%, 남성의 4.6%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부가구를 제외하고 기타 가구에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인가구에서 99.5%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자녀 유무를 분석한 결과, 비재학 미취업자에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1.2%로 가장 낮았음

[표 4-2-12]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

[단위: %]

| 구분 | |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
| 전체(n=5,083) | | | 5.7 | 94.3 |
| 성별 | 남성 | | 4.6 | 95.4 |
| | 여성 | | 6.8 | 93.2 |
| 연령 | 19-24세 | | 0.2 | 99.8 |
| | 25-29세 | | 1.4 | 98.6 |
| | 30-34세 | | 11.8 | 88.2 |
| | 35-36세 | | 29.8 | 70.2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5 | 97.5 |
| | 전문대 졸업 | | 6.4 | 93.6 |
| | 대학교 졸업 | | 7.7 | 92.3 |
| | 대학원 졸업 | | 8.5 | 91.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0.5 | 99.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0.0 | 10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00.0 | 0.0 |
| | 부모동거 가구 | | 0.8 | 99.2 |
| | 기타 가구 | | 1.5 | 98.5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0 | 94.0 |
| | | 실업 | 2.9 | 97.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2 | 98.8 |
| | | 비재학 미취업 | 7.8 | 92.2 |

- [표 4-2-13]는 현재 자녀가 없는 청년의 향후 자녀 계획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자녀가 없는 청년 중 50.5%는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었으며, 향후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중에서는 2명 30.9%, 1명 14.3%, 3명 이상 4.2%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는 청년 중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남성이 39.6%, 여성이 61.2%로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원 졸업에서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가 37.8%로 가장 낮았으며, 전문대 졸업에서 53.6%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로 가장 낮았으며, 기타 가구에서 61.0%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재학 미취업이 57.7%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44.4%로 가장 낮았음

[표 4-2-13] 자녀가 없는 청년의 향후 자녀 계획

[단위: %]

| 구분 | | | 자녀 계획 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
|---------------------------|------------|---------|----------|------|------|-------|
| 전체(n=4,792) ¹⁾ | | | 50.5 | 14.3 | 30.9 | 4.2 |
| 성별 | 남성 | | 39.6 | 14.9 | 39.3 | 6.2 |
| | 여성 | | 61.2 | 13.8 | 22.8 | 2.3 |
| 연령 | 19~24세 | | 55.6 | 9.1 | 30.0 | 5.3 |
| | 25~29세 | | 49.9 | 13.2 | 32.8 | 4.0 |
| | 30~34세 | | 46.2 | 19.5 | 30.3 | 4.0 |
| | 35~36세 | | 59.8 | 19.4 | 20.8 | 0.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3.0 | 10.9 | 31.3 | 4.7 |
| | 전문대 졸업 | | 53.6 | 14.2 | 27.7 | 4.5 |
| | 대학교 졸업 | | 49.1 | 16.6 | 30.6 | 3.7 |
| | 대학원 졸업 | | 37.8 | 18.8 | 38.4 | 5.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50.0 | 14.8 | 30.5 | 4.7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6.7 | 35.3 | 36.7 | 1.3 |
| | 부모동거 가구 | | 52.6 | 11.7 | 31.6 | 4.1 |
| | 기타 가구 | | 61.0 | 11.0 | 23.0 | 5.1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9.0 | 15.9 | 31.2 | 3.9 |
| | | 실업 | 53.7 | 11.1 | 29.8 | 5.4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4.4 | 13.6 | 38.0 | 4.0 |
| | | 비재학 미취업 | 57.7 | 10.2 | 27.1 | 5.0 |

주: 1) 자녀가 없는 청년 4,792명을 분석함

(3) 가족돌봄청년

- [표 4-2-14]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의 1.3%가 가족에게 직접 돌봄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3.1%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에서 0.9%로 가장 낮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1.5%로 가장 높고 비재학 미취업가 0.9%로 가장 낮았음

[표 4-2-14] 가족돌봄청년 여부

[단위: %]

| 구분 | | | 예 | 아니오 |
|---------------------------|------------|---------|-----|------|
| 전체(n=5,083) ¹⁾ | | | 1.3 | 98.7 |
| 성별 | 남성 | | 1.4 | 98.6 |
| | 여성 | | 1.2 | 98.8 |
| 연령 | 19-24세 | | 1.4 | 98.6 |
| | 25-29세 | | 1.1 | 98.9 |
| | 30-34세 | | 1.5 | 98.5 |
| | 35-36세 | | 0.9 | 99.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3 | 98.7 |
| | 전문대 졸업 | | 1.6 | 98.4 |
| | 대학교 졸업 | | 1.3 | 98.7 |
| | 대학원 졸업 | | 1.3 | 98.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0.9 | 99.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0.6 | 99.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1 | 96.9 |
| | 부모동거 가구 | | 1.4 | 98.6 |
| | 기타 가구 | | 2.0 | 98.0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5 | 98.5 |
| | | 실업 | 1.4 | 98.6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1 | 98.9 |
| | | 비재학 미취업 | 0.9 | 99.1 |

주: 1)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직접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하는 청년임

[참고] 가족돌봄청(소)년 추정

[단위: %]

| 구분 | 추정 비율 | 추산 인원 (19-34세 청년 인구 0.6% 적용) |
|-----------|-----------|---------------------------------|
| 가족돌봄청(소)년 | 0.6%-1.4% | 61,000명 |

주: 1) 가족돌봄청(소)년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자로 예상되는 청(소)년임

자료: 함선유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 [표 4-2-15]는 정기적(규칙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돌봄 대상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가족돌봄청년 중 정기적(규칙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59.6%이며, 남성(68.5%) 응답자가 여성(49.6%)보다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보면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67.9%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에서 51.5%로 가장 낮았음
- 다음으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54.3%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 40.0%, 할머니 22.0%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4-2-15] 정기적(규칙적) 돌봄 제공 여부 및 돌봄 대상

[단위: %]

| 구분 | | 정기적(규칙적) 돌봄 제공 여부 | | 돌봄 대상(복수 응답) | | | | | | |
|------------------------|------------|----------------------|-------|--------------|------|------|------|------|-------------|------|
| | | 예 | 아니오 | 어머니 | 아버지 | 형제자매 | 할머니 | 할아버지 | 기타 다른 친척 | |
| 전체(n=69) ¹⁾ | | 59.6 | 40.4 | 54.3 | 40.0 | 15.8 | 22.0 | 6.1 | 22.6 | |
| 성별 | 남성 | 68.5 | 31.5 | 55.7 | 49.8 | 14.5 | 21.3 | 8.9 | 26.5 | |
| | 여성 | 49.6 | 50.4 | 52.6 | 28.8 | 17.3 | 22.9 | 2.9 | 18.1 | |
| 연령 | 19~24세 | 53.6 | 46.4 | 23.3 | 28.6 | 11.4 | 35.2 | 6.7 | 47.4 | |
| | 25~29세 | 52.0 | 48.0 | 64.3 | 52.3 | 29.0 | 12.7 | 9.3 | 12.4 | |
| | 30~34세 | 70.5 | 29.5 | 66.7 | 36.6 | 9.0 | 19.2 | 3.5 | 16.0 | |
| | 35~36세 | 49.7 | 50.3 | 50.4 | 50.4 | 0.0 | 49.7 | 0.0 | 0.0 |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6.5 | 43.5 | 28.3 | 28.6 | 3.4 | 39.2 | 13.7 | 38.7 | |
| | 전문대 졸업 | 61.8 | 38.2 | 62.5 | 45.7 | 11.2 | 8.5 | 8.5 | 29.1 | |
| | 대학교 졸업 | 59.6 | 40.4 | 68.4 | 41.7 | 26.8 | 16.3 | 0.0 | 10.3 | |
| | 대학원 졸업 | 73.0 | 27.0 | 79.4 | 79.4 | 20.6 | 0.0 | 0.0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9.1 | 60.9 | 54.4 | 53.4 | 26.5 | 20.2 | 7.2 | 19.4 | |
| | 무자녀 부부가구 | 100.0 | 0.0 | 0.0 | 0.0 | 43.0 | 0.0 | 0.0 | 57.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75.2 | 24.8 | 60.2 | 11.1 | 0.0 | 0.0 | 0.0 | 39.8 | |
| | 부모동거 가구 | 60.6 | 39.4 | 58.9 | 44.9 | 16.3 | 21.2 | 8.5 | 19.3 | |
| | 기타 가구 | 73.8 | 26.2 | 37.9 | 27.5 | 0.0 | 62.2 | 0.0 | 17.1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9.8 | 40.2 | 59.7 | 40.3 | 16.2 | 22.6 | 3.6 | 17.6 |
| | 활동 | 실업 | 56.3 | 43.6 | 43.7 | 43.7 | 36.7 | 23.4 | 0.0 | 18.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00.0 | 0.0 | 24.2 | 24.2 | 0.0 | 27.4 | 0.0 | 75.8 |
| | 활동 | 비재학 미취업 | 39.6 | 60.4 | 44.0 | 44.0 | 8.2 | 14.6 | 28.9 | 27.2 |

주: 1) 가족에게 직접 돌봄과 경제적 지원 모두 하고 있다고 응답(가족돌봄청년)한 69명을 분석함.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표 4-2-16]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렵지 않음 34.8%, 보통 33.4%, 어려움 31.8%로 응답함
- 여성이 돌봄으로 인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남성(22.7%)에 비해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76.4%로 가장 높았음

[표 4-2-16]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단위: %]

| 구 분 | | 어려움 | | | 보통 | 어렵지 않음 | | |
|------------------------|------------|---------|--------|--------|------|--------|-----------|-----------|
| | | | 매우 어려움 | 어려운 편임 | | | 별로 어렵지 않음 | 전혀 어렵지 않음 |
| 전체(n=69) ¹⁾ | | 31.8 | 12.4 | 19.4 | 33.4 | 34.8 | 24.1 | 10.7 |
| 성별 | 남성 | 22.7 | 4.9 | 17.8 | 43.4 | 33.9 | 27.4 | 6.5 |
| | 여성 | 42.0 | 20.8 | 21.2 | 22.1 | 35.8 | 20.3 | 15.5 |
| 연령 ²⁾ | 19-24세 | 24.4 | 10.7 | 13.7 | 43.6 | 32.0 | 26.5 | 5.5 |
| | 25-29세 | 30.6 | 13.5 | 17.1 | 28.1 | 41.3 | 19.2 | 22.1 |
| | 30-34세 | 36.4 | 10.0 | 26.4 | 33.4 | 30.3 | 24.8 | 5.5 |
| | 35-36세 | 49.7 | 49.7 | 0.0 | 0.0 | 50.4 | 50.4 | 0.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5.4 | 16.1 | 9.3 | 29.0 | 45.6 | 37.7 | 7.9 |
| | 전문대 졸업 | 38.7 | 8.5 | 30.2 | 32.9 | 28.4 | 9.5 | 18.9 |
| | 대학교 졸업 | 38.3 | 12.4 | 25.9 | 34.7 | 27.0 | 18.4 | 8.6 |
| | 대학원 졸업 | 0.0 | 0.0 | 0.0 | 52.8 | 47.3 | 26.7 | 20.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0.1 | 13.3 | 6.8 | 21.1 | 58.8 | 51.9 | 6.9 |
| | 무자녀 부부가구 | 0.0 | 0.0 | 0.0 | 0.0 | 100.0 | 57.0 | 43.0 |
| | 유자녀 부부가구 | 76.4 | 11.6 | 64.8 | 12.5 | 11.1 | 11.1 | 0.0 |
| | 부모동거 가구 | 26.7 | 9.3 | 17.4 | 46.8 | 26.6 | 14.4 | 12.2 |
| | 기타 가구 | 41.5 | 29.8 | 11.7 | 27.5 | 31.0 | 15.2 | 15.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2.7 | 15.2 | 17.5 | 32.3 | 35.0 | 24.0 |
| | | 실업 | 40.9 | 0.0 | 40.9 | 21.3 | 37.7 | 23.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0.0 | 0.0 | 0.0 | 100.0 | 0.0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36.6 | 9.7 | 26.9 | 13.4 | 50.0 | 38.1 |

주: 1) 가족에게 직접 돌봄과 경제적 지원 모두 하고 있다고 응답(가족돌봄청년)한 69명을 분석함

2)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의미함

3_교육과 훈련

- 이 절에서는 2022 서울청년패널 전체 응답자의 교육 및 훈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교육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경험, 재학 상태, 유형, 소재지, 부모의 계층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직업훈련·교육 영역에서는 직업 훈련 경험, 필요한 지원, 진로와 직업계획 등에 대해 분석함

1) 학교 교육

(1) 고등학교

- [표 4-3-1]은 서울청년패널 응답자의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와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성,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는 응답자는 98.9%이며, 다닌 적이 없는 응답자는 0.1%, 검정고시로 졸업한 응답자는 1.0%이었음
-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 98.7%, 여성 99.1%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의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계/인문계고가 76.5%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9.3%, 자율형고 6.4%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연령별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에서 일반계/인문계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은 25-29세에서는 자율형고, 그 외 연령에서는 특성화가 높았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일반계/인문계고를 제외하고 자율형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하층 또는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특성화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3-1]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유형

[단위: %]

| 구분 | | |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 | | | 고등학교 유형 (n=5,065) ¹⁾ | | | | | | |
|-------------------------------|----------------|---------------|---------------------|-------------|-----------------|---------------------------------|-----|----------|-----------|----------|-----------------|-----|
| | | |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다 | 다닌 적이 없다 | 검정 고시로 졸업 | 일반계 /인문 계고 | 특목고 | 자율형 고 | 마이스 터고 | 특성화 고 | 예술· 체육 고교 | 기타 |
| 전체(n=5,083) | | | 98.9 | 0.1 | 1.0 | 76.5 | 3.9 | 6.4 | 0.4 | 9.3 | 1.3 | 2.2 |
| 성별 | 남성 | | 98.7 | 0.2 | 1.1 | 76.1 | 3.5 | 8.4 | 0.5 | 8.6 | 0.8 | 2.1 |
| | 여성 | | 99.1 | 0.0 | 0.9 | 76.8 | 4.1 | 4.6 | 0.3 | 10.1 | 1.8 | 2.3 |
| 연령 | 19-24세 | | 98.4 | 0.2 | 1.3 | 71.2 | 4.3 | 9.8 | 0.8 | 10.2 | 1.6 | 2.1 |
| | 25-29세 | | 99.0 | 0.1 | 0.9 | 74.8 | 4.6 | 8.6 | 0.2 | 8.4 | 1.4 | 2.1 |
| | 30-34세 | | 99.1 | 0.1 | 0.8 | 81.7 | 3.0 | 2.0 | 0.5 | 9.4 | 1.1 | 2.2 |
| | 35-36세 | | 99.5 | 0.0 | 0.5 | 80.5 | 0.9 | 2.5 | 0.0 | 12.3 | 0.9 | 2.9 |
| 부모의 교육 수준 ²⁾ | 부 (n=4,685)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8.9 | 0.1 | 1.0 | 76.9 | 2.1 | 4.1 | 0.4 | 13.9 | 0.9 | 1.5 |
| | | 전문대 졸업 | 99.0 | 0.5 | 0.5 | 78.8 | 3.5 | 5.5 | 0.2 | 8.2 | 1.7 | 2.2 |
| | | 대학교 졸업 | 99.1 | 0.1 | 0.9 | 76.5 | 5.5 | 9.4 | 0.4 | 4.3 | 1.4 | 2.5 |
| | | 대학원 졸업 | 98.8 | 0.0 | 1.2 | 76.8 | 6.9 | 7.2 | 0.2 | 2.8 | 1.6 | 4.5 |
| | 모 (n=4,726)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9.0 | 0.1 | 1.0 | 77.3 | 2.5 | 5.0 | 0.5 | 12.2 | 1.1 | 1.4 |
| | | 전문대 졸업 | 98.5 | 0.6 | 0.9 | 77.1 | 5.2 | 8.9 | 0.3 | 4.9 | 1.3 | 2.4 |
| | | 대학교 졸업 | 99.2 | 0.0 | 0.8 | 77.5 | 6.0 | 8.0 | 0.2 | 4.1 | 1.2 | 3.0 |
| | | 대학원 졸업 | 98.5 | 0.4 | 1.1 | 74.8 | 6.7 | 7.6 | 0.4 | 2.7 | 2.0 | 5.9 |
|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 하 | | 99.1 | 0.0 | 0.9 | 73.1 | 3.1 | 5.6 | 0.8 | 14.4 | 0.9 | 2.1 |
| | 중 | | 98.8 | 0.2 | 1.1 | 77.4 | 3.3 | 6.0 | 0.4 | 9.3 | 1.5 | 2.2 |
| | 상 | | 99.3 | 0.0 | 0.7 | 76.2 | 7.4 | 9.4 | 0.3 | 3.2 | 1.1 | 2.3 |

주: 1)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5,065명을 분석함

2) 부모의 교육 수준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2) 대학(교) 및 대학원

- [표 4-3-2]는 서울청년패널 조사대상 응답자의 대학 경험 여부 및 개수를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성별 대학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30-34세에서 대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24세에서 가장 낮았음
- 부모의 교육 수준별 대학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경험 여부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모의 교육 수준도 대학원 졸업을 제외하고 유사하게 높은 경향을 보임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4-3-2] 대학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 | 있다 | | | | 없다 |
|-------------------------|----------------|------------|------|------|------|-------|------|
| | | | 소계 | 1개 | 2개 | 3개 이상 | |
| 전체(n=5,083) | | | 91.5 | 80.2 | 10.7 | 0.7 | 8.5 |
| 성별 | 남성 | | 88.9 | 77.7 | 10.5 | 0.7 | 11.1 |
| | 여성 | | 94.0 | 82.5 | 10.9 | 0.6 | 6.0 |
| 연령 | 19-24세 | | 85.6 | 77.3 | 7.9 | 0.5 | 14.4 |
| | 25-29세 | | 92.8 | 81.9 | 10.4 | 0.5 | 7.2 |
| | 30-34세 | | 94.4 | 80.8 | 12.7 | 0.9 | 5.6 |
| | 35-36세 | | 92.1 | 76.2 | 14.6 | 1.3 | 7.9 |
| 부모의 교육 수준 ¹⁾ | 부 (n=4,685)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0.2 | 79.3 | 10.3 | 0.6 | 9.8 |
| | | 전문대 졸업 | 92.7 | 79.3 | 12.7 | 0.7 | 7.3 |
| | | 대학교 졸업 | 93.8 | 81.7 | 11.3 | 0.9 | 6.2 |
| | | 대학원 졸업 | 94.1 | 83.3 | 10.4 | 0.4 | 5.9 |
| | 모 (n=4,726)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1.6 | 80.6 | 10.3 | 0.6 | 8.4 |
| | | 전문대 졸업 | 92.0 | 80.5 | 11.3 | 0.2 | 8.0 |
| | | 대학교 졸업 | 93.7 | 80.1 | 12.4 | 1.3 | 6.3 |
| | | 대학원 졸업 | 93.0 | 86.0 | 7.1 | 0.0 | 7.0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88.9 | 77.8 | 10.3 | 0.9 | 11.1 |
| | 중 | | 91.7 | 80.8 | 10.3 | 0.6 | 8.3 |
| | 상 | | 93.7 | 79.8 | 13.2 | 0.7 | 6.3 |

주: 1) 부모의 교육 수준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3-3]은 대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대학교 유형을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
- 대학 경험이 있는 청년의 대학교 유형은 일반 4년제가 77.7%로 가장 높았고, 2-3년제 16.6%, 사이버대 2.0%, 방송통신대학 1.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 대학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 일반 4년제와 폴리텍의 비율이 더 높았고, 2-3년제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
-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4년제 비율은 높았으나, 2-3년제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임

[표 4-3-3] 대학교 유형

[단위: %]

| 구분 | | 일반 4년제 | 2-3년제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방송통신 대학 | 사이버대 | 폴리텍 | 기타 |
|-------------------------------|----------------|------------|-------|------|------|------------|------|-----|-----|
| 전체(n=4,652) ¹⁾ | | 77.7 | 16.6 | 0.0 | 0.3 | 1.7 | 2.0 | 0.4 | 1.3 |
| 성별 | 남성 | 79.6 | 15.2 | 0.0 | 0.2 | 1.5 | 1.7 | 0.6 | 1.3 |
| | 여성 | 75.9 | 17.8 | 0.0 | 0.4 | 1.9 | 2.4 | 0.3 | 1.3 |
| 연령 | 19-24세 | 77.6 | 18.6 | 0.0 | 0.2 | 0.5 | 1.3 | 0.4 | 1.4 |
| | 25-29세 | 78.4 | 16.6 | 0.0 | 0.3 | 1.4 | 1.6 | 0.5 | 1.3 |
| | 30-34세 | 77.5 | 15.0 | 0.0 | 0.4 | 2.8 | 2.8 | 0.4 | 1.1 |
| | 35-36세 | 72.2 | 19.1 | 0.0 | 1.0 | 2.4 | 3.8 | 0.0 | 1.6 |
| 부모의 교육 수준 ²⁾ | 부 (n=4,31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0.4 | 23.1 | 0.0 | 0.2 | 2.1 | 2.2 | 0.2 |
| | | 전문대 졸업 | 75.8 | 16.8 | 0.0 | 0.8 | 3.0 | 1.8 | 0.7 |
| | | 대학교 졸업 | 85.7 | 9.6 | 0.0 | 0.2 | 1.2 | 1.9 | 0.5 |
| | | 대학원 졸업 | 90.0 | 6.2 | 0.0 | 0.8 | 0.4 | 1.0 | 0.6 |
| | 모 (n=4,363)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1.4 | 21.8 | 0.0 | 0.3 | 2.0 | 2.5 | 0.3 |
| | | 전문대 졸업 | 80.1 | 14.1 | 0.0 | 0.2 | 2.2 | 1.7 | 1.0 |
| | | 대학교 졸업 | 87.7 | 7.7 | 0.0 | 0.5 | 1.2 | 1.4 | 0.3 |
| | | 대학원 졸업 | 93.8 | 4.2 | 0.0 | 0.4 | 0.4 | 0.8 | 0.0 |
|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 하 | 73.4 | 20.1 | 0.0 | 0.5 | 2.5 | 2.2 | 0.6 | 0.8 |
| | 중 | 76.2 | 17.7 | 0.0 | 0.3 | 1.8 | 2.2 | 0.4 | 1.4 |
| | 상 | 89.5 | 7.5 | 0.0 | 0.3 | 0.5 | 1.2 | 0.1 | 0.9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652명을 분석함

2)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자 중 부모의 교육 수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3-4]는 대학(교) 재학 상태를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임
- 우선 대학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70.4%로 가장 높았고, 재학 중 19.3%, 중퇴 4.6%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 대학 재학 상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서 대학 졸업자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재학인 경우는 남성이 더 높았음
- 연령별 대학 재학 상태를 분석한 결과 19-24세에서는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 연령에서는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대학 재학 상태를 분석한 결과 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재학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높았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재학 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학 비율이 높았음

[표 4-3-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상황

[단위: %]

| 구분 | | | 재학 중 | 휴학 중 | 졸업 유예 | 중퇴 | 졸업 |
|-------------------------------|----------------|------------|------|------|-------|-----|------|
| 전체(n=4,652) ¹⁾ | | | 19.3 | 4.0 | 1.7 | 4.6 | 70.4 |
| 성별 | 남성 | | 22.2 | 5.2 | 1.8 | 6.3 | 64.5 |
| | 여성 | | 16.8 | 2.9 | 1.5 | 3.1 | 75.7 |
| 연령 | 19-24세 | | 60.8 | 11.6 | 1.8 | 2.9 | 22.9 |
| | 25-29세 | | 11.7 | 2.4 | 2.6 | 4.1 | 79.2 |
| | 30-34세 | | 1.8 | 0.9 | 0.7 | 6.5 | 90.1 |
| | 35-36세 | | 1.7 | 1.0 | 0.4 | 3.4 | 93.5 |
| 부모의 교육 수준 ²⁾ | 부 (n=4,31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3.4 | 3.1 | 1.2 | 6.1 | 76.3 |
| | | 전문대 졸업 | 21.4 | 1.0 | 1.7 | 3.0 | 72.9 |
| | | 대학교 졸업 | 25.0 | 5.6 | 2.2 | 3.1 | 64.0 |
| | | 대학원 졸업 | 19.5 | 5.0 | 1.3 | 2.5 | 71.7 |
| | 모 (n=4,363)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4.1 | 3.0 | 1.4 | 5.9 | 75.6 |
| | | 전문대 졸업 | 22.8 | 4.7 | 1.9 | 2.1 | 68.6 |
| | | 대학교 졸업 | 25.6 | 4.9 | 1.7 | 2.8 | 65.0 |
| | | 대학원 졸업 | 25.9 | 6.8 | 2.1 | 2.2 | 62.9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15.0 | 3.5 | 2.0 | 6.5 | 73.0 |
| | 중 | | 18.5 | 3.6 | 1.4 | 4.7 | 71.9 |
| | 상 | | 28.5 | 6.6 | 2.3 | 2.0 | 60.5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652명을 분석함

2)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자 중 부모의 교육 수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3-5]는 대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학 소재지를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임
- 대학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의 대학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52.1%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22.0%, 기타 지역 18.7%, 광역시/세종시 7.2% 순으로 높았음
- 성별 대학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서 서울, 광역시/세종시의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 대학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19-24세에서 서울, 경기/인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34세에서 광역시/세종시, 기타 지역의 비율이 높았음
- 부모의 교육 수준별 대학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소재지가 서울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타 지역은 감소함

[표 4-3-5] 대학 소재지

[단위: %]

| 구분 | |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 기타 지역 |
|---------------------------|----------------|------------|------|-------|---------|-------|
| 전체(n=4,652) ¹⁾ | | | 52.1 | 22.0 | 7.2 | 18.7 |
| 성별 | 남성 | | 50.0 | 22.7 | 7.1 | 20.2 |
| | 여성 | | 54.0 | 21.4 | 7.4 | 17.3 |
| 연령 | 19-24세 | | 60.9 | 23.0 | 3.1 | 13.0 |
| | 25-29세 | | 51.1 | 22.2 | 7.5 | 19.2 |
| | 30-34세 | | 47.8 | 21.1 | 9.4 | 21.6 |
| | 35-36세 | | 47.3 | 22.4 | 9.0 | 21.3 |
| 부모의 교육 수준 ²⁾ | 부 (n=4,31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5.6 | 25.5 | 7.9 | 21.0 |
| | | 전문대 졸업 | 50.6 | 21.8 | 8.6 | 19.0 |
| | | 대학교 졸업 | 57.3 | 19.3 | 6.4 | 17.0 |
| | | 대학원 졸업 | 63.1 | 15.0 | 6.7 | 15.1 |
| | 모 (n=4,363)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6.2 | 25.1 | 7.8 | 20.9 |
| | | 전문대 졸업 | 53.5 | 20.8 | 8.8 | 16.9 |
| | | 대학교 졸업 | 61.0 | 17.5 | 6.0 | 15.6 |
| | | 대학원 졸업 | 68.0 | 13.2 | 5.7 | 13.0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49.3 | 23.1 | 7.2 | 20.4 |
| | 중 | | 50.7 | 22.9 | 7.3 | 19.1 |
| | 상 | | 62.0 | 16.6 | 6.8 | 14.6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652명을 분석함

2)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자 중 부모의 교육 수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3-6]는 대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전공계열을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의 전공계열을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교육 계열이 47.5%로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 32.2%, 예체능 13.0%, 의/약학 5.2%, 기타 2.1% 순으로 높았음
- 성별 전공계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청년의 비율은 자연공학을 제외하고 인문사회교육, 의/약학, 예체능, 기타에서 남성 청년보다 높았음
- 연령별 전공계열을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교육 계열은 35-36세에서 58.0%로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은 19-24세에서 38.7%로 가장 높았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인문사회교육 및 의/약학 계열의 분포는 증가하고, 예체능 및 기타 계열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4-3-6] 전공계열

[단위: %]

| 구분 | | | 인문사회교육 ²⁾ | 자연공학 ²⁾ | 의/약학 | 예체능 | 기타 ²⁾ |
|-------------------------------|----------------|------------|----------------------|--------------------|------|------|------------------|
| 전체(n=4,652) ¹⁾ | | | 47.5 | 32.2 | 5.2 | 13.0 | 2.1 |
| 성별 | 남성 | | 42.0 | 44.3 | 2.7 | 9.2 | 1.8 |
| | 여성 | | 52.4 | 21.4 | 7.4 | 16.4 | 2.4 |
| 연령 | 19-24세 | | 41.8 | 38.7 | 6.4 | 11.2 | 1.9 |
| | 25-29세 | | 47.3 | 31.5 | 5.4 | 13.5 | 2.3 |
| | 30-34세 | | 50.3 | 29.9 | 4.4 | 13.1 | 2.3 |
| | 35-36세 | | 58.0 | 21.7 | 2.9 | 17.0 | 0.4 |
| 부모의 교육 수준 ³⁾ | 부 (n=4,31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6.3 | 32.9 | 4.5 | 14.0 | 2.2 |
| | | 전문대 졸업 | 44.5 | 31.0 | 4.9 | 15.8 | 3.9 |
| | | 대학교 졸업 | 49.4 | 31.6 | 5.9 | 11.3 | 1.8 |
| | | 대학원 졸업 | 49.3 | 32.6 | 6.2 | 10.8 | 1.2 |
| | 모 (n=4,363)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6.9 | 32.0 | 4.7 | 14.1 | 2.3 |
| | | 전문대 졸업 | 48.9 | 30.9 | 4.9 | 12.4 | 2.9 |
| | | 대학교 졸업 | 49.0 | 31.8 | 5.9 | 11.6 | 1.7 |
| | | 대학원 졸업 | 49.7 | 31.4 | 8.9 | 9.3 | 0.6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46.0 | 33.1 | 3.2 | 14.8 | 2.8 |
| | 중 | | 47.2 | 31.7 | 5.4 | 13.5 | 2.2 |
| | 상 | | 50.5 | 33.7 | 6.3 | 8.5 | 1.0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4,652명을 분석함

2) 인문사회교육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을 합한 값이며, 자연공학은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합한 값임. 기타에는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및 경찰대”, “기타”가 포함됨

3)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자 중 부모의 교육 수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3-7]은 대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학원 진학 경험을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것임
- 대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은 13.0%,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87.0%이었음
- 성별 대학원 진학 경험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서 대학원 진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3-7] 대학원 진학 경험

[단위: %]

| 구분 | | | 진학 | 비진학 |
|---------------------------|----------------|------------|------|------|
| 전체(n=4,652) ¹⁾ | | | 13.0 | 87.0 |
| 성별 | 남성 | | 12.4 | 87.6 |
| | 여성 | | 13.6 | 86.4 |
| 연령 | 19-24세 | | 3.1 | 96.9 |
| | 25-29세 | | 13.6 | 86.4 |
| | 30-34세 | | 18.3 | 81.7 |
| | 35-36세 | | 19.9 | 80.1 |
| 부모의 교육 수준 ²⁾ | 부 (n=4,31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6 | 90.4 |
| | | 전문대 졸업 | 11.7 | 88.3 |
| | | 대학교 졸업 | 14.4 | 85.6 |
| | | 대학원 졸업 | 26.0 | 74.0 |
| | 모 (n=4,363)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6 | 89.4 |
| | | 전문대 졸업 | 12.8 | 87.2 |
| | | 대학교 졸업 | 16.2 | 83.8 |
| | | 대학원 졸업 | 26.0 | 74.0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18.1 | 81.9 |
| | 중 | | 12.7 | 87.3 |
| | 상 | | 9.8 | 90.2 |

주: 1) 대학 경험이 있는 4,6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자 중 부모의 교육 수준 '모름' 응답자 제외하고 분석함

(3) 부모의 계층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 [표 4-3-8]은 부모 교육 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 중 92.3%는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그중 일반 4년제 대학교 진학 비율은 78.9%, 서울 소재지 대학은 52.5%, 대학원 입학은 13.5%이었음
- 대학교 진학자와 부모의 교육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모의 교육 수준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있었음

[표 4-3-8] 부모 교육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단위: %]

| 구분 | | 대학교 진학 (n=4,680) ¹⁾ | 일반 4년제 (n=4,318) ²⁾ | 서울 소재지 대학 (n=4,318) ²⁾ | 대학원 입학 (n=4,318) ²⁾ |
|-----------------|------------|-----------------------------------|-----------------------------------|--------------------------------------|-----------------------------------|
| 전체 | | 92.3 | 78.9 | 52.5 | 13.5 |
| 부 ³⁾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0.3 | 70.4 | 45.6 | 9.6 |
| | 전문대 졸업 | 93.1 | 75.8 | 50.6 | 11.7 |
| | 대학교 졸업 | 93.8 | 85.7 | 57.3 | 14.4 |
| | 대학원 졸업 | 94.1 | 90.0 | 63.1 | 26.0 |
| 모 ³⁾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1.6 | 71.4 | 46.2 | 10.6 |
| | 전문대 졸업 | 92.5 | 80.1 | 53.5 | 12.8 |
| | 대학교 졸업 | 93.7 | 87.7 | 61.0 | 16.2 |
| | 대학원 졸업 | 93.4 | 93.8 | 68.0 | 26.0 |

주: 1) 고등학교를 졸업한(검정고시 포함) 4,6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4,3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부, 모 교육 수준 모름은 표에서 제외함

-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표 4-3-9] 참고)

[표 4-3-9] 부모 소득 수준과 자녀 교육 수준의 관계

[단위: %]

| 구분 | | 대학교 진학 (n=5,149) ¹⁾ | 일반 4년제 (n=4,580) ²⁾ | 서울 소재지 대학 (n=4,580) ³⁾ | 대학원 입학 (n=4,580) ⁴⁾ |
|----------------|---|-----------------------------------|-----------------------------------|--------------------------------------|-----------------------------------|
| 전체 | | 91.6 | 77.7 | 52.1 | 13.0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88.9 | 73.4 | 49.3 | 9.8 |
| | 중 | 91.9 | 76.2 | 50.7 | 12.7 |
| | 상 | 93.7 | 89.5 | 62.0 | 18.1 |

주: 1) 고등학교를 졸업한(검정고시 포함) 5,1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4,5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직업훈련·교육

(1) 취업 및 창업 목적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

- [표 4-3-10]은 취업 및 창업 목적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 중 72.2%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27.8%는 없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 직업훈련 경험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남성 71.2%, 여성 73.1%로 여성이 더 높았음
- 연령별 직업훈련 경험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음
-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가 77.9%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자가 66.7%로 가장 낮았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실업자가 88.7%로 가장 높았고, 재학 79.9%, 비재학 미취업 73.9%, 취업자 68.8% 순으로 높았음

[표 4-3-10] 직업훈련 경험

[단위: %]

| 구분 | | | 있음 | 없음 |
|-------------|------------|---------|------|------|
| 전체(n=5,083) | | | 72.2 | 27.8 |
| 성별 | 남성 | | 71.2 | 28.8 |
| | 여성 | | 73.1 | 26.9 |
| 연령 | 19-24세 | | 82.0 | 18.0 |
| | 25-29세 | | 75.6 | 24.4 |
| | 30-34세 | | 63.2 | 36.8 |
| | 35-36세 | | 55.3 | 44.7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77.9 | 22.1 |
| | 전문대 졸업 | | 66.7 | 33.3 |
| | 대학교 졸업 | | 69.7 | 30.3 |
| | 대학원 졸업 | | 69.3 | 30.7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8.8 | 31.2 |
| | | 실업 | 88.7 | 11.3 |
| | 비경제활동 | 재학 | 79.9 | 20.1 |
| | | 비재학 미취업 | 73.9 | 26.1 |

- [표 4-3-11]은 직업훈련 경험 사항을 분석한 결과임
- 직업훈련 경험 사항은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38.3%,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 30.8%,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27.6%,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와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22.9%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4-3-11] 직업훈련 경험 사항

[단위: %]

| 구분 | 빈도(n=3,368) ¹⁾ |
|------------------------------|---------------------------|
| 직무 관련 직업교육 이수 | 27.6 |
|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 39.3 |
|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자격증 취득 포함) | 30.8 |
|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 38.3 |
|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 22.9 |
| SNS, 블로그 등 인맥관리 | 16.3 |
|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 22.9 |
| 봉사활동 경험 | 10.7 |
|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 14.9 |
| 기타 | 5.2 |

주: 1)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복수응답 수치임

- [표 4-3-12]는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구직 탐색 비용 및 구직기간 비용지원이 21.9%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기회 20.9%, 좋은 일자리 창출 18.2%,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14.1%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기회가 21.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구직탐색/구직기간 비용지원이 25.5%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기회(22.1%)가 가장 높았으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에서는 구직탐색/기간 비용지원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26.4%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와 재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기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는 구직탐색/구직기간 비용지원이 가장 높았음

[표 4-3-12]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구분 | | 적성검사 및 상담 |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교육· 훈련 정보와 기회 |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기회 | 구직탐색 /구직기간 비용지원 |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 일자리 확대 | 기타 | |
|----------------|------------|--------------|------------------------|-------------------------|------------------------|-------------------------|-----------------------|-----------------|-----------------|-----|-----|
| 전체(n=5,083) | | 3.9 | 6.1 | 9.9 | 14.1 | 20.9 | 21.9 | 18.2 | 4.5 | 0.5 | |
| 성별 | 남성 | 4.4 | 5.8 | 10.4 | 15.4 | 21.0 | 18.2 | 20.4 | 3.8 | 0.5 | |
| | 여성 | 3.3 | 6.4 | 9.5 | 12.9 | 20.8 | 25.5 | 16.2 | 5.1 | 0.4 | |
| 연령 | 19-24세 | 4.4 | 6.1 | 8.0 | 13.8 | 24.8 | 20.7 | 16.2 | 5.6 | 0.5 | |
| | 25-29세 | 3.8 | 5.8 | 9.5 | 14.0 | 19.7 | 24.3 | 17.5 | 5.1 | 0.4 | |
| | 30-34세 | 3.6 | 6.5 | 11.7 | 14.3 | 19.4 | 20.5 | 20.2 | 3.2 | 0.6 | |
| | 35-36세 | 3.6 | 6.1 | 11.2 | 16.1 | 19.7 | 19.0 | 21.1 | 2.3 | 0.9 |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7 | 6.4 | 8.1 | 14.5 | 22.1 | 21.3 | 16.8 | 5.6 | 0.4 |
| | 전문대 졸업 | | 4.2 | 6.6 | 13.0 | 14.7 | 19.2 | 21.3 | 16.1 | 4.3 | 0.7 |
| | 대학교 졸업 | | 3.1 | 5.7 | 10.5 | 13.7 | 21.1 | 22.7 | 19.0 | 3.8 | 0.5 |
| | 대학원 졸업 | | 3.8 | 6.5 | 9.5 | 13.5 | 15.3 | 21.7 | 26.4 | 2.6 | 0.7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3.4 | 6.1 | 10.3 | 14.4 | 21.4 | 21.3 | 18.9 | 3.6 | 0.5 |
| | | 실업 | 4.3 | 7.1 | 9.2 | 13.9 | 21.6 | 24.2 | 14.5 | 4.5 | 0.7 |
| | 비경제활동 | 재학 | 5.7 | 6.3 | 10.0 | 12.7 | 24.6 | 20.0 | 16.4 | 4.0 | 0.3 |
| | | 비재학 미취업 | 4.3 | 5.7 | 8.7 | 13.8 | 17.2 | 24.0 | 18.2 | 7.6 | 0.5 |

- [표 4-3-13]은 자격증 취득 경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사항을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 중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6%이었음
- 남성(19.4%)보다 여성(21.8%)에서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낮았음
- 학력별 자격증 취득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교 졸업자에서 21.6%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자격증 취득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실업이 27.4%로 가장 높았음
-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2%였음
- 남성(22.1%)이 여성(16.5%)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았음
- 25-29세에서 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8%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비재학 미취업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고, 실업 27.5%, 재학 18.4%, 취업 15.3%이었음

[표 4-3-13] 자격증 취득 경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단위: %]

| 구분 | | | 자격증 취득 경험 ¹⁾ | |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²⁾ | |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전체(n=5,083) | | | 20.6 | 79.4 | 19.2 | 80.8 |
| 성별 | 남성 | | 19.4 | 80.6 | 22.1 | 77.9 |
| | 여성 | | 21.8 | 78.2 | 16.5 | 83.5 |
| 연령 | 19-24세 | | 23.4 | 76.6 | 19.3 | 80.7 |
| | 25-29세 | | 23.6 | 76.4 | 22.8 | 77.2 |
| | 30-34세 | | 16.3 | 83.7 | 15.8 | 84.2 |
| | 35-36세 | | 11.4 | 88.6 | 14.5 | 85.5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9.9 | 80.1 | 20.1 | 79.9 |
| | 전문대 졸업 | | 18.9 | 81.1 | 16.0 | 84.0 |
| | 대학교 졸업 | | 21.6 | 78.4 | 19.1 | 80.9 |
| | 대학원 졸업 | | 20.8 | 79.2 | 22.7 | 77.3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20.1 | 79.9 | 15.3 | 84.7 |
| | | 실업 | 27.4 | 72.6 | 27.5 | 72.5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1.2 | 78.8 | 18.4 | 81.6 |
| | | 비재학 미취업 | 19.2 | 80.8 | 30.4 | 69.6 |

주: 1)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등),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 등 포함

2) 시험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 경험 모두를 의미, 공단(공사) 직원의 내부 진급을 위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음

(2) 진로와 직업계획

- [표 4-3-14]는 진로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성, 연령, 최종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이 29.1%로 가장 높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물색 중이 24.2%, 진로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중 20.5%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 진로 관련 상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27.4%)과 여성(30.7%) 모두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에서 더 높았음
- 학력이 낮은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물색 중이 높으나 학력이 높은 경우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진로 관련 상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이 40.9%로 가장 높았지만, 그 외에는 진로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중이 가장 높았음

[표 4-3-14] 진로와 관련한 현재 상황

[단위: %]

| 구분 | |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음 |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지만 물색 중 |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 중 | 진로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중 |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등 활동 시작 예정 |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
| 전체(n=5,083) | | 6.9 | 24.2 | 13.1 | 20.5 | 6.2 | 29.1 |
| 성별 | 남성 | 7.0 | 23.3 | 13.8 | 21.8 | 6.7 | 27.4 |
| | 여성 | 6.9 | 25.0 | 12.4 | 19.3 | 5.7 | 30.7 |
| 연령 | 19-24세 | 7.2 | 33.7 | 18.9 | 25.2 | 5.8 | 9.2 |
| | 25-29세 | 5.8 | 20.6 | 12.6 | 22.8 | 7.0 | 31.2 |
| | 30-34세 | 7.6 | 21.2 | 9.4 | 15.4 | 5.8 | 40.6 |
| | 35-36세 | 10.1 | 22.8 | 11.7 | 13.7 | 4.4 | 37.4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1 | 31.4 | 17.5 | 24.7 | 6.6 | 10.7 |
| | 전문대 졸업 | 8.0 | 27.2 | 11.6 | 14.9 | 5.5 | 32.7 |
| | 대학교 졸업 | 5.5 | 18.6 | 10.4 | 19.0 | 6.2 | 40.4 |
| | 대학원 졸업 | 2.1 | 17.4 | 10.0 | 19.4 | 5.6 | 45.6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6 | 22.5 | 11.0 | 14.4 | 40.9 |
| | | 실업 | 2.8 | 25.4 | 15.9 | 35.2 | 5.7 |
| | 비경제활동 | 재학 | 5.4 | 29.8 | 23.3 | 31.0 | 8.9 |
| | | 비재학 미취업 | 10.4 | 27.3 | 14.8 | 31.8 | 7.1 |

- [표 4-3-15]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것임
- 경험은 전공지식이 84.5%로 가장 높고, 민간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45.0%)이 가장 낮음
- 도움 정도(도움됨 + 매우 도움됨)는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이 69.2%로 가장 높았음

[표 4-3-15]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

[단위: %]

| 구분 | 경험 여부 (n=5,083) | | 도움 정도 | | | | |
|--------------------------------|--------------------|------|------------------|------------|------|------|-----------|
| | 있다 | 없다 | 전혀 도움되지 않음 | 도움되지 않음 | 보통 | 도움됨 | 매우 도움됨 |
| 전공지식 ¹⁾ | 84.5 | 15.5 | 3.9 | 9.4 | 27.6 | 42.4 | 16.6 |
|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²⁾ | 64.0 | 36.0 | 3.0 | 5.7 | 22.1 | 41.2 | 28.0 |
|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³⁾ | 57.7 | 42.3 | 7.5 | 18.7 | 37.4 | 28.6 | 7.8 |
| 민간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 ⁴⁾ | 45.0 | 55.0 | 4.7 | 14.0 | 40.1 | 33.6 | 7.7 |
| 자격증 취득 ⁵⁾ | 68.1 | 31.9 | 2.6 | 7.7 | 27.8 | 40.9 | 21.0 |

주: 1)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2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민간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8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 자격증 취득의 도움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_일자리

- 이 절에서는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전체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일자리 특성은 일자리 공통 경험,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일자리 공통 경험에서는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실업 및 고용률, 과거 일자리 경험, 일자리 인식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취업자는 기본특성 및 주된 일자리 특성과 희망 일자리, 일자리 만족도와 근로환경 등, 미취업자는 기본특성, 구직/취업 활동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분석함

1) 일자리 경험

(1)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과 현재 상태

- [표 4-4-1]은 전체 응답자의 고용 실태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전체 응답자(19-36세)의 고용률은 65.8%, 실업률은 10.5%임.⁸⁾ OECD 기준에 따른 니트 1은 26.1%, OECD 기준에서 미취업자 중 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니트 2는 25.6%이었음
 - 연령별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20-36세 고용률은 66.2%. 실업률은 10.4%, 니트 1은 25.9%, 니트 2는 25.4%이었으며, 19-29세의 고용률은 58.6%, 실업률은 13.2%, 니트 1은 29.4%, 니트 2는 29.1%이었음
- 고용률과 실업률, 니트 비율과 함께 서울 청년의 고용시장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가지 고용지표를 함께 분석함
- 고용보조지표는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근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로 실업률과는 다른 개념임
- 고용보조지표 1은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함
 - 여기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고용보조지표 2는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함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에 관심을 표현한 사람을 의미하며,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임
- 고용보조지표 3은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함

8)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29세(청년층) 고용률(2022년 12월 기준)은 46.6%, 실업률은 6.4%이었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전체 응답자(19-36세)의 고용보조지표 1은 17.9%, 고용보조지표 2는 22.2%, 고용보조지표 3은 28.7%이었음⁹⁾
- 연령별 고용보조지표를 분석한 결과 20-36세의 고용보조지표 1은 17.8%, 고용보조지표 2는 22.0%, 고용보조지표 3은 28.5%이었으며, 19-29세의 고용보조지표 1은 22.7%, 고용보조지표 2는 27.8%, 고용보조지표 3은 35.7%이었음

[표 4-4-1] 서울 청년 고용 실태

[단위: %]

| 구분 | 고용률 ¹⁾ | 실업률 ²⁾ | 니트 ³⁾ | | 고용보조지표 ⁴⁾ | | |
|--------|-------------------|-------------------|------------------|------|----------------------|------|------|
| | | | 1 | 2 | 지표 1 | 지표 2 | 지표 3 |
| 19-36세 | 65.8 | 10.5 | 26.1 | 25.6 | 17.9 | 22.2 | 28.7 |
| 20-36세 | 66.2 | 10.4 | 25.9 | 25.4 | 17.8 | 22.0 | 28.5 |
| 19-29세 | 58.6 | 13.2 | 29.4 | 29.1 | 22.7 | 27.8 | 35.7 |

| 구분 | 내용 |
|-----------|---|
| 1) 고용률 |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비율 |
| 2)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실업자 및 취업자) 중 ①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③조사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 3) 니트 | 니트 1 = 2016년 OECD 기준에 따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하며,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가 해당됨 니트 2 = 미취업자 중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에서 학교 또는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때문이거나, “지난주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에서 학교나 입시학원, 직업훈련 기관에 통학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들을 제외하였음 |
| 4) 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 1 =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 2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 3 =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시간관련추가취업자: 조사대상기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취업을 원하고, 추가 취업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에 관심을 표현한 사람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었지만, 조사대상기간에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취업을 원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22)

- [표 4-4-2]는 전체 응답자의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실업률 및 고용률을 분석한 것임
- 성별에 따른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62.6%, 여성은 68.9%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았음

9)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29세(청년층) 고용보조지표 1은 9.1%, 고용보조지표 2는 16.5%, 고용보조지표 3은 19.0%로 확인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 고용률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실업률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낮았음
- 가구 유형별 고용률은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82.2%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가 59.4%로 가장 낮았으며, 실업률은 기타 가구에서 13.3%로 가장 높았음

[표 4-4-2] 특성별 실업률 및 고용률

[단위: %]

| 구분 | | 실업률 ¹⁾ | 고용률 ²⁾ |
|-------------|------------|-------------------|-------------------|
| 전체(n=5,083) | | 10.5 | 65.8 |
| 성별 | 남성 | 11.9 | 62.6 |
| | 여성 | 9.3 | 68.9 |
| 연령 | 19-24세 | 16.7 | 46.6 |
| | 25-29세 | 11.4 | 66.6 |
| | 30-34세 | 7.4 | 77.4 |
| | 35-36세 | 3.5 | 80.7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6.7 | 49.1 |
| | 전문대 졸업 | 10.9 | 70.3 |
| | 대학교 졸업 | 7.6 | 75.7 |
| | 대학원 졸업 | 5.4 | 80.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2 | 70.9 |
| | 무자녀 부부가구 | 3.8 | 82.2 |
| | 유자녀 부부가구 | 4.8 | 69.6 |
| | 부모동거 가구 | 12.9 | 59.4 |
| | 기타 가구 | 13.3 | 67.0 |

주: 1) 실업률 = [실업청년 수/경제활동 청년(취업 청년+실업 청년)]*100

2) 고용률 = (취업청년 수/전체 청년)*100

- [표 4-4-3]은 전체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 고용보조지표 및 니트 비율을 분석한 것이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성별에 따라서 고용보조지표 1-3과 니트 1-2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보조지표와 니트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임
- 가구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고용보조지표 1-3과 니트 1은 부모동거 가구에서 가장 높았고, 니트 2는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높았음

[표 4-4-3] 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및 니트 비율

[단위: %]

| 구분 | | 고용보조지표 ¹⁾ | | | 니트 비율(n=5,083) | |
|-------|------------|----------------------|-------------------|-------------------|-----------------|-----------------|
| | | 지표 1 (n=3,749) | 지표 2 (n=4,308) | 지표 3 (n=4,308) | 1 ²⁾ | 2 ³⁾ |
| 전체 | | 17.9 | 22.2 | 28.7 | 26.1 | 25.6 |
| 성별 | 남성 | 18.6 | 24.6 | 30.4 | 27.7 | 27.2 |
| | 여성 | 17.3 | 20.1 | 27.1 | 24.7 | 24.1 |
| 연령 | 19-24세 | 31.9 | 36.6 | 48.2 | 32.6 | 33.6 |
| | 25-29세 | 18.1 | 22.7 | 28.6 | 27.4 | 26.1 |
| | 30-34세 | 11.6 | 14.7 | 18.6 | 20.9 | 20.0 |
| | 35-36세 | 10.9 | 8.8 | 15.8 | 19.0 | 18.5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8.8 | 35.1 | 44.5 | 33.0 | 34.3 |
| | 전문대 졸업 | 17.1 | 20.1 | 25.7 | 28.8 | 25.8 |
| | 대학교 졸업 | 12.9 | 15.8 | 20.6 | 21.1 | 20.0 |
| | 대학원 졸업 | 10.6 | 11.7 | 16.6 | 17.2 | 15.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5.2 | 18.7 | 24.1 | 22.1 | 21.4 |
| | 무자녀 부부가구 | 7.5 | 12.4 | 15.8 | 15.7 | 14.5 |
| | 유자녀 부부가구 | 10.4 | 11.3 | 16.4 | 29.3 | 29.7 |
| | 부모동거 가구 | 22.5 | 27.4 | 35.4 | 30.0 | 29.4 |
| | 기타 가구 | 19.1 | 23.5 | 28.6 | 26.6 | 27.6 |

주: 1)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기준으로 분석함
2) 니트 1은 OECD 기준에 따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되며,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가 해당됨
3) 니트 2는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미취업자 중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에서 학교 또는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때문이거나, “지난주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에서 학교나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통학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들을 제외하였음

- [표 4-4-4]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7.5%로 가장 높았고, 일하지 않은 경우는 29.9%, 휴가 및 일시 휴직은 2.6%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 일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 69.6%, 남성 65.2%로 여성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 일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34세에 서 가장 높았고, 35-36세 74.4%, 25-29세 69.4%, 19-24세 52.2%이었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81.9%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58.7%로 가장 낮았음

[표 4-4-4]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 일 경험

[단위: %]

| 구 분 | | 일을 하였음 | 휴가 및 일시 휴직 | 일을 하지 않았음 |
|-------------|------------|--------|------------|-----------|
| 전체(n=5,083) | | 67.5 | 2.6 | 29.9 |
| 성별 | 남성 | 65.2 | 2.4 | 32.4 |
| | 여성 | 69.6 | 2.8 | 27.6 |
| 연령 | 19-24세 | 52.2 | 1.1 | 46.7 |
| | 25-29세 | 69.4 | 2.2 | 28.4 |
| | 30-34세 | 75.8 | 3.7 | 20.5 |
| | 35-36세 | 74.4 | 6.6 | 19.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4.3 | 1.8 | 43.9 |
| | 전문대 졸업 | 71.2 | 2.7 | 26.1 |
| | 대학교 졸업 | 75.3 | 3.2 | 21.6 |
| | 대학원 졸업 | 78.0 | 3.3 | 18.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2.0 | 2.1 | 25.9 |
| | 무자녀 부부가구 | 81.9 | 2.3 | 15.9 |
| | 유자녀 부부가구 | 58.7 | 11.3 | 30.0 |
| | 부모동거 가구 | 63.2 | 2.1 | 34.7 |
| | 기타 가구 | 67.6 | 2.6 | 29.8 |

- [표 4-4-5]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일자리가 없어서'가 32.5%로 가장 높았고, '진학준비 혹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26.4%,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3.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31.6%)과 여성(33.4%) 모두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으며, '일시적 병 혹은 사고', '휴가·연가 등의 사용', '집안일', '기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5-36세는 '집안일'이 30.8%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진학준비 혹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이 41.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전문대 졸업(45.7%), 대학교 졸업(40.0%), 대학원 졸업(39.5%)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음

[표 4-4-5] 지난 1주일간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 구 분 | | 일시적 병 혹은 사고 | 휴가· 연가 등의 사용 | 진학준비 혹은 정규교육 기관에 재학 | 집안일 | 사업장 일시적 휴업 | 일자리가 없어서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날씨가 좋지 않아서 | 사업 부진 | 기타 |
|---------------------------|------------|-------------------|-----------------------|---------------------------------|------|------------------|-------------|-----------------------|------------------|----------|------|
| 전체(n=1,654) ¹⁾ | | 4.8 | 4.0 | 26.4 | 7.1 | 0.8 | 32.5 | 13.7 | 0.8 | 1.1 | 8.9 |
| 성별 | 남성 | 4.0 | 3.7 | 29.7 | 3.6 | 0.9 | 31.6 | 15.5 | 1.6 | 1.3 | 8.2 |
| | 여성 | 5.6 | 4.3 | 22.8 | 10.9 | 0.7 | 33.4 | 11.7 | 0.0 | 0.8 | 9.8 |
| 연령 | 19-24세 | 2.0 | 1.4 | 46.0 | 2.1 | 0.4 | 20.7 | 18.1 | 1.1 | 0.3 | 7.9 |
| | 25-29세 | 5.6 | 4.2 | 20.8 | 3.1 | 0.8 | 43.4 | 10.7 | 0.7 | 1.2 | 9.4 |
| | 30-34세 | 6.8 | 6.6 | 8.5 | 17.0 | 1.4 | 35.8 | 11.8 | 0.6 | 1.3 | 10.3 |
| | 35-36세 | 11.0 | 9.5 | 3.7 | 30.8 | 1.9 | 22.3 | 9.3 | 0.0 | 6.5 | 5.0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0 | 2.1 | 41.0 | 3.2 | 0.8 | 23.6 | 16.1 | 1.3 | 1.0 | 6.9 |
| | 전문대 졸업 | 8.8 | 5.4 | 4.1 | 8.3 | 1.5 | 45.7 | 15.9 | 0.4 | 0.5 | 9.5 |
| | 대학교 졸업 | 4.8 | 5.8 | 15.2 | 11.5 | 0.7 | 40.0 | 10.3 | 0.2 | 1.4 | 10.3 |
| | 대학원 졸업 | 2.5 | 7.6 | 5.7 | 14.4 | 0.0 | 39.5 | 5.7 | 1.4 | 1.6 | 21.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4.9 | 5.1 | 25.2 | 2.6 | 0.9 | 37.8 | 14.1 | 0.9 | 0.4 | 8.1 |
| | 무자녀 부부가구 | 10.9 | 4.8 | 9.6 | 20.6 | 0.0 | 29.8 | 13.8 | 0.0 | 1.2 | 9.1 |
| | 유자녀 부부가구 | 3.9 | 3.8 | 2.6 | 61.3 | 1.9 | 5.6 | 5.0 | 0.0 | 2.4 | 13.4 |
| | 부모동거 가구 | 4.6 | 3.0 | 31.6 | 2.4 | 0.8 | 31.6 | 15.0 | 0.9 | 1.1 | 9.0 |
| | 기타 가구 | 3.2 | 6.5 | 22.1 | 5.4 | 0.0 | 43.1 | 9.0 | 0.8 | 1.9 | 7.9 |

주: 1) 지난주에 휴가 및 일시 휴직이나 일하지 않은 1,654명을 분석함

(2) 과거 일자리 경험

- [표 4-4-6]은 과거 일자리 경험 여부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것임¹⁰⁾
-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93.0%이었으며, 남성(91.2%)보다 여성(94.6%)이 더 많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일자리 경험이 있는 청년의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4개이며, 1개 37.5%, 2개 28.4%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 2.2개 여성 2.5개로 여성이 약간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의 평균이 낮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10)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를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상태'를 취업자로 정의하고 일자리 경험을 분석함

이하가 2.6개로 가장 높았음

[표 4-4-6] 과거 일자리 경험

[단위: 개, %]

| 구 분 | | 일자리 경험 여부 ¹⁾ | |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 개수(n=4,602) ²⁾ | | | | | |
|-------------|------------|-------------------------|------|--|------|------|------|------|-------|
| | | 있음 | 없음 | 평균(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 전체(n=5,083) | | 93.0 | 7.0 | 2.4 | 37.5 | 28.4 | 16.0 | 8.4 | 9.7 |
| 성별 | 남성 | 91.2 | 8.8 | 2.2 | 39.3 | 29.2 | 16.0 | 8.0 | 7.5 |
| | 여성 | 94.6 | 5.4 | 2.5 | 36.0 | 27.6 | 15.9 | 8.8 | 11.7 |
| 연령 | 19-24세 | 87.2 | 12.8 | 2.8 | 27.3 | 25.2 | 19.6 | 10.7 | 17.1 |
| | 25-29세 | 94.0 | 6.0 | 2.5 | 32.4 | 29.7 | 18.3 | 9.0 | 10.6 |
| | 30-34세 | 95.6 | 4.4 | 2.0 | 48.2 | 29.4 | 11.7 | 6.4 | 4.3 |
| | 35-36세 | 96.0 | 4.0 | 1.9 | 52.7 | 25.8 | 10.2 | 6.8 | 4.4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8.1 | 11.9 | 2.6 | 31.3 | 26.5 | 18.5 | 10.0 | 13.8 |
| | 전문대 졸업 | 93.8 | 6.2 | 2.4 | 36.0 | 32.0 | 15.7 | 6.4 | 10.0 |
| | 대학교 졸업 | 96.0 | 4.0 | 2.2 | 41.9 | 28.7 | 14.4 | 7.8 | 7.1 |
| | 대학원 졸업 | 97.0 | 3.0 | 2.2 | 41.6 | 28.7 | 14.9 | 8.9 | 5.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5.4 | 4.6 | 2.4 | 35.9 | 29.3 | 16.8 | 9.2 | 8.8 |
| | 무자녀 부부가구 | 96.9 | 3.1 | 1.9 | 54.2 | 25.2 | 9.9 | 5.7 | 5.0 |
| | 유자녀 부부가구 | 89.4 | 10.6 | 1.5 | 66.7 | 22.1 | 7.6 | 2.1 | 1.5 |
| | 부모동거 가구 | 90.9 | 9.1 | 2.5 | 33.8 | 29.0 | 17.0 | 8.9 | 11.4 |
| | 기타 가구 | 94.1 | 5.9 | 2.5 | 35.1 | 27.3 | 16.4 | 8.4 | 12.8 |

주: 1)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경험

2)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6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4-7]은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함
-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를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청년은 73.9%였고, 스스로 원하지 않았으나 그만둔 청년은 26.1%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스스로 원하지 않았으나 그만둔 청년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스스로 원하지 않았으나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대학원 졸업에서 35.6%로 가장 높았음

[표 4-4-7]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단위: %]

| 구분 | |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 |
|---------------------------|------------|-------------|------|
| | | 예 | 아니오 |
| 전체(n=1,935) ¹⁾ | | 73.9 | 26.1 |
| 성별 | 남성 | 73.2 | 26.8 |
| | 여성 | 74.6 | 25.4 |
| 연령 | 19-24세 | 79.4 | 20.6 |
| | 25-29세 | 72.2 | 27.8 |
| | 30-34세 | 70.4 | 29.6 |
| | 35-36세 | 66.2 | 33.8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4.1 | 25.9 |
| | 전문대 졸업 | 73.6 | 26.4 |
| | 대학교 졸업 | 74.9 | 25.1 |
| | 대학원 졸업 | 64.4 | 35.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1.5 | 28.5 |
| | 무자녀 부부가구 | 77.1 | 22.9 |
| | 유자녀 부부가구 | 74.5 | 25.5 |
| | 부모동거 가구 | 75.0 | 25.0 |
| | 기타 가구 | 75.2 | 24.8 |

주: 1) 일자리 경험이 있는 4,602명 중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1,935명을 대상으로 분석

- [표 4-4-8]은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와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분석한 것임
-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계약기간이 끝나서’가 23.3%로 가장 높았고 ‘이직 혹은 이직 준비를 위해’ 16.7%,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등 공부를 위해’ 12.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었음’이 43.4%로 가장 높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37.6%,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7.1%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이는 니트 상태를 경험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임

[표 4-4-8]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그만둔 이유 전체(n=1,935) ¹⁾ | 비율 |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 전체(n=1,935) ¹⁾ | 비율 |
|-------------------------------------|------|---|------|
|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 3.5 |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 37.6 |
| 정리해고로 인해(권고사직) | 3.2 |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 3.4 |
| 명예퇴직(희망퇴직) | 0.3 |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 2.9 |
| 계약기간이 끝나서 | 23.3 |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 7.1 |
| 원하는 근로조건과 맞지 않아서 | 10.3 |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 1.5 |
|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1.5 |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 2.1 |
| 일이 임시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8.0 |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 0.7 |
|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3.5 | 기타 | 1.2 |
|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 1.6 | 특별히 없었음 | 43.4 |
| 건강 등의 이유로 | 3.5 | | |
|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 4.6 | | |
|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 1.7 | | |
| 이직 혹은 이직 준비를 위해 | 16.7 | | |
|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등 공부를 위해 | 12.9 | | |
| 기타 | 5.4 | | |

주: 1) 일자리 경험이 있는 4,602명 중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1,935명을 대상으로 분석

- [표 4-4-9]는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경험에 대해 성, 연령, 학력, 가구 형태,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것임
- 전체 응답자 중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9.1%, 없는 경우는 90.9%이었음
- 성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남성(6.9%)보다 여성(11.0%)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34세에서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0%로 가장 높았고, 19-24세에서 4.7%로 가장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에서 13.6%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에서 7.9%로 가장 낮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가 17.1%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6.0%로 가장 낮았음

[표 4-4-9] 실업급여 수급 경험

[단위: %]

| 구분 | | | 있음 | 없음 |
|---------------------------|------------|---------|------|------|
| 전체(n=1,935) ¹⁾ | | | 9.1 | 90.9 |
| 성별 | 남성 | | 6.9 | 93.1 |
| | 여성 | | 11.0 | 89.0 |
| 연령 | 19-24세 | | 4.7 | 95.3 |
| | 25-29세 | | 9.4 | 90.6 |
| | 30-34세 | | 14.0 | 86.0 |
| | 35-36세 | | 8.4 | 91.6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1 | 94.9 |
| | 전문대 졸업 | | 11.6 | 88.4 |
| | 대학교 졸업 | | 12.0 | 88.0 |
| | 대학원 졸업 | | 12.8 | 87.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9.0 | 91.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2.8 | 87.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2.8 | 87.2 |
| | 부모동거 가구 | | 7.9 | 92.1 |
| | 기타 가구 | | 13.6 | 86.4 |
| 경제활동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7.0 | 93.0 |
| | | 실업 | 17.1 | 82.9 |
| | 비경제 활동 | 재학생 | 6.0 | 94.0 |
| | | 비재학 미취업 | 11.0 | 89.0 |

주: 1) 일자리 경험이 있는 4,602명 중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1,935명을 대상으로 분석

(3) 일자리 인식

- [표 4-4-10]은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는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46.4%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14.8%,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11.5%,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7.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2순위 또한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18.0%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17.4%,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16.4%,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11.9%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4-4-10]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 2순위)

[단위: %]

| 구분 | 1순위(n=5,083) | 2순위(n=5,083) |
|-----------------------|--------------|--------------|
|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 46.4 | 18.0 |
| 적성에 맞는 일자리 | 14.8 | 17.4 |
|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 11.5 | 16.4 |
|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 7.9 | 5.3 |
|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 6.7 | 11.9 |
|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 4.9 | 10.1 |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 2.9 | 5.3 |
|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 2.7 | 5.0 |
|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 2.1 | 10.0 |
| 기타 | 0.3 | 0.6 |

- [표 4-4-11]은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에 대해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짐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두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4-11]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순위)

[단위: %]

| 구분 | | 급여 (보상) 수준이 높음 | 적성에 맞는 일자리 | 고용 안정성 높음 | 조직 문화가 수평적 | 미래 성장 비전이 있음 | 근무 시간/ 장소가 자유 로움 | 사회적 인지도 높음 | 자아 실현 가능 | 복리 후생이 우수 | 기타 |
|-------------|--------|-------------------------|------------------|-----------------|------------------|-----------------------|------------------------------|------------------|----------------|-----------------|-----|
| 전체(n=5,083) | | 46.4 | 14.8 | 11.5 | 7.9 | 6.7 | 4.9 | 2.9 | 2.7 | 2.1 | 0.3 |
| 성별 | 남성 | 47.3 | 12.3 | 10.7 | 8.9 | 8.3 | 4.7 | 3.2 | 2.9 | 1.4 | 0.2 |
| | 여성 | 45.4 | 17.1 | 12.3 | 6.9 | 5.1 | 5.1 | 2.6 | 2.4 | 2.8 | 0.3 |
| 연령 | 19-24세 | 43.5 | 18.7 | 9.8 | 8.3 | 6.5 | 4.4 | 4.6 | 2.6 | 1.5 | 0.1 |
| | 25-29세 | 45.9 | 15.1 | 10.7 | 8.8 | 7.1 | 3.8 | 3.0 | 3.2 | 2.2 | 0.2 |
| | 30-34세 | 48.6 | 12.2 | 12.9 | 6.8 | 6.7 | 6.3 | 1.7 | 2.1 | 2.4 | 0.4 |
| | 35-36세 | 49.5 | 8.7 | 17.5 | 6.7 | 3.8 | 6.8 | 1.1 | 3.6 | 1.8 | 0.6 |

[단위: %]

| 구분 | | 급여 (보상) 수준이 높음 | 적성에 맞는 일자리 | 고용 안정성 높음 | 조직 문화가 수평적 | 미래 성장 비전이 있음 | 근무 시간/ 장소가 자유 로움 | 사회적 인지도 높음 | 자아 실현 가능 | 복리 후생이 우수 | 기타 |
|----------------|------------|-------------------------|------------------|-----------------|------------------|-----------------------|------------------------------|------------------|----------------|-----------------|-----|
| 전체(n=5,083) | | 46.4 | 14.8 | 11.5 | 7.9 | 6.7 | 4.9 | 2.9 | 2.7 | 2.1 | 0.3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4.7 | 16.5 | 10.1 | 8.0 | 6.7 | 5.2 | 3.9 | 3.0 | 1.7 | 0.2 |
| | 전문대 졸업 | 45.8 | 15.8 | 13.0 | 6.4 | 6.4 | 6.0 | 1.9 | 1.6 | 3.1 | 0.1 |
| | 대학교 졸업 | 47.9 | 13.4 | 11.9 | 8.3 | 6.6 | 4.3 | 2.5 | 2.5 | 2.3 | 0.3 |
| | 대학원 졸업 | 45.1 | 13.2 | 13.5 | 7.1 | 8.2 | 5.9 | 2.1 | 4.5 | 0.4 | 0.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8.7 | 14.5 | 10.9 | 7.7 | 6.6 | 4.3 | 2.4 | 2.5 | 0.3 |
| | | 실업 | 42.3 | 13.9 | 11.8 | 7.0 | 11.3 | 5.5 | 3.1 | 2.2 | 0.6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8.5 | 17.1 | 8.7 | 7.9 | 6.0 | 4.7 | 2.9 | 1.4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38.9 | 15.1 | 14.5 | 8.7 | 5.5 | 7.7 | 3.6 | 3.5 | 0.2 |

- [표 4-4-12]는 비정규직 일자리 취업 의사와 그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는 36.2%이었으며, 여성에서 더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낮은 경우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더 높았음
- 다음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46.3%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32.0%,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23.4%, ‘많은 임금을 보장해서’ 18.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여성에서는 ‘직무경력과 자유로운 근무시간’,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가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의 비율은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1인가구, 부모동거 가구, 기타 가구에서는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지만,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가구에서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가 가장 높았음

[표 4-4-12] 비정규직 취업 의사, 비정규직이어도 취업하려는 이유

[단위: %]

| 구분 | | 비정규직 취업 의사 | | 비정규직이어도 취업하려는 이유(1+2순위, n=1,840) ¹⁾ | | | | | | |
|----------|------------|---------------|------|--|------------------------|-------------------------------|-----------------------|-------------------|---------------|---------------------|
| | | 예 | 아니오 | 기타 ²⁾ |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 많은 임금을 보장해서 |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 단기간만 일하기를 원해서 |
| 전체 | | 36.2 | 63.8 | 50.7 | 46.3 | 32.0 | 23.4 | 18.9 | 15.4 | 13.3 |
| 성별 | 남성 | 33.0 | 67.0 | 47.6 | 47.9 | 31.5 | 21.0 | 23.3 | 14.4 | 14.3 |
| | 여성 | 39.2 | 60.8 | 53.1 | 45.1 | 32.3 | 25.4 | 15.4 | 16.2 | 12.5 |
| 연령 | 19-24세 | 44.4 | 55.6 | 46.5 | 61.9 | 25.7 | 22.8 | 15.1 | 11.7 | 16.2 |
| | 25-29세 | 35.3 | 64.7 | 51.9 | 48.3 | 26.6 | 26.2 | 18.4 | 16.7 | 12.0 |
| | 30-34세 | 31.0 | 69.0 | 53.2 | 31.1 | 41.1 | 22.2 | 23.2 | 18.1 | 11.1 |
| | 35-36세 | 37.7 | 62.3 | 53.0 | 20.2 | 61.2 | 12.8 | 22.0 | 12.5 | 18.3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3.0 | 57.0 | 47.7 | 53.5 | 28.4 | 23.0 | 18.0 | 15.3 | 14.1 |
| | 전문대 졸업 | 39.7 | 60.3 | 48.4 | 41.7 | 37.2 | 20.5 | 15.9 | 21.6 | 14.7 |
| | 대학교 졸업 | 30.5 | 69.5 | 54.4 | 41.1 | 33.2 | 25.1 | 20.6 | 14.0 | 11.6 |
| | 대학원 졸업 | 31.5 | 68.5 | 54.4 | 39.2 | 37.2 | 22.6 | 22.3 | 9.2 | 15.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4.1 | 65.9 | 50.3 | 45.0 | 29.1 | 22.6 | 22.2 | 18.4 | 12.3 |
| | 무자녀 부부가구 | 27.1 | 72.9 | 53.1 | 34.1 | 48.3 | 11.9 | 29.2 | 8.8 | 14.6 |
| | 유자녀 부부가구 | 41.5 | 58.5 | 80.1 | 14.3 | 56.8 | 18.0 | 12.9 | 8.7 | 9.2 |
| | 부모동거 가구 | 37.8 | 62.2 | 46.3 | 52.2 | 29.8 | 26.2 | 16.6 | 14.3 | 14.7 |
| | 기타 가구 | 40.3 | 59.7 | 56.9 | 45.8 | 28.7 | 20.3 | 18.3 | 19.1 | 10.8 |

주: 1)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있는 1,840명을 분석함

2) 기타에는 “(일자리가 없는)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서”, “일의 성격상 비정규직이어도 무방해서”, “기타”가 포함됨.

- [표 4-4-13]은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 정도를 분석한 것임
-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매우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이 71.1%로 가장 높았고, ‘경험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62.2%,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6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4-13]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 정도

[단위: %]

| 구분 (n=5,083)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21.1 | 40.9 | 21.9 | 13.1 | 3.0 |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13.3 | 39.6 | 26.1 | 17.3 | 3.6 |
| 최종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7.7 | 21.7 | 28.6 | 32.7 | 9.4 |
| 경험이 부족하다 | 20.3 | 41.9 | 21.5 | 13.3 | 2.9 |
|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25.3 | 45.8 | 22.3 | 5.7 | 0.8 |
|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13.8 | 33.5 | 32.8 | 17.0 | 2.9 |
| 나이 제한이 있다 | 10.4 | 24.9 | 30.8 | 26.1 | 7.9 |

2) 취업자

(1) 취업자 기본특성

- [표 4-4-14]는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89.7%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 무급가족종사자 0.3%의 순으로 높았음
- 임금근로자는 여성(90.5%)이 남성(88.8%)보다 높았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90.1%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는 35-36세에서 11.9%로 가장 높았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9-24세에서 4.3%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교 졸업자에서 임금근로자가 91.8%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는 전문대 졸업자가 8.9%로 가장 높았음

[표 4-4-14] 취업자의 근로형태

[단위: %]

| 구 분 | |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전체(n=3,347) ¹⁾ | | 89.7 | 6.4 | 0.3 | 3.6 |
| 성별 | 남성 | 88.8 | 6.4 | 0.6 | 4.3 |
| | 여성 | 90.5 | 6.4 | 0.2 | 3.0 |
| 연령 ²⁾ | 19-24세 | 89.3 | 5.7 | 0.6 | 4.3 |
| | 25-29세 | 90.1 | 5.5 | 0.5 | 3.9 |
| | 30-34세 | 89.9 | 6.9 | 0.1 | 3.1 |
| | 35-36세 | 86.0 | 11.9 | 0.0 | 2.2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6.4 | 7.6 | 0.8 | 5.2 |
| | 전문대 졸업 | 87.7 | 8.9 | 0.1 | 3.3 |
| | 대학교 졸업 | 91.8 | 5.2 | 0.2 | 2.8 |
| | 대학원 졸업 | 90.7 | 5.8 | 0.0 | 3.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89.6 | 6.0 | 0.1 | 4.3 |
| | 무자녀 부부가구 | 90.9 | 6.1 | 0.4 | 2.6 |
| | 유자녀 부부가구 | 88.6 | 9.2 | 0.6 | 1.6 |
| | 부모동거 가구 | 89.6 | 6.5 | 0.6 | 3.4 |
| | 기타 가구 | 90.6 | 6.0 | 0.0 | 3.4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2) 19-24세 592명, 25-29세 1,259명, 30-34세 1,335명, 35-36세 160명을 분석함

- [표 4-4-15]는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 구직활동 기간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 구직활동기간은 '1개월 미만'이 38.9%로 가장 높았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5.9%, '1년 이상' 13.2%, '6개월 이상 1년 미만' 11.9%의 순으로 높았음
- 남성이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주된 일자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었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 부모동거 가구, 기타 가구에서는 구직활동 기간이 짧았으며, 무자녀 또는 유자녀 부부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었음

[표 4-4-15]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 구직활동 기간

[단위: %]

| 구 분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
| 전체(n=3,121) ¹⁾ | | 38.9 | 35.9 | 11.9 | 13.2 |
| 성별 | 남성 | 36.9 | 35.8 | 12.1 | 15.3 |
| | 여성 | 40.7 | 36.1 | 11.8 | 11.4 |
| 연령 | 19~24세 | 67.3 | 19.8 | 6.7 | 6.3 |
| | 25~29세 | 36.5 | 38.2 | 12.5 | 12.9 |
| | 30~34세 | 30.2 | 40.2 | 13.2 | 16.4 |
| | 35~36세 | 25.5 | 42.9 | 16.3 | 15.4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7.9 | 25.1 | 7.1 | 9.9 |
| | 전문대 졸업 | 45.7 | 38.0 | 8.0 | 8.3 |
| | 대학교 졸업 | 29.0 | 39.5 | 15.3 | 16.2 |
| | 대학원 졸업 | 31.0 | 45.0 | 11.4 | 12.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6.4 | 36.5 | 12.9 | 14.3 |
| | 무자녀 부부가구 | 29.5 | 39.0 | 13.0 | 18.5 |
| | 유자녀 부부가구 | 28.6 | 39.3 | 17.4 | 14.8 |
| | 부모동거 가구 | 44.0 | 34.4 | 10.3 | 11.3 |
| | 기타 가구 | 39.7 | 36.4 | 11.7 | 12.2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3,121명을 분석함

- [표 4-4-16]은 현재 재직 중인 일자의 개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대체로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 수는 1개(94.7%)였고, 다음으로 2개 4.6%, 3개 0.7%의 순으로 높았음
- 현재 일자리 개수가 1개인 경우는 남성(95.0%)이 여성(94.4%)보다 약간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가 2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24세에서 비교적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에서 2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가장 낮았음

[표 4-4-16]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 개수

[단위: %]

| 구 분 | | 1개 | 2개 | 3개 | 4개 이상 |
|---------------------------|------------|------|-----|-----|-------|
| 전체(n=3,347) ¹⁾ | | 94.7 | 4.6 | 0.7 | 0.0 |
| 성별 | 남성 | 95.0 | 4.3 | 0.6 | 0.1 |
| | 여성 | 94.4 | 4.8 | 0.8 | 0.0 |
| 연령 | 19-24세 | 88.3 | 9.9 | 1.7 | 0.2 |
| | 25-29세 | 96.1 | 3.8 | 0.1 | 0.0 |
| | 30-34세 | 96.1 | 3.1 | 0.7 | 0.0 |
| | 35-36세 | 95.3 | 3.7 | 1.0 | 0.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0.1 | 8.9 | 0.9 | 0.1 |
| | 전문대 졸업 | 95.0 | 4.5 | 0.5 | 0.0 |
| | 대학교 졸업 | 96.8 | 2.5 | 0.6 | 0.0 |
| | 대학원 졸업 | 95.4 | 3.8 | 0.8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5.2 | 4.0 | 0.7 | 0.1 |
| | 무자녀 부부가구 | 97.6 | 2.4 | 0.0 | 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95.3 | 3.8 | 0.9 | 0.0 |
| | 부모동거 가구 | 93.5 | 5.7 | 0.8 | 0.0 |
| | 기타 가구 | 95.6 | 4.0 | 0.3 | 0.0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17]은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마련’이 21.4%로 가장 높았고, ‘구직기간 비용지원’ 21.3%, ‘좋은 일자리 창출’ 18.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에서는 ‘구직기간 비용지원’,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공공 일자리 확대’ 등에서 남성보다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마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음

[표 4-4-17]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구 분 | |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마련 | 구직기간 비용지원 |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 일자리 확대 | 기타 |
|---------------------------|------------|--------------------|---------------------|----------------------|-----------------------|---------------------------|--------------|-----------------|-----------------|-----|
| 전체(n=3,347) ¹⁾ | | 3.4 | 6.1 | 10.3 | 14.4 | 21.4 | 21.3 | 18.9 | 3.6 | 0.5 |
| 성별 | 남성 | 3.7 | 5.7 | 10.7 | 16.0 | 21.9 | 17.9 | 20.8 | 2.7 | 0.5 |
| | 여성 | 3.2 | 6.4 | 10.0 | 13.1 | 20.9 | 24.3 | 17.2 | 4.4 | 0.5 |
| 연령 | 19-24세 | 4.2 | 6.8 | 8.2 | 13.1 | 24.0 | 22.0 | 15.2 | 5.9 | 0.5 |
| | 25-29세 | 3.4 | 5.8 | 10.0 | 15.1 | 20.9 | 23.7 | 17.0 | 3.8 | 0.3 |
| | 30-34세 | 3.2 | 6.1 | 11.4 | 14.2 | 20.8 | 18.9 | 22.1 | 2.7 | 0.5 |
| | 35-36세 | 2.6 | 5.2 | 11.7 | 15.8 | 20.5 | 20.1 | 20.8 | 2.2 | 1.1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3 | 6.0 | 8.6 | 14.4 | 21.6 | 23.1 | 16.4 | 5.1 | 0.5 |
| | 전문대 졸업 | 4.3 | 5.8 | 13.3 | 15.9 | 20.2 | 20.9 | 16.5 | 2.7 | 0.4 |
| | 대학교 졸업 | 2.7 | 6.1 | 10.3 | 14.1 | 22.7 | 20.8 | 19.6 | 3.3 | 0.4 |
| | 대학원 졸업 | 4.0 | 7.1 | 11.8 | 13.8 | 13.2 | 19.2 | 27.8 | 2.2 | 0.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8 | 5.4 | 10.7 | 13.2 | 21.0 | 24.0 | 19.3 | 3.1 | 0.5 |
| | 무자녀 부부가구 | 4.2 | 7.0 | 11.6 | 12.8 | 21.9 | 14.6 | 24.6 | 2.2 | 1.2 |
| | 유자녀 부부가구 | 3.6 | 7.7 | 9.2 | 19.0 | 22.0 | 14.8 | 18.4 | 3.6 | 1.7 |
| | 부모동거 가구 | 3.7 | 6.5 | 10.2 | 15.2 | 21.7 | 19.8 | 18.2 | 4.4 | 0.2 |
| | 기타 가구 | 4.3 | 5.0 | 8.5 | 14.2 | 20.1 | 28.9 | 15.3 | 3.4 | 0.3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18]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60.2%, 비정규직은 29.5%이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6.4%, 특수형태근로자 3.6%, 무급가족 종사자 0.3%이었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31.2%)이 남성(27.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정규직 비율은 30-34세에서 가장 높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음
- 학력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대학교 졸업자에서 71.3%로 가장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13.6%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80.1%로 가장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11.4%로 가장 높았음

[표 4-4-18]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 분 | | 임금근로자 | | | | | 비임금근로자 | | | | |
|---------------------------|------------|-----------|-------------------|--------------------|------|-------------------|--------------------|--------------------|-------------|-------------|------|
| | | 비정규직 | | | | 정규직 (계속 근무) | | | | | 계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 | 계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자 | |
| 전체(n=3,347) ¹⁾ | | 2.1 | 16.2 | 11.2 | 29.5 | 60.2 | 4.9 | 1.5 | 0.3 | 3.6 | 10.3 |
| 성별 | 남성 | 2.9 | 15.7 | 8.9 | 27.5 | 61.3 | 5.1 | 1.3 | 0.6 | 4.3 | 11.2 |
| | 여성 | 1.5 | 16.6 | 13.1 | 31.2 | 59.3 | 4.7 | 1.7 | 0.2 | 3.0 | 9.5 |
| 연령 | 19-24세 | 4.6 | 39.9 | 16.4 | 61.0 | 28.4 | 3.9 | 1.8 | 0.6 | 4.3 | 10.7 |
| | 25-29세 | 2.1 | 16.8 | 10.7 | 29.6 | 60.5 | 4.3 | 1.2 | 0.5 | 3.9 | 9.9 |
| | 30-34세 | 1.1 | 5.8 | 9.6 | 16.6 | 73.4 | 5.4 | 1.5 | 0.1 | 3.1 | 10.1 |
| | 35-36세 | 1.4 | 9.2 | 9.1 | 19.7 | 66.3 | 9.7 | 2.2 | 0.0 | 2.2 | 14.0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9 | 33.2 | 13.8 | 51.9 | 34.6 | 5.7 | 2.0 | 0.8 | 5.2 | 13.6 |
| | 전문대 졸업 | 1.9 | 9.8 | 11.8 | 23.6 | 64.1 | 6.5 | 2.4 | 0.1 | 3.3 | 12.3 |
| | 대학교 졸업 | 1.0 | 10.1 | 9.4 | 20.4 | 71.3 | 4.2 | 1.0 | 0.2 | 2.8 | 8.2 |
| | 대학원 졸업 | 0.5 | 10.0 | 13.7 | 24.1 | 66.6 | 4.6 | 1.2 | 0.0 | 3.5 | 9.3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7 | 12.4 | 10.3 | 24.5 | 65.2 | 4.9 | 1.1 | 0.1 | 4.3 | 10.4 |
| | 무자녀 부부가구 | 0.4 | 2.6 | 7.8 | 10.9 | 80.1 | 2.5 | 3.6 | 0.4 | 2.6 | 9.1 |
| | 유자녀 부부가구 | 0.5 | 4.9 | 8.2 | 13.6 | 75.0 | 7.0 | 2.2 | 0.6 | 1.6 | 11.4 |
| | 부모동거 가구 | 2.9 | 23.2 | 12.0 | 38.1 | 51.5 | 5.0 | 1.5 | 0.6 | 3.4 | 10.4 |
| | 기타 가구 | 2.4 | 16.9 | 17.0 | 36.3 | 54.3 | 5.7 | 0.3 | 0.0 | 3.4 | 9.4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19]는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의 플랫폼노동 여부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노동인 경우는 36.1%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노동인 경우는 남성 34.8%, 여성 37.1%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가 플랫폼노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 가구에서 41.3%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27.6%로 가장 낮았음

[표 4-4-19] 현재 일자리의 플랫폼노동 여부

[단위: %]

| 구 분 | | 예 | 아니오 |
|---------------------------|------------|------|------|
| 전체(n=3,347) ¹⁾ | | 36.1 | 63.9 |
| 성별 | 남성 | 34.8 | 65.2 |
| | 여성 | 37.1 | 62.9 |
| 연령 ²⁾ | 19-24세 | 44.8 | 55.2 |
| | 25-29세 | 38.2 | 61.8 |
| | 30-34세 | 30.9 | 69.1 |
| | 35-36세 | 30.9 | 69.1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1.4 | 58.6 |
| | 전문대 졸업 | 38.0 | 62.0 |
| | 대학교 졸업 | 33.4 | 66.6 |
| | 대학원 졸업 | 31.8 | 68.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4.1 | 65.9 |
| | 무자녀 부부가구 | 30.6 | 69.4 |
| | 유자녀 부부가구 | 27.6 | 72.4 |
| | 부모동거 가구 | 39.0 | 61.0 |
| | 기타 가구 | 41.3 | 58.7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20]은 취업자의 사업장 유형에 대해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민간 중소기업이 38.4%로 가장 높았고, 민간 대기업이 19.1%, 기타(법인단체, 프리랜서 등) 18.5%, 공공부문 13.8%, 소규모 사업체 10.2%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36.3%)과 여성(40.3%) 모두 민간 중소기업이 가장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민간 대기업 비율은 높고, 소규모 사업체 비율은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가구 유형에서 민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유자녀 및 무자녀 부부가구는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다른 가구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4-4-20] 사업장 유형

[단위: %]

| 구 분 | | 공공부문 | 민간 대기업 | 민간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체 | 기타(법인단체, 프리랜서 등) |
|---------------------------|------------|------|--------|---------|---------|------------------|
| 전체(n=3,177) ¹⁾ | | 13.8 | 19.1 | 38.4 | 10.2 | 18.5 |
| 성별 | 남성 | 14.5 | 21.8 | 36.3 | 10.9 | 16.4 |
| | 여성 | 13.1 | 16.6 | 40.3 | 9.6 | 20.3 |
| 연령 ²⁾ | 19-24세 | 11.2 | 8.0 | 38.1 | 16.1 | 26.7 |
| | 25-29세 | 13.3 | 18.8 | 40.1 | 9.3 | 18.5 |
| | 30-34세 | 14.8 | 23.5 | 37.4 | 8.9 | 15.5 |
| | 35-36세 | 17.9 | 21.3 | 36.1 | 8.8 | 15.9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1.4 | 10.7 | 38.4 | 16.3 | 23.2 |
| | 전문대 졸업 | 7.3 | 13.9 | 46.4 | 14.3 | 18.1 |
| | 대학교 졸업 | 15.4 | 23.6 | 37.6 | 6.9 | 16.5 |
| | 대학원 졸업 | 21.9 | 24.1 | 29.9 | 6.1 | 18.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4.8 | 19.4 | 39.0 | 8.7 | 18.2 |
| | 무자녀 부부가구 | 13.8 | 31.7 | 33.5 | 6.4 | 14.6 |
| | 유자녀 부부가구 | 20.3 | 27.4 | 27.6 | 8.8 | 15.9 |
| | 부모동거 가구 | 11.8 | 15.5 | 40.3 | 12.2 | 20.1 |
| | 기타 가구 | 14.7 | 17.5 | 38.6 | 12.1 | 17.1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 중 주된 일자리 민간 사업체 취업자 중 종사자 수 모름 응답자 제외 후 3,177명을 분석함

- [표 4-4-21]은 현재 취업자의 근로 형태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현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67.1%, 비정규직 32.9%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정규직 비율은 남성 69.0%, 여성 65.5%로 남성이 더 높았음
- 연령에 따라서는 정규직 비율은 30-34세에서 81.6%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19-24세에서 68.2%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정규직 비율은 대학교 졸업자가 77.7%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60.0%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는 정규직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88.0%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부모동거 가구에서 42.5%로 가장 높았음

[표 4-4-21] 현재 취업자의 근로 형태

[단위: %]

| 구 분 | | 정규직 | 비정규직 |
|---------------------------|------------|------|------|
| 전체(n=3,002) ¹⁾ | | 67.1 | 32.9 |
| 성별 | 남성 | 69.0 | 31.0 |
| | 여성 | 65.5 | 34.5 |
| 연령 | 19-24세 | 31.8 | 68.2 |
| | 25-29세 | 67.1 | 32.9 |
| | 30-34세 | 81.6 | 18.4 |
| | 35-36세 | 77.1 | 22.9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0.0 | 60.0 |
| | 전문대 졸업 | 73.1 | 26.9 |
| | 대학교 졸업 | 77.7 | 22.3 |
| | 대학원 졸업 | 73.4 | 26.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2.7 | 27.3 |
| | 무자녀 부부가구 | 88.0 | 12.0 |
| | 유자녀 부부가구 | 84.7 | 15.3 |
| | 부모동거 가구 | 57.5 | 42.5 |
| | 기타 가구 | 59.9 | 40.1 |

주: 1) 임금근로자 3,002명을 분석함

- [표 4-4-22]는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임금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임금은 월평균은 229만 5천 원이며, '200-300만 원 미만'이 40.4%로 가장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된 일자리 임금은 남성이 월평균 240만 9천 원으로 여성(219만 7천 원)에 비해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200-300만 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 임금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주된 일자리 월평균 임금이 314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동거 가구에서 196만 6천 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 4-4-22] 주된 일자리 임금

[단위: 만 원, %]

| 구 분 | | 월평균 (만 원) | 100만 원 미만 | 100-200만 원 미만 | 200-300만 원 미만 | 300-400만 원 미만 | 400만 원 이상 |
|---------------------------|------------|--------------|--------------|------------------|------------------|------------------|--------------|
| 전체(n=3,347) ¹⁾ | | 229.5 | 16.8 | 16.2 | 40.4 | 18.3 | 8.3 |
| 성별 | 남성 | 240.9 | 16.2 | 14.5 | 37.5 | 20.8 | 11.1 |
| | 여성 | 219.7 | 17.4 | 17.6 | 43.0 | 16.1 | 5.8 |
| 연령 ²⁾ | 19-24세 | 125.7 | 49.5 | 25.0 | 22.0 | 2.6 | 0.9 |
| | 25-29세 | 221.8 | 13.4 | 19.1 | 47.1 | 16.3 | 4.2 |
| | 30-34세 | 276.5 | 6.7 | 10.0 | 42.9 | 25.8 | 14.6 |
| | 35-36세 | 282.7 | 8.2 | 11.9 | 35.7 | 29.4 | 14.8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49.9 | 40.4 | 23.6 | 26.2 | 8.0 | 1.8 |
| | 전문대 졸업 | 223.1 | 9.7 | 21.3 | 53.6 | 11.9 | 3.5 |
| | 대학교 졸업 | 262.9 | 8.3 | 12.0 | 44.2 | 24.3 | 11.2 |
| | 대학원 졸업 | 295.0 | 6.2 | 8.8 | 39.5 | 25.3 | 20.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44.1 | 12.3 | 14.5 | 42.3 | 22.5 | 8.4 |
| | 무자녀 부부가구 | 314.1 | 4.3 | 6.4 | 39.6 | 27.7 | 22.0 |
| | 유자녀 부부가구 | 283.8 | 8.1 | 11.0 | 35.1 | 25.8 | 20.0 |
| | 부모동거 가구 | 196.6 | 24.2 | 19.6 | 39.0 | 12.7 | 4.5 |
| | 기타 가구 | 217.5 | 16.6 | 19.1 | 44.2 | 13.9 | 6.2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23]은 취업자의 전체 일자리 임금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임금은 월평균은 232만 6천 원이며, ‘200-300만 원 미만’이 40.6%로 가장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된 일자리 임금은 남성이 월평균 243만 7천 원으로 여성(222만 9천 원)에 비해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200-300만 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 임금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주된 일자리 월평균 임금이 316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동거 가구에서 200만 2천 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 4-4-23] 전체 일자리 임금

[단위: 만 원, %]

| 구 분 | | 평균 (만 원) | 100만 원 미만 | 100-200만 원 미만 | 200-300만 원 미만 | 300-400만 원 미만 | 400만 원 이상 |
|---------------------------|------------|-------------|--------------|------------------|------------------|------------------|--------------|
| 전체(n=3,347) ¹⁾ | | 232.6 | 15.8 | 16.4 | 40.6 | 18.6 | 8.5 |
| 성별 | 남성 | 243.7 | 15.7 | 14.5 | 37.1 | 21.3 | 11.4 |
| | 여성 | 222.9 | 16.0 | 18.0 | 43.6 | 16.4 | 6.0 |
| 연령 ²⁾ | 19-24세 | 131.9 | 45.6 | 27.8 | 22.4 | 3.0 | 1.2 |
| | 25-29세 | 224.0 | 12.9 | 18.8 | 47.4 | 16.5 | 4.5 |
| | 30-34세 | 278.8 | 6.4 | 9.8 | 42.7 | 26.4 | 14.8 |
| | 35-36세 | 285.9 | 8.2 | 11.1 | 36.1 | 29.4 | 15.3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55.2 | 37.9 | 24.8 | 26.5 | 8.8 | 2.0 |
| | 전문대 졸업 | 226.3 | 9.0 | 20.5 | 54.0 | 12.5 | 4.0 |
| | 대학교 졸업 | 264.6 | 7.9 | 12.0 | 44.2 | 24.5 | 11.4 |
| | 대학원 졸업 | 298.8 | 5.1 | 9.4 | 39.5 | 25.0 | 20.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46.6 | 11.6 | 14.5 | 42.5 | 22.5 | 8.9 |
| | 무자녀 부부가구 | 316.4 | 3.8 | 6.2 | 39.1 | 28.9 | 22.0 |
| | 유자녀 부부가구 | 288.3 | 8.1 | 9.1 | 34.8 | 28.0 | 20.0 |
| | 부모동거 가구 | 200.2 | 22.6 | 20.4 | 39.2 | 13.0 | 4.7 |
| | 기타 가구 | 219.5 | 15.8 | 19.0 | 44.7 | 14.2 | 6.2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24]는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37.4시간이며,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음
- 성별에 따라 주된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38.3시간, 여성은 36.6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34세에서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이 41.0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19-24세에서 26.1시간으로 가장 낮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경향이 있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가 41.6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동거 가구가 34.7시간으로 가장 낮았음

[표 4-4-24]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

[단위: 시간, %]

| 구 분 | | 평균 (시간) ²⁾ | 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 52시간 초과 |
|---------------------------|------------|--------------------------|---------|--------------------|--------------------|---------|
| 전체(n=3,347) ¹⁾ | | 37.4 | 11.9 | 12.8 | 69.4 | 5.9 |
| 성별 | 남성 | 38.3 | 11.0 | 12.6 | 68.8 | 7.6 |
| | 여성 | 36.6 | 12.6 | 12.9 | 70.0 | 4.4 |
| 연령 ²⁾ | 19-24세 | 26.1 | 36.2 | 23.6 | 37.2 | 3.0 |
| | 25-29세 | 38.5 | 8.8 | 12.4 | 72.7 | 6.1 |
| | 30-34세 | 41.0 | 4.8 | 8.6 | 79.9 | 6.7 |
| | 35-36세 | 40.6 | 5.3 | 10.1 | 76.2 | 8.4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9.7 | 29.1 | 22.2 | 43.6 | 5.1 |
| | 전문대 졸업 | 40.0 | 6.8 | 10.5 | 75.1 | 7.7 |
| | 대학교 졸업 | 40.2 | 5.4 | 9.3 | 79.3 | 6.0 |
| | 대학원 졸업 | 40.6 | 4.9 | 7.7 | 82.5 | 5.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9.1 | 8.9 | 10.2 | 74.3 | 6.6 |
| | 무자녀 부부가구 | 41.6 | 4.6 | 6.7 | 81.4 | 7.3 |
| | 유자녀 부부가구 | 40.0 | 4.6 | 14.3 | 72.8 | 8.3 |
| | 부모동거 가구 | 34.7 | 16.5 | 16.4 | 62.5 | 4.6 |
| | 기타 가구 | 38.2 | 12.7 | 10.1 | 70.2 | 7.0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25]는 취업자의 전체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38.0시간이며,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9.2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 성별에 따라 주된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38.9시간, 여성은 37.3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졸업자의 전체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이 41.1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가 30.9시간으로 가장 적었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가 42.1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동거 가구가 35.5시간으로 가장 적었음

[표 4-4-25] 전체 일자리 근로시간

[단위: 시간, %]

| 구 분 | | 평균(시간) ²⁾ | 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 52시간 초과 |
|---------------------------|------------|----------------------|---------|--------------------|--------------------|---------|
| 전체(n=3,347) ¹⁾ | | 38.0 | 11.1 | 12.3 | 69.2 | 7.3 |
| 성별 | 남성 | 38.9 | 10.4 | 12.3 | 68.2 | 9.1 |
| | 여성 | 37.3 | 11.8 | 12.4 | 70.2 | 5.7 |
| 연령 ²⁾ | 19-24세 | 27.5 | 33.8 | 22.8 | 39.0 | 4.3 |
| | 25-29세 | 39.0 | 8.2 | 12.5 | 71.9 | 7.4 |
| | 30-34세 | 41.4 | 4.6 | 8.0 | 79.3 | 8.1 |
| | 35-36세 | 41.4 | 5.3 | 8.3 | 76.2 | 10.3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0.9 | 27.3 | 21.3 | 44.9 | 6.5 |
| | 전문대 졸업 | 40.7 | 6.8 | 9.7 | 73.5 | 10.1 |
| | 대학교 졸업 | 40.5 | 5.0 | 9.1 | 78.8 | 7.1 |
| | 대학원 졸업 | 41.1 | 4.4 | 8.1 | 81.3 | 6.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9.6 | 8.6 | 9.7 | 73.8 | 7.9 |
| | 무자녀 부부가구 | 42.1 | 4.6 | 5.9 | 80.7 | 8.8 |
| | 유자녀 부부가구 | 40.6 | 4.1 | 13.3 | 72.8 | 9.8 |
| | 부모동거 가구 | 35.5 | 15.2 | 16.3 | 62.6 | 6.0 |
| | 기타 가구 | 38.8 | 12.3 | 9.1 | 70.5 | 8.2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26]은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응답자의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정규근무시간 36시간 미만'이 40.8%로 가장 높았고, '교육·훈련' 23.5%, '일거리가 없어서' 12.1%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남성(39.5%)과 여성(41.8%) 모두 '정규근무시간 36시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유형은 '정규근무시간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는 '기타' 응답 비율이 79.9%로 가장 높았음
 - 기타 응답의 내용으로는 육아, 가족적 이유 등이 있었음

[표 4-4-26]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단위: %]

| 구분 | | 정규근무 시간 36시간 미만 | 건강문제 | 휴가, 연가, 공휴일 | 교육·훈련 |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기타 ²⁾ |
|-------------------------|------------|-----------------------|------|----------------|-------|----------------------|------------------|
| 전체(n=786) ¹⁾ | | 40.8 | 2.1 | 3.0 | 23.5 | 12.1 | 18.5 |
| 성별 | 남성 | 39.5 | 2.6 | 4.0 | 23.3 | 13.6 | 16.9 |
| | 여성 | 41.8 | 1.7 | 2.1 | 23.7 | 10.9 | 19.7 |
| 연령 | 19-24세 | 43.8 | 1.1 | 1.2 | 33.7 | 6.1 | 14.1 |
| | 25-29세 | 40.3 | 1.6 | 4.3 | 26.5 | 13.7 | 13.5 |
| | 30-34세 | 36.9 | 5.3 | 4.9 | 1.2 | 19.7 | 32.0 |
| | 35-36세 | 29.1 | 0.0 | 0.0 | 3.7 | 27.7 | 39.6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1.9 | 2.1 | 2.0 | 28.9 | 8.6 | 16.5 |
| | 전문대 졸업 | 42.5 | 2.6 | 5.1 | 14.2 | 12.6 | 23.0 |
| | 대학교 졸업 | 38.6 | 1.3 | 4.0 | 19.2 | 18.2 | 18.7 |
| | 대학원 졸업 | 38.3 | 7.0 | 3.3 | 6.1 | 11.8 | 33.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45.2 | 1.9 | 2.1 | 20.1 | 13.5 | 17.2 |
| | 무자녀 부부가구 | 44.0 | 0.0 | 3.4 | 2.9 | 22.5 | 27.2 |
| | 유자녀 부부가구 | 18.8 | 3.0 | 0.0 | 0.0 | 3.3 | 74.9 |
| | 부모동거 가구 | 39.8 | 2.5 | 3.5 | 27.9 | 11.3 | 15.0 |
| | 기타 가구 | 41.8 | 0.0 | 3.7 | 25.8 | 13.9 | 14.8 |

주: 1) 취업자 3,347명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명을 분석함

2) 기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육아",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기타"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를 직업분류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표 4-4-27]은 이러한 직업분류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는 사무직이 35.1%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7%, 서비스직 16.1, 판매직 5.4%, 단순노무직 및 기타 4.4%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업분류를 분석한 결과, 여성(40.1%)과 남성(29.3%) 모두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여성의 사무직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사무직의 비율은 30-34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35-36세에서 가장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직과 판매직 종사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표 4-4-27]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업 분류

[단위: %]

| 전체(n=3,347) ¹⁾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최종학력 | | | |
|---------------------------|------|------|------|-------------|-------------|-------------|-------------|------------------|-----------|-----------|-----------------|
| | | 남성 | 여성 | 19세 -24세 | 25세 -29세 | 30세 -34세 | 35세 -36세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이상 |
| 관리자 | 2.3 | 3.2 | 1.4 | 1.8 | 1.7 | 2.8 | 3.8 | 2.2 | 2.0 | 2.3 | 2.4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9.7 | 28.9 | 30.4 | 20.7 | 32.5 | 30.7 | 33.0 | 15.3 | 30.2 | 32.3 | 64.0 |
| 사무직 | 35.1 | 29.3 | 40.1 | 21.5 | 36.1 | 39.6 | 39.0 | 24.1 | 29.4 | 43.8 | 22.6 |
| 서비스직 | 16.1 | 17.1 | 15.2 | 32.3 | 13.5 | 11.8 | 12.4 | 30.7 | 15.8 | 10.3 | 4.5 |
| 판매직 | 5.4 | 5.4 | 5.5 | 8.8 | 4.6 | 4.8 | 5.6 | 9.9 | 6.5 | 3.3 | 2.3 |
| 직업 ²⁾ 농림어업 숙련직 | 0.0 | 0.1 | 0.0 | 0.0 | 0.0 | 0.1 | 0.0 | 0.0 | 0.2 | 0.0 | 0.0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 1.1 | 1.9 | 0.5 | 0.7 | 1.3 | 1.3 | 0.0 | 1.2 | 2.3 | 0.9 | 0.4 |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 1.2 | 2.4 | 0.2 | 1.1 | 1.1 | 1.5 | 0.6 | 1.3 | 2.4 | 1.0 | 0.0 |
| 단순노무직 | 4.4 | 5.9 | 3.2 | 10.0 | 4.4 | 2.2 | 2.6 | 10.0 | 4.3 | 2.1 | 0.9 |
| 직업군인 | 0.2 | 0.4 | 0.0 | 0.2 | 0.0 | 0.4 | 0.0 | 0.0 | 0.3 | 0.3 | 0.0 |
| 기타 | 4.4 | 5.4 | 3.6 | 2.9 | 4.9 | 4.9 | 3.1 | 5.2 | 6.6 | 3.7 | 3.0 |

주: 1) 취업자 3,347명을 분석함

2)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름

- 취업자의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표 4-4-28]은 이러한 산업분류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는 정보통신업이 1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8%), 교육서비스업(10.5%), 제조업(9.6%) 등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교육서비스업(13.1%), 남성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8%)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를 분석한 결과, 19-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6%로 가장 많았고, 25-29세(14.4%)와 35-36세(19.1%)에서는 정보통신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34세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13.2%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류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18.5%)이, 전문대 졸업(12.7%)과 대학교 졸업(15.4%)은 정보통신업이, 대학원 졸업 이상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7%)이 가장 많았음

[표 4-4-28] 현재 주된 일자리의 산업 분류

[단위: %]

| 전체(n=3,347) ¹⁾ |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최종학력 | | | |
|---------------------------|--------------------------|------|------|------|-------------|-------------|-------------|-------------|------------------|-----------|-----------|-----------------|
| | | | 남성 | 여성 | 19세 -24세 | 25세 -29세 | 30세 -34세 | 35세 -36세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이상 |
| 산업 ²⁾ | 농업, 임업 및 어업 | 0.2 | 0.2 | 0.2 | 0.1 | 0.1 | 0.3 | 0.0 | 0.1 | 0.2 | 0.2 | 0.5 |
| | 제조업 | 9.6 | 10.0 | 9.3 | 6.4 | 9.7 | 11.1 | 9.0 | 6.6 | 10.1 | 11.4 | 7.1 |
| |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업 | 0.6 | 1.1 | 0.2 | 0.6 | 0.8 | 0.4 | 0.6 | 0.7 | 1.1 | 0.5 | 0.0 |
| | 수도, 하수, 폐기물, 원료재생 | 0.2 | 0.3 | 0.2 | 0.0 | 0.3 | 0.3 | 0.0 | 0.1 | 0.0 | 0.4 | 0.0 |
| | 건설업 | 3.3 | 4.5 | 2.3 | 1.1 | 3.6 | 3.9 | 4.8 | 2.2 | 4.7 | 3.4 | 4.6 |
| | 도매 및 소매업 | 8.9 | 8.5 | 9.3 | 8.9 | 7.6 | 9.8 | 11.5 | 10.7 | 11.1 | 8.0 | 4.4 |
| | 운수 및 창고업 | 2.4 | 3.3 | 1.6 | 1.3 | 1.8 | 3.6 | 2.1 | 2.8 | 2.2 | 2.5 | 0.8 |
| | 숙박 및 음식점업 | 7.9 | 7.7 | 8.1 | 20.6 | 6.4 | 4.1 | 4.7 | 18.5 | 8.0 | 3.3 | 1.7 |
| | 정보통신업 | 12.7 | 13.7 | 11.9 | 7.8 | 14.4 | 12.6 | 19.1 | 8.8 | 12.7 | 15.4 | 8.0 |
| | 금융 및 보험업 | 5.0 | 5.4 | 4.6 | 2.0 | 5.3 | 5.9 | 5.4 | 3.8 | 1.8 | 6.7 | 2.6 |
| | 부동산업 | 1.3 | 1.5 | 1.0 | 1.6 | 1.3 | 1.1 | 0.5 | 1.3 | 1.9 | 1.0 | 2.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1.8 | 13.8 | 10.0 | 8.7 | 12.5 | 13.2 | 6.0 | 7.2 | 10.1 | 12.0 | 30.7 |
| | 사업서비스업(시설, 지원, 임대) | 1.8 | 2.3 | 1.4 | 1.8 | 1.7 | 1.9 | 1.7 | 2.9 | 2.0 | 1.3 | 1.2 |
| | 공공 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5.9 | 7.0 | 5.0 | 4.8 | 5.4 | 6.7 | 8.6 | 5.1 | 3.5 | 7.1 | 5.3 |
| | 교육서비스업 | 10.5 | 7.4 | 13.1 | 16.2 | 9.5 | 8.6 | 12.3 | 12.8 | 5.8 | 9.9 | 15.1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6 | 3.9 | 10.8 | 7.2 | 8.8 | 7.1 | 4.1 | 4.0 | 11.7 | 8.3 | 7.7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 6.6 | 5.5 | 7.5 | 7.4 | 7.0 | 5.8 | 6.5 | 7.4 | 9.5 | 5.7 | 4.4 |
| |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 2.9 | 3.0 | 2.8 | 2.4 | 3.1 | 2.8 | 2.4 | 3.9 | 3.3 | 2.2 | 2.7 |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생산 | 0.5 | 0.6 | 0.3 | 0.9 | 0.4 | 0.3 | 0.6 | 0.9 | 0.2 | 0.2 | 0.9 |
| | 국제 및 외국기관 | 0.3 | 0.4 | 0.3 | 0.2 | 0.3 | 0.5 | 0.0 | 0.3 | 0.3 | 0.4 | 0.0 |

주: 1) 취업자 3,347명을 분석함

2)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름

- [표 4-4-29]는 취업자의 근무지 위치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취업자의 근무지 위치는 서울이 89.1%로 가장 높았고, 경기(9.0%), 그 외 지역(1.0%), 인천(0.9%) 순이었음
- 남성의 근무지는 경기, 인천, 그 외 지역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낮고,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높음
- 유자녀 부부가구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업자의 근무 장소는 사업장 내(8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자택(4.9%), 장소제약 없음(4.2%), 일거리가 있는 장소(3.9%), 특정 장소가 없는 업무(0.8%), 기타(0.6%) 순이었음
- 남성은 5.4%가 일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일거리가 있는 장소는 19-24세에서 가장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높은 경향이 있음

[표 4-4-29] 근무지 위치 및 장소

[단위: %]

| 구분 | | 근무지 위치(n=2,865) ¹⁾ | | | | 근무 장소(n=3,347) ²⁾ | | | | | |
|-------|------------|-------------------------------|------|-----|--------|------------------------------|-------|------------|-------------|---------|-----|
| | | 서울 | 경기 | 인천 | 그 외 지역 | 자택 | 사업장 내 | 일거리가 있는 장소 | 특정 장소 없는 업무 | 장소제약 없음 | 기타 |
| 전체 | | 89.1 | 9.0 | 0.9 | 1.0 | 4.9 | 85.6 | 3.9 | 0.8 | 4.2 | 0.6 |
| 성별 | 남성 | 86.0 | 11.3 | 1.4 | 1.3 | 3.8 | 83.8 | 5.4 | 1.5 | 4.8 | 0.7 |
| | 여성 | 91.6 | 7.1 | 0.6 | 0.7 | 5.9 | 87.2 | 2.6 | 0.1 | 3.7 | 0.5 |
| 연령 | 19-24세 | 90.9 | 6.9 | 0.8 | 1.4 | 4.1 | 84.3 | 5.4 | 0.4 | 4.5 | 1.3 |
| | 25-29세 | 89.1 | 9.4 | 0.4 | 1.1 | 3.9 | 87.5 | 3.5 | 0.6 | 3.9 | 0.7 |
| | 30-34세 | 88.3 | 9.6 | 1.7 | 0.4 | 5.6 | 84.9 | 3.7 | 1.1 | 4.4 | 0.3 |
| | 35-36세 | 88.5 | 9.3 | 0.0 | 2.2 | 9.8 | 82.0 | 2.9 | 0.4 | 4.1 | 0.8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0.3 | 7.5 | 0.8 | 1.3 | 4.8 | 81.4 | 5.7 | 1.9 | 4.8 | 1.5 |
| | 전문대 졸업 | 88.8 | 9.1 | 1.3 | 0.8 | 4.5 | 86.4 | 3.7 | 0.9 | 3.4 | 0.9 |
| | 대학교 졸업 | 88.8 | 9.6 | 0.8 | 0.8 | 4.8 | 87.2 | 3.2 | 0.2 | 4.3 | 0.2 |
| | 대학원 졸업 | 87.0 | 10.0 | 1.5 | 1.5 | 6.8 | 88.3 | 2.2 | 0.0 | 2.8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2.2 | 6.2 | 0.6 | 1.0 | 5.2 | 83.3 | 4.7 | 0.7 | 5.2 | 1.0 |
| | 무자녀 부부가구 | 86.9 | 10.5 | 1.9 | 0.6 | 4.9 | 89.7 | 2.3 | 0.0 | 3.1 | 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82.6 | 14.0 | 2.7 | 0.7 | 9.6 | 86.0 | 1.1 | 0.5 | 2.2 | 0.5 |
| | 부모동거 가구 | 88.2 | 10.1 | 0.8 | 0.8 | 3.9 | 87.1 | 4.1 | 1.1 | 3.3 | 0.6 |
| | 기타 가구 | 85.8 | 10.7 | 1.1 | 2.4 | 6.2 | 83.8 | 2.7 | 0.5 | 6.8 | 0.0 |

주: 1) 취업자 3,347명 중 주된 일자리 근무 장소가 "사업장 내"인 2,865명을 분석함

2) 취업자 3,347명을 분석함

- [표 4-4-30]은 취업자 중 주된 일자리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인 응답자의 왕복 통근시간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평균 왕복 통근시간은 1시간 1분이며, 근무지 위치에 따라 왕복 통근시간에 다소 편차가 있었음
- 근무지가 서울인 경우 왕복 통근시간은 57분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는 1시간 42분, 인천은 1시간 39분, 그 외 지역은 1시간 5분임

[표 4-4-30] 왕복 통근시간

[단위: 분, 시간, %]

| 구분 | | 전체 ¹⁾ | 서울 ²⁾ | 경기 ²⁾ | 인천 ²⁾ | 그 외 지역 ²⁾ |
|------------|---------------|------------------|------------------|------------------|------------------|----------------------|
| 왕복 통근시간 | 평균 | 1시간 1분 | 57분 | 1시간 42분 | 1시간 39분 | 1시간 2분 |
| | 30분 미만 | 16.7 | 18.0 | 4.1 | 0.0 | 25.4 |
|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31.2 | 33.2 | 14.1 | 7.6 | 30.3 |
|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38.9 | 38.4 | 43.4 | 56.1 | 25.8 |
|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9.9 | 8.4 | 22.0 | 29.2 | 10.2 |
| | 3시간 이상 | 3.3 | 1.9 | 16.4 | 7.1 | 8.3 |

주: 1) 취업자 3,347명 중 주된 일자리 근무 장소가 사업장 내인 2,865명을 분석함

2) 서울 2,560명, 경기 259명, 인천 27명, 그 외 지역 29명을 분석함

(2) 희망 일자리

- 취업자의 희망 일자리를 분석해 주된 일자리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희망소득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였음([표 4-4-31] 참조)
- 주된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234.3만 원,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398.1만 원으로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 소득의 비율은 169.9%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현재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희망 소득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월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소득 비율은 19-24세가 223.1%로 가장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월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 모두 높은 경향이 있음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현재 월평균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가 28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희망 소득은 비임금 근로자가 447.7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 소득 비율도 비임금 근로자가 230.4%로 가장 높았음

[표 4-4-31] 주된 일자리 월평균 희망소득

[단위: 만 원, %]

| 구분 | | 월평균 소득 전체 ²⁾ (n=3,347) | 월평균 희망소득 전체 | 현재 월평균 소득 대비 희망소득 비율 |
|---------------------------|------------|--------------------------------------|-------------|-------------------------|
| 전체(n=3,347) ¹⁾ | | 234.3 | 398.1 | 169.9 |
| 성별 | 남성 | 246.5 | 440.4 | 178.7 |
| | 여성 | 223.8 | 361.6 | 161.6 |
| 연령 | 19-24세 | 131.1 | 292.5 | 223.1 |
| | 25-29세 | 226.0 | 387.4 | 171.4 |
| | 30-34세 | 281.3 | 445.4 | 158.3 |
| | 35-36세 | 289.7 | 478.7 | 165.2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57.2 | 331.8 | 211.1 |
| | 전문대 졸업 | 229.8 | 330.3 | 143.7 |
| | 대학교 졸업 | 266.3 | 435.2 | 163.4 |
| | 대학원 졸업 | 297.0 | 509.5 | 171.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48.6 | 419.8 | 168.9 |
| | 무자녀 부부가구 | 315.9 | 483.8 | 153.1 |
| | 유자녀 부부가구 | 293.1 | 482.5 | 164.6 |
| | 부모동거 가구 | 201.7 | 358.4 | 177.7 |
| | 기타 가구 | 221.8 | 365.8 | 164.9 |
| 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근로자 | 152.8 | 325.2 | 212.8 |
| | 정규직 근로자 | 281.0 | 425.3 | 151.4 |
| | 비임금 근로자 | 194.3 | 447.7 | 230.4 |

주: 1) 취업자 3,347명을 분석함

2) 주된 일자리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표 4-4-32]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 및 희망 근로시간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였음
- 주된 일자리의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시간, 희망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7.9시간임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주당근로시간이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현재 주당 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와 기타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유형은 현재 근로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을 희망하였음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현재 주당 근로시간과 희망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희망했고 정규직 근로자

는 현재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을 희망하였음

[표 4-4-32] 주된 일자리 희망 주당 근로시간

[단위: 시간, %]

| 구분 | | 현재 주당 근로시간 ²⁾ | 희망 근로시간 | | | | |
|---------------------------|------------|-----------------------------|---------|---------|--------------------|--------------------|---------|
| | | 평균 | 평균 | 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 52시간 초과 |
| 전체(n=3,347) ¹⁾ | | 38 | 37.9 | 7.4 | 23.9 | 64.7 | 3.9 |
| 성별 | 남성 | 38 | 39.9 | 6.4 | 15.4 | 72.6 | 5.6 |
| | 여성 | 37 | 36.1 | 8.3 | 31.3 | 57.9 | 2.5 |
| 연령 | 19-24세 | 27 | 33.9 | 15.8 | 27.9 | 51.9 | 4.3 |
| | 25-29세 | 38 | 38.7 | 6.1 | 22.0 | 67.6 | 4.3 |
| | 30-34세 | 41 | 38.8 | 5.0 | 23.3 | 68.0 | 3.7 |
| | 35-36세 | 41 | 37.5 | 6.5 | 29.6 | 61.9 | 2.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0 | 36.1 | 13.3 | 24.8 | 55.7 | 6.3 |
| | 전문대 졸업 | 40 | 37.3 | 9.9 | 20.8 | 65.7 | 3.6 |
| | 대학교 졸업 | 40 | 38.7 | 4.2 | 24.8 | 68.0 | 2.9 |
| | 대학원 졸업 | 41 | 39.1 | 3.8 | 20.7 | 72.6 | 2.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9 | 38.6 | 5.6 | 23.5 | 66.9 | 3.9 |
| | 무자녀 부부가구 | 42 | 39.0 | 5.5 | 23.7 | 66.8 | 3.9 |
| | 유자녀 부부가구 | 40 | 37.5 | 5.6 | 30.3 | 60.0 | 4.0 |
| | 부모동거 가구 | 35 | 36.9 | 9.2 | 24.2 | 63.1 | 3.5 |
| | 기타 가구 | 38 | 38.2 | 9.2 | 20.1 | 64.4 | 6.4 |
| 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근로자 | 30 | 35.5 | 12.6 | 26.2 | 56.7 | 4.5 |
| | 정규직 근로자 | 42 | 39.0 | 4.1 | 23.0 | 70.1 | 2.8 |
| | 비임금 근로자 | 32 | 37.8 | 12.1 | 22.8 | 56.2 | 8.9 |

주: 1) 취업자 3,3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분 단위 이하 버림

(3) 일자리 만족도와 근로환경

- [표 4-4-33]는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만족도를 성, 연령, 학력에 따라 구분한 것임
- 주된 일자리 만족도는 평균 3.4점(5점 만점)이었고, 현재 주된 일자리에 만족(만족+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51.0%,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4.2%이었음
- 성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15.6%)이 남성(12.7%)보다 주된 일자리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낮았음
- 학력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보다 주된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음

[표 4-4-33] 주된 일자리 만족도

[단위: 5점, %]

| 구 분 | | 평균 | 불만족함 | | | 보통 | 만족함 | | |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 | 만족 | 매우 만족 |
| 전체(n=3,347) ¹⁾ | | 3.4 | 14.2 | 2.0 | 12.3 | 34.8 | 51.0 | 43.6 | 7.4 |
| 성별 | 남성 | 3.5 | 12.7 | 1.9 | 10.8 | 33.2 | 54.1 | 44.5 | 9.5 |
| | 여성 | 3.4 | 15.6 | 2.0 | 13.5 | 36.1 | 48.3 | 42.8 | 5.6 |
| 연령 ²⁾ | 19-24세 | 3.6 | 8.5 | 1.4 | 7.2 | 32.1 | 59.4 | 48.7 | 10.7 |
| | 25-29세 | 3.4 | 15.2 | 1.9 | 13.3 | 34.5 | 50.4 | 44.6 | 5.8 |
| | 30-34세 | 3.4 | 15.7 | 2.1 | 13.6 | 35.7 | 48.6 | 41.1 | 7.5 |
| | 35-36세 | 3.3 | 15.7 | 3.2 | 12.5 | 39.6 | 44.7 | 37.7 | 7.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5 | 10.9 | 1.5 | 9.4 | 36.0 | 53.0 | 42.8 | 10.2 |
| | 전문대 졸업 | 3.3 | 16.7 | 1.9 | 14.9 | 37.5 | 45.8 | 40.8 | 5.0 |
| | 대학교 졸업 | 3.4 | 15.2 | 2.3 | 12.9 | 33.9 | 50.9 | 44.1 | 6.8 |
| | 대학원 졸업 | 3.5 | 14.3 | 1.3 | 13.0 | 31.0 | 54.7 | 48.2 | 6.5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34]는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직무 유사성을 성, 연령, 학력에 따라 구분한 것임
- 주된 일자리의 직무 유사성을 교육, 기술, 전공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먼저 현재 주된 일자리의 직무수준이 교육 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은 27.5%, 자신의 기술보다 낮다는 응답은 23.8%, 전공과 불일치하다는 응답은 39.4%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주된 일자리의 직무 유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수준이 교육 수준에 비해 낮다는 응답과 전공과 불일치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주된 일자리 직무수준이 교육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6세에서 26.5%로 가장 높았고, 기술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30.6%)과 전공과 불일치하다는 응답(50.5%)은 19-24세에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주된 일자리의 직무 유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가 교육 수준 및 기술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과 전공과 불일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음

[표 4-4-34] 주된 일자리 직무 유사성

[단위: %]

| 구 분 | | 교육 | | | 기술 | | | 전공 | | |
|---------------------------|------------|------|------|------|------|------|------|------|------|------|
| | | 낮다 | 유사하다 | 높다 | 낮다 | 유사하다 | 높다 | 불일치 | 유사하다 | 일치 |
| 전체(n=3,347) ¹⁾ | | 27.5 | 55.0 | 17.4 | 23.8 | 61.2 | 15.0 | 39.4 | 38.8 | 21.8 |
| 성별 | 남성 | 26.7 | 54.5 | 18.8 | 24.2 | 59.3 | 16.5 | 37.9 | 40.1 | 22.0 |
| | 여성 | 28.2 | 55.5 | 16.3 | 23.5 | 62.9 | 13.7 | 40.6 | 37.7 | 21.6 |
| 연령 | 19-24세 | 38.3 | 45.9 | 15.8 | 30.6 | 55.6 | 13.8 | 50.5 | 30.3 | 19.2 |
| | 25-29세 | 24.8 | 56.8 | 18.3 | 23.2 | 61.4 | 15.4 | 36.2 | 40.0 | 23.8 |
| | 30-34세 | 25.4 | 57.3 | 17.3 | 21.2 | 63.7 | 15.1 | 37.3 | 41.9 | 20.7 |
| | 35-36세 | 26.5 | 56.1 | 17.4 | 25.4 | 59.4 | 15.2 | 40.8 | 35.3 | 24.0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9.3 | 47.8 | 12.9 | 32.8 | 54.4 | 12.7 | 54.1 | 32.5 | 13.4 |
| | 전문대 졸업 | 25.4 | 56.6 | 18.0 | 22.6 | 62.1 | 15.3 | 37.5 | 40.4 | 22.1 |
| | 대학교 졸업 | 23.6 | 58.1 | 18.3 | 20.7 | 63.9 | 15.3 | 34.7 | 40.9 | 24.4 |
| | 대학원 졸업 | 16.4 | 56.3 | 27.4 | 14.9 | 64.6 | 20.5 | 22.6 | 43.9 | 33.5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3,347명을 분석함

- [표 4-4-35]는 취업자의 근로환경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성, 연령,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우선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은 9.6%,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경우는 15.4%,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경우는 24.3%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근로환경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경험은 여성이 더 높았으며, 위험한 근로환경 노출은 남성에서 더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한 근로환경 노출을 경험한 경우가 높은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근로환경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학원 이상이 13.2%, 위험한 근로환경(19.0%)과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경험(27.6%)은 전문대 졸업이 가장 높았음
-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응답자는 89.3%이었음
- 사회보험 종류별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72.1%, 특수직역연금은 13.5%, 건강보험은 85.2%, 고용보험은 73.5%, 산재보험은 62.5%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산재보험은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보다 가입률이 다소 낮았음
-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낮았음

[표 4-4-35] 근로환경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전 체(n=3,347) ¹⁾ | | 전체 | 성별 | | 연령 | | | | 최종학력 | | | |
|-------------------------------------|--------|------|------|------|-------------|-------------|-------------|-------------|--------------|-----------|-----------|-----------|
| | | | 남 | 여 | 19세 -24세 | 25세 -29세 | 30세 -34세 | 35세 -36세 | 고등학교 졸업이하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
| 직장내 괴롭힘 | 경험 있음 | 9.6 | 6.2 | 12.4 | 4.0 | 10.3 | 11.3 | 10.1 | 5.4 | 10.4 | 10.9 | 13.2 |
| | 경험 없음 | 90.4 | 93.8 | 87.6 | 96.0 | 89.7 | 88.7 | 89.9 | 94.6 | 89.6 | 89.1 | 86.8 |
| 위험한 근로환경 | 경험 있음 | 15.4 | 15.9 | 14.9 | 8.0 | 15.9 | 17.7 | 19.1 | 13.4 | 19.0 | 15.0 | 18.8 |
| | 경험 없음 | 84.6 | 84.1 | 85.1 | 92.0 | 84.1 | 82.3 | 80.9 | 86.6 | 81.0 | 85.0 | 81.2 |
| 고객으로 부터 폭언 | 경험 있음 | 24.3 | 19.9 | 28.0 | 20.9 | 22.3 | 27.6 | 24.5 | 23.9 | 27.6 | 24.3 | 18.5 |
| | 경험 없음 | 56.4 | 60.5 | 52.8 | 60.7 | 58.1 | 53.0 | 55.0 | 59.6 | 52.7 | 55.6 | 58.0 |
| | 해당사항없음 | 19.4 | 19.5 | 19.2 | 18.4 | 19.6 | 19.4 | 20.6 | 16.6 | 19.7 | 20.1 | 23.5 |
| 사회보험 ²⁾ | 가입 | 89.3 | 88.9 | 89.7 | 64.4 | 90.6 | 98.0 | 98.9 | 72.0 | 94.2 | 95.8 | 96.1 |
| 국민연금 | 가입 | 72.1 | 72.6 | 71.7 | 39.4 | 73.2 | 84.5 | 81.3 | 49.2 | 80.2 | 79.8 | 85.1 |
| | 미가입 | 13.1 | 12.7 | 13.4 | 21.8 | 11.9 | 10.1 | 14.2 | 19.9 | 7.8 | 11.4 | 9.6 |
| | 모름 | 14.8 | 14.8 | 14.9 | 38.8 | 14.9 | 5.3 | 4.5 | 30.8 | 12.0 | 8.8 | 5.3 |
| 특수직역 연금 (n=933) ³⁾ | 가입 | 13.5 | 12.5 | 14.3 | 2.5 | 12.7 | 31.2 | 31.7 | 4.1 | 6.7 | 25.4 | 31.7 |
| | 미가입 | 59.6 | 57.6 | 61.2 | 60.5 | 60.4 | 56.6 | 60.3 | 60.1 | 63.6 | 57.6 | 62.8 |
| | 모름 | 26.9 | 29.9 | 24.4 | 37.0 | 26.8 | 12.2 | 8.0 | 35.8 | 29.7 | 17.0 | 5.5 |
| 건강보험 | 가입 | 85.2 | 84.7 | 85.6 | 55.6 | 85.6 | 96.5 | 97.6 | 64.1 | 90.3 | 93.1 | 95.7 |
| | 미가입 | 2.6 | 3.1 | 2.2 | 6.3 | 2.7 | 1.1 | 0.5 | 6.1 | 1.0 | 1.4 | 1.8 |
| | 모름 | 12.2 | 12.2 | 12.2 | 38.1 | 11.7 | 2.4 | 1.8 | 29.8 | 8.7 | 5.5 | 2.5 |
| 고용보험 (n=3,221) ⁴⁾ | 가입 | 73.5 | 72.9 | 74.1 | 44.4 | 74.9 | 85.2 | 76.6 | 51.0 | 80.5 | 81.7 | 85.6 |
| | 미가입 | 13.7 | 13.1 | 14.1 | 23.4 | 12.2 | 10.3 | 15.8 | 21.2 | 11.1 | 10.9 | 10.2 |
| | 모름 | 12.8 | 14.0 | 11.8 | 32.2 | 12.9 | 4.5 | 7.6 | 27.8 | 8.4 | 7.4 | 4.3 |
| 산재보험 (n=3,221) ⁴⁾ | 가입 | 62.5 | 66.4 | 59.1 | 33.0 | 62.3 | 75.4 | 69.5 | 41.3 | 66.9 | 71.0 | 72.9 |
| | 미가입 | 15.0 | 13.7 | 16.2 | 24.5 | 13.6 | 11.5 | 19.6 | 23.2 | 14.9 | 11.5 | 9.6 |
| | 모름 | 22.5 | 19.9 | 24.7 | 42.6 | 24.1 | 13.1 | 10.9 | 35.6 | 18.2 | 17.5 | 17.5 |

주: 1) 취업자 3,347명을 분석함

2)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3)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응답자에게 질문함(n=933)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질문함(n=3,221)

(4) 이직과 창업

- [표 4-4-36]은 취업자의 이직 또는 창업 의향과 준비 경험을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취업자 중 이직 또는 창업 의향이 있는 경우는 64.3%,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24.3%, 이직 및 창업 의향이 없는 경우는 24.7%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이직 또는 창업 의향을 분석한 결과, 이직 또는 창업 의향이 있는 경우는 남성(62.7%)보다 여성(65.7%)이 높았고,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여성(23.2%)보다 남성(25.6%)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직 의향은 25-29세에서, 창업 의향은 19-24세에서 가장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가 높은 경향이 있음
- 지난 1년간 이직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1%이었고,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이었으며, 이직 활동 경험과 창업 준비 경험 모두 남성에서 더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준비 경험이,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 활동 경험이 더 높았음
- 이직 활동 경험은 무자녀 부부가구(41.6%)에서, 창업 준비 경험은 유자녀 부부가구(13.3%)에서 가장 높았음

[표 4-4-36] 이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과 준비 경험

[단위: %]

| 구분 | | 이직 또는 창업 의향 | | | 지난 1년간 이직 또는 창업 준비 | | |
|---------------------------|------------|-------------|-----------|--------------|--------------------|-------------|------------------|
| | | 이직 의향 있음 | 창업할 의향 있음 | 이직 및 창업의향 없음 | 이직 활동 경험 있음 | 창업 준비 경험 있음 | 이직 및 창업 준비 경험 없음 |
| 전체(n=3,347) ¹⁾ | | 64.3 | 24.3 | 24.7 | 32.1 | 7.9 | 62.1 |
| 성별 | 남성 | 62.7 | 25.6 | 25.5 | 32.2 | 9.1 | 60.9 |
| | 여성 | 65.7 | 23.2 | 24.1 | 32.0 | 6.8 | 63.1 |
| 연령 | 19-24세 | 58.7 | 20.8 | 31.2 | 16.0 | 5.2 | 79.5 |
| | 25-29세 | 69.5 | 22.8 | 21.5 | 33.5 | 6.0 | 62.5 |
| | 30-34세 | 62.5 | 27.1 | 24.6 | 37.8 | 10.3 | 54.5 |
| | 35-36세 | 59.3 | 26.3 | 27.9 | 33.4 | 12.5 | 57.2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7.5 | 27.1 | 29.1 | 22.4 | 8.6 | 71.3 |
| | 전문대 졸업 | 61.3 | 29.3 | 24.0 | 30.2 | 9.5 | 62.3 |
| | 대학교 졸업 | 67.4 | 21.3 | 23.6 | 36.5 | 7.4 | 58.2 |
| | 대학원 졸업 | 72.8 | 26.3 | 17.9 | 39.9 | 5.1 | 55.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67.1 | 24.6 | 22.3 | 34.6 | 8.4 | 59.4 |
| | 무자녀 부부가구 | 59.4 | 30.4 | 26.5 | 41.6 | 11.4 | 48.5 |
| | 유자녀 부부가구 | 54.1 | 28.3 | 32.9 | 26.2 | 13.3 | 64.6 |
| | 부모동거 가구 | 63.4 | 21.6 | 26.8 | 28.6 | 6.5 | 66.7 |
| | 기타 가구 | 68.5 | 29.9 | 17.3 | 34.7 | 5.4 | 61.6 |

주: 1) 취업자 3,347명을 분석함

- [표 4-4-37]은 취업자 중 이직 희망자의 이직 예정 시기에 대해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이직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직 예정 시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모르겠다’를 제외), ‘1년 이후’가 26.0%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 이직 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3개월 이내’는 19-24세에서 12.0%, ‘1년 후’는 25-29세에서 29.3%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이직 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와 전문대 졸업자에서 11.1%로 가장 높았고, ‘1년 후’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원 졸업자가 30.2%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이직 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47.8%)와 유자녀 부부가구(35.4%)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 가구에서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음

[표 4-4-37] 이직 예정 시기

[단위: %]

| 구분 | | 3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1년 이내 | 1년 이후 | 모르겠다 |
|---------------------------|------------|--------|------------------|-----------------|-------|------|
| 전체(n=2,152) ¹⁾ | | 9.6 | 12.9 | 18.5 | 26.0 | 33.0 |
| 성별 | 남성 | 8.5 | 10.8 | 18.5 | 26.3 | 36.0 |
| | 여성 | 10.5 | 14.7 | 18.5 | 25.8 | 30.5 |
| 연령 | 19-24세 | 12.0 | 14.2 | 15.4 | 26.4 | 32.1 |
| | 25-29세 | 9.9 | 12.5 | 19.8 | 29.3 | 28.5 |
| | 30-34세 | 9.1 | 12.4 | 19.2 | 23.0 | 36.4 |
| | 35-36세 | 2.0 | 16.9 | 12.7 | 21.1 | 47.4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1.1 | 12.8 | 15.5 | 24.6 | 36.0 |
| | 전문대 졸업 | 11.1 | 15.2 | 18.1 | 23.2 | 32.4 |
| | 대학교 졸업 | 8.7 | 12.4 | 20.1 | 26.7 | 32.1 |
| | 대학원 졸업 | 8.5 | 13.0 | 17.3 | 30.2 | 31.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4 | 13.3 | 18.3 | 25.8 | 33.2 |
| | 무자녀 부부가구 | 8.0 | 11.9 | 12.9 | 31.8 | 35.4 |
| | 유자녀 부부가구 | 4.0 | 1.0 | 20.3 | 26.9 | 47.8 |
| | 부모동거 가구 | 9.9 | 13.9 | 20.2 | 25.3 | 30.7 |
| | 기타 가구 | 13.5 | 13.7 | 14.2 | 25.1 | 33.4 |

주: 1) 취업자 3,347명 중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는 2,152명을 분석함

- [표 4-4-38]은 이직을 희망하는 취업자의 이직 희망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것임
-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가 59.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발전/승진’ 14.6%,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래 등)’ 11.7%,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5.6%,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4.3%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4-4-38]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 (n=2,152) ¹⁾ |
|--------------------------------------|-------------------------|
|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59.4 |
| 개인발전/승진 | 14.6 |
|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래 등) | 11.7 |
|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4.3 |
|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5.6 |
|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0.6 |
| 개인 사업을 위해서 | 1.4 |
| 건강상의 이유로 | 0.2 |
|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0.6 |
| 기타 | 1.6 |

주: 1) 취업자 3,347명 중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는 2,152명을 분석함

3) 미취업자

(1) 미취업자 특성

- [표 4-4-39]는 미취업자 현황을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미취업자 중 실업자는 22.6%, 재학생은 23.5%, 재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비재학 미취업자는 53.9%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실업자는 남성 22.5%, 여성 22.8%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재학생은 남성 26.1%, 20.5%로 남성이 더 높았음. 비재학 미취업자는 남성 51.4%, 여성 56.7%로 여성이 더 높았음
-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생 비율은 낮고 비재학 미취업자 비율은 높았음
-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학력에서 비재학 미취업이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 비율은 전문대 졸업자에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가구유형에서 비재학 미취업이 높았으며, 실업자 비율은 기타 가구에서 가장 높았음

[표 4-4-39] 미취업자 현황

[단위: %]

| 구분 | | 실업 ²⁾ | 재학 ³⁾ | 비재학 미취업 |
|---------------------------|------------|------------------|------------------|---------|
| 전체(n=1,736) ¹⁾ | | 22.6 | 23.5 | 53.9 |
| 성별 | 남성 | 22.5 | 26.1 | 51.4 |
| | 여성 | 22.8 | 20.5 | 56.7 |
| 연령 | 19-24세 | 17.5 | 39.0 | 43.5 |
| | 25-29세 | 25.7 | 18.0 | 56.3 |
| | 30-34세 | 27.3 | 7.5 | 65.2 |
| | 35-36세 | 15.1 | 1.4 | 83.4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9.4 | 35.0 | 45.6 |
| | 전문대 졸업 | 28.9 | 3.0 | 68.1 |
| | 대학교 졸업 | 25.6 | 13.2 | 61.3 |
| | 대학원 졸업 | 23.7 | 10.6 | 65.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4.7 | 24.0 | 51.3 |
| | 무자녀 부부가구 | 18.1 | 11.8 | 70.1 |
| | 유자녀 부부가구 | 11.6 | 3.6 | 84.8 |
| | 부모동거 가구 | 21.7 | 26.0 | 52.3 |
| | 기타 가구 | 31.1 | 19.2 | 49.7 |

주: 1) 취업자를 제외하고, 1,785명 분석

2) 실업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경우임

3) 실업상태이면서 재학 상태인 경우는 재학 상태로 분류함

- [표 4-4-40]는 미취업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현황을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미취업자 중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경우는 30.7%,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는 69.3%이었음
 - 미취업자 중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는 22.6%, 직장을 구해보았으나,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할 수 없었던 경우는 8.1%이었음
 - 미취업자 중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32.4%,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응답자는 36.9%이었음
- 성별에 따라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29.8%, 여성은 31.8%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음
-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34세에서 37.2%로 가장 높았고, 19-24세에서 24.5%로 가장 낮았음
- 학력별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 졸업이 35.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7.3%로 가장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기타 가구가 39.5%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가 18.9%로 가장 낮았음

[표 4-4-40] 지난 4주간 구직활동

[단위: %]

| 구분 | | 직장을 구해보았음 | | | 직장을 구해보지 않음 | | |
|---------------------------|------------|-----------|----------------------------------|--|-------------|---|--|
| | | 전체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다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전체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 전체(n=1,736) ¹⁾ | | 30.7 | 22.6 | 8.1 | 69.3 | 32.4 | 36.9 |
| 성별 | 남성 | 29.8 | 22.5 | 7.3 | 70.2 | 34.1 | 36.1 |
| | 여성 | 31.8 | 22.8 | 9.0 | 68.2 | 30.5 | 37.8 |
| 연령 | 19-24세 | 24.5 | 17.5 | 7.0 | 75.5 | 34.2 | 41.3 |
| | 25-29세 | 33.8 | 25.7 | 8.1 | 66.2 | 32.0 | 34.2 |
| | 30-34세 | 37.2 | 27.3 | 9.9 | 62.8 | 31.3 | 31.5 |
| | 35-36세 | 26.0 | 15.1 | 10.8 | 74.0 | 17.8 | 56.2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7.3 | 19.4 | 7.9 | 72.7 | 32.7 | 40.0 |
| | 전문대 졸업 | 34.3 | 28.9 | 5.4 | 65.7 | 37.0 | 28.7 |
| | 대학교 졸업 | 34.6 | 25.6 | 9.0 | 65.4 | 30.9 | 34.5 |
| | 대학원 졸업 | 35.9 | 23.7 | 12.2 | 64.1 | 26.2 | 37.9 |

[단위: %]

| 구분 | | 직장을 구해보았음 | | | 직장을 구해보지 않음 | | |
|-------|----------|-----------|----------------------------------|--|-------------|---|--|
| | | 전체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다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전체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4.1 | 24.7 | 9.4 | 65.9 | 30.1 | 35.8 |
| | 무자녀 부부가구 | 33.4 | 18.1 | 15.2 | 66.6 | 38.6 | 28.1 |
| | 유자녀 부부가구 | 18.9 | 11.6 | 7.3 | 81.1 | 13.1 | 68.0 |
| | 부모동거 가구 | 28.8 | 21.7 | 7.0 | 71.2 | 35.1 | 36.1 |
| | 기타 가구 | 39.5 | 31.1 | 8.4 | 60.5 | 29.3 | 31.2 |

주: 1) 미취업자 1,736명을 분석함

- [표 4-4-41]은 미취업자 중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교(정규교육기관)가 35.3%로 가장 높았고, 학원 및 직업훈련 기관 13.2%, 당분간 쉬고 싶어서 11.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성(40.4%)과 여성(29.9%) 모두 학교가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육아라고 응답한 경우가 13.7%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육아나 가사일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가 높았고,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48.5%)와 대학교 졸업(22.2%)은 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졸업은 학원 및 직업훈련 기관이 21.2%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졸업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창업 준비가 22.4%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37.4%), 부모동거 가구(40.6%), 기타 가구(28.6%)는 학교가 가장 높았으나, 무자녀 부부가구는 당분간 쉬고 싶어서가 20.8%, 유자녀 부부가구는 육아가 79.0%로 가장 높았음

[표 4-4-41]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단위: %]

| 구분 | | 학교 (정규 교육 기관) | 학원 및 직업훈련 기관 |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 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창업 준비 | 육아 | 가사일 | 건강 문제 | 당분간 쉬고 싶어서 | 기타 |
|-------------------------|------------|------------------------|--------------------|--------------------------|--------------------------------|------|------|----------|------------------|------|
| 전체(n=781) ¹⁾ | | 35.3 | 13.2 | 3.6 | 11.2 | 7.1 | 1.5 | 8.3 | 11.7 | 8.1 |
| 성별 | 남성 | 40.4 | 15.0 | 4.0 | 11.3 | 0.8 | 1.1 | 7.4 | 12.0 | 8.0 |
| | 여성 | 29.9 | 11.2 | 3.1 | 11.1 | 13.7 | 2.1 | 9.2 | 11.3 | 8.3 |
| 연령 | 19-24세 | 54.0 | 11.8 | 4.2 | 6.3 | 0.5 | 0.0 | 6.6 | 9.7 | 6.8 |
| | 25-29세 | 31.7 | 16.4 | 2.5 | 17.1 | 2.2 | 2.3 | 6.2 | 13.9 | 7.6 |
| | 30-34세 | 8.8 | 12.0 | 3.9 | 11.1 | 22.0 | 2.6 | 14.7 | 12.4 | 12.4 |
| | 35-36세 | 2.1 | 4.4 | 3.7 | 12.3 | 46.6 | 6.8 | 11.0 | 9.1 | 3.8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8.5 | 11.6 | 3.9 | 7.6 | 2.7 | 0.5 | 7.3 | 10.7 | 7.2 |
| | 전문대 졸업 | 5.9 | 21.2 | 3.6 | 13.5 | 16.2 | 6.0 | 14.1 | 12.5 | 7.0 |
| | 대학교 졸업 | 22.2 | 12.8 | 3.3 | 15.6 | 12.2 | 2.4 | 8.6 | 13.7 | 9.2 |
| | 대학원 졸업 | 15.2 | 21.3 | 0.0 | 22.4 | 9.6 | 0.0 | 6.8 | 8.1 | 16.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7.4 | 17.0 | 2.4 | 13.8 | 0.0 | 0.0 | 8.3 | 15.2 | 6.0 |
| | 무자녀 부부가구 | 15.8 | 14.8 | 2.5 | 3.9 | 7.4 | 19.8 | 11.0 | 20.8 | 4.1 |
| | 유자녀 부부가구 | 2.9 | 1.8 | 0.0 | 1.9 | 79.0 | 1.5 | 8.2 | 1.4 | 3.3 |
| | 부모동거 가구 | 40.6 | 12.6 | 4.9 | 11.5 | 1.1 | 1.0 | 7.8 | 10.5 | 9.9 |
| | 기타 가구 | 28.6 | 13.2 | 1.9 | 10.6 | 5.1 | 4.4 | 11.5 | 13.6 | 11.0 |

주: 1) 미취업자 1,736명 중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답한 781명을 분석함

- [표 4-4-42]는 미취업자의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1순위)를 성, 연령, 최종학력,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미취업자의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기타 제외)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가 24.4%로 가장 높았고, '취업 또는 창업 준비' 14.4%,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12.7%,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9.6%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기타 제외)로는 남성(27.7%)과 여성(20.6%)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가 가장 높았음. 또한 남성에서는 '육아 또는 가사일 때문에'가 1.0%로 가장 낮았으나, 여성은 11.0%로 비교적 높았음
- 연령별(기타 제외)로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19-24세, 25-29세, 30-34세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나, 35-36세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가 23.0%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기타 제외)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가 35.2%로 가장 높았고, 그 이상 학력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가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26.4%), 부모동거 가구(26.3%), 기타 가구(21.3%)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가 가장 높았으나, 무자녀 부부가구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19.3%), 유자녀 부부가구는 '육아 또는 가사일'(80.6%)이 가장 높았음

[표 4-4-42]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1순위)

[단위: %]

| 구분 |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 시간적 여유를 즐기 위해서 | 육아 또는 가사일 때문에 |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 진학 준비 ²⁾ | 취업 또는 창업 준비 ³⁾ | 기타 ⁴⁾ |
|---------------------------|---------------|----------------|----------------|---------------|-------------|---------------------|---------------------------|------------------|
| 전체(n=1,203) ¹⁾ | 5.3 | 12.7 | 9.6 | 5.6 | 24.4 | 6.2 | 14.4 | 22.0 |
| 성별 | | | | | | | | |
| 남성 | 7.2 | 13.0 | 9.2 | 1.0 | 27.7 | 6.8 | 14.6 | 20.5 |
| 여성 | 3.0 | 12.2 | 10.0 | 11.0 | 20.6 | 5.4 | 14.1 | 23.7 |
| 연령 | | | | | | | | |
| 19-24세 | 4.8 | 15.9 | 8.2 | 0.4 | 36.9 | 9.1 | 9.2 | 15.5 |
| 25-29세 | 5.7 | 11.4 | 9.7 | 2.6 | 20.6 | 5.2 | 20.7 | 24.2 |
| 30-34세 | 6.1 | 7.6 | 12.6 | 16.9 | 7.6 | 2.2 | 15.2 | 31.7 |
| 35-36세 | 0.0 | 16.7 | 6.4 | 45.5 | 1.9 | 0.0 | 8.3 | 21.1 |
| 최종 학력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7 | 14.9 | 7.4 | 2.5 | 35.2 | 7.3 | 9.3 | 18.6 |
| 전문대 졸업 | 8.0 | 11.1 | 15.4 | 12.3 | 2.2 | 4.5 | 18.1 | 28.4 |
| 대학교 졸업 | 5.8 | 9.7 | 11.0 | 8.3 | 14.8 | 4.1 | 21.7 | 24.8 |
| 대학원 졸업 | 0.0 | 7.1 | 14.0 | 10.3 | 3.7 | 11.3 | 20.8 | 32.6 |
| 가구 유형 | | | | | | | | |
| 1인가구 | 5.7 | 12.0 | 14.1 | 0.0 | 26.4 | 5.2 | 17.1 | 19.4 |
| 무자녀 부부가구 | 8.6 | 9.9 | 12.6 | 12.4 | 12.1 | 1.6 | 19.3 | 23.5 |
| 유자녀 부부가구 | 1.7 | 2.8 | 5.6 | 80.6 | 4.4 | 0.0 | 0.0 | 4.8 |
| 부모동거 가구 | 5.4 | 14.1 | 7.6 | 1.1 | 26.3 | 7.7 | 13.6 | 24.1 |
| 기타 가구 | 2.9 | 11.5 | 9.7 | 4.9 | 21.3 | 3.0 | 19.3 | 27.4 |

주: 1) 미취업자 1,736명 중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은 1,203명을 대상으로 분석

2)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포함

3)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준비 중이어서" 포함

4) "여행,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군입대 대기중", "학교와 학원 입학 또는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기타" 포함

- [표 4-4-43]은 미취업자의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1순위, 2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가 24.4%로 가장 높았고,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가 12.7%, '시간적 여유를 즐기 위해서' 9.6%,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8.4%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는 '시간적 여유를 즐기 위해서'가 16.2%로 가장 높았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2.9%,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9.5%,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8.3%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4-4-43]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 1순위(n=1,203) ¹⁾ | 2순위(n=761) ²⁾ |
|--------------------------------|----------------------------|--------------------------|
|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24.4 | 9.5 |
|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 12.7 | 8.3 |
|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 9.6 | 16.2 |
|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 8.4 | 6.0 |
|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 5.9 | 3.9 |
|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 5.6 | 1.6 |
|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5.4 | 12.9 |
|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5.3 | 6.5 |
| 기타 | 4.3 | 5.1 |
|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 3.5 | 5.7 |
|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 3.1 | 2.7 |
|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 3.1 | 3.2 |
|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 2.9 | 4.3 |
|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 2.0 | 3.3 |
|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 1.9 | 3.4 |
|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1.2 | 5.3 |
|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 0.7 | 2.2 |

주: 1) 미취업자 1,736명 중 일자리 구해보지 않은 1,2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일자리 구해보지 않은 미취업자 1,203명 중 2순위 응답자 7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4-44]는 미취업 청년이 생각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요인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35.8%, 개인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64.2%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33.2%)보다 여성(38.8%)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34세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24세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개인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을 분석

한 결과 1인가구에서 37.9%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사유는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65.9%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실업자에서 45.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재학생에서 69.4%로 가장 높았음

[표 4-4-44]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

[단위: %]

| 구분 | | | 사회 전반적 문제 | 개인적 사유 |
|---------------------------|------------|---------|-----------|--------|
| 전체(n=1,736) ¹⁾ | | | 35.8 | 64.2 |
| 성별 | 남성 | | 33.2 | 66.8 |
| | 여성 | | 38.8 | 61.2 |
| 연령 | 19-24세 | | 31.1 | 68.9 |
| | 25-29세 | | 37.4 | 62.6 |
| | 30-34세 | | 41.1 | 58.9 |
| | 35-36세 | | 39.9 | 60.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1.2 | 68.8 |
| | 전문대 졸업 | | 32.8 | 67.2 |
| | 대학교 졸업 | | 43.6 | 56.4 |
| | 대학원 졸업 | | 44.9 | 55.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7.9 | 62.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6.7 | 63.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4.1 | 65.9 |
| | 부모동거 가구 | | 34.7 | 65.3 |
| | 기타 가구 | | 37.1 | 62.9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실업 | 45.4 | 54.6 |
| | 비경제활동 | 재학 | 30.6 | 69.4 |
| | | 비재학 미취업 | 34.1 | 65.9 |

주: 1) 미취업자 1,736명을 분석함

(2) 구직활동

- [표 4-4-45]는 미취업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은 48.2%이며, 구직활동 및 창업준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8.2%로 동일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은 여성(51.1%)이 남성(45.7%)보다 더 많았지만, 창업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은 남성(9.7%)이 여성(7.6%)보다 더 많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에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의 비율이 59.0%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의 비율은 35-36세에서 15.1%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에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61.4%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에서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2%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7%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2%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구직활동 경험(79.0%)과 창업 준비 경험(12.6%) 모두 실업자가 가장 많았음

[표 4-4-45]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 경험

| 구분 | | 구직활동 경험 있음 | 창업 준비 경험 있음 | 구직활동/창업준비 경험 없음 |
|---------------------------|------------|---------------|----------------|--------------------|
| 전체(n=1,736) ¹⁾ | | 48.2 | 8.7 | 48.2 |
| 성별 | 남성 | 45.7 | 9.7 | 49.8 |
| | 여성 | 51.1 | 7.6 | 46.3 |
| 연령 | 19-24세 | 33.0 | 4.7 | 65.6 |
| | 25-29세 | 59.0 | 9.2 | 37.4 |
| | 30-34세 | 57.0 | 14.4 | 35.2 |
| | 35-36세 | 51.5 | 15.1 | 49.4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7.4 | 8.4 | 58.7 |
| | 전문대 졸업 | 58.4 | 9.5 | 39.9 |
| | 대학교 졸업 | 61.4 | 8.8 | 35.2 |
| | 대학원 졸업 | 58.6 | 11.2 | 34.4 |

[단위: %]

| 구분 | | | 구직활동 경험 있음 | 창업 준비 경험 있음 | 구직활동/창업준비 경험 없음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53.5 | 9.1 | 42.7 |
| | 무자녀 부부가구 | | 57.7 | 11.6 | 38.5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8.9 | 18.2 | 52.0 |
| | 부모동거 가구 | | 45.2 | 7.3 | 51.7 |
| | 기타 가구 | | 52.3 | 11.0 | 44.6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실업 | 79.0 | 12.6 | 16.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7.4 | 5.1 | 70.8 |
| | | 비재학 미취업 | 44.4 | 8.7 | 51.8 |

주: 1) 미취업자 1,736명을 분석함

- [표 4-4-46]은 미취업자의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것임
- 앞으로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이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이었음
- 성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여성(78.6%)이 남성(75.9%)보다 더 많았음
- 연령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을 분석한 결과, 25-29세에서 구직 또는 창업 의향이 있는 경우가 78.1%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 졸업이 84.3%로 가장 많았음
- 가구 유형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79.9%)가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89.2%)가 가장 많았음

[표 4-4-46] 향후 구직 또는 창업 활동 의향

[단위: %]

| 구분 |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 전체(n=1,736) ¹⁾ | | | 77.2 | 7.2 | 15.7 |
| 성별 | 남성 | | 75.9 | 8.6 | 15.5 |
| | 여성 | | 78.6 | 5.5 | 15.9 |
| 연령 | 19-24세 | | 76.7 | 5.3 | 18.0 |
| | 25-29세 | | 78.1 | 8.5 | 13.3 |
| | 30-34세 | | 77.8 | 8.1 | 14.1 |
| | 35-36세 | | 64.2 | 7.7 | 28.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76.6 | 6.3 | 17.1 |
| | 전문대 졸업 | | 73.0 | 4.8 | 22.2 |
| | 대학교 졸업 | | 79.0 | 9.2 | 11.8 |
| | 대학원 졸업 | | 84.3 | 8.6 | 7.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79.9 | 7.8 | 12.3 |
| | 무자녀 부부가구 | | 75.5 | 11.6 | 12.9 |
| | 유자녀 부부가구 | | 78.1 | 7.4 | 14.5 |
| | 부모동거 가구 | | 75.8 | 6.4 | 17.7 |
| | 기타 가구 | | 76.6 | 8.2 | 15.2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실업 | 89.2 | 2.6 | 8.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80.3 | 7.1 | 12.6 |
| | | 비재학 미취업 | 70.8 | 9.1 | 20.2 |

주: 1) 미취업자 1,736명을 분석함

- [표 4-4-47]은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1개월 미만 27.1%, 1년 이상 15.2%, 6개월 이상 1년 미만 14.1%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남성(41.6%)과 여성(45.5%) 모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 구직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에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 구직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구직활동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낮았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문대 졸업에서 49.4%,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대학교 졸업 16.9%, 1년 이상인 경우는 대학원 졸업에서 26.5%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44.3%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과 1년 이상인 경우는 1인가구에서 가장 높았음

[표 4-4-47]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

[단위: %]

| 구 분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
| 전체(n=838) ¹⁾ | | 27.1 | 43.5 | 14.1 | 15.2 |
| 성별 | 남성 | 25.9 | 41.6 | 15.9 | 16.6 |
| | 여성 | 28.5 | 45.5 | 12.2 | 13.8 |
| 연령 | 19~24세 | 37.3 | 42.5 | 13.2 | 6.9 |
| | 25~29세 | 22.9 | 44.1 | 15.8 | 17.2 |
| | 30~34세 | 26.0 | 41.9 | 11.8 | 20.3 |
| | 35~36세 | 5.1 | 62.2 | 17.5 | 15.3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5.4 | 38.1 | 12.8 | 13.7 |
| | 전문대 졸업 | 29.0 | 49.4 | 10.9 | 10.6 |
| | 대학교 졸업 | 19.2 | 46.6 | 16.9 | 17.3 |
| | 대학원 졸업 | 18.0 | 47.3 | 8.1 | 26.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1.2 | 45.2 | 16.8 | 16.9 |
| | 무자녀 부부가구 | 17.5 | 57.8 | 16.5 | 8.2 |
| | 유자녀 부부가구 | 44.3 | 32.5 | 10.0 | 13.2 |
| | 부모동거 가구 | 28.7 | 43.1 | 12.6 | 15.7 |
| | 기타 가구 | 39.5 | 37.0 | 13.9 | 9.6 |

주: 1) 미취업자 1,736명 중 직장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838명에 대해 분석

- [표 4-4-48]은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을 1순위, 2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 온라인(59.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학교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15.7%), 가족·친구·친지(7.8%), 고용복지센터(7.1%) 등 순이었음
-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2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 온라인(32.5%)이 가장 많았고,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15.1%), 가족·친구·친지(14.5%), 학교·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10.7%) 등 순이었음

[표 4-4-48] 구직 방법

[단위: %]

| 구분 | 1순위(n=838) ¹⁾ | 2순위(n=488) ²⁾ |
|--|--------------------------|--------------------------|
|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 59.3 | 32.5 |
|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 15.7 | 10.7 |
|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 | 7.8 | 14.5 |
|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 7.1 | 10.4 |
| 교사, 교수를 통해 | 2.7 | 4.6 |
|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5 | 5.9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2.4 | 15.1 |
| 기타 | 1.0 | 1.4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0.7 | 1.0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0.7 | 3.8 |

주: 1) 미취업자 1,736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838명을 분석함
2)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838명 중 2순위 응답자 488명을 분석함

- [표 4-4-49]는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 마련 목적(63.1%)이 가장 많았고, 자신의 발전(22.7%), 본인 학비 또는 용돈 마련(9.6%),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목적(1.7%) 등 순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57.9%)과 여성(68.4%) 모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자신의 발전과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는 낮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원 졸업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26.6%로 가장 낮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동거 가구에서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5%로 다소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자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재학생에서 높았음

[표 4-4-49]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 | 생활비를 벌기 위해 |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실직 | 본인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 자신의 발전을 위해 |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기타 | |
|-------------------------|------------|------------|------------------|--------------------|------------|-----------------|----------------|-----|-----|
| 전체(n=838) ¹⁾ | | 63.1 | 0.5 | 9.6 | 22.7 | 1.7 | 1.3 | 1.2 | |
| 성별 | 남성 | 57.9 | 0.5 | 9.0 | 27.4 | 2.1 | 1.6 | 1.4 | |
| | 여성 | 68.4 | 0.4 | 10.2 | 17.8 | 1.3 | 0.9 | 1.0 | |
| 연령 | 19-24세 | 48.9 | 0.0 | 20.1 | 25.9 | 1.2 | 2.1 | 1.8 | |
| | 25-29세 | 64.1 | 0.2 | 7.4 | 24.2 | 1.4 | 1.7 | 1.0 | |
| | 30-34세 | 74.5 | 0.9 | 3.5 | 17.4 | 2.8 | 0.0 | 0.9 | |
| | 35-36세 | 77.5 | 5.7 | 0.0 | 16.8 | 0.0 | 0.0 | 0.0 |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4.5 | 0.5 | 14.2 | 26.6 | 0.9 | 2.0 | 1.3 | |
| | 전문대 졸업 | 70.8 | 1.0 | 6.7 | 18.4 | 1.3 | 0.0 | 1.8 | |
| | 대학교 졸업 | 68.1 | 0.3 | 6.6 | 21.1 | 2.0 | 0.9 | 1.0 | |
| | 대학원 졸업 | 73.3 | 0.0 | 2.4 | 12.8 | 8.3 | 3.3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66.1 | 0.6 | 5.0 | 24.2 | 1.4 | 0.8 | 1.8 | |
| | 무자녀 부부가구 | 84.6 | 0.0 | 5.4 | 7.6 | 2.4 | 0.0 | 0.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81.3 | 0.0 | 5.9 | 3.3 | 3.3 | 2.9 | 3.2 | |
| | 부모동거 가구 | 56.9 | 0.5 | 13.5 | 25.2 | 1.5 | 1.7 | 0.7 | |
| | 기타 가구 | 74.3 | 0.0 | 5.8 | 14.9 | 3.2 | 0.0 | 1.7 |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실업 | 67.0 | 0.6 | 6.8 | 22.3 | 1.6 | 1.4 | 0.4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7.0 | 0.0 | 20.0 | 30.4 | 0.9 | 0.8 | 1.0 |
| | | 비재학 미취업 | 64.6 | 0.5 | 8.9 | 20.9 | 2.0 | 1.3 | 1.9 |

주: 1) 미취업자 1,736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838명을 분석함

- [표 4-4-50]은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직기간 비용지원(29.8%)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26.0%),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22.1%),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15.4%),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6.3%) 등 순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26.4%)과 여성(33.6%) 모두 구직기간 동안 비용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것을 분석한 결과, 19-24세에서는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30.9%로 가장 높았지만, 그 외 연령에서는 구직기간 비용지원이 가장 높았음
- 학력에 따라서는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이 28.5%로 가장 높았지만, 그 외 학력에서는 구직기간 비용지원이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34.6%), 부모동거 가구(27.3%), 기타 가구(38.7%)는 구직기간 비용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무자녀 부부가구는 교육·훈련 정보 및 기회제공(24.7%)과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24.7%)를, 유자녀 부부가구는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26.7%)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음

[표 4-4-50] 구직활동 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 구분 | |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 구직기간 비용지원 | 기타 | |
|---------------------------|------------|-----------------|---------------------|----------------------|-----------------------|--------------|------|-----|
| 전체(n=1,736) ¹⁾ | | 6.3 | 15.4 | 22.1 | 26.0 | 29.8 | 0.5 | |
| 성별 | 남성 | 7.3 | 16.1 | 24.5 | 25.1 | 26.4 | 0.5 | |
| | 여성 | 5.0 | 14.6 | 19.3 | 27.1 | 33.6 | 0.4 | |
| 연령 | 19-24세 | 7.0 | 15.8 | 22.7 | 30.9 | 23.3 | 0.3 | |
| | 25-29세 | 6.2 | 15.2 | 20.2 | 23.3 | 34.6 | 0.5 | |
| | 30-34세 | 5.8 | 16.0 | 24.2 | 21.3 | 32.3 | 0.5 | |
| | 35-36세 | 0.0 | 6.8 | 20.9 | 32.3 | 37.2 | 2.7 |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1 | 17.5 | 23.2 | 28.5 | 24.3 | 0.4 | |
| | 전문대 졸업 | 7.6 | 16.8 | 19.3 | 22.8 | 33.1 | 0.4 | |
| | 대학교 졸업 | 6.5 | 11.7 | 20.7 | 23.6 | 36.9 | 0.5 | |
| | 대학원 졸업 | 1.4 | 15.2 | 26.8 | 21.4 | 35.2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1 | 14.2 | 21.7 | 23.9 | 34.6 | 0.4 | |
| | 무자녀 부부가구 | 2.6 | 25.5 | 24.7 | 24.7 | 22.4 | 0.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1.2 | 18.1 | 25.3 | 34.1 | 21.3 | 0.0 | |
| | 부모동거 가구 | 7.7 | 15.6 | 22.1 | 26.7 | 27.3 | 0.6 | |
| | 기타 가구 | 4.2 | 12.8 | 19.4 | 25.0 | 38.7 | 0.0 |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실업 | 4.8 | 18.2 | 19.3 | 24.6 | 32.6 | 0.5 |
| | 비경제활동 | 재학 | 7.9 | 16.1 | 26.1 | 27.5 | 22.3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6.2 | 14.0 | 21.4 | 26.0 | 31.8 | 0.7 |

주: 1) 미취업자 1,7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_경제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 및 특성을 가구 및 개인의 경제 측면에서 확인하고, 가구 및 개인의 소득과 분포, 공적이전수급, 소비, 재산과 부채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음. 분석의 전체 표본은 5,083명이고, 그중 원표본은 3,735명, 신규표본은 1,348명이며 문항별 결측값이 상이함

1) 소득

- [표 4-5-1]은 가구 월소득의 평균액과 중위소득, 분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유형별로 분석한 것임
- 가구 월소득 평균 458만 원, 중위소득 370만 원이었음. 월소득 분포 비율은 100만-300만 원 미만(29.5%), 300만-500만 원 미만(24.2%), 500만-700만(18.2%)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 가구 월소득은 부모동거 가구(584만 원), 무자녀 부부가구(571만 원), 유자녀 부부가구(523만 원) 순으로 높았음. 1인가구보다 부모동거 가구의 소득이 낮은 것은 소위 켄거루족 등 청년 실업, 취업·독립 지연 등의 영향을 보여줌

[표 4-5-1] 가구 월소득

[단위: 만 원, %]

| 구분 | | 금액 | | 분포 ²⁾ | | | | | |
|---------------------------|------------|-----|------|------------------|----------------|----------------|----------------|------------------|-------------|
| | | 평균 | 중위소득 | 100만 원 미만 | 100만-300만 원 미만 | 300만-500만 원 미만 | 500만-700만 원 미만 | 700만-1,0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이상 |
| 전체(n=5,017) ¹⁾ | | 458 | 370 | 7.3 | 29.5 | 24.2 | 18.2 | 11.6 | 9.3 |
| 성별 | 남성 | 454 | 350 | 8.5 | 28.2 | 25.1 | 18.3 | 10.2 | 9.6 |
| | 여성 | 461 | 390 | 6.2 | 30.7 | 23.3 | 18.1 | 12.8 | 9.0 |
| 연령 | 19-24세 | 485 | 400 | 11.8 | 21.8 | 19.6 | 19.4 | 15.2 | 12.3 |
| | 25-29세 | 448 | 330 | 8.1 | 33.4 | 21.6 | 16.0 | 10.9 | 10.0 |
| | 30-34세 | 447 | 360 | 3.5 | 31.7 | 29.2 | 19.1 | 9.7 | 6.7 |
| | 35-36세 | 467 | 400 | 4.2 | 22.1 | 33.4 | 23.4 | 11.0 | 5.8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60 | 400 | 12.0 | 25.1 | 21.4 | 18.0 | 12.4 | 11.1 |
| | 전문대 졸업 | 438 | 350 | 4.0 | 35.1 | 23.3 | 20.0 | 10.5 | 7.0 |
| | 대학교 졸업 | 457 | 360 | 5.1 | 31.2 | 26.2 | 18.0 | 11.1 | 8.4 |
| | 대학원 졸업 | 499 | 400 | 3.1 | 29.6 | 26.9 | 16.8 | 12.8 | 10.8 |

| 구분 | | 금액 | | 분포 ²⁾ | | | | | |
|----------------|-----------|---------|----------|------------------|--------------------------|--------------------------|--------------------------|-----------------------------|--------------------|
| | | 평균 | 중위 소득 | 100만 원 미만 | 100만- 300만 원 미만 | 300만- 500만 원 미만 | 500만- 700만 원 미만 | 700만- 1,000 만 원 미만 | 1,000 만 원 이상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64 | 230 | 15.0 | 53.9 | 22.5 | 4.4 | 2.3 | 1.9 |
| | 무자녀 부부가구 | 571 | 500 | 1.7 | 16.3 | 28.2 | 26.4 | 17.9 | 9.5 |
| | 유자녀 부부가구 | 523 | 500 | 1.0 | 14.5 | 34.1 | 28.9 | 13.8 | 7.7 |
| | 부모동거 가구 | 584 | 500 | 3.4 | 14.6 | 22.9 | 25.9 | 18.1 | 15.2 |
| | 기타 가구 | 400 | 348 | 6.0 | 33.9 | 30.2 | 18.4 | 5.5 | 6.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75 | 380 | 3.9 | 31.0 | 25.4 | 18.0 | 12.2 |
| | | 실업 | 375 | 300 | 15.0 | 32.3 | 21.1 | 16.6 | 9.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88 | 400 | 15.5 | 17.2 | 21.5 | 18.4 | 15.3 |
| | | 비재학 미취업 | 416 | 330 | 12.7 | 28.4 | 22.3 | 19.4 | 8.6 |

주: 1) 전체 응답자 5,083명 중 결측값 66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2) 가구원 수별 균등화한 금액이 아닌, 단순 가구별 월소득 총액 값임

- [표 4-5-2]는 본인 월소득의 평균액과 중위소득, 분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유형별로 분석한 것임
- 본인 월소득 평균은 197만 원, 중위소득은 200만 원이었음. 소득 분포 비율은 200만 -300만 원 미만(30.3%), 100만-200만 원 미만(18.2%), 50만 원 미만(18.1%)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199만 원)의 월소득이 여성(195만 원)보다 높았음
- 월소득은 연령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보면, 기혼자(무자녀 부부가구+유자녀 부부가구)의 월소득이 미혼 청년보다 높았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월소득은 평균 155만 원이었음
- 취업 중인 청년은 월평균 241만 원, 실업 138만 원, 비재학 미취업 113만 원, 재학 76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

[표 4-5-2] 본인 월소득

[단위: 만 원, %]

| 구분 | | 금액 | | 분포 | | | | | |
|---------------------------|------------|---------|----------|----------------|-------------------------|--------------------------|--------------------------|--------------------------|-----------------|
| | | 평균 | 중위 소득 | 50만 원 미만 | 50만- 100만 원 미만 | 100만- 200만 원 미만 | 200만- 300만 원 미만 | 300만- 400만 원 미만 | 400만 원 이상 |
| 전체(n=4,977) ¹⁾ | | 197 | 200 | 18.1 | 12.0 | 18.2 | 30.3 | 13.6 | 7.6 |
| 성별 | 남성 | 199 | 200 | 20.2 | 11.4 | 17.5 | 27.3 | 14.3 | 9.2 |
| | 여성 | 195 | 200 | 16.2 | 12.5 | 19.0 | 33.2 | 13.0 | 6.1 |
| 연령 | 19-24세 | 97 | 67 | 35.3 | 26.2 | 23.4 | 11.2 | 2.5 | 1.4 |
| | 25-29세 | 189 | 200 | 16.8 | 11.0 | 21.0 | 34.8 | 12.0 | 4.5 |
| | 30-34세 | 267 | 252 | 8.4 | 3.5 | 12.4 | 39.3 | 22.4 | 14.1 |
| | 35-36세 | 295 | 276 | 7.3 | 5.9 | 10.0 | 31.5 | 24.3 | 20.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29 | 90.0 | 29.8 | 22.1 | 21.9 | 17.7 | 5.6 | 2.8 |
| | 전문대 졸업 | 209 | 210 | 12.3 | 6.8 | 22.5 | 41.4 | 11.4 | 5.7 |
| | 대학교 졸업 | 235 | 230 | 12.2 | 6.7 | 15.0 | 36.3 | 19.1 | 10.6 |
| | 대학원 졸업 | 276 | 273 | 8.0 | 3.9 | 11.7 | 34.4 | 24.2 | 17.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20 | 220 | 10.3 | 9.5 | 19.4 | 36.1 | 17.0 | 7.7 |
| | 무자녀 부부가구 | 322 | 280 | 5.3 | 1.8 | 10.6 | 37.0 | 21.9 | 23.2 |
| | 유자녀 부부가구 | 262 | 260 | 17.7 | 3.5 | 10.4 | 29.5 | 19.7 | 19.2 |
| | 부모동거 가구 | 155 | 136 | 26.1 | 16.3 | 18.6 | 25.0 | 9.7 | 4.3 |
| | 기타 가구 | 199 | 200 | 14.4 | 11.0 | 22.6 | 33.2 | 12.0 | 6.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41 | 230 | 7.4 | 8.7 | 17.7 | 37.7 | 18.3 |
| | | 실업 | 138 | 100 | 28.1 | 18.9 | 19.8 | 23.7 | 5.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76 | 50 | 46.3 | 23.9 | 21.0 | 4.9 | 2.5 |
| | | 비재학 미취업 | 113 | 70 | 40.4 | 15.7 | 18.4 | 17.9 | 5.1 |

주: 1) 전체 응답자 5,083명 중 결측값 86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5-3]은 본인 월평균 총소득 및 원천별 월평균 소득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것임
- 총소득은 평균 196.8만 원이었고, 근로소득이 164.1만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다음은 사적이전 10.6만 원, 사업소득 7.4만 원 순이었음
-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소득,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 비율이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총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았음

[표 4-5-3] 본인 월평균 총소득과 항목별 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¹⁾ | | 총소득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소득 | | | 가상 자산 소득 | 공적 이전 | 사적 이전 | 기타 | |
|------------------|------------|------------|----------|----------|----------|----------|-----|----------------|----------|----------|------|-----|
| | | | | | 금융 소득 | 임대 소득 | 기타 | | | | | |
| 전체 ²⁾ | | 196.8 | 164.1 | 7.4 | 2.7 | 0.8 | 0.5 | 0.3 | 5.5 | 10.6 | 3.5 | |
| 성별 | 남성 | 198.8 | 164.1 | 7.7 | 3.0 | 1.0 | 0.7 | 0.5 | 4.6 | 10.9 | 4.3 | |
| | 여성 | 194.8 | 164.2 | 7.0 | 2.3 | 0.7 | 0.3 | 0.1 | 6.3 | 10.3 | 2.7 | |
| 연령 | 19-24세 | 97.1 | 69.7 | 2.3 | 1.2 | 0.1 | 0.6 | 0.1 | 4.5 | 16.6 | 1.7 | |
| | 25-29세 | 188.5 | 157.5 | 5.7 | 1.9 | 0.3 | 0.5 | 0.2 | 5.3 | 12.0 | 3.6 | |
| | 30-34세 | 266.8 | 231.7 | 11.4 | 4.2 | 1.6 | 0.4 | 0.5 | 6.1 | 5.1 | 4.9 | |
| | 35-36세 | 294.9 | 245.2 | 21.2 | 6.0 | 3.9 | 0.8 | 0.9 | 8.7 | 5.8 | 1.2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29.1 | 93.4 | 6.2 | 1.7 | 0.4 | 0.5 | 0.2 | 4.9 | 15.8 | 4.4 | |
| | 전문대 졸업 | 209.1 | 172.8 | 13.6 | 1.7 | 0.9 | 1.3 | 0.2 | 7.3 | 7.6 | 2.2 | |
| | 대학교 졸업 | 235.1 | 206.8 | 6.4 | 3.5 | 1.2 | 0.2 | 0.4 | 5.5 | 7.6 | 2.9 | |
| | 대학원 졸업 | 276.1 | 244.3 | 8.0 | 3.8 | 0.4 | 0.6 | 0.2 | 4.4 | 8.5 | 5.5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20.5 | 189.4 | 5.7 | 2.4 | 0.5 | 0.5 | 0.1 | 5.2 | 11.8 | 3.0 | |
| | 무자녀 부부가구 | 322.2 | 264.9 | 16.7 | 4.7 | 3.3 | 0.3 | 0.9 | 5.2 | 8.4 | 17.8 | |
| | 유자녀 부부가구 | 261.7 | 214.6 | 14.0 | 3.8 | 1.8 | 0.4 | 0.2 | 17.5 | 6.8 | 0.8 | |
| | 부모동거 가구 | 155.4 | 127.5 | 5.9 | 2.6 | 0.7 | 0.6 | 0.4 | 4.2 | 10.2 | 2.4 | |
| | 기타 가구 | 198.7 | 161.8 | 12.2 | 2.1 | 0.3 | 0.0 | 0.0 | 7.2 | 11.9 | 2.1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41.3 | 209.0 | 9.8 | 3.1 | 1.1 | 0.6 | 0.4 | 5.2 | 7.4 | 3.7 |
| | | 실업 | 137.6 | 103.8 | 5.1 | 1.6 | 0.3 | 0.2 | 0.1 | 10.5 | 11.9 | 2.0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76.3 | 43.2 | 0.8 | 1.6 | 0.4 | 0.5 | 0.1 | 1.3 | 21.8 | 6.0 |
| | | 비재학 미취업 | 113.4 | 81.8 | 2.6 | 1.9 | 0.2 | 0.3 | 0.1 | 6.2 | 16.6 | 2.0 |

주: 1) 항목별 결측값이 상이하여 셀별 전체 표본이 다름. 항목별 표본은 총소득 4,997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상자산소득, 기타 5,083명, 공적이전 5,009명, 사적이전 5,071명임

2) 공적이전소득은 응답자 본인이 받았다고 응답한 금액이며, 가구 단위 지급 정책이더라도 가구 내에서 개인이 직접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 [표 4-5-4]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것임
-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은 2.8%임
- 성별로는 남성 3.0%, 여성 2.5%로 남성 수급률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9-24세 수급률이 4.3%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4.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 가구 수급률이 3.5%, 부모동거 가구가 2.9%, 유자

녀 부부가구와 1인가구는 각각 2.8%임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4.3%), 비재학 미취업(4.2%), 취업(2.3%) 순으로 높았음

[표 4-5-4]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단위: %]

| 구분 | | | 수급 | 비수급 |
|-------------|------------|---------|-----|------|
| 전체(n=5,083) | | | 2.8 | 97.2 |
| 성별 | 남성 | | 3.0 | 97.0 |
| | 여성 | | 2.5 | 97.5 |
| 연령 | 19-24세 | | 4.3 | 95.7 |
| | 25-29세 | | 2.7 | 97.3 |
| | 30-34세 | | 1.8 | 98.2 |
| | 35-36세 | | 1.9 | 98.1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7 | 96.6 |
| | 전문대 졸업 | | 2.5 | 98.2 |
| | 대학교 졸업 | | 1.5 | 95.3 |
| | 대학원 졸업 | | 1.9 | 97.5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2.8 | 97.2 |
| | 무자녀 부부가구 | | 0.9 | 99.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8 | 97.2 |
| | 부모동거 가구 | | 2.9 | 97.1 |
| | 기타 가구 | | 3.5 | 96.5 |
| 경제활동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3 | 97.1 |
| | | 실업 | 4.3 | 97.0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6 | 97.7 |
| | | 비재학 미취업 | 4.2 | 95.7 |

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응답자 본인이 받았다고 응답한 여부이며, 개인이 직접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 [표 4-5-5]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여부, 수령금액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것임
- 근로장려금 수급률이 13.1%, 자녀장려금은 0.6%이며, 근로장려금의 평균 수급액은 85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이 83만 원임
- 연령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20대의 수급률이, 자녀장려금은 30대 특히 35-36세 수급률이 높았음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기타 가구가 23.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1인가구(19.3%), 부모동거 가구(8.6%) 순이었음

[표 4-5-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률, 수령금액

[단위: 만 원, %]

| 구분 ³⁾ | | | 근로장려금 | | | 자녀장려금 | | |
|------------------|------------|---------|-------|------|------------------|-------|-----|------------------|
| | | | 받지 않음 | 받음 | 금액 ¹⁾ | 받지 않음 | 받음 | 금액 ²⁾ |
| 전체(n=5,083) | | | 86.9 | 13.1 | 85 | 99.4 | 0.6 | 83 |
| 성별 | 남성 | | 86.3 | 13.7 | 84 | 99.4 | 0.6 | 72 |
| | 여성 | | 87.5 | 12.5 | 85 | 99.4 | 0.6 | 93 |
| 연령 | 19-24세 | | 86.5 | 13.5 | 82 | 99.8 | 0.2 | 84 |
| | 25-29세 | | 82.7 | 17.3 | 87 | 99.8 | 0.2 | 79 |
| | 30-34세 | | 91.6 | 8.4 | 83 | 99.0 | 1.0 | 93 |
| | 35-36세 | | 90.7 | 9.3 | 69 | 96.3 | 3.7 | 6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85.8 | 14.2 | 84 | 99.3 | 0.7 | 85 |
| | 전문대 졸업 | | 85.0 | 15.0 | 85 | 99.4 | 0.6 | 69 |
| | 대학교 졸업 | | 88.3 | 11.7 | 84 | 99.5 | 0.5 | 84 |
| | 대학원 졸업 | | 88.2 | 11.8 | 90 | 98.7 | 1.3 | 7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80.7 | 19.3 | 83 | 100.0 | 0.0 | 5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93.1 | 6.9 | 109 | 100.0 | - | - |
| | 유자녀 부부가구 | | 93.6 | 6.4 | 95 | 90.2 | 9.8 | 82 |
| | 부모동거 가구 | | 91.4 | 8.6 | 83 | 99.9 | 0.1 | 70 |
| | 기타 가구 | | 76.6 | 23.4 | 87 | 99.1 | 0.9 | 111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86.7 | 13.3 | 84 | 99.3 | 0.7 | 76 |
| | | 실업 | 81.2 | 18.8 | 87 | 99.8 | 0.2 | 55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92.1 | 7.9 | 85 | 100.0 | - | - |
| | | 비재학 미취업 | 88.0 | 12.0 | 85 | 99.2 | 0.8 | 110 |

주: 1) 전체 응답자 5,083명 중 근로장려금 받은 적이 있는 665명을 분석함
2) 전체 응답자 5,083명 중 자녀장려금 받은 적이 있는 32명을 분석함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응답자 본인이 받았다고 응답한 여부이며, 배우자가 받았는지 청년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2) 소비

- [표 4-5-6]은 월 생활비의 평균액과 중위수, 분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개인 월평균 생활비는 105만 원이며, 분포 비율은 50만-100만 원 미만(30.4%), 100만-150만 원 미만(24.3%), 50만 원 미만(17.9%)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 생활비를 보면, 유자녀 부부가구의 생활비가 월평균 15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동거 가구 청년의 생활비가 82만 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 4-5-6] 개인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 원, %]

| 구분 | | 금액 | | 분포 | | | | | |
|---------------------------|------------|---------|-----|----------|---------------|----------------|----------------|----------------|-----------|
| | | 평균 | 중위수 | 50만 원 미만 | 50만-100만 원 미만 | 100만-150만 원 미만 | 150만-200만 원 미만 | 200만-3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이상 |
| 전체(n=5,076) ¹⁾ | | 105 | 100 | 17.9 | 30.4 | 24.3 | 13.1 | 11.3 | 3.0 |
| 성별 | 남성 | 103 | 85 | 19.9 | 31.6 | 23.2 | 11.9 | 9.8 | 3.6 |
| | 여성 | 108 | 100 | 16.0 | 29.2 | 25.3 | 14.3 | 12.7 | 2.5 |
| 연령 | 19-24세 | 70 | 55 | 33.0 | 40.9 | 17.8 | 4.6 | 3.0 | 0.8 |
| | 25-29세 | 99 | 100 | 16.5 | 32.9 | 27.4 | 12.9 | 8.9 | 1.4 |
| | 30-34세 | 134 | 120 | 9.1 | 20.9 | 26.1 | 19.1 | 18.9 | 5.9 |
| | 35-36세 | 143 | 120 | 11.4 | 21.3 | 19.7 | 18.6 | 20.7 | 8.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3 | 60 | 27.8 | 36.9 | 19.5 | 8.1 | 6.3 | 1.4 |
| | 전문대 졸업 | 107 | 100 | 14.1 | 30.7 | 25.5 | 15.2 | 12.5 | 1.9 |
| | 대학교 졸업 | 118 | 100 | 12.5 | 26.5 | 27.1 | 16.0 | 13.9 | 4.0 |
| | 대학원 졸업 | 142 | 120 | 8.5 | 19.8 | 27.8 | 16.8 | 18.1 | 9.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23 | 100 | 6.4 | 26.3 | 32.0 | 18.1 | 14.4 | 3.0 |
| | 무자녀 부부가구 | 144 | 120 | 5.7 | 22.4 | 23.6 | 16.9 | 24.8 | 6.6 |
| | 유자녀 부부가구 | 155 | 150 | 18.0 | 16.1 | 15.0 | 15.5 | 20.6 | 14.8 |
| | 부모동거 가구 | 82 | 60 | 28.7 | 35.3 | 19.6 | 8.5 | 6.4 | 1.5 |
| | 기타 가구 | 106 | 100 | 11.8 | 34.6 | 25.7 | 15.4 | 10.3 | 2.2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18 | 100 | 11.4 | 28.4 | 26.6 | 15.6 | 13.9 |
| | | 실업 | 87 | 70 | 24.5 | 35.8 | 19.9 | 11.0 | 7.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68 | 55 | 33.7 | 42.3 | 17.1 | 3.9 | 1.9 |
| | | 비재학 미취업 | 82 | 70 | 31.6 | 29.9 | 20.7 | 9.2 | 7.4 |

주: 1) 전체 응답자 5,083명 중 결측값 7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5-7]은 생활비 항목별 지출 비중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생활비 항목별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 38.6%이며, 주거

13.4%, 의류/잡화 11.0% 순으로 높았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서 주거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19-24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의류/잡화, 문화·여가 지출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가구유형별 생활비 항목 지출 비중 또한 식비, 주거비, 의류/잡화비 지출 비중이 대체로 높았으나,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출 비중이 14.4%로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는 주거비 지출 비율이 낮은 대신, 교통, 문화·여가 지출 비율이 높았음

[표 4-5-7] 본인 생활비 항목별 지출 비중

[단위: %]

| 구분 | | 생활비 지출 항목 | | | | | | | | |
|-------------|------------|-----------|------|-------|------|-----|-----|------|-----|-------|
| | | 식비 | 주거 | 의류/잡화 | 교통 | 통신 | 교육 | 양육 | 의료 | 문화·여가 |
| 전체(n=5,083) | | 38.6 | 13.4 | 11.0 | 8.3 | 5.5 | 4.1 | 1.0 | 3.3 | 9.9 |
| 성별 | 남성 | 38.7 | 13.5 | 9.9 | 8.8 | 6.1 | 3.9 | 0.8 | 2.6 | 10.2 |
| | 여성 | 38.5 | 13.3 | 12.2 | 7.8 | 4.9 | 4.3 | 1.1 | 3.9 | 9.7 |
| 연령 | 19-24세 | 41.2 | 7.4 | 12.6 | 10.0 | 3.9 | 5.3 | 0.3 | 2.5 | 12.9 |
| | 25-29세 | 38.3 | 13.9 | 11.4 | 8.0 | 5.8 | 4.4 | 0.3 | 3.1 | 9.8 |
| | 30-34세 | 37.4 | 16.8 | 9.7 | 7.4 | 6.1 | 2.9 | 1.7 | 3.9 | 8.1 |
| | 35-36세 | 35.1 | 17.4 | 8.9 | 7.7 | 6.4 | 2.9 | 4.4 | 4.5 | 6.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0.0 | 10.1 | 11.4 | 9.3 | 5.1 | 4.8 | 0.7 | 2.5 | 11.6 |
| | 전문대 졸업 | 37.1 | 13.8 | 11.2 | 8.4 | 6.4 | 2.9 | 0.7 | 4.4 | 9.3 |
| | 대학교 졸업 | 38.0 | 15.3 | 10.8 | 7.6 | 5.5 | 3.9 | 1.3 | 3.5 | 9.0 |
| | 대학원 졸업 | 38.0 | 17.2 | 10.5 | 7.7 | 5.5 | 3.5 | 1.0 | 3.8 | 8.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6.5 | 23.0 | 9.4 | 6.5 | 4.9 | 3.1 | 0.1 | 3.0 | 8.5 |
| | 무자녀 부부가구 | 38.8 | 19.0 | 10.0 | 7.4 | 5.8 | 2.0 | 0.2 | 3.7 | 7.2 |
| | 유자녀 부부가구 | 35.3 | 15.1 | 7.8 | 6.5 | 5.9 | 3.2 | 14.4 | 4.2 | 4.2 |
| | 부모동거 가구 | 40.3 | 5.0 | 12.9 | 10.1 | 5.8 | 5.2 | 0.3 | 3.3 | 12.1 |
| | 기타 가구 | 39.8 | 17.0 | 9.8 | 7.2 | 5.1 | 3.7 | 0.2 | 3.6 | 8.4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7.7 | 14.5 | 11.4 | 7.9 | 5.5 | 3.2 | 0.9 | 3.4 |
| | 경제 활동 | 실업 | 38.8 | 13.1 | 9.9 | 9.5 | 5.8 | 4.7 | 0.5 | 3.7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4.7 | 8.3 | 10.9 | 9.8 | 3.5 | 5.9 | 0.2 | 1.9 |
| | 비경제 활동 | 비재학 미취업 | 39.2 | 11.6 | 10.2 | 8.3 | 5.9 | 6.0 | 1.7 | 3.2 |

- [표 4-5-8]은 2021년 1년 동안 생활비 부족 경험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이고, 남성(24.3%)보다는 여성(30.8%)의 부족 경험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 생활비 부족 경험은 기타 가구(38.9%)와 1인가구(36.6%)에서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생활비 부족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실업자 37.7%, 비재학 미취업 28.9%, 취업 27.1% 순으로 높았음

[표 4-5-8] 2021년 1년 동안 생활비 부족 경험

[단위: %]

| 구분 | | | 있다 | 없다 |
|---------------------------|------------|---------|------|------|
| 전체(n=5,083) ¹⁾ | | | 27.7 | 72.3 |
| 성별 | 남성 | | 24.3 | 75.7 |
| | 여성 | | 30.8 | 69.2 |
| 연령 | 19-24세 | | 24.7 | 75.3 |
| | 25-29세 | | 29.1 | 70.9 |
| | 30-34세 | | 28.2 | 71.8 |
| | 35-36세 | | 28.3 | 71.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9.3 | 70.7 |
| | 전문대 졸업 | | 30.4 | 69.6 |
| | 대학교 졸업 | | 26.4 | 73.6 |
| | 대학원 졸업 | | 21.2 | 78.8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36.6 | 63.4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0.7 | 79.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0.7 | 79.3 |
| | 부모동거 가구 | | 21.3 | 78.7 |
| | 기타 가구 | | 38.9 | 61.1 |
| 경제활동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7.1 | 72.9 |
| | | 실업 | 37.7 | 62.3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9.7 | 80.3 |
| | | 비재학 미취업 | 28.9 | 71.1 |

주: 1)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법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분석함

- [표 4-5-9]는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 항목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는 181만 9천 원으로 실제 본인 생활비(105만 3천원)와 76만 6천 원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여성(66만 원)보다 남성(87만 9천 원)이 적정생활비와 실제 생활비의 차이가 더 큼
- 가구유형별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213만 원), 무자녀 부부가구(203만 1천 원), 1인가구(186만 4천 원) 순으로 높았음. 실제 본인 생활비와 1인 적정 생활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부모동거 가구(90만 5천 원), 기타 가구(78만 6천 원), 1인가구(63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실제 생활비와 적정생활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하는 청년보다 비경제활동 청년에게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4-5-9] 1인 적정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 원]

| 구분 | | | 실제 본인 생활비(A) | 1인 적정 생활비(B) | 차이(B-A) |
|------------|------------|---------|--------------|--------------|---------|
| 전체(n5,083) | | | 105.3 | 181.9 | 76.6 |
| 성별 | 남성 | | 102.9 | 190.8 | 87.9 |
| | 여성 | | 107.6 | 173.6 | 66.0 |
| 연령 | 19-24세 | | 69.5 | 152.3 | 82.8 |
| | 25-29세 | | 98.7 | 183.7 | 85.0 |
| | 30-34세 | | 134.5 | 199.8 | 65.3 |
| | 35-36세 | | 143.0 | 199.7 | 56.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82.5 | 173.9 | 91.4 |
| | 전문대 졸업 | | 106.9 | 169.3 | 62.4 |
| | 대학교 졸업 | | 118.0 | 190.2 | 72.2 |
| | 대학원 졸업 | | 141.7 | 195.6 | 53.9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123.3 | 186.4 | 63.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43.7 | 203.1 | 59.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55.2 | 213.0 | 57.8 |
| | 부모동거 가구 | | 81.7 | 172.2 | 90.5 |
| | 기타 가구 | | 105.9 | 184.5 | 78.6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18.3 | 179.5 | 61.2 |
| | | 실업 | 87.3 | 153.5 | 66.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8.4 | 165.5 | 97.1 |
| | | 비재학 미취업 | 82.5 | 210.0 | 127.5 |

3) 자산

(1) 재산

- [표 4-5-10]은 본인 재산(소유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기타자산) 총액 평균 및 분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재산액은 6,440만 원이며,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분포 비율은 1,000만 원 미만(52.6%), 1,000만~5,000만 원 미만(25.7%), 1억~5억 미만(9.2%) 순으로 높았음
- 여성의 재산 평균은 5,972만 원, 남성은 6,933만 원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재산액이 높았고, 학력 또한 고학력일수록 재산액이 높아짐
- 가구 유형별 평균 재산액을 분석한 결과, 부부가구의 재산액이 높았음. 유자녀 부부가구는 24,031만 원, 무자녀 부부가구는 22,085만 원인 반면, 부모동거 가구 3,283만 원, 기타 가구 5,410만 원, 1인가구 5,545만 원으로, 이는 재산 수준이 높은 청년의 결혼 확률이 높은 계층적 혼인행태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4-5-10] 본인 재산 총액 평균 금액 및 분포

[단위: 만 원, %]

| 구분 | | 평균 | 1,000만 원 미만 | 1,000만~5,000만 원 미만 | 5,000만~1억 원 미만 | 1억~5억 원 미만 | 5억~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
| 전체(n=5,083) | | 6,440 | 52.6 | 25.7 | 8.7 | 9.2 | 2.7 | 1.1 |
| 성별 | 남성 | 6,933 | 54.5 | 24.2 | 7.6 | 9.5 | 2.8 | 1.4 |
| | 여성 | 5,972 | 50.7 | 27.2 | 9.8 | 9.0 | 2.6 | 0.8 |
| 연령 | 19~24세 | 1,386 | 75.3 | 20.2 | 2.8 | 1.3 | 0.2 | 0.3 |
| | 25~29세 | 3,379 | 54.2 | 30.6 | 8.8 | 4.9 | 1.3 | 0.2 |
| | 30~34세 | 11,735 | 37.2 | 25.4 | 12.6 | 17.9 | 4.8 | 2.2 |
| | 35~36세 | 21,938 | 24.9 | 18.4 | 12.5 | 26.5 | 13.5 | 4.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425 | 72.4 | 18.7 | 4.2 | 3.7 | 0.8 | 0.3 |
| | 전문대 졸업 | 5,236 | 52.6 | 28.0 | 8.5 | 8.2 | 1.9 | 0.8 |
| | 대학교 졸업 | 9,013 | 39.3 | 30.2 | 12.1 | 13.1 | 3.9 | 1.5 |
| | 대학원 졸업 | 13,744 | 34.8 | 28.9 | 11.2 | 15.3 | 6.6 | 3.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545 | 48.6 | 29.5 | 9.7 | 9.7 | 1.7 | 0.9 |
| | 무자녀 부부가구 | 22,085 | 28.8 | 21.8 | 11.0 | 22.0 | 11.9 | 4.6 |
| | 유자녀 부부가구 | 24,031 | 30.4 | 17.0 | 8.5 | 23.7 | 15.6 | 4.8 |
| | 부모동거 가구 | 3,283 | 60.3 | 24.9 | 7.4 | 6.0 | 1.0 | 0.4 |
| | 기타 가구 | 5,410 | 56.9 | 22.6 | 11.2 | 7.2 | 1.3 | 0.9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7,850 | 45.4 | 28.2 | 10.3 | 11.5 | 3.4 |
| | | 실업 | 2,673 | 68.7 | 22.8 | 4.5 | 3.0 | 0.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387 | 67.1 | 21.6 | 6.1 | 3.4 | 0.7 |
| | | 비재학 미취업 | 4,313 | 65.2 | 19.8 | 6.2 | 6.2 | 1.9 |

- [표 4-5-11]은 재산 항목별 평균 금액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재산은 6,440만 원이며, 소유부동산(3,972만 원)과 금융재산(2,009만 원)이 전체 92.9%를 차지함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5-36세의 재산총액이 21,938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소유부동산 비율이 74.9%임
- 학력이 높을수록 소유부동산, 금융재산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부가구의 평균 재산이 높으며, 소유부동산 비율이 각각 무자녀 부부가구 71.7%, 유자녀 부부가구 80.9%임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평균 재산액이 가장 많았음

[표 4-5-11] 본인 재산 항목별 평균 금액 [단위: 만 원]

| 구분 | | | 평균 | 소유부동산 | 금융재산 | 가상화폐 | 기타 |
|-------------|------------|---------|--------|--------|-------|------|-------|
| 전체(n=5,083) | | | 6,440 | 3,972 | 2,009 | 66 | 394 |
| 성별 | 남성 | | 6,933 | 4,434 | 1,948 | 93 | 458 |
| | 여성 | | 5,972 | 3,532 | 2,067 | 40 | 333 |
| 연령 | 19-24세 | | 1,386 | 612 | 688 | 19 | 66 |
| | 25-29세 | | 3,379 | 1,584 | 1,534 | 38 | 224 |
| | 30-34세 | | 11,735 | 7,629 | 3,246 | 89 | 771 |
| | 35-36세 | | 21,938 | 16,434 | 4,238 | 439 | 82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425 | 1,295 | 892 | 26 | 212 |
| | 전문대 졸업 | | 5,236 | 3,056 | 1,846 | 48 | 287 |
| | 대학교 졸업 | | 9,013 | 5,676 | 2,687 | 100 | 550 |
| | 대학원 졸업 | | 13,744 | 9,197 | 3,943 | 79 | 52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5,545 | 2,982 | 2,041 | 48 | 474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2,085 | 15,839 | 4,032 | 396 | 1,818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4,031 | 19,447 | 3,273 | 64 | 1,248 |
| | 부모동거 가구 | | 3,283 | 1,548 | 1,643 | 42 | 50 |
| | 기타 가구 | | 5,410 | 3,368 | 1,590 | 19 | 434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7,850 | 4,889 | 2,372 | 84 | 505 |
| | | 실업 | 2,673 | 1,493 | 1,044 | 22 | 11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387 | 1,894 | 1,399 | 31 | 63 |
| | | 비재학 미취업 | 4,313 | 2,636 | 1,382 | 36 | 258 |

- [표 4-5-12]는 자동차 보유 대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자동차 보유 현황은 없음(0대)이 87.3%로 가장 높았고, 1대 보유 12.3%, 2대 보유 0.4% 순임
-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학력,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동차 보유 비율이 높아짐. 특히 35-36세 보유율은 33.1%로 매우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유 비율은 유자녀 부부가구(42.9%), 무자녀 부부가구(35.2%), 1인가구(12.0%) 순으로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취업자 보유율은 16.0%임

[표 4-5-12] 본인 명의 자동차 보유 대수

[단위: %]

| 구분 | | | 없음(0대) | 1대 | 2대 |
|-------------|------------|---------|--------|------|-----|
| 전체(n=5,083) | | | 87.3 | 12.3 | 0.4 |
| 성별 | 남성 | | 82.9 | 16.6 | 0.5 |
| | 여성 | | 91.4 | 8.2 | 0.4 |
| 연령 | 19-24세 | | 97.8 | 2.1 | 0.1 |
| | 25-29세 | | 93.5 | 6.3 | 0.2 |
| | 30-34세 | | 75.1 | 24.0 | 0.9 |
| | 35-36세 | | 66.9 | 32.1 | 1.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93.9 | 5.8 | 0.3 |
| | 전문대 졸업 | | 84.2 | 15.0 | 0.8 |
| | 대학교 졸업 | | 84.0 | 15.6 | 0.4 |
| | 대학원 졸업 | | 79.3 | 20.3 | 0.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88.0 | 11.8 | 0.2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4.8 | 34.0 | 1.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7.1 | 41.2 | 1.7 |
| | 부모동거 가구 | | 92.3 | 7.3 | 0.4 |
| | 기타 가구 | | 92.0 | 8.0 | 0.0 |
| 경제활동 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83.9 | 15.5 | 0.5 |
| | | 실업 | 92.4 | 7.4 | 0.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96.3 | 3.5 | 0.2 |
| | | 비재학 미취업 | 93.3 | 6.5 | 0.3 |

(2) 재테크

- [표 4-5-13]은 재테크 여부와 재테크 방식(복수응답)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84.8%였으며, 재테크 수단(복수응답)으로는 예금 및 적금 91.9%, 주식/펀드 55.3%, 저축성 보험 16.5% 순이었음
- 남성보다 여성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남녀 모두 재테크 수단으로 예금 및 적금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 학력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수단 또한 다양함
- 가구유형별 재테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부가구(무자녀 부부가구+유자녀 부부가구)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저축성 보험, 부동산 투자 등 수단 또한 다양했음

[표 4-5-13] 자산형성을 위한 재테크 여부 및 수단(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 재테크 여부 | | 재테크 수단(n=4,310) ¹⁾ | | | | | |
|----------------|------------|---------|----------|----------|-------------------------------|-----------|-----------|-----------|----------|-----|
| | | | 하고 있음 | 하지 않음 | 예금/ 적금 | 저축성 보험 | 부동산 투자 | 주식/ 펀드 | 가상 화폐 | 기타 |
| 전체(n=5,083) | | | 84.8 | 15.2 | 91.9 | 16.5 | 5.6 | 55.3 | 14.4 | 1.2 |
| 성별 | 남성 | | 80.2 | 19.8 | 87.4 | 15.1 | 6.6 | 59.2 | 17.6 | 1.7 |
| | 여성 | | 89.1 | 10.9 | 95.7 | 17.8 | 4.7 | 51.9 | 11.7 | 0.7 |
| 연령 | 19~24세 | | 78.0 | 22.0 | 90.7 | 8.2 | 1.9 | 46.7 | 10.4 | 1.6 |
| | 25~29세 | | 84.3 | 15.7 | 91.8 | 15.4 | 3.2 | 56.4 | 13.7 | 1.0 |
| | 30~34세 | | 89.6 | 10.4 | 92.6 | 21.6 | 9.2 | 58.7 | 17.2 | 1.1 |
| | 35~36세 | | 90.9 | 9.1 | 92.4 | 29.0 | 16.2 | 62.8 | 18.5 | 1.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74.4 | 25.6 | 90.1 | 11.3 | 2.8 | 46.3 | 12.1 | 1.9 |
| | 전문대 졸업 | | 87.8 | 12.2 | 91.7 | 17.3 | 4.6 | 51.3 | 15.0 | 0.3 |
| | 대학교 졸업 | | 90.9 | 9.1 | 92.6 | 19.2 | 7.2 | 60.6 | 15.4 | 0.9 |
| | 대학원 졸업 | | 93.8 | 6.2 | 95.4 | 20.0 | 9.8 | 66.5 | 15.8 | 1.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85.6 | 14.4 | 93.2 | 17.2 | 6.6 | 57.0 | 15.2 | 0.9 |
| | 무자녀 부부가구 | | 93.8 | 6.2 | 91.9 | 21.7 | 14.6 | 63.1 | 17.7 | 1.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87.0 | 13.0 | 89.2 | 28.6 | 13.2 | 60.2 | 12.4 | 1.6 |
| | 부모동거 가구 | | 83.0 | 17.0 | 91.2 | 14.1 | 3.1 | 53.2 | 13.7 | 1.3 |
| | 기타 가구 | | 83.2 | 16.8 | 91.3 | 15.2 | 3.0 | 49.0 | 12.7 | 1.1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88.9 | 11.1 | 92.9 | 18.8 | 6.7 | 57.6 | 15.1 | 1.0 |
| | | 실업 | 82.1 | 17.9 | 89.3 | 11.5 | 2.2 | 49.6 | 11.0 | 1.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80.0 | 20.0 | 89.0 | 11.2 | 2.3 | 53.2 | 11.6 | 2.1 |
| | | 비재학 미취업 | 73.4 | 26.6 | 89.9 | 11.5 | 3.9 | 49.0 | 14.0 | 1.0 |

주: 1) 재테크를 하는 4,310명에 대한 응답 값이며, 복수의 응답임

- [표 4-5-14]는 재테크 목적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재테크 목적 1순위는 ‘생활비 마련’(25.8%),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22.8%), ‘주택 마련’(18.1%) 순으로 높았음
- 재테크 목적 2순위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22.8%), ‘노후 대비를 위해’(18.0%), ‘주택 마련’(17.2%) 순으로 높았음

[표 4-5-14] 재테크 목적

[단위: %]

| 구분 | 1순위 (n=4,310) ¹⁾ | 2순위 (n=3,773) ²⁾ |
|------------------|--------------------------------|--------------------------------|
| 생활비 마련 | 25.8 | 10.9 |
|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 22.8 | 22.8 |
| 주택 마련 | 18.1 | 17.2 |
| 노후 대비를 위해 | 9.3 | 18.0 |
| 결혼 준비 | 9.0 | 8.1 |
|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 5.9 | 10.5 |
|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 4.3 | 1.9 |
|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 4.0 | 10.0 |
| 기타 | 0.7 | 0.7 |

주: 1)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4,3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2순위 응답자 3,7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15]는 재테크 목적 1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비,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다만,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여성의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해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보다 30대에서 주택 마련, 노후 대비와 같은 이유로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 재테크 목적 1순위는 대체로 생활비, 경제적 자유의 이유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부부가구(무자녀, 유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재테크 목적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는 주택 마련(21.3%)과 결혼 준비(10.7%), 노후 대비(10.3%)를 위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재학자는 교육비(10.7%), 여가와 취미(8.2%)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15] 재테크 목적(1순위)

[단위: %]

| 구분 | | 생활비 | 경제적 자유 | 주택 마련 | 노후 대비 | 결혼 준비 | 불안감 | 교육비 | 여가 취미 | 기타 |
|---------------------------|------------|---------|--------|-------|-------|-------|------|-----|-------|-----|
| 전체(n=4,310) ¹⁾ | | 25.8 | 22.8 | 18.1 | 9.3 | 9.0 | 5.9 | 4.3 | 4.0 | 0.7 |
| 성별 | 남성 | 25.8 | 23.3 | 18.8 | 6.6 | 11.4 | 4.7 | 4.9 | 3.7 | 0.7 |
| | 여성 | 25.8 | 22.4 | 17.5 | 11.6 | 6.9 | 7.0 | 3.8 | 4.3 | 0.6 |
| 연령 | 19-24세 | 28.5 | 22.8 | 13.7 | 5.1 | 4.3 | 7.2 | 9.1 | 8.2 | 1.0 |
| | 25-29세 | 26.4 | 22.0 | 16.5 | 8.6 | 11.4 | 6.8 | 3.8 | 3.8 | 0.7 |
| | 30-34세 | 23.7 | 23.6 | 22.5 | 11.2 | 9.8 | 4.6 | 2.3 | 1.8 | 0.5 |
| | 35-36세 | 23.5 | 23.7 | 18.4 | 22.4 | 6.2 | 3.1 | 0.7 | 1.9 | 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9.4 | 22.6 | 14.0 | 5.9 | 5.9 | 7.1 | 6.9 | 7.3 | 1.0 |
| | 전문대 졸업 | 27.4 | 21.5 | 18.4 | 10.0 | 10.4 | 5.2 | 1.7 | 4.3 | 1.1 |
| | 대학교 졸업 | 23.6 | 23.4 | 20.3 | 11.1 | 10.0 | 5.5 | 3.6 | 2.3 | 0.3 |
| | 대학원 졸업 | 22.2 | 22.0 | 20.9 | 11.1 | 13.2 | 5.5 | 2.4 | 1.2 | 1.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7.5 | 21.9 | 19.1 | 9.2 | 9.6 | 5.8 | 4.0 | 2.8 | 0.3 |
| | 무자녀 부부가구 | 21.1 | 27.0 | 29.3 | 9.9 | 4.5 | 3.3 | 1.2 | 2.5 | 1.1 |
| | 유자녀 부부가구 | 25.2 | 24.3 | 22.9 | 18.2 | 0.0 | 4.1 | 2.9 | 2.0 | 0.4 |
| | 부모동거 가구 | 25.4 | 23.4 | 15.8 | 7.8 | 10.3 | 6.0 | 5.1 | 5.3 | 0.8 |
| | 기타 가구 | 25.0 | 18.6 | 13.5 | 13.3 | 8.6 | 10.3 | 4.8 | 4.8 | 1.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2.0 | 23.1 | 21.3 | 10.3 | 10.7 | 5.1 | 3.7 | 3.3 |
| | | 실업 | 38.0 | 23.5 | 8.3 | 6.6 | 6.3 | 7.2 | 4.4 | 4.0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8.1 | 21.7 | 13.4 | 5.9 | 4.6 | 6.0 | 10.7 | 8.2 |
| | | 비재학 미취업 | 35.4 | 21.9 | 11.0 | 8.0 | 4.9 | 9.1 | 3.8 | 5.2 |

주: 1)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4,3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16]은 재테크 목적 2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고학력일수록 노후 대비, 주택 마련을 위해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나 취미를 목적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부가구는 상대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재테크 목적 2순위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와 실업자는 노후 대비를, 재학/비재학/미취업자는 여가와 취미를 위해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5-16] 재테크 목적(2순위)

[단위: %]

| 구분 | | 경제적 자유 | 노후 대비 | 주택 마련 | 생활비 | 불안감 | 여가 취미 | 결혼 준비 | 교육비 | 기타 |
|---------------------------|------------|-----------|----------|----------|------|------|----------|----------|-----|-----|
| 전체(n=3,773) ¹⁾ | | 22.8 | 18.0 | 17.2 | 10.9 | 10.5 | 10.0 | 8.1 | 1.9 | 0.7 |
| 성별 | 남성 | 25.1 | 14.4 | 18.9 | 10.0 | 8.2 | 10.7 | 10.1 | 2.2 | 0.6 |
| | 여성 | 20.8 | 21.0 | 15.8 | 11.6 | 12.5 | 9.4 | 6.5 | 1.6 | 0.7 |
| 연령 | 19-24세 | 22.7 | 10.5 | 12.6 | 15.2 | 12.3 | 17.4 | 4.3 | 4.4 | 0.5 |
| | 25-29세 | 23.1 | 15.8 | 17.7 | 9.6 | 11.9 | 9.4 | 10.3 | 1.3 | 0.8 |
| | 30-34세 | 22.5 | 23.2 | 19.2 | 10.2 | 8.2 | 6.5 | 8.7 | 0.9 | 0.6 |
| | 35-36세 | 22.5 | 29.9 | 19.9 | 4.2 | 10.0 | 7.1 | 4.2 | 1.6 | 0.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2.5 | 10.1 | 14.0 | 14.0 | 13.3 | 15.8 | 5.3 | 4.2 | 0.7 |
| | 전문대 졸업 | 21.1 | 20.1 | 18.2 | 9.8 | 10.8 | 9.0 | 9.5 | 0.3 | 1.2 |
| | 대학교 졸업 | 22.8 | 21.7 | 18.6 | 9.7 | 8.9 | 7.4 | 9.4 | 0.9 | 0.5 |
| | 대학원 졸업 | 27.6 | 21.8 | 19.6 | 7.1 | 9.1 | 5.2 | 7.9 | 1.3 | 0.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4.4 | 16.3 | 18.1 | 10.6 | 10.4 | 7.8 | 11.1 | 1.2 | 0.2 |
| | 무자녀 부부가구 | 25.6 | 34.6 | 18.6 | 6.9 | 5.4 | 7.1 | 1.1 | 0.3 | 0.4 |
| | 유자녀 부부가구 | 20.2 | 33.4 | 17.0 | 14.6 | 5.5 | 3.9 | 0.0 | 3.5 | 2.0 |
| | 부모동거 가구 | 21.7 | 15.2 | 16.5 | 10.7 | 11.6 | 12.8 | 8.1 | 2.5 | 0.8 |
| | 기타 가구 | 20.7 | 15.7 | 15.7 | 14.5 | 13.4 | 10.5 | 6.9 | 1.3 | 1.4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2.5 | 19.6 | 18.1 | 10.0 | 10.7 | 8.4 | 8.7 | 1.4 |
| | | 실업 | 24.3 | 18.5 | 14.4 | 12.4 | 11.9 | 10.0 | 7.0 | 1.5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8.5 | 11.3 | 15.1 | 15.8 | 7.9 | 20.2 | 5.3 | 5.5 |
| | | 비재학 미취업 | 25.0 | 13.1 | 15.4 | 12.1 | 10.7 | 13.0 | 7.2 | 2.4 |

주: 1) 2순위 응답자 3,7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17]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남녀 모두 '여유자금이 없음' 비율이 각각 52.6%, 58.6%로 과반임
- 연령대, 학력이 낮을수록 '방법과 정보를 몰라 시작하지 못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학 중인 청년은 '관심 없음'과 '방법과 정보를 몰라 시작 못함' 비율이 각각 22.5%, 16.8%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17]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분 | | 여유자금 없음 | 재테크 시도 후 실패 | 관심 없음 | 방법과 정보를 몰라 시작 못함 | 재테크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 생각 | 기타 | |
|-------------------------|------------|------------|----------------|-------|------------------------|---------------------------|------|-----|
| 전체(n=773) ¹⁾ | | 54.8 | 3.0 | 16.7 | 10.1 | 14.0 | 1.5 | |
| 성별 | 남성 | 52.6 | 4.3 | 16.0 | 9.0 | 16.4 | 1.8 | |
| | 여성 | 58.6 | 0.7 | 17.9 | 12.0 | 9.9 | 1.0 | |
| 연령 | 19~24세 | 48.2 | 1.2 | 19.5 | 15.9 | 13.8 | 1.5 | |
| | 25~29세 | 54.0 | 3.9 | 16.6 | 9.7 | 15.2 | 0.7 | |
| | 30~34세 | 63.0 | 4.5 | 14.2 | 2.6 | 12.5 | 3.1 | |
| | 35~36세 | 89.2 | 0.0 | 0.0 | 0.0 | 10.8 | 0.0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2.2 | 2.6 | 18.0 | 12.0 | 13.7 | 1.5 | |
| | 전문대 졸업 | 61.6 | 4.0 | 13.1 | 9.2 | 12.1 | 0.0 | |
| | 대학교 졸업 | 58.1 | 3.2 | 15.2 | 6.6 | 14.7 | 2.2 | |
| | 대학원 졸업 | 52.0 | 4.8 | 17.9 | 3.1 | 22.2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6.1 | 3.3 | 16.3 | 5.8 | 16.9 | 1.6 | |
| | 무자녀 부부가구 | 54.6 | 0.0 | 19.8 | 5.9 | 11.2 | 8.5 | |
| | 유자녀 부부가구 | 70.3 | 2.4 | 16.3 | 5.1 | 2.9 | 3.0 | |
| | 부모동거 가구 | 51.4 | 2.7 | 17.5 | 14.3 | 13.4 | 0.7 | |
| | 기타 가구 | 64.3 | 4.8 | 12.0 | 2.9 | 12.7 | 3.3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4.3 | 4.4 | 17.0 | 9.0 | 13.5 | 1.8 |
| | | 실업 | 69.0 | 4.3 | 8.7 | 8.0 | 7.2 | 2.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7.0 | 0.0 | 22.5 | 16.8 | 12.5 | 1.1 |
| | | 비재학 미취업 | 54.0 | 1.5 | 16.5 | 10.0 | 17.1 | 0.8 |

주: 1) 재테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7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18]은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16.4%이었고,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는 6.7%이었음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재테크 실패에 따른 어려움은 남성이 더 높았음
- 30대 청년이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테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학력이 낮을수록 재테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실업자(18.9%)로 가장 높았고, 재학생(8.9%)이 가장 낮았음. 비재학/미취업자는 재테크를 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3.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18] 재테크 실패로 인한 어려움

[단위: %]

| 구분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다 |
|-------------|------------|---------|-----------|--------|------|--------|---------------|
| 전체(n=5,083) | | | 45.6 | 31.3 | 11.6 | 4.8 | 6.7 |
| 성별 | 남성 | | 40.5 | 31.8 | 13.5 | 6.3 | 7.9 |
| | 여성 | | 50.5 | 30.8 | 9.8 | 3.4 | 5.5 |
| 연령 | 19-24세 | | 52.8 | 25.4 | 7.9 | 3.0 | 10.9 |
| | 25-29세 | | 49.0 | 29.9 | 10.4 | 3.6 | 7.0 |
| | 30-34세 | | 37.5 | 36.5 | 15.1 | 7.3 | 3.6 |
| | 35-36세 | | 37.4 | 37.2 | 15.8 | 6.0 | 3.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6.5 | 26.2 | 10.3 | 4.9 | 12.1 |
| | 전문대 졸업 | | 42.5 | 33.9 | 12.3 | 5.4 | 5.8 |
| | 대학교 졸업 | | 45.4 | 34.3 | 12.4 | 4.5 | 3.4 |
| | 대학원 졸업 | | 49.0 | 33.0 | 11.4 | 5.1 | 1.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44.3 | 31.8 | 12.5 | 5.4 | 6.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42.1 | 36.0 | 15.6 | 4.1 | 2.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5.7 | 41.0 | 12.7 | 5.3 | 5.3 |
| | 부모동거 가구 | | 47.8 | 29.2 | 10.4 | 4.6 | 8.0 |
| | 기타 가구 | | 47.5 | 32.0 | 10.5 | 4.2 | 5.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5.9 | 32.0 | 12.5 | 5.1 | 4.5 |
| | | 실업 | 43.3 | 30.1 | 13.5 | 5.4 | 7.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3.0 | 29.2 | 6.6 | 2.3 | 8.8 |
| | | 비재학 미취업 | 42.4 | 30.3 | 9.4 | 4.8 | 13.1 |

(3) 부채

- [표 4-5-19]는 부채(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주택 관련 부채, 일반부채) 총액 평균 및 분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부채가 있는 대상자의 평균 부채액은 10,008만 원이며, 분포 비율은 1억 원 이상(35.3%), 1,000만~5,000만 원 미만(27.0%), 5,000만~1억 원 미만(18.0%) 순이었음
- 부채액은 남성(10,747만 원)이 여성(9,270만 원)보다 많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액 또한 높은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의 부채액이 각 19,885만 원, 18,735만 원으로 높았으며, 부모동거 가구의 부채액이 4,349만 원으로 낮음
- 경제활동상태별 부채액은 취업 10,947만 원, 비재학 미취업 7,802만 원, 재학 7,120만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5-19] 본인 부채 총액 평균 및 분포

[단위: 만 원, %]

| 구분 | | | 평균 | 500만 원 미만 | 500만~1,000만 원 미만 | 1,000만~5,000만 원 미만 | 5,000만~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
|---------------------------|------------|---------|--------|-----------|------------------|--------------------|----------------|---------|
| 전체(n=1,951) ¹⁾ | | | 10,008 | 12.0 | 7.7 | 27.0 | 18.0 | 35.3 |
| 성별 | 남성 | | 10,747 | 11.7 | 8.4 | 25.4 | 17.7 | 36.8 |
| | 여성 | | 9,270 | 12.4 | 6.9 | 28.5 | 18.3 | 33.9 |
| 연령 | 19~24세 | | 2,741 | 41.7 | 15.4 | 25.0 | 8.0 | 10.0 |
| | 25~29세 | | 6,863 | 14.9 | 9.8 | 30.3 | 20.7 | 24.3 |
| | 30~34세 | | 12,763 | 5.4 | 5.3 | 25.6 | 18.2 | 45.6 |
| | 35~36세 | | 17,808 | 1.6 | 1.9 | 21.7 | 17.0 | 57.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566 | 23.1 | 10.7 | 34.1 | 11.7 | 20.4 |
| | 전문대 졸업 | | 9,384 | 13.4 | 6.8 | 26.5 | 20.4 | 33.0 |
| | 대학교 졸업 | | 11,879 | 7.8 | 6.8 | 23.0 | 21.4 | 41.0 |
| | 대학원 졸업 | | 11,858 | 4.6 | 5.4 | 32.9 | 11.3 | 45.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9,570 | 6.6 | 6.6 | 25.0 | 26.8 | 35.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9,885 | 3.2 | 3.2 | 13.6 | 11.6 | 68.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8,735 | 3.3 | 4.3 | 14.7 | 10.8 | 66.9 |
| | 부모동거 가구 | | 4,349 | 26.8 | 13.1 | 38.8 | 8.4 | 12.9 |
| | 기타 가구 | | 7,381 | 19.9 | 6.0 | 33.2 | 13.0 | 27.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0,947 | 10.0 | 6.3 | 26.3 | 19.1 | 38.3 |
| | | 실업 | 5,230 | 23.8 | 12.0 | 27.7 | 18.7 | 17.9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7,120 | 24.2 | 17.1 | 26.1 | 6.7 | 26.0 |
| | | 비재학 미취업 | 7,802 | 14.6 | 10.8 | 30.7 | 14.1 | 29.8 |

주: 1) 결측값 1명을 제외하고 주택 관련 부채(임대보증금 총액 포함)와 일반부채가 있는 1,9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20]은 부채 항목별 평균 금액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주택 관련 부채 평균은 14,103만 원이었으며, 일반부채 평균은 2,415만 원이었음
- 남성은 주택 관련 부채와 일반부채 모두 여성보다 높았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 관련 부채와 일반부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가구 유형별로는 주택 관련 부채는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일반부채는 유자녀 부부가구가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주택 관련 부채와 일반부채 평균 모두 취업자가 가장 높았음

[표 4-5-20] 본인 부채 항목별 평균 금액

[단위: 만 원]

| 구분 | | 평균 | 주택 관련 부채 ²⁾ (n=1,193) | 일반 부채 ³⁾ (n=1,114) |
|---------------------------|------------|---------|-------------------------------------|----------------------------------|
| 전체(n=1,951) ¹⁾ | | 10,008 | 14,103 | 2,415 |
| 성별 | 남성 | 10,747 | 15,142 | 2,690 |
| | 여성 | 9,270 | 13,090 | 2,119 |
| 연령 | 19-24세 | 2,741 | 6,581 | 721 |
| | 25-29세 | 6,863 | 10,604 | 1,708 |
| | 30-34세 | 12,763 | 16,098 | 3,156 |
| | 35-36세 | 17,808 | 19,467 | 5,2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566 | 9,558 | 1,859 |
| | 전문대 졸업 | 9,384 | 14,018 | 2,016 |
| | 대학교 졸업 | 11,879 | 15,388 | 2,733 |
| | 대학원 졸업 | 11,858 | 14,512 | 3,28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570 | 11,072 | 2,442 |
| | 무자녀 부부가구 | 19,885 | 22,248 | 4,003 |
| | 유자녀 부부가구 | 18,735 | 20,949 | 4,614 |
| | 부모동거 가구 | 4,349 | 13,269 | 1,725 |
| | 기타 가구 | 7,381 | 11,962 | 2,312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0,947 | 14,758 |
| | | 실업 | 5,230 | 8,78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7,120 | 13,868 |
| | | 비재학 미취업 | 7,802 | 12,265 |

주: 1) 결측값 1명을 제외하고 주택 관련 부채(임대보증금 총액 포함)와 일반부채가 있는 1,9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1,193명을 분석함
3) 일반부채가 있는 1,114명을 분석함

- [표 4-5-21]은 부채용도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부채용도 1순위는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이 3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 마련’ 36.0%, ‘기타’ 12.7% 순이었음
- 2순위는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이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채무상환’ 23.9%,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13.3% 순이었음

[표 4-5-21] 부채용도

[단위: %]

| 구분 | 1순위 ¹⁾ (n=1,114) | 2순위 ²⁾ (n=537) |
|------------------------|--------------------------------|------------------------------|
|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 38.0 | 39.8 |
| 학자금 마련 | 36.0 | 7.8 |
| 기타 | 12.7 | 9.6 |
| 채무상환 | 7.8 | 23.9 |
| 창업자금 마련 | 3.8 | 5.8 |
|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 1.8 | 13.3 |

주: 1) 일반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1,1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2순위 응답자 5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22]는 부채용도 1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전반적으로 생활비 용도로 부채를 사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학자금과 생활비 용도 비율이 각각 39.3%, 40.5%로 높고, 남성은 채무상환과 기타 비율이 9.3%, 16.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와 25-29세는 학자금으로 부채를 빌린 경우 각각 48.0%, 48.2%로 매우 높았고, 35-36세는 채무상환 비율이 19.7%로 높았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학자금 부채용도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 부채용도 1순위 생활비로 응답한 비율이 48.4%로 높았음. 1인가구, 부모동거 가구, 기타 가구에서는 생활비 다음으로 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표 4-5-22] 부채용도(1순위)

[단위: %]

| 구분 | | | 생활비 | 학자금 | 기타 | 채무상환 | 창업자금 | 취업학원 자격증 |
|---------------------------|------------|---------|------|------|------|------|------|-------------|
| 전체(n=1,114) ¹⁾ | | | 38.0 | 36.0 | 12.7 | 7.8 | 3.8 | 1.8 |
| 성별 | 남성 | | 35.6 | 33.0 | 16.0 | 9.3 | 3.9 | 2.2 |
| | 여성 | | 40.5 | 39.3 | 9.1 | 6.1 | 3.7 | 1.3 |
| 연령 | 19-24세 | | 40.9 | 48.0 | 4.8 | 3.0 | 0.5 | 2.9 |
| | 25-29세 | | 34.1 | 48.2 | 8.9 | 6.2 | 1.9 | 0.7 |
| | 30-34세 | | 38.7 | 25.7 | 18.3 | 9.1 | 6.0 | 2.2 |
| | 35-36세 | | 52.0 | 10.7 | 9.0 | 19.7 | 6.1 | 2.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6.6 | 32.1 | 8.4 | 6.1 | 3.2 | 3.6 |
| | 전문대 졸업 | | 44.4 | 26.2 | 15.6 | 7.1 | 5.8 | 0.8 |
| | 대학교 졸업 | | 33.4 | 38.4 | 15.1 | 8.4 | 3.6 | 1.1 |
| | 대학원 졸업 | | 22.0 | 52.3 | 10.2 | 11.2 | 4.3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40.4 | 34.9 | 13.0 | 6.2 | 3.4 | 1.9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8.6 | 17.6 | 21.1 | 12.0 | 9.3 | 1.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48.4 | 19.8 | 11.9 | 15.7 | 2.9 | 1.3 |
| | 부모동거 가구 | | 32.4 | 43.9 | 10.7 | 7.8 | 3.7 | 1.5 |
| | 기타 가구 | | 42.6 | 34.5 | 12.7 | 5.6 | 1.8 | 2.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8.1 | 32.5 | 15.3 | 8.4 | 4.4 | 1.3 |
| | | 실업 | 40.2 | 48.6 | 3.2 | 2.2 | 3.3 | 2.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0.9 | 52.9 | 10.2 | 6.0 | 0.0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38.4 | 42.8 | 5.0 | 8.0 | 1.8 | 4.0 |

주: 1) 일반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1,1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23]은 부채용도 2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남성과 여성 모두 2순위 부채용도가 생활비, 채무상환, 취업학원 자격증 순으로 높았음
- 20대는 학자금, 생활비, 취업학원 자격증 용도, 30대는 채무상환과 창업자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생활비 용도 비율이 높은 가운데 유자녀 부부가구는 채무상환, 부모동거 가구는 학자금과 취업학원 자격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23] 부채용도(2순위)

[단위: %]

| 구분 | | | 생활비 | 채무상환 | 기타 | 학자금 | 창업자금 | 취업학원 자격증 |
|-------------------------|------------|---------|------|------|------|------|------|-------------|
| 전체(n=537) ¹⁾ | | | 39.8 | 23.9 | 9.6 | 7.8 | 5.8 | 13.3 |
| 성별 | 남성 | | 40.5 | 21.3 | 9.9 | 9.3 | 7.0 | 12.0 |
| | 여성 | | 39.0 | 26.6 | 9.2 | 6.2 | 4.4 | 14.6 |
| 연령 | 19-24세 | | 54.6 | 11.8 | 5.1 | 14.1 | 0.0 | 14.5 |
| | 25-29세 | | 42.7 | 17.7 | 7.0 | 9.1 | 3.7 | 19.8 |
| | 30-34세 | | 34.7 | 31.5 | 12.4 | 5.3 | 7.8 | 8.3 |
| | 35-36세 | | 24.5 | 34.3 | 14.8 | 3.3 | 17.5 | 5.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8.3 | 23.3 | 6.3 | 12.9 | 4.8 | 14.4 |
| | 전문대 졸업 | | 28.2 | 33.2 | 16.0 | 6.3 | 11.7 | 4.6 |
| | 대학교 졸업 | | 42.5 | 23.5 | 9.0 | 4.8 | 5.9 | 14.2 |
| | 대학원 졸업 | | 46.6 | 14.6 | 19.1 | 5.0 | 0.0 | 14.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9.2 | 25.7 | 9.1 | 7.9 | 4.2 | 13.9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4.6 | 13.3 | 27.7 | 0.0 | 14.4 | 9.9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1.1 | 37.1 | 18.8 | 2.8 | 6.9 | 3.3 |
| | 부모동거 가구 | | 43.0 | 19.6 | 6.9 | 10.1 | 4.9 | 15.5 |
| | 기타 가구 | | 37.9 | 33.5 | 3.7 | 5.8 | 9.2 | 9.9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8.0 | 25.9 | 12.1 | 6.5 | 6.8 | 10.6 |
| | | 실업 | 47.2 | 24.1 | 3.5 | 5.2 | 2.1 | 17.9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2.2 | 0.0 | 0.0 | 17.6 | 0.0 | 30.2 |
| | | 비재학 미취업 | 39.9 | 21.1 | 4.7 | 11.9 | 4.8 | 17.5 |

주: 1) 일반부채가 있는 2순위 응답자 537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5-24]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부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3%(매우 부담+다소 부담), 보통 21.2%, 부담 안 됨(별로 부담 안 됨+전혀 부담 안 됨) 19.5%임
- 남성보다 여성이 부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보다 30대에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저학력일수록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비재학 미취업자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68.3%로 높았음

[표 4-5-24]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

[단위: %]

| 구분 | | | 부담 | | 보통 | 부담 안됨 | | | |
|---------------------------|------------|---------|-------|-------|------|---------|---------|------|-----|
| | | | 매우 부담 | 다소 부담 | | 별로 부담안됨 | 전혀 부담안됨 | | |
| 전체(n=1,848) ¹⁾ | | | 59.3 | 21.0 | 38.3 | 21.2 | 19.5 | 15.0 | 4.5 |
| 성별 | 남성 | | 54.1 | 18.3 | 35.8 | 22.7 | 23.2 | 17.2 | 6.0 |
| | 여성 | | 64.5 | 23.8 | 40.7 | 19.7 | 15.8 | 12.8 | 3.0 |
| 연령 | 19-24세 | | 52.0 | 14.6 | 37.4 | 26.7 | 21.3 | 15.2 | 6.1 |
| | 25-29세 | | 59.3 | 20.8 | 38.5 | 18.4 | 22.4 | 17.4 | 5.0 |
| | 30-34세 | | 59.6 | 22.7 | 36.9 | 23.0 | 17.4 | 13.4 | 4.0 |
| | 35-36세 | | 68.3 | 19.3 | 49.0 | 14.4 | 17.3 | 13.8 | 3.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61.1 | 26.0 | 35.1 | 19.0 | 19.9 | 13.5 | 6.4 |
| | 전문대 졸업 | | 63.6 | 23.0 | 40.6 | 16.9 | 19.6 | 14.8 | 4.8 |
| | 대학교 졸업 | | 57.8 | 18.5 | 39.3 | 23.4 | 18.7 | 15.0 | 3.7 |
| | 대학원 졸업 | | 57.1 | 19.9 | 37.2 | 19.5 | 23.4 | 20.0 | 3.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56.7 | 21.7 | 35.0 | 21.6 | 21.7 | 16.2 | 5.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59.7 | 19.9 | 39.8 | 20.5 | 19.8 | 16.6 | 3.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1.6 | 19.6 | 42.0 | 24.5 | 14.0 | 12.1 | 1.9 |
| | 부모동거 가구 | | 61.3 | 21.0 | 40.3 | 20.1 | 18.6 | 13.6 | 5.0 |
| | 기타 가구 | | 64.7 | 20.5 | 44.3 | 20.0 | 15.2 | 13.8 | 1.4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7.6 | 19.3 | 38.3 | 21.4 | 20.9 | 16.2 | 4.7 |
| | | 실업 | 60.4 | 24.1 | 36.3 | 28.0 | 11.6 | 8.0 | 3.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7.7 | 23.7 | 34.0 | 26.3 | 15.9 | 10.1 | 5.8 |
| | | 비재학 미취업 | 68.3 | 28.4 | 39.9 | 15.4 | 16.3 | 12.8 | 3.5 |

주: 1) 부채(주택 관련 부채+일반부채)가 있는 1,8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6_주거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 및 특성을 주거 측면에서 확인하였으며,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거환경 및 주거 불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분석의 전체 표본은 5,083명이고, 그중 원표본은 3,735명, 신규표본은 1,348명이며 문항별 결측값이 상이함

1) 주거 일반특성

(1) 주택유형

- [표 4-6-1]은 주택유형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출신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주택유형은 아파트(39.4%), 연립다세대(28.7%), 오피스텔(12.6%) 순으로 높았으며 비적정주거(고시원+그 외 거처) 비율은 3.1%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아파트(38.6%), 연립다세대(27.6%), 다가구 단독주택(13.1%), 여성은 아파트(40.2%), 연립다세대(29.9%), 오피스텔(13.7%)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 주택유형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오피스텔) 27.9%, 고시원(2.1%), 그 외 거처(3.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부부가구 및 부모동거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과반임
- 서울 태생 청년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3%로 매우 높았고(서울로 이주 18.5%),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다가구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비적정주거(고시원+그 외 거처) 거주 비율이 높았음

[표 4-6-1] 주택유형

[단위: %]

| 구분 | | 일반 단독 주택 | 다가구 단독 주택 | 아파트 | 연립 다세대 ¹⁾ | 오피 스텔 | 고시원 | 그 외 거처 ²⁾ |
|-------------|--------|----------------|-----------------|------|-------------------------|----------|-----|-------------------------|
| 전체(n=5,083) | | 4.2 | 11.9 | 39.4 | 28.7 | 12.6 | 0.8 | 2.3 |
| 성별 | 남성 | 5.8 | 13.1 | 38.6 | 27.6 | 11.4 | 1.0 | 2.6 |
| | 여성 | 2.7 | 10.9 | 40.2 | 29.9 | 13.7 | 0.5 | 2.1 |
| 연령 | 19-24세 | 5.6 | 9.8 | 47.3 | 25.0 | 8.2 | 1.1 | 3.1 |
| | 25-29세 | 4.6 | 13.4 | 35.1 | 29.7 | 13.6 | 0.8 | 2.8 |
| | 30-34세 | 2.9 | 12.2 | 37.9 | 30.2 | 15.1 | 0.4 | 1.3 |
| | 35-36세 | 3.0 | 8.8 | 43.6 | 31.3 | 10.4 | 1.0 | 1.9 |

| 구분 | | | 일반 단독 주택 | 다가구 단독 주택 | 아파트 | 연립 다세대 ¹⁾ | 오피스텔 | 고시원 | 그 외 거처 ²⁾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0 | 12.0 | 42.7 | 27.1 | 8.8 | 1.4 | 2.9 |
| | 전문대 졸업 | | 4.8 | 12.8 | 35.4 | 33.4 | 11.6 | 0.5 | 1.5 |
| | 대학교 졸업 | | 3.6 | 11.9 | 37.8 | 28.6 | 15.4 | 0.5 | 2.2 |
| | 대학원 졸업 | | 2.8 | 9.4 | 41.3 | 28.9 | 15.9 | 0.0 | 1.6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4.3 | 18.4 | 9.2 | 34.2 | 27.9 | 2.1 | 3.8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3 | 7.8 | 51.8 | 26.2 | 11.9 | 0.0 | 0.9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4 | 6.7 | 67.0 | 19.4 | 2.6 | 0.3 | 1.5 |
| | 부모동거 가구 | | 4.6 | 7.6 | 59.5 | 24.8 | 2.2 | 0.0 | 1.3 |
| | 기타 가구 | | 4.6 | 17.1 | 20.2 | 38.1 | 16.2 | 0.3 | 3.6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9 | 12.4 | 37.0 | 30.5 | 13.5 | 0.6 | 2.1 |
| | | 실업 | 5.3 | 13.2 | 38.2 | 30.1 | 10.6 | 1.3 | 1.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1 | 8.6 | 48.6 | 22.0 | 11.5 | 0.8 | 4.5 |
| | | 비재학 미취업 | 4.9 | 11.3 | 44.6 | 25.0 | 10.6 | 1.2 | 2.4 |
| 출신 지역 ³⁾ | 서울 태생 | | 4.6 | 10.1 | 50.3 | 26.0 | 7.0 | 0.3 | 1.8 |
| | 서울로 이주 | | 3.7 | 15.6 | 18.5 | 34.1 | 23.5 | 1.7 | 3.3 |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3)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주택유형

[단위: %]

| 구분 | 단독주 택 | 아파트 | 연립 다세대 | 오피스텔 | 고시원 | 기타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
| 전체가구 | 26.9 | 42.8 | 21.3 | 5.9 | 2.6 | 0.2 | 0.3 |
| 청년가구(19~29세) | 31.6 | 26.6 | 22.3 | 15.4 | 3.6 | - | 0.4 |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 주택 점유형태

- [표 4-6-2]는 주택 점유형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출신 지역에 따라로 분석한 결과임
-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31.6%, '전세' 31.1%, '보증부 월세' 29.5%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50.8%)와 전세(38.3%) 비중이 매우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 유자녀 부부가구는 전세 비율이 각각 53.2%, 43.4%로 높으며, 부모동거 가구는 자가 비율이 53.5%로 과반임
- 출신 지역별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태생은 자가 비율(42.2%), 전세(27.8%), 보증부 월세(20.9%) 순인 반면 서울로 이주한 경우는 보증부 월세(46.0%), 전세(37.4%),

자가(11.1%)로 확인됨

[표 4-6-2] 주택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 |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¹⁾ | 무상 | 기타 |
|------------------------|------------|---------|------|------|-----------|----------------------------|-----|-----|
| 전체(n=5,083) | | | 31.6 | 31.1 | 29.5 | 1.2 | 3.1 | 3.5 |
| 성별 | 남성 | | 32.6 | 30.7 | 28.6 | 1.3 | 3.6 | 3.2 |
| | 여성 | | 30.6 | 31.5 | 30.2 | 1.1 | 2.7 | 3.8 |
| 연령 | 19~24세 | | 38.9 | 23.1 | 28.5 | 1.3 | 4.7 | 3.5 |
| | 25~29세 | | 30.3 | 30.2 | 32.5 | 1.4 | 2.2 | 3.3 |
| | 30~34세 | | 27.6 | 36.5 | 27.8 | 0.9 | 3.3 | 4.0 |
| | 35~36세 | | 30.7 | 44.3 | 21.0 | 1.1 | 1.3 | 1.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5.4 | 25.5 | 29.8 | 1.6 | 3.7 | 4.0 |
| | 전문대 졸업 | | 32.5 | 28.7 | 31.5 | 1.0 | 2.8 | 3.5 |
| | 대학교 졸업 | | 28.6 | 35.5 | 28.4 | 1.0 | 3.1 | 3.4 |
| | 대학원 졸업 | | 29.6 | 36.2 | 30.8 | 0.6 | 1.1 | 1.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6.0 | 38.3 | 50.8 | 1.9 | 1.6 | 1.3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3.4 | 53.2 | 19.8 | 0.3 | 1.2 | 2.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4.2 | 43.4 | 17.2 | 0.8 | 2.2 | 2.3 |
| | 부모동거 가구 | | 53.5 | 21.5 | 14.5 | 0.8 | 4.5 | 5.2 |
| | 기타 가구 | | 13.4 | 32.1 | 44.2 | 2.1 | 3.9 | 4.3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30.2 | 33.4 | 29.4 | 1.0 | 2.8 | 3.2 |
| | | 실업 | 29.0 | 27.5 | 33.9 | 1.4 | 3.4 | 4.9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2.6 | 20.4 | 28.3 | 0.9 | 4.7 | 3.0 |
| | | 비재학 미취업 | 32.9 | 29.0 | 28.5 | 1.9 | 3.7 | 4.1 |
| 출신 지역 ²⁾ | 서울 태생 | | 42.2 | 27.8 | 20.9 | 0.9 | 3.9 | 4.3 |
| | 서울로 이주 | | 11.1 | 37.4 | 46.0 | 1.7 | 1.8 | 2.1 |

주: 1) 보증금 없는 월세에 별도의 보증금 없이 일정한 기간의 집세를 지불하는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합산 비율
2)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무상 |
|------|------|------|--------|-----------|-----|
| 전체가구 | 42.2 | 26.2 | 25.1 | 3.4 | 3.2 |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3) 거주층

- [표 4-6-3]은 거주층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거주층은 '지상'이 94.9%로 가장 높았고 '지하층이나 반지층' 4.0%, '옥탑' 1.0% 순으로 나타남
- 여성(3.9%)보다 남성(6.3%)의 경우 지하층이나 반지층, 옥탑 거주 비율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비적정주거(지하층이나 반지층+옥탑) 거주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 거주층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 청년들의 비적정주거(지하층이나 반지층+옥탑)거주 비율이 높았음

[표 4-6-3] 거주층

[단위: %]

| 구분 | | 지하층이나 반지층 | 지상 | 옥탑 | |
|-------------|----------------------|-----------|------|------|-----|
| 전체(n=5,083) | | 4.0 | 94.9 | 1.0 | |
| 성별 | 남성 | 4.9 | 93.7 | 1.4 | |
| | 여성 | 3.2 | 96.1 | 0.7 | |
| 연령 | 19~24세 | 3.8 | 95.1 | 1.1 | |
| | 25~29세 | 4.1 | 94.9 | 1.0 | |
| | 30~34세 | 4.3 | 94.6 | 1.0 | |
| | 35~36세 | 1.9 | 96.5 | 1.6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6 | 93.1 | 1.3 | |
| | 전문대 졸업 | 4.2 | 94.6 | 1.2 | |
| | 대학교 졸업 | 2.9 | 96.3 | 0.8 | |
| | 대학원 졸업 | 2.1 | 96.9 | 1.0 | |
| 가구유형 | 1인가구 | 5.4 | 93.1 | 1.5 | |
| | 무자녀 부부가구 | 1.8 | 97.2 | 1.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1.7 | 96.2 | 2.1 | |
| | 부모동거 가구 | 3.5 | 95.9 | 0.7 | |
| | 기타 가구 | 4.8 | 94.8 | 0.4 |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1 | 94.9 | 1.0 |
| | | 실업 | 6.3 | 92.3 | 1.4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5 | 97.6 | 0.9 |
| | | 비재학 미취업 | 3.9 | 95.0 | 1.1 |
| 주택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13.0 | 82.6 | 4.4 |
| | 다가구 단독주택 | | 8.3 | 90.3 | 1.4 |
| | 아파트 | | 0.2 | 99.5 | 0.3 |
| | 연립 다세대 ¹⁾ | | 7.4 | 90.9 | 1.7 |
| | 오피스텔 | | 0.7 | 99.1 | 0.2 |
| | 고시원 | | 8.8 | 91.2 | 0.0 |
| | 그 외 거처 ²⁾ | | 4.3 | 93.2 | 2.5 |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가축사+기타

(4) 주택 계약 현황

- [표 4-6-4]는 주택 계약 현황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주택 계약 현황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부여’ 비율이 53.8%이며, ‘모르겠다’ 26.9%, ‘전입신고만 하였다’ 12.6% 순으로 높았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둘 다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 무자녀 부부가구,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부여’ 비율이 각 73.1%, 77.7%, 73.2%이며, 부모동거 가구의 경우 ‘모르겠다’가 49.7%로 높았음
- 서울 태생 청년의 경우 ‘모르겠다’ 응답 비율이 37.1%로 높았으며, 서울로 이주한 청년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부여’ 응답 비율이 71.6%로 매우 높았음

[표 4-6-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

[단위: %]

| 구분 | | 전입신고만 하였다 | 확정일자만 부여 받았다 |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 모두 부여 | 둘 다 하지 않았다 | 모르겠다 | |
|------------------------|------------|--------------|--------------------|-----------------------------|---------------|------|------|
| 전체(n=5,083) | | 12.6 | 1.4 | 53.8 | 5.4 | 26.9 | |
| 성별 | 남성 | 14.0 | 1.4 | 52.2 | 5.4 | 26.9 | |
| | 여성 | 11.2 | 1.3 | 55.2 | 5.3 | 27.0 | |
| 연령 | 19-24세 | 10.2 | 1.4 | 37.1 | 6.7 | 44.5 | |
| | 25-29세 | 12.2 | 0.9 | 53.1 | 5.4 | 28.3 | |
| | 30-34세 | 14.7 | 1.5 | 64.7 | 4.7 | 14.4 | |
| | 35-36세 | 12.1 | 3.5 | 71.6 | 2.3 | 10.6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2.5 | 1.6 | 42.1 | 6.2 | 37.6 | |
| | 전문대 졸업 | 10.4 | 0.5 | 55.3 | 5.1 | 28.6 | |
| | 대학교 졸업 | 12.9 | 1.3 | 61.4 | 4.8 | 19.7 | |
| | 대학원 졸업 | 15.2 | 2.2 | 62.5 | 5.8 | 14.3 | |
| 가구유형 | 1인가구 | 14.1 | 1.9 | 73.1 | 5.5 | 5.3 | |
| | 무자녀 부부가구 | 12.8 | 1.5 | 77.7 | 2.9 | 5.1 | |
| | 유자녀 부부가구 | 16.5 | 3.2 | 73.2 | 1.5 | 5.6 | |
| | 부모동거 가구 | 10.0 | 0.6 | 34.4 | 5.3 | 49.7 | |
| | 기타 가구 | 19.4 | 2.1 | 54.8 | 10.2 | 13.4 |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2.2 | 1.3 | 58.2 | 4.5 | 23.9 |
| | | 실업 | 14.5 | 1.2 | 46.9 | 5.2 | 32.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3.4 | 0.8 | 40.6 | 8.9 | 36.3 |
| | | 비재학 미취업 | 12.7 | 2.0 | 46.6 | 7.2 | 31.6 |
| 출신 지역 ¹⁾ | 서울 태생 | 11.9 | 1.3 | 44.5 | 5.2 | 37.1 | |
| | 서울로 이주 | 13.9 | 1.5 | 71.6 | 5.7 | 7.3 | |

주: 1)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 [표 4-6-5]는 주택 계약당사자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 점유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주택 계약당사자가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 48.8%, 본인 39.6%, 배우자 4.7%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와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남성(2.2%)보다 높음
- 연령,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가 계약당사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연령대와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1인가구의 경우 본인이 계약당사자라고 응답한 비율 84.3%, 뒤이어 부모 10.1%, 기타 4.1% 순으로 높았음. 무자녀 부부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비중이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는 부모가 계약당사자인 비율이 92.0%임
-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주택 계약당사자 '본인' 응답 비율이 69.7%, 서울 태생 청년은 '부모' 응답 비율이 66.7%로 매우 높았음

[표 4-6-5] 주택 계약당사자

[단위: %]

| 구분 | | 부모 | 본인 | 배우자 | 친인척 | 기타 |
|-------------|------------|------|------|------|------|------|
| 전체(n=5,083) | | 48.8 | 39.6 | 4.7 | 3.1 | 3.8 |
| 성별 | 남성 | 50.8 | 40.4 | 2.2 | 2.9 | 3.8 |
| | 여성 | 46.9 | 38.9 | 7.2 | 3.3 | 3.8 |
| 연령 | 19-24세 | 72.7 | 20.7 | 0.4 | 4.0 | 2.3 |
| | 25-29세 | 51.3 | 40.1 | 1.7 | 3.3 | 3.6 |
| | 30-34세 | 31.8 | 50.9 | 9.8 | 2.4 | 5.2 |
| | 35-36세 | 19.5 | 57.8 | 17.7 | 2.5 | 2.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3.7 | 26.9 | 2.3 | 3.7 | 3.4 |
| | 전문대 졸업 | 50.4 | 37.0 | 6.0 | 2.5 | 4.0 |
| | 대학교 졸업 | 38.9 | 48.1 | 5.9 | 2.9 | 4.1 |
| | 대학원 졸업 | 30.7 | 56.2 | 7.4 | 2.7 | 2.9 |
| 가구유형 | 1인가구 | 10.1 | 84.3 | 0.2 | 1.3 | 4.1 |
| | 무자녀 부부가구 | 3.7 | 52.4 | 35.7 | 0.3 | 8.0 |
| | 유자녀 부부가구 | 5.6 | 45.2 | 45.1 | 1.1 | 3.0 |
| | 부모동거 가구 | 92.0 | 4.9 | 0.2 | 2.0 | 1.0 |
| | 기타 가구 | 16.5 | 40.8 | 0.6 | 23.8 | 18.3 |

| 구분 | | | 부모 | 본인 | 배우자 | 친인척 | 기타 |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3.2 | 45.0 | 4.9 | 3.0 | 3.9 |
| | | 실업 | 57.3 | 32.1 | 2.8 | 2.7 | 5.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7.6 | 25.5 | 0.9 | 3.6 | 2.3 |
| | | 비재학 미취업 | 56.9 | 29.7 | 6.7 | 3.4 | 3.3 |
| 주택점유 형태 | 자가 | | 82.2 | 11.1 | 3.9 | 1.7 | 1.1 |
| | 전세 | | 34.0 | 51.3 | 8.0 | 3.0 | 3.7 |
| | 보증부 월세 | | 23.8 | 65.4 | 2.6 | 2.7 | 5.5 |
| | 보증금 없는 월세 | | 27.9 | 41.3 | 2.6 | 14.1 | 14.2 |
| | 무상 | | 73.3 | 3.8 | 2.4 | 13.9 | 6.5 |
| | 기타 | | 74.1 | 6.9 | 3.9 | 6.9 | 8.1 |
| 출신 지역 ¹⁾ | 서울 태생 | | 66.7 | 23.9 | 4.1 | 2.6 | 2.7 |
| | 서울로 이주 | | 14.3 | 69.7 | 6.1 | 4.2 | 5.8 |

주: 1)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2) 주거환경

(1) 주택 구조

- [표 4-6-6]은 방의 구조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1인가구의 경우 69.6%가 원룸형에 거주하고 있으며, 뒤이어 기타 가구 22.3%, 무자녀 부부가구 6.8% 순으로 높았음
- 서울로 이주한 청년의 경우 방 구조 ‘원룸형’ 응답 비율이 53.6%로 과반임

[표 4-6-6] 방의 구조

[단위: %]

| 구분 | | 원룸형 | 원룸형 아님 |
|-------------|------------|------|--------|
| 전체(n=5,083) | | 27.0 | 73.0 |
| 성별 | 남성 | 27.5 | 72.5 |
| | 여성 | 26.4 | 73.6 |
| 연령 | 19-24세 | 21.6 | 78.4 |
| | 25-29세 | 31.6 | 68.4 |
| | 30-34세 | 26.9 | 73.1 |
| | 35-36세 | 17.2 | 82.8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3.2 | 76.8 |
| | 전문대 졸업 | 22.9 | 77.1 |
| | 대학교 졸업 | 30.9 | 69.1 |
| | 대학원 졸업 | 28.3 | 71.7 |

| 구분 | | | 원룸형 | 원룸형 아님 |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69.6 | 30.4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8 | 93.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0.7 | 99.3 |
| | 부모동거 가구 | | 2.3 | 97.7 |
| | 기타 가구 | | 22.3 | 77.7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28.0 | 72.0 |
| | | 실업 | 25.2 | 74.8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5.8 | 74.2 |
| | | 비재학 미취업 | 24.5 | 75.5 |
| 주택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28.1 | 71.9 |
| | 다가구 단독주택 | | 39.4 | 60.6 |
| | 아파트 | | 2.7 | 97.3 |
| | 연립 다세대 ¹⁾ | | 28.2 | 71.8 |
| | 오피스텔 | | 77.8 | 22.2 |
| | 고시원 | | 93.3 | 6.7 |
| | 그 외 거주 ²⁾ | | 60.0 | 40.0 |
| 출신 지역 ³⁾ | 서울 태생 | | 13.1 | 86.9 |
| | 서울로 이주 | | 53.6 | 46.4 |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3)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 [표 4-6-7]은 방 개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방 개수는 2.7개이며, 방 3개(55.6%), 2개(28.7%), 1개(6.7%) 순으로 높았음

[표 4-6-7] 방 개수

[단위: %, 개]

| 구분 | | 방 개수 | | | | | |
|---------------------------|--------|------|------|------|------|-----|-----|
| |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평균 |
| 전체(n=3,713) ¹⁾ | | 6.7 | 28.7 | 55.6 | 8.2 | 0.8 | 2.7 |
| 성별 | 남성 | 5.9 | 29.6 | 55.1 | 8.5 | 0.8 | 2.7 |
| | 여성 | 7.4 | 27.7 | 56.1 | 8.0 | 0.8 | 2.7 |
| 연령 | 19~24세 | 4.0 | 18.1 | 64.2 | 12.4 | 1.4 | 2.9 |
| | 25~29세 | 7.4 | 27.6 | 55.3 | 8.7 | 1.0 | 2.7 |
| | 30~34세 | 8.0 | 36.8 | 49.9 | 5.2 | 0.2 | 2.5 |
| | 35~36세 | 8.0 | 38.8 | 50.4 | 2.8 | 0.0 | 2.5 |

| 구분 | | | 방 개수 | | | | | |
|----------------|----------------------|---------|-------|------|------|------|-----|-----|
| | |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평균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0 | 25.8 | 57.6 | 10.4 | 1.1 | 2.8 |
| | 전문대 졸업 | | 5.9 | 31.5 | 58.0 | 3.9 | 0.7 | 2.6 |
| | 대학교 졸업 | | 7.8 | 29.7 | 54.2 | 7.7 | 0.5 | 2.6 |
| | 대학원 졸업 | | 11.1 | 32.2 | 47.3 | 8.6 | 0.8 | 2.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28.6 | 52.6 | 17.2 | 1.5 | 0.0 | 1.9 |
| | 무자녀 부부가구 | | 8.1 | 51.0 | 39.0 | 1.9 | 0.0 | 2.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8 | 33.6 | 61.5 | 1.1 | 0.0 | 2.6 |
| | 부모동거 가구 | | 2.0 | 16.7 | 67.9 | 12.1 | 1.3 | 2.9 |
| | 기타 가구 | | 5.6 | 56.4 | 36.3 | 1.6 | 0.0 | 2.3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7.5 | 30.7 | 54.0 | 7.2 | 0.6 | 2.6 |
| | | 실업 | 7.4 | 29.5 | 55.5 | 7.1 | 0.5 | 2.6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1 | 17.0 | 61.3 | 15.8 | 1.8 | 2.9 |
| | | 비재학 미취업 | 4.8 | 26.2 | 58.7 | 9.1 | 1.2 | 2.8 |
| 주택 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6.3 | 41.8 | 37.4 | 10.4 | 4.1 | 2.6 |
| | 다가구 단독주택 | | 10.2 | 44.3 | 41.6 | 3.8 | 0.2 | 2.4 |
| | 아파트 | | 4.0 | 17.9 | 64.7 | 12.4 | 0.9 | 2.9 |
| | 연립 다세대 ²⁾ | | 6.0 | 39.0 | 52.0 | 2.6 | 0.4 | 2.5 |
| | 오피스텔 | | 33.4 | 46.0 | 18.4 | 2.3 | 0.0 | 1.9 |
| | 고시원 | | 100.0 | 0.0 | 0.0 | 0.0 | 0.0 | 1.0 |
| | 그 외 거처 ³⁾ | | 22.0 | 27.0 | 45.0 | 6.0 | 0.0 | 2.4 |

주: 1) 주택구조가 원룸형이 아닌 3,713명을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편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표 4-6-8]은 거실 개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거실 개수는 대체로 1개(95.5%)였으며, 0개 3.5%, 2개 이상 1.0% 순이었음
- 거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인가구(10.2%), 기타 가구(6.0%), 무자녀 부부가구(2.4%) 순으로 높았음
-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거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시원(100.0%), 그 외 거처(15.2%), 단독주택(8.3%) 순으로 높았음

[표 4-6-8] 거실 개수

[단위: %]

| 구분 | | | 거실 개수(대청마루 포함) | | |
|---------------------------|----------------------|---------|----------------|------|-------|
| | | | 0개 | 1개 | 2개 이상 |
| 전체(n=3,713) ¹⁾ | | | 3.5 | 95.5 | 1.0 |
| 성별 | 남성 | | 3.2 | 95.7 | 1.1 |
| | 여성 | | 3.8 | 95.2 | 1.0 |
| 연령 | 19~24세 | | 2.9 | 95.3 | 1.8 |
| | 25~29세 | | 3.9 | 95.3 | 0.8 |
| | 30~34세 | | 3.8 | 95.5 | 0.7 |
| | 35~36세 | | 1.9 | 97.8 | 0.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4 | 94.2 | 1.4 |
| | 전문대 졸업 | | 4.2 | 94.8 | 1.0 |
| | 대학교 졸업 | | 2.7 | 96.7 | 0.6 |
| | 대학원 졸업 | | 2.3 | 96.5 | 1.2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10.2 | 89.2 | 0.6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4 | 97.2 | 0.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2 | 98.4 | 0.4 |
| | 부모동거 가구 | | 2.1 | 96.5 | 1.4 |
| | 기타 가구 | | 6.0 | 93.7 | 0.3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3.7 | 95.3 | 1.0 |
| | | 실업 | 3.9 | 95.9 | 0.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3.2 | 95.4 | 1.3 |
| | | 비재학 미취업 | 2.7 | 96.0 | 1.3 |
| 주택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7.5 | 82.5 | 10.0 |
| | 다가구 단독주택 | | 8.3 | 90.9 | 0.8 |
| | 아파트 | | 1.0 | 98.6 | 0.4 |
| | 연립 다세대 ²⁾ | | 5.3 | 93.8 | 0.9 |
| | 오피스텔 | | 2.7 | 97.3 | 0.0 |
| | 고시원 | | 100.0 | 0.0 | 0.0 |
| | 그 외 거주 ³⁾ | | 15.2 | 80.2 | 4.7 |

주: 1) 주택구조가 원룸형이 아닌 3,713명을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표 4-6-9]는 화장실 개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화장실 개수는 1개(58.3%), 2개(41.2%), 3개 이상(0.5%) 순임

[표 4-6-9] 화장실 개수

[단위: %]

| 구분 | | | 화장실 개수 | | |
|---------------------------|----------------------|---------|--------|------|-------|
| | | | 1개 | 2개 | 3개 이상 |
| 전체(n=3,713) ¹⁾ | | | 58.3 | 41.2 | 0.5 |
| 성별 | 남성 | | 58.4 | 41.0 | 0.6 |
| | 여성 | | 58.2 | 41.4 | 0.4 |
| 연령 | 19-24세 | | 48.2 | 51.1 | 0.6 |
| | 25-29세 | | 57.8 | 41.9 | 0.3 |
| | 30-34세 | | 66.0 | 33.4 | 0.6 |
| | 35-36세 | | 64.5 | 35.5 | 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4.6 | 45.1 | 0.3 |
| | 전문대 졸업 | | 65.1 | 34.5 | 0.4 |
| | 대학교 졸업 | | 58.4 | 40.9 | 0.7 |
| | 대학원 졸업 | | 65.8 | 33.8 | 0.4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89.4 | 10.4 | 0.2 |
| | 무자녀 부부가구 | | 76.7 | 23.0 | 0.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9.5 | 40.1 | 0.4 |
| | 부모동거 가구 | | 46.0 | 53.4 | 0.6 |
| | 기타 가구 | | 83.5 | 16.5 | 0.0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0.4 | 39.1 | 0.5 |
| | | 실업 | 58.1 | 41.4 | 0.5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4.1 | 55.7 | 0.2 |
| | | 비재학 미취업 | 57.3 | 42.2 | 0.6 |
| 주택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74.8 | 23.3 | 1.9 |
| | 다가구 단독주택 | | 87.0 | 12.8 | 0.2 |
| | 아파트 | | 40.0 | 59.5 | 0.4 |
| | 연립 다세대 ²⁾ | | 75.1 | 24.5 | 0.3 |
| | 오피스텔 | | 84.8 | 15.2 | 0.0 |
| | 고시원 | | 100.0 | 0.0 | 0.0 |
| | 그 외 거처 ³⁾ | | 81.0 | 14.4 | 4.7 |

주: 1) 주택구조가 원룸형이 아닌 3,713명을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표 4-6-10]은 주택 전용면적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부모동거 가구의 주택 전용면적이 94.0m²로 가장 넓었고, 뒤이어 유자녀 부부가구

71.8m², 무자녀 부부가구 62.7m² 순임

- 주택유형별 전용면적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일반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순으로 높았음

[표 4-6-10] 주택 전용면적

[단위: %, m²]

| 구분 | | | 전용면적 | | | | | | |
|-------------|----------------------|---------|--------|-----------|-----------|-----------|------------|-------------|---------|
| | | | 40㎡ 미만 | 40-50㎡ 미만 | 50-60㎡ 미만 | 60-85㎡ 미만 | 85-102㎡ 미만 | 102-135㎡ 미만 | 135㎡ 이상 |
| 전체(n=5,083) | | | 35.0 | 8.0 | 7.6 | 17.4 | 10.3 | 16.8 | 5.0 |
| 성별 | 남성 | | 34.5 | 8.0 | 7.5 | 17.3 | 11.1 | 16.4 | 5.0 |
| | 여성 | | 35.4 | 7.9 | 7.6 | 17.5 | 9.6 | 17.1 | 4.9 |
| 연령 | 19-24세 | | 25.7 | 5.1 | 5.6 | 17.3 | 14.2 | 25.1 | 7.1 |
| | 25-29세 | | 40.7 | 6.8 | 5.4 | 15.5 | 9.9 | 16.0 | 5.6 |
| | 30-34세 | | 36.2 | 11.0 | 10.8 | 18.9 | 8.1 | 11.9 | 3.1 |
| | 35-36세 | | 29.8 | 11.0 | 12.6 | 23.1 | 9.4 | 12.7 | 1.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8.8 | 7.7 | 6.3 | 17.7 | 12.4 | 20.5 | 6.5 |
| | 전문대 졸업 | | 34.6 | 9.2 | 8.0 | 19.8 | 9.6 | 17.1 | 1.7 |
| | 대학교 졸업 | | 39.5 | 7.4 | 8.0 | 16.7 | 9.1 | 14.6 | 4.7 |
| | 대학원 졸업 | | 38.5 | 10.7 | 10.7 | 16.1 | 8.8 | 9.9 | 5.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81.0 | 8.3 | 3.1 | 4.2 | 2.1 | 0.9 | 0.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2.4 | 17.9 | 15.5 | 31.1 | 5.3 | 5.7 | 2.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8.1 | 12.7 | 20.0 | 34.6 | 8.7 | 15.8 | 0.0 |
| | 부모동거 가구 | | 5.4 | 4.6 | 7.7 | 23.2 | 17.9 | 31.4 | 9.8 |
| | 기타 가구 | | 41.5 | 16.8 | 12.0 | 18.2 | 5.3 | 5.7 | 0.6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7.0 | 8.6 | 8.3 | 17.1 | 9.7 | 15.2 | 4.1 |
| | | 실업 | 35.2 | 8.3 | 6.3 | 17.9 | 9.4 | 17.0 | 5.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0.9 | 4.4 | 3.5 | 15.6 | 12.6 | 24.8 | 8.1 |
| | | 비재학 미취업 | 29.6 | 7.0 | 7.0 | 19.1 | 11.9 | 18.9 | 6.5 |
| 주택 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39.4 | 8.3 | 7.3 | 20.3 | 8.7 | 8.0 | 8.2 |
| | 다가구 단독주택 | | 53.4 | 13.3 | 8.4 | 12.5 | 6.5 | 4.2 | 1.6 |
| | 아파트 | | 4.4 | 3.7 | 7.9 | 22.9 | 14.9 | 36.5 | 9.7 |
| | 연립 다세대 ¹⁾ | | 43.3 | 12.6 | 9.7 | 18.0 | 10.3 | 4.4 | 1.7 |
| | 오피스텔 | | 83.0 | 6.9 | 2.7 | 4.2 | 1.5 | 1.6 | 0.2 |
| | 고시원 |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그 외 거처 ²⁾ | | 67.7 | 4.1 | 0.8 | 14.2 | 6.6 | 3.1 | 3.4 |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표 4-6-11]은 최저주거기준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9.8%이며, 여성(9.4%)보다는 남성(10.2%)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학력이 낮을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기타 가구 17.2%, 유자녀 부부가구 17.1%, 부모동거 가구 12.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거주하고 있음
 - 유자녀 부부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최저주거기준에서 자녀는 6세(3인 가구), 8세(4인 가구) 이상이 기준인데, 유자녀 부부가구는 더욱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커 미달률이 더 높아졌을 수 있음
-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고시원 45.4%, 그 외 거처 25.2%, 일반 단독주택 14.1%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된 상태였음

[표 4-6-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 구분 | | | 최저주거기준 충족 | 최저주거기준 미달 ¹⁾ |
|-------------|------------|---------|-----------|-------------------------|
| 전체(n=5,083) | | | 90.2 | 9.8 |
| 성별 | 남성 | | 89.8 | 10.2 |
| | 여성 | | 90.6 | 9.4 |
| 연령 | 19-24세 | | 88.8 | 11.2 |
| | 25-29세 | | 89.4 | 10.6 |
| | 30-34세 | | 92.4 | 7.6 |
| | 35-36세 | | 88.9 | 11.1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87.6 | 12.4 |
| | 전문대 졸업 | | 88.3 | 11.7 |
| | 대학교 졸업 | | 92.0 | 8.0 |
| | 대학원 졸업 | | 96.9 | 3.1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94.9 | 5.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97.3 | 2.7 |
| | 유자녀 부부가구 | | 82.9 | 17.1 |
| | 부모동거 가구 | | 87.8 | 12.2 |
| | 기타 가구 | | 82.8 | 17.2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91.1 | 8.9 |
| | | 실업 | 86.9 | 13.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91.5 | 8.5 |
| | | 비재학 미취업 | 88.1 | 11.9 |

| 구분 | | 최저주거기준 충족 | 최저주거기준 미달 ¹⁾ |
|------|----------------------|-----------|-------------------------|
| 주택유형 | 일반 단독주택 | 85.9 | 14.1 |
| | 다가구 단독주택 | 90.0 | 10.0 |
| | 아파트 | 92.5 | 7.5 |
| | 연립 다세대 ²⁾ | 90.8 | 9.2 |
| | 오피스텔 | 88.5 | 11.5 |
| | 고시원 | 54.6 | 45.4 |
| | 그 외 거처 ³⁾ | 74.8 | 25.2 |

주: 1) 현행 국토교통부 산정방식을 활용하였음. 단, 이 조사에서 시설의 단독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 개수 기준과 총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해 미달가구를 산출하였음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참고]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산정방식 | | | |
|--|------------|---------|------------------------|
| 가구원 수(인) | 표준 가구구성 | 실(방) 구성 | 총주거면적(m ²) |
| 1 | 1인가구 | 1K | 14 |
| 2 | 부부 | 1DK | 26 |
| 3 | 부부+자녀1 | 2DK | 36 |
| 4 | 부부+자녀2 | 3DK | 43 |
| 5 | 부부+자녀3 | 3DK | 46 |
| 6 | 노부모+부부+자녀2 | 4DK | 55 |
| ※ 시설 단독사용 기준: 상·하수도, 주방(식당), 화장실, 목욕시설, 거실 중 하나라도 단독사용이 아닌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산정함 | | | |

(3) 주거지 상태

- [표 4-6-12]는 주거지 상태 평가(개별 문항)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이며, 매우 불량+조금 불량을 합산한 비율임
- 주거지 상태 중 환기상태 불량 정도가 20.2%로 가장 높았고,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상태(19.0%), 채광상태(15.7%), 냉방상태(8.1%) 순임
-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가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0%임. 여성(21.6%), 유자녀 부부가구(23.3%)와 1인가구(20.8%), 일반 단독가구(27.3%)와 고시원(27.2%)에서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환기상태가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임. 여성(22.4%),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24.8%), 고시원(38.4%)과 일반 단독가구(30.6%)에서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채광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임. 여성(16.3%),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22.6%), 고시원(40.7%)에서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냉방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임. 남성(8.9%), 학력이 낮을수록, 1인가구(10.3%), 고시원(14.5%)에서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6-12] 주거지 상태 평가

[단위: %]

| 구분 | | | 구조물,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 환기상태 | 채광상태 | 냉방상태 |
|---------------------------|------------|---------|------------------------|------|------|------|
| 전체(n=5,083) ¹⁾ | | | 19.0 | 20.2 | 15.7 | 8.1 |
| 성별 | 남성 | | 16.3 | 18.0 | 15.0 | 8.9 |
| | 여성 | | 21.6 | 22.4 | 16.3 | 7.4 |
| 연령 | 19-24세 | | 14.3 | 14.0 | 11.3 | 5.4 |
| | 25-29세 | | 18.8 | 21.6 | 17.0 | 9.4 |
| | 30-34세 | | 21.9 | 22.7 | 17.3 | 8.8 |
| | 35-36세 | | 25.8 | 25.7 | 18.1 | 7.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8.0 | 18.8 | 15.2 | 9.0 |
| | 전문대 졸업 | | 23.6 | 24.6 | 16.3 | 9.7 |
| | 대학교 졸업 | | 18.3 | 20.2 | 16.2 | 7.2 |
| | 대학원 졸업 | | 19.5 | 19.6 | 13.6 | 6.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20.8 | 24.8 | 22.6 | 10.3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9.6 | 17.8 | 16.6 | 7.0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3.3 | 21.5 | 11.7 | 5.3 |
| | 부모동거 가구 | | 17.3 | 17.1 | 10.4 | 6.8 |
| | 기타 가구 | | 18.2 | 20.7 | 19.7 | 9.9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9.8 | 20.5 | 16.0 | 7.9 |
| | | 실업 | 20.5 | 25.6 | 19.3 | 11.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1.0 | 12.5 | 11.1 | 4.2 |
| | | 비재학 미취업 | 19.1 | 20.4 | 15.0 | 9.4 |
| 주택 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27.3 | 30.6 | 21.9 | 12.4 |
| | 다가구 단독주택 | | 25.0 | 29.5 | 27.7 | 11.2 |
| | 아파트 | | 14.3 | 11.6 | 5.9 | 5.5 |
| | 연립 다세대2) | | 24.0 | 28.5 | 22.9 | 9.9 |
| | 오피스텔 | | 12.1 | 14.6 | 15.5 | 6.8 |
| | 고시원 | | 27.2 | 38.4 | 40.7 | 14.5 |
| | 그 외 거처3) | | 25.9 | 24.0 | 14.3 | 13.0 |

주: 1) 매우불량+조금불량을 합산한 비율로 보고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표 4-6-13]은 주거지 상태 평가(개별 문항)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이며, 매우 불량과 조금 불량을 합산한 비율임
- 소음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6%이고, 1인가구에서 소음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높았음
- 주택유형별로는 고시원 거주자 57.3%, 오피스텔 거주자 33.7%,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 30.5%임
- 재난/재해 안정성이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4%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기타 가구 10.5%, 1인가구 9.3% 순으로 높았음
- 고시원 거주자의 19.7%가 재난, 재해 안정성 불량을 보고했고, 뒤이어 일반 단독주택 거주자 14.3%,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 13.8% 순으로 높았음
- 화재로부터의 안정성 불량을 응답한 비율은 13.3%이며, 가구유형별로는 기타 가구 17.0%, 1인가구 15.4%, 부모동거 가구 11.9% 순으로 높았음
-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다가구 단독주택 22.0%, 일반 단독주택 21.5%, 연립 다세대 20.2%가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이 불량하다고 응답함
- 방법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이며, 남성(13.7%) 보다는 여성(16.6%)이 방법상태 불량을 보고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유형별로는 기타 가구 20.5%, 1인가구 17.9%, 부모동거 가구 13.1% 순으로 높았음
- 위생상태가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이며, 성별로는 남성 16.7%, 여성 18.6%가 위생상태 불량이라고 응답함. 가구유형별 위생상태가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 20.3%, 1인가구 19.6%, 기타 가구 18.5% 순으로 높았음

[표 4-6-13] 주거지 상태 평가(계속)

[단위: %]

| 구분 | | 소음 | 재난, 재해 안전성 | 화재로부터 의 안전성 | 방법상태 | 위생상태 |
|---------------------------|--------|------|---------------|----------------|------|------|
| 전체(n=5,083) ¹⁾ | | 25.6 | 8.4 | 13.3 | 15.2 | 17.7 |
| 성별 | 남성 | 24.5 | 8.6 | 12.1 | 13.7 | 16.7 |
| | 여성 | 26.8 | 8.3 | 14.5 | 16.6 | 18.6 |
| 연령 | 19-24세 | 21.6 | 7.0 | 10.9 | 12.5 | 15.0 |
| | 25-29세 | 27.1 | 9.4 | 13.2 | 15.8 | 18.1 |
| | 30-34세 | 27.2 | 8.5 | 15.5 | 16.6 | 18.7 |
| | 35-36세 | 24.9 | 7.7 | 11.8 | 13.7 | 21.2 |

| 구분 | | | 소음 | 재난, 재해 안전성 | 화재로부터 의 안전성 | 방법상태 | 위생상태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2.8 | 8.9 | 13.0 | 14.9 | 17.6 |
| | 전문대 졸업 | | 30.8 | 9.7 | 16.7 | 20.6 | 23.0 |
| | 대학교 졸업 | | 26.3 | 7.7 | 12.5 | 14.0 | 15.9 |
| | 대학원 졸업 | | 26.2 | 8.3 | 14.0 | 13.4 | 19.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2.3 | 9.3 | 15.4 | 17.9 | 19.6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1.7 | 7.9 | 10.6 | 12.6 | 15.9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2.4 | 6.1 | 11.1 | 12.5 | 20.3 |
| | 부모동거 가구 | | 21.6 | 7.9 | 11.9 | 13.1 | 16.1 |
| | 기타 가구 | | 25.9 | 10.5 | 17.0 | 20.5 | 18.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5.4 | 8.2 | 14.1 | 15.5 | 18.0 |
| | | 실업 | 28.5 | 10.3 | 15.0 | 20.3 | 21.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1.4 | 6.6 | 7.4 | 10.1 | 10.8 |
| | | 비재학 미취업 | 27.2 | 9.3 | 12.6 | 13.9 | 17.6 |
| 주택 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24.0 | 14.3 | 21.5 | 21.0 | 24.6 |
| | 다가구 단독주택 | | 30.5 | 13.8 | 22.0 | 26.2 | 25.6 |
| | 아파트 | | 18.4 | 5.1 | 6.4 | 8.4 | 11.8 |
| | 연립 다세대 ²⁾ | | 29.2 | 10.7 | 20.2 | 21.0 | 24.2 |
| | 오피스텔 | | 33.7 | 5.3 | 7.2 | 9.5 | 10.0 |
| | 고시원 | | 57.3 | 19.7 | 19.7 | 23.9 | 32.3 |
| | 그 외 거주 ³⁾ | | 28.4 | 13.3 | 18.1 | 19.9 | 20.7 |

주: 1) 매우 불량+조금 불량을 합산한 비율로 보고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검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4) 주거불안

- [표 4-6-14]는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며, 불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임

[표 4-6-14]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n=5,083) | 있음 | 없음 | 합계 |
|---------------|------|------|-------|
|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 19.7 | 80.3 | 100.0 |

- [표 4-6-15]는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1순위와 2순위를 분석한 결과임
-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1순위는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29.2%,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

생' 24.8%,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15.0% 순으로 높았음

-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2순위는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23.1%,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18.7%,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안전·건강문제 발생' 14.6% 순으로 높았음

[표 4-6-15] 최근 1년간 경험한 주거불안 상황

[단위: %]

| 주거불안 내용 | | 1순위 ¹⁾ (n=1,003) | 2순위 ²⁾ (n=428) |
|------------|---|--------------------------------|------------------------------|
| 주거비용 관련 |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 29.2 | 18.7 |
| |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 15.0 | 23.1 |
| | 보증금 반환 위험 | 11.1 | 13.5 |
| |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 6.9 | 9.2 |
| |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 5.6 | 2.5 |
| |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 1.8 | 5.1 |
| 그 외 |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위험) | 24.8 | 14.6 |
| |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 3.6 | 7.8 |
| |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취약계층, 유아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 2.1 | 5.6 |

주: 1) 주거불안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1,003명을 분석함

2) 2순위 응답자 428명을 분석함

(5) 이사 계획

- [표 4-6-16]은 2023년에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청년은 10.2%이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30.5%임
- 성별로는 남성(10.6%)이 여성(9.7%)보다 이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30-34세 청년이 이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부부가구(14.6%)에서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실업자가 11.5%로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이 8.6%로 가장 낮았음

[표 4-6-16] 서울 이외 지역 이사 계획 유무

[단위: %]

| 구분 | |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
|-------------|----------------------|---------|------|------|--------|
| 전체(n=5,083) | | | 10.2 | 59.3 | 30.5 |
| 성별 | 남성 | | 10.6 | 58.2 | 31.2 |
| | 여성 | | 9.7 | 60.4 | 29.9 |
| 연령 | 19-24세 | | 8.2 | 60.9 | 30.9 |
| | 25-29세 | | 10.3 | 57.4 | 32.3 |
| | 30-34세 | | 11.7 | 59.3 | 29.0 |
| | 35-36세 | | 8.5 | 66.9 | 24.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9.2 | 58.8 | 32.0 |
| | 전문대 졸업 | | 11.8 | 53.2 | 34.9 |
| | 대학교 졸업 | | 10.1 | 61.0 | 28.9 |
| | 대학원 졸업 | | 12.4 | 63.3 | 24.4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12.1 | 57.4 | 30.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1.9 | 66.2 | 21.9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4.6 | 62.5 | 22.9 |
| | 부모동거 가구 | | 7.9 | 60.6 | 31.5 |
| | 기타 가구 | | 11.4 | 51.0 | 37.6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0.1 | 60.6 | 29.3 |
| | | 실업 | 11.5 | 55.7 | 32.8 |
| | 비경제활동 | 재학 | 8.6 | 65.7 | 25.6 |
| | | 비재학 미취업 | 10.4 | 53.6 | 36.0 |
| 주택유형 | 일반 단독주택 | | 12.4 | 49.5 | 38.0 |
| | 다가구 단독주택 | | 12.8 | 54.4 | 32.8 |
| | 아파트 | | 6.9 | 66.0 | 27.1 |
| | 연립 다세대 ¹⁾ | | 11.1 | 55.2 | 33.7 |
| | 오피스텔 | | 14.4 | 58.9 | 26.7 |
| | 고시원 | | 4.9 | 43.1 | 51.9 |
| | 그 외 거주 ²⁾ | | 15.1 | 48.0 | 37.0 |

주: 1)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영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 [표 4-6-17]은 서울 이외 지역 이사 계획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서울 이외 지역의 이사 계획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27.1%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관련 24.0%, 거주 환경 개선 15.1%, 결혼, 독립 등 14.4%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여성이 ‘자녀 외 동거가족 관련’, ‘일자리 관련’, ‘내 집 마련하여서’ 응답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일자리 관련’, ‘주거 지원을 받게 되어서’, ‘기타’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고, ‘결혼, 독립 등’, ‘경제적 이유’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에서 일자리 관련이 가장 높았고,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가구에서는 내집 마련이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재학생은 일자리 관련이 가장 높았으며,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았음

[표 4-6-17] 서울 이외 지역 이사 계획 이유

[단위: %]

| 구분 | | 자녀 교육, 보육 환경 | 자녀 외 동거가족 관련 | 일자리 관련 | 거주 환경 개선 | 결혼, 독립 등 | 경제적 이유 | 내 집 마련 하여서 | 주거지원 받게 되어서 | 기타 | |
|-------------------------|----------------------|-----------------------|--------------------|-----------|----------------|-------------|-----------|------------------|-------------------|------|-----|
| 전체(n=516) ¹⁾ | | 1.9 | 2.8 | 24.0 | 15.1 | 14.4 | 27.1 | 9.0 | 1.0 | 4.7 | |
| 성별 | 남성 | 2.1 | 2.0 | 23.0 | 15.3 | 14.6 | 27.7 | 8.9 | 1.6 | 4.9 | |
| | 여성 | 1.6 | 3.7 | 25.0 | 14.9 | 14.3 | 26.4 | 9.0 | 0.4 | 4.6 | |
| 연령 | 19-24세 | 0.0 | 3.6 | 25.1 | 20.0 | 7.0 | 25.1 | 7.6 | 2.2 | 9.4 | |
| | 25-29세 | 1.7 | 4.1 | 24.8 | 12.6 | 17.4 | 25.8 | 6.7 | 1.1 | 5.7 | |
| | 30-34세 | 3.1 | 1.4 | 24.1 | 14.8 | 14.3 | 28.3 | 11.8 | 0.4 | 1.7 | |
| | 35-36세 | 0.0 | 0.0 | 5.5 | 17.6 | 28.2 | 39.2 | 9.5 | 0.0 | 0.0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0 | 4.2 | 25.6 | 12.5 | 10.7 | 28.0 | 7.7 | 0.7 | 8.6 | |
| | 전문대 졸업 | 2.7 | 2.5 | 20.3 | 13.5 | 21.2 | 24.4 | 14.1 | 0.0 | 1.3 | |
| | 대학교 졸업 | 1.8 | 2.0 | 20.2 | 18.2 | 14.0 | 28.7 | 9.5 | 1.7 | 3.9 | |
| | 대학원 졸업 | 0.0 | 2.2 | 49.7 | 11.0 | 19.4 | 17.7 | 0.0 | 0.0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0.5 | 2.3 | 30.3 | 14.2 | 11.7 | 29.4 | 4.8 | 1.0 | 5.8 | |
| | 무자녀 부부가구 | 0.0 | 7.4 | 21.9 | 18.7 | 7.6 | 19.2 | 25.3 | 0.0 | 0.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17.3 | 2.4 | 15.5 | 15.5 | 0.0 | 23.4 | 26.0 | 0.0 | 0.0 | |
| | 부모동거 가구 | 1.1 | 2.7 | 19.3 | 16.0 | 21.4 | 24.6 | 8.4 | 1.6 | 4.9 | |
| | 기타 가구 | 0.0 | 1.9 | 23.3 | 11.9 | 15.9 | 37.5 | 1.8 | 0.0 | 7.6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4 | 1.1 | 22.0 | 13.1 | 17.8 | 29.5 | 9.5 | 1.3 | 4.4 |
| | | 실업 | 4.5 | 3.8 | 23.5 | 10.8 | 23.1 | 24.6 | 4.3 | 0.0 | 5.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0.0 | 5.6 | 39.7 | 26.0 | 6.5 | 10.3 | 8.4 | 0.0 | 3.5 |
| | | 비재학 미취업 | 3.0 | 7.3 | 25.5 | 20.1 | 1.6 | 25.9 | 9.4 | 1.0 | 6.2 |
| 주택 유형 | 일반 단독주택 | 4.1 | 0.0 | 18.4 | 21.9 | 11.4 | 36.7 | 3.8 | 3.7 | 0.0 | |
| | 다가구 단독주택 | 1.4 | 3.8 | 27.6 | 13.9 | 11.6 | 29.6 | 7.3 | 0.0 | 4.8 | |
| | 아파트 | 4.4 | 3.4 | 23.3 | 13.4 | 13.5 | 22.7 | 12.8 | 1.4 | 5.2 | |
| | 연립 다세대 ¹⁾ | 0.8 | 1.4 | 19.3 | 15.8 | 17.4 | 30.5 | 9.6 | 1.5 | 3.7 | |
| | 오피스텔 | 0.0 | 4.0 | 29.5 | 16.5 | 14.9 | 22.7 | 6.9 | 0.0 | 5.6 | |
| | 고시원 | 0.0 | 48.9 | 0.0 | 51.1 | 0.0 | 0.0 | 0.0 | 0.0 | 0.0 | |
| | 그 외 거주 ²⁾ | 0.0 | 0.0 | 39.1 | 6.8 | 11.1 | 29.8 | 0.0 | 0.0 | 13.2 | |

주: 1)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516명을 분석함

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영업 겸용 단독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기숙사+기타

3) 주거비용

(1) 자가 및 전세

- [표 4-6-18]은 자가 가격을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자가액은 8억 5천 7백 7십 3만 원이며, 분포 비율은 10억 원 이상(34.6%), 5억 -7억 원 미만(16.0%), 7-9억 원 미만(15.7%)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 평균 자가액은 동남권(12억 7천 3백 8십만 원), 도심권(9억 6천 8백 8십 1만 원), 서남권(7억 6천 7십 4만 원)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 자가 가격을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8억 9천 4백 5십 8만 원), 유자녀 부부가구(8억 9천 2백 3만 원), 무자녀 부부가구(7억 4천 7백 7십 6만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6-18] 자가 가격

[단위: %, 만 원]

| 구분 | | 1억 원 미만 | 1억-3억 원 미만 | 3억-5억 원 미만 | 5억-7억 원 미만 | 7억-9억 원 미만 | 9억-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 편차 |
|---------------------------|------------|---------|------------|------------|------------|------------|-------------|----------|-----------|-----------|----------|
| 전체(n=1,589) ¹⁾ | | 0.5 | 12.3 | 14.1 | 16.0 | 15.7 | 6.8 | 34.6 | 85,773.3 | 78,721.3 | 60,882.4 |
| 권역 | 도심권 | 0.0 | 13.9 | 12.2 | 17.9 | 8.4 | 2.8 | 44.8 | 96,881.2 | 80,000.0 | 67,121.9 |
| | 동북권 | 0.7 | 11.2 | 16.1 | 22.8 | 19.9 | 7.6 | 21.7 | 69,334.2 | 65,000.0 | 37,531.7 |
| | 서북권 | 1.0 | 17.0 | 14.8 | 14.3 | 18.9 | 6.4 | 27.6 | 74,496.7 | 72,135.5 | 47,817.5 |
| | 서남권 | 0.4 | 15.4 | 14.3 | 14.8 | 16.5 | 6.6 | 31.9 | 76,074.5 | 70,000.0 | 47,756.3 |
| | 동남권 | 0.3 | 6.4 | 10.8 | 8.6 | 8.1 | 6.7 | 59.0 | 127,380.7 | 100,000.0 | 85,824.4 |
| 성별 | 남성 | 0.4 | 12.0 | 13.3 | 16.3 | 16.9 | 6.6 | 34.4 | 86,993.1 | 80,000.0 | 62,825.1 |
| | 여성 | 0.7 | 12.5 | 14.8 | 15.7 | 14.6 | 6.9 | 34.8 | 84,548.5 | 75,000.0 | 58,881.4 |
| 연령 | 19-24세 | 0.2 | 9.8 | 11.0 | 12.7 | 16.4 | 6.6 | 43.4 | 95,533.4 | 85,900.1 | 64,815.0 |
| | 25-29세 | 0.6 | 11.7 | 13.4 | 17.6 | 16.4 | 8.2 | 32.2 | 86,127.7 | 76,326.1 | 62,710.3 |
| | 30-34세 | 0.9 | 15.4 | 18.6 | 16.8 | 12.9 | 5.1 | 30.2 | 76,924.4 | 60,500.0 | 54,553.1 |
| | 35-36세 | 0.0 | 14.2 | 10.5 | 21.8 | 25.3 | 7.9 | 20.3 | 72,329.5 | 70,000.0 | 43,377.8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0.5 | 11.6 | 11.2 | 13.3 | 16.1 | 7.2 | 40.2 | 92,745.3 | 80,000.0 | 64,662.7 |
| | 전문대 졸업 | 0.9 | 14.0 | 22.9 | 16.3 | 17.5 | 6.2 | 22.2 | 65,958.2 | 60,000.0 | 41,280.6 |
| | 대학교 졸업 | 0.5 | 12.0 | 13.6 | 18.4 | 15.8 | 6.5 | 33.3 | 84,858.2 | 75,000.0 | 58,741.1 |
| | 대학원 졸업 | 0.0 | 15.3 | 17.0 | 17.4 | 8.2 | 7.4 | 34.6 | 91,097.3 | 68,711.1 | 77,229.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1 | 34.0 | 16.2 | 22.1 | 9.4 | 3.0 | 14.1 | 54,750.7 | 45,299.9 | 43,970.6 |
| | 무자녀 부부가구 | 0.0 | 4.1 | 19.4 | 25.3 | 22.8 | 4.7 | 23.7 | 74,776.0 | 70,000.0 | 38,218.8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2.5 | 16.5 | 14.2 | 26.3 | 4.7 | 35.8 | 89,203.3 | 80,000.0 | 47,401.8 |
| | 부모동거 가구 | 0.6 | 11.5 | 13.1 | 14.8 | 15.2 | 7.4 | 37.4 | 89,458.5 | 80,000.0 | 63,213.0 |
| | 기타 가구 | 0.0 | 18.3 | 23.7 | 23.6 | 12.5 | 4.0 | 18.0 | 63,950.7 | 50,000.0 | 55,225.8 |

| 구분 | | | 1억 원 미만 | 1억- 3억 원 미만 | 3억- 5억 원 미만 | 5억- 7억 원 미만 | 7억- 9억 원 미만 | 9억-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 편차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중 | 취업 | 0.5 | 13.1 | 15.3 | 17.2 | 14.9 | 7.0 | 31.9 | 81,896.1 | 70,000.0 | 58,624.6 |
| | | 실업 | 1.9 | 20.8 | 13.8 | 14.2 | 13.2 | 10.0 | 26.3 | 72,517.6 | 68,648.7 | 52,822.6 |
| | 비경제활동 중 | 재학 | 0.0 | 6.8 | 7.8 | 12.5 | 12.5 | 5.1 | 55.2 | 110,151.0 | 100,000.0 | 70,447.1 |
| | | 비재학 미취업 | 0.3 | 9.7 | 13.6 | 14.8 | 21.0 | 5.6 | 34.9 | 89,651.2 | 80,000.0 | 61,607.3 |

주: 1) 자가 거주자 1,589명을 분석함

- [표 4-6-19]는 전세 보증금을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3천 6백 2십 7만 원이며 분포로는 1억-3억 원 미만 52.3%, 1억 원 미만 22.0%, 3억-5억 원 미만 14.5%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동남권이 3억 3천 8백 4십 5만원으로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심권 2억 4천 9백 5십 2만 원, 서북권 2억 3천 2십 3만 원 순으로 높았음
- 연령별 전세 보증금은 35-36세가 2억 7천 9백 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9-24세 2억 7천 4백 6십 6만 원, 30-34세 2억 2천 8백 2만 원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부모동거 가구가 3억 2천 6백 5십 5만 원, 무자녀 부부가구 3억 1천 6백 8만 원, 유자녀 부부가구 2억 9천 6백 4십 9만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6-19] 전세 보증금

[단위: %, 만 원]

| | | 1억 원 미만 | 1억- 3억 원 미만 | 3억- 5억 원 미만 | 5억- 7억 원 미만 | 7억- 9억 원 미만 | 9억-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편차 |
|---------------------------|-----|---------------|-------------------|-------------------|-------------------|-------------------|-----------------------|----------------|----------|----------|----------|
| 전체(n=1,537) ¹⁾ | | 22.0 | 52.3 | 14.5 | 6.0 | 3.0 | 0.6 | 1.6 | 23,627.7 | 18,000.0 | 22,355.8 |
| 권 역 | 도심권 | 20.9 | 50.5 | 14.6 | 8.2 | 3.5 | 0.0 | 2.3 | 24,952.6 | 17,975.0 | 24,233.7 |
| | 동북권 | 27.7 | 51.3 | 12.7 | 5.9 | 1.9 | 0.6 | 0.0 | 20,272.4 | 16,000.0 | 16,270.6 |
| | 서북권 | 21.9 | 53.6 | 14.4 | 4.7 | 2.3 | 1.0 | 2.1 | 23,023.8 | 16,000.0 | 22,296.7 |
| | 서남권 | 24.3 | 56.6 | 11.4 | 4.2 | 2.5 | 0.2 | 0.7 | 20,619.0 | 15,500.0 | 18,624.1 |
| | 동남권 | 10.6 | 45.0 | 23.0 | 9.6 | 5.7 | 1.2 | 4.9 | 33,845.5 | 25,000.0 | 30,822.4 |
| 성 별 | 남성 | 24.6 | 52.2 | 13.5 | 4.6 | 3.0 | 0.5 | 1.5 | 22,579.2 | 16,827.8 | 22,642.9 |
| | 여성 | 19.6 | 52.4 | 15.4 | 7.2 | 3.0 | 0.6 | 1.7 | 24,581.3 | 18,000.0 | 22,062.3 |

| | | 1억 원 미만 | 1억- 3억 원 미만 | 3억- 5억 원 미만 | 5억- 7억 원 미만 | 7억- 9억 원 미만 | 9억-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편차 |
|----------------|--------------|---------------|----------------------|----------------------|----------------------|----------------------|-----------------------|----------------|----------|----------|----------|
| 연령 | 19-24세 | 29.9 | 37.8 | 11.8 | 9.8 | 6.8 | 0.4 | 3.5 | 27,466.6 | 16,854.3 | 31,017.7 |
| | 25-29세 | 24.1 | 53.9 | 11.0 | 6.1 | 2.7 | 0.5 | 1.7 | 22,033.7 | 15,000.0 | 21,182.9 |
| | 30-34세 | 17.6 | 57.3 | 18.1 | 4.5 | 1.3 | 0.5 | 0.6 | 22,802.5 | 19,800.0 | 17,795.5 |
| | 35-36세 | 16.1 | 50.7 | 19.8 | 3.9 | 4.9 | 2.3 | 2.3 | 27,909.0 | 21,510.2 | 25,599.2 |
| 학력 | 고등학교졸업 이하 | 30.3 | 42.6 | 12.5 | 6.9 | 5.1 | 0.5 | 2.1 | 23,817.4 | 15,000.0 | 25,874.4 |
| | 전문대 졸업 | 23.4 | 55.9 | 13.7 | 5.4 | 0.5 | 0.6 | 0.5 | 21,173.1 | 18,000.0 | 19,707.0 |
| | 대학교 졸업 | 18.0 | 56.9 | 14.7 | 5.8 | 2.6 | 0.6 | 1.4 | 23,697.8 | 18,000.0 | 20,481.8 |
| | 대학원 졸업 | 16.6 | 50.0 | 23.2 | 4.7 | 1.8 | 0.8 | 2.9 | 26,684.6 | 20,000.0 | 24,944.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1.6 | 64.1 | 3.5 | 0.4 | 0.2 | 0.0 | 0.2 | 14,168.7 | 12,500.0 | 9,837.7 |
| | 무자녀 부부가구 | 5.8 | 47.0 | 34.8 | 8.7 | 2.4 | 0.0 | 1.2 | 31,608.7 | 28,690.1 | 19,218.1 |
| | 유자녀 부부가구 | 6.7 | 50.2 | 31.2 | 9.0 | 2.0 | 0.0 | 0.9 | 29,649.4 | 27,154.5 | 16,422.4 |
| | 부모동거 가구 | 19.4 | 36.3 | 18.3 | 12.5 | 7.9 | 1.7 | 4.0 | 32,655.8 | 22,000.0 | 30,459.0 |
| | 기타 가구 | 16.4 | 62.4 | 16.1 | 3.4 | 0.0 | 0.7 | 0.9 | 22,206.0 | 19,000.0 | 21,011.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중 | 취업 | 21.0 | 55.0 | 15.0 | 4.9 | 2.3 | 0.5 | 22,933.1 | 17,850.0 | 21,245.6 |
| | | 실업 | 29.0 | 42.2 | 13.1 | 7.8 | 6.2 | 0.0 | 23,300.3 | 16,000.0 | 22,348.2 |
| | 비경제활동 중 | 재학 | 31.3 | 41.3 | 12.3 | 5.8 | 2.9 | 0.0 | 27,862.9 | 20,000.0 | 36,297.6 |
| | | 비재학 미취업 | 20.8 | 48.5 | 13.9 | 9.9 | 4.7 | 1.4 | 25,347.1 | 18,564.1 | 21,350.4 |

주: 1) 전세 거주자 1,537명을 분석함

- [표 4-6-20]은 전세 관리비를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전세 관리비 평균은 15만 2천 원이며, 분포로는 10만-15만 원 미만 24.1%, 5만-10만 원 미만 21.6%, 5만 원 미만 14.3%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 전세 관리비 평균액은 동남권이 19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 15만 6천원, 동북권 14만 1천원 순이었음

[표 4-6-20] 전세 관리비

[단위: %, 만 원]

| 구분 | | 5만 원 미만 | 5만- 10만 원 미만 | 10만- 15만 원 미만 | 15만- 20만 원 미만 | 20만- 25만 원 미만 | 25만- 3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 | 평균 | 중위 수 | 표준 편차 |
|---------------------------|------------|---------------|-----------------------|------------------------|------------------------|------------------------|------------------------|----------------|------|---------|----------|
| 전체(n=1,545) ¹⁾ | | 14.3 | 21.6 | 24.1 | 11.6 | 11.3 | 3.5 | 13.7 | 15.2 | 10.0 | 16.6 |
| 권역 | 도심권 | 17.5 | 21.4 | 24.2 | 6.6 | 10.3 | 3.0 | 17.0 | 13.5 | 10.0 | 11.7 |
| | 동북권 | 15.4 | 26.1 | 20.2 | 10.1 | 12.3 | 2.9 | 13.1 | 14.1 | 10.0 | 13.4 |
| | 서북권 | 20.3 | 20.5 | 20.2 | 9.5 | 12.2 | 3.6 | 13.7 | 15.6 | 10.0 | 19.0 |
| | 서남권 | 13.6 | 22.6 | 30.6 | 12.0 | 8.5 | 2.6 | 10.3 | 14.0 | 10.0 | 14.8 |
| | 동남권 | 9.3 | 14.4 | 19.1 | 15.6 | 15.2 | 6.2 | 20.2 | 19.1 | 15.0 | 22.0 |
| 성별 | 남성 | 15.8 | 21.1 | 25.6 | 11.3 | 9.6 | 3.7 | 12.8 | 15.2 | 10.0 | 19.6 |
| | 여성 | 12.9 | 22.0 | 22.7 | 11.8 | 12.8 | 3.3 | 14.5 | 15.2 | 10.0 | 13.4 |
| 연령 | 19-24세 | 10.7 | 20.6 | 20.6 | 9.6 | 11.6 | 3.1 | 23.7 | 19.0 | 12.0 | 23.7 |
| | 25-29세 | 13.7 | 23.3 | 26.5 | 10.4 | 10.0 | 2.5 | 13.6 | 14.9 | 10.0 | 15.1 |
| | 30-34세 | 15.5 | 21.0 | 25.1 | 12.9 | 12.0 | 4.5 | 9.1 | 13.3 | 10.0 | 11.0 |
| | 35-36세 | 20.4 | 17.9 | 12.3 | 15.1 | 13.5 | 4.3 | 16.6 | 18.3 | 12.0 | 27.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5.7 | 20.5 | 21.0 | 7.9 | 10.7 | 3.1 | 21.2 | 18.2 | 10.0 | 24.1 |
| | 전문대 졸업 | 20.7 | 17.8 | 26.5 | 8.8 | 11.4 | 2.5 | 12.3 | 13.7 | 10.0 | 13.5 |
| | 대학교 졸업 | 12.5 | 23.8 | 24.8 | 13.0 | 12.1 | 3.4 | 10.4 | 14.0 | 10.0 | 12.3 |
| | 대학원 졸업 | 10.4 | 15.5 | 26.9 | 21.2 | 7.5 | 7.8 | 10.8 | 15.0 | 13.3 | 10.9 |
| 가구유형 | 1인가구 | 16.1 | 32.3 | 31.4 | 9.9 | 5.8 | 1.7 | 2.7 | 10.2 | 10.0 | 8.6 |
| | 무자녀 부부가구 | 12.4 | 15.1 | 24.9 | 21.7 | 13.7 | 6.5 | 5.8 | 14.1 | 13.0 | 9.7 |
| | 유자녀 부부가구 | 11.1 | 18.5 | 10.7 | 16.1 | 19.3 | 8.8 | 15.5 | 18.3 | 15.0 | 18.4 |
| | 부모동거 가구 | 12.7 | 8.2 | 17.1 | 9.9 | 16.5 | 3.8 | 31.8 | 22.2 | 20.0 | 23.3 |
| | 기타 가구 | 16.1 | 29.0 | 23.2 | 8.6 | 9.8 | 2.8 | 10.6 | 12.8 | 10.0 | 12.9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4.8 | 22.3 | 24.9 | 12.3 | 10.2 | 4.0 | 11.5 | 14.3 | 14.7 |
| | 경제활동 | 실업 | 14.2 | 17.6 | 19.4 | 12.3 | 11.9 | 1.6 | 22.9 | 16.9 | 14.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9.2 | 25.2 | 14.9 | 9.9 | 13.8 | 2.2 | 24.7 | 19.1 | 18.0 |
| | 비경제활동 | 비재학 미취업 | 13.5 | 19.0 | 25.6 | 8.7 | 14.9 | 2.5 | 15.8 | 17.0 | 23.2 |

주: 1) 전세 거주자 1,545명을 분석함

(2) 월세

- [표 4-6-21]은 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보증부 월세 보증금의 평균액은 4천 4백 4십 4만 원이며, 분포 비율은 1천만-2천만 원 미만 25.4%, 3천만-6천만 원 미만 20.7%, 6천만 원 이상 20.4%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6천 8백 3십 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 5천 5백 4십 6만 원, 서남권 4천 6십 7만 원 순으로 높음
- 가구유형별로는 유자녀 부부가구 13209.6만 원, 무자녀 부부가구 9495.6만 원, 부모동

거 가구 6976.4만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6-21] 보증부 월세 보증금

[단위: %, 만 원]

| 구분 | | 5백만 원 미만 | 5백만-1천만 원 미만 | 1천만-2천만 원 미만 | 2천만-3천만 원 미만 | 3천만-6천만 원 미만 | 6천만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 편차 |
|---------------------------|------------|----------|--------------|--------------|--------------|--------------|----------|---------|--------|---------|
| 전체(n=1,487) ¹⁾ | | 8.6 | 14.5 | 25.4 | 10.4 | 20.7 | 20.4 | 4444.0 | 2000.0 | 7968.9 |
| 권역 | 도심권 | 5.0 | 10.3 | 30.6 | 10.6 | 19.5 | 24.0 | 5546.2 | 2000.0 | 9573.4 |
| | 동북권 | 8.8 | 19.2 | 25.8 | 11.1 | 21.1 | 14.1 | 3488.6 | 1000.0 | 6470.0 |
| | 서북권 | 6.3 | 15.3 | 31.4 | 7.0 | 21.6 | 18.3 | 3873.8 | 1000.0 | 6899.1 |
| | 서남권 | 10.6 | 14.6 | 23.0 | 10.8 | 20.5 | 20.6 | 4067.3 | 2000.0 | 6452.6 |
| | 동남권 | 7.5 | 7.5 | 23.0 | 10.9 | 20.2 | 30.9 | 6836.2 | 3000.0 | 11778.7 |
| 성별 | 남성 | 10.1 | 17.0 | 24.3 | 10.5 | 18.1 | 19.9 | 4498.0 | 1354.6 | 8791.6 |
| | 여성 | 7.3 | 12.3 | 26.4 | 10.3 | 23.0 | 20.7 | 4395.2 | 2000.0 | 7150.7 |
| 연령 | 19-24세 | 14.9 | 17.0 | 28.1 | 6.7 | 16.6 | 16.6 | 3576.5 | 1000.0 | 6975.3 |
| | 25-29세 | 7.8 | 16.5 | 25.9 | 10.9 | 21.6 | 17.3 | 4013.8 | 1582.3 | 7890.7 |
| | 30-34세 | 5.5 | 10.8 | 22.5 | 12.5 | 22.6 | 26.1 | 5545.9 | 2000.0 | 8769.1 |
| | 35-36세 | 3.2 | 7.2 | 28.1 | 11.2 | 19.2 | 31.1 | 5497.6 | 2603.6 | 5954.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3.5 | 18.4 | 24.4 | 9.4 | 17.4 | 16.8 | 3730.2 | 1000.0 | 6931.6 |
| | 전문대 졸업 | 6.1 | 12.2 | 24.6 | 14.0 | 22.9 | 20.3 | 4257.2 | 2000.0 | 6130.4 |
| | 대학교 졸업 | 6.5 | 13.1 | 26.2 | 9.7 | 22.6 | 21.9 | 4930.2 | 2000.0 | 9104.2 |
| | 대학원 졸업 | 0.9 | 7.0 | 27.3 | 13.3 | 20.7 | 30.8 | 5552.5 | 3000.0 | 8268.4 |
| 가구유형 | 1인가구 | 10.2 | 17.9 | 28.6 | 10.5 | 20.1 | 12.7 | 2707.0 | 1000.0 | 3605.7 |
| | 무자녀 부부가구 | 4.6 | 6.1 | 12.1 | 6.4 | 15.4 | 55.5 | 9495.6 | 8204.1 | 9193.0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4.5 | 9.5 | 6.1 | 12.8 | 67.1 | 13209.6 | 9932.6 | 14144.5 |
| | 부모동거 가구 | 7.2 | 9.7 | 21.0 | 11.1 | 23.1 | 28.0 | 6976.4 | 3000.0 | 12356.8 |
| | 기타 가구 | 6.9 | 12.4 | 27.0 | 10.8 | 22.9 | 20.0 | 4247.5 | 2000.0 | 6832.0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7.4 | 12.8 | 25.1 | 11.5 | 21.0 | 4663.9 | 2000.0 | 8046.4 |
| | | 실업 | 9.4 | 14.7 | 26.5 | 9.1 | 24.7 | 4145.1 | 1500.0 | 7452.8 |
| | 비경제활동 | 재학 | 8.7 | 17.1 | 34.5 | 9.8 | 19.0 | 4211.1 | 1000.0 | 10784.1 |
| | | 비재학 미취업 | 12.9 | 19.6 | 22.1 | 7.1 | 18.3 | 3876.6 | 1000.0 | 6354.7 |

주: 1) 보증부 월세 거주자 1,487명을 분석함

- [표 4-6-22]는 보증부 월세 임대료를 5대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보증부 월세 임대료는 50만 2천 원이며, 분포 비율은 50만 원 이상 47.2%, 40만-50만 원 미만 17.9%, 30만-40만 원 미만 17.8%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62만 5천 원, 도심권 60만 7천 원, 서북권 52만 6천 원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 75만 4천 원, 부모동거 가구 64만 원, 기타 가구 58만 5천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6-22] 보증부 월세 임대료

[단위: %, 만 원]

| 구분 | | | 10만 원 미만 | 10만- 20만 원 미만 | 20만- 30만 원 미만 | 30만- 40만 원 미만 | 40만-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 평균 | 중위 수 | 표준 편차 |
|---------------------------|------------|---------|----------------|------------------------|------------------------|------------------------|------------------------|----------------|------|---------|----------|
| 전체(n=1,495) ¹⁾ | | | 2.7 | 5.1 | 9.3 | 17.8 | 17.9 | 47.2 | 50.1 | 45.0 | 34.1 |
| 권역 | 도심권 | | 2.6 | 3.9 | 0.9 | 14.3 | 18.9 | 59.4 | 60.7 | 50.0 | 47.6 |
| | 동북권 | | 2.1 | 3.5 | 7.2 | 19.7 | 22.8 | 44.9 | 46.7 | 45.0 | 21.4 |
| | 서북권 | | 2.6 | 6.7 | 10.6 | 15.3 | 12.1 | 52.7 | 52.6 | 50.0 | 38.7 |
| | 서남권 | | 3.6 | 6.4 | 12.3 | 19.5 | 20.5 | 37.8 | 43.8 | 40.0 | 24.6 |
| | 동남권 | | 2.1 | 4.8 | 9.0 | 14.6 | 8.4 | 60.9 | 62.5 | 50.8 | 50.3 |
| 성별 | 남성 | | 2.7 | 5.7 | 9.9 | 19.5 | 19.9 | 42.2 | 48.9 | 43.0 | 32.5 |
| | 여성 | | 2.7 | 4.6 | 8.7 | 16.3 | 16.1 | 51.6 | 51.1 | 50.0 | 35.5 |
| 연령 | 19-24세 | | 1.8 | 2.8 | 7.3 | 18.8 | 18.6 | 50.6 | 53.0 | 50.0 | 35.8 |
| | 25-29세 | | 2.4 | 6.2 | 9.0 | 16.9 | 18.3 | 47.0 | 48.6 | 45.0 | 30.8 |
| | 30-34세 | | 3.8 | 5.4 | 10.5 | 18.3 | 18.0 | 44.1 | 49.0 | 43.0 | 33.0 |
| | 35-36세 | | 2.2 | 6.5 | 15.3 | 16.4 | 5.9 | 53.7 | 59.4 | 50.0 | 63.1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2 | 3.9 | 8.7 | 19.7 | 18.0 | 46.4 | 51.3 | 45.0 | 37.4 |
| | 전문대 졸업 | | 1.8 | 4.7 | 7.9 | 20.1 | 16.3 | 49.2 | 49.0 | 45.0 | 31.7 |
| | 대학교 졸업 | | 2.7 | 5.4 | 9.5 | 16.7 | 18.7 | 47.0 | 49.6 | 45.0 | 32.4 |
| | 대학원 졸업 | | 1.2 | 11.5 | 13.9 | 8.8 | 16.0 | 48.6 | 48.6 | 47.6 | 30.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2 | 5.8 | 10.1 | 21.1 | 22.2 | 37.6 | 42.2 | 40.0 | 18.3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1 | 12.5 | 12.7 | 13.6 | 10.0 | 48.1 | 46.7 | 48.5 | 25.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4.4 | 8.7 | 20.2 | 7.3 | 12.4 | 47.1 | 75.4 | 45.0 | 84.1 |
| | 부모동거 가구 | | 2.0 | 3.4 | 6.8 | 14.2 | 10.3 | 63.3 | 64.0 | 50.0 | 49.6 |
| | 기타 가구 | | 0.7 | 1.5 | 5.5 | 11.9 | 15.2 | 65.4 | 58.5 | 60.0 | 23.7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6 | 5.6 | 8.9 | 17.2 | 18.0 | 46.8 | 49.4 | 45.0 | 32.4 |
| | | 실업 | 1.4 | 1.4 | 11.3 | 23.3 | 14.8 | 47.8 | 49.5 | 48.0 | 31.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0.0 | 3.6 | 8.8 | 9.5 | 21.9 | 56.2 | 57.8 | 50.0 | 43.5 |
| | | 비재학 미취업 | 1.2 | 5.9 | 9.7 | 21.1 | 17.6 | 44.4 | 49.6 | 44.0 | 36.6 |

주: 1) 보증부 월세 거주자 1,491명을 분석함

- [표 4-6-23]은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보증부 월세 관리비는 8만 7천 원이며, 분포를 분석한 결과 5만-10만 원 미만 32.7%, 5만 원 미만 26.0%, 10만-15만 원 미만 21.5%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1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 9만 4천 원, 서남권 8만 5천 원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 보증부 월세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 16만 1천 원, 무자녀

부부가구 12만 원, 부모동거 가구 11만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6-23] 보증부 월세 관리비

[단위: %, 만 원]

| 구분 | | | 5만 원 미만 | 5만-10만 원 미만 | 10만-15만 원 미만 | 15만-20만 원 미만 | 20만-25만 원 미만 | 25만-4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 | 평균 | 중위 수 | 표준 편차 |
|---------------------------|------------|---------|---------|-------------|--------------|--------------|--------------|--------------|----------|------|------|-------|
| 전체(n=1,498) ¹⁾ | | | 26.0 | 32.7 | 21.5 | 9.6 | 5.3 | 1.3 | 3.6 | 8.7 | 7.0 | 8.0 |
| 권역 | 도심권 | | 24.7 | 27.9 | 25.9 | 6.0 | 6.4 | 2.5 | 6.5 | 9.4 | 6.0 | 8.9 |
| | 동북권 | | 32.3 | 35.0 | 15.6 | 7.8 | 5.7 | 1.0 | 2.6 | 7.6 | 5.0 | 7.8 |
| | 서북권 | | 28.5 | 28.1 | 25.6 | 9.6 | 3.9 | 0.5 | 3.7 | 8.3 | 6.3 | 7.7 |
| | 서남권 | | 22.4 | 36.3 | 23.4 | 10.2 | 4.8 | 1.0 | 1.9 | 8.5 | 8.0 | 6.2 |
| | 동남권 | | 21.1 | 26.9 | 23.0 | 12.6 | 6.2 | 2.5 | 7.7 | 11.1 | 10.0 | 10.5 |
| 성별 | 남성 | | 28.5 | 32.0 | 19.7 | 9.2 | 5.2 | 0.9 | 4.6 | 8.6 | 6.0 | 8.4 |
| | 여성 | | 23.7 | 33.4 | 23.2 | 9.9 | 5.4 | 1.7 | 2.7 | 8.8 | 7.0 | 7.5 |
| 연령 | 19-24세 | | 28.7 | 35.9 | 20.7 | 6.0 | 5.2 | 0.3 | 3.2 | 7.9 | 5.0 | 8.7 |
| | 25-29세 | | 25.9 | 35.3 | 22.1 | 8.9 | 4.3 | 0.5 | 3.0 | 8.2 | 7.0 | 7.3 |
| | 30-34세 | | 24.0 | 27.4 | 22.1 | 12.6 | 6.3 | 2.9 | 4.6 | 9.8 | 9.0 | 8.1 |
| | 35-36세 | | 27.0 | 27.9 | 13.5 | 15.2 | 8.9 | 2.3 | 5.2 | 9.6 | 8.0 | 8.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0.4 | 32.5 | 19.0 | 8.1 | 5.4 | 0.4 | 4.3 | 8.3 | 5.0 | 8.9 |
| | 전문대 졸업 | | 29.0 | 27.9 | 23.9 | 9.4 | 5.8 | 1.8 | 2.2 | 8.2 | 7.0 | 6.8 |
| | 대학교 졸업 | | 22.6 | 34.3 | 23.2 | 9.6 | 5.4 | 1.7 | 3.2 | 8.9 | 7.0 | 7.5 |
| | 대학원 졸업 | | 17.5 | 33.6 | 19.2 | 18.7 | 2.3 | 2.6 | 6.0 | 10.6 | 9.0 | 7.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22.9 | 42.5 | 23.2 | 9.3 | 1.6 | 0.1 | 0.3 | 7.3 | 6.0 | 5.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2.4 | 28.5 | 19.2 | 18.8 | 14.1 | 2.1 | 5.0 | 12.0 | 10.0 | 7.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6.3 | 12.5 | 12.0 | 18.6 | 11.0 | 12.4 | 17.2 | 16.1 | 15.0 | 11.1 |
| | 부모동거 가구 | | 34.9 | 14.4 | 17.7 | 7.4 | 11.7 | 3.0 | 10.8 | 11.0 | 10.0 | 12.0 |
| | 기타 가구 | | 32.0 | 25.5 | 24.2 | 9.4 | 6.4 | 0.7 | 1.8 | 8.1 | 6.9 | 6.7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6.2 | 31.4 | 21.8 | 10.4 | 5.1 | 1.6 | 3.6 | 8.8 | 7.0 | 7.7 |
| | | 실업 | 24.9 | 36.8 | 18.2 | 9.7 | 7.2 | 0.9 | 2.4 | 8.1 | 6.0 | 6.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5.4 | 41.1 | 18.1 | 8.8 | 1.7 | 0.0 | 5.0 | 8.4 | 5.0 | 10.1 |
| | | 비재학 미취업 | 26.1 | 32.0 | 23.7 | 6.9 | 6.6 | 0.8 | 3.9 | 8.8 | 7.0 | 8.4 |

주: 1) 보증부 월세 거주자 1,495명을 분석함

- [표 4-6-24]는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를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 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 평균액은 44만 8천 원이며, 분포 비율은 50만 원 이상 29.1%, 20만-30만 원 미만 24.4%, 30만-40만 원 미만 20.9%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동남권이 1백 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동북권 43만 3천 원, 서남권 38만 1천 원임
- 성별로는 남성이 40만 9천 원, 여성 48만 6천 원으로 여성의 월세 임대료 금액이 더

높았음

[표 4-6-24] 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료

[단위: %, 만 원]

| 구분 | | 10만 원 미만 | 10만-20만 원 미만 | 20만-30만 원 미만 | 30만-40만 원 미만 | 40만-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 편차 |
|------------------------|------------|----------|--------------|--------------|--------------|--------------|----------|-------|------|-------|
| 전체(n=58) ¹⁾ | | 4.7 | 8.7 | 24.4 | 20.9 | 12.2 | 29.1 | 44.8 | 30.0 | 44.0 |
| 권역 | 도심권 | 38.6 | 28.8 | 9.6 | 0.0 | 0.0 | 23.0 | 30.3 | 14.0 | 43.9 |
| | 동북권 | 4.9 | 4.8 | 34.2 | 14.0 | 18.8 | 23.3 | 43.3 | 34.1 | 40.2 |
| | 서북권 | 0.0 | 13.1 | 11.3 | 26.5 | 26.2 | 22.8 | 36.2 | 37.1 | 13.3 |
| | 서남권 | 0.0 | 8.9 | 28.4 | 25.5 | 5.1 | 32.1 | 38.1 | 30.0 | 20.9 |
| | 동남권 | 0.0 | 0.0 | 0.0 | 42.3 | 0.0 | 57.7 | 104.2 | 69.7 | 101.9 |
| 성별 | 남성 | 5.9 | 10.5 | 32.6 | 16.9 | 15.2 | 18.8 | 40.9 | 29.8 | 49.2 |
| | 여성 | 3.6 | 6.9 | 16.4 | 24.8 | 9.2 | 39.2 | 48.6 | 35.1 | 38.6 |
| 연령 | 19-24세 | 6.3 | 11.9 | 29.5 | 24.6 | 10.8 | 16.9 | 30.7 | 29.9 | 13.4 |
| | 25-29세 | 0.0 | 12.1 | 25.9 | 18.6 | 7.5 | 35.8 | 41.9 | 33.7 | 28.4 |
| | 30-34세 | 11.4 | 0.0 | 18.3 | 13.7 | 22.7 | 33.9 | 66.5 | 40.0 | 74.6 |
| | 35-36세 | 0.0 | 0.0 | 0.0 | 100.0 | 0.0 | 0.0 | 35.0 | 35.0 | 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9 | 16.1 | 26.7 | 14.9 | 14.0 | 24.3 | 35.5 | 30.0 | 22.1 |
| | 전문대 졸업 | 0.0 | 10.1 | 25.2 | 54.0 | 0.0 | 10.8 | 29.3 | 30.0 | 11.9 |
| | 대학교 졸업 | 7.7 | 0.0 | 23.2 | 18.3 | 10.7 | 40.2 | 61.1 | 38.8 | 64.0 |
| | 대학원 졸업 | 0.0 | 0.0 | 0.0 | 0.0 | 57.5 | 42.5 | 48.5 | 50.2 | 15.3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6 | 6.7 | 30.7 | 19.9 | 17.8 | 19.4 | 36.7 | 33.1 | 23.4 |
| | 무자녀 부부가구 | 54.5 | 0.0 | 0.0 | 0.0 | 0.0 | 45.5 | 48.8 | 50.7 | 67.7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0.0 | 0.0 | 100.0 | 0.0 | 0.0 | 30.0 | 30.0 | 0.0 |
| | 부모동거 가구 | 0.0 | 17.2 | 21.1 | 22.6 | 5.2 | 33.8 | 58.6 | 30.0 | 70.8 |
| | 기타 가구 | 0.0 | 0.0 | 16.2 | 14.4 | 10.5 | 58.8 | 47.1 | 50.0 | 17.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취업 | 5.8 | 4.4 | 22.8 | 24.4 | 11.9 | 30.7 | 51.7 | 34.7 | 56.3 |
| | 활동 실업 | 0.0 | 12.0 | 26.8 | 0.0 | 15.6 | 45.6 | 40.1 | 42.8 | 20.2 |
| | 비경제 재학 | 0.0 | 0.0 | 32.0 | 29.3 | 19.7 | 19.0 | 34.5 | 30.9 | 16.6 |
| | 활동 비재학 미취업 | 5.6 | 16.1 | 24.5 | 20.8 | 9.9 | 23.0 | 37.9 | 30.0 | 29.7 |

주: 1) 점유형태가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에 해당되는 응답자 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6-25]는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를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 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월세 관리비는 4만 9천 원이고, 분포 비율은 5만 원 미만 66.8%, 5만-10만 원 미만 15.7% 순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남권(7만 5천 원), 도심권(6만 6천 원), 서북권(3만 6천 원) 순으로 높았음

[표 4-6-25] 보증금 없는 월세 관리비

[단위: %, 만 원]

| 구분 | | 5만 원 미만 | 5만~10만 원 미만 | 10만~15만 원 미만 | 15만~20만 원 미만 | 20만~3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 | 평균 | 중위수 | 표준 편차 | |
|------------------------|------------|---------|-------------|--------------|--------------|--------------|----------|------|------|-------|------|
| 전체(n=51) ¹⁾ | | 66.8 | 15.7 | 3.4 | 7.4 | 2.3 | 4.3 | 4.9 | 0.0 | 9.4 | |
| 권역 | 도심권 | 48.2 | 28.8 | 0.0 | 23.0 | 0.0 | 0.0 | 6.6 | 5.3 | 5.7 | |
| | 동북권 | 67.6 | 16.6 | 9.5 | 0.0 | 6.2 | 0.0 | 3.2 | 0.0 | 5.5 | |
| | 서북권 | 71.1 | 15.2 | 0.0 | 13.7 | 0.0 | 0.0 | 3.6 | 1.8 | 5.3 | |
| | 서남권 | 64.0 | 16.2 | 0.0 | 6.3 | 0.0 | 13.5 | 7.5 | 0.2 | 14.5 | |
| | 동남권 | 83.4 | 0.0 | 0.0 | 16.6 | 0.0 | 0.0 | 2.5 | 0.0 | 6.2 | |
| 성별 | 남성 | 73.7 | 9.7 | 3.5 | 4.1 | 4.7 | 4.4 | 4.1 | 0.4 | 7.7 | |
| | 여성 | 60.4 | 21.4 | 3.4 | 10.5 | 0.0 | 4.3 | 5.5 | 0.0 | 10.8 | |
| 연령 | 19~24세 | 79.8 | 12.6 | 0.0 | 7.6 | 0.0 | 0.0 | 2.0 | 0.0 | 4.3 | |
| | 25~29세 | 56.5 | 13.4 | 7.9 | 12.3 | 0.0 | 9.9 | 7.7 | 0.9 | 12.7 | |
| | 30~34세 | 67.5 | 24.1 | 0.0 | 0.0 | 8.3 | 0.0 | 3.4 | 1.0 | 5.6 | |
| | 35~36세 | 100.0 | 0.0 | 0.0 | 0.0 | 0.0 | 0.0 | 2.0 | 2.0 | 0.0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5.8 | 12.2 | 0.0 | 7.2 | 4.8 | 0.0 | 3.0 | 0.0 | 5.7 | |
| | 전문대 졸업 | 50.9 | 10.1 | 11.2 | 13.6 | 0.0 | 14.2 | 8.7 | 6.2 | 10.9 | |
| | 대학교 졸업 | 59.7 | 23.6 | 5.0 | 5.5 | 0.0 | 6.3 | 6.1 | 2.4 | 12.4 | |
| | 대학원 졸업 | 100.0 | 0.0 | 0.0 | 0.0 | 0.0 | 0.0 | 1.0 | 1.0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6.5 | 14.0 | 0.0 | 9.5 | 0.0 | 0.0 | 2.7 | 0.0 | 4.6 | |
| | 무자녀 부부가구 | 54.5 | 45.5 | 0.0 | 0.0 | 0.0 | 0.0 | 2.3 | 2.4 | 3.6 |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0.0 | 0.0 | 0.0 | 0.0 | 100.0 | 30.0 | 30.0 | 0.0 | |
| | 부모동거 가구 | 53.7 | 8.7 | 16.3 | 0.0 | 10.7 | 10.6 | 9.9 | 2.4 | 15.9 | |
| | 기타 가구 | 59.0 | 28.0 | 0.0 | 13.1 | 0.0 | 0.0 | 3.4 | 0.0 | 5.4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1.6 | 23.4 | 3.2 | 7.6 | 4.3 | 0.0 | 3.9 | 1.4 | 5.5 |
| | | 실업 | 68.7 | 14.1 | 0.0 | 17.2 | 0.0 | 0.0 | 4.3 | 1.5 | 6.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70.7 | 5.6 | 5.4 | 4.9 | 0.0 | 13.3 | 7.2 | 0.0 | 14.5 |

주: 1) 점유형태가 보증금 없는 월세인 응답자 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사글세, 연세 및 일세는 포함되지 않음

(3) 주거비 부담

- [표 4-6-26]은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을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월소득 대비 월 임차료(이하 RIR: Rent to Income Ratio) 25% 초과 비율은 40.1%,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이하 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30% 초과 38.2%임

- 19-24세 청년 RIR 25% 초과, HCIR 30% 초과 비율은 각각 45.1%, 43.8%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면, 유자녀 부부가구, 무자녀 부부가구, 1인가구 순으로 부담도가 높았음

[표 4-6-26]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단위: %]

| 구분 | | | RIR 25% 초과 | HCIR 30% 초과 |
|--------|------------|---------|------------|-------------|
| 전체 | | | 40.1 | 38.2 |
| 성별 | 남성 | | 38.2 | 37.0 |
| | 여성 | | 41.8 | 39.3 |
| 연령 | 19-24세 | | 45.1 | 43.2 |
| | 25-29세 | | 40.1 | 38.7 |
| | 30-34세 | | 37.3 | 34.8 |
| | 35-36세 | | 40.2 | 38.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2.4 | 41.6 |
| | 전문대 졸업 | | 35.6 | 33.4 |
| | 대학교 졸업 | | 39.8 | 37.7 |
| | 대학원 졸업 | | 40.3 | 35.2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41.8 | 39.3 |
| | 무자녀 부부가구 | | 42.9 | 38.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0.0 | 50.5 |
| | 부모동거 가구 | | 35.2 | 35.4 |
| | 기타 가구 | | 37.0 | 33.9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36.7 | 34.1 |
| | | 실업 | 46.7 | 46.4 |
| | 비경제활동 | 재학 | 52.8 | 52.2 |
| | | 비재학 미취업 | 46.5 | 45.9 |

주: 전세 또는 월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전월세 전환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월소득 대비 월 임차료(RIR) = 월임차료/가구 월소득×100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 = (월임차료+월주거관리비)/가구 월소득×100

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전환률 적용(월임차료 값에 포함) = 보증금×(4.9/12)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 전월세 전환률은 4.9%임

RIR과 HCIR 각각 결측치를 제외한 2,989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RIR 25% 초과가구

[단위: %]

| 구분 | RIR 25% 초과 또는 HCIR 30% 초과 가구 |
|---------------------|------------------------------|
| 전체 가구 | 14.1 |
|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 15.2 |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표 4-6-27]은 자가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을 5대 권역,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평균 PIR은 19.0 중위값 기준 11.1배임
- 권역별로는 평균값 기준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 중위값 기준 동남권, 도심권, 서북권 순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값 기준 유자녀 부부가구의 PIR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뒤이어 1인가구, 부모동거가구 순으로 높았음

[표 4-6-27] 자가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

[단위: 배]

| 구분 | | 평균값 기준 PIR | 중위값 기준 PIR | |
|-------------|------------|------------|------------|------|
| 전체(n=1,559) | | 19.0 | 11.1 | |
| 권역 | 도심권 | 25.8 | 12.5 | |
| | 동북권 | 16.7 | 10.3 | |
| | 동남권 | 25.1 | 15.0 | |
| | 서북권 | 23.4 | 11.1 | |
| | 서남권 | 14.2 | 10.1 | |
| 성별 | 남성 | 21.3 | 11.5 | |
| | 여성 | 16.8 | 11.1 | |
| 연령 | 19-24세 | 24.1 | 11.9 | |
| | 25-29세 | 17.6 | 11.1 | |
| | 30-34세 | 14.4 | 10.4 | |
| | 35-36세 | 27.3 | 11.5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4.3 | 11.9 | |
| | 전문대 졸업 | 12.5 | 9.5 | |
| | 대학교 졸업 | 16.9 | 11.4 | |
| | 대학원 졸업 | 13.2 | 10.4 | |
| 가구유형 | 1인가구 | 21.9 | 10.8 | |
| | 무자녀 부부가구 | 11.3 | 9.5 | |
| | 유자녀 부부가구 | 26.3 | 13.3 | |
| | 부모동거 가구 | 18.8 | 11.1 | |
| | 기타 가구 | 16.7 | 11.7 |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5.7 | 10.4 |
| | | 실업 | 23.8 | 10.4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9.2 | 13.9 |
| | | 비재학 미취업 | 22.7 | 13.3 |

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 하였으며 PIR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PIR_t = \frac{mean(P_{j,t})}{mean(I_{j,t})} \text{ or } \frac{median(P_{j,t})}{median(I_{j,t})}$$
 여기서 $P_{j,t}$ 는 t시점 j가구의 현재주택가격, $I_{j,t}$ 는 j가구의 연소득

[참고]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PIR(중위수 기준)

[단위: 배]

| 구분 | | 중위수 기준 PIR |
|----|-----|------------|
| 전체 | | 13.5 |
| 권역 | 도심권 | 19.0 |
| | 동북권 | 13.5 |
| | 동남권 | 20.8 |
| | 서북권 | 10.4 |
| | 서남권 | 12.5 |

자료: 김호기 외(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4) 주택비용 마련방법

- [표 4-6-28]은 주택비용 마련방법 1순위와 2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임
- 주택비용 마련방법 1순위는 ‘모름’(27.9%)이며, 그다음은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음’(25.1%), ‘내가 번 돈’(24.3%) 순이었음
- 주택비용 마련 방법 2순위는 ‘내가 번 돈’(30.5%),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음’(18.2%), ‘민간금융기관(회사 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등)’(17.1%) 순으로 높았음

[표 4-6-28] 주택비용 마련방법

[단위: %]

| 구분 | 1순위 ¹⁾ (n=4,684) | 2순위 ²⁾ (n=1,734) |
|---------------------------------|--------------------------------|--------------------------------|
| 모름 | 27.9 | 0.1 |
|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음 | 25.1 | 18.2 |
| 내가 번 돈 | 24.3 | 30.5 |
| 정부의 대출(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자금대출) | 9.1 | 12.6 |
| 민간금융기관(회사 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 6.1 | 17.1 |
|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4.5 | 15.0 |
| 서울시 대출(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 1.9 | 4.6 |
| 기타 | 1.0 | 1.6 |
| 사채 | 0.1 | 0.3 |

주: 1)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2) 2순위 응답자 1,734명을 분석함

- [표 4-6-29]는 주택비용 마련방법 1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모르거나 내가 번 돈, 부모, 형제, 친척, 친구로

부터 무상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가 번 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대는 30대보다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 무상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별 주택비용 마련방법 1순위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일수록 내가 번 돈으로 해결하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정부나 서울시 등 대출에 더 열려있는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는 내가 번 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0%, 46.1%로 매우 높았고, 부모동거 가구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임
- 취업한 사람은 주변에 빌리거나 지원받기보다 내가 번 돈이나 대출로 주택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서울 태생 청년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매우 높았고,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내가 번 돈이라고 응답한 비율 32.7%로 매우 높았음. 또한 상대적으로 정부 대출이나 민간 금융 기관 이용한 비율 또한 서울 태생 청년보다 높았음

[표 4-6-29] 주택비용 마련방법(1순위)

[단위: %]

| 구분 | | 모름 | 부모, 친구 등 무상 지원 | 내가 번 돈 | 정부 대출 | 민간 금융 기관 | 부모, 친구 등에게 빌림 | 서울시 대출 | 기타 | 사채 |
|---------------------------|------------|---------|----------------|--------|-------|----------|---------------|--------|-----|-----|
| 전체(n=4,684) ¹⁾ | | 27.9 | 25.1 | 24.3 | 9.1 | 6.1 | 4.5 | 1.9 | 1.0 | 0.1 |
| 성별 | 남성 | 29.3 | 24.1 | 24.0 | 7.8 | 6.3 | 5.1 | 2.0 | 1.3 | 0.0 |
| | 여성 | 26.5 | 26.0 | 24.6 | 10.3 | 5.9 | 4.0 | 1.9 | 0.8 | 0.1 |
| 연령 | 19-24세 | 44.1 | 36.6 | 9.1 | 3.0 | 2.8 | 2.4 | 1.1 | 0.7 | 0.2 |
| | 25-29세 | 30.1 | 27.2 | 20.2 | 9.9 | 5.2 | 4.9 | 1.5 | 1.0 | 0.1 |
| | 30-34세 | 15.6 | 16.1 | 37.3 | 12.5 | 9.1 | 5.4 | 2.7 | 1.2 | 0.0 |
| | 35-36세 | 11.0 | 10.2 | 45.3 | 9.4 | 11.0 | 7.0 | 3.9 | 2.2 | 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8.4 | 30.2 | 15.0 | 5.5 | 4.3 | 4.1 | 1.2 | 1.1 | 0.1 |
| | 전문대 졸업 | 28.4 | 21.1 | 27.8 | 11.4 | 4.1 | 4.0 | 1.7 | 1.6 | 0.0 |
| | 대학교 졸업 | 21.4 | 22.2 | 29.6 | 10.6 | 8.0 | 5.0 | 2.4 | 0.8 | 0.0 |
| | 대학원 졸업 | 14.7 | 25.2 | 30.5 | 13.4 | 6.8 | 5.4 | 2.9 | 1.0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1 | 29.0 | 38.0 | 14.9 | 6.5 | 6.9 | 1.9 | 0.7 | 0.1 |
| | 무자녀 부부가구 | 2.2 | 10.8 | 47.0 | 12.6 | 11.7 | 3.0 | 10.8 | 2.0 | 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2.7 | 10.0 | 46.1 | 15.5 | 13.6 | 4.8 | 4.8 | 2.4 | 0.0 |
| | 부모동거 가구 | 56.9 | 23.9 | 8.1 | 3.2 | 4.3 | 2.4 | 0.3 | 0.8 | 0.1 |
| | 기타 가구 | 9.2 | 38.3 | 24.2 | 10.8 | 5.1 | 8.1 | 1.8 | 2.5 | 0.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5.1 | 21.0 | 29.3 | 10.1 | 6.8 | 4.4 | 2.2 | 1.1 |
| | | 실업 | 29.0 | 31.4 | 17.0 | 5.5 | 5.3 | 8.1 | 2.2 | 1.5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8.1 | 44.7 | 8.0 | 3.0 | 1.8 | 3.1 | 1.0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33.2 | 28.8 | 16.2 | 9.3 | 5.8 | 4.2 | 1.2 | 0.0 |
| 출신 지역 ²⁾ | 서울 태생 | 39.5 | 22.4 | 19.8 | 6.1 | 5.5 | 22.4 | 1.6 | 1.1 | 0.1 |
| | 서울로 이주 | 6.4 | 30.0 | 32.7 | 14.6 | 7.2 | 5.7 | 2.4 | 0.9 | 0.1 |

주: 1)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2)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 [표 4-6-30]은 주택비용 마련방법 2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내가 번 돈’, ‘부모,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 무상지원’, ‘민간금융기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가 번 돈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대는 30대보다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 무상지원’ 응답 비율이 높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의는 정부대출, 서울시대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주택비용 마련방법(2순위)도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내가 번 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6-30] 주택비용 마련방법(2순위)

[단위: %]

| 구분 | | 내가 번 돈 | 부모, 친구 등 무상 지원 | 부모, 친구 등에게 빌림 | 정부 대출 | 민간 금융 기관 | 서울시 대출 | 사채 | 기타 | 모름 | |
|---------------------------|------------|------------|----------------------------|------------------------|----------|----------------|-----------|-----|-----|-----|-----|
| 전체(n=1,734) ¹⁾ | | 30.5 | 18.2 | 15.0 | 12.6 | 17.1 | 4.6 | 0.3 | 1.6 | 0.1 | |
| 성별 | 남성 | 32.9 | 17.7 | 14.4 | 11.7 | 17.4 | 4.7 | 0.3 | 0.9 | 0.0 | |
| | 여성 | 28.5 | 18.7 | 15.5 | 13.3 | 16.8 | 4.6 | 0.3 | 2.1 | 0.1 | |
| 연령 | 19~24세 | 26.5 | 23.7 | 15.9 | 11.2 | 15.9 | 3.8 | 0.5 | 2.5 | 0.0 | |
| | 30~34세 | 30.2 | 23.0 | 15.6 | 12.3 | 13.1 | 3.8 | 0.2 | 1.5 | 0.2 | |
| | 30~34세 | 31.4 | 14.5 | 14.7 | 12.7 | 19.3 | 5.8 | 0.2 | 1.4 | 0.0 | |
| | 35~36세 | 33.6 | 8.9 | 12.8 | 15.6 | 25.1 | 2.1 | 0.9 | 0.9 | 0.0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4.7 | 24.4 | 13.3 | 14.0 | 16.3 | 4.0 | 0.5 | 2.7 | 0.0 | |
| | 전문대 졸업 | 26.5 | 14.1 | 13.5 | 17.4 | 21.8 | 5.0 | 0.0 | 1.7 | 0.0 | |
| | 대학교 졸업 | 33.7 | 18.1 | 16.1 | 10.8 | 14.8 | 5.1 | 0.3 | 1.0 | 0.1 | |
| | 대학원 졸업 | 31.1 | 8.8 | 15.3 | 13.0 | 27.0 | 2.7 | 0.0 | 2.1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4.2 | 20.6 | 13.6 | 12.4 | 14.0 | 4.0 | 0.3 | 0.8 | 0.0 | |
| | 무자녀 부부가구 | 25.7 | 10.1 | 17.9 | 13.0 | 20.6 | 9.8 | 0.0 | 2.8 | 0.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24.3 | 11.0 | 12.3 | 20.7 | 22.1 | 7.3 | 0.0 | 2.3 | 0.0 | |
| | 부모동거 가구 | 27.8 | 19.2 | 18.2 | 11.1 | 19.2 | 1.9 | 1.0 | 1.6 | 0.0 | |
| | 기타 가구 | 27.9 | 18.8 | 15.7 | 8.9 | 19.9 | 5.4 | 0.0 | 3.0 | 0.5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2.0 | 16.7 | 14.5 | 12.8 | 17.7 | 4.6 | 0.4 | 1.2 | 0.1 |
| | | 실업 | 25.8 | 18.3 | 16.5 | 16.4 | 18.0 | 2.9 | 0.0 | 2.0 | 0.0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9.2 | 18.7 | 19.7 | 11.5 | 12.6 | 3.4 | 0.0 | 4.9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24.6 | 26.8 | 16.0 | 9.9 | 14.6 | 6.1 | 0.0 | 2.0 | 0.0 |
| 출신 지역 ²⁾ | 서울 태생 | 26.3 | 15.5 | 17.6 | 13.3 | 19.5 | 5.5 | 0.5 | 1.9 | 0.0 | |
| | 서울로 이주 | 34.9 | 21.0 | 12.4 | 11.8 | 14.6 | 3.7 | 0.2 | 1.2 | 0.1 | |

주: 1)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케이스에 대해 분석함
2) 서울 태생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 서울인 청년임

7_삶의 여건과 인식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 및 특성을 삶의 여건과 인식 측면에서 확인하였으며, 결핍, 건강, 사회적 관계망, 삶의 만족도, 사회참여 등에 대해 분석함. 분석의 전체 표본은 5,083명이고, 그중 원표본은 3,735명, 신규표본은 1,348명임. 문항별 결측값이 상이함

1) 결핍

- [표 4-7-1]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각 문항)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미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6.4%, 신용유의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 주거 관련 비용 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집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임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비율이 높음
-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 결핍 경험 비율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가구 유형별로는 공교육비 미납 경험 외에는 대체로 1인가구와 기타 가구에서 취약성을 보임
- 경제활동상태별 결핍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을 겪고 있음

[표 4-7-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물질적 박탈) 경험

[단위: %]

| 구분 | |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미납 | | | 돈이 없어 병원 못감 | |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의자 | | 주거 관련 비용 미납 | | 집 냉난방 유지 못함 | |
|-------------|--------|----------------|------|------|-------------|------|------------------|------|-------------|------|-------------|------|
| | | 있다 | 없다 | 비해당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2.8 | 65.3 | 31.9 | 6.4 | 93.6 | 6.1 | 93.9 | 6.5 | 93.5 | 5.8 | 94.2 |
| 성별 | 남성 | 2.6 | 68.1 | 29.3 | 5.2 | 94.8 | 5.4 | 94.6 | 6.1 | 93.9 | 5.3 | 94.7 |
| | 여성 | 3.1 | 62.5 | 34.4 | 7.6 | 92.4 | 6.8 | 93.2 | 7.0 | 93.0 | 6.3 | 93.7 |
| 연령 | 19-24세 | 1.8 | 79.3 | 18.9 | 5.7 | 94.3 | 5.1 | 94.9 | 4.5 | 95.5 | 4.1 | 95.9 |
| | 25-29세 | 3.2 | 64.3 | 32.4 | 7.4 | 92.6 | 6.2 | 93.8 | 6.9 | 93.1 | 6.5 | 93.5 |
| | 30-34세 | 3.2 | 56.9 | 39.9 | 5.9 | 94.1 | 6.7 | 93.3 | 7.6 | 92.4 | 6.2 | 93.8 |
| | 35-36세 | 2.5 | 56.9 | 40.6 | 7.0 | 93.0 | 7.2 | 92.8 | 6.2 | 93.8 | 6.8 | 93.2 |

| 구분 | |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미납 | | | 돈이 없어 병원 못감 | |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이자 | | 주거 관련 비용 미납 | | 집 냉난방 유지 못함 | | |
|----------|------------|----------------|------|------|-------------|------|------------------|------|-------------|------|-------------|------|------|
| | | 있다 | 없다 | 비해당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5 | 73.0 | 23.5 | 8.3 | 91.7 | 8.5 | 91.5 | 8.9 | 91.1 | 6.4 | 93.6 | |
| | 전문대 졸업 | 3.5 | 52.7 | 43.8 | 7.0 | 93.0 | 4.8 | 95.2 | 7.5 | 92.5 | 6.6 | 93.4 | |
| | 대학교 졸업 | 2.3 | 63.5 | 34.3 | 5.2 | 94.8 | 4.9 | 95.1 | 4.8 | 95.2 | 5.5 | 94.5 | |
| | 대학원 졸업 | 1.7 | 60.7 | 37.7 | 3.9 | 96.1 | 4.6 | 95.4 | 3.8 | 96.2 | 2.5 | 97.5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8 | 64.4 | 32.8 | 7.9 | 92.1 | 6.4 | 93.6 | 8.3 | 91.7 | 8.1 | 91.9 | |
| | 무자녀 부부가구 | 1.3 | 58.1 | 40.6 | 4.5 | 95.5 | 5.6 | 94.4 | 5.1 | 94.9 | 5.4 | 94.6 | |
| | 유자녀 부부가구 | 4.9 | 63.5 | 31.6 | 4.4 | 95.6 | 5.0 | 95.0 | 6.0 | 94.0 | 3.7 | 96.3 | |
| | 부모동거 가구 | 2.8 | 67.5 | 29.7 | 5.3 | 94.7 | 5.6 | 94.4 | 5.3 | 94.7 | 4.2 | 95.8 | |
| | 기타 가구 | 3.2 | 62.1 | 34.7 | 10.5 | 89.5 | 9.4 | 90.6 | 8.3 | 91.7 | 7.4 | 92.6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9 | 63.1 | 34.0 | 5.9 | 94.1 | 6.6 | 93.4 | 5.9 | 94.1 | 5.6 | 94.4 |
| | | 실업 | 3.9 | 64.4 | 31.7 | 12.3 | 87.7 | 8.2 | 91.8 | 12.7 | 87.3 | 8.8 | 91.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0.8 | 89.3 | 10.0 | 2.1 | 97.9 | 3.0 | 97.0 | 4.1 | 95.9 | 3.1 | 96.9 |
| | | 비재학 미취업 | 3.1 | 62.9 | 34.0 | 7.6 | 92.4 | 4.9 | 95.1 | 7.3 | 92.7 | 6.4 | 93.6 |

- [표 4-7-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수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수 비율은 0개(없음) 84.7%, 1개 8.3%, 2개 3.7%, 순으로 높았음
- 여성의 경우 1개 이상의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17.4%로 남성 13.2%보다 높았음
- 연령대로 30대의 결핍 경험 비율이 높았음
- 저학력일수록 생활 결핍 경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복결핍 비율 또한 높음
-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와 기타 가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을 겪고 있음
- 실업자의 경우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22.1%로 높았고, 2개 이상 중복결핍 경험한 비율 또한 12.5%로 높음

[표 4-7-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물질적 박탈) 경험 수

[단위: %]

| 구분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수 ¹⁾ | | | | | |
|-------------|----|---------------------------------------|-----|-----|-----|-----|-----|
| | | 0개(없음)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 전체(n=5,083) | | 84.7 | 8.3 | 3.7 | 1.8 | 1.0 | 0.5 |
| 성별 | 남성 | 86.8 | 7.0 | 3.1 | 1.5 | 1.1 | 0.5 |
| | 여성 | 82.6 | 9.6 | 4.4 | 2.0 | 0.9 | 0.5 |

| 구분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결핍 경험 수 ¹⁾ | | | | | | |
|----------|------------|---------------------------------------|------|-----|-----|-----|-----|-----|
| | | 0개(없음)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
| 연령 | 19-24세 | 86.8 | 8.3 | 2.9 | 1.3 | 0.6 | 0.2 | |
| | 25-29세 | 84.0 | 8.3 | 3.9 | 2.0 | 1.1 | 0.7 | |
| | 30-34세 | 84.1 | 8.1 | 4.2 | 1.9 | 1.1 | 1.0 | |
| | 35-36세 | 82.8 | 10.6 | 3.5 | 1.5 | 1.0 | 0.5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1.6 | 9.6 | 3.9 | 2.3 | 1.4 | 1.1 | |
| | 전문대 졸업 | 83.8 | 8.2 | 4.5 | 2.1 | 1.3 | 0.1 | |
| | 대학교 졸업 | 86.7 | 7.5 | 3.6 | 1.4 | 0.6 | 0.3 | |
| | 대학원 졸업 | 89.5 | 6.6 | 2.1 | 1.0 | 0.7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81.3 | 10.1 | 4.7 | 2.2 | 1.2 | 0.5 | |
| | 무자녀 부부가구 | 87.0 | 7.6 | 2.9 | 1.8 | 0.4 | 0.3 | |
| | 유자녀 부부가구 | 89.6 | 4.4 | 1.9 | 2.2 | 0.4 | 1.5 | |
| | 부모동거 가구 | 86.8 | 7.4 | 3.2 | 1.3 | 0.9 | 0.4 | |
| | 기타 가구 | 80.8 | 9.4 | 4.3 | 2.6 | 1.6 | 1.4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84.6 | 8.5 | 3.9 | 1.6 | 1.0 | 0.4 |
| | | 실업 | 77.9 | 9.6 | 5.6 | 3.6 | 1.8 | 1.5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91.9 | 4.9 | 1.7 | 1.2 | 0.2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84.5 | 8.3 | 3.1 | 2.0 | 1.2 | 0.9 |

주: 1)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함', '돈이 없어서 본이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음',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이자인 사람이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음' 중 경험 유무에 따라 0개(없음)-5개로 계산함

- [표 4-7-3]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결핍 경험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던 경우가 14.1%,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없던 경우는 19.7%임
- 남성보다 여성의 식생활 결핍 경험 비율이 높았고, 저학력일수록 식생활 결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가구유형별 식생활 결핍 경험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와 기타 가구에서 결핍 경험 비율이 높았고,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자는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식생활 결핍 경험 비율이 높음

[표 4-7-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결핍 경험

[단위: %]

| 구분 | | |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 | | |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잡힌 식단을 할 수 없었다 | | | | | |
|----------------|------------|---------|--------------------------------------|-----------|------|-----------------|------------------------------------|-----------|-----|------|-----------------|-----------|
| | | | 그런적이 있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름/ 거부 | 그런적이 있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름/ 거부 |
| | | | | | | | | | | | | |
| | |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 | | |
| 전체(n=5,083) | | | 14.1 | 1.6 | 12.5 | 80.1 | 5.9 | 19.7 | 4.3 | 15.4 | 74.8 | 5.5 |
| 성별 | 남성 | | 13.2 | 1.7 | 11.5 | 79.6 | 7.2 | 17.6 | 3.6 | 14.0 | 75.3 | 7.1 |
| | 여성 | | 14.8 | 1.5 | 13.3 | 80.6 | 4.6 | 21.6 | 4.9 | 16.7 | 74.3 | 4.1 |
| 연령 | 19-24세 | | 12.9 | 1.5 | 11.4 | 79.9 | 7.1 | 16.8 | 3.5 | 13.3 | 76.1 | 7.1 |
| | 25-29세 | | 15.3 | 2.1 | 13.2 | 78.2 | 6.5 | 20.8 | 4.9 | 15.9 | 72.7 | 6.4 |
| | 30-34세 | | 13.7 | 1.2 | 12.5 | 81.7 | 4.6 | 20.5 | 4.0 | 16.5 | 75.7 | 3.8 |
| | 35-36세 | | 13.0 | 1.3 | 11.7 | 84.1 | 2.9 | 19.9 | 5.5 | 14.4 | 78.1 | 2.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6.3 | 2.3 | 14.0 | 76.4 | 7.3 | 20.6 | 5.0 | 15.6 | 72.3 | 7.1 |
| | 전문대 졸업 | | 16.3 | 2.2 | 14.1 | 76.6 | 7.2 | 20.8 | 4.9 | 15.9 | 73.1 | 6.1 |
| | 대학교 졸업 | | 12.6 | 0.9 | 11.7 | 82.6 | 4.8 | 19.0 | 3.6 | 15.4 | 76.5 | 4.4 |
| | 대학원 졸업 | | 6.3 | 1.3 | 5.0 | 91.1 | 2.7 | 16.5 | 3.6 | 12.9 | 80.9 | 2.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20.8 | 2.4 | 18.4 | 74.0 | 5.2 | 29.2 | 7.7 | 21.5 | 66.2 | 4.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2.7 | 1.2 | 11.5 | 85.6 | 1.7 | 13.3 | 3.2 | 10.1 | 85.1 | 1.6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0.2 | 1.5 | 8.7 | 86.6 | 3.2 | 14.6 | 2.1 | 12.5 | 82.6 | 2.7 |
| | 부모동거 가구 | | 8.7 | 0.8 | 7.9 | 84.0 | 7.3 | 12.8 | 1.8 | 11.0 | 80.0 | 7.2 |
| | 기타 가구 | | 21.1 | 3.4 | 17.7 | 74.0 | 4.9 | 29.3 | 6.8 | 22.5 | 66.0 | 4.6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3.0 | 1.3 | 11.7 | 81.7 | 5.3 | 18.7 | 3.7 | 15.0 | 76.5 | 4.8 |
| | | 실업 | 24.0 | 4.0 | 20.0 | 69.9 | 6.1 | 29.5 | 9.0 | 20.5 | 64.2 | 6.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9.2 | 0.0 | 9.2 | 85.0 | 5.8 | 14.6 | 2.9 | 11.7 | 79.8 | 5.6 |
| | | 비재학 미취업 | 15.8 | 2.5 | 13.3 | 76.3 | 7.8 | 21.2 | 4.9 | 16.3 | 71.0 | 7.8 |

- [표 4-7-4]는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법 1순위와 2순위를 분석한 결과임
-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법 1순위는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음’ 41.2%,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17.7%,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이용’ 11.0% 순으로 높았음
- 생활비 부족시 해결 방법 2순위는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25.7%,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음’ 16.8%,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14.5% 순으로 높았음

[표 4-7-4]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법

[단위: %]

| 구분 | 1순위 (n=1,406) ¹⁾ | 2순위 (n=754) ²⁾ |
|---------------------------|--------------------------------|------------------------------|
|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음 | 41.2 | 16.8 |
|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 17.7 | 25.7 |
|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이용 | 11.0 | 13.3 |
| 해결하지 못함 | 10.4 | 0.0 |
|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 5.9 | 14.5 |
| 기타 | 4.3 | 3.9 |
|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 3.3 | 5.8 |
|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 | 2.9 | 11.1 |
| 2금융권 대출 이용 및 사채이용 | 2.7 | 5.7 |
|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 0.5 | 2.0 |
| 부동산매각, 전세나 월세 규모를 줄임 | 0.2 | 1.3 |

주: 1) 전체 응답자 중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1,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는 1,406명 중 2순위 응답자 7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7-5]는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분석한 결과임
-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1순위는 식비(34.7%), 주거비(18.9%),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12.8%) 순이었고, 2순위는 식비(22.5%), 주거비(15.2%), 문화사교비(10.9%) 순으로 높았음

[표 4-7-5]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

[단위: %]

| 구분 | 1순위 (n=5,083) | 2순위 (n=3,807) ²⁾ |
|------------------|------------------|--------------------------------|
| 식비 | 34.7 | 22.5 |
| 주거비 | 18.9 | 15.2 |
|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 12.8 | - |
| 각종 빛의 원리금 상환 | 7.2 | 7.4 |
|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 7.1 | 8.3 |
| 의료비 | 4.7 | 7.6 |
| 문화사교비 | 4.1 | 10.9 |
|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 2.2 | 5.3 |
| 교통비 | 2.1 | 7.1 |
| 경조사비 | 1.8 | 4.9 |
| 통신비 | 1.7 | 5.8 |
| 공교육비 | 1.5 | 1.3 |
| 가족이나 친지 보조 | 0.8 | 2.7 |
| 기타 | 0.5 | 1.0 |

주: 1) 2순위 응답자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7-6]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의 1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 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거비, 채무상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20대는 식비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 생활비 부담 큰 항목을 분석한 결과, 식비 비율이 가장 높았음. 부부가구는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겪고 있음

[표 4-7-6]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1순위)

[단위: %]

| 구분 | | | 부담 없음 | 식비 | 의료비 | 교육비 1) | 주거비 | 채무 상환 | 교통비 | 통신비 | 문화 사교비 | 기타 ²⁾ |
|----------------|------------|---------|----------|------|-----|-----------|------|----------|-----|-----|-----------|------------------|
| 전체(n=5,083) | | | 12.8 | 34.7 | 4.7 | 8.6 | 18.9 | 7.2 | 2.1 | 1.7 | 4.1 | 5.2 |
| 성별 | 남성 | | 14.5 | 38.2 | 3.4 | 7.8 | 16.0 | 7.4 | 1.9 | 2.1 | 4.1 | 4.5 |
| | 여성 | | 11.2 | 31.4 | 5.9 | 9.4 | 21.5 | 6.9 | 2.2 | 1.4 | 4.1 | 5.9 |
| 연령 | 19-24세 | | 15.1 | 40.3 | 4.1 | 14.8 | 8.5 | 1.9 | 3.9 | 2.4 | 6.2 | 2.7 |
| | 25-29세 | | 13.2 | 34.7 | 4.7 | 8.8 | 20.7 | 4.7 | 2.0 | 2.1 | 4.2 | 5.0 |
| | 30-34세 | | 10.7 | 31.6 | 5.3 | 4.0 | 24.1 | 12.6 | 1.0 | 0.9 | 2.5 | 7.2 |
| | 35-36세 | | 12.9 | 26.8 | 3.1 | 6.1 | 21.3 | 17.4 | 0.9 | 0.5 | 3.5 | 7.4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4.4 | 38.7 | 4.0 | 11.7 | 10.9 | 4.9 | 2.9 | 3.0 | 5.6 | 3.9 |
| | 전문대 졸업 | | 12.1 | 32.5 | 5.9 | 7.1 | 21.4 | 7.8 | 2.5 | 1.0 | 2.8 | 6.7 |
| | 대학교 졸업 | | 11.8 | 33.1 | 5.0 | 6.9 | 23.4 | 8.4 | 1.2 | 0.9 | 3.4 | 5.8 |
| | 대학원 졸업 | | 13.1 | 27.6 | 3.9 | 6.2 | 26.4 | 9.7 | 2.4 | 1.8 | 3.2 | 5.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7.7 | 35.6 | 3.3 | 5.1 | 34.0 | 6.7 | 0.7 | 0.5 | 2.2 | 4.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2.6 | 28.4 | 3.7 | 1.3 | 28.4 | 14.3 | 1.0 | 1.0 | 1.9 | 7.5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0.4 | 30.2 | 3.0 | 6.3 | 18.6 | 22.6 | 0.0 | 0.8 | 0.3 | 7.7 |
| | 부모동거 가구 | | 17.3 | 34.9 | 6.1 | 12.7 | 6.0 | 4.7 | 3.4 | 2.9 | 6.3 | 5.7 |
| | 기타 가구 | | 9.5 | 38.1 | 4.1 | 6.0 | 23.4 | 8.6 | 2.3 | 1.0 | 3.1 | 3.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3.0 | 32.4 | 4.7 | 6.4 | 21.3 | 8.8 | 1.7 | 1.4 | 4.0 | 6.3 |
| | | 실업 | 8.8 | 40.3 | 3.9 | 10.5 | 19.0 | 4.5 | 2.4 | 1.2 | 6.0 | 3.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7.8 | 43.9 | 4.3 | 14.2 | 9.2 | 1.9 | 2.5 | 1.2 | 3.4 | 1.4 |
| | | 비재학 미취업 | 11.7 | 36.8 | 5.3 | 13.2 | 14.1 | 4.8 | 2.9 | 3.3 | 4.0 | 3.9 |

주: 1)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합산 비율

2) '경조사비',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가족이나 친지보조', '기타' 합산 비율

- [표 4-7-7]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의 2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 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남성과 여성 모두 식비와 주거비에 따른 부담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에서 기타(경조사비,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가족이나 친지보조, 기타)의 비율이 높았음
- 학력별로 응답 값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이 교육비, 교통비, 문화사 교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7-7]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2순위)

[단위: %]

| 구분 | | 식비 | 의료비 | 교육비 ¹⁾ | 주거비 | 채무 상환 | 교통비 | 통신비 | 문화 사교비 | 기타 ²⁾ |
|---------------------------|------------|---------|------|-------------------|------|----------|------|------|-----------|------------------|
| 전체(n=3,807) ³⁾ | | 22.5 | 7.6 | 9.6 | 15.2 | 7.4 | 7.1 | 5.9 | 10.9 | 13.9 |
| 성별 | 남성 | 20.6 | 5.8 | 9.7 | 16.5 | 7.5 | 7.8 | 7.3 | 11.9 | 12.9 |
| | 여성 | 24.1 | 9.2 | 9.6 | 14.1 | 7.3 | 6.5 | 4.6 | 10.0 | 14.7 |
| 연령 | 19-24세 | 19.2 | 9.2 | 14.5 | 10.1 | 2.1 | 12.6 | 7.9 | 18.5 | 5.9 |
| | 25-29세 | 23.8 | 7.1 | 11.4 | 16.3 | 5.5 | 6.3 | 6.2 | 10.9 | 12.4 |
| | 30-34세 | 23.3 | 7.1 | 4.8 | 17.3 | 12.2 | 4.7 | 4.1 | 6.5 | 20.1 |
| | 35-36세 | 22.6 | 7.2 | 6.3 | 17.5 | 14.6 | 2.1 | 4.9 | 3.2 | 21.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0.6 | 7.4 | 12.6 | 12.7 | 4.5 | 10.2 | 7.9 | 16.4 | 7.8 |
| | 전문대 졸업 | 21.5 | 9.9 | 5.7 | 16.2 | 8.3 | 7.0 | 8.4 | 6.5 | 16.5 |
| | 대학교 졸업 | 23.6 | 7.6 | 8.5 | 17.0 | 8.6 | 5.3 | 4.0 | 8.6 | 16.7 |
| | 대학원 졸업 | 27.0 | 3.9 | 9.7 | 13.0 | 12.7 | 3.5 | 2.6 | 6.2 | 21.3 |
| 가구유 형 | 1인가구 | 25.8 | 5.9 | 1.2 | 6.7 | 23.5 | 7.7 | 3.4 | 4.5 | 4.2 |
| | 무자녀 부부가구 | 22.0 | 5.5 | 0.0 | 2.4 | 17.5 | 15.4 | 2.0 | 9.4 | 3.8 |
| | 유자녀 부부가구 | 18.2 | 4.6 | 1.4 | 7.0 | 18.2 | 17.1 | 4.9 | 6.0 | 2.6 |
| | 부모동거 가구 | 20.3 | 9.3 | 1.7 | 11.2 | 6.4 | 5.0 | 11.3 | 4.6 | 8.0 |
| | 기타 가구 | 22.4 | 10.0 | 0.8 | 5.2 | 22.3 | 5.7 | 6.6 | 3.9 | 5.5 |
| 경제활 동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2.9 | 7.6 | 7.2 | 16.0 | 8.4 | 6.4 | 5.3 | 10.4 |
| | | 실업 | 21.1 | 10.7 | 11.7 | 13.1 | 7.1 | 8.6 | 9.6 | 11.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9.7 | 5.7 | 19.2 | 12.8 | 2.0 | 11.5 | 5.8 | 17.6 |
| | | 비재학 미취업 | 22.8 | 7.2 | 13.3 | 14.1 | 6.3 | 7.2 | 6.1 | 9.7 |

주: 1)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합산 비율

2) '경조사비',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가족이나 친지보조', '기타' 합산 비율

3) 2순위 응답자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삶의 만족도

- [표 4-7-8]은 삶의 만족도 평균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삶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5.9점이며,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동일함
- 연령대별 삶 전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9-24세가 6.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35-36세(5.9점)로 나타남
- 학력별 삶 전반의 만족도는 대학원 졸업이 6.2점으로 가장 높았음
- 가구유형별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무자녀 부부가구(6.5점), 유자녀 부부가구(6.3점), 부모동거 가구(5.9점) 순으로 높았음

[표 4-7-8]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10점 만점]

| 구분 | | | 삶의 전반적 만족도 |
|-------------|------------|---------|------------|
| 전체(n=5,083) | | | 5.9 |
| 성별 | 남성 | | 5.9 |
| | 여성 | | 5.9 |
| 연령 | 19-24세 | | 6.4 |
| | 25-29세 | | 5.8 |
| | 30-34세 | | 5.7 |
| | 35-36세 | | 5.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6.0 |
| | 전문대 졸업 | | 5.4 |
| | 대학교 졸업 | | 5.9 |
| | 대학원 졸업 | | 6.2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5.7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5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3 |
| | 부모동거 가구 | | 5.9 |
| | 기타 가구 | | 5.8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0 |
| | | 실업 | 5.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7 |
| | | 비재학 미취업 | 5.4 |

- [표 4-7-9]는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각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임
- 생활수준 만족도가 5.9점, 건강 만족도는 5.7점, 삶의 성취 만족도는 5.4점, 가족관계

만족도는 6.8점,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6.5점, 나의 안전 만족도는 6.8점, 사회 전반의 안전 만족도가 5.8점을 기록함

- 남성은 대체로 여성보다 영역별로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체로 영역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제외하고 대학원 졸업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유형별로, 대체로 부부가구(무자녀+유자녀)의 만족도가 높았음

[표 4-7-9] 생활영역별 만족도 1

[단위:10점 만점]

| 구분 | | 생활수준 | 건강 | 삶의 성취 | 가족관계 | 사회적 친분관계 | 나의 안전 | 사회 전반의 안전 |
|-------------|------------|---------|-----|-------|------|----------|-------|-----------|
| 전체(n=5,083) | | 5.9 | 5.7 | 5.4 | 6.8 | 6.5 | 6.8 | 5.8 |
| 성별 | 남성 | 5.9 | 5.9 | 5.4 | 6.9 | 6.5 | 7.0 | 6.3 |
| | 여성 | 5.9 | 5.6 | 5.4 | 6.7 | 6.5 | 6.7 | 5.3 |
| 연령 | 19-24세 | 6.5 | 6.2 | 5.6 | 7.1 | 6.9 | 7.3 | 6.2 |
| | 25-29세 | 5.8 | 5.7 | 5.3 | 6.7 | 6.5 | 6.8 | 5.7 |
| | 30-34세 | 5.6 | 5.5 | 5.3 | 6.6 | 6.2 | 6.6 | 5.5 |
| | 35-36세 | 5.7 | 5.6 | 5.7 | 6.6 | 6.2 | 6.7 | 5.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1 | 5.9 | 5.3 | 6.8 | 6.5 | 7.0 | 6.0 |
| | 전문대 졸업 | 5.3 | 5.3 | 4.8 | 6.5 | 6.1 | 6.3 | 5.3 |
| | 대학교 졸업 | 5.9 | 5.8 | 5.6 | 6.9 | 6.6 | 6.9 | 5.7 |
| | 대학원 졸업 | 6.3 | 6.1 | 6.0 | 7.2 | 6.8 | 7.1 | 5.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7 | 5.6 | 5.4 | 6.7 | 6.4 | 6.6 | 5.6 |
| | 무자녀 부부가구 | 6.4 | 6.1 | 6.1 | 7.5 | 6.8 | 7.3 | 6.1 |
| | 유자녀 부부가구 | 6.2 | 5.8 | 5.9 | 7.3 | 6.5 | 7.0 | 6.1 |
| | 부모동거 가구 | 6.0 | 5.9 | 5.3 | 6.8 | 6.5 | 7.0 | 5.9 |
| | 기타 가구 | 5.8 | 5.5 | 5.3 | 6.6 | 6.5 | 6.7 | 5.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0 | 5.8 | 5.6 | 6.8 | 6.6 | 6.8 |
| | | 실업 | 5.3 | 5.3 | 4.6 | 6.2 | 6.0 | 5.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6.8 | 6.5 | 6.1 | 7.7 | 7.1 | 7.9 |
| | | 비재학 미취업 | 5.5 | 5.4 | 4.7 | 6.5 | 6.0 | 6.5 |

- [표 4-7-10]은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 각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임
- 영역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미래 안정성은 5.0점, 시간적 여유가 5.2점, 지역사회 환경의 질이 5.8점,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은 6.0점, 내가 하는 일이 5.8점, 나의 경제적 수준은 4.7점임

-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19-24세의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높았음
- 학력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미래 안정성, 내가 하는 일, 나의 경제적 수준은 대학원 졸업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재학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실업자는 미래안정성 및 경제적 수준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표 4-7-10] 생활영역별 만족도 2

[단위:10점 만점]

| 구분 | | 미래 안정성 | 시간적 여유 | 지역사회 환경의 질 |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 내가 하는 일 | 나의 경제적 수준 | |
|----------------|------------|-----------|-----------|---------------|--------------------|------------|-----------------|-----|
| 전체(n=5,083) | | 5.0 | 5.2 | 5.8 | 6.0 | 5.8 | 4.7 | |
| 성별 | 남성 | 5.2 | 5.4 | 6.0 | 6.1 | 5.8 | 4.8 | |
| | 여성 | 4.8 | 5.1 | 5.7 | 5.8 | 5.7 | 4.6 | |
| 연령 | 19-24세 | 5.4 | 5.8 | 6.4 | 6.5 | 6.2 | 5.1 | |
| | 25-29세 | 5.0 | 5.1 | 5.8 | 5.9 | 5.6 | 4.6 | |
| | 30-34세 | 4.8 | 5.0 | 5.5 | 5.7 | 5.6 | 4.5 | |
| | 35-36세 | 5.0 | 5.1 | 5.6 | 5.8 | 5.8 | 4.8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1 | 5.4 | 6.0 | 6.1 | 5.8 | 4.7 | |
| | 전문대 졸업 | 4.4 | 4.9 | 5.4 | 5.6 | 5.4 | 4.1 | |
| | 대학교 졸업 | 5.1 | 5.2 | 5.8 | 5.9 | 5.8 | 4.8 | |
| | 대학원 졸업 | 5.3 | 5.3 | 5.8 | 5.8 | 6.1 | 5.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4.9 | 5.0 | 5.7 | 5.7 | 5.7 | 4.5 | |
| | 무자녀 부부가구 | 5.5 | 5.6 | 5.8 | 6.0 | 6.2 | 5.5 | |
| | 유자녀 부부가구 | 5.4 | 4.3 | 5.7 | 5.9 | 5.7 | 5.0 | |
| | 부모동거 가구 | 5.0 | 5.5 | 6.0 | 6.2 | 5.8 | 4.7 | |
| | 기타 가구 | 4.8 | 5.0 | 5.5 | 5.7 | 5.6 | 4.4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1 | 5.2 | 5.8 | 6.0 | 5.9 | 4.8 |
| | | 실업 | 4.5 | 5.0 | 5.6 | 5.6 | 5.1 | 3.9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9 | 6.0 | 6.8 | 6.9 | 6.6 | 5.6 |
| | | 비재학 미취업 | 4.5 | 5.1 | 5.5 | 5.6 | 5.0 | 4.1 |

3) 사회적 관계

- [표 4-7-11]은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의 5.7%가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 4.0%, 유자녀 부부가구 3.7%, 1인가구, 기타 가구 3.0% 순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실업과 비재학 미취업 청년이 7.7%로 높았음

[표 4-7-11]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

[단위: %]

| 구분 | | |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 집 밖으로 나갔다 |
|-------------|------------|---------|---------------|-----------|
| 전체(n=5,083) | | | 3.4 | 96.6 |
| 성별 | 남성 | | 3.8 | 96.2 |
| | 여성 | | 3.0 | 97.0 |
| 연령 | 19~24세 | | 4.0 | 96.0 |
| | 25~29세 | | 3.0 | 97.0 |
| | 30~34세 | | 3.4 | 96.6 |
| | 35~36세 | | 4.1 | 95.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7 | 94.3 |
| | 전문대 졸업 | | 2.0 | 98.0 |
| | 대학교 졸업 | | 2.3 | 97.7 |
| | 대학원 졸업 | | 1.8 | 98.2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3.0 | 97.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5 | 98.5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7 | 96.3 |
| | 부모동거 가구 | | 4.0 | 96.0 |
| | 기타 가구 | | 3.0 | 97.0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8 | 98.2 |
| | | 실업 | 7.7 | 92.3 |
| | 비경제활동 | 재학 | 3.1 | 96.9 |
| | | 비재학 미취업 | 7.7 | 92.3 |

| [참고]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년) 추정 결과 | | |
|--|---------------|---------------------|
| [단위: %] | | |
| 구분 | 비율 | 추산 인원 |
| 고립·은둔 전체 | 4.5% (±1.18%) | 126,829명 - 129,852명 |
| 고립 청년 ¹⁾ | 3.3% | 93,820명 - 96,056명 |
| 은둔 청년 ²⁾ | 1.2% | 33,009명 - 33,796명 |
| 주: 1) 고립 청년은 (1) 정서적 고립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였으면서 (2) 해당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온 청년을 의미함. 정서적 고립은 다음의 네 가지 상황 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를 의미하며, 물리적 고립은 ① 친한 친구나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②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없는 경우를 의미함 | | |
| 2) 은둔 청년은 (1)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 (2)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6개월 이상 지속 (3)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 | | |
| 자료: 서울시 (2022). | | |

- [표 4-7-12]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복수응답으로 분석한 결과임
-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는 자발적인 선택이 55.9%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어려움 36.4%, 대인관계 어려움 24.1%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여성보다 취업실패,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정신적 어려움,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나가지 않은 비율이 높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짐
- 1인가구의 40.7%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응답함
- 경제활동상태별 나가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는 취업 실패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높았음

[표 4-7-12]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취업 실패 | 정신적 어려움 | 대인 관계 어려움 | 학업 중단/ 진학 실패 | 실직 | 가족 갈등 | 임신, 육아, 출산 등 | 신체적 어려움 | 자발 적인 선택 | 기타 | |
|----------------------------|-------------------|------------|------------|-----------------|-----------------------|------|----------|-----------------------|------------|----------------|------|-----|
| 전체(n=174) ¹⁾ | | 20.8 | 36.4 | 24.1 | 5.5 | 8.1 | 3.8 | 8.6 | 14.6 | 55.9 | 4.7 | |
| 성 별 | 남성 | 26.4 | 33.0 | 29.7 | 4.9 | 8.6 | 5.1 | 4.7 | 13.1 | 56.0 | 5.7 | |
| | 여성 | 14.0 | 40.7 | 17.3 | 6.2 | 7.4 | 2.3 | 13.2 | 16.4 | 55.7 | 3.6 | |
| 연 령 | 19-24세 | 16.3 | 44.2 | 23.5 | 7.5 | 4.3 | 3.4 | 0.0 | 15.9 | 66.8 | 2.4 | |
| | 25-29세 | 20.9 | 28.4 | 26.3 | 6.9 | 11.4 | 3.6 | 7.7 | 14.7 | 59.0 | 5.8 | |
| | 30-34세 | 22.1 | 37.2 | 24.3 | 3.3 | 7.4 | 3.2 | 14.4 | 12.1 | 48.0 | 6.4 | |
| | 35-36세 | 38.5 | 37.7 | 11.6 | 0.0 | 13.4 | 12.5 | 25.1 | 24.1 | 24.8 | 0.0 |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4.6 | 38.8 | 28.3 | 6.4 | 11.6 | 4.6 | 4.2 | 15.9 | 58.9 | 6.1 | |
| | 전문대 졸업 | 15.3 | 46.4 | 38.5 | 0.0 | 0.0 | 0.0 | 14.8 | 21.0 | 31.8 | 0.0 | |
| | 대학교 졸업 | 16.9 | 30.4 | 12.8 | 5.6 | 3.9 | 3.6 | 14.5 | 9.4 | 55.6 | 3.8 | |
| | 대학원 졸업 | 0.0 | 25.7 | 19.3 | 0.0 | 0.0 | 0.0 | 19.5 | 25.7 | 61.2 | 0.0 | |
| 가 구 유 형 | 1인가구 | 25.1 | 40.7 | 21.4 | 3.5 | 10.3 | 3.6 | 4.4 | 13.5 | 55.7 | 3.5 | |
| | 무자녀 부부가구 | 20.4 | 80.3 | 0.0 | 0.0 | 19.7 | 0.0 | 0.0 | 41.6 | 18.2 | 0.0 |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10.4 | 10.4 | 0.0 | 0.0 | 0.0 | 100.0 | 0.0 | 22.6 | 12.5 | |
| | 부모동거 가구 | 21.6 | 36.1 | 29.0 | 8.1 | 5.3 | 4.9 | 2.0 | 13.2 | 59.9 | 5.4 | |
| | 기타 가구 | 11.7 | 21.2 | 17.3 | 0.0 | 24.3 | 0.0 | 10.4 | 33.7 | 67.6 | 0.0 | |
| 경 제 활 동 상 태 | 경제 활동 | 취업 | 13.7 | 28.2 | 19.1 | 6.8 | 3.2 | 1.7 | 11.0 | 16.1 | 63.1 | 6.9 |
| | | 실업 | 54.6 | 33.9 | 27.9 | 6.0 | 17.5 | 9.4 | 3.3 | 13.1 | 59.7 | 6.3 |
| | 비경 제 활 동 | 재학 | 7.0 | 36.9 | 0.0 | 0.0 | 0.0 | 0.0 | 0.0 | 0.0 | 72.4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14.9 | 44.2 | 30.9 | 5.2 | 9.5 | 3.8 | 10.3 | 16.5 | 45.5 | 3.1 |

주: 1)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1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7-13]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청년들은 취업 진로에 관해 물어볼 사람이 있다(84.5%), 주거/금융/법률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있다(69.3%),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80.4%),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84.1%)고 응답함
-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다른 가구유형보다 취약함

[표 4-7-1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1

[단위: %]

| 구분 | | | 취업, 진로에 관련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 | |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사람 | |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
|----------------|------------|---------|-------------------------------------|------|---|------|-----------------------------|------|----------------------------------|------|
| | |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전체(n=5,083) | | | 15.5 | 84.5 | 30.7 | 69.3 | 19.6 | 80.4 | 15.9 | 84.1 |
| 성별 | 남성 | | 14.6 | 85.4 | 29.2 | 70.8 | 21.1 | 78.9 | 17.0 | 83.0 |
| | 여성 | | 16.3 | 83.7 | 32.2 | 67.8 | 18.2 | 81.8 | 14.9 | 85.1 |
| 연령 | 19-24세 | | 12.0 | 88.0 | 25.6 | 74.4 | 13.2 | 86.8 | 11.2 | 88.8 |
| | 25-29세 | | 14.9 | 85.1 | 31.0 | 69.0 | 20.5 | 79.5 | 15.7 | 84.3 |
| | 30-34세 | | 17.5 | 82.5 | 33.3 | 66.7 | 23.1 | 76.9 | 19.1 | 80.9 |
| | 35-36세 | | 25.6 | 74.4 | 38.7 | 61.3 | 22.1 | 77.9 | 20.5 | 79.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5.1 | 84.9 | 29.3 | 70.7 | 18.1 | 81.9 | 14.3 | 85.7 |
| | 전문대 졸업 | | 19.8 | 80.2 | 41.9 | 58.1 | 23.6 | 76.4 | 18.7 | 81.3 |
| | 대학교 졸업 | | 14.9 | 85.1 | 29.0 | 71.0 | 19.4 | 80.6 | 16.4 | 83.6 |
| | 대학원 졸업 | | 12.0 | 88.0 | 27.6 | 72.4 | 21.1 | 78.9 | 16.3 | 83.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16.8 | 83.2 | 31.3 | 68.7 | 34.4 | 65.6 | 27.8 | 72.2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4.0 | 86.0 | 26.4 | 73.6 | 12.6 | 87.4 | 7.6 | 92.4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5.1 | 84.9 | 29.7 | 70.3 | 14.7 | 85.3 | 10.6 | 89.4 |
| | 부모동거 가구 | | 15.1 | 84.9 | 31.1 | 68.9 | 11.6 | 88.4 | 9.7 | 90.3 |
| | 기타 가구 | | 13.0 | 87.0 | 30.2 | 69.8 | 11.6 | 88.4 | 11.4 | 88.6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4.3 | 85.7 | 30.2 | 69.8 | 20.2 | 79.8 | 16.1 | 83.9 |
| | | 실업 | 19.9 | 80.1 | 35.2 | 64.8 | 22.7 | 77.3 | 20.4 | 79.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6.9 | 93.1 | 18.8 | 81.2 | 11.5 | 88.5 | 8.2 | 91.8 |
| | | 비재학 미취업 | 21.4 | 78.6 | 36.1 | 63.9 | 19.9 | 80.1 | 16.9 | 83.1 |

- [표 4-7-14]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연락두절 시 생사를 확인해줄 사람이 있다(92.4%),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84.5%) 돈이 필요할 때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64.8%) 순으로 높았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다른 가구유형보다 취약한 편임

[표 4-7-1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2

[단위: %]

| 구분 | | |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 나의 연락두절 시 나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
|----------------|------------|---------|-----------------------------------|------|-------------------------------------|------|-------------------------------------|------|
| | |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전체(n=5,083) | | | 35.2 | 64.8 | 15.5 | 84.5 | 7.6 | 92.4 |
| 성별 | 남성 | | 35.2 | 64.8 | 15.8 | 84.2 | 9.0 | 91.0 |
| | 여성 | | 35.3 | 64.7 | 15.3 | 84.7 | 6.3 | 93.7 |
| 연령 | 19-24세 | | 28.8 | 71.2 | 13.7 | 86.3 | 6.8 | 93.2 |
| | 25-29세 | | 34.1 | 65.9 | 14.4 | 85.6 | 7.6 | 92.4 |
| | 30-34세 | | 40.4 | 59.6 | 17.7 | 82.3 | 7.7 | 92.3 |
| | 35-36세 | | 42.5 | 57.5 | 18.9 | 81.1 | 11.5 | 88.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5.9 | 64.1 | 16.7 | 83.3 | 8.8 | 91.2 |
| | 전문대 졸업 | | 43.2 | 56.8 | 20.6 | 79.4 | 8.5 | 91.5 |
| | 대학교 졸업 | | 32.6 | 67.4 | 13.3 | 86.7 | 6.6 | 93.4 |
| | 대학원 졸업 | | 34.3 | 65.7 | 14.2 | 85.8 | 5.8 | 94.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6.7 | 63.3 | 17.3 | 82.7 | 10.0 | 90.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3.0 | 67.0 | 10.9 | 89.1 | 6.2 | 93.8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8.7 | 61.3 | 9.1 | 90.9 | 3.4 | 96.6 |
| | 부모동거 가구 | | 34.2 | 65.8 | 15.5 | 84.5 | 6.7 | 93.3 |
| | 기타 가구 | | 34.8 | 65.2 | 15.6 | 84.4 | 6.5 | 93.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5.4 | 64.6 | 14.1 | 85.9 | 6.8 | 93.2 |
| | | 실업 | 41.4 | 58.6 | 20.9 | 79.1 | 10.7 | 89.3 |
| | 비경제활 동 | 재학 | 22.4 | 77.6 | 11.6 | 88.4 | 5.0 | 95.0 |
| | | 비재학 미취업 | 37.6 | 62.4 | 19.9 | 80.1 | 10.4 | 89.6 |

4) 건강

(1) 건강상태와 병원 이용

- [표 4-7-15]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건강 양호라고 응답한 비율 52.2%, 보통 27.9%, 건강 나쁨 19.9%임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 여성은 22.9%임
- 20대보다 30대에서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7-15]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 구분 | | 건강 나쁨 | | | 보통이다 | 건강 양호 | | |
|----------------|------------|---------|------------------|-------------------|------|-------|------------|------------|
| | | | 전혀 건강하지 않다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 | 건강한 편이다 | 매우 건강하다 |
| 전체(n=5,083) | | 19.9 | 1.7 | 18.2 | 27.9 | 52.2 | 44.3 | 7.9 |
| 성별 | 남성 | 16.7 | 1.6 | 15.1 | 28.1 | 55.2 | 44.9 | 10.3 |
| | 여성 | 22.9 | 1.8 | 21.0 | 27.7 | 49.4 | 43.8 | 5.5 |
| 연령 | 19-24세 | 16.7 | 1.0 | 15.7 | 24.8 | 58.5 | 46.2 | 12.3 |
| | 25-29세 | 19.8 | 2.1 | 17.6 | 28.0 | 52.2 | 44.5 | 7.7 |
| | 30-34세 | 22.2 | 1.7 | 20.5 | 29.5 | 48.3 | 43.1 | 5.3 |
| | 35-36세 | 21.3 | 2.8 | 18.5 | 32.9 | 45.8 | 42.0 | 3.8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9.7 | 1.8 | 18.0 | 26.4 | 53.8 | 42.9 | 10.9 |
| | 전문대 졸업 | 22.4 | 2.3 | 20.1 | 34.6 | 43.0 | 38.1 | 4.9 |
| | 대학교 졸업 | 19.7 | 1.6 | 18.1 | 27.3 | 53.1 | 46.5 | 6.6 |
| | 대학원 졸업 | 16.6 | 1.0 | 15.6 | 26.4 | 56.9 | 50.7 | 6.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1.9 | 2.0 | 19.9 | 27.9 | 50.2 | 43.0 | 7.2 |
| | 무자녀 부부가구 | 16.1 | 0.9 | 15.2 | 30.9 | 53.0 | 46.9 | 6.1 |
| | 유자녀 부부가구 | 20.8 | 2.0 | 18.8 | 30.5 | 48.7 | 47.0 | 1.7 |
| | 부모동거 가구 | 18.4 | 1.6 | 16.8 | 27.0 | 54.6 | 45.2 | 9.5 |
| | 기타 가구 | 23.0 | 1.9 | 21.2 | 29.6 | 47.3 | 41.1 | 6.3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8.7 | 1.3 | 17.5 | 27.8 | 53.5 | 46.4 |
| | | 실업 | 24.4 | 3.8 | 20.7 | 32.7 | 42.8 | 36.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4.2 | 0.6 | 13.6 | 20.1 | 65.7 | 49.8 |
| | | 비재학 미취업 | 24.5 | 2.9 | 21.6 | 29.8 | 45.7 | 37.8 |

- [표 4-7-16]은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취한 조치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취한 조치는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70.4%,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음’ 13.0%,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바름’ 10.2%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보면,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응답한 비율이 남성 66.5%, 여성 74.2%임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자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16]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

[단위: %]

| 구분 |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음 |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바름 | 기타 | |
|-------------|------------|-------------------|---------------|--------------|-------------------|------|-----|
| 전체(n=5,083) | | 6.2 | 13.0 | 70.4 | 10.2 | 0.2 | |
| 성별 | 남성 | 7.6 | 16.9 | 66.5 | 8.9 | 0.2 | |
| | 여성 | 4.8 | 9.3 | 74.2 | 11.5 | 0.2 | |
| 연령 | 19-24세 | 6.5 | 13.0 | 67.4 | 12.8 | 0.3 | |
| | 25-29세 | 6.4 | 14.3 | 70.3 | 8.8 | 0.2 | |
| | 30-34세 | 5.7 | 11.4 | 72.6 | 10.1 | 0.1 | |
| | 35-36세 | 6.3 | 13.4 | 72.2 | 7.8 | 0.4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6 | 14.9 | 65.4 | 11.8 | 0.3 | |
| | 전문대 졸업 | 7.3 | 12.7 | 69.3 | 10.0 | 0.6 | |
| | 대학교 졸업 | 5.1 | 12.1 | 73.5 | 9.3 | 0.1 | |
| | 대학원 졸업 | 3.2 | 8.6 | 80.2 | 8.0 | 0.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3 | 12.5 | 69.4 | 10.5 | 0.2 | |
| | 무자녀 부부가구 | 3.1 | 14.6 | 72.9 | 9.1 | 0.2 | |
| | 유자녀 부부가구 | 6.2 | 8.2 | 78.1 | 7.2 | 0.3 | |
| | 부모동거 가구 | 5.8 | 14.0 | 69.3 | 10.8 | 0.2 | |
| | 기타 가구 | 6.2 | 10.2 | 75.8 | 7.8 | 0.0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0 | 12.6 | 71.5 | 9.8 | 0.2 |
| | | 실업 | 9.3 | 12.1 | 67.0 | 11.4 | 0.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1 | 14.5 | 70.8 | 10.6 | 0.0 |
| | | 비재학 미취업 | 6.4 | 14.1 | 67.9 | 11.1 | 0.4 |

- [표 4-7-17]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1순위와 2순위 응답 값임
-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1순위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9.4%),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5.6%),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25.0%) 순으로 높았음
- 2순위로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39.6%),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22.6%), 시간

적 여유가 없어서(20.4%) 순으로 높았음

[표 4-7-17]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분 | 1순위 (n=314) ¹⁾ | 2순위 (n=314) ¹⁾ |
|----------------|------------------------------|------------------------------|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29.4 | 11.8 |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25.6 | 20.4 |
|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25.0 | 22.6 |
|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 18.2 | 39.6 |
|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0.9 | 2.4 |
| 기타 | 0.9 | 3.2 |

주: 1)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응답한 3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정신건강

- [표 4-7-18]은 외로움 정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외롭다(약간 외로움+매우 외로움)고 응답한 비율은 20.4%이며, 보통 43.2%, 미미함 36.4%임
- 남성보다 여성이 외롭다(약간 외로움+매우 외로움)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7-18] 외로움 정도

[단위: %, 점]

| 구분 | | 미미함 | 보통 | 외로움 ¹⁾ | | 평균 ²⁾ |
|-------------|------------|------|------|-------------------|--------|------------------|
| | | | | 약간 외로움 | 매우 외로움 | |
| 전체(n=5,083) | | 36.4 | 43.2 | 18.6 | 1.8 | 39.5 |
| 성별 | 남성 | 38.7 | 41.4 | 18.0 | 2.0 | 39.0 |
| | 여성 | 34.2 | 44.9 | 19.2 | 1.7 | 39.9 |
| 연령 | 19~24세 | 41.1 | 41.2 | 16.9 | 0.8 | 38.0 |
| | 25~29세 | 37.2 | 43.5 | 17.3 | 1.9 | 39.2 |
| | 30~34세 | 32.5 | 44.3 | 21.0 | 2.3 | 40.6 |
| | 35~36세 | 31.1 | 43.7 | 22.4 | 2.9 | 41.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7.5 | 39.8 | 20.4 | 2.3 | 39.5 |
| | 전문대 졸업 | 31.1 | 44.9 | 21.2 | 2.9 | 41.1 |
| | 대학교 졸업 | 36.7 | 45.2 | 16.8 | 1.2 | 39.0 |
| | 대학원 졸업 | 38.4 | 44.4 | 16.3 | 0.9 | 38.8 |

| 구분 | | 미미함 | 보통 | 외로움 ¹⁾ | | 평균 ²⁾ |
|----------|----------|---------|------|-------------------|--------|------------------|
| | | | | 약간 외로움 | 매우 외로움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5.0 | 42.5 | 19.8 | 2.7 | 40.1 |
| | 무자녀 부부가구 | 42.9 | 45.3 | 11.5 | 0.3 | 37.2 |
| | 유자녀 부부가구 | 36.4 | 46.0 | 17.1 | 0.5 | 38.9 |
| | 부모동거 가구 | 36.2 | 43.4 | 18.9 | 1.6 | 39.5 |
| | 기타 가구 | 38.5 | 42.1 | 18.6 | 0.9 | 38.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3.7 | 17.1 | 1.4 | 38.9 |
| | | 실업 | 45.8 | 22.4 | 3.4 | 41.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8.5 | 12.6 | 1.3 | 36.7 |
| | | 비재학 미취업 | 42.5 | 25.2 | 2.8 | 41.6 |

주: 1) 한국형 UCLA 외로움 척도 평가 지표를 활용했으며, 척도 점수가 20-34점이면 외로움 미미, 35-49점이면 보통, 50-64점 약간 외로움, 65-80점 매우 외로움을 의미함

2) 한국형 UCLA 외로움 척도 평가 지표 20개 문항의 1-4로 코딩된 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함(단, 1번, 5번, 6번, 9번, 10번, 15번, 16번, 19번, 20번 문항에 대해서는 역 코딩하여 계산)

- [표 4-7-19]는 우울 증상 여부 및 위험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 우울 증상이 있다고 보이는 비율은 34.7%이며, 우울 위험도로 보면 중위험군이 18.0%, 고위험군은 16.7%임
-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 증상 비율, 중위험군과 고위험군 비율 또한 높았음
- 가구유형별 우울 증상 여부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35.9%), 부모동거 가구(35.2%), 기타 가구(34.8%) 순으로 높았음. 특히 1인가구는 고위험군 비율이 18.6%로 높음
- 경제활동상태별 우울 증상 여부를 분석한 결과, 비재학 미취업(44.3%), 실업(42.0%), 취업(32.7%) 순으로 높았음. 실업자와 비재학 미취업 청년 우울 고위험군은 각각 22.2%, 23.9%로 나타남

[표 4-7-19] 우울 증상 여부 및 위험도

(단위: %)

| 구분 | | 우울 없음 ¹⁾ | 우울 있음 ¹⁾ | 우울 위험도 ²⁾ | | |
|-------------|--------|---------------------|---------------------|----------------------|------|------|
| | | | | 저위험군 | 중위험군 | 고위험군 |
| 전체(n=5,083) | | 65.3 | 34.7 | 65.3 | 18.0 | 16.7 |
| 성별 | 남성 | 68.6 | 31.4 | 68.6 | 16.7 | 14.7 |
| | 여성 | 62.1 | 37.9 | 62.1 | 19.3 | 18.6 |
| 연령 | 19-24세 | 66.3 | 33.7 | 66.3 | 18.2 | 15.5 |
| | 25-29세 | 65.9 | 34.1 | 65.8 | 17.9 | 16.3 |
| | 30-34세 | 64.3 | 35.7 | 64.3 | 17.9 | 17.8 |
| | 35-36세 | 62.2 | 37.8 | 62.2 | 19.5 | 18.3 |

| 구분 | | | 우울 없음 ¹⁾ | 우울 있음 ¹⁾ | 우울 위험도 ²⁾ | | |
|-------------|------------|---------|---------------------|---------------------|----------------------|------|------|
| | | | | | 저위험군 | 중위험군 | 고위험군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63.7 | 36.3 | 63.7 | 17.7 | 18.6 |
| | 전문대 졸업 | | 61.7 | 38.3 | 61.7 | 19.7 | 18.5 |
| | 대학교 졸업 | | 67.3 | 32.7 | 67.3 | 17.7 | 15.0 |
| | 대학원 졸업 | | 67.0 | 33.0 | 67.0 | 19.2 | 13.8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64.1 | 35.9 | 64.1 | 17.3 | 18.6 |
| | 무자녀 부부가구 | | 73.1 | 26.9 | 73.1 | 13.8 | 13.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8.8 | 31.2 | 68.8 | 16.2 | 15.1 |
| | 부모동거 가구 | | 64.8 | 35.2 | 64.8 | 19.2 | 16.1 |
| | 기타 가구 | | 65.2 | 34.8 | 65.2 | 19.3 | 15.5 |
| 경제활동 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7.3 | 32.7 | 67.3 | 17.9 | 14.8 |
| | | 실업 | 58.0 | 42.0 | 58.0 | 19.8 | 22.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77.3 | 22.7 | 77.3 | 12.8 | 9.9 |
| | | 비재학 미취업 | 55.7 | 44.3 | 55.7 | 20.4 | 23.9 |

주: 1) CES-D11 척도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 CES-D11개 문항의 1~4로 코딩된 값을 0~3으로 변환하고(단, 2번 문항과 7번 문항에 대해서는 역 점수를 부여함), 11개 문항의 점수를 더한 우울 총점에 20/11을 곱하여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저위험군은 우울점수 16점 미만, 중위험군은 우울점수 16~24점, 고위험군은 우울점수 25점 이상으로 분류함

- [표 4-7-20]은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의 1순위와 2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1순위는 수면을 취한다(20.2%), 그냥 참는다(20.1%),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18.0%) 순으로 높았음
- 2순위로는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을 한다(19.4%), 수면을 취한다(15.2%), 기타 지인과의 교류(14.3%) 순으로 높았음

[표 4-7-20]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주된 행동

[단위: %]

| 구분 | 1순위 (n=5,083) | 2순위 (n=4,903) ¹⁾ |
|---------------------------------|------------------|--------------------------------|
| 수면을 취한다 | 20.2 | 15.2 |
| 그냥 참는다 | 20.1 | 4.8 |
|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 18.0 | 19.4 |
| 과식/폭식/미식 또는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 | 8.4 | 11.9 |
| 기타 지인과의 교류(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7.9 | 14.3 |
|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 6.8 | 10.8 |
|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 4.9 | 13.8 |
| 가족과의 교류(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3.6 | 4.6 |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3.5 | - |
|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 3.4 | 1.7 |

| 구분 | 1순위 (n=5,083) | 2순위 (n=4,903) ¹⁾ |
|-----------|------------------|--------------------------------|
| 심리상담을 받는다 | 1.8 | 1.4 |
| 종교활동을 한다 | 0.9 | 1.3 |
| 기타 | 0.6 | 0.9 |

주: 1) 2순위 응답자 4,9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7-21]은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이유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우울위험도 별로 분석한 결과임
-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이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기타(22.7%), 진로나 직장문제(22.5%), 경제적 이유(20.7%)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10.2%와 여성 18.7%가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30-34세(15.2%), 25-29세(14.7%), 19-24세(13.6%) 순으로 높았음. 특히 35-36세는 진로나 직장문제로 자살생각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높음
- 학력별 자살생각과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 이상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직장이나 관계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음
- 가구유형별 자살생각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타 가구(18.4%), 1인가구(15.3%), 부모동거 가구(14.0%) 순으로 높았음. 기타 가구는 진로나 직장문제에 따른 이유가 가장 컸고, 1인가구는 경제적 문제, 부모동거 가구는 기타의 이유가 높았음. 부부가구는 가족 내 불화나 단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자살생각 여부를 분석한 결과, 비재학 미취업(18.7%), 실업(17.7%), 취업(13.6%) 순으로 높았음. 재학자와 비재학 미취업자는 진로나 직장문제로 자살생각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적 이유가 컸음
- 우울위험도별로 분석한 결과, 우울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한 비율이 높았음. 특히 우울 고위험군은 자살생각을 한 비율이 73.7%임. 우울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큼

[표 4-7-21]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이유

[단위: %]

| 구분 | | 자살생각 없음 | 자살생각 있음(n=741) ²⁾ | | | | | | |
|-------------|----|---------|------------------------------|-----------|----------------|-------------------------|-----------|-----------------|------|
| | | | | 경제적 이유 | 알고 있는 질환 |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 사회적 관계 | 진로나 직장 문제 | 기타 |
| 전체(n=5,083) | | 85.4 | 14.6 | 20.7 | 7.5 | 14.0 | 12.6 | 22.5 | 22.7 |
| 성별 | 남성 | 89.8 | 10.2 | 28.4 | 9.1 | 11.1 | 16.6 | 14.9 | 19.8 |
| | 여성 | 81.3 | 18.7 | 16.8 | 6.7 | 15.4 | 10.5 | 26.4 | 24.2 |

| 구분 | | 자살 생각 없음 | 자살생각 있음(n=741) ²⁾ | | | | | | |
|-----------------------------|------------|----------------|------------------------------|-----------|----------------|-------------------------|-----------|-----------------|------|
| | | | | 경제적 이유 | 알고 있는 질환 |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 사회적 관계 | 진로나 직장 문제 | 기타 |
| 연령 | 19-24세 | 86.4 | 13.6 | 8.2 | 13.9 | 16.8 | 12.0 | 23.6 | 25.5 |
| | 25-29세 | 85.3 | 14.7 | 22.0 | 6.0 | 12.9 | 12.7 | 25.6 | 20.8 |
| | 30-34세 | 84.8 | 15.2 | 28.3 | 5.3 | 12.8 | 13.7 | 17.2 | 22.7 |
| | 35-36세 | 86.8 | 13.2 | 14.7 | 3.9 | 19.1 | 3.3 | 34.0 | 25.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5.3 | 14.7 | 21.0 | 9.5 | 13.4 | 11.3 | 22.4 | 22.4 |
| | 전문대 졸업 | 83.3 | 16.7 | 30.3 | 5.0 | 11.0 | 8.7 | 18.9 | 26.1 |
| | 대학교 졸업 | 85.9 | 14.1 | 17.9 | 7.0 | 15.5 | 14.8 | 22.2 | 22.5 |
| | 대학원 졸업 | 87.7 | 12.3 | 14.2 | 5.5 | 13.4 | 13.5 | 36.4 | 17.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84.7 | 15.3 | 23.7 | 7.2 | 10.6 | 14.6 | 22.4 | 21.6 |
| | 무자녀 부부가구 | 88.2 | 11.8 | 20.1 | 5.5 | 20.9 | 9.0 | 28.0 | 16.5 |
| | 유자녀 부부가구 | 86.8 | 13.2 | 15.8 | 9.2 | 44.4 | 8.3 | 8.3 | 14.1 |
| | 부모동거 가구 | 86.0 | 14.0 | 18.4 | 8.1 | 14.3 | 12.3 | 21.9 | 25.0 |
| | 기타 가구 | 81.6 | 18.4 | 23.8 | 5.8 | 6.3 | 10.2 | 30.0 | 23.9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86.4 | 13.6 | 21.4 | 4.9 | 14.7 | 13.2 | 21.1 |
| | | 실업 | 82.3 | 17.7 | 31.3 | 14.0 | 8.3 | 7.9 | 21.9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89.6 | 10.4 | 7.6 | 17.6 | 6.0 | 16.0 | 28.4 |
| | | 비재학 미취업 | 81.3 | 18.7 | 18.0 | 9.3 | 16.3 | 12.1 | 24.9 |
| 우울 위험 도 ¹⁾ | 저위험군 | | 90.7 | 9.3 | 15.7 | 6.5 | 15.3 | 10.9 | 25.8 |
| | 중위험군 | | 55.1 | 44.9 | 24.1 | 9.4 | 11.2 | 14.8 | 20.7 |
| | 고위험군 | | 26.3 | 73.7 | 35.3 | 7.4 | 15.4 | 14.5 | 11.7 |

주: 1) 저위험군은 우울점수 16점 미만, 중위험군은 우울점수 16-24점, 고위험군은 우울점수 25점 이상으로 분류함
2)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7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 사회 인식과 사회참여

- [표 4-7-22]는 노력 대비 공정성 인식 만족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노력 대비 공정성 인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 보통이 30.7%, 비동의가 48.0%로 확인됨
- 남성의 25.7%, 여성의 17.3%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경제활동상태별 공정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재학자(33.2%), 실업자(21.3%), 취업자(20.4%) 순으로 높았음
- 주관적 소득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4-7-22] 노력 대비 공정성 인식 [단위: %]

| 구분 | | |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 | | | | | |
|-------------|------------|---------|------------------------------|------|------|----------------|----------------|----------------|----------|
| | | | 비동의 | | 보통 | 동의 | | | |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전체(n=5,083) | | | 48.0 | 12.5 | 35.4 | 30.7 | 21.4 | 19.3 | 2.0 |
| 성별 | 남성 | | 42.8 | 12.4 | 30.4 | 31.5 | 25.7 | 22.4 | 3.3 |
| | 여성 | | 52.9 | 12.7 | 40.2 | 29.9 | 17.3 | 16.5 | 0.8 |
| 연령 | 19~24세 | | 36.3 | 8.4 | 27.9 | 35.4 | 28.3 | 25.3 | 3.0 |
| | 25~29세 | | 46.8 | 11.7 | 35.1 | 31.0 | 22.2 | 20.0 | 2.2 |
| | 30~34세 | | 56.7 | 16.1 | 40.6 | 26.9 | 16.4 | 15.1 | 1.4 |
| | 35~36세 | | 57.9 | 16.3 | 41.7 | 30.0 | 12.1 | 12.1 | 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0.4 | 10.8 | 29.6 | 33.5 | 26.1 | 23.0 | 3.1 |
| | 전문대 졸업 | | 50.2 | 15.4 | 34.8 | 32.6 | 17.2 | 16.1 | 1.2 |
| | 대학교 졸업 | | 52.2 | 12.8 | 39.4 | 28.4 | 19.5 | 17.8 | 1.7 |
| | 대학원 졸업 | | 56.2 | 14.8 | 41.4 | 27.0 | 16.8 | 16.8 | 0.0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52.1 | 14.0 | 38.1 | 26.7 | 21.1 | 19.1 | 2.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55.7 | 18.3 | 37.4 | 29.3 | 15.0 | 14.2 | 0.8 |
| | 유자녀 부부가구 | | 43.8 | 10.6 | 33.2 | 36.3 | 19.9 | 19.0 | 0.9 |
| | 부모동거 가구 | | 44.5 | 10.8 | 33.7 | 32.5 | 23.0 | 20.5 | 2.5 |
| | 기타 가구 | | 46.8 | 13.4 | 33.4 | 34.9 | 18.3 | 17.6 | 0.6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9.1 | 13.1 | 36.0 | 30.5 | 20.4 | 18.7 | 1.7 |
| | | 실업 | 49.6 | 13.8 | 35.8 | 29.1 | 21.3 | 19.1 | 2.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37.6 | 7.6 | 30.0 | 29.2 | 33.2 | 28.4 | 4.8 |
| | | 비재학 미취업 | 47.7 | 12.2 | 35.6 | 32.5 | 19.7 | 17.7 | 2.0 |

| 구분 | |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 | | | | | |
|-------------------|---|------------------------------|----------------|----------------|------|------|----------------|----------|
| | | 비동의 | | | 보통 | 동의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63.1 | 21.6 | 41.4 | 23.8 | 13.2 | 12.3 | 0.9 |
| | 중 | 43.9 | 9.6 | 34.3 | 33.6 | 22.5 | 20.3 | 2.2 |
| | 상 | 29.2 | 5.8 | 23.4 | 28.9 | 41.9 | 37.2 | 4.7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65.0 | 21.3 | 43.7 | 21.4 | 13.6 | 12.4 | 1.2 |
| | 중 | 46.1 | 11.2 | 34.9 | 32.9 | 20.9 | 19.1 | 1.8 |
| | 상 | 35.7 | 8.0 | 27.8 | 31.2 | 33.1 | 28.9 | 4.1 |

- [표 4-7-23]은 사회적 성취 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 중요성에 대한 만족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사회적 성취에 부모의 지위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 비동의가 47.1%, 보통은 24.2%임
-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모의 지위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의 지위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나의 노력보다 부모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7-23]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중요성

[단위: %]

| 구분 | |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 | | | | | |
|-------------|------------|---|----------------|----------------|------|------|----------------|----------|
| | | 비동의 | | | 보통 | 동의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전체(n=5,083) | | 47.1 | 16.3 | 30.8 | 24.2 | 28.7 | 20.8 | 7.8 |
| 성별 | 남성 | 41.0 | 15.3 | 25.6 | 26.9 | 32.1 | 22.4 | 9.7 |
| | 여성 | 52.9 | 17.3 | 35.6 | 21.7 | 25.4 | 19.4 | 6.0 |
| 연령 | 19-24세 | 39.3 | 11.2 | 28.1 | 27.0 | 33.7 | 25.5 | 8.2 |
| | 25-29세 | 46.7 | 15.7 | 31.0 | 25.4 | 27.9 | 19.3 | 8.6 |
| | 30-34세 | 52.9 | 20.5 | 32.4 | 21.2 | 25.9 | 19.2 | 6.7 |
| | 35-36세 | 50.8 | 19.4 | 31.3 | 21.8 | 27.5 | 20.1 | 7.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1.4 | 14.1 | 27.3 | 26.3 | 32.3 | 23.1 | 9.2 |
| | 전문대 졸업 | 46.2 | 19.0 | 27.2 | 24.3 | 29.5 | 22.3 | 7.2 |
| | 대학교 졸업 | 51.1 | 17.2 | 33.9 | 22.9 | 26.0 | 18.8 | 7.2 |
| | 대학원 졸업 | 52.9 | 17.2 | 35.7 | 21.7 | 25.4 | 19.0 | 6.4 |

| 구분 | | |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 | | | | | |
|-------------------|----------|---------|---|----------------|----------------|------|------|----------------|----------|
| | | | 비동의 | 동의 | | 보통 | 동의 |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48.9 | 18.6 | 30.2 | 22.9 | 28.2 | 20.2 | 8.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53.9 | 20.1 | 33.8 | 20.8 | 25.3 | 20.0 | 5.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1.3 | 17.1 | 34.2 | 22.4 | 26.3 | 21.9 | 4.4 |
| | 부모동거 가구 | | 43.9 | 13.8 | 30.0 | 26.2 | 30.0 | 21.5 | 8.5 |
| | 기타 가구 | | 51.6 | 18.3 | 33.3 | 21.4 | 27.0 | 19.7 | 7.3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8.9 | 17.2 | 31.7 | 23.3 | 27.8 | 20.1 | 7.7 |
| | | 실업 | 42.8 | 16.9 | 25.8 | 26.4 | 30.9 | 22.1 | 8.8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1.0 | 11.5 | 29.6 | 24.2 | 34.7 | 25.7 | 9.0 |
| | | 비재학 미취업 | 45.1 | 15.0 | 30.1 | 26.6 | 28.3 | 20.9 | 7.5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 55.0 | 25.6 | 29.3 | 19.6 | 25.4 | 16.9 | 8.5 |
| | 중 | | 45.0 | 13.2 | 31.7 | 26.0 | 29.0 | 21.7 | 7.4 |
| | 상 | | 37.5 | 10.3 | 27.2 | 24.8 | 37.6 | 28.2 | 9.5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59.8 | 27.8 | 32.0 | 17.1 | 23.1 | 15.1 | 7.9 |
| | 중 | | 45.1 | 14.4 | 30.7 | 26.3 | 28.6 | 21.5 | 7.1 |
| | 상 | | 41.3 | 11.7 | 29.6 | 22.9 | 35.7 | 24.5 | 11.2 |

- [표 4-7-24]는 40-50대 대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청년세대의 기회가 더 많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17.8%, 보통이 21.1%, 비동의가 61.0%임
-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7.3%, 여성은 18.3%로 확인됨
- 학력이 높을수록 40-50대 대비 청년세대 기회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청년세대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4-7-24] 40-50대 대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

[단위: %]

| 구분 | |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 | | | | | |
|----------------|------------|--|----------------|----------------|------|------|----------------|----------|
| | | 비동의 | | | 보통 | 동의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전체(n=5,083) | | 61.0 | 29.6 | 31.4 | 21.1 | 17.8 | 13.8 | 4.1 |
| 성별 | 남성 | 61.2 | 31.9 | 29.3 | 21.5 | 17.3 | 12.7 | 4.6 |
| | 여성 | 60.9 | 27.4 | 33.5 | 20.8 | 18.3 | 14.7 | 3.6 |
| 연령 | 19-24세 | 51.8 | 21.6 | 30.2 | 26.5 | 21.7 | 16.4 | 5.3 |
| | 25-29세 | 62.8 | 31.3 | 31.5 | 21.9 | 15.3 | 11.9 | 3.5 |
| | 30-34세 | 65.3 | 32.7 | 32.6 | 16.9 | 17.8 | 13.9 | 3.9 |
| | 35-36세 | 66.3 | 38.3 | 28.0 | 16.8 | 16.9 | 13.3 | 3.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5.2 | 25.9 | 29.3 | 25.6 | 19.2 | 14.2 | 5.0 |
| | 전문대 졸업 | 54.7 | 25.7 | 29.0 | 23.5 | 21.8 | 16.2 | 5.6 |
| | 대학교 졸업 | 66.6 | 33.2 | 33.4 | 17.5 | 15.9 | 12.6 | 3.3 |
| | 대학원 졸업 | 67.8 | 33.3 | 34.5 | 16.6 | 15.6 | 14.6 | 1.0 |
| 가구유형 | 1인가구 | 63.7 | 32.5 | 31.2 | 19.6 | 16.8 | 12.9 | 3.9 |
| | 무자녀 부부가구 | 64.3 | 32.3 | 32.0 | 16.3 | 19.5 | 15.9 | 3.5 |
| | 유자녀 부부가구 | 58.6 | 30.7 | 28.0 | 24.4 | 17.0 | 13.4 | 3.6 |
| | 부모동거 가구 | 58.9 | 26.7 | 32.2 | 22.3 | 18.8 | 14.3 | 4.4 |
| | 기타 가구 | 61.4 | 31.7 | 29.7 | 23.0 | 15.6 | 12.1 | 3.5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2.0 | 30.2 | 31.8 | 20.6 | 17.4 | 13.4 |
| | | 실업 | 59.3 | 31.4 | 27.9 | 22.7 | 18.0 | 14.8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2.7 | 27.5 | 35.2 | 19.1 | 18.2 | 12.1 |
| | | 비재학 미취업 | 57.4 | 27.5 | 29.9 | 23.4 | 19.2 | 15.5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66.4 | 38.1 | 28.4 | 18.8 | 14.8 | 11.5 | 3.3 |
| | 중 | 59.1 | 26.4 | 32.8 | 22.4 | 18.4 | 14.4 | 4.0 |
| | 상 | 58.3 | 27.9 | 30.3 | 18.2 | 23.5 | 16.4 | 7.2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68.2 | 39.4 | 28.8 | 15.4 | 16.4 | 12.0 | 4.4 |
| | 중 | 58.9 | 27.4 | 31.6 | 23.4 | 17.7 | 14.4 | 3.3 |
| | 상 | 62.4 | 28.3 | 34.1 | 17.5 | 20.1 | 12.9 | 7.2 |

- [표 4-7-25]는 청년세대 사회의 관심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청년세대가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17.1%, 보통이 32.5%, 비동의가 50.4% 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16.9%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는 것에 동의했고, 여

성은 17.4%가 동의하고 있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청년세대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함

[표 4-7-25]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

[단위: %]

| 구분 | |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 | | | | | |
|----------------|------------|---------------------------------|----------------|----------------|------|------|----------------|----------|
| | | 비동의 | | | 보통 | 동의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전체(n=5,083) | | 50.4 | 17.3 | 33.0 | 32.5 | 17.1 | 14.5 | 2.6 |
| 성별 | 남성 | 51.1 | 20.1 | 30.9 | 32.1 | 16.9 | 13.8 | 3.1 |
| | 여성 | 49.7 | 14.7 | 35.0 | 32.9 | 17.4 | 15.3 | 2.2 |
| 연령 | 19-24세 | 40.9 | 13.5 | 27.4 | 38.2 | 20.9 | 17.8 | 3.1 |
| | 25-29세 | 52.3 | 18.2 | 34.1 | 33.3 | 14.4 | 12.4 | 2.0 |
| | 30-34세 | 55.1 | 18.9 | 36.2 | 27.9 | 17.0 | 14.3 | 2.6 |
| | 35-36세 | 51.4 | 20.0 | 31.4 | 27.4 | 21.1 | 16.3 | 4.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5.0 | 16.8 | 28.2 | 37.7 | 17.3 | 14.4 | 3.0 |
| | 전문대 졸업 | 48.0 | 18.9 | 29.1 | 31.8 | 20.2 | 15.9 | 4.3 |
| | 대학교 졸업 | 54.4 | 17.4 | 37.0 | 29.3 | 16.3 | 14.3 | 1.9 |
| | 대학원 졸업 | 57.2 | 16.5 | 40.6 | 27.0 | 15.8 | 14.2 | 1.6 |
| 가구유형 | 1인가구 | 52.7 | 18.3 | 34.4 | 30.5 | 16.8 | 13.8 | 3.0 |
| | 무자녀 부부가구 | 57.0 | 20.6 | 36.4 | 26.4 | 16.6 | 14.7 | 2.0 |
| | 유자녀 부부가구 | 48.0 | 14.7 | 33.3 | 28.6 | 23.3 | 19.8 | 3.5 |
| | 부모동거 가구 | 48.6 | 16.7 | 31.9 | 34.5 | 16.9 | 14.4 | 2.4 |
| | 기타 가구 | 46.5 | 15.8 | 30.7 | 36.9 | 16.6 | 14.9 | 1.7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50.8 | 17.4 | 33.4 | 31.9 | 17.4 | 14.6 |
| | | 실업 | 51.0 | 18.4 | 32.6 | 35.2 | 13.8 | 12.2 |
| | 비경제활동 | 재학 | 48.4 | 16.0 | 32.4 | 30.8 | 20.7 | 18.2 |
| | | 비재학 미취업 | 49.5 | 17.3 | 32.1 | 34.4 | 16.2 | 13.6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61.6 | 26.6 | 35.0 | 26.9 | 11.5 | 10.0 | 1.5 |
| | 중 | 46.6 | 13.7 | 32.8 | 34.9 | 18.6 | 15.6 | 2.9 |
| | 상 | 43.2 | 15.8 | 27.4 | 31.6 | 25.3 | 21.3 | 4.0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58.9 | 26.3 | 32.6 | 27.7 | 13.4 | 11.5 | 1.8 |
| | 중 | 49.0 | 15.2 | 33.8 | 33.8 | 17.2 | 14.7 | 2.5 |
| | 상 | 46.4 | 16.5 | 29.9 | 32.0 | 21.6 | 17.4 | 4.2 |

- [표 4-7-26]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인지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다른 나라에 비해 살만한 나라인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 보통이 26.3%, 비동의가 62.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13.7%, 여성의 8.1%가 다른 나라에 비해 살만한 나라에 동의하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살만한 나라임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국과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7-26]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 | |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 | | | | |
|-------------|------------|---------|--------------------------------|----------------|----------------|------|----------------|----------|
| | | | 비동의 | | | 보통 | 동의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전체(n=5,083) | | | 62.8 | 29.9 | 32.9 | 26.3 | 10.8 | 2.1 |
| 성별 | 남성 | | 57.3 | 29.6 | 27.7 | 29.1 | 13.7 | 3.1 |
| | 여성 | | 68.1 | 30.2 | 37.9 | 23.8 | 8.1 | 1.2 |
| 연령 | 19-24세 | | 55.9 | 26.2 | 29.7 | 32.1 | 12.0 | 2.6 |
| | 25-29세 | | 65.0 | 30.6 | 34.4 | 25.7 | 9.3 | 1.7 |
| | 30-34세 | | 65.7 | 31.9 | 33.8 | 23.0 | 11.3 | 2.3 |
| | 35-36세 | | 60.8 | 28.9 | 31.9 | 24.7 | 14.5 | 1.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6.9 | 28.6 | 28.3 | 31.3 | 11.8 | 2.9 |
| | 전문대 졸업 | | 62.3 | 27.8 | 34.6 | 26.0 | 11.6 | 1.8 |
| | 대학교 졸업 | | 66.4 | 31.1 | 35.2 | 23.5 | 10.1 | 1.7 |
| | 대학원 졸업 | | 72.5 | 33.3 | 39.2 | 18.1 | 9.4 | 1.4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65.4 | 32.4 | 32.9 | 23.7 | 10.9 | 2.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4.8 | 32.9 | 31.9 | 22.0 | 13.2 | 2.9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2.3 | 23.5 | 38.8 | 25.2 | 12.5 | 2.0 |
| | 부모동거 가구 | | 60.9 | 28.4 | 32.5 | 28.3 | 10.8 | 2.1 |
| | 기타 가구 | | 61.8 | 29.8 | 32.1 | 30.7 | 7.5 | 1.7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4.0 | 30.0 | 34.0 | 25.2 | 10.7 | 2.0 |
| | | 실업 | 60.8 | 31.6 | 29.2 | 28.7 | 10.4 | 1.6 |
| | 비경제활동 | 재학 | 55.7 | 28.8 | 26.9 | 31.2 | 13.1 | 3.1 |
| | | 비재학 미취업 | 62.4 | 29.2 | 33.2 | 27.2 | 10.4 | 2.4 |

| 구분 | |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 | | | | | |
|----------------|---|--------------------------------|----------------|----------------|------|------|----------------|----------|
| | | 비동의 | | | 보통 | 동의 | | |
| | | | 전혀 동의 안함 | 별로 동의 안함 | | | 어느 정도 동의 | 매우 동의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72.0 | 41.4 | 30.6 | 21.8 | 6.2 | 5.3 | 0.9 |
| | 중 | 60.2 | 25.9 | 34.3 | 28.2 | 11.6 | 9.2 | 2.4 |
| | 상 | 52.6 | 23.6 | 29.0 | 26.4 | 21.0 | 17.1 | 3.9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74.2 | 41.1 | 33.1 | 18.7 | 7.1 | 5.2 | 1.9 |
| | 중 | 61.1 | 27.4 | 33.7 | 28.3 | 10.7 | 8.8 | 1.8 |
| | 상 | 57.3 | 28.2 | 29.1 | 26.5 | 16.2 | 12.4 | 3.8 |

- [표 4-7-27]은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성,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5%,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1%,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 임
- 성별로는 여성(41.7%)보다 남성(53.6%)이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소득수준 및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4-7-27]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단위: %]

| 구분 | |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 | | | |
|-------------|------------|------------------------------|-----------------|-----------|------|------|------|-----------|
| | | 그렇지 않음 | | | 보통 | 그려함 | | |
| | |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전체(n=5,083) | | 19.4 | 4.7 | 14.7 | 33.1 | 47.5 | 35.7 | 11.8 |
| 성별 | 남성 | 15.6 | 4.3 | 11.3 | 30.9 | 53.6 | 36.5 | 17.0 |
| | 여성 | 23.0 | 5.1 | 17.9 | 35.3 | 41.7 | 35.0 | 6.8 |
| 연령 | 19-24세 | 20.0 | 5.2 | 14.8 | 33.7 | 46.3 | 34.6 | 11.7 |
| | 25-29세 | 19.0 | 4.7 | 14.3 | 33.2 | 47.9 | 36.0 | 11.9 |
| | 30-34세 | 19.0 | 4.4 | 14.6 | 33.0 | 48.0 | 36.4 | 11.6 |
| | 35-36세 | 22.9 | 4.1 | 18.8 | 29.9 | 47.2 | 34.4 | 12.8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9.9 | 5.9 | 14.0 | 33.5 | 46.7 | 33.7 | 13.0 |
| | 전문대 졸업 | 26.6 | 7.2 | 19.4 | 40.7 | 32.7 | 26.8 | 5.9 |
| | 대학교 졸업 | 17.2 | 3.3 | 14.0 | 31.2 | 51.5 | 39.5 | 12.0 |
| | 대학원 졸업 | 16.5 | 2.7 | 13.8 | 28.7 | 54.8 | 39.0 | 15.8 |

| 구분 | | |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 | | |
|----------------|----------|---------|------------------------------|-----------|------|------|------|-----------|
| | | | 그렇지 않음 | | 보통 | 그려함 | | |
| | |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18.1 | 4.5 | 13.7 | 31.6 | 50.3 | 13.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9.5 | 4.2 | 15.3 | 38.5 | 42.0 | 11.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8.4 | 4.3 | 14.0 | 34.6 | 47.1 | 8.7 |
| | 부모동거 가구 | | 19.9 | 4.8 | 15.0 | 33.7 | 46.4 | 11.2 |
| | 기타 가구 | | 22.8 | 5.6 | 17.2 | 30.9 | 46.3 | 9.8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9.5 | 4.1 | 15.3 | 33.1 | 47.5 | 11.2 |
| | | 실업 | 21.2 | 5.7 | 15.5 | 32.6 | 46.1 | 11.0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6.1 | 4.8 | 11.2 | 25.8 | 58.1 | 20.3 |
| | | 비재학 미취업 | 19.7 | 6.1 | 13.6 | 36.7 | 43.6 | 10.4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 25.2 | 7.7 | 17.5 | 31.1 | 43.7 | 12.2 |
| | 중 | | 17.9 | 3.8 | 14.0 | 35.1 | 47.1 | 10.6 |
| | 상 | | 11.3 | 1.4 | 10.0 | 22.7 | 65.9 | 20.7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24.7 | 8.2 | 16.5 | 28.4 | 46.9 | 13.8 |
| | 중 | | 19.6 | 4.3 | 15.3 | 35.9 | 44.5 | 9.2 |
| | 상 | | 11.6 | 2.0 | 9.6 | 25.8 | 62.6 | 21.7 |

- [표 4-7-28]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 보통이 31.4%, 할 수 없음은 9.1%를 차지함
-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64.1%, 여성은 55.3%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로 분석한 결과, 재학생이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았음
- 주관적 소득수준 및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4-7-28]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단위: %]

| 구분 | |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 | | | | |
|-------------|------------|--------------------------------|-----------|--------|------|--------|------|--------|
| | | 할 수 없음 | | | 보통 | 할 수 있음 | | |
| | |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전체(n=5,083) | | 9.1 | 2.0 | 7.0 | 31.4 | 59.6 | 46.7 | 12.9 |
| 성별 | 남성 | 8.0 | 2.2 | 5.8 | 27.9 | 64.1 | 47.3 | 16.8 |
| | 여성 | 10.1 | 1.9 | 8.2 | 34.7 | 55.3 | 46.2 | 9.1 |
| 연령 | 19-24세 | 7.3 | 1.8 | 5.5 | 29.6 | 63.1 | 47.2 | 15.9 |
| | 25-29세 | 9.5 | 2.4 | 7.1 | 30.1 | 60.4 | 47.6 | 12.8 |
| | 30-34세 | 10.1 | 1.9 | 8.2 | 33.3 | 56.6 | 45.6 | 11.0 |
| | 35-36세 | 7.0 | 1.4 | 5.6 | 37.7 | 55.3 | 44.7 | 10.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1 | 2.9 | 6.3 | 30.5 | 60.4 | 44.7 | 15.7 |
| | 전문대 졸업 | 12.7 | 3.0 | 9.7 | 40.9 | 46.4 | 37.9 | 8.5 |
| | 대학교 졸업 | 8.0 | 1.2 | 6.8 | 29.3 | 62.7 | 50.7 | 12.0 |
| | 대학원 졸업 | 8.8 | 1.3 | 7.6 | 31.3 | 59.9 | 48.0 | 11.9 |
| 가구유형 | 1인가구 | 8.6 | 1.6 | 7.0 | 30.3 | 61.1 | 47.4 | 13.7 |
| | 무자녀 부부가구 | 10.6 | 2.6 | 8.0 | 34.4 | 54.9 | 46.6 | 8.4 |
| | 유자녀 부부가구 | 8.4 | 0.6 | 7.8 | 36.4 | 55.2 | 46.7 | 8.6 |
| | 부모동거 가구 | 9.4 | 2.3 | 7.1 | 31.0 | 59.6 | 46.3 | 13.3 |
| | 기타 가구 | 8.0 | 2.9 | 5.2 | 32.6 | 59.4 | 46.3 | 13.1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8.5 | 1.7 | 6.8 | 31.7 | 59.8 | 47.2 |
| | | 실업 | 10.7 | 3.0 | 7.7 | 28.5 | 60.8 | 51.0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4 | 1.0 | 5.4 | 21.1 | 72.5 | 53.8 |
| | | 비재학 미취업 | 11.7 | 3.3 | 8.3 | 35.9 | 52.5 | 40.3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13.5 | 4.5 | 9.0 | 31.4 | 55.1 | 42.1 | 13.0 |
| | 중 | 7.6 | 1.2 | 6.5 | 32.5 | 59.8 | 47.8 | 12.1 |
| | 상 | 5.6 | 0.9 | 4.7 | 20.3 | 74.1 | 54.2 | 19.8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13.5 | 4.6 | 8.8 | 30.6 | 55.9 | 41.7 | 14.2 |
| | 중 | 8.5 | 1.5 | 7.0 | 33.3 | 58.1 | 47.4 | 10.7 |
| | 상 | 6.1 | 1.3 | 4.8 | 22.9 | 71.0 | 49.5 | 21.5 |

- [표 4-7-29]는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선거,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4%,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1%,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3.5% 임

- 성별로는 남성의 35.1%와 여성의 31.7%가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함
- 주관적 소득수준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4-7-29]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단위: %]

| 구분 | | | 선거,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 |
|----------------|------------|---------|------------------------------------|-----------|-----------|------|---------|-----------|
| | | | 미칠 수 없음 | | | 보통 | 미칠 수 있음 | |
| | |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전체(n=5,083) | | | 33.5 | 11.3 | 22.2 | 33.1 | 33.4 | 8.1 |
| 성별 | 남성 | | 32.7 | 11.8 | 20.9 | 32.2 | 35.1 | 24.8 |
| | 여성 | | 34.3 | 10.8 | 23.5 | 34.0 | 31.7 | 25.9 |
| 연령 | 19-24세 | | 27.6 | 8.5 | 19.1 | 35.7 | 36.7 | 27.0 |
| | 25-29세 | | 34.7 | 11.9 | 22.8 | 32.0 | 33.3 | 25.4 |
| | 30-34세 | | 36.4 | 12.4 | 24.0 | 32.6 | 31.0 | 23.9 |
| | 35-36세 | | 34.0 | 12.5 | 21.5 | 32.7 | 33.3 | 25.8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1.1 | 11.5 | 19.6 | 34.6 | 34.2 | 24.3 |
| | 전문대 졸업 | | 44.5 | 18.7 | 25.8 | 34.3 | 21.2 | 16.5 |
| | 대학교 졸업 | | 32.7 | 9.4 | 23.3 | 31.8 | 35.6 | 27.9 |
| | 대학원 졸업 | | 28.7 | 7.3 | 21.4 | 32.1 | 39.2 | 31.0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33.2 | 11.0 | 22.2 | 31.4 | 35.4 | 25.9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6.0 | 11.1 | 24.9 | 35.1 | 28.9 | 22.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4.7 | 11.3 | 23.4 | 34.9 | 30.3 | 24.0 |
| | 부모동거 가구 | | 32.7 | 11.2 | 21.5 | 34.1 | 33.2 | 25.8 |
| | 기타 가구 | | 37.5 | 13.4 | 24.1 | 31.9 | 30.6 | 23.3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34.2 | 11.0 | 23.2 | 32.7 | 33.1 | 25.3 |
| | | 실업 | 31.3 | 11.6 | 19.7 | 32.8 | 35.9 | 29.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4.7 | 8.3 | 16.4 | 32.0 | 43.2 | 30.9 |
| | | 비재학 미취업 | 35.6 | 13.3 | 22.3 | 35.4 | 28.9 | 21.4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 41.9 | 16.9 | 25.0 | 28.9 | 29.2 | 21.6 |
| | 중 | | 31.5 | 9.7 | 21.8 | 35.1 | 33.4 | 25.7 |
| | 상 | | 20.0 | 4.2 | 15.8 | 31.0 | 49.0 | 35.4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41.0 | 16.8 | 24.2 | 28.6 | 30.3 | 21.9 |
| | 중 | | 33.5 | 10.6 | 22.9 | 34.9 | 31.6 | 24.8 |
| | 상 | | 24.1 | 7.5 | 16.6 | 30.3 | 45.6 | 32.0 |

- [표 4-7-30]은 30년 뒤 한국의 미래 전망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임
- 30년 뒤 좋아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 변화가 없다고 전망한 비율이 15.6%,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5.1%로 과반을 차지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함
-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을 보임
- 주관적 소득수준 및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7-30] 30년 뒤 한국의 미래전망

[단위: %]

| 구분 | | 나빠짐 | | | 변화 없음 | 좋아짐 | | | |
|-------------------|------------|-----------|-----------|-----------|----------|-----------|------|------|-----|
| | | 매우 나빠짐 | 약간 나빠짐 | 약간 좋아짐 | | 매우 좋아짐 | | | |
| 전체(n=5,083) | | 55.1 | 20.3 | 34.8 | 15.6 | 29.2 | 26.0 | 3.2 | |
| 성별 | 남성 | 57.6 | 25.3 | 32.3 | 13.5 | 28.9 | 24.6 | 4.2 | |
| | 여성 | 52.8 | 15.6 | 37.2 | 17.7 | 29.6 | 27.3 | 2.2 | |
| 연령 | 19~24세 | 54.5 | 18.4 | 36.1 | 15.6 | 29.8 | 25.9 | 4.0 | |
| | 25~29세 | 55.8 | 21.4 | 34.3 | 17.0 | 27.2 | 24.6 | 2.6 | |
| | 30~34세 | 55.4 | 20.4 | 35.0 | 14.3 | 30.3 | 27.0 | 3.3 | |
| | 35~36세 | 50.6 | 21.3 | 29.3 | 14.2 | 35.2 | 32.0 | 3.3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6.3 | 21.8 | 34.5 | 15.8 | 27.9 | 24.2 | 3.7 | |
| | 전문대 졸업 | 54.2 | 21.9 | 32.3 | 17.4 | 28.4 | 25.2 | 3.2 | |
| | 대학교 졸업 | 54.8 | 18.9 | 36.0 | 15.5 | 29.7 | 27.1 | 2.7 | |
| | 대학원 졸업 | 52.2 | 19.1 | 33.2 | 12.1 | 35.6 | 31.0 | 4.6 | |
| 가구유형 | 1인가구 | 57.8 | 21.9 | 36.0 | 14.4 | 27.8 | 25.0 | 2.8 | |
| | 무자녀 부부가구 | 51.4 | 18.6 | 32.7 | 16.1 | 32.5 | 28.1 | 4.5 | |
| | 유자녀 부부가구 | 46.9 | 18.0 | 28.9 | 15.8 | 37.3 | 34.6 | 2.7 | |
| | 부모동거 가구 | 54.2 | 19.7 | 34.5 | 16.5 | 29.4 | 26.1 | 3.3 | |
| | 기타 | 57.5 | 19.8 | 37.7 | 16.0 | 26.5 | 22.6 | 3.9 | |
| 경제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4.7 | 19.8 | 34.9 | 15.6 | 29.7 | 26.5 | 3.1 |
| | | 실업 | 56.9 | 22.3 | 34.5 | 14.7 | 28.4 | 26.1 | 2.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6.2 | 18.8 | 37.5 | 12.1 | 31.7 | 27.0 | 4.6 |
| | | 비재학 미취업 | 55.4 | 21.9 | 33.4 | 17.7 | 26.9 | 23.7 | 3.2 |
| 주관적 소득수준 | 하 | 65.6 | 32.4 | 33.3 | 13.0 | 21.4 | 18.6 | 2.7 | |
| | 중 | 51.7 | 15.7 | 36.0 | 17.2 | 31.1 | 27.9 | 3.2 | |
| | 상 | 47.3 | 17.6 | 29.7 | 11.5 | 41.2 | 36.1 | 5.1 |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66.0 | 31.6 | 34.4 | 12.5 | 21.4 | 19.0 | 2.5 | |
| | 중 | 53.4 | 18.0 | 35.4 | 17.1 | 29.5 | 26.3 | 3.2 | |
| | 상 | 49.9 | 17.7 | 32.2 | 12.6 | 37.5 | 33.4 | 4.1 | |

8_코로나19에 따른 변화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 및 특성을 코로나19 이후 변화 측면에서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회복 정도, 회복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함. 분석의 전체 표본은 5,083명 중 원표본은 3,735명, 신규표본은 1,348명이며, 문항별 결측값이 상이함
- [표 4-8-1]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회복 정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 보통이 42.6%, 회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이며, 회복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5.9점임
- 성별로는 남성의 44.7%와 여성의 41.6%가 회복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회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8-1]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회복 정도

[단위: %, 10점 만점]

| 구분 | | |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정도 ¹⁾ | | | 평균 |
|-------------|------------|---------|---------------------------------|------|------|-----|
| | | | 회복하지 못함 | 보통 | 회복함 | |
| 전체(n=5,083) | | | 14.3 | 42.6 | 43.1 | 5.9 |
| 성별 | 남성 | | 14.3 | 41.0 | 44.7 | 6.0 |
| | 여성 | | 14.3 | 44.1 | 41.6 | 5.9 |
| 연령 | 19~24세 | | 9.4 | 38.3 | 52.4 | 6.4 |
| | 25~29세 | | 13.8 | 44.0 | 42.2 | 5.9 |
| | 30~34세 | | 17.7 | 44.1 | 38.1 | 5.7 |
| | 35~36세 | | 20.1 | 43.6 | 36.3 | 5.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3.4 | 40.6 | 46.0 | 6.1 |
| | 전문대 졸업 | | 18.9 | 48.4 | 32.7 | 5.5 |
| | 대학교 졸업 | | 13.7 | 42.7 | 43.7 | 5.9 |
| | 대학원 졸업 | | 13.6 | 41.0 | 45.4 | 6.1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15.2 | 42.8 | 42.0 | 5.8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2.8 | 41.2 | 46.1 | 6.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6.1 | 44.3 | 39.7 | 5.7 |
| | 부모동거 가구 | | 14.1 | 41.6 | 44.3 | 6.0 |
| | 기타 가구 | | 10.8 | 48.2 | 41.0 | 5.9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3.2 | 43.3 | 43.5 | 6.0 |
| | | 실업 | 18.4 | 45.7 | 35.9 | 5.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9.8 | 31.6 | 58.6 | 6.5 |
| | | 비재학 미취업 | 18.3 | 43.4 | 38.3 | 5.6 |

주: 1) 10점 척도에 대해 0-3점 회복하지 못함, 4-6점 보통, 7-10점 회복함

- [표 4-8-2]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예상 회복 시기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예상 회복 시기 분포를 분석한 결과, 1년 이상 2년 미만 (30.9%), 2년 이상 3년 미만(25.6%), 5년 이후(16.3%)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 예상 회복 시기 분포 비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후 순으로 높았음
- 실업과 비재학 미취업은 예상 회복 시기가 '5년 이후'일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18.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8-2]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 예상 회복 시기

| | | | | | | | | | [단위: %] |
|----------------|------------|---------|-------|----------------|----------------|----------------|----------------|-------|---------|
| 구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후 | |
| 전체(n=5,083) | | | 12.7 | 30.9 | 25.6 | 11.6 | 2.8 | 16.3 | |
| 성별 | 남성 | | 15.3 | 31.4 | 22.6 | 11.2 | 2.4 | 17.0 | |
| | 여성 | | 10.3 | 30.4 | 28.5 | 12.1 | 3.3 | 15.5 | |
| 연령 | 19-24세 | | 16.3 | 31.7 | 24.4 | 11.7 | 3.0 | 12.9 | |
| | 25-29세 | | 13.9 | 31.5 | 24.2 | 11.0 | 2.9 | 16.6 | |
| | 30-34세 | | 9.3 | 29.5 | 27.8 | 12.3 | 2.8 | 18.3 | |
| | 35-36세 | | 8.4 | 31.9 | 28.1 | 12.5 | 1.8 | 17.4 | |
| | | | | | | | |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5.5 | 30.3 | 23.8 | 10.8 | 3.3 | 16.2 | |
| | 전문대 졸업 | | 9.7 | 26.6 | 27.3 | 13.6 | 2.4 | 20.4 | |
| | 대학교 졸업 | | 11.5 | 32.6 | 26.1 | 11.7 | 2.8 | 15.3 | |
| | 대학원 졸업 | | 12.0 | 30.8 | 28.6 | 12.2 | 1.9 | 14.6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13.0 | 31.9 | 25.2 | 11.1 | 2.6 | 16.3 |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2.6 | 30.5 | 31.2 | 7.6 | 3.3 | 14.7 |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0.0 | 28.6 | 29.6 | 9.6 | 4.1 | 18.1 | |
| | 부모동거 가구 | | 13.1 | 30.4 | 24.5 | 12.8 | 2.8 | 16.4 | |
| | 기타 가구 | | 11.2 | 31.3 | 27.6 | 11.5 | 3.3 | 15.1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2.7 | 31.4 | 26.4 | 11.4 | 2.4 | 15.7 | |
| | | 실업 | 10.1 | 31.8 | 24.2 | 11.3 | 4.0 | 18.5 |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6.5 | 33.0 | 23.6 | 10.4 | 3.0 | 13.5 | |
| | | 비재학 미취업 | 12.4 | 27.7 | 24.3 | 13.2 | 3.9 | 18.5 | |

- [표 4-8-3]은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분석한 결과임
-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 1순위로는 해당 없음(모두 회복될 것)(22.5%), 여가생활(22.2%), 소득활동(18.7%) 순으로 높았음
- 2순위는 여가생활(18.5%), 사회적 관계(17.9%), 생활환경(16.5%) 순으로 높았음

[표 4-8-3]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

[단위: %]

| 구분 | 1순위 (n=5,083) | 2순위 (n=3,954) ¹⁾ |
|-----------------|------------------|--------------------------------|
| 해당 없음(모두 회복될 것) | 22.5 | - |
| 여가생활 | 22.2 | 18.5 |
| 소득활동 | 18.7 | 10.9 |
| 신체 및 정신 건강 | 11.9 | 13.9 |
| 사회적 관계 | 10.4 | 17.9 |
| 소비활동 | 7.0 | 15.9 |
| 생활환경 | 5.1 | 16.5 |
| 교육참여 | 1.2 | 3.5 |
| 종교활동 | 0.8 | 2.1 |
| 가족관계 | 0.3 | 0.9 |

주: 1) 2순위 응답자 3,9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8-4]는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1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남성은 해당 없음(모두 회복)(25.6%), 소득 활동(19.8%), 사회적 관계(11.6%), 여성은 여가생활(25.2%), 해당 없음(모두 회복)(19.5%), 소득 활동(17.7%) 순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는 해당 없음(모두 회복)(22.5%), 여가생활(22.2%), 소득 활동(18.7%) 순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35-36세는 여가생활(26.8%), 소득 활동(20.6%), 해당 없음(모두 회복)(17.2%) 순으로 높았음
-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활동’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자는 소득활동(23.5%), 여가생활(19.3%), 해당 없음(모두 회복)(16.8%) 순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응답했고, 비재학 미취업자는 해당 없음(모두 회복)(24.7%), 소득 활동(22.9%), 여가생활(18.0%) 순으로 응답함

[표 4-8-4]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1순위)

[단위: %]

| 구분 | | 해당 없음 (모두 회복) | 여가 생활 | 소득 활동 | 신체/ 정신 건강 | 사회적 관계 | 소비 활동 | 생활 환경 | 교육 참여 | 종교 활동 | 가족 관계 |
|----------------------------|---------------|------------------------|----------|----------|-----------------|-----------|----------|----------|----------|----------|----------|
| 전체(n=5,083) | | 22.5 | 22.2 | 18.7 | 11.9 | 10.4 | 7.0 | 5.1 | 1.2 | 0.8 | 0.3 |
| 성 별 | 남성 | 25.6 | 19.1 | 19.8 | 9.7 | 11.6 | 8.0 | 4.2 | 0.8 | 1.0 | 0.2 |
| | 여성 | 19.5 | 25.2 | 17.7 | 14.0 | 9.2 | 6.0 | 5.9 | 1.6 | 0.6 | 0.4 |
| 연 령 | 19-24세 | 27.2 | 18.8 | 19.1 | 10.7 | 10.4 | 6.4 | 4.2 | 1.7 | 1.0 | 0.5 |
| | 25-29세 | 22.6 | 21.5 | 17.8 | 12.8 | 10.1 | 8.2 | 5.0 | 1.2 | 0.6 | 0.2 |
| | 30-34세 | 19.5 | 25.1 | 19.2 | 11.7 | 10.6 | 6.3 | 5.7 | 0.8 | 0.8 | 0.3 |
| | 35-36세 | 17.2 | 26.8 | 20.6 | 12.5 | 10.5 | 4.8 | 6.7 | 0.9 | 0.0 | 0.0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3.9 | 17.8 | 22.0 | 10.6 | 10.3 | 7.7 | 4.7 | 1.4 | 1.0 | 0.6 |
| | 전문대 졸업 | 19.6 | 23.1 | 21.7 | 14.6 | 7.8 | 6.2 | 4.2 | 1.3 | 1.1 | 0.3 |
| | 대학교 졸업 | 21.7 | 25.3 | 15.8 | 12.4 | 11.1 | 6.5 | 5.6 | 1.0 | 0.5 | 0.1 |
| | 대학원 졸업 | 26.3 | 23.3 | 13.9 | 9.8 | 10.8 | 8.1 | 5.3 | 1.1 | 1.1 | 0.3 |
| 가 구 유 형 | 1인가구 | 21.5 | 23.7 | 18.8 | 11.5 | 10.8 | 6.4 | 5.5 | 1.1 | 0.5 | 0.3 |
| | 무자녀 부부가구 | 24.4 | 27.0 | 17.0 | 10.5 | 10.3 | 4.9 | 3.5 | 2.1 | 0.3 | 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18.4 | 31.1 | 14.9 | 9.4 | 12.7 | 7.2 | 5.5 | 0.0 | 0.3 | 0.4 |
| | 부모동거 가구 | 23.9 | 20.4 | 19.2 | 11.8 | 9.5 | 7.5 | 5.0 | 1.3 | 1.0 | 0.4 |
| | 기타 가구 | 18.7 | 16.9 | 19.5 | 17.6 | 12.3 | 7.7 | 4.7 | 1.3 | 1.1 | 0.3 |
| 경 제 활 동 상 태 | 경제 활동 | 취업 | 21.6 | 24.5 | 17.4 | 12.2 | 10.1 | 6.6 | 5.2 | 1.4 | 0.4 |
| | | 실업 | 16.8 | 19.3 | 23.5 | 12.9 | 11.0 | 8.1 | 6.2 | 0.7 | 1.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0.0 | 15.8 | 15.2 | 10.2 | 14.2 | 7.7 | 4.3 | 1.2 | 0.2 |
| | | 비재학 미취업 | 24.7 | 18.0 | 22.9 | 10.9 | 9.4 | 7.5 | 4.7 | 0.7 | 0.9 |

- [표 4-8-5]는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2순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남성은 소비활동(19.2%), 여가생활(18.6%), 사회적 관계(17.5%), 여성은 여가생활(18.4%), 사회적 관계(18.3%), 생활환경(17.7%) 순으로 응답함
- 30대는 '신체 및 정신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보다 높았고, 20대는 '여가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18.8%), 여가생활(18.1%), 소비활동(16.5%) 순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유자녀 부부가구는 생활환경(23.0%), 사회적 관계(19.2%), 신체 및 정신건강(16.9%) 순으로 높았음. 부모동거 가구는 여가생활(19.3%), 사회적 관계(17.3%), 생활환경(16.3%) 순으로 높았음

[표 4-8-5] 코로나19 이전 회복이 어려운 이유(2순위)

[단위: %]

| 구분 | | 여가 생활 | 사회적 관계 | 생활 환경 | 소비 활동 | 신체 및 정신 건강 | 소득 활동 | 교육 참여 | 종교 활동 | 가족 관계 |
|----------------------------|-------------------------|------------|-----------|----------|----------|---------------------|----------|----------|----------|----------|
| 전체(n=3,954) ¹⁾ | | 18.5 | 17.9 | 16.5 | 15.9 | 13.9 | 10.9 | 3.5 | 2.1 | 0.9 |
| 성 별 | 남성 | 18.6 | 17.5 | 15.1 | 19.2 | 11.7 | 10.5 | 3.2 | 2.8 | 1.3 |
| | 여성 | 18.4 | 18.3 | 17.7 | 12.9 | 15.8 | 11.1 | 3.7 | 1.5 | 0.5 |
| 연 령 | 19~24세 | 20.3 | 15.9 | 15.2 | 17.2 | 12.7 | 10.9 | 5.1 | 1.9 | 0.9 |
| | 25~29세 | 17.9 | 18.0 | 17.1 | 15.5 | 14.1 | 10.8 | 3.4 | 2.4 | 0.8 |
| | 30~34세 | 18.4 | 19.5 | 16.6 | 15.9 | 13.6 | 10.6 | 2.7 | 1.9 | 0.9 |
| | 35~36세 | 14.3 | 15.0 | 17.3 | 11.8 | 22.3 | 13.5 | 2.1 | 2.7 | 1.1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9.9 | 16.2 | 14.0 | 17.7 | 14.3 | 10.9 | 3.9 | 2.0 | 1.2 |
| | 전문대 졸업 | 19.5 | 14.3 | 16.6 | 18.1 | 14.6 | 12.3 | 2.9 | 1.6 | 0.2 |
| | 대학교 졸업 | 17.2 | 19.8 | 18.5 | 14.2 | 13.3 | 10.3 | 3.4 | 2.5 | 0.8 |
| | 대학원 졸업 | 18.5 | 21.8 | 15.7 | 12.9 | 14.9 | 11.8 | 2.9 | 1.0 | 0.6 |
| 가 구 유 형 | 1인가구 | 18.1 | 18.8 | 15.3 | 16.5 | 14.7 | 10.8 | 3.0 | 2.2 | 0.6 |
| | 무자녀 부부가구 | 15.5 | 16.3 | 20.0 | 16.3 | 13.0 | 11.9 | 2.7 | 3.0 | 1.4 |
| | 유자녀 부부가구 | 15.5 | 19.0 | 23.7 | 11.7 | 16.8 | 6.8 | 2.6 | 2.4 | 1.5 |
| | 부모동거 가구 | 19.3 | 17.3 | 16.3 | 16.1 | 13.0 | 10.9 | 4.1 | 2.1 | 1.0 |
| | 기타 가구 | 20.1 | 18.1 | 15.5 | 14.4 | 14.3 | 13.0 | 2.6 | 1.5 | 0.7 |
| 경 제 활 동 상 태 | 경제 활동 | 취업 | 17.7 | 18.7 | 17.3 | 15.7 | 13.6 | 11.1 | 3.3 | 2.1 |
| | | 실업 | 19.8 | 19.8 | 14.1 | 16.5 | 11.2 | 3.6 | 2.7 | 1.3 |
| | 비경 제활 동 상 태 | 재학 | 20.2 | 12.4 | 13.6 | 19.9 | 12.7 | 11.5 | 5.7 | 2.9 |
| | | 비재학 미취업 | 20.3 | 16.3 | 16.1 | 14.7 | 17.0 | 9.7 | 3.0 | 1.8 |

주: 1) 2순위 응답자 3,9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9_정책경험과 평가

- 이 절에서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과 특성을 정책경험과 평가 측면에서 확인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지원 정책을 분석함. 분석의 전체 표본 5,083명 중 원표본은 3,735명, 신규표본은 1,348명이며, 문항별 결측값이 상이함

1)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정책

- [표 4-9-1]은 서울시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인지율은 23.6%이며, 이용 경험 1.2%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8%임
- 청년 취업사관학교 인지율은 19.7%이며, 이용 경험은 0.9%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4%였음.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임
- 서울 뉴딜형 일자리 인지율은 28.3%이며, 이용 경험은 1.5%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8%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임

[표 4-9-1] 일자리 관련 사업

[단위: %]

| 구분(n=5,083) | 인지율 | | 이용 경험 ¹⁾ | | 만족도 ²⁾ | | 이용 의향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23.6 | 76.4 | 1.2 | 98.8 | 73.8 | 26.2 | 33.8 | 66.2 |
| 청년 취업사관학교 | 19.7 | 80.3 | 0.9 | 99.1 | 74.4 | 25.6 | 30.9 | 69.1 |
| 서울 뉴딜형 일자리 | 28.3 | 71.7 | 1.5 | 98.5 | 74.8 | 25.2 | 33.2 | 66.8 |

주: 1) '이용 경험'은 인지율에서 '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198명, 청년 취업사관학교 999명, 서울 뉴딜형 일자리 1,437명).

2)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61명, 청년 취업사관학교 43명, 서울 뉴딜형 일자리 76명).

- [표 4-9-2]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율,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9-24세 청년에게 만족도와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만족도가 높았음
- 종사상 지위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서울 태생일 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인지율 및 이용 경험이 높았음

[표 4-9-2] 일자리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198) | | 만족도 (n=61) | | 이용 의향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 23.6 | 76.4 | 1.2 | 98.8 | 73.8 | 26.2 | 33.8 | 66.2 |
| 성별 | 남성 | | 21.8 | 78.2 | 1.6 | 98.4 | 70.4 | 29.6 | 32.8 | 67.2 |
| | 여성 | | 25.2 | 74.8 | 0.9 | 99.1 | 79.3 | 20.7 | 34.8 | 65.2 |
| 연령 | 19~24세 | | 22.7 | 77.3 | 1.0 | 99.0 | 88.1 | 11.9 | 53.4 | 46.6 |
| | 25~29세 | | 25.5 | 74.5 | 1.5 | 98.5 | 69.1 | 30.9 | 32.2 | 67.8 |
| | 30~34세 | | 22.4 | 77.6 | 1.1 | 98.9 | 73.4 | 26.6 | 23.2 | 76.8 |
| | 35~36세 | | 20.8 | 79.2 | 1.1 | 98.9 | 53.2 | 46.8 | 14.9 | 85.1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1.3 | 78.7 | 1.4 | 98.6 | 78.1 | 21.9 | 46.3 | 53.7 |
| | 전문대 졸업 | | 24.3 | 75.7 | 1.0 | 99.0 | 82.4 | 17.6 | 29.8 | 70.2 |
| | 대학교 졸업 | | 25.4 | 74.6 | 1.2 | 98.8 | 65.6 | 34.4 | 26.9 | 73.1 |
| | 대학원 졸업 | | 21.2 | 78.8 | 0.7 | 99.3 | 100.0 | 0.0 | 20.5 | 79.5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22.4 | 77.6 | 1.0 | 99.0 | 73.6 | 26.4 | 29.2 | 70.8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9.0 | 81.0 | 1.0 | 99.0 | 35.3 | 64.7 | 21.4 | 78.6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0.5 | 79.5 | 0.4 | 99.6 | 100.0 | 0.0 | 17.8 | 82.2 |
| | 부모동거 가구 | | 25.4 | 74.6 | 1.5 | 98.5 | 77.2 | 22.8 | 40.4 | 59.6 |
| | 기타 가구 | | 23.4 | 76.6 | 0.8 | 99.2 | 63.4 | 36.6 | 33.9 | 66.1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4.1 | 75.9 | 1.3 | 98.7 | 76.5 | 23.5 | 28.8 | 71.2 |
| | | 실업 | 28.8 | 71.2 | 1.4 | 98.6 | 42.2 | 57.8 | 46.7 | 53.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9.4 | 80.6 | 0.7 | 99.3 | 100.0 | 0.0 | 50.4 | 49.6 |
| | | 비재학 미취업 | 21.2 | 78.8 | 1.2 | 98.8 | 72.1 | 27.9 | 39.1 | 60.9 |
|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 하 | | 21.6 | 78.4 | 0.5 | 99.5 | 51.2 | 48.8 | 31.3 | 68.7 |
| | 중 | | 23.9 | 76.1 | 1.2 | 98.8 | 70.8 | 29.2 | 34.7 | 65.3 |
| | 상 | | 24.5 | 75.5 | 2.1 | 97.9 | 88.2 | 11.8 | 32.3 | 67.7 |
| 종사상 지위 ⁹⁾ | 비정규직 근로자 | | 28.7 | 71.3 | 2.1 | 97.9 | 81.6 | 18.4 | 45.4 | 54.6 |
| | 정규직 근로자 | | 22.0 | 78.0 | 0.8 | 99.2 | 70.0 | 30.0 | 20.0 | 80.0 |
| | 비임금 근로자 | | 23.3 | 76.7 | 1.3 | 98.7 | 77.9 | 22.1 | 32.5 | 67.5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198) | | 만족도 (n=61)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24.0 | 76.0 | 1.5 | 98.5 | 72.2 | 27.8 | 36.2 | 63.8 |
| | 서울로 이주 | 23.0 | 77.0 | 0.8 | 99.2 | 77.6 | 22.4 | 30.5 | 69.5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3]은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여성보다 남성이 인지율, 이용 경험 모두 높았지만, 만족도는 여성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의 청년의 인지율 및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청년의 정책 인지율이 높았음
-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인지율이 높고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종사상 지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지율과 만족도,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9-3] 일자리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취업사관학교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999) | | 만족도 (n=43)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19.7 | 80.3 | 0.9 | 99.1 | 74.4 | 25.6 | 30.9 | 69.1 |
| 성별 | 남성 | 19.7 | 80.3 | 1.1 | 98.9 | 69.6 | 30.4 | 31.7 | 68.3 |
| | 여성 | 19.6 | 80.4 | 0.6 | 99.4 | 83.3 | 16.7 | 30.2 | 69.8 |
| 연령 | 19-24세 | 17.9 | 82.1 | 0.8 | 99.2 | 79.4 | 20.6 | 40.6 | 59.4 |
| | 25-29세 | 21.3 | 78.7 | 1.1 | 98.9 | 57.6 | 42.4 | 30.4 | 69.6 |
| | 30-34세 | 19.4 | 80.6 | 0.6 | 99.4 | 100.0 | 0.0 | 26.0 | 74.0 |
| | 35-36세 | 17.5 | 82.5 | 0.5 | 99.5 | 100.0 | 0.0 | 16.6 | 83.4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8.4 | 81.6 | 1.3 | 98.7 | 62.9 | 37.1 | 38.5 | 61.5 |
| | 전문대 졸업 | 15.9 | 84.1 | 0.9 | 99.1 | 100.0 | 0.0 | 28.1 | 71.9 |
| | 대학교 졸업 | 21.6 | 78.4 | 0.6 | 99.4 | 81.0 | 19.0 | 26.9 | 73.1 |
| | 대학원 졸업 | 20.6 | 79.4 | 0.3 | 99.7 | 100.0 | 0.0 | 21.6 | 78.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0.1 | 79.9 | 0.9 | 99.1 | 60.8 | 39.2 | 29.0 | 71.0 |
| | 무자녀 부부가구 | 19.7 | 80.3 | 0.7 | 99.3 | 100.0 | 0.0 | 23.2 | 76.8 |
| | 유자녀 부부가구 | 14.0 | 86.0 | 0.4 | 99.6 | 100.0 | 0.0 | 19.1 | 80.9 |
| | 부모동거 가구 | 20.3 | 79.7 | 1.0 | 99.0 | 79.7 | 20.3 | 34.5 | 65.5 |
| | 기타 가구 | 16.7 | 83.3 | 0.0 | 100.0 | 0.0 | 0.0 | 31.4 | 68.6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999) | | 만족도 (n=43) | | 이용 의향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9.7 | 80.3 | 0.5 | 99.5 | 77.6 | 22.4 | 27.9 | 72.1 |
| | | 실업 | 23.3 | 76.7 | 1.5 | 98.5 | 67.5 | 32.5 | 37.7 | 62.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1.8 | 78.2 | 1.3 | 98.7 | 57.9 | 42.1 | 41.8 | 58.2 |
| | | 비재학 미취업 | 17.0 | 83.0 | 1.6 | 98.4 | 79.4 | 20.6 | 34.1 | 65.9 |
| 현재 부모 의 소득 수준 | 하 | | 18.4 | 81.6 | 0.5 | 99.5 | 74.6 | 25.4 | 31.9 | 68.1 |
| | 중 | | 19.4 | 80.6 | 0.9 | 99.1 | 76.0 | 24.0 | 31.3 | 68.7 |
| | 상 | | 22.3 | 77.7 | 1.0 | 99.0 | 67.2 | 32.8 | 27.9 | 72.1 |
| 종사 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21.8 | 78.2 | 0.5 | 99.5 | 82.6 | 17.4 | 38.5 | 61.5 |
| | 정규직 근로자 | | 18.6 | 81.4 | 0.4 | 99.6 | 78.3 | 21.7 | 22.3 | 77.7 |
| | 비임금 근로자 | | 20.3 | 79.7 | 0.8 | 99.2 | 65.8 | 34.2 | 30.4 | 69.6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 19.6 | 80.4 | 1.0 | 99.0 | 78.3 | 21.7 | 32.3 | 67.7 |
| | 서울로 이주 | | 19.7 | 80.3 | 0.6 | 99.4 | 66.1 | 33.9 | 29.1 | 70.9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4]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에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남정보다 여성이 서울 뉴딜형 일자리의 인지율과 만족도, 이용 의향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정책 인지율은 25-34세 청년에게서 높았고, 학력 수준이 높을 수록 정책 인지율이 높았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지율과 이용 경험 비율 모두 높았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4-9-4] 일자리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 뉴딜형 일자리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437) | | 만족도 (n=76)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28.3 | 71.7 | 1.5 | 98.5 | 74.8 | 25.2 | 33.2 | 66.8 |
| 성별 | 남성 | 25.6 | 74.4 | 1.8 | 98.2 | 68.9 | 31.1 | 32.1 | 67.9 |
| | 여성 | 30.8 | 69.2 | 1.3 | 98.7 | 82.7 | 17.3 | 34.3 | 65.7 |
| 연령 | 19-24세 | 20.7 | 79.3 | 1.2 | 98.8 | 76.2 | 23.8 | 45.8 | 54.2 |
| | 25-29세 | 30.8 | 69.2 | 1.6 | 98.4 | 80.8 | 19.2 | 31.8 | 68.2 |
| | 30-34세 | 31.4 | 68.6 | 1.7 | 98.3 | 72.9 | 27.1 | 27.4 | 72.6 |
| | 35-36세 | 24.8 | 75.2 | 1.0 | 99.0 | 0.0 | 100.0 | 17.3 | 82.7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437) | | 만족도 (n=76)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2.7 | 77.3 | 1.3 | 98.7 | 59.3 | 40.7 | 42.3 | 57.7 |
| | 전문대 졸업 | 23.4 | 76.6 | 1.2 | 98.8 | 100.0 | 0.0 | 32.4 | 67.6 |
| | 대학교 졸업 | 33.2 | 66.8 | 1.9 | 98.1 | 77.0 | 23.0 | 27.6 | 72.4 |
| | 대학원 졸업 | 35.2 | 64.8 | 0.7 | 99.3 | 100.0 | 0.0 | 23.2 | 76.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7.7 | 72.3 | 1.4 | 98.6 | 83.7 | 16.3 | 28.1 | 71.9 |
| | 무자녀 부부가구 | 28.3 | 71.7 | 0.6 | 99.4 | 100.0 | 0.0 | 25.2 | 74.8 |
| | 유자녀 부부가구 | 28.8 | 71.2 | 0.6 | 99.4 | 37.5 | 62.5 | 25.4 | 74.6 |
| | 부모동거 가구 | 28.9 | 71.1 | 1.8 | 98.2 | 69.3 | 30.7 | 38.7 | 61.3 |
| | 기타 가구 | 26.2 | 73.8 | 1.3 | 98.7 | 82.2 | 17.8 | 34.4 | 65.6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9.5 | 70.5 | 1.8 | 98.2 | 70.7 | 29.3 | 29.4 |
| | | 실업 | 31.6 | 68.4 | 1.8 | 98.2 | 100.0 | 0.0 | 44.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3.2 | 76.8 | 0.6 | 99.4 | 53.4 | 46.6 | 42.6 |
| | | 비재학 미취업 | 24.5 | 75.5 | 0.9 | 99.1 | 89.0 | 11.0 | 38.3 |
| 현재 부모의 소득수 준 | 하 | 28.6 | 71.4 | 1.6 | 98.4 | 78.7 | 21.3 | 34.1 | 65.9 |
| | 중 | 28.3 | 71.7 | 1.5 | 98.5 | 70.6 | 29.4 | 34.0 | 66.0 |
| | 상 | 27.9 | 72.1 | 1.4 | 98.6 | 90.9 | 9.1 | 28.6 | 71.4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30.5 | 69.5 | 2.6 | 97.4 | 68.1 | 31.9 | 43.7 | 56.3 |
| | 정규직 근로자 | 29.4 | 70.6 | 1.3 | 98.7 | 84.5 | 15.5 | 21.6 | 78.4 |
| | 비임금 근로자 | 27.4 | 72.6 | 2.0 | 98.0 | 72.0 | 28.0 | 34.1 | 65.9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27.9 | 72.1 | 1.7 | 98.3 | 67.9 | 32.1 | 35.9 | 64.1 |
| | 서울로 이주 | 28.8 | 71.2 | 1.3 | 98.7 | 86.9 | 13.1 | 29.6 | 70.4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5]는 서울시 주거 관련 사업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지율이 59.7%이며, 이용 경험은 2.7%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3%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임
- 청년월세지원 인지율은 67.3%이며, 이용 경험은 4.5%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7%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0%임

[표 4-9-5] 주거 관련 사업

[단위: %]

| 구분(n=5,083) | 인지율 | | 이용 경험 ¹⁾ | | 만족도 ²⁾ | | 이용의향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역세권 청년주택 | 59.7 | 40.3 | 2.7 | 97.3 | 74.3 | 25.7 | 62.9 | 37.1 |
| 청년월세지원 | 67.3 | 32.7 | 4.5 | 95.5 | 85.7 | 14.3 | 60.0 | 40.0 |

주: 1) '이용 경험'은 인지율에서 '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역세권 청년주택 3,033명, 청년월세지원 3,422명).
2)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역세권 청년주택 139명, 청년월세지원 230명).

- [표 4-9-6]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율, 만족도, 이용 의향 비율 모두 높았음
- 연령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인지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에서 정책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비율이 높고, 만족도는 무자녀 부부가구가 87.0%로 매우 높았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책 인지율이 높으며,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인지율, 이용 경험 비율, 만족도 모두 높았음
- 서울로 이주한 경우 서울 태생보다 역세권 청년주택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표 4-9-6] 주거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역세권 청년주택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033) | | 만족도 (n=139)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59.7 | 40.3 | 2.7 | 97.3 | 74.3 | 25.7 | 62.9 | 37.1 |
| 성별 | 남성 | 52.8 | 47.2 | 2.8 | 97.2 | 70.0 | 30.0 | 61.2 | 38.8 |
| | 여성 | 66.1 | 33.9 | 2.6 | 97.4 | 78.7 | 21.3 | 64.6 | 35.4 |
| 연령 | 19-24세 | 48.4 | 51.6 | 1.5 | 98.5 | 83.7 | 16.3 | 71.3 | 28.7 |
| | 25-29세 | 60.1 | 39.9 | 3.5 | 96.5 | 73.3 | 26.7 | 69.4 | 30.6 |
| | 30-34세 | 66.0 | 34.0 | 2.9 | 97.1 | 76.2 | 23.8 | 52.8 | 47.2 |
| | 35-36세 | 73.0 | 27.0 | 1.4 | 98.6 | 0.0 | 100.0 | 35.8 | 64.2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0.0 | 50.0 | 2.4 | 97.6 | 81.9 | 18.1 | 68.2 | 31.8 |
| | 전문대 졸업 | 60.8 | 39.2 | 2.1 | 97.9 | 71.4 | 28.6 | 65.8 | 34.2 |
| | 대학교 졸업 | 65.9 | 34.1 | 3.0 | 97.0 | 68.9 | 31.1 | 59.2 | 40.8 |
| | 대학원 졸업 | 67.2 | 32.8 | 3.9 | 96.1 | 81.9 | 18.1 | 52.7 | 47.3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033) | | 만족도 (n=139)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68.6 | 31.4 | 5.1 | 94.9 | 73.6 | 26.4 | 69.0 | 31.0 |
| | 무자녀 부부가구 | 65.0 | 35.0 | 2.5 | 97.5 | 87.0 | 13.0 | 35.2 | 64.8 |
| | 유자녀 부부가구 | 66.0 | 34.0 | 2.7 | 97.3 | 58.4 | 41.6 | 18.0 | 82.0 |
| | 부모동거 가구 | 51.2 | 48.8 | 1.0 | 99.0 | 75.1 | 24.9 | 66.0 | 34.0 |
| | 기타 가구 | 64.0 | 36.0 | 3.1 | 96.9 | 79.5 | 20.5 | 69.8 | 30.2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3.9 | 36.1 | 3.2 | 96.8 | 73.9 | 26.1 | 61.9 |
| | | 실업 | 54.2 | 45.8 | 2.3 | 97.7 | 78.3 | 21.7 | 71.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0.7 | 49.3 | 1.1 | 98.9 | 74.9 | 25.1 | 70.2 |
| | | 비재학 미취업 | 50.8 | 49.2 | 1.8 | 98.2 | 74.8 | 25.2 | 59.8 |
| 현재 부모의 소득수 준 | 하 | 60.6 | 39.4 | 2.2 | 97.8 | 69.3 | 30.7 | 65.7 | 34.3 |
| | 중 | 60.3 | 39.7 | 2.7 | 97.3 | 72.7 | 27.3 | 64.1 | 35.9 |
| | 상 | 55.7 | 44.3 | 3.6 | 96.4 | 84.0 | 16.0 | 53.5 | 46.5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58.8 | 41.2 | 3.2 | 96.8 | 77.6 | 22.4 | 70.3 | 29.7 |
| | 정규직 근로자 | 67.2 | 32.8 | 3.3 | 96.7 | 70.6 | 29.4 | 57.1 | 42.9 |
| | 비임금 근로자 | 59.0 | 41.0 | 3.3 | 96.7 | 82.5 | 17.5 | 66.2 | 33.8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55.9 | 44.1 | 2.1 | 97.9 | 74.3 | 25.7 | 61.4 | 38.6 |
| | 서울로 이주 | 64.8 | 35.2 | 3.6 | 96.4 | 74.4 | 25.6 | 64.9 | 35.1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7]은 청년월세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청년월세지원 인지율이 높았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25-29세 청년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에서 정책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자들에게 청년월세지원의 인지율이 높았으나, 실제 이용 경험은 재학 중인 청년들 비율이 높았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 또한 높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책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종사상 지위로 분석한 결과, 비임금 근로자의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편
-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인지율이 높았으며, 실제 이용 경험도 마찬가지임

[표 4-9-7] 주거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월세지원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422) | | 만족도 (n=230)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67.3 | 32.7 | 4.5 | 95.5 | 85.7 | 14.3 | 60.0 | 40.0 |
| 성별 | 남성 | 59.8 | 40.2 | 4.4 | 95.6 | 83.8 | 16.2 | 59.1 | 40.9 |
| | 여성 | 74.5 | 25.5 | 4.6 | 95.4 | 87.4 | 12.6 | 60.9 | 39.1 |
| 연령 | 19-24세 | 59.9 | 40.1 | 4.0 | 96.0 | 77.8 | 22.2 | 71.8 | 28.2 |
| | 25-29세 | 69.8 | 30.2 | 5.7 | 94.3 | 89.4 | 10.6 | 67.1 | 32.9 |
| | 30-34세 | 69.8 | 30.2 | 3.8 | 96.2 | 87.6 | 12.4 | 47.2 | 52.8 |
| | 35-36세 | 70.3 | 29.7 | 2.6 | 97.4 | 61.4 | 38.6 | 28.1 | 71.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9.6 | 40.4 | 4.6 | 95.4 | 82.1 | 17.9 | 68.9 | 31.1 |
| | 전문대 졸업 | 68.6 | 31.4 | 4.6 | 95.4 | 83.4 | 16.6 | 64.3 | 35.7 |
| | 대학교 졸업 | 72.2 | 27.8 | 4.7 | 95.3 | 89.1 | 10.9 | 53.4 | 46.6 |
| | 대학원 졸업 | 72.9 | 27.1 | 2.5 | 97.5 | 85.5 | 14.5 | 47.7 | 52.3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9.0 | 21.0 | 10.2 | 89.8 | 86.7 | 13.3 | 62.8 | 37.2 |
| | 무자녀 부부가구 | 67.4 | 32.6 | 2.1 | 97.9 | 84.6 | 15.4 | 30.7 | 69.3 |
| | 유자녀 부부가구 | 59.3 | 40.7 | 0.7 | 99.3 | 100.0 | 0.0 | 17.1 | 82.9 |
| | 부모동거 가구 | 58.4 | 41.6 | 1.2 | 98.8 | 71.5 | 28.5 | 65.3 | 34.7 |
| | 기타 가구 | 76.3 | 23.7 | 4.4 | 95.6 | 100.0 | 0.0 | 68.3 | 31.7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70.2 | 29.8 | 4.6 | 95.4 | 86.7 | 13.3 | 57.3 |
| | 경제 활동 | 실업 | 67.1 | 32.9 | 4.5 | 95.5 | 66.9 | 33.1 | 72.5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7.9 | 42.1 | 5.2 | 94.8 | 91.3 | 8.7 | 71.5 |
| | 비경제 활동 | 비재학 미취업 | 61.2 | 38.8 | 4.2 | 95.8 | 87.4 | 12.6 | 59.6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68.4 | 31.6 | 4.6 | 95.4 | 87.4 | 12.6 | 61.0 | 39.0 |
| | 중 | 67.9 | 32.1 | 4.5 | 95.5 | 85.6 | 14.4 | 61.4 | 38.6 |
| | 상 | 63.2 | 36.8 | 4.7 | 95.3 | 84.2 | 15.8 | 52.1 | 47.9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67.8 | 32.2 | 5.2 | 94.8 | 87.5 | 12.5 | 69.4 | 30.6 |
| | 정규직 근로자 | 71.5 | 28.5 | 3.6 | 96.4 | 83.9 | 16.1 | 50.4 | 49.6 |
| | 비임금 근로자 | 69.6 | 30.4 | 8.2 | 91.8 | 92.6 | 7.4 | 63.0 | 37.0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61.5 | 38.5 | 2.6 | 97.4 | 81.1 | 18.9 | 59.8 | 40.2 |
| | 서울로 이주 | 75.3 | 24.7 | 7.2 | 92.8 | 88.0 | 12.0 | 60.3 | 39.7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8]은 서울시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청년수당의 인지율은 65.4%이며, 이용 경험 8.0%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2.6%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3%임

- 서울영테크 인지율은 10.6%이며, 이용 경험은 1.4%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1%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임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인지율은 23.5%이며, 이용 경험은 2.2%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4.5%로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지율은 65.0%이며, 이용 경험은 9.4%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3%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9%임
-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인지율은 53.6%이며, 이용 경험은 12.1%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3%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임

[표 4-9-8] 복지 관련 사업

[단위: %]

| 구분(n=5,083) | 인지율 | | 이용 경험 ¹⁾ | | 만족도 ²⁾ | | 이용의향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청년수당 | 65.4 | 34.6 | 8.0 | 92.0 | 92.6 | 7.4 | 57.3 | 42.7 |
| 서울영테크 | 10.6 | 89.4 | 1.4 | 98.6 | 82.1 | 17.9 | 41.1 | 58.9 |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23.5 | 76.5 | 2.2 | 97.8 | 84.5 | 15.5 | 44.9 | 55.1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65.0 | 35.0 | 9.4 | 90.6 | 90.3 | 9.7 | 67.9 | 32.1 |
|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53.6 | 46.4 | 12.1 | 87.9 | 89.3 | 10.7 | 71.1 | 28.9 |

주: 1) '이용 경험'은 인지율에서 '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청년수당 3,322명, 서울영테크 540명,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1,197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3,302명,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2,725명).

2)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청년수당 406명, 서울영테크 73명,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114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479명,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615명).

- [표 4-9-9]는 청년수당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25-29세 청년이 청년수당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실제 이용 경험 비율 또한 높음
-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의 청년수당 인지율이 높았으나, 실제 이용 경험은 전문대 졸업 청년들 비율이 높았음
- 가구유형별 청년수당 이용 경험이 많은 유형은 기타 가구(9.9%)임. 이들의 만족도는

97.4%, 향후 이용 의향은 62.3%로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청년수당 이용 경험은 실업자가 15.9%, 비재학 미취업이 12.4%로 높았고, 이들의 만족도는 93.6%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6%임
- 종사상 지위별 청년수당을 분석한 결과, 이용 경험 비율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 으로 높았음

[표 4-9-9]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수당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322) | | 만족도 (n=406) | | 이용 의향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 65.4 | 34.6 | 8.0 | 92.0 | 92.6 | 7.4 | 57.3 | 42.7 |
| 성별 | 남성 | | 59.0 | 41.0 | 7.7 | 92.3 | 89.7 | 10.3 | 55.3 | 44.7 |
| | 여성 | | 71.4 | 28.6 | 8.3 | 91.7 | 95.1 | 4.9 | 59.1 | 40.9 |
| 연령 | 19-24세 | | 57.7 | 42.3 | 6.2 | 93.8 | 93.8 | 6.2 | 73.9 | 26.1 |
| | 25-29세 | | 69.9 | 30.1 | 11.8 | 88.2 | 91.7 | 8.3 | 60.5 | 39.5 |
| | 30-34세 | | 66.1 | 33.9 | 5.8 | 94.2 | 93.9 | 6.1 | 44.6 | 55.4 |
| | 35-36세 | | 65.0 | 35.0 | 2.6 | 97.4 | 84.6 | 15.4 | 29.4 | 70.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7.0 | 43.0 | 5.6 | 94.4 | 94.0 | 6.0 | 70.0 | 30.0 |
| | 전문대 졸업 | | 66.9 | 33.1 | 10.3 | 89.7 | 86.9 | 13.1 | 61.8 | 38.2 |
| | 대학교 졸업 | | 70.8 | 29.2 | 9.5 | 90.5 | 93.6 | 6.4 | 47.8 | 52.2 |
| | 대학원 졸업 | | 70.1 | 29.9 | 5.6 | 94.4 | 94.2 | 5.8 | 42.7 | 57.3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66.2 | 33.8 | 8.5 | 91.5 | 91.1 | 8.9 | 56.0 | 44.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4.9 | 35.1 | 4.8 | 95.2 | 80.2 | 19.8 | 39.2 | 60.8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4.8 | 35.2 | 2.3 | 97.7 | 65.2 | 34.8 | 29.5 | 70.5 |
| | 부모동거 가구 | | 64.8 | 35.2 | 8.4 | 91.6 | 94.5 | 5.5 | 62.8 | 37.2 |
| | 기타 가구 | | 65.8 | 34.2 | 9.9 | 90.1 | 97.4 | 2.6 | 62.3 | 37.7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6.7 | 33.3 | 6.7 | 93.3 | 91.7 | 8.3 | 51.2 | 48.8 |
| | | 실업 | 66.3 | 33.7 | 15.9 | 84.1 | 93.6 | 6.4 | 73.6 | 26.4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7.0 | 43.0 | 1.3 | 98.7 | 78.6 | 21.4 | 72.5 | 27.5 |
| | | 비재학 미취업 | 63.7 | 36.3 | 12.4 | 87.6 | 94.3 | 5.7 | 65.4 | 34.6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65.5 | 34.5 | 8.1 | 91.9 | 97.4 | 2.6 | 58.9 | 41.1 |
| | 중 | | 66.3 | 33.7 | 8.4 | 91.6 | 91.3 | 8.7 | 58.1 | 41.9 |
| | 상 | | 60.5 | 39.5 | 6.0 | 94.0 | 92.9 | 7.1 | 51.3 | 48.7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65.8 | 34.2 | 9.3 | 90.7 | 91.7 | 8.3 | 69.0 | 31.0 |
| | 정규직 근로자 | | 67.3 | 32.7 | 5.0 | 95.0 | 92.2 | 7.8 | 41.5 | 58.5 |
| | 비임금 근로자 | | 65.9 | 34.1 | 8.8 | 91.2 | 90.2 | 9.8 | 57.4 | 42.6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322) | | 만족도 (n=406)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64.5 | 35.5 | 7.9 | 92.1 | 92.6 | 7.4 | 57.9 | 42.1 |
| | 서울로 이주 | 66.6 | 33.4 | 8.2 | 91.8 | 92.5 | 7.5 | 56.4 | 43.6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0]은 서울영테크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인지율은 10.8%, 이용 경험이 1.3%, 여성의 인지율은 10.4%, 이용 경험이 1.6%임. 남성과 여성 모두 정책 만족도는 각각 82.8%, 81.6%임
- 25-29세 청년이 서울영테크 인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 이용 경험 비율 또한 높음. 정책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30-34세임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 청년의 서울영테크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9-10]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영테크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540) | | 만족도 (n=73)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10.6 | 89.4 | 1.4 | 98.6 | 82.1 | 17.9 | 41.1 | 58.9 |
| 성별 | 남성 | 10.8 | 89.2 | 1.3 | 98.7 | 82.8 | 17.2 | 37.1 | 62.9 |
| | 여성 | 10.4 | 89.6 | 1.6 | 98.4 | 81.6 | 18.4 | 44.9 | 55.1 |
| 연령 | 19-24세 | 9.8 | 90.2 | 1.1 | 98.9 | 78.4 | 21.6 | 48.3 | 51.7 |
| | 25-29세 | 12.2 | 87.8 | 1.7 | 98.3 | 78.0 | 22.0 | 42.4 | 57.6 |
| | 30-34세 | 9.6 | 90.4 | 1.4 | 98.6 | 92.5 | 7.5 | 36.1 | 63.9 |
| | 35-36세 | 9.3 | 90.7 | 1.0 | 99.0 | 48.7 | 51.3 | 25.0 | 75.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8 | 90.2 | 1.5 | 98.5 | 77.6 | 22.4 | 44.6 | 55.4 |
| | 전문대 졸업 | 9.8 | 90.2 | 0.9 | 99.1 | 62.8 | 37.2 | 42.6 | 57.4 |
| | 대학교 졸업 | 11.7 | 88.3 | 1.5 | 98.5 | 87.2 | 12.8 | 38.5 | 61.5 |
| | 대학원 졸업 | 9.3 | 90.7 | 1.3 | 98.7 | 100.0 | 0.0 | 36.1 | 63.9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0.8 | 89.2 | 1.6 | 98.4 | 96.6 | 3.4 | 40.3 | 59.7 |
| | 무자녀 부부가구 | 7.6 | 92.4 | 0.9 | 99.1 | 70.9 | 29.1 | 29.4 | 70.6 |
| | 유자녀 부부가구 | 9.8 | 90.2 | 1.6 | 98.4 | 75.7 | 24.3 | 27.0 | 73.0 |
| | 부모동거 가구 | 11.4 | 88.6 | 1.5 | 98.5 | 71.5 | 28.5 | 44.6 | 55.4 |
| | 기타 가구 | 7.8 | 92.2 | 0.8 | 99.2 | 100.0 | 0.0 | 41.7 | 58.3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540) | | 만족도 (n=73) | | 이용 의향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0.3 | 89.7 | 1.4 | 98.6 | 79.7 | 20.3 | 39.2 | 60.8 |
| | | 실업 | 14.4 | 85.6 | 1.0 | 99.0 | 73.5 | 26.5 | 48.4 | 51.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9.0 | 91.0 | 1.7 | 98.3 | 83.3 | 16.7 | 48.1 | 51.9 |
| | | 비재학 미취업 | 10.8 | 89.2 | 1.6 | 98.4 | 91.6 | 8.4 | 41.5 | 58.5 |
| 현재 부모의 소득수 준 | 하 | | 10.3 | 89.7 | 1.3 | 98.7 | 81.9 | 18.1 | 41.2 | 58.8 |
| | 중 | | 11.0 | 89.0 | 1.5 | 98.5 | 78.4 | 21.6 | 42.3 | 57.7 |
| | 상 | | 9.1 | 90.9 | 1.5 | 98.5 | 100.0 | 0.0 | 35.2 | 64.8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11.1 | 88.9 | 1.6 | 98.4 | 60.7 | 39.3 | 48.1 | 51.9 |
| | 정규직 근로자 | | 9.8 | 90.2 | 1.3 | 98.7 | 93.2 | 6.8 | 34.7 | 65.3 |
| | 비임금 근로자 | | 11.5 | 88.5 | 2.0 | 98.0 | 71.7 | 28.3 | 40.2 | 59.8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 11.1 | 88.9 | 1.6 | 98.4 | 79.9 | 20.1 | 42.0 | 58.0 |
| | 서울로 이주 | | 9.9 | 90.1 | 1.3 | 98.7 | 85.8 | 14.2 | 39.8 | 60.2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1]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 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15.7%)보다 여성(31.0%)의 인지율이 높았고, 실제 이용 경험 비율도 높음
- 연령대로는 35-36세 청년이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비율 모두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 인지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 87.4%, 실업 80.5%, 비재학 미취업 78.3% 순으로 높았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지율,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비율이 높았음
- 서울 태생보다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이 인지율과 이용 경험 비율이 더 높았음. 또한 정책 만족도와 이용 의향도 서울 태생 청년보다 높았음

[표 4-9-11]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마음건강 지원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197) | | 만족도 (n=114)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23.5 | 76.5 | 2.2 | 97.8 | 84.5 | 15.5 | 44.9 | 55.1 |
| 성별 | 남성 | 15.7 | 84.3 | 1.6 | 98.4 | 86.0 | 14.0 | 36.7 | 63.3 |
| | 여성 | 31.0 | 69.0 | 2.8 | 97.2 | 83.7 | 16.3 | 52.6 | 47.4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197) | | 만족도 (n=114)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연령 | 19-24세 | 20.0 | 80.0 | 1.6 | 98.4 | 100.0 | 0.0 | 49.8 | 50.2 |
| | 25-29세 | 24.8 | 75.2 | 2.1 | 97.9 | 75.7 | 24.3 | 45.5 | 54.5 |
| | 30-34세 | 24.5 | 75.5 | 2.6 | 97.4 | 85.9 | 14.1 | 41.5 | 58.5 |
| | 35-36세 | 25.7 | 74.3 | 4.5 | 95.5 | 80.0 | 20.0 | 36.4 | 63.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8.7 | 81.3 | 1.9 | 98.1 | 89.1 | 10.9 | 46.9 | 53.1 |
| | 전문대 졸업 | 21.7 | 78.3 | 2.6 | 97.4 | 81.5 | 18.5 | 42.6 | 57.4 |
| | 대학교 졸업 | 27.2 | 72.8 | 2.3 | 97.7 | 85.2 | 14.8 | 44.0 | 56.0 |
| | 대학원 졸업 | 28.7 | 71.3 | 3.3 | 96.7 | 69.8 | 30.2 | 44.6 | 55.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6.9 | 73.1 | 2.7 | 97.3 | 83.7 | 16.3 | 45.4 | 54.6 |
| | 무자녀 부부가구 | 19.5 | 80.5 | 2.1 | 97.9 | 56.8 | 43.2 | 37.6 | 62.4 |
| | 유자녀 부부가구 | 17.0 | 83.0 | 2.4 | 97.6 | 100.0 | 0.0 | 31.0 | 69.0 |
| | 부모동거 가구 | 21.9 | 78.1 | 1.8 | 98.2 | 83.9 | 16.1 | 46.3 | 53.7 |
| | 기타 가구 | 26.2 | 73.8 | 2.9 | 97.1 | 100.0 | 0.0 | 49.0 | 51.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24.2 | 75.8 | 2.3 | 97.7 | 87.4 | 12.6 | 44.3 |
| | | 실업 | 26.0 | 74.0 | 2.4 | 97.6 | 80.5 | 19.5 | 52.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8.5 | 81.5 | 1.2 | 98.8 | 75.4 | 24.6 | 48.6 |
| | | 비재학 미취업 | 22.2 | 77.8 | 2.4 | 97.6 | 78.3 | 21.7 | 42.1 |
|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 하 | 23.5 | 76.5 | 2.0 | 98.0 | 90.1 | 9.9 | 47.9 | 52.1 |
| | 중 | 24.0 | 76.0 | 2.4 | 97.6 | 84.3 | 15.7 | 44.8 | 55.2 |
| | 상 | 21.5 | 78.5 | 1.8 | 98.2 | 78.5 | 21.5 | 41.4 | 58.6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26.5 | 73.5 | 3.0 | 97.0 | 80.3 | 19.7 | 51.3 | 48.7 |
| | 정규직 근로자 | 22.8 | 77.2 | 2.1 | 97.9 | 95.4 | 4.6 | 41.1 | 58.9 |
| | 비임금 근로자 | 26.2 | 73.8 | 1.4 | 98.6 | 60.2 | 39.8 | 42.1 | 57.9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21.9 | 78.1 | 2.0 | 98.0 | 81.7 | 18.3 | 43.7 | 56.3 |
| | 서울로 이주 | 25.8 | 74.2 | 2.5 | 97.5 | 87.6 | 12.4 | 46.5 | 53.5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2]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에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인지율은 35-36세 청년이, 이용 경험 비율은 25-29세 청년이 높았음

- 종사상 지위로 보면, 비임금 근로자의 정책 인지율이 73.2%로 가장 높았음

[표 4-9-12]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희망두배 청년통장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302) | | 만족도 (n=479) | | 이용 의향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194) | | | 65.0 | 35.0 | 9.4 | 90.6 | 90.3 | 9.7 | 67.9 | 32.1 |
| 성별 | 남성 | | 57.2 | 42.8 | 7.2 | 92.8 | 88.4 | 11.6 | 65.8 | 34.2 |
| | 여성 | | 72.3 | 27.7 | 11.5 | 88.5 | 91.4 | 8.6 | 69.9 | 30.1 |
| 연령 | 19-24세 | | 58.2 | 41.8 | 8.7 | 91.3 | 91.4 | 8.6 | 77.8 | 22.2 |
| | 25-29세 | | 66.2 | 33.8 | 10.6 | 89.4 | 88.3 | 11.7 | 71.5 | 28.5 |
| | 30-34세 | | 68.1 | 31.9 | 9.3 | 90.7 | 91.4 | 8.6 | 60.5 | 39.5 |
| | 35-36세 | | 68.6 | 31.4 | 4.2 | 95.8 | 100.0 | 0.0 | 35.5 | 64.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7.9 | 42.1 | 8.4 | 91.6 | 86.4 | 13.6 | 74.6 | 25.4 |
| | 전문대 졸업 | | 72.9 | 27.1 | 12.9 | 87.1 | 91.6 | 8.4 | 73.2 | 26.8 |
| | 대학교 졸업 | | 68.2 | 31.8 | 9.3 | 90.7 | 91.7 | 8.3 | 62.5 | 37.5 |
| | 대학원 졸업 | | 64.2 | 35.8 | 9.1 | 90.9 | 97.3 | 2.7 | 57.8 | 42.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65.9 | 34.1 | 9.0 | 91.0 | 87.6 | 12.4 | 67.6 | 32.4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8.9 | 31.1 | 9.0 | 91.0 | 100.0 | 0.0 | 51.8 | 48.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6.0 | 34.0 | 8.8 | 91.2 | 100.0 | 0.0 | 43.1 | 56.9 |
| | 부모동거 가구 | | 63.2 | 36.8 | 9.6 | 90.4 | 91.8 | 8.2 | 72.5 | 27.5 |
| | 기타 가구 | | 68.0 | 32.0 | 11.4 | 88.6 | 79.3 | 20.7 | 71.6 | 28.4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8.8 | 31.2 | 10.8 | 89.2 | 89.3 | 10.7 | 65.9 | 34.1 |
| | | 실업 | 62.8 | 37.2 | 6.4 | 93.6 | 93.7 | 6.3 | 78.4 | 21.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51.4 | 48.6 | 5.2 | 94.8 | 95.3 | 4.7 | 76.4 | 23.6 |
| | | 비재학 미취업 | 58.0 | 42.0 | 7.7 | 92.3 | 92.4 | 7.6 | 67.1 | 32.9 |
| 현재 부모의 소득수 준 | 하 | | 65.7 | 34.3 | 9.5 | 90.5 | 83.5 | 16.5 | 70.2 | 29.8 |
| | 중 | | 66.4 | 33.6 | 10.0 | 90.0 | 92.5 | 7.5 | 68.4 | 31.6 |
| | 상 | | 57.1 | 42.9 | 6.9 | 93.1 | 86.2 | 13.8 | 62.9 | 37.1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69.2 | 30.8 | 12.1 | 87.9 | 85.3 | 14.7 | 78.8 | 21.2 |
| | 정규직 근로자 | | 67.8 | 32.2 | 10.1 | 89.9 | 91.6 | 8.4 | 58.4 | 41.6 |
| | 비임금 근로자 | | 73.2 | 26.8 | 10.9 | 89.1 | 89.7 | 10.3 | 73.2 | 26.8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 63.6 | 36.4 | 9.0 | 91.0 | 91.3 | 8.7 | 68.8 | 31.2 |
| | 서울로 이주 | | 66.8 | 33.2 | 10.0 | 90.0 | 89.0 | 11.0 | 66.7 | 33.3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3]은 대중교통비 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

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인지율, 이용 경험 모두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율이 높았음. 이용 경험은 19-24세 청년이 27.7%로 매우 높았음
- 학력이 낮을수록 대중교통비 지원 인지율과 이용 경험 모두 높았음
- 대중교통비지원은 재학자의 이용 비율이 높았음
- 대중교통비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만족도가 높았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지율은 61.9%, 이용 경험 비율은 18.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9-13] 복지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대중교통비 지원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725) | | 만족도 (n=615) | | 이용 의향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 53.6 | 46.4 | 12.1 | 87.9 | 89.3 | 10.7 | 71.1 | 28.9 |
| 성별 | 남성 | | 45.5 | 54.5 | 10.3 | 89.7 | 90.9 | 9.1 | 67.2 | 32.8 |
| | 여성 | | 61.4 | 38.6 | 13.8 | 86.2 | 88.2 | 11.8 | 74.8 | 25.2 |
| 연령 | 19~24세 | | 68.9 | 31.1 | 27.7 | 72.3 | 86.9 | 13.1 | 84.1 | 15.9 |
| | 25~29세 | | 55.4 | 44.6 | 9.8 | 90.2 | 92.1 | 7.9 | 72.3 | 27.7 |
| | 30~34세 | | 41.6 | 58.4 | 4.0 | 96.0 | 94.3 | 5.7 | 63.3 | 36.7 |
| | 35~36세 | | 43.5 | 56.5 | 4.7 | 95.3 | 89.5 | 10.5 | 44.1 | 55.9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8.8 | 41.2 | 19.6 | 80.4 | 88.4 | 11.6 | 77.6 | 22.4 |
| | 전문대 졸업 | | 53.3 | 46.7 | 9.8 | 90.2 | 90.4 | 9.6 | 74.4 | 25.6 |
| | 대학교 졸업 | | 50.8 | 49.2 | 7.7 | 92.3 | 90.6 | 9.4 | 66.2 | 33.8 |
| | 대학원 졸업 | | 44.3 | 55.7 | 5.1 | 94.9 | 93.0 | 7.0 | 61.6 | 38.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51.2 | 48.8 | 8.3 | 91.7 | 89.7 | 10.3 | 69.5 | 30.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40.1 | 59.9 | 6.2 | 93.8 | 90.1 | 9.9 | 59.8 | 40.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8.7 | 61.3 | 2.4 | 97.6 | 84.0 | 16.0 | 48.3 | 51.7 |
| | 부모동거 가구 | | 58.3 | 41.7 | 16.7 | 83.3 | 89.2 | 10.8 | 75.8 | 24.2 |
| | 기타 가구 | | 56.5 | 43.5 | 12.3 | 87.7 | 90.2 | 9.8 | 73.5 | 26.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3.2 | 46.8 | 11.3 | 88.7 | 91.5 | 8.5 | 69.5 | 30.5 |
| | | 실업 | 55.0 | 45.0 | 13.8 | 86.2 | 75.2 | 24.8 | 77.8 | 22.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63.2 | 36.8 | 23.3 | 76.7 | 89.1 | 10.9 | 82.6 | 17.4 |
| | | 비재학 미취업 | 50.2 | 49.8 | 9.5 | 90.5 | 89.0 | 11.0 | 68.8 | 31.2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49.3 | 50.7 | 10.0 | 90.0 | 90.0 | 10.0 | 70.9 | 29.1 |
| | 중 | | 54.4 | 45.6 | 12.3 | 87.7 | 87.6 | 12.4 | 71.7 | 28.3 |
| | 상 | | 54.9 | 45.1 | 13.7 | 86.3 | 96.1 | 3.9 | 68.2 | 31.8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725) | | 만족도 (n=615)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61.9 | 38.1 | 18.4 | 81.6 | 92.0 | 8.0 | 79.3 | 20.7 |
| | 정규직 근로자 | 49.2 | 50.8 | 7.8 | 92.2 | 92.3 | 7.7 | 64.7 | 35.3 |
| | 비임금 근로자 | 52.2 | 47.8 | 10.9 | 89.1 | 85.9 | 14.1 | 69.8 | 30.2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52.9 | 47.1 | 13.1 | 86.9 | 89.8 | 10.2 | 71.7 | 28.3 |
| | 서울로 이주 | 54.7 | 45.3 | 10.7 | 89.3 | 88.5 | 11.5 | 70.2 | 29.8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4]는 참여·공간 사업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인지율이 19.3%이며, 이용 경험은 4.7%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3%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물어봤을 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0%임

[표 4-9-14] 참여·공간 사업

[단위: %]

| 구분(n=5,083)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979) ¹⁾ | | 만족도 (n=237) ²⁾ | | 향후 이용의향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서울청년센터 오랑 | 19.3 | 80.7 | 4.7 | 95.3 | 89.3 | 10.7 | 33.0 | 67.0 |

주: 1) '이용 경험'은 인지율에서 '안다'고 응답한 청년,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

- [표 4-9-15]는 서울청년센터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 모두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는 인지율과 이용 경험 모두 30대보다 높았음

[표 4-9-15] 참여·공간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서울청년센터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979) | | 만족도 (n=237)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전체(n=5,083) | | 19.3 | 80.7 | 4.7 | 95.3 | 89.3 | 10.7 | 33.0 | 67.0 |
| 성별 | 남성 | 16.2 | 83.8 | 3.6 | 96.4 | 81.7 | 18.3 | 30.1 | 69.9 |
| | 여성 | 22.2 | 77.8 | 5.7 | 94.3 | 93.9 | 6.1 | 35.7 | 64.3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979) | | 만족도 (n=237) | | 이용 의향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있다 | 없다 |
| 연령 | 19-24세 | 19.9 | 80.1 | 5.5 | 94.5 | 89.7 | 10.3 | 40.9 | 59.1 |
| | 25-29세 | 21.1 | 78.9 | 5.0 | 95.0 | 89.1 | 10.9 | 32.6 | 67.4 |
| | 30-34세 | 17.1 | 82.9 | 3.8 | 96.2 | 88.0 | 12.0 | 28.6 | 71.4 |
| | 35-36세 | 16.8 | 83.2 | 4.1 | 95.9 | 100.0 | 0.0 | 24.4 | 75.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8.6 | 81.4 | 4.6 | 95.4 | 85.0 | 15.0 | 37.4 | 62.6 |
| | 전문대 졸업 | 18.9 | 81.1 | 4.9 | 95.1 | 100.0 | 0.0 | 32.5 | 67.5 |
| | 대학교 졸업 | 20.0 | 80.0 | 4.6 | 95.4 | 90.0 | 10.0 | 30.2 | 69.8 |
| | 대학원 졸업 | 18.8 | 81.2 | 4.8 | 95.2 | 85.0 | 15.0 | 28.8 | 71.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19.0 | 81.0 | 4.9 | 95.1 | 91.5 | 8.5 | 32.5 | 67.5 |
| | 무자녀 부부가구 | 15.5 | 84.5 | 2.0 | 98.0 | 86.0 | 14.0 | 22.6 | 77.4 |
| | 유자녀 부부가구 | 11.8 | 88.2 | 2.0 | 98.0 | 79.4 | 20.6 | 19.4 | 80.6 |
| | 부모동거 가구 | 20.7 | 79.3 | 5.1 | 94.9 | 87.5 | 12.5 | 35.3 | 64.7 |
| | 기타 가구 | 19.7 | 80.3 | 5.2 | 94.8 | 95.6 | 4.4 | 39.0 | 61.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18.8 | 81.2 | 4.4 | 95.6 | 90.3 | 9.7 | 30.7 |
| | | 실업 | 22.9 | 77.1 | 7.9 | 92.1 | 80.4 | 19.6 | 39.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16.2 | 83.8 | 3.0 | 97.0 | 83.8 | 16.2 | 37.5 |
| | | 비재학 미취업 | 20.9 | 79.1 | 5.1 | 94.9 | 93.6 | 6.4 | 36.7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18.6 | 81.4 | 3.6 | 96.4 | 86.8 | 13.2 | 32.5 | 67.5 |
| | 중 | 19.7 | 80.3 | 5.1 | 94.9 | 89.9 | 10.1 | 34.0 | 66.0 |
| | 상 | 17.8 | 82.2 | 4.1 | 95.9 | 88.8 | 11.2 | 29.0 | 71.0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24.2 | 75.8 | 6.2 | 93.8 | 91.1 | 8.9 | 40.2 | 59.8 |
| | 정규직 근로자 | 15.2 | 84.8 | 3.2 | 96.8 | 91.0 | 9.0 | 25.4 | 74.6 |
| | 비임금 근로자 | 23.9 | 76.1 | 5.9 | 94.1 | 85.2 | 14.8 | 34.1 | 65.9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19.8 | 80.2 | 4.7 | 95.3 | 86.9 | 13.1 | 33.0 | 67.0 |
| | 서울로 이주 | 18.6 | 81.4 | 4.6 | 95.4 | 92.8 | 7.2 | 33.0 | 67.0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2) 중앙정부 주요 청년지원정책

- [표 4-9-16]은 중앙정부 주요 사업의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정부일자리사업의 인지율은 31.8%이며, 이용 경험이 2.3%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지율은 44.4%이며, 이용 경험은 8.0%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임
- 청년주택 공급주택 인지율은 65.0%이며, 이용 경험은 5.4%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임
 - 청년주택자금대출 지원 정책의 인지율은 54.6%이며, 이용 경험은 7.5%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4%임
 -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인지율은 42.3%이며, 이용 경험은 2.8%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4%임
 -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인지율은 41.2%이며, 이용 경험은 12.1%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4%임

[표 4-9-16] 중앙정부 주요 사업

[단위: %]

| 구분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¹⁾ | | 만족도 ²⁾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정부일자리사업 | 31.8 | 68.2 | 2.3 | 97.7 | 69.4 | 30.6 |
| 국민취업지원제도 | 44.4 | 55.6 | 8.0 | 92.0 | 83.6 | 16.4 |
| 청년주택 공급정책 | 65.0 | 35.0 | 5.4 | 94.6 | 80.3 | 19.7 |
| 청년주택자금대출 지원 정책 | 54.6 | 45.4 | 7.5 | 92.5 | 86.4 | 13.6 |
|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42.3 | 57.7 | 2.8 | 97.2 | 73.4 | 26.6 |
|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41.2 | 58.8 | 12.1 | 87.9 | 85.4 | 14.6 |

주: 1) '이용 경험'은 인지율에서 '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정부일자리사업 1,614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257명, 청년주택 공급정책 3,301명, 청년주택자금대출 2,777명, 주거비용지원 2,151명, 자산형성지원 2,092명).
2)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에 대해 분석함(정부일자리사업 115명, 국민취업지원제도 408명, 청년주택 공급정책 273명, 청년주택자금대출 383명, 주거비용지원 140명, 자산형성지원 614명).

- [표 4-9-17]은 정부일자리사업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여성이 정책 인지율과 만족도 모두 남성보다 높았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인지율은 실업 34.6%, 취업 32.4%, 비재학 미취업 29.8%, 정책 만족도는 실업 87.7%, 취업 83.6%, 비재학 미취업 82.9% 순으로 높았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일자리사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인지율 및 이용 경험이 높았음
- 서울 태생보다 서울로 이주한 청년의 인지율 및 만족도가 더 높았음

[표 4-9-17]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정부일자리사업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1,614) | | 만족도 (n=115)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 전체(n=5,083) | | 31.8 | 68.2 | 2.3 | 97.7 | 83.6 | 16.4 | |
| 성별 | 남성 | 27.9 | 72.1 | 2.5 | 97.5 | 79.8 | 20.2 | |
| | 여성 | 35.4 | 64.6 | 2.0 | 98.0 | 86.9 | 13.1 | |
| 연령 | 19-24세 | 28.8 | 71.2 | 2.1 | 97.9 | 86.5 | 13.5 | |
| | 25-29세 | 32.8 | 67.2 | 2.3 | 97.7 | 84.7 | 15.3 | |
| | 30-34세 | 32.2 | 67.8 | 2.3 | 97.7 | 79.3 | 20.7 | |
| | 35-36세 | 36.3 | 63.7 | 2.4 | 97.6 | 80.1 | 19.9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7.7 | 72.3 | 3.0 | 97.0 | 79.0 | 21.0 | |
| | 전문대 졸업 | 26.6 | 73.4 | 2.1 | 97.9 | 83.0 | 17.0 | |
| | 대학교 졸업 | 36.4 | 63.6 | 1.8 | 98.2 | 86.4 | 13.6 | |
| | 대학원 졸업 | 31.1 | 68.9 | 1.4 | 98.6 | 81.5 | 18.5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30.3 | 69.7 | 2.1 | 97.9 | 72.7 | 27.3 | |
| | 무자녀 부부가구 | 32.8 | 67.2 | 1.2 | 98.8 | 76.9 | 23.1 | |
| | 유자녀 부부가구 | 36.5 | 63.5 | 3.5 | 96.5 | 78.6 | 21.4 | |
| | 부모동거 가구 | 32.4 | 67.6 | 2.5 | 97.5 | 64.5 | 35.5 | |
| | 기타 가구 | 29.9 | 70.1 | 1.6 | 98.4 | 81.3 | 18.7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2.4 | 67.6 | 2.2 | 97.8 | 83.6 | 16.4 |
| | | 실업 | 34.6 | 65.4 | 2.2 | 97.8 | 87.7 | 12.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8.1 | 71.9 | 1.7 | 98.3 | 71.6 | 28.4 |
| | | 비재학 미취업 | 29.8 | 70.2 | 2.9 | 97.1 | 82.9 | 17.1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28.2 | 71.8 | 1.3 | 98.7 | 84.4 | 15.6 | |
| | 중 | 32.8 | 67.2 | 2.5 | 97.5 | 84.0 | 16.0 | |
| | 상 | 31.1 | 68.9 | 2.3 | 97.7 | 79.6 | 20.4 |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34.7 | 65.3 | 3.2 | 96.8 | 84.3 | 15.7 | |
| | 정규직 근로자 | 31.7 | 68.3 | 1.5 | 98.5 | 86.5 | 13.5 | |
| | 비임금 근로자 | 30.3 | 69.7 | 2.8 | 97.2 | 79.1 | 20.9 |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31.5 | 68.5 | 2.7 | 97.3 | 79.9 | 20.1 | |
| | 서울로 이주 | 32.1 | 67.9 | 1.7 | 98.3 | 88.3 | 11.7 |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8]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남성보다 여성이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모두 높았음
- 25-29세 청년들이 국민취업제도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실제 만족도는 19-24세(88.8%), 30-34세(82.7%), 35-36세(80.3%) 순으로 높았음
-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국민취업제도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

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실업 및 비재학 미취업 청년이 국민취업제도 이용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실제 만족도는 비재학 미취업(84.4%), 취업(80.2%), 재학(78.5%) 순으로 높았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국민취업제도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음
- 서울로 이주한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율 및 이용 경험,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9-18]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257) | | 만족도 (n=408)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전체(n=5,083) | | | 44.4 | 55.6 | 8.0 | 92.0 | 80.3 | 19.7 |
| 성별 | 남성 | | 37.5 | 62.5 | 7.5 | 92.5 | 77.4 | 22.6 |
| | 여성 | | 50.9 | 49.1 | 8.5 | 91.5 | 83.4 | 16.6 |
| 연령 | 19-24세 | | 40.2 | 59.8 | 6.3 | 93.7 | 88.8 | 11.2 |
| | 25-29세 | | 50.6 | 49.4 | 11.5 | 88.5 | 73.9 | 26.1 |
| | 30-34세 | | 40.5 | 59.5 | 5.9 | 94.1 | 82.7 | 17.3 |
| | 35-36세 | | 46.1 | 53.9 | 4.0 | 96.0 | 80.3 | 19.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8.8 | 61.2 | 6.3 | 93.7 | 77.7 | 22.3 |
| | 전문대 졸업 | | 47.0 | 53.0 | 8.7 | 91.3 | 80.4 | 19.6 |
| | 대학교 졸업 | | 48.1 | 51.9 | 9.4 | 90.6 | 81.3 | 18.7 |
| | 대학원 졸업 | | 44.3 | 55.7 | 5.6 | 94.4 | 86.8 | 13.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43.3 | 56.7 | 8.9 | 91.1 | 85.9 | 14.1 |
| | 무자녀 부부가구 | | 39.4 | 60.6 | 4.7 | 95.3 | 87.7 | 12.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4.7 | 65.3 | 3.6 | 96.4 | 58.6 | 41.4 |
| | 부모동거 가구 | | 46.0 | 54.0 | 7.9 | 92.1 | 82.1 | 17.9 |
| | 기타 가구 | | 50.2 | 49.8 | 10.6 | 89.4 | 86.5 | 13.5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3.1 | 56.9 | 6.4 | 93.6 | 80.2 | 19.8 |
| | | 실업 | 61.7 | 38.3 | 17.7 | 82.3 | 73.2 | 26.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4.4 | 65.6 | 3.9 | 96.1 | 78.5 | 21.5 |
| | | 비재학 미취업 | 45.9 | 54.1 | 11.6 | 88.4 | 84.4 | 15.6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44.1 | 55.9 | 9.4 | 90.6 | 85.0 | 15.0 |
| | 중 | | 46.1 | 53.9 | 8.1 | 91.9 | 80.1 | 19.9 |
| | 상 | | 36.8 | 63.2 | 6.1 | 93.9 | 73.2 | 26.8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48.3 | 51.7 | 8.8 | 91.2 | 76.6 | 23.4 |
| | 정규직 근로자 | | 40.3 | 59.7 | 5.2 | 94.8 | 83.5 | 16.5 |
| | 비임금 근로자 | | 45.0 | 55.0 | 6.5 | 93.5 | 66.6 | 33.4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 43.6 | 56.4 | 7.7 | 92.3 | 77.8 | 22.2 |
| | 서울로 이주 | | 45.5 | 54.5 | 8.4 | 91.6 | 82.5 | 17.5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19]는 청년주택 공급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주택 공급 인지율과 만족도 모두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인가구는 청년주택 공급 이용 경험 비율이 8.8%로 높았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0%임
-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청년주택 공급 관련 인지율과 이용 경험, 만족도가 모두 높았음

[표 4-9-19]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주택 공급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3,301) | | 만족도 (n=273)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전체(n=5,083) | | | 65.0 | 35.0 | 5.4 | 94.6 | 80.3 | 19.7 |
| 성별 | 남성 | | 58.4 | 41.6 | 5.6 | 94.4 | 77.4 | 22.6 |
| | 여성 | | 71.2 | 28.8 | 5.1 | 94.9 | 83.4 | 16.6 |
| 연령 | 19-24세 | | 60.3 | 39.7 | 4.9 | 95.1 | 88.8 | 11.2 |
| | 25-29세 | | 65.6 | 34.4 | 6.1 | 93.9 | 73.9 | 26.1 |
| | 30-34세 | | 67.0 | 33.0 | 5.1 | 94.9 | 82.7 | 17.3 |
| | 35-36세 | | 70.7 | 29.3 | 4.1 | 95.9 | 80.3 | 19.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9.2 | 40.8 | 5.7 | 94.3 | 77.7 | 22.3 |
| | 전문대 졸업 | | 61.8 | 38.2 | 4.4 | 95.6 | 80.4 | 19.6 |
| | 대학교 졸업 | | 69.2 | 30.8 | 5.0 | 95.0 | 81.3 | 18.7 |
| | 대학원 졸업 | | 74.2 | 25.8 | 8.9 | 91.1 | 86.8 | 13.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69.3 | 30.7 | 8.8 | 91.2 | 82.0 | 18.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9.5 | 30.5 | 6.0 | 94.0 | 87.7 | 12.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67.2 | 32.8 | 3.3 | 96.7 | 93.2 | 6.8 |
| | 부모동거 가구 | | 60.2 | 39.8 | 3.1 | 96.9 | 74.3 | 25.7 |
| | 기타 가구 | | 70.0 | 30.0 | 4.9 | 95.1 | 76.6 | 23.4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67.9 | 32.1 | 5.7 | 94.3 | 80.2 | 19.8 |
| | | 실업 | 64.0 | 36.0 | 4.1 | 95.9 | 73.2 | 26.8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61.1 | 38.9 | 5.0 | 95.0 | 78.5 | 21.5 |
| | | 비재학 미취업 | 56.4 | 43.6 | 4.8 | 95.2 | 84.4 | 15.6 |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 하 | | 63.3 | 36.7 | 6.9 | 93.1 | 85.0 | 15.0 |
| | 중 | | 66.0 | 34.0 | 5.1 | 94.9 | 80.1 | 19.9 |
| | 상 | | 62.0 | 38.0 | 4.8 | 95.2 | 73.2 | 26.8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68.5 | 31.5 | 7.0 | 93.0 | 76.6 | 23.4 |
| | 정규직 근로자 | | 68.0 | 32.0 | 5.1 | 94.9 | 83.5 | 16.5 |
| | 비임금 근로자 | | 65.8 | 34.2 | 5.8 | 94.2 | 75.3 | 24.7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 61.3 | 38.7 | 4.4 | 95.6 | 77.8 | 22.2 |
| | 서울로 이주 | | 69.9 | 30.1 | 6.8 | 93.2 | 82.5 | 17.5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20]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에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남정보다 여성이 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 인지율과 이용 경험, 만족도가 모두 높았음
- 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은 30대 청년들에게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 인지율이 높았고, 1인가구가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음
-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정책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 서울로 이주한 청년이 서울 태생보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에 대해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모두 높았음

[표 4-9-20]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

[단위: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777) | | 만족도 (n=383)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전체(n=5,083) | | | 54.6 | 45.4 | 7.5 | 92.5 | 86.4 | 13.6 |
| 성별 | 남성 | | 48.0 | 52.0 | 7.3 | 92.7 | 79.6 | 20.4 |
| | 여성 | | 61.0 | 39.0 | 7.8 | 92.2 | 92.5 | 7.5 |
| 연령 | 19-24세 | | 47.2 | 52.8 | 3.5 | 96.5 | 80.4 | 19.6 |
| | 25-29세 | | 57.0 | 43.0 | 9.6 | 90.4 | 85.8 | 14.2 |
| | 30-34세 | | 56.6 | 43.4 | 8.6 | 91.4 | 88.5 | 11.5 |
| | 35-36세 | | 62.1 | 37.9 | 4.5 | 95.5 | 93.5 | 6.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7.1 | 52.9 | 5.0 | 95.0 | 74.1 | 25.9 |
| | 전문대 졸업 | | 54.5 | 45.5 | 8.9 | 91.1 | 86.1 | 13.9 |
| | 대학교 졸업 | | 59.6 | 40.4 | 9.0 | 91.0 | 91.7 | 8.3 |
| | 대학원 졸업 | | 62.8 | 37.2 | 8.6 | 91.4 | 87.2 | 12.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62.7 | 37.3 | 15.2 | 84.8 | 91.6 | 8.4 |
| | 무자녀 부부가구 | | 63.5 | 36.5 | 7.8 | 92.2 | 87.2 | 12.8 |
| | 유자녀 부부가구 | | 55.5 | 44.5 | 4.1 | 95.9 | 75.6 | 24.4 |
| | 부모동거 가구 | | 46.4 | 53.6 | 2.2 | 97.8 | 64.2 | 35.8 |
| | 기타 가구 | | 62.8 | 37.2 | 8.3 | 91.7 | 82.7 | 17.3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58.6 | 41.4 | 8.8 | 91.2 | 86.2 | 13.8 |
| | | 실업 | 49.0 | 51.0 | 6.0 | 94.0 | 89.7 | 10.3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7.6 | 52.4 | 3.4 | 96.6 | 82.9 | 17.1 |
| | | 비재학 미취업 | 46.0 | 54.0 | 5.5 | 94.5 | 87.2 | 12.8 |
| 현재 부모의 소득 수준 | 하 | | 55.9 | 44.1 | 10.1 | 89.9 | 92.0 | 8.0 |
| | 중 | | 55.0 | 45.0 | 7.1 | 92.9 | 86.3 | 13.7 |
| | 상 | | 51.4 | 48.6 | 6.3 | 93.7 | 76.3 | 23.7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777) | | 만족도 (n=383)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55.8 | 44.2 | 7.4 | 92.6 | 78.6 | 21.4 |
| | 정규직 근로자 | 60.6 | 39.4 | 9.7 | 90.3 | 90.2 | 9.8 |
| | 비임금 근로자 | 54.3 | 45.7 | 7.7 | 92.3 | 87.2 | 12.8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50.0 | 50.0 | 5.2 | 94.8 | 79.2 | 20.8 |
| | 서울로 이주 | 61.0 | 39.0 | 10.7 | 89.3 | 91.3 | 8.7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21]은 청년 주거비용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에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 주거비용지원 인지율과 만족도 모두 높았음
- 25-29세 청년의 인지율,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고, 실제 만족도는 19-24세(80.4%), 35-36세(78.8%), 25-29세(76.7%) 순으로 높았음
- 1인가구의 정책 인지율(46.7%)과 만족도(79.3%)가 높은 편임
- 서울 태생보다 서울로 이주한 청년의 경우 인지율, 이용 경험 및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9-21]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주거비용지원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151) | | 만족도 (n=140)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전체(n=5,083) | | 42.3 | 57.7 | 2.8 | 97.2 | 73.4 | 26.6 |
| 성별 | 남성 | 37.8 | 62.2 | 2.8 | 97.2 | 63.8 | 36.2 |
| | 여성 | 46.6 | 53.4 | 2.7 | 97.3 | 82.7 | 17.3 |
| 연령 | 19-24세 | 40.8 | 59.2 | 2.4 | 97.6 | 80.4 | 19.6 |
| | 25-29세 | 45.1 | 54.9 | 3.2 | 96.8 | 76.7 | 23.3 |
| | 30-34세 | 40.7 | 59.3 | 2.6 | 97.4 | 63.8 | 36.2 |
| | 35-36세 | 40.0 | 60.0 | 1.4 | 98.6 | 78.8 | 21.2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9.8 | 60.2 | 3.1 | 96.9 | 69.9 | 30.1 |
| | 전문대 졸업 | 39.0 | 61.0 | 2.6 | 97.4 | 74.2 | 25.8 |
| | 대학교 졸업 | 45.1 | 54.9 | 2.6 | 97.4 | 77.1 | 22.9 |
| | 대학원 졸업 | 43.1 | 56.9 | 2.0 | 98.0 | 65.9 | 34.1 |

| 구분 |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151) | | 만족도 (n=140)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46.7 | 53.3 | 4.0 | 96.0 | 79.3 | 20.7 |
| | 무자녀 부부가구 | | 46.1 | 53.9 | 2.2 | 97.8 | 53.0 | 47.0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7.4 | 62.6 | 2.2 | 97.8 | 72.2 | 27.8 |
| | 부모동거 가구 | | 38.5 | 61.5 | 2.0 | 98.0 | 65.9 | 34.1 |
| | 기타 가구 | | 47.4 | 52.6 | 3.3 | 96.7 | 81.9 | 18.1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3.1 | 56.9 | 2.7 | 97.3 | 71.8 | 28.2 |
| | | 실업 | 47.4 | 52.6 | 3.7 | 96.3 | 86.1 | 13.9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9.9 | 60.1 | 2.8 | 97.2 | 88.4 | 11.6 |
| | | 비재학 미취업 | 38.3 | 61.7 | 2.7 | 97.3 | 64.8 | 35.2 |
| 현재 부모의 소득수 준 | 하 | | 39.4 | 60.6 | 2.1 | 97.9 | 77.8 | 22.2 |
| | 중 | | 42.8 | 57.2 | 2.6 | 97.4 | 70.0 | 30.0 |
| | 상 | | 43.7 | 56.3 | 4.3 | 95.7 | 80.7 | 19.3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 44.1 | 55.9 | 3.8 | 96.2 | 75.8 | 24.2 |
| | 정규직 근로자 | | 42.7 | 57.3 | 1.9 | 98.1 | 77.0 | 23.0 |
| | 비임금 근로자 | | 42.9 | 57.1 | 3.8 | 96.2 | 44.5 | 55.5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 39.2 | 60.8 | 2.4 | 97.6 | 67.9 | 32.1 |
| | 서울로 이주 | | 46.6 | 53.4 | 3.2 | 96.8 | 79.0 | 21.0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 [표 4-9-22]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만족도는 이용 경험 이 있는 대상에게만 질문하였음
-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모두 높았음
- 35-36세 청년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인지율과 만족도 모두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모두 높은 경향을 보임
- 가구유형별로는 무자녀 부부가구는 정책 인지율과 만족도가 모두 높았으며, 1인가구는 정책 이용 경험 비율이 15.5%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정규직 근로자는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모두 높았고, 서울로 이주한 청년일 경우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모두 높음

[표 4-9-22] 중앙정부 주요 사업 관련 정책경험과 평가_청년 자산형성 지원

[단위: %]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n=2,092) | | 만족도 (n=614) |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만족 | 불만족 | |
| 전체(n=5,083) | | 41.2 | 58.8 | 12.1 | 87.9 | 85.4 | 14.6 | |
| 성별 | 남성 | 35.8 | 64.2 | 9.9 | 90.1 | 83.0 | 17.0 | |
| | 여성 | 46.2 | 53.8 | 14.2 | 85.8 | 87.0 | 13.0 | |
| 연령 | 19-24세 | 33.8 | 66.2 | 9.0 | 91.0 | 90.0 | 10.0 | |
| | 25-29세 | 43.2 | 56.8 | 14.1 | 85.9 | 83.6 | 16.4 | |
| | 30-34세 | 43.5 | 56.5 | 12.5 | 87.5 | 84.6 | 15.4 | |
| | 35-36세 | 47.6 | 52.4 | 9.7 | 90.3 | 92.1 | 7.9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3.5 | 66.5 | 7.9 | 92.1 | 83.1 | 16.9 | |
| | 전문대 졸업 | 38.9 | 61.1 | 13.4 | 86.6 | 84.5 | 15.5 | |
| | 대학교 졸업 | 47.4 | 52.6 | 14.6 | 85.4 | 86.3 | 13.7 | |
| | 대학원 졸업 | 44.5 | 55.5 | 14.7 | 85.3 | 88.0 | 12.0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45.7 | 54.3 | 15.5 | 84.5 | 85.9 | 14.1 | |
| | 무자녀 부부가구 | 47.0 | 53.0 | 10.9 | 89.1 | 87.8 | 12.2 | |
| | 유자녀 부부가구 | 40.0 | 60.0 | 9.5 | 90.5 | 93.6 | 6.4 | |
| | 부모동거 가구 | 36.8 | 63.2 | 10.0 | 90.0 | 84.5 | 15.5 | |
| | 기타 가구 | 43.8 | 56.2 | 13.0 | 87.0 | 80.8 | 19.2 |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4.0 | 56.0 | 14.3 | 85.7 | 87.0 | 13.0 |
| | | 실업 | 42.8 | 57.2 | 10.2 | 89.8 | 85.3 | 14.7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33.8 | 66.2 | 5.9 | 94.1 | 90.4 | 9.6 |
| | | 비재학 미취업 | 33.4 | 66.6 | 7.7 | 92.3 | 73.0 | 27.0 |
| 현재 부모의 소득수 준 | 하 | 43.9 | 56.1 | 14.0 | 86.0 | 84.5 | 15.5 | |
| | 중 | 41.1 | 58.9 | 11.6 | 88.4 | 84.8 | 15.2 | |
| | 상 | 38.1 | 61.9 | 12.1 | 87.9 | 89.6 | 10.4 | |
| 종사상 지위 ¹⁾ | 비정규직 근로자 | 41.7 | 58.3 | 14.3 | 85.7 | 84.0 | 16.0 | |
| | 정규직 근로자 | 45.3 | 54.7 | 15.0 | 85.0 | 89.4 | 10.6 | |
| | 비임금 근로자 | 43.2 | 56.8 | 12.3 | 87.7 | 80.8 | 19.2 | |
| 출신 지역 | 서울 태생 | 38.9 | 61.1 | 11.1 | 88.9 | 84.0 | 16.0 | |
| | 서울로 이주 | 44.3 | 55.7 | 13.5 | 86.5 | 87.0 | 13.0 | |

주: 1) 종사상 지위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 3,358에 대한 값임

3)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 [표 4-9-23]은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1순위, 2순위에 대한 응답 값임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1순위는 소득(현금, 물품)지원(26.9%), 고용(취·창업)지원(23.2%), 자산 형성 지원(13.9%) 순으로 높았음
- 2순위는 고용(취·창업)지원(20.5%), 자산 형성 지원(15.0%), 주거지원(14.0%) 순으로 높았음

[표 4-9-23]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단위: %]

| 구분(n=5,083) | 1순위 | 2순위 |
|-----------------------|------|------|
|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 26.9 | 9.3 |
| 고용(취·창업)지원 | 23.2 | 20.5 |
| 자산 형성 지원 | 13.9 | 15.0 |
| 주거지원 | 13.5 | 14.0 |
| 공공일자리 제공 | 8.1 | 8.1 |
|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 3.2 | 7.4 |
|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 2.7 | 4.9 |
| 건강관리(신체, 정신)지원 | 2.3 | 6.0 |
| 부채경감 지원 | 2.0 | 4.1 |
|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1.3 | 3.3 |
|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 공간 제공 | 1.2 | 3.7 |
| 시민교육 | 0.8 | 1.8 |
| 또래모임 지원 | 0.5 | 1.6 |
| 기타 | 0.5 | 0.4 |

- [표 4-9-24]는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1순위를 성,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임
- 남성은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1순위)로 소득(현금, 물품)지원(28.5%), 고용(취·창업)지원(22.4%), 자산 형성 지원(15.1%)을 꼽았고, 여성은 소득(현금, 물품)지원(25.5%), 고용(취·창업)지원(23.9%), 주거지원(14.1%) 순으로 응답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이나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임

[표 4-9-24]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1순위)

[단위: %]

| 구분 | 전체 (n=5,083)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성 | 여성 | 19-24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 26.9 | 28.5 | 25.5 | 31.3 | 30.0 | 21.3 | 19.1 |
| 고용(취·창업)지원 | 23.2 | 22.4 | 23.9 | 24.9 | 21.4 | 23.2 | 29.5 |
| 자산 형성 지원 | 13.9 | 15.1 | 12.8 | 11.7 | 12.7 | 17.0 | 12.1 |
| 주거지원 | 13.5 | 12.9 | 14.1 | 8.6 | 13.9 | 16.5 | 15.7 |
| 공공일자리 제공 | 8.1 | 7.6 | 8.5 | 9.7 | 8.0 | 6.9 | 8.1 |
|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 3.2 | 3.5 | 3.0 | 2.7 | 3.5 | 3.3 | 3.4 |
|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 2.7 | 1.9 | 3.3 | 2.5 | 1.8 | 3.5 | 4.1 |
| 건강관리(신체, 정신)지원 | 2.3 | 1.6 | 3.0 | 2.6 | 2.5 | 2.1 | 1.4 |
| 부채경감 지원 | 2.0 | 1.9 | 2.0 | 1.6 | 1.9 | 2.2 | 2.6 |
|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1.3 | 1.6 | 1.1 | 1.4 | 1.2 | 1.4 | 0.8 |
|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 1.2 | 1.4 | 1.0 | 1.5 | 1.2 | 0.9 | 0.4 |
| 시민교육 | 0.8 | 0.7 | 0.9 | 0.8 | 0.8 | 0.7 | 2.3 |
| 또래모임 지원 | 0.5 | 0.4 | 0.5 | 0.5 | 0.4 | 0.6 | 0.0 |
| 기타 | 0.5 | 0.6 | 0.3 | 0.2 | 0.5 | 0.6 | 0.3 |

- [표 4-9-25]는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2순위를 성,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임
- 남성은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2순위)를 고용(취·창업)지원(20.0%), 자산 형성 지원(16.9%), 주거지원(14.7%) 순으로 선택했고, 여성은 고용(취·창업)지원(20.9%), 주거지원(13.3%), 자산 형성 지원(13.1%) 순으로 응답함

[표 4-9-25]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2순위)

[단위: %]

| 구분 | 전체 (n=5,083) | 성별 | | 연령 | | | |
|-----------------------|-----------------|------|------|------------|------------|------------|------------|
| | | 남성 | 여성 | 19-24 세 | 25-29 세 | 30-34 세 | 35-36 세 |
| 고용(취·창업)지원 | 20.5 | 20.0 | 20.9 | 21.2 | 20.6 | 20.1 | 18.5 |
| 자산 형성 지원 | 15.0 | 16.9 | 13.1 | 13.1 | 15.7 | 15.6 | 14.4 |
| 주거지원 | 14.0 | 14.7 | 13.3 | 12.9 | 13.9 | 14.9 | 13.9 |
|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 9.3 | 8.6 | 9.8 | 11.2 | 9.3 | 7.9 | 7.7 |
| 공공일자리 제공 | 8.1 | 7.3 | 8.8 | 10.2 | 7.3 | 7.0 | 11.3 |
|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 7.4 | 8.1 | 6.7 | 7.2 | 6.7 | 8.1 | 8.7 |
| 건강관리(신체, 정신)지원 | 6.0 | 5.5 | 6.5 | 6.2 | 5.9 | 6.1 | 4.9 |
|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 4.9 | 3.2 | 6.5 | 4.6 | 4.8 | 4.8 | 8.3 |
| 부채경감 지원 | 4.1 | 3.7 | 4.6 | 1.9 | 5.0 | 5.1 | 2.3 |
|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 3.7 | 3.1 | 4.2 | 4.0 | 3.9 | 3.3 | 2.3 |
|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3.3 | 3.8 | 2.8 | 3.3 | 3.5 | 3.1 | 2.9 |
| 시민교육 | 1.8 | 1.8 | 1.7 | 1.8 | 1.2 | 2.2 | 2.8 |
| 또래모임 지원 | 1.6 | 2.6 | 0.7 | 2.2 | 1.6 | 1.3 | 1.0 |
| 기타 | 0.4 | 0.5 | 0.3 | 0.2 | 0.5 | 0.5 | 0.9 |

10_위성패널

- 이 절에서는 2021년 1차 조사를 완료한 2차 조사 예정 표본 5,194명 중 다른 지역 이거나 군입대로 2022년 조사 시점 당시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위성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함. 위성패널 분석의 표본은 2021년 1차 조사와 2022년 2차 조사를 모두 완료한 3,944명 중 182명(4.6%)임

1) 위성패널의 기본특성

- [표 4-10-1]은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위성패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본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며, 성별, 연령, 현재 거주지역, 혼인상태, 가구 유형, 소득 수준 등의 특성을 분석함
- 위성패널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64.8%, 여성 35.2%로 남성이 더 높음
- 연령분포는 19-24세(45.6%), 25-29세(16.5%), 30-34세(35.7%), 35-36세(2.2%)로 구성됨
- 현재 거주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53.6%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7.3%), 해외(5.1%), 충청남도(4.4%) 순으로 비율이 높았음
- 혼인상태는 미혼(79.0%)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19.6%, 별거 중인 응답자가 1.5%이었음
- 가구 유형 분석 결과, 1인가구와 부모 동거 가구가 37.0%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구(11.6%), 기타 가구(8.7%), 유자녀 부부가구(5.8%) 등의 순이었음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92.7%이며,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7.3%이었음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분포(월평균 소득)를 분석한 결과 400만 원 이상이 31.3%로 가장 높았고, 200-300만 원(28.1%), 300-400만 원 미만(18.8%), 100-200만 원 미만(14.8%) 등의 순이었음

[표 4-10-1] 위성패널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단위: %] |
|----|--------|-----------|
| 구분 | | 전체(n=182) |
| 성별 | 남성 | 64.8 |
| | 여성 | 35.2 |
| 연령 | 19-24세 | 45.6 |
| | 25-29세 | 16.5 |
| | 30-34세 | 35.7 |
| | 35-36세 | 2.2 |

[단위: %]

| 구분 | | 전체(n=182) |
|------------------------|----------------|-----------|
| 연령대 | 20대(19세 포함) | 62.1 |
| | 30대 | 37.9 |
| 현재 거주지역 ¹⁾ | 강원도 | 2.2 |
| | 경기도 | 53.6 |
| | 경상북도 | 3.6 |
| | 광주광역시 | 3.6 |
| | 대구광역시 | 2.9 |
| | 대전광역시 | 3.6 |
| | 부산광역시 | 2.2 |
| | 세종특별자치시 | 2.2 |
| | 울산광역시 | 2.2 |
| | 인천광역시 | 7.3 |
| | 전라남도 | 0.7 |
| | 전라북도 | 3.6 |
| | 제주도 | 0.7 |
| | 충청남도 | 4.4 |
| | 충청북도 | 2.2 |
| | 해외 | 5.1 |
| 혼인상태 ¹⁾ | 미혼 | 79.0 |
| | 배우자 있음 | 19.6 |
| | 사별 | 0.0 |
| | 이혼 | 0.0 |
| | 별거 | 1.5 |
| 가구 유형 ¹⁾ | 1인가구 | 37.0 |
| | 무자녀 부부가구 | 11.6 |
| | 유자녀 부부가구 | 5.8 |
| | 부모동거 가구 | 37.0 |
| | 기타 가구 | 8.7 |
| 본인 소득 유무 ¹⁾ | 없음 | 7.3 |
| | 있음 | 92.7 |
| 본인 소득 ²⁾ | 50만 원 미만 | 3.9 |
| | 50만~100만 원 미만 | 3.1 |
| | 100만~200만 원 미만 | 14.8 |
| | 200만~300만 원 미만 | 28.1 |
| | 300만~400만 원 미만 | 18.8 |
| | 400만 원 이상 | 31.3 |

주: 1) 성별, 연령 및 연령대는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대상, 그 외 문항은 군 복무 중인 응답자 44명을 제외하고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본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128명을 분석함

- [표 4-10-2]는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임
- 이사 이유는 일자리 관련(28.3%)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15.2%), 거주 환경 개선(14.5%), 결혼/독립 등(10.9%), 교육(9.4%), 자녀 외 동거가족 관련 이유(8.7%)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4-10-2]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구분 | 전체(n=138) ¹⁾ |
|-------------------|-------------------------|
| 자녀의 교육, 보육 환경을 위해 | 1.5 |
|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 | 8.7 |
|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 | 28.3 |
|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14.5 |
| 결혼, 독립 등의 이유 | 10.9 |
| 경제적인 이유 | 15.2 |
| 내 집을 마련하여서 | 4.4 |
| 주거자원을 받게 되어서 | 0.7 |
| 교육을 받기 위해서 | 9.4 |
| 기타 | 6.5 |

주: 1)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중 군 복무 중인 응답자 4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 [표 4-10-3]은 앞으로 서울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이사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이사 의향 이유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임
- 향후 서울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74.6%이며,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25.4%이었음. 이사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이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거주 환경을 위해(78.6%)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결혼/가족과의 합가 등(8.7%), 자녀 교육/보육 환경(7.8%) 등 순이었음
- 향후 서울로 이사할 의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74.3%)보다 여성(75.0%)에서 약간 높았음.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로 여성은 결혼/가족과의 합가 등이 12.5%로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남성은 자녀 교육/보육 환경이 10.9%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다시 서울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35-36세(100.0%)가 가장 높았고, 25-29세(67.9%)가 가장 낮았음. 서울로 다시 이사하고 싶은 이유로 35-36세에서는 자녀 교육/보육 환경이 50.0%로 가장 높았으나, 그 외 연령에서는 거주 환경 개선 목적이 가장 높았음
- 혼인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향후 서울로 이사할 의향은 미혼(76.2%)이 가장 높았

음. 서울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이유 중 자녀 교육/보육 환경이 20.0%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임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향후 서울로 이사할 의향은 무자녀 부부가구(81.3%)가 가장 높았고, 유자녀 부부가구(62.5%)는 가장 낮았음. 서울로 다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중 자녀 교육/보육 환경은 유자녀 부부가구(40.0%)에서 가장 높았고, 거주 환경 개선은 기타 가구(88.9%)에서 가장 높았음

[표 4-10-3] 향후 서울로 이사 의향 및 이유

[단위: %]

| 구분 ³⁾ | | 향후 서울로 이사할 의향 | | 서울로 다시 이사하고 싶은 이유(n=103) ²⁾ | | | |
|-------------------------|----------|---------------|-------|--|----------------|---------------|------|
| | | 있다 | 없다 | 자녀 교육, 보육 환경 |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결혼, 가족과의 합가 등 | 기타 |
| 전체(n=138) ¹⁾ | | 74.6 | 25.4 | 7.8 | 78.6 | 8.7 | 4.9 |
| 성별 | 남성 | 74.3 | 25.7 | 10.9 | 76.4 | 5.5 | 7.3 |
| | 여성 | 75.0 | 25.0 | 4.2 | 81.3 | 12.5 | 2.1 |
| 연령 | 19-24세 | 76.2 | 23.8 | 6.3 | 75.0 | 15.6 | 3.1 |
| | 25-29세 | 67.9 | 32.1 | 0.0 | 84.2 | 10.5 | 5.3 |
| | 30-34세 | 75.0 | 25.0 | 8.3 | 83.3 | 4.2 | 4.2 |
| | 35-36세 | 100.0 | 0.0 | 50.0 | 25.0 | 0.0 | 25.0 |
| 혼인상태 | 미혼 | 76.2 | 23.9 | 4.8 | 80.7 | 9.6 | 4.8 |
| | 배우자 있음 | 74.1 | 25.9 | 20.0 | 70.0 | 5.0 | 5.0 |
| | 사별 | 0.0 | 0.0 | 0.0 | 0.0 | 0.0 | 0.0 |
| | 이혼 | 0.0 | 0.0 | 0.0 | 0.0 | 0.0 | 0.0 |
| | 별거 | 0.0 | 100.0 | 0.0 | 0.0 | 0.0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8.4 | 21.6 | 2.5 | 82.5 | 10.0 | 5.0 |
| | 무자녀 부부가구 | 81.3 | 18.8 | 15.4 | 76.9 | 0.0 | 7.7 |
| | 유자녀 부부가구 | 62.5 | 37.5 | 40.0 | 60.0 | 0.0 | 0.0 |
| | 부모동거 가구 | 70.6 | 29.4 | 8.3 | 75.0 | 11.1 | 5.6 |
| | 기타 가구 | 75.0 | 25.0 | 0.0 | 88.9 | 11.1 | 0.0 |

주: 1)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중 군 복무 중인 응답자 4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서울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103명을 분석함
3) 전체 사례 수가 138명으로, 하위 집단별 분석 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 4-10-4]는 정기적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지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임
-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에서 정기적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응답자가 37.7%로 가장 높았고, 서울로 통근·통학과 통근·통학하지 않음(26.8%), 타 도시로 통근·통학(8.7%) 순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통근·통학자(46.0%)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서울 통근·통학자(35.9%)로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5-36세에서는 서울로 통근·통학(75.0%)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연령은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통근·통학이 가장 높았음
- 혼인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미혼은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통근·통학이 39.5%로 가장 높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서울 통근·통학 37.0%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가구와 유자녀 부부가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통근·통학이 가장 높았으나, 무자녀 부부가구와 부모동거 가구에서는 서울로 통근·통학 가장 높았음

[표 4-10-4] 정기적 통근/통학

[단위: %]

| 구분 ²⁾ | |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에서 | 서울로 | 타 도시로 | 통근이나 통학 하지 않음 |
|-------------------------|----------|---------------------|------|-------|------------------|
| 전체(n=138) ¹⁾ | | 37.7 | 26.8 | 8.7 | 26.8 |
| 성별 | 남성 | 46.0 | 18.9 | 5.4 | 29.7 |
| | 여성 | 28.1 | 35.9 | 12.5 | 23.4 |
| 연령 | 19-24세 | 38.1 | 28.6 | 7.1 | 26.2 |
| | 25-29세 | 50.0 | 21.4 | 7.1 | 21.4 |
| | 30-34세 | 32.8 | 25.0 | 10.9 | 31.3 |
| | 35-36세 | 25.0 | 75.0 | 0.0 | 0.0 |
| 혼인상태 | 미혼 | 39.5 | 23.9 | 8.3 | 28.4 |
| | 배우자 있음 | 33.3 | 37.0 | 11.1 | 18.5 |
| | 사별 | 0.0 | 0.0 | 0.0 | 0.0 |
| | 이혼 | 0.0 | 0.0 | 0.0 | 0.0 |
| | 별거 | 0.0 | 50.0 | 0.0 | 5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52.9 | 21.6 | 5.9 | 19.6 |
| | 무자녀 부부가구 | 25.0 | 50.0 | 6.3 | 18.8 |
| | 유자녀 부부가구 | 62.5 | 12.5 | 12.5 | 12.5 |
| | 부모동거 가구 | 25.5 | 27.5 | 9.8 | 37.3 |
| | 기타 가구 | 25.0 | 25.0 | 16.7 | 33.3 |

주: 1)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중 군 복무 중인 응답자 4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전체 사례 수가 138명으로, 하위 집단별 분석 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 4-10-5]는 주된 생활권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임
- 주된 생활권이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7.4%이었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생활권이라는 응답이

- 가장 많았으나, 남성이 비교적 더 많고 여성은 서울 생활권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주된 생활권이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29세에서 85.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6세에서 50.0%로 가장 높았음
 - 혼인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주된 생활권이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에서 76.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배우자 있음에서 18.5%로 가장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주된 생활권이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인가구에서 76.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구에서 31.3%로 가장 높았음

[표 4-10-5] 주된 생활권

[단위: %]

| 구분 ²⁾ | |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 서울 | 그 외 지역 |
|-------------------------|----------|---------------|------|--------|
| 전체(n=138) ¹⁾ | | 73.9 | 17.4 | 8.7 |
| 성별 | 남성 | 77.0 | 10.8 | 12.2 |
| | 여성 | 70.3 | 25.0 | 4.7 |
| 연령 | 19-24세 | 66.7 | 26.2 | 7.1 |
| | 25-29세 | 85.7 | 7.1 | 7.1 |
| | 30-34세 | 75.0 | 14.1 | 10.9 |
| | 35-36세 | 50.0 | 50.0 | 0.0 |
| 혼인상태 | 미혼 | 76.2 | 17.4 | 6.4 |
| | 배우자 있음 | 63.0 | 18.5 | 18.5 |
| | 사별 | 0.0 | 0.0 | 0.0 |
| | 이혼 | 0.0 | 0.0 | 0.0 |
| | 별거 | 100.0 | 0.0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6.5 | 15.7 | 7.8 |
| | 무자녀 부부가구 | 56.3 | 31.3 | 12.5 |
| | 유자녀 부부가구 | 75.0 | 0.0 | 25.0 |
| | 부모동거 가구 | 78.4 | 15.7 | 5.9 |
| | 기타 가구 | 66.7 | 25.0 | 8.3 |

주: 1)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중 군 복무 중인 응답자 4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전체 사례 수가 138명으로, 하위 집단별 분석 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 4-10-6]은 이사 이후 삶의 만족도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임
- 이사 이후 삶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0점이었으며, 보통(59.4%), 만

- 족(26.1%), 불만족(14.5%)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 이후 삶의 만족도는 남성(6.1점)이 여성(5.9점)보다 약간 높았으며, 만족함의 비율도 남성은 31.1%, 여성은 20.3%로 남성에서 더 높았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5-36세에서 7.5점으로 가장 높았고, 30-34세에서 5.9점으로 가장 낮았음
 - 혼인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족도 평균이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별거 6.0점, 미혼 5.9점 순으로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만족도 평균이 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가구에서 5.8점으로 가장 낮았음. 불만족함의 비율은 1인가구에서 21.6%로 가장 높았음

[표 4-10-6] 이사 이후 삶의 만족도

| 구분 ²⁾³⁾ | | [단위: 점, %] | | | |
|-------------------------|----------|------------|------|-------|------|
| | | 평균(점) | 불만족함 | 보통 | 만족함 |
| 전체(n=138) ¹⁾ | | 6.0 | 14.5 | 59.4 | 26.1 |
| 성별 | 남성 | 6.1 | 16.2 | 52.7 | 31.1 |
| | 여성 | 5.9 | 12.5 | 67.2 | 20.3 |
| 연령 | 19-24세 | 6.1 | 11.9 | 64.3 | 23.8 |
| | 25-29세 | 6.1 | 17.9 | 57.1 | 25.0 |
| | 30-34세 | 5.9 | 15.6 | 57.8 | 26.6 |
| | 35-36세 | 7.5 | 0.0 | 50.0 | 50.0 |
| 혼인상태 | 미혼 | 5.9 | 17.4 | 56.9 | 25.7 |
| | 배우자 있음 | 6.7 | 3.7 | 66.7 | 29.6 |
| | 사별 | 0.0 | 0.0 | 0.0 | 0.0 |
| | 이혼 | 0.0 | 0.0 | 0.0 | 0.0 |
| | 별거 | 6.0 | 0.0 | 100.0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6.0 | 21.6 | 51.0 | 27.5 |
| | 무자녀 부부가구 | 6.3 | 6.3 | 75.0 | 18.8 |
| | 유자녀 부부가구 | 7.0 | 0.0 | 62.5 | 37.5 |
| | 부모동거 가구 | 5.9 | 13.7 | 58.8 | 27.5 |
| | 기타 가구 | 5.8 | 8.3 | 75.0 | 16.7 |

주: 1) 위성패널 전체 응답자 중 군 복무 중인 응답자 4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만족도는 “이사 한 이후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에서 0(최하)-3점은 ‘불만족함’, 4-7점은 ‘보통’, 8-10(최상)점은 ‘만족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것임
3) 전체 사례 수가 138명으로, 하위 집단별 분석 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decorated with a series of vertical lines and rounded rectangular shapes. These shapes are arranged in a way that they appear to be part of a larger, stylized architectural or organic structure. The lines are thin and light gray, while the rounded rectangles are slightly thicker and also in a light gray color. The overall effect is a clean, modern, and minimalist design.

05

종단분석

1_일반특성

2_청년기 주요 이행 종단적 특성

3_영역별 핵심지표 비교

05. 중단분석

1_일반특성

- 이 장에서는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와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연결한 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기준 원표본의 일반특성 및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전체 표본 5,083명 중 1차(2021년) 조사와 2차(2022년) 조사 모두 응답한 원표본 3,7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먼저 원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를 전체와 연령별로 나눠 확인하고, 주거·경제 특성 변화를 분석함

1) 서울청년의 기본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표 5-1-1]은 서울청년패널조사 원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를 성별, 연령, 권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특성,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등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성별은 시불변 특성으로 1차(2021년)와 2차(2022년)에서 분포가 동일하였음
- 학력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1차(2021년)에 39.6%에서 2차(2022년)에는 37.7%로 낮아졌으며,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인 경우는 2차(2022년)에 비교적 높아짐
-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높아짐
- 미혼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낮아졌으나, 유배우 청년의 비율은 높아짐
- 1인가구는 1차(2021년)와 2차(2022년) 조사 모두 33.7%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나,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가구, 기타 가구는 높아졌고, 부모동거 가구는 약간 낮아짐
- 자녀유무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1차(2021년) 4.8%에서 2차(2022년)에는 5.7%로 높아짐

- 가구 규모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만 포함한 거주기준 가구 규모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경제생활 기준 가구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함
 - 거주기준 가구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인 가구의 비율은 1차(2021년) 조사보다 2차(2022년) 조사 시 높아졌으나, 그 외 가구에서는 비율이 낮아짐
 - 경제생활기준 가구 규모에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비율은 1차(2021년) 조사보다 2차(2022년) 조사 시 높아졌으나, 그 외 가구에서는 비율이 낮아짐
-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1차(2021년) 45.1%에서 2차(2022년) 46.2%로 다소 높아짐
- 가구주인 청년의 비율은 1차(2021년)보다 2차(2022년) 조사에서 낮았음

[표 5-1-1]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단위: 명, %] | |
|------------------|------------|---------------|---------------|
| 구분 | | 1차 (2021년) | 2차 (2022년) |
| 전체 | | 3,762 | |
| 성별 | 남성 | 48.7 | |
| | 여성 | 51.3 | |
| 연령 | 19-24세 | 25.7 | |
| | 25-29세 | 36.9 | |
| | 30-34세 | 32.7 | |
| | 35-36세 | 4.8 | |
| 권역 ¹⁾ | 도심권 | 5.3 | 5.5 |
| | 동북권 | 29.5 | 29.4 |
| | 동남권 | 19.8 | 19.3 |
| | 서북권 | 12.2 | 12.7 |
| | 서남권 | 33.1 | 33.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9.6 | 37.7 |
| | 전문대 졸업 | 13.0 | 13.4 |
| | 대학교 졸업 | 42.0 | 43.5 |
| | 대학원 졸업 | 5.3 | 5.4 |
| 장애 유무 | 있음 | 2.6 | 2.8 |
| | 없음 | 97.5 | 97.2 |
| 혼인상태 | 미혼 | 88.7 | 87.1 |
| | 배우자 있음 | 10.7 | 12.4 |
| | 사별 | 0.1 | 0.1 |
| | 이혼 | 0.4 | 0.4 |
| | 별거 | 0.1 | 0.1 |

[단위: 명, %]

| 구분 | | | 1차 (2021년) | 2차 (2022년) |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33.7 | 33.7 |
| | 무자녀 부부가구 | | 5.9 | 6.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4.3 | 5.0 |
| | 부모동거 가구 | | 50.3 | 48.4 |
| | 기타 가구 | | 5.8 | 6.7 |
| 자녀 유무 | 자녀 있음 | | 4.8 | 5.7 |
| | 자녀 없음 | | 95.2 | 94.3 |
| 가구 규모 | 거주기준 가구 규모 | 1인 | 34.3 | 33.7 |
| | | 2인 | 14.8 | 15.8 |
| | | 3인 | 20.2 | 19.9 |
| | | 4인 | 24.8 | 24.7 |
| | | 5인 이상 | 5.9 | 5.9 |
| | 경제생활기준 가구 규모 ²⁾ | 1인 | 23.2 | 20.3 |
| | | 2인 | 12.5 | 13.2 |
| | | 3인 | 17.9 | 22.1 |
| | | 4인 | 35.0 | 33.0 |
| | | 5인 이상 | 11.5 | 11.4 |
|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 부모와 동거 | | 48.8 | 48.8 |
| | 부모 비동거 | 경제지원 있음 | 16.1 | 16.1 |
| | | 경제지원 없음 | 35.2 | 35.1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지원 있음 | | 45.1 | 46.2 |
| | 경제적 지원 없음 | | 54.9 | 53.8 |
| 가구 내 지위 | 가구주 | | 43.9 | 36.1 |
| | 가구 생계 기여 ³⁾ |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 18.9 | 20.6 |
| | |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33.5 | 37.6 |
| | |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 2.8 | 4.7 |
| | |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0.9 | 1.0 |

주: 1)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종량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으로 구분함.

2) 가구규모에서의 경제적 기준은 가구 내에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기준으로 함.

3) 가구 생계 기여는 본인이 가구주가 아닌 청년 중 가구 생계 기여도가 0%인 청년은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10-50%인 경우는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60-90%인 경우는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100%인 경우는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으로 구분하였음.

- 그다음은 1차(2021년)와 2차(2022년) 조사의 원표본 특성 변화 추이를 연령별로 분석하였음([표 5-1-2] 참조)
- 연령별 학력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24세와 25-29세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분포가 낮아지고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분포는 높아졌음

- 모든 연령에서 미혼의 비율이 낮아졌고 배우자 있음의 비율은 높아졌음
- 19-24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분포에서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졌음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은 25-29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낮아졌음
- 가구주 청년의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낮아짐

[표 5-1-2]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1차(2021년) | | | | 2차(2022년) | | | |
|------------------|------------|-----------|--------|--------|--------|-----------|--------|--------|--------|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 전체(n=3,762) | | 967 | 1,387 | 1,229 | 179 | 967 | 1,387 | 1,229 | 179 |
| 성별 | 남성 | 45.4 | 50.5 | 50.5 | 40.4 | 45.4 | 50.5 | 50.5 | 40.4 |
| | 여성 | 54.7 | 49.5 | 49.5 | 59.6 | 54.7 | 49.5 | 49.5 | 59.6 |
| 권역 ¹⁾ | 도심권 | 5.9 | 4.5 | 5.2 | 8.6 | 6.3 | 4.3 | 5.8 | 8.9 |
| | 동북권 | 31.0 | 31.1 | 26.5 | 30.1 | 31.4 | 31.6 | 25.6 | 28.4 |
| | 동남권 | 19.2 | 18.6 | 22.3 | 15.4 | 18.0 | 18.0 | 22.3 | 15.3 |
| | 서북권 | 13.9 | 11.3 | 11.3 | 17.2 | 14.5 | 11.5 | 11.7 | 18.5 |
| | 서남권 | 30.0 | 34.6 | 34.7 | 28.7 | 29.8 | 34.6 | 34.6 | 29.0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6.5 | 32.6 | 14.6 | 13.3 | 82.8 | 28.8 | 15.6 | 15.0 |
| | 전문대 졸업 | 7.9 | 15.3 | 13.7 | 18.8 | 8.0 | 14.9 | 15.1 | 19.4 |
| | 대학교 졸업 | 5.6 | 48.1 | 61.8 | 55.7 | 9.0 | 51.8 | 59.8 | 54.5 |
| | 대학원 졸업 | 0.0 | 4.1 | 9.9 | 12.2 | 0.2 | 4.5 | 9.6 | 11.0 |
| 혼인 상태 | 미혼 | 98.0 | 96.3 | 77.6 | 56.1 | 97.6 | 95.4 | 74.2 | 55.0 |
| | 배우자 있음 | 1.3 | 3.4 | 21.7 | 42.2 | 1.9 | 4.3 | 25.1 | 44.1 |
| | 사별 | 0.1 | 0.1 | 0.1 | 0.6 | 0.1 | 0.1 | 0.1 | 0.0 |
| | 이혼 | 0.5 | 0.2 | 0.5 | 0.5 | 0.4 | 0.3 | 0.5 | 1.0 |
| | 별거 | 0.1 | 0.1 | 0.1 | 0.6 | 0.0 | 0.0 | 0.2 | 0.0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1.0 | 37.7 | 39.9 | 27.9 | 20.9 | 38.6 | 38.7 | 29.5 |
| | 무자녀 부부가구 | 0.8 | 2.0 | 12.7 | 16.5 | 0.6 | 2.4 | 13.7 | 14.4 |
| | 유자녀 부부가구 | 0.1 | 1.0 | 8.4 | 24.9 | 0.1 | 1.0 | 9.9 | 28.3 |
| | 부모동거 가구 | 74.5 | 52.7 | 32.3 | 24.0 | 73.0 | 50.3 | 30.8 | 22.3 |
| | 기타 가구 | 3.5 | 6.6 | 6.7 | 6.7 | 5.4 | 7.7 | 7.0 | 5.5 |
| 자녀 유무 | 자녀 있음 | 0.4 | 1.3 | 9.2 | 26.7 | 0.3 | 1.4 | 11.1 | 30.7 |
| | 자녀 없음 | 99.7 | 98.7 | 90.8 | 73.3 | 99.7 | 98.6 | 88.9 | 69.3 |

[단위: 명, %]

| 구분 | | | 1차(2021년) | | | | 2차(2022년) | | | |
|------------------------|--|------------------|-----------|--------|--------|--------|-----------|--------|--------|--------|
|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 가구 규모 | 거주 기준 가구 규모 | 1인 | 21.4 | 38.0 | 40.9 | 30.7 | 20.9 | 38.6 | 38.7 | 29.5 |
| | | 2인 | 7.7 | 11.7 | 21.8 | 27.5 | 8.4 | 12.7 | 23.8 | 24.0 |
| | | 3인 | 21.3 | 19.1 | 19.6 | 27.3 | 20.9 | 17.4 | 20.6 | 29.8 |
| | | 4인 | 38.2 | 25.8 | 15.1 | 10.6 | 38.8 | 25.7 | 14.1 | 13.8 |
| | | 5인 이상 | 11.4 | 5.3 | 2.5 | 4.0 | 11.0 | 5.6 | 2.8 | 3.0 |
| | 경제 생활 기준 가구 규모 ²⁾ | 1인 | 10.2 | 25.1 | 31.2 | 22.9 | 6.4 | 22.1 | 28.6 | 24.0 |
| | | 2인 | 5.4 | 9.5 | 19.4 | 25.6 | 5.2 | 10.3 | 21.6 | 22.3 |
| | | 3인 | 17.3 | 16.3 | 18.9 | 27.6 | 21.3 | 21.2 | 22.4 | 30.0 |
| | | 4인 | 48.9 | 37.8 | 23.7 | 15.7 | 48.0 | 34.8 | 21.3 | 19.2 |
| | | 5인 이상 | 18.3 | 11.3 | 6.9 | 8.1 | 19.1 | 11.6 | 6.2 | 4.4 |
| 부모동거 및 경제적 지원 | 부모와 동거 | | 68.5 | 50.3 | 34.1 | 31.5 | 74.1 | 50.6 | 30.9 | 22.3 |
| | 부모 | 경제지원 있음 | 17.8 | 18.5 | 12.7 | 11.2 | 18.3 | 18.3 | 12.8 | 9.2 |
| | 비동거 | 경제지원 없음 | 13.7 | 31.2 | 53.3 | 57.3 | 7.6 | 31.1 | 56.3 | 68.5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지원 있음 | | 72.0 | 47.0 | 24.6 | 26.0 | 78.4 | 48.6 | 22.5 | 16.7 |
| | 경제적 지원 없음 | | 28.0 | 53.0 | 75.4 | 74.0 | 21.6 | 51.5 | 77.5 | 83.3 |
| 가구 내 지위 | 가구주 | | 23.6 | 43.4 | 57.6 | 63.5 | 14.0 | 35.8 | 51.2 | 53.3 |
| | 가구 생계 기여 ³⁾ |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 37.8 | 18.2 | 7.0 | 3.5 | 39.8 | 20.8 | 7.6 | 4.7 |
| | |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36.1 | 35.6 | 30.0 | 28.1 | 42.2 | 39.7 | 32.3 | 32.6 |
| | |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 1.5 | 2.2 | 4.1 | 4.1 | 3.5 | 2.9 | 7.4 | 5.9 |
| | |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 0.9 | 0.6 | 1.3 | 0.8 | 0.4 | 0.8 | 1.5 | 3.6 |

주: 1)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으로 구분함.

2) 가구 규모에서의 경제적 기준은 가구 내에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를 기준으로 함.

3) 가구 생계 기여는 본인이 가구주가 아닌 청년 중 가구 생계 기여도가 0%인 청년은 생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 10-50%인 경우는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가구원, 60-90%인 경우는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구원, 100%인 경우는 생계 전부를 책임지는 가구원으로 구분하였음.

(2) 주거·경제 특성

- [표 5-1-3]은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의 주거·경제 특성 변화를 주거점유 형태, 경제활동 상태, 본인 소득 및 부채, 주관적 소득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 분석함
- 주거점유 형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가라고 응답한 청년은 1차(2021년)에 비해 2차(2022년) 조사에서 낮아졌고, 전세, 월세/기타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높아졌음
-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비율은 1차(2021년)와 2차(2022년)에서 같았고, 실업, 재학생 비율은 감소했으나 비재학 미취업 청년은 증가함
- 본인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소득 분포(월평균 소득)를 분석한 결과, 50만 원

- 미만, 100-2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구간에서 1차(2021년) 조사보다 2차(2022년) 조사에 낮아졌고, 그 외 구간에서는 높아짐
- 부채 유무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1차(2021년) 조사(47.7%)에 비해 2차(2022년)조사(36.4%)에서 낮아짐
 -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부채 규모는 1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크게 줄었으며, 1,000만-5,000만 원 미만과 5,000만-1억 원 미만 구간 비율은 늘었음
 - 응답자가 인식한 본인의 주관적 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하층 및 상층이라고 응답한 분포는 1차(2021년) 조사보다 2차(2022년)조사에서 높아졌으나,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분포는 낮아짐. 즉 주관적 소득수준의 격차가 더 커짐

[표 5-1-3] 주거·경제 특성

| | | | [단위: 명, %] | |
|--------------------------------------|--------------------|---------|---------------|---------------|
| 구분 | | | 1차 (2021년) | 2차 (2022년) |
| 전체 | | | 3,762 | |
| 서울 거주 이력 | 서울 태생 | | 59.3 | |
| | 서울로 이주 | 국내 | 40.0 | |
| | | 국외 | 0.7 | |
| 주거점유 형태 | 자가 | | 32.6 | 32.0 |
| | 전세 | | 30.9 | 31.3 |
| | 월세/기타 | | 36.4 | 36.6 |
| 경제활동상태 ¹⁾ | 경제활동 | 취업 | 65.7 | 65.7 |
| | | 실업 | 7.7 | 7.6 |
| | 비경제활동 | 재학생 | 9.3 | 7.3 |
| | | 비재학 미취업 | 17.3 | 19.4 |
| 본인 소득 유무 ²⁾ | 없음 | | 9.2 | 6.8 |
| | 있음 | | 90.8 | 93.2 |
| 본인 소득 ²⁾ | 50만 원 미만 | | 18.0 | 15.8 |
| | 50만-100만 원 미만 | | 11.9 | 12.8 |
| | 100만-200만 원 미만 | | 20.1 | 19.3 |
| | 200만-300만 원 미만 | | 29.6 | 31.0 |
| | 300만-400만 원 미만 | | 12.0 | 13.4 |
| | 400만 원 이상 | | 8.5 | 7.8 |
| 부채 유무 ³⁾ | 부채 없음 | | 52.3 | 63.6 |
| | 부채 있음 | | 47.7 | 36.4 |
| 본인 부채 규모 ³⁾ (부채 있는 경우) | 500만 원 미만 | | 12.8 | 12.2 |
| | 500만-1,000만 원 미만 | | 6.3 | 7.7 |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 20.1 | 26.7 |
| | 5,000만-1억 원 미만 | | 7.8 | 18.2 |
| | 1억 원 이상 | | 53.0 | 35.2 |

[단위: 명, %]

| 구분 | | 1차 (2021년) | 2차 (2022년) |
|------------------------|---|---------------|---------------|
| 주관적 소득수준 ⁴⁾ | 하 | 25.8 | 26.6 |
| | 중 | 67.6 | 66.4 |
| | 상 | 6.5 | 7.0 |

주: 1) '취업'은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이며, '실업'은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

2) 본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본인 소득 중 1개 항목이라도 결측일 경우 결측으로 처리(2021년 n=3,760, 2022년 n=3,697)

3) 부채는 일반부채와 주택부채(임대보증금 총액 포함)를 합산한 것이며, 부채 항목 중 1개라도 결측일 경우 결측으로 처리(2022년 1명 결측), 부채 규모는 부채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함(2021년 n=1,884, 2022년 n=1,449)

4) 주관적 소득수준은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1(최하)-3점은 '하', 4-7점은 '중', 8-10(최상) 점은 '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것임. 2021년과 2022년 주관적 소득수준의 평균값은 4.8점이며 최소값, 1 최대값 10임

- 다음으로 1차(2021년)와 2차(2022년) 조사 원표본의 주거·경제 특성 변화 추이를 연령별로 분석하였으며, 서울 거주 이력, 주거점유 형태, 경제활동상태, 본인 소득 및 부채, 주관적 소득수준 등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표 5-1-4] 참조)
- 연령별 주거점유 형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세의 비율은 35-36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같거나 높아졌으며, 월세/기타의 비율은 25-29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높아졌음
- 연령별 취업자 비율은 25-29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약간 낮아졌으며, 실업자의 비율은 35-36세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음.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학자 비율은 30-34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낮아짐
- 본인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전체 연령에서 높아짐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50만 원 미만 비율은 높아졌고, 400만 원 이상 비율은 낮아짐
-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전체 연령에서 낮아짐
- 부채 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구간은 전체 연령에서 큰 폭으로 낮아짐

[표 5-1-4] 연령별 주거·경제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 1차(2021년) | | | | 2차(2022년) | | | |
|--|--------------------|---------|-----------|--------|--------|--------|-----------|--------|--------|--------|
|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36세 |
| 전체(n=3,762) | | | 967 | 1,387 | 1,229 | 179 | 967 | 1,387 | 1,229 | 179 |
| 서울 거주 이력 | 서울 태생 | | 68.5 | 55.7 | 56.3 | 58.8 | 68.5 | 55.7 | 56.3 | 58.8 |
| | 서울로 이주 | 국내 | 30.7 | 43.5 | 43.2 | 40.4 | 30.7 | 43.5 | 43.2 | 40.4 |
| | | 국외 | 0.8 | 0.9 | 0.5 | 0.8 | 0.8 | 0.9 | 0.5 | 0.8 |
| 주거점유 형태 | 자가 | | 42.1 | 30.9 | 27.2 | 32.0 | 41.4 | 30.4 | 26.7 | 30.7 |
| | 전세 | | 23.4 | 28.7 | 37.4 | 45.0 | 23.4 | 29.7 | 37.4 | 44.5 |
| | 월세/기타 | | 34.5 | 40.3 | 35.5 | 23.0 | 35.2 | 39.9 | 35.9 | 24.8 |
| 경제활동 상태 ¹⁾ | 경제 활동 | 취업 | 47.7 | 65.7 | 77.8 | 80.3 | 47.5 | 66.5 | 76.9 | 80.7 |
| | | 실업 | 8.1 | 8.5 | 6.7 | 6.0 | 8.9 | 8.1 | 6.7 | 2.7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22.7 | 8.4 | 1.2 | 0.7 | 17.6 | 6.2 | 1.4 | 0.3 |
| | | 비재학 미취업 | 21.5 | 17.5 | 14.4 | 13.0 | 26.0 | 19.2 | 15.0 | 16.3 |
| 본인소득 유무 ²⁾ | 없음 | | 17.4 | 9.0 | 3.8 | 4.2 | 13.9 | 5.6 | 3.2 | 2.7 |
| | 있음 | | 82.6 | 91.0 | 96.2 | 95.8 | 86.1 | 94.4 | 96.8 | 97.3 |
| 본인 소득 ²⁾ | 50만 원 미만 | | 35.1 | 17.3 | 7.1 | 6.7 | 32.2 | 13.6 | 6.6 | 6.9 |
| | 50만-100만 원 미만 | | 24.5 | 11.5 | 3.4 | 4.3 | 27.3 | 11.7 | 3.6 | 5.8 |
| | 100만-200만 원 미만 | | 21.7 | 24.7 | 14.7 | 12.0 | 24.5 | 22.4 | 13.3 | 9.5 |
| | 200만-300만 원 미만 | | 11.4 | 32.1 | 40.8 | 32.2 | 11.5 | 36.2 | 40.3 | 31.1 |
| | 300만-400만 원 미만 | | 3.9 | 8.9 | 20.0 | 24.1 | 2.5 | 11.9 | 21.9 | 24.9 |
| | 400만 원 이상 | | 3.5 | 5.4 | 14.1 | 20.7 | 1.9 | 4.3 | 14.4 | 21.8 |
| 부채 유무 ³⁾ | 부채 없음 | | 75.3 | 54.0 | 35.0 | 32.6 | 86.5 | 64.9 | 47.2 | 42.8 |
| | 부채 있음 | | 24.7 | 46.0 | 65.0 | 67.4 | 13.5 | 35.1 | 52.8 | 57.2 |
| 본인 부채 규모 ³⁾ (부채 있는 경우) | 500만 원 미만 | | 29.1 | 17.8 | 5.2 | 4.5 | 46.0 | 14.6 | 5.3 | 1.8 |
| | 500만-1,000만 원 미만 | | 7.7 | 8.8 | 4.4 | 3.3 | 10.2 | 11.5 | 5.1 | 2.0 |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 14.1 | 23.8 | 20.2 | 13.3 | 25.9 | 28.6 | 26.3 | 20.8 |
| | 5,000만-1억 원 미만 | | 8.6 | 6.4 | 8.9 | 5.8 | 7.2 | 20.8 | 18.7 | 17.0 |
| | 1억 원 이상 | | 40.5 | 43.2 | 61.5 | 73.2 | 10.7 | 24.5 | 44.5 | 58.4 |
| 주관적 소득수준 ⁴⁾ | 하 | | 20.3 | 28.4 | 27.9 | 21.8 | 24.3 | 28.6 | 26.8 | 21.1 |
| | 중 | | 69.9 | 65.9 | 67.0 | 72.8 | 67.2 | 64.6 | 67.3 | 69.7 |
| | 상 | | 9.8 | 5.7 | 5.1 | 5.4 | 8.5 | 6.7 | 5.9 | 9.3 |

주: 1) '취업'은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이며, '실업'은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

2) 본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본인 소득 중 1개 항목이라도 결측일 경우 결측으로 처리(2021년 n=3,760, 2022년 n=3,697)

3) 부채는 일반부채와 주택부채(임대보증금 총액 포함)를 합산한 것이며, 부채 항목 중 1개라도 결측일 경우 결측으로 처리(2022년 1명 결측), 부채 규모는 부채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함(2021년 n=1,884, 2022년 n=1,449)

4) 주관적 소득수준은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1(최하)-3점은 '하', 4-7점은 '중', 8-10(최상)점은 '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것임

2_청년기 주요 이행 종단적 특성

- 이 절에서는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1차)와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원표본의 청년기 주요 이행 특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전체 표본 5,083명 중 1차(2021년) 조사와 2차(2022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3,762명의 원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원표본의 경제활동상태, 부모와 독립, 혼인상태 등의 특성 변화를 분석함

1) 경제활동상태

- 아래 [표 5-2-1]은 1차(2021년) 조사와 2차(2022년) 조사 원표본의 경제활동상태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우선 원표본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1차(2021년)와 2차(2022년) 조사에서 같았으며, 실업자 비율은 0.1%p 낮아졌음.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생 비율은 낮아졌으나 비재학 미취업자의 비율은 높아짐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취업자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 취업자 비율은 낮아졌음
-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비율은 25-29세, 35-36세에서 1차(2021년) 조사보다 2차(2022년) 조사에서 높아졌으며, 실업자 비율은 19-24세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같거나 낮아짐. 재학생 비율은 30-34세를 제외하고 낮아졌지만, 비재학 미취업자는 전체 연령대에서 다소 높아짐

[표 5-2-1]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구분 | | 1차(2021년) | | | | 2차(2022년) | | | |
|-------------|------------|-----------|-----|---------|---------|-----------|-----|---------|---------|
| |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취업 | 실업 | 재학 | 비재학 미취업 | 취업 | 실업 | 재학 | 비재학 미취업 |
| 전체(n=3,762) | | 65.7 | 7.7 | 9.3 | 17.3 | 65.7 | 7.6 | 7.3 | 19.4 |
| 성별 | 남성 | 62.5 | 7.4 | 11.6 | 18.5 | 62.7 | 8.4 | 9.0 | 19.9 |
| | 여성 | 68.8 | 7.9 | 7.2 | 16.1 | 68.6 | 6.9 | 5.6 | 18.9 |
| 연령 | 19-24세 | 47.7 | 8.1 | 22.7 | 21.5 | 47.5 | 8.9 | 17.6 | 26.0 |
| | 25-29세 | 65.7 | 8.5 | 8.4 | 17.5 | 66.5 | 8.1 | 6.2 | 19.2 |
| | 30-34세 | 77.8 | 6.7 | 1.2 | 14.4 | 76.9 | 6.7 | 1.4 | 15.0 |
| | 35-36세 | 80.3 | 6.0 | 0.7 | 13.0 | 80.7 | 2.7 | 0.3 | 16.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1.3 | 7.8 | 19.7 | 21.3 | 51.5 | 7.8 | 19.5 | 21.2 |
| | 전문대 졸업 | 70.9 | 9.3 | 1.3 | 18.5 | 71.7 | 9.7 | 0.4 | 18.2 |
| | 대학교 졸업 | 75.6 | 7.4 | 2.8 | 14.3 | 74.4 | 7.1 | 3.9 | 14.6 |
| | 대학원 졸업 | 83.2 | 5.0 | 3.7 | 8.1 | 80.4 | 6.4 | 4.0 | 9.3 |

[단위: %]

| 구분 | | 1차(2021년) | | | | 2차(2022년) | | | |
|----------|----------|-----------|-----|---------|------------|-----------|------|---------|------------|
| |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취업 | 실업 | 재학 | 비재학 미취업 | 취업 | 실업 | 재학 | 비재학 미취업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70.1 | 6.9 | 8.2 | 14.8 | 70.4 | 7.2 | 8.0 | 14.5 |
| | 무자녀 부부가구 | 82.6 | 6.3 | 1.8 | 9.3 | 83.6 | 4.4 | 1.6 | 10.3 |
| | 유자녀 부부가구 | 68.7 | 1.1 | 0.0 | 30.2 | 68.5 | 2.6 | 0.6 | 28.4 |
| | 부모동거 가구 | 59.7 | 8.8 | 12.4 | 19.1 | 59.1 | 8.6 | 12.5 | 19.8 |
| | 기타 가구 | 73.4 | 8.5 | 4.0 | 14.1 | 71.6 | 10.1 | 6.6 | 11.8 |

2) 가구 배경

- 다음으로 청년의 이행 특성 중 가구 배경의 변화를 분석함. 가구 배경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 및 독립 전망, 비동거 청년의 비동거 사유, 혼인 특성, 결혼 의향, 자녀 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1)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전망

- 아래 [표 5-2-2]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우선 전체 원표본의 부모 동거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는 1차(2021년) 조사와 2차(2022년) 조사에서 유사하였음
- 부모와 동거하는 남성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의 비율은 낮아짐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낮은 경향은 1차(2021년)와 2차(2022년) 조사에서 유사하였으며, 비동거 청년 중 경제지원을 받지 않는 비율은 30세 이후 연령에서 높아짐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아짐
- 비동거 청년 중 1인가구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1차(2021년) 32.7%에서 2차(2022년) 조사에 35.4%로 높아졌으며,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가구에서는 낮아졌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자 중 부모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약간 높아졌고, 비동거 청년 중 경제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음

[표 5-2-2] 부모 동거 특성

[단위: %]

| 구분 | | 1차(2021년) | | | 2차(2022년) | | |
|-------------|------------|-----------|--------|-----------|-----------|--------|-----------|
| | | 부모와 동거 | 비동거 | | 부모와 동거 | 비동거 | |
| | | | 경제지원받음 | 경제지원받지 않음 | | 경제지원받음 | 경제지원받지 않음 |
| 전체(n=3,762) | | 48.8 | 16.1 | 35.2 | 48.8 | 16.1 | 35.1 |
| 성별 | 남성 | 47.2 | 15.3 | 37.5 | 49.5 | 15.1 | 35.4 |
| | 여성 | 50.3 | 16.8 | 32.9 | 48.2 | 17.0 | 34.8 |
| 연령 | 19-24세 | 68.5 | 17.8 | 13.7 | 74.1 | 18.3 | 7.6 |
| | 25-29세 | 50.3 | 18.5 | 31.2 | 50.6 | 18.3 | 31.1 |
| | 30-34세 | 34.1 | 12.7 | 53.3 | 30.9 | 12.8 | 56.3 |
| | 35-36세 | 31.5 | 11.2 | 57.3 | 22.3 | 9.2 | 68.5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1.7 | 18.4 | 20.0 | 63.8 | 17.6 | 18.6 |
| | 전문대 졸업 | 51.9 | 9.2 | 38.9 | 50.2 | 11.1 | 38.6 |
| | 대학교 졸업 | 37.8 | 15.9 | 46.3 | 38.0 | 15.6 | 46.4 |
| | 대학원 졸업 | 32.4 | 16.8 | 50.8 | 28.0 | 21.8 | 50.2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0.1 | 32.7 | 67.2 | 0.0 | 35.4 | 64.6 |
| | 무자녀 부부가구 | 8.5 | 18.2 | 73.3 | 0.0 | 10.5 | 89.5 |
| | 유자녀 부부가구 | 36.0 | 25.8 | 38.2 | 0.4 | 25.3 | 74.2 |
| | 부모동거 가구 | 92.2 | 2.2 | 5.6 | 100.0 | 0.0 | 0.0 |
| | 기타 가구 | 5.6 | 30.4 | 64.0 | 5.8 | 33.3 | 60.9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4.1 | 13.3 | 42.6 | 43.8 | 13.2 |
| | | 실업 | 54.6 | 16.8 | 28.6 | 54.7 | 16.0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4.4 | 28.0 | 7.6 | 66.6 | 27.6 |
| | | 비재학 미취업 | 55.7 | 19.9 | 24.4 | 55.7 | 20.7 |

- [표 5-2-3]은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연령과 시기를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임
- 전체 원표본의 예상독립연령은 1차(2021년) 조사 31.0세에서 2차(2022년) 30.3세로 약간 낮아짐
- 성별로 부모 동거 청년의 예상 독립 연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낮아짐
- 연령별 부모 동거 청년의 예상 독립 연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음
- 학력별 예상 독립 연령은 모두 낮아짐
- 다음으로 예상 독립 시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10년 이내와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2021년) 조사보다 2차(2022년) 조사에서 낮아졌으나, 2년 미만, 2-5년 이내는 높아졌음

- 성별 부모 동거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2-5년 이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짐
- 연령별 부모 동거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19-24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낮아짐
- 학력별 예상 독립 시기는 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하고 2년 미만, 2-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높아졌으나, 5-10년 이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음

[표 5-2-3]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시기

[단위: 세, %]

| 구분 | | 1차(2021년) (n=830) ¹⁾ | | | | | 2차(2022년) (n=1,322) ²⁾ | | | | |
|----|------------|------------------------------------|-------|------------|-------------|-----------|--------------------------------------|-------|------------|-------------|-----------|
| | | 예상독립 연령 ³⁾ | 2년 미만 | 2-5년 이내 | 5-10년 이내 | 10년 이상 | 예상독립 연령 ³⁾ | 2년 미만 | 2-5년 이내 | 5-10년 이내 | 10년 이상 |
| 전체 | | 31.0 | 15.0 | 36.5 | 34.2 | 14.3 | 30.3 | 16.3 | 42.6 | 31.5 | 9.6 |
| 성별 | 남성 | 31.2 | 14.8 | 35.7 | 37.3 | 12.2 | 30.5 | 17.2 | 44.1 | 29.5 | 9.2 |
| | 여성 | 30.7 | 15.3 | 37.3 | 30.9 | 16.5 | 30.2 | 15.3 | 41.1 | 33.7 | 9.9 |
| 연령 | 19-24세 | 28.1 | 8.3 | 14.0 | 43.3 | 24.4 | 26.9 | 10.3 | 33.3 | 43.1 | 13.3 |
| | 25-29세 | 30.9 | 14.7 | 44.3 | 32.3 | 8.7 | 30.8 | 15.0 | 51.3 | 26.7 | 7.0 |
| | 30-34세 | 35.9 | 28.0 | 43.0 | 22.5 | 6.5 | 35.3 | 28.4 | 45.7 | 18.7 | 7.3 |
| | 35-36세 | 39.0 | 16.3 | 62.0 | 11.7 | 10.1 | 38.9 | 34.4 | 27.4 | 29.8 | 8.4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9.1 | 11.2 | 29.4 | 40.5 | 18.9 | 28.5 | 12.6 | 38.0 | 37.5 | 11.9 |
| | 전문대 졸업 | 32.9 | 16.9 | 34.7 | 34.9 | 13.6 | 31.3 | 17.2 | 43.7 | 31.7 | 7.5 |
| | 대학교 졸업 | 33.0 | 19.4 | 46.0 | 26.4 | 8.2 | 32.3 | 19.7 | 49.2 | 23.9 | 7.3 |
| | 대학원 졸업 | 34.6 | 24.8 | 57.7 | 12.1 | 5.4 | 34.0 | 32.6 | 40.0 | 21.1 | 6.3 |

주: 1)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결측치 제외하고 분석함
2)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독립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제외하고 분석함
3) 현재 연령+예상독립시기

- [표 5-2-4]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를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한 것임
- 비동거 사유의 전체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업/진로 준비’, ‘취업’, ‘부모님 안 계심(사망)’은 1차(2021년) 조사에 비해 2차(2022년) 조사에 낮아졌으나, ‘결혼 후 분가’, ‘양육자와 불화’, ‘독립하고 싶어서’, ‘기타’는 높아졌음
- 성별 비동거 사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변화 추이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독립하고 싶어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높아졌고 여성은 낮아졌음
- 연령별 비동거 사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업/진로 준비’는 19-24세에서는 높아졌으나 그 외 전체 연령에서는 낮아졌으며, ‘취업’은 전체 연령에서 낮아짐. ‘결혼 후 분

가'는 19-24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높아졌음

- 학력별 비동거 사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업/진로 준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에서는 낮아짐. '취업'은 전체 학력에서 낮아짐
- 경제활동상태별로 비동거 사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 후 분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실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높아졌으며, '독립하고 싶어서'는 취업, 실업, 재학 청년은 높아지고, 비재학 미취업 청년은 낮아짐

[표 5-2-4]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비동거 사유

[단위: %]

| 구분 | | | 1차 조사(2021년) ¹⁾ | | | | | | | 2차 조사(2022년) ²⁾ | | | | | | |
|----------------|------------|---------|----------------------------|------|---------------|----------------|-----------------|--------------------|-----|----------------------------|------|---------------|----------------|-----------------|--------------------|-----|
| | | | 학업 /진로 준비 | 취업 | 결혼 후 분가 | 양육자 와 불화 | 독립 하고 싶어서 | 부모님 안계심 (사망) | 기타 | 학업 /진로 준비 | 취업 | 결혼 후 분가 | 양육자 와 불화 | 독립 하고 싶어서 | 부모님 안계심 (사망) | 기타 |
| 전체 | | | 39.9 | 27.9 | 9.1 | 4.1 | 15.0 | 0.9 | 3.1 | 38.1 | 23.4 | 13.2 | 4.7 | 15.3 | 0.7 | 4.7 |
| 성별 | 남성 | | 39.6 | 29.5 | 8.7 | 3.1 | 14.6 | 1.1 | 3.4 | 39.5 | 23.0 | 11.6 | 3.7 | 15.8 | 0.7 | 5.8 |
| | 여성 | | 40.3 | 26.4 | 9.5 | 5.0 | 15.4 | 0.7 | 2.7 | 36.8 | 23.9 | 14.6 | 5.7 | 14.8 | 0.6 | 3.7 |
| 연령 | 19-24세 | | 61.0 | 13.5 | 1.5 | 3.7 | 15.3 | 1.0 | 4.1 | 65.3 | 9.7 | 0.7 | 3.0 | 14.3 | 0.0 | 7.0 |
| | 25-29세 | | 45.7 | 30.9 | 2.2 | 3.6 | 14.1 | 0.9 | 2.7 | 43.9 | 27.3 | 3.5 | 4.3 | 15.0 | 0.8 | 5.3 |
| | 30-34세 | | 29.5 | 31.1 | 14.9 | 4.7 | 15.5 | 0.9 | 3.4 | 28.5 | 24.2 | 21.2 | 5.7 | 16.0 | 0.8 | 3.8 |
| | 35-36세 | | 23.7 | 26.4 | 29.2 | 3.3 | 15.6 | 0.7 | 1.2 | 19.6 | 24.3 | 34.3 | 3.6 | 14.5 | 0.6 | 3.2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0.5 | 15.6 | 4.3 | 5.9 | 18.3 | 1.6 | 4.0 | 44.6 | 10.9 | 7.3 | 7.7 | 20.2 | 1.0 | 8.4 |
| | 전문대 졸업 | | 21.5 | 36.6 | 10.3 | 5.3 | 22.5 | 1.7 | 2.1 | 23.9 | 28.2 | 17.8 | 4.6 | 19.4 | 1.3 | 4.8 |
| | 대학교 졸업 | | 37.0 | 34.0 | 10.8 | 3.0 | 11.8 | 0.4 | 3.1 | 37.0 | 29.3 | 14.7 | 3.4 | 12.2 | 0.4 | 2.9 |
| | 대학원 졸업 | | 49.0 | 20.7 | 15.6 | 1.7 | 11.1 | 0.7 | 1.2 | 47.2 | 18.3 | 15.0 | 2.9 | 12.5 | 0.0 | 4.3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33.7 | 32.4 | 10.2 | 4.0 | 15.9 | 0.8 | 3.1 | 32.8 | 27.2 | 13.9 | 4.6 | 16.6 | 0.7 | 4.3 |
| | | 실업 | 46.0 | 24.0 | 5.7 | 8.3 | 10.8 | 1.4 | 3.9 | 39.7 | 20.1 | 3.5 | 11.1 | 16.7 | 0.7 | 8.2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88.2 | 2.5 | 1.7 | 1.3 | 3.9 | 0.0 | 2.6 | 82.8 | 1.4 | 4.6 | 0.0 | 7.8 | 0.0 | 3.5 |
| | | 비재학 미취업 | 46.1 | 19.4 | 8.6 | 3.5 | 17.4 | 1.8 | 3.2 | 46.4 | 15.3 | 16.8 | 3.9 | 11.3 | 0.8 | 5.5 |

주: 1) 1-2차 연도 응답자 3,762명 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1,927명을 분석함

2) 1-2차 연도 응답자 3,762명 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1,924명을 분석함

(2) 혼인 특성

- 아래 [표 5-2-5]은 원표본의 혼인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주거점유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원표본의 혼인 특성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혼인 청년은 1차(2021년) 72.8%에서 2차(2022년) 72.0%로 약간 낮아졌으며 기혼 청년은 높아짐
-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은 낮아졌으며, 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졌음. 비혼은 남성은 약간 높아지고, 여성은 약간 낮아짐
- 연령별 혼인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혼 청년은 35-36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낮아졌으며, 비혼인 청년은 19-24세와 30-34세에서 높아졌음
-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경우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비혼 비율은 낮아졌음
- 가구 유형별 혼인 특성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혼 비율은 1인가구와 기타 가구에서는 높아지고, 부모동거 가구에서는 감소하였음

[표 5-2-5] 혼인 특성

[단위: %]

| 구분 ²⁾ | | 1차 조사(2021년) ¹⁾ | | | 2차 조사(2022년) | | |
|------------------|------------|----------------------------|------|-------|--------------|------|------|
| | | 미혼 | 비혼 | 기혼 | 미혼 | 비혼 | 기혼 |
| 전체(n=3,762) | | 72.8 | 18.6 | 8.6 | 72.0 | 18.5 | 9.5 |
| 성별 | 남성 | 80.5 | 12.0 | 7.5 | 79.3 | 12.1 | 8.6 |
| | 여성 | 65.5 | 24.9 | 9.6 | 65.0 | 24.6 | 10.4 |
| 연령 | 19-24세 | 79.8 | 19.8 | 0.4 | 79.5 | 20.0 | 0.5 |
| | 25-29세 | 77.3 | 20.8 | 1.9 | 77.1 | 20.2 | 2.7 |
| | 30-34세 | 66.8 | 14.8 | 18.4 | 64.1 | 15.8 | 20.1 |
| | 35-36세 | 39.4 | 20.6 | 40.0 | 46.2 | 15.7 | 38.2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7.3 | 19.7 | 3.1 | 75.3 | 20.7 | 4.0 |
| | 전문대 졸업 | 72.0 | 18.5 | 9.5 | 69.9 | 19.1 | 10.9 |
| | 대학교 졸업 | 69.4 | 18.3 | 12.4 | 70.6 | 16.8 | 12.6 |
| | 대학원 졸업 | 68.3 | 13.0 | 18.7 | 65.5 | 14.8 | 19.6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80.2 | 19.8 | 0.0 | 80.4 | 19.3 | 0.3 |
| | 무자녀 부부가구 | 0.0 | 0.0 | 100.0 | 32.2 | 2.4 | 65.4 |
| | 유자녀 부부가구 | 0.0 | 0.0 | 100.0 | 2.8 | 0.5 | 96.7 |
| | 부모동거 가구 | 80.1 | 19.3 | 0.6 | 78.3 | 20.6 | 1.1 |
| | 기타 가구 | 68.6 | 31.4 | 0.0 | 72.0 | 28.0 | 0.0 |
| 주거점유 형태 | 자가 | 74.3 | 18.0 | 7.7 | 73.6 | 17.7 | 8.8 |
| | 전세 | 69.9 | 16.1 | 14.1 | 68.9 | 16.3 | 14.8 |
| | 보증부 월세 | 73.9 | 21.2 | 4.9 | 73.3 | 21.0 | 5.7 |

주: 1) 1-2차 연도 응답자 3,762명 중 1차년도는 결혼계획 결측 제외하고 분석함(n=3,349명)

2) '미혼'은 현재 배우자가 없고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임. '비혼'은 현재 배우자가 없고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임

- [표 5-2-6]은 원표본 중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 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원표본의 결혼 의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할 의향이 있거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높아졌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짐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으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에서 낮아짐
-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4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높아짐
- 학력별로 보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원 졸업에서는 낮아졌으나,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졸업자의 분포는 높아졌음
-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인가구와 기타 가구에서는 높아졌으나, 부모동거 가구에서는 낮아짐

[표 5-2-6]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단위: %]

| 구분 | | | 1차 조사(2021년) ¹⁾ | | | 2차 조사(2022년) ²⁾ | | |
|--------|------------|---------|----------------------------|--------------|------|----------------------------|--------------|------|
| | | | 결혼할 의향 있음 | 결혼할 의향 없음 | 모르겠다 | 결혼할 의향 있음 | 결혼할 의향 없음 | 모르겠다 |
| 전체 | | | 43.1 | 20.3 | 36.6 | 44.4 | 20.4 | 35.2 |
| 성별 | 남성 | | 53.4 | 13.0 | 33.6 | 54.1 | 13.2 | 32.7 |
| | 여성 | | 33.0 | 27.6 | 39.5 | 35.0 | 27.4 | 37.5 |
| 연령 | 19-24세 | | 43.0 | 19.9 | 37.1 | 41.3 | 20.1 | 38.7 |
| | 25-29세 | | 42.5 | 21.2 | 36.4 | 44.3 | 20.8 | 35.0 |
| | 30-34세 | | 45.2 | 18.1 | 36.7 | 48.5 | 19.8 | 31.7 |
| | 35-36세 | | 32.6 | 34.4 | 33.1 | 37.4 | 25.4 | 37.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42.7 | 20.3 | 37.0 | 41.2 | 21.6 | 37.2 |
| | 전문대 졸업 | | 38.4 | 20.5 | 41.2 | 42.3 | 21.5 | 36.3 |
| | 대학교 졸업 | | 43.6 | 20.9 | 35.6 | 47.2 | 19.2 | 33.6 |
| | 대학원 졸업 | | 55.5 | 16.0 | 28.5 | 53.2 | 18.4 | 28.4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43.8 | 19.8 | 36.4 | 46.0 | 19.3 | 34.7 |
| | 부모동거 가구 | | 0.0 | 0.0 | 0.0 | 80.2 | 7.0 | 12.9 |
| | 기타 가구 | | 0.0 | 0.0 | 0.0 | 60.6 | 15.0 | 24.4 |
| 경제활동상태 | 경제 활동 | 취업 | 43.5 | 19.4 | 37.1 | 42.7 | 20.8 | 36.6 |
| | | 실업 | 35.6 | 31.4 | 33.0 | 37.4 | 28.0 | 34.6 |
| | 비경제 활동 | 재학 | 44.4 | 20.0 | 35.7 | 46.4 | 19.4 | 34.2 |
| | | 비재학 미취업 | 36.8 | 20.6 | 42.6 | 41.0 | 21.7 | 37.3 |

주: 1) 1-2차 연도 응답자 3,762명 중 미혼인 청년 3,364명을 분석함

2) 1-2차 연도 응답자 3,762명 중 미혼인 청년 3,307명을 분석함

- [표 5-2-7]은 원표본 중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의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유형,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한 것임
- 전체 원표본의 자녀 유무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2021년) 조사(4.8%)에 비해 2차(2022년) 조사에 5.7%로 높아졌음
- 성별 자녀 유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짐
- 연령별 자녀 유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비율은 19-24세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에서 높아짐
- 경제활동상태별 자녀 유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청년의 비율은 미취업 비재학자를 제외하고 모두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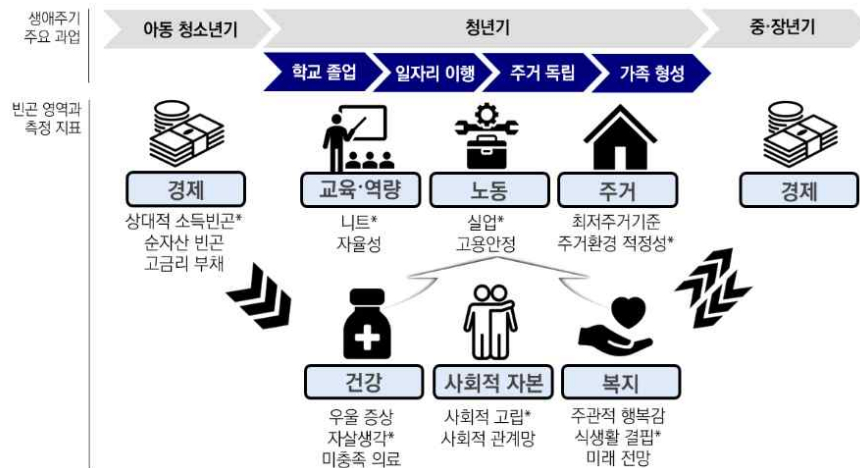
[표 5-2-7] 자녀 유무에 따른 청년 특성

[단위: %]

| 구분 | | | 1차 조사(2021년) | | 2차 조사(2022년) | |
|-------------|------------|---------|--------------|-------|--------------|-------|
| | |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 전체(n=3,762) | | | 4.8 | 95.2 | 5.7 | 94.3 |
| 성별 | 남성 | | 3.8 | 96.2 | 4.7 | 95.3 |
| | 여성 | | 5.8 | 94.2 | 6.6 | 93.4 |
| 연령 | 19-24세 | | 0.4 | 99.7 | 0.3 | 99.7 |
| | 25-29세 | | 1.3 | 98.7 | 1.4 | 98.6 |
| | 30-34세 | | 9.2 | 90.8 | 11.1 | 88.9 |
| | 35-36세 | | 26.7 | 73.3 | 30.7 | 69.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3 | 97.7 | 2.5 | 97.5 |
| | 전문대 졸업 | | 6.4 | 93.7 | 6.7 | 93.3 |
| | 대학교 졸업 | | 6.4 | 93.6 | 7.9 | 92.1 |
| | 대학원 졸업 | | 7.6 | 92.4 | 7.3 | 92.7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 0.3 | 99.7 | 0.6 | 99.4 |
| | 무자녀 부부가구 | | 0.0 | 100.0 | 0.0 | 100.0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00.0 | 0.0 | 100.0 | 0.0 |
| | 부모동거 가구 | | 0.6 | 99.4 | 0.9 | 99.1 |
| | 기타 가구 | | 1.7 | 98.3 | 1.0 | 99.0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5.0 | 95.0 | 5.8 | 94.2 |
| | | 실업 | 0.6 | 99.4 | 2.9 | 97.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0.0 | 100.0 | 1.5 | 98.5 |
| | | 비재학 미취업 | 8.6 | 91.4 | 7.8 | 92.2 |

3_영역별 핵심지표 비교

- 이 절에서는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수준을 반영한 영역별 핵심지표 변화를 분석함
- 핵심지표의 프레임과 영역별 핵심지표는 변금선·이혜림(2021)의 연구에서 도출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활용했으며, 7개 영역과 18개의 핵심지표로 구성함. 다음 [그림 5-3-1]은 청년의 성인이행 과정과 과업, 그에 따른 삶의 영역별 지표를 도식화한 것임
- 청년기는 생애주기관점에서 이행기라는 특성이 있음. 청년의 이행기를 단순한 이행주로 보기보다는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의 이행 즉 생애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이행의 관점에서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며, 원가족으로 분리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등의 여러 이슈와 맞물려 있음. 따라서 청년 이행기에 맞물린 다양한 특성을 검토해야 청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음.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임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감소는 소득의 빈곤,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은 삶의 질,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변금선·이혜림, 2021)



[그림 5-3-1] 청년의 이행과정 및 과업에 따른 삶의 영역별 지표

- 변금선·이혜림(2021)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과 핵심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경제: 상대적 소득 빈곤, 자산 빈곤, 부채 비율
 - 교육·역량: 니트, 진로역량 결핍
 - 노동: 실업률, 고용안정

-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망
- 주거: 비적정 주거, 최저주거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 건강: 자살 생각, 우울, 미충족 의료 경험
- 복지: 식생활 결핍, 주관적 행복, 미래 전망
- 영역별 핵심지표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먼저 경제영역의 상대적 소득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소득 결핍을 의미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소득 빈곤이라 정의함
 - 서울청년패널은 개인단위 조사이고, 소득을 개인의 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묻고 있어 두 개의 소득 빈곤을 별도 산출하였음
 - 가구소득의 경우 1차 조사(2021년)와 2차 조사(2022년)의 개념이 다르기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차 조사의 가구소득의 가구원 개념은 동거를 함께하는 혈연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2차 조사의 가구소득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개념으로 보다 포괄적임
- 자산 빈곤은 불충분한 소득안정성 및 자산형성 기회 결핍을 의미하고,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소득의 3개월 치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여 산출함
 - 총자산은 재산 항목별 액수를 모두 더한 값이고, 총부채는 일반부채와 주택 관련 부채의 합으로 봄
- 부채 비율은 자산형성 기회 박탈을 의미하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DTA)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로 정의하여 산출함
- 교육·역량 지표의 니트는 일, 교육·훈련,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서의 배제를 의미하며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미취업자 중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문항에서 학교 또는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때문이거나, “지난주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의 문항에서 학교나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통학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들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 진로역량은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역량의 결핍을 의미하고, 진로와 관련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 노동영역의 실업지표는 일할 기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청년 실업자 수÷경활청년(취업자+실업자))×100 산출하였음
- 고용안정 지표는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의 박탈을 의미하며 고용, 임금 및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산출하였음(이승윤 외, 2017).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각 취업 청년 개인이 고용 측면의 불안정성, 임금(또는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 그

리고 사회적 보호 측면의 불안정성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음

- 고용 측면의 불안정성은 임금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함
- 임금(또는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은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중위 근로소득의 2/3 미만인 경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함
- 사회적 보호 측면의 불안정성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미가입하면 불안정하다고 판단함
- 이를 종합하여,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모두 불안정한 경우 매우 불안정,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중 2개가 불안정한 경우 불안정,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중 1개가 불안정한 경우 다소 불안정,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모두 안정적인 경우 불안정하지 않음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 지표 사회적 고립은 인적자본 역량의 결핍을 의미하며, 최근 한달간 3주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지로 산출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지표는 사회적 관계의 결핍(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사람 없는 경우로 산출함
- 주거영역의 비적정주거 지표는 안정 등 적정 주거 자원 결핍을 의미하며, 비주택(고시원, 컨테이너 건물 등) 및 지하층, 옥탑 거주하는 비율로 산출
- 최저주거기준 지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자원 결핍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토대로 가구원 수와 주택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함
 - 산출 시 가구원 수는 동거가구원 개념을 활용
-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 지표는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부담 비율(RIR)을 의미하며, 전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월 소득 25%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전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시 4.7%의 이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건강영역의 자살 생각 지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건강 박탈을 의미하며,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여부로 산출함
- 우울 지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정신건강 결핍을 의미하고, CSE-D 11척도를 활용하여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산출하였음
- 미충족 의료 경험은 건강을 위한 기초적 의료서비스 자원의 결핍을 의미하고, 경제적 이유나 인프라 부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로 산출하였음
- 복지영역의 식생활 결핍 지표는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원결핍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어려움 경험을 자주+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 주관적 행복 지표는 삶의 회복력 결핍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삶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인 경우로 산출
- 미래전망 지표는 미래 희망 자본의 결핍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미래 기대 정도에 대해 약간 좋아질 것+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함
- 전체 표본 중 1차(2021년) 조사와 2차(2022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원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는 종단면 표본분석 가중치를 활용하였음

[표 5-3-8] 서울청년패널조사 주요 지표

| 영역 | 지표명 | 내용 | 산출방법 |
|-------------|-----------|---|--|
| 경제 | 상대적 소득 빈곤 | •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소득 결핍 | •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
| | 자산 빈곤 | • 불충분한 소득안정성 및 자산형성 기회 결핍 | • 순자산이 3개월 간 최저생활(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유지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
| | 부채 비율 | • 자산형성 기회 박탈 | • 총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75%이상 |
| 교육, 역량 | 니트 | • 일, 교육·훈련,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서의 배제 | • 미취업자 중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에서 학교 또는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때문이거나, “지난주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에서 학교나 입시학원, 직업훈련 기관에 통학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들을 제외하였음 |
| | 진로역량 | •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역량의 결핍 | • 진로 관련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율 |
| 노동 | 실업 | • 일할 기회로부터의 배제 | • 실업률=(청년 실업자수 ÷ 경황청년(취업자+실업자)) × 100 |
| | 고용안정 | •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의 박탈 | • 고용 불안정: (임금근로자)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소득 불안정: 임금/비임금근로자 각각 전체 임금/비임금근로자 월평균 중위 근로소득의 2/3 미만 • 사회적보호 불안정:4대보험중 하나라도 미가입 |
|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 사회적 고립 | • 인적자본 역량의 결핍 | •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집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
| | 사회적 관계망 | • 사회적 관계의 결핍(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 •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

| 영역 | 지표명 | 내용 | 산출방법 |
|----|-------------|---------------------------------|---|
| 주거 | 비적정주거 | • 안전 등 적정 주거 자원 결핍 | • 비주택(고시원, 컨테이너 건물 등) 및 지하층, 옥탑 거주 |
| | 최저주거기준 | •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자원 결핍 | • 동거가구원 수 대비 방,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미달 |
| |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 | •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부담 비율(RIR) |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월소득25% 초과 |
| 건강 | 자살 생각 |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건강 박탈 | •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 여부 문항 |
| | 우울 |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정신건강 결핍 | • CES-D 11척도를 활용하여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 |
| | 미충족 의료 경험 | • 건강을 위한 기초적 의료서비스 자원의 결핍 | • 경제적이유나 인프라 부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
| 복지 | 식생활 결핍 | •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원 결핍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어려움 경험 여부 |
| | 주관적 행복 | • 삶의 회복력 결핍 | • 전반적으로 삶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 | 미래전망 | • 미래의 희망 자본의 결핍 | • 30년 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 |

1) 경제

- [표 5-3-2]은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소득 빈곤, 자산 빈곤, 부채 비율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개인소득 빈곤, 가구소득 빈곤, 자산 빈곤, 부채 비율(높음)은 1차 조사(2021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1차 조사와 시점 동일)를 통해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청년패널조사(SYPS)의 개인소득 빈곤율이 높았음. 이는 개인단위를 기본으로 측정하는 조사방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즉 가구균등화 방식으로 개인소득 빈곤율을 산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 빈곤, 자산 빈곤, 부채 비율(높음) 모두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19-24세 청년의 소득 빈곤, 자산 빈곤, 부채 비율(높음) 증가 폭이 크며, 35-36세의 경우 자산 빈곤과 부채 비율(높음)이 1차 조사(2021년) 대비 감소 폭이 큼
- 부부가구(무자녀+유자녀)의 경우 순자산 빈곤 및 부채 비율(높음)의 감소 비율이 높음

[표 5-3-9] 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 | | 개인소득 빈곤 ¹⁾ | | 가구소득 빈곤 ²⁾³⁾ | | 자산 빈곤 ⁴⁾ | | 부채 비율(높음) ⁵⁾ |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 전체 | | | 35.6 | 35.9 | 15.2 | 21.3 | 55.1 | 58.0 | 43.5 | 47.1 |
| 성별 | 남성 | | 36.0 | 37.3 | 16.5 | 22.3 | 56.4 | 60.7 | 44.7 | 49.9 |
| | 여성 | | 35.2 | 34.5 | 13.9 | 20.4 | 53.9 | 55.4 | 42.3 | 44.4 |
| 연령 | 19~24세 | | 68.8 | 72.4 | 20.2 | 31.2 | 60.9 | 68.2 | 31.2 | 43.0 |
| | 25~29세 | | 35.2 | 32.6 | 18.1 | 23.3 | 54.1 | 58.2 | 42.5 | 47.7 |
| | 30~34세 | | 13.2 | 14.1 | 9.2 | 13.3 | 52.5 | 52.5 | 53.1 | 50.4 |
| | 35~36세 | | 12.9 | 14.2 | 7.8 | 9.2 | 49.8 | 39.2 | 50.8 | 42.1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57.8 | 61.5 | 20.2 | 28.3 | 62.6 | 68.5 | 38.8 | 48.9 |
| | 전문대 졸업 | | 22.5 | 21.6 | 14.8 | 18.2 | 52.2 | 55.3 | 45.7 | 47.8 |
| | 대학교 졸업 | | 20.9 | 21.2 | 11.5 | 17.7 | 50.1 | 51.0 | 46.7 | 45.4 |
| | 대학원 졸업 | | 19.9 | 14.0 | 8.9 | 12.1 | 46.6 | 47.1 | 47.7 | 46.3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24.8 | 24.3 | 19.6 | 35.1 | 58.2 | 65.5 | 51.1 | 58.6 |
| | 무자녀 부부가구 | | 8.9 | 9.0 | 2.7 | 5.7 | 63.0 | 48.5 | 65.2 | 50.2 |
| | 유자녀 부부가구 | | 20.0 | 23.8 | 9.5 | 9.3 | 62.5 | 47.6 | 68.4 | 46.8 |
| | 부모동거 가구 | | 47.7 | 49.3 | 13.6 | 14.2 | 51.4 | 54.9 | 33.2 | 38.7 |
| | 기타 가구 | | 31.3 | 30.9 | 20.2 | 26.6 | 56.6 | 59.2 | 47.7 | 47.3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22.0 | 21.1 | 11.5 | 15.6 | 50.9 | 53.7 | 44.3 | 47.1 |
| | | 실업 | 46.8 | 48.9 | 23.1 | 36.1 | 63.3 | 72.5 | 49.5 | 53.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82.5 | 83.8 | 22.9 | 36.1 | 62.2 | 61.7 | 30.4 | 35.3 |
| | | 비재학 미취업 | 57.2 | 62.8 | 21.8 | 30.1 | 63.8 | 65.3 | 45.0 | 49.1 |

- 주: 1)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 기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각 연도 값을 사용하였으며, 1차 조사(2021년)와 2차 조사(2022년) 소득 항목에 모두 응답한 3,695명에 대한 분석임
- 2) 가구소득의 경우 1차 조사(2021년)와 2차 조사(2022년) 각각 가구 개념이 달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차 조사(2021년)의 가구 개념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동거 가구원을 중심으로 소득을 묻는 반면, 2차 조사(2022년)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더욱 포괄적인 개념임
- 3) 1차 조사(2021년)와 2차 조사(2022년) 가구소득에 모두 응답한 3,658명에 대한 분석임
- 4) 자산 빈곤은 순자산이 3개월 간 최저생활(중위소득 50%)을 유지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산 총액과 부채 항목에 모두 응답한 3,755명을 분석함. 자산의 경우 측정 방식 변화로 1차 조사(2021년)에서 단일 문항 변수, 2차 조사에서는 자산 항목별 총액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5) 부채 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 부채(DTA)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자산 총액과 부채 항목 모두 응답한 3,755명을 분석함

| [참고] 가계금융·복지조사(2021) 빈곤율 | | | |
|---|------|------|----------------|
| | | | [단위: %] |
| 구분 ¹⁾ | 가구 | 개인 | 청년(19~34세, 개인) |
| 상대적 빈곤율 | 18.6 | 15.3 | 8.2 |
|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이며, 개인 빈곤율은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임 | | | |
| 2) 서울청년패널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적용해 빈곤율을 산출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원 전체 소득을 파악 후 개인단위로 균등화하는 방식으로 빈곤율을 산출하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빈곤통계연보 | | | |

2) 교육, 역량

- [표 5-3-3]은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니트, 진로역량결핍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니트 비율은 증가했고, 진로역량 결핍 비율은 1차 조사(2021년)와 동일함
- 남성과 여성 모두 니트 비율이 높아진 반면, 진로역량 결핍 비율은 남성은 감소, 여성은 증가함
- 유자녀 부부가구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증가하였고, 진로역량 결핍은 1인가구,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감소했지만, 나머지 집단에서 증가함
- 재학, 비재학 미취업 청년의 니트 비율은 감소했음

[표 5-3-10] 교육, 역량 지표

| | | | [단위: %] | | | |
|-------------|------------|---------|--------------------|------------------|-----------------------|------------------|
| 구분 | | | 니트 ¹⁾²⁾ | | 진로역량 결핍 ³⁾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 전체(n=3,762) | | | 25.4 | 26.2 | 7.3 | 7.3 |
| 성별 | 남성 | | 26.2 | 27.9 | 7.6 | 7.0 |
| | 여성 | | 24.6 | 24.7 | 6.9 | 7.6 |
| 연령 | 19-24세 | | 33.1 | 35.7 | 9.0 | 8.1 |
| | 25-29세 | | 26.0 | 25.9 | 5.8 | 6.2 |
| | 30-34세 | | 19.7 | 20.4 | 7.2 | 7.5 |
| | 35-36세 | | 19.0 | 18.5 | 9.5 | 10.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32.5 | 35.1 | 9.0 | 9.7 |
| | 전문대 졸업 | | 26.1 | 25.0 | 9.1 | 8.6 |
| | 대학교 졸업 | | 20.1 | 20.3 | 5.7 | 5.5 |
| | 대학원 졸업 | | 13.1 | 15.6 | 1.8 | 2.1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21.7 | 22.5 | 7.5 | 5.6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5.4 | 15.9 | 4.2 | 9.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31.3 | 31.2 | 10.6 | 9.2 |
| | 부모동거 가구 | | 29.3 | 29.6 | 7.3 | 7.9 |
| | 기타 가구 | | 19.8 | 26.4 | 6.3 | 8.0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0.0 | 0.0 | 6.4 | 7.1 |
| | | 실업 | 100.0 | 100.0 | 3.9 | 3.0 |
| | 비경제활동 | 재학 | 28.6 | 25.3 | 10.7 | 5.9 |
| | | 비재학 미취업 | 87.2 | 86.6 | 7.3 | 10.0 |

주: 1) 미취업자 중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에서 학교 또는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때문이거나, “지난주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에서 학교나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통학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들을 제외하였음

2) OECD 기준으로 니트를 산출했을 때, 1차 조사의 경우 23.0%, 2차 조사 27.0%임

3) 진로와 관련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율

3) 노동

- [표 5-3-4]는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실업률, 고용안정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먼저 실업률은 1차 조사(2021년)보다 2차 조사(2022년)에서 약간 낮아졌으며, 불안정 고용 지표에서 매우 불안정한 경우도 1차 조사(2021년)보다 2차 조사(2022년)에 비교적 낮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실업률은 1차 조사(2021년)보다 2차 조사(2022년)에 감소하였으나, 남성에서는 증가함. 고용안정 지표의 경우 1차 조사(2021년)와 2차(2022년) 모두 여성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매우 불안정 + 불안정)가 더 높았음
- 연령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30-34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불안정(매우 불안정 +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차 조사(2021년)보다 2차 조사(2022년)에서 낮았음
-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증가했음. 고용안정 지표는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에게서 불안정 고용 비율이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차 조사(2021년)와 2차 조사(2022년) 조사 모두 부모동거 가구에서 불안정(매우 불안정 +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자녀 부부가구에서 1차 조사(2021년)와 비교하면 2차 조사(2022년)에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소폭 증가함

[표 5-3-11] 고용안정

[단위: %]

| 구분 | | 실업률 ¹⁾ | | 불안정 고용 | | | | | |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 | | 2차 조사 (2022년) | | | |
| | | | | 매우 불안정 ²⁾ | 불안정 ³⁾ | 다소 불안정 ⁴⁾ | 불안정 하지 않음 ⁵⁾ | 매우 불안정 ²⁾ | 불안정 ³⁾ | 다소 불안정 ⁴⁾ | 불안정 하지 않음 ⁵⁾ |
| 전체 ⁶⁾ | | 10.5 | 10.4 | 18.1 | 15.8 | 25.9 | 40.2 | 16.2 | 15.8 | 27.3 | 40.8 |
| 성별 | 남성 | 10.6 | 11.8 | 15.8 | 14.9 | 26.1 | 43.2 | 15.8 | 14.9 | 24.7 | 44.6 |
| | 여성 | 10.3 | 9.1 | 20.0 | 16.7 | 25.8 | 37.5 | 16.5 | 16.6 | 29.5 | 37.4 |
| 연령 | 19-24세 | 14.5 | 15.8 | 50.5 | 23.3 | 15.8 | 10.4 | 47.4 | 23.0 | 17.9 | 11.6 |
| | 25-29세 | 11.4 | 10.9 | 16.9 | 18.7 | 27.2 | 37.2 | 13.0 | 16.9 | 30.7 | 39.5 |
| | 30-34세 | 7.9 | 8.0 | 4.8 | 10.2 | 29.2 | 55.8 | 5.3 | 11.6 | 28.4 | 54.6 |
| | 35-36세 | 7.0 | 3.2 | 9.7 | 11.5 | 28.5 | 50.3 | 7.8 | 13.5 | 28.0 | 50.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3.2 | 15.9 | 39.7 | 21.9 | 20.5 | 17.8 | 37.2 | 23.8 | 19.1 | 19.9 |
| | 전문대 졸업 | 12.0 | 9.9 | 10.6 | 17.0 | 26.5 | 46.0 | 8.5 | 15.3 | 30.7 | 45.5 |
| | 대학교 졸업 | 8.9 | 7.6 | 7.8 | 11.9 | 28.3 | 52.0 | 7.5 | 11.7 | 30.3 | 50.5 |
| | 대학원 졸업 | 5.7 | 5.5 | 7.8 | 13.9 | 32.6 | 45.7 | 6.7 | 12.7 | 32.8 | 47.8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9.0 | 9.4 | 11.7 | 14.2 | 27.6 | 46.6 | 11.7 | 12.5 | 28.9 | 46.9 |
| | 무자녀 부부가구 | 7.1 | 4.0 | 4.3 | 8.1 | 26.0 | 61.6 | 1.4 | 11.0 | 32.7 | 54.9 |
| | 유자녀 부부가구 | 1.6 | 4.4 | 7.1 | 8.1 | 32.9 | 51.9 | 7.0 | 11.0 | 26.1 | 55.9 |
| | 부모동거 가구 | 12.9 | 12.5 | 26.6 | 19.2 | 23.4 | 30.9 | 23.4 | 19.9 | 24.9 | 31.8 |
| | 기타 가구 | 10.4 | 12.1 | 16.9 | 15.8 | 30.0 | 37.3 | 16.8 | 15.8 | 28.7 | 38.8 |

주: 1) [실업 청년 수 / 경제활동 청년(취업 청년 + 실업 청년)] * 100

2) 매우 불안정은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모두 불안정을 의미

3) 불안정은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중 2개 불안정을 의미

4) 다소 불안정은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 중 1개 불안정을 의미

5) 불안정하지 않음은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가 모두 안정적인을 의미

6) 2021년은 취업자 2,533명, 2022년은 취업자 2,5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

- [표 5-3-5]는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망 부재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 부재 비율은 모두 1차 조사(2021년) 대비 개선되었음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고립 비율은 1차 조사(2021년) 대비 감소하였고, 사회적 관계망 부재 비율의 경우 여성은 작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음
- 연령별 사회적 고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부재 지표는 30-34세 청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 조사(2021년) 대비 감소함. 즉 1차 조사(2021) 대비 개선되었음
- 학력별로 사회적 고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개선되었으며, 사회적 관계망 부재 지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은 작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전문대 졸업, 대학원 졸업 청년들은 1차 조사(2021년)보다 악화하였음
- 가구유형별 사회적 고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개선되었고, 사회적 관계망 부재 지표의 경우 1인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개선됨
- 경제활동상태별 사회적 고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개선되었고, 사회적 관계망 부재 지표의 경우 실업을 제외하고 1차 조사(2021년) 대비 개선되었음

[표 5-3-12]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 지표

[단위: %]

| 구분 | | | 사회적 고립 ¹⁾ | | 사회적 관계망 부재 ²⁾ |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 전체(n=3,762) | | | 6.3 | 3.6 | 37.1 | 35.5 |
| 성별 | 남성 | | 6.9 | 3.9 | 39.2 | 35.7 |
| | 여성 | | 5.8 | 3.2 | 35.1 | 35.3 |
| 연령 | 19~24세 | | 6.6 | 4.2 | 32.0 | 27.8 |
| | 25~29세 | | 6.8 | 3.0 | 36.7 | 35.1 |
| | 30~34세 | | 6.0 | 3.6 | 40.8 | 41.1 |
| | 35~36세 | | 4.0 | 4.0 | 42.4 | 41.7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8.1 | 5.8 | 37.8 | 35.7 |
| | 전문대 졸업 | | 6.6 | 1.7 | 43.3 | 45.8 |
| | 대학교 졸업 | | 5.1 | 2.5 | 34.9 | 32.0 |
| | 대학원 졸업 | | 2.5 | 1.4 | 33.4 | 37.0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5.2 | 3.3 | 37.2 | 37.7 |
| | 무자녀 부부가구 | | 4.9 | 1.8 | 38.6 | 34.3 |
| | 유자녀 부부가구 | | 7.3 | 4.0 | 39.5 | 39.1 |
| | 부모동거 가구 | | 7.0 | 3.9 | 36.7 | 33.9 |
| | 기타 가구 | | 7.9 | 3.4 | 36.4 | 34.0 |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4.6 | 2.0 | 37.1 | 36.1 |
| | | 실업 | 10.8 | 7.3 | 40.1 | 40.5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1 | 5.3 | 28.8 | 24.6 |
| | | 비재학 미취업 | 11.2 | 6.8 | 40.2 | 35.6 |

주: 1) 최근 한 달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를 의미

2)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의미

5) 주거

- [표 5-3-6]은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비적정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비적정 주거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은 1차 조사(2021년)에 비해 모두 악화되었음
- 성별로 주거 지표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비적정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표를 악화되었음
- 모든 연령대에서 비적정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표 악화되었음
- 가구유형별 주거 지표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 유자녀 부부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표 비율이 1차 조사(2021년) 대비 2차 조사(2022년)에서 매우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주거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재학 중인 청년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표 비율의 증가 폭이 매우 높았음

[표 5-3-13] 주거 지표

[단위: %]

| 구분 | | | 비적정 주거 ¹⁾ | | 최저주거기준 미달 ²⁾ | | 월소득 대비 임대료 ³⁾ (25% 초과) |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 전체 | | | 7.0 | 7.4 | 8.7 | 10.1 | 34.0 | 41.5 |
| 성별 | 남성 | | 7.8 | 8.8 | 9.3 | 10.6 | 33.0 | 39.9 |
| | 여성 | | 6.3 | 6.1 | 8.3 | 9.6 | 34.9 | 43.0 |
| 연령 | 19~24세 | | 6.5 | 7.5 | 9.8 | 12.2 | 37.7 | 50.2 |
| | 25~29세 | | 8.1 | 8.2 | 10.3 | 11.0 | 34.4 | 40.8 |
| | 30~34세 | | 6.3 | 6.7 | 6.3 | 7.2 | 31.7 | 38.1 |
| | 35~36세 | | 5.7 | 5.9 | 7.4 | 11.4 | 33.4 | 39.1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8.2 | 9.9 | 10.3 | 13.0 | 35.9 | 44.3 |
| | 전문대 졸업 | | 8.2 | 7.6 | 10.0 | 11.0 | 30.9 | 37.3 |
| | 대학교 졸업 | | 5.6 | 5.4 | 7.3 | 8.2 | 32.3 | 41.2 |
| | 대학원 졸업 | | 5.5 | 5.5 | 5.1 | 3.1 | 42.8 | 39.5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11.1 | 11.6 | 5.3 | 4.8 | 30.5 | 45.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2.7 | 4.4 | 2.1 | 2.5 | 32.0 | 40.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4.5 | 4.3 | 14.0 | 18.4 | 42.8 | 52.0 |
| | 부모동거 가구 | | 4.6 | 5.0 | 10.6 | 13.2 | 38.1 | 34.0 |
| | 기타 가구 | | 10.0 | 8.8 | 15.9 | 15.2 | 40.3 | 35.8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6.8 | 7.4 | 7.8 | 9.5 | 31.3 | 37.4 |
| | | 실업 | 7.2 | 8.3 | 10.5 | 8.8 | 33.8 | 48.1 |
| | 비경제활동 | 재학 | 6.1 | 4.7 | 9.6 | 9.8 | 42.9 | 61.2 |
| | | 비재학 미취업 | 8.1 | 8.2 | 11.2 | 12.9 | 43.1 | 49.0 |

주: 1) 비주택(고시원, 컨테이너 건물 등) 및 지하층, 옥탑 거주

2) 동거가구원 수 대비 방,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미달

3)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월소득 25% 초과한 경우이며, 전월세 전환율은 각 차수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음(1차 조사 4.8%, 2차 조사 4.9%). 분석 대상은 1차 조사(2021년) 와 2차 조사(2022년)에 모두 응답한 2,069명임

6) 건강

- [표 5-3-7]은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 우울, 의료 미충족 경험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성별로 건강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생각, 의료 미충족 경험 비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했지만, 우울의 경우 남성은 오히려 1차 조사(2021년) 대비 증가하였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자살 생각, 의료 미충족 경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19-24세, 35-36세 청년의 우울은 작년 대비 증가하였음
- 학력별 자살 생각 지표는 작년 대비 모두 감소했지만, 우울은 집단별 다소 상이함. 의료 미충족 경험 지표는 대학원 졸업 청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줌
- 가구유형별 자살 생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 1차 조사(2021년) 대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부모동거 가구의 경우 작년 대비 우울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 자살 생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의 1차 조사(2021년) 대비 감소 폭이 큼. 우울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취업, 실업, 재학, 비재학 미취업 청년들은 작년 대비 우울 값이 완화된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업, 비재학 미취업 청년의 우울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임

[표 5-3-14] 건강 지표

[단위: %]

| 구분 | | | 자살 생각 ¹⁾ | | 우울 ²⁾ | | 의료 미충족 경험 ³⁾ |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 전체(n=3,762) | | | 15.4 | 13.1 | 34.6 | 34.2 | 7.9 | 7.4 |
| 성별 | 남성 | | 11.3 | 9.0 | 30.4 | 31.5 | 6.0 | 5.9 |
| | 여성 | | 19.3 | 17.0 | 38.6 | 36.9 | 9.6 | 8.9 |
| 연령 | 19-24세 | | 14.3 | 11.5 | 31.9 | 34.2 | 6.8 | 6.1 |
| | 25-29세 | | 15.1 | 13.1 | 35.0 | 34.1 | 8.4 | 7.8 |
| | 30-34세 | | 16.3 | 14.4 | 36.1 | 33.9 | 8.1 | 8.0 |
| | 35-36세 | | 16.7 | 12.5 | 36.5 | 37.3 | 8.1 | 8.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15.6 | 12.2 | 33.8 | 35.4 | 9.0 | 8.8 |
| | 전문대 졸업 | | 18.2 | 15.7 | 41.6 | 38.6 | 8.2 | 7.8 |
| | 대학교 졸업 | | 14.6 | 13.4 | 33.7 | 31.7 | 7.2 | 6.4 |
| | 대학원 졸업 | | 13.1 | 10.5 | 30.6 | 35.7 | 4.2 | 4.7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15.7 | 14.1 | 36.8 | 35.2 | 10.8 | 10.0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4.1 | 10.4 | 33.3 | 24.2 | 8.4 | 6.0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2.3 | 13.2 | 31.6 | 30.9 | 7.1 | 5.8 |
| | 부모동거 가구 | | 15.3 | 12.8 | 33.2 | 35.7 | 5.9 | 5.6 |
| | 기타 가구 | | 17.4 | 12.8 | 37.8 | 30.9 | 8.0 | 10.1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14.8 | 12.7 | 32.9 | 32.9 | 8.2 | 7.1 |
| | | 실업 | 21.6 | 14.2 | 44.5 | 38.9 | 10.8 | 13.5 |
| | 비경제활동 | 재학 | 8.4 | 8.3 | 23.5 | 23.4 | 3.4 | 2.9 |
| | | 비재학 미취업 | 18.5 | 15.7 | 42.8 | 41.1 | 7.8 | 7.9 |

주: 1)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

2) CES-D 11 척도를 활용하여 점수가 16점 이상일 때 우울 증상으로 간주

3) 경제적이유나 인프라부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7) 복지

- [표 5-3-8]은 서울청년패널 원표본을 대상으로 식생활 결핍, 주관적 만족도, 긍정적 미래 전망 지표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별로 분석한 결과임
- 식생활 결핍 지표는 1차 조사(2021년) 대비 2차 조사(2022년)에서 개선되었지만, 주관적 만족도와 긍정적 미래 전망 지표는 1차 조사(2021년) 대비 악화되었음
- 성별로 복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결핍 지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개선되었음. 반면 주관적 만족도 지표, 긍정적 미래 전망 지표는 두 성별 모두 악화되었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식생활 결핍 지표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주관적 만족도, 긍정적 미래 전망 지표는 1차 조사(2021년) 대비 2차 조사(2022년)에서 악화되었음. 특히, 긍정적 미래 전망 지표의 경우 감소 폭이 큼
- 1인가구, 기타 가구는 식생활 결핍 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높아 취약성이 드러남
- 경제활동상태별 주관적 만족도를 보면, 1차 조사 대비(2021년) 주관적 만족도, 긍정적 미래 전망 비율이 감소했음. 특히 실업과 비재학 미취업 청년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긍정적 미래 전망 비율이 매우 낮았음

[표 5-3-15] 복지 지표

[단위: %]

| 구분 | | | 식생활 결핍 ¹⁾ | | 주관적 만족도 ²⁾ | | 긍정적 미래 전망 ³⁾ | |
|----------------|------------|---------|----------------------|------------------|-----------------------|------------------|-------------------------|------------------|
| | |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1차 조사 (2021년) | 2차 조사 (2022년) |
| 전체(n=3,762) | | | 22.9 | 21.6 | 47.9 | 45.5 | 37.9 | 29.0 |
| 성별 | 남성 | | 20.8 | 18.9 | 48.2 | 45.3 | 36.9 | 29.7 |
| | 여성 | | 24.9 | 24.1 | 47.7 | 45.7 | 38.8 | 28.5 |
| 연령 | 19~24세 | | 18.8 | 18.2 | 56.4 | 54.1 | 40.5 | 30.6 |
| | 25~29세 | | 25.3 | 23.2 | 46.1 | 42.3 | 35.1 | 27.3 |
| | 30~34세 | | 23.5 | 22.5 | 43.4 | 42.4 | 38.1 | 28.9 |
| | 35~36세 | | 22.6 | 20.7 | 47.6 | 45.4 | 43.9 | 35.4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2.2 | 21.2 | 51.0 | 46.4 | 38.0 | 29.6 |
| | 전문대 졸업 | | 26.2 | 24.2 | 37.0 | 36.8 | 35.6 | 24.2 |
| | 대학교 졸업 | | 22.4 | 21.5 | 47.7 | 47.4 | 38.2 | 29.2 |
| | 대학원 졸업 | | 24.6 | 18.3 | 53.7 | 45.5 | 40.3 | 36.3 |
| 가구유형 | 1인가구 | | 34.4 | 32.1 | 44.6 | 42.1 | 36.8 | 27.5 |
| | 무자녀 부부가구 | | 17.6 | 15.5 | 58.3 | 57.0 | 43.1 | 31.1 |
| | 유자녀 부부가구 | | 19.2 | 17.0 | 51.8 | 53.0 | 41.2 | 35.5 |
| | 부모동거 가구 | | 15.1 | 14.0 | 49.5 | 45.7 | 37.9 | 29.5 |
| | 기타 가구 | | 32.3 | 31.8 | 40.5 | 44.9 | 36.3 | 27.0 |
| 경제 활동 상태 | 경제활동 | 취업 | 22.2 | 20.4 | 49.3 | 47.9 | 37.7 | 29.0 |
| | | 실업 | 33.4 | 30.8 | 35.8 | 31.6 | 36.8 | 28.0 |
| | 비경제활동 | 재학 | 15.3 | 15.7 | 64.9 | 60.3 | 40.5 | 33.6 |
| | | 비재학 미취업 | 25.3 | 24.0 | 39.1 | 37.3 | 37.7 | 28.0 |

주: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어려움을 자주+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

2)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인 경우를 의미

3) 우리나라 미래 기대 정도에 대해 약간 좋아질 것+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

참고문헌

- 김태완·한수진·이주미, 2022, 「202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금선·이혜림, 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이경희·민인식, 2015, “패널조사 응답 지속성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KLI 패널 워킹페이퍼」, (2)2: 1-18.
- 이상호·이혜정, 2017,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패널이탈 분석 - 비단조 이탈을 중심으로 -”, 「1-19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천영민·조아름, 2017, “개인 성격이 패널 이탈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20(3): 179-206.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유저가이드」.

부록

1_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표(원표본)

※ 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원표본)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 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사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사항 | | | |
|---------|---|---------|--|
| 집계구 번호 | | 집계구 자치구 | |
| 응답자 번호 | | 패널 구분 | 1. 기존 2. 신규 |
| 응답자 성별 | 1. 남자 2. 여자 | 응답자 생년월 | <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 년 <div> <div></div><div></div> </div> 월 |
| 응답자 연락처 | <div> <div></div><div></div><div></div> </div> - <div>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 - <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 | | |

| 조사 주관기관 | 조사 수행기관 |
|--|---|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Hankook Research |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서울시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2020년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들의 기본배경, 교육,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경험과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니 연구 참여 동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연구목적** : 서울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참여대상** : 이 연구의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5세 청년입니다.
3. **연구 참여 절차** : 조사원에게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신 분 중 조사대상자 확인(거주지역, 나이 등) 절차를 거쳐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웹조사 링크를 발송합니다. 참여대상자는 발송된 웹조사 링크에 접속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참여 기간** : 본조사는 패널조사로 매년 1회(본조사)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5년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조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조사 참여로 부담하셔야 하는 금전적 비용은 없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조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지 정보 등입니다. 이 정보는 조사 참여자 선별 및 설문지 발송, 사은품 및 사례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져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귀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철회 및 중단 보장** : 귀하께서 희망 시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참여 중단을 희망하시면, 연구책임자나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이 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리서치 서울청년패널조사팀 : 전화 02-3014-1025 / 이메일 kimjy@hrc.co.kr
 -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조사팀 : 전화 02-2149-1249 / 이메일 sypanel@si.re.kr

I. 교육·훈련

A. 학교교육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A1 - A1-5는 지난 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 상태(A1_1)가 1. 재학, 3. 중퇴, 4. 휴학, 5. 다닌 적 없음 이고 검정고시로 졸업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분(A1_4 = 2. 아니오)만 응답해 주십시오.】

A1.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항목이 있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 | 변경 1 | 변경 안 됨 2 |
|--|---------|-------------|
| 1. 고등학교 재학 상태 [제시 : 지난 고등학교 재학 상태] | | |
| 2. 고등학교 유형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고등학교 유형] | | |
| 3. 최종으로 다닌 고등학교의 입학년도 [제시 : 지난 조사 최종으로 다닌 고 등학교의 입학년도] | | |

A1-1-1.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현재 재학 중이다
- 2. 졸업하였다
- 3. 중퇴하였다
- 4. 현재 휴학 중이다
- 9. 변경 사항 없음

A1-2-1.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고등학교 유형]

- 1. 일반계고/인문계고(종합고 인문계 포함)
- 2. 특목고(과학고, 외고)
- 3.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 4. 마이스터고교
- 5. 특성화고(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가사/해양전문계, 종합고(전문계) 등)
- 6. 예술·체육고교
- 7. 기타(대안학교, 해외고교, 방송통신고)
- 9. 변경 사항 없음

A1-3-1.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최종으로 다닌 고등학교의 입학년도]

1. ()년
9. 변경 사항 없음

A1-3-2. 귀하는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휴학/중퇴하셨습니까?

1. ()년
9. 변경 사항 없음

A1-4. 귀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하였습니까?

1. 예 → A1-5
2. 아니오

A1-5. 귀하는 언제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획득하였습니까?

1. ()년

【A2~A2-2-5는 지난 조사에서 대학 재학 상태(A2_1)가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유예, 4. 중퇴 상태라고 대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A2. 지난 조사 당시 귀하의 최종 대학(대학원 제외) 경험에 대해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 편입이나 신규 입학 등 새로 다닌 대학(대학원 제외)은 제외하고, 기존 학교에서 재학 상태나 학교명, 전공 등이 변경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대학 이름 | 2) 전공 이름 | 3) 재학 상태 |
|-----------------|-----------------|-----------------|
| [제시 : 지난 대학 이름] | [제시 : 지난 전공 이름] | [제시 : 지난 재학 상태] |

1. 재학 상태 변경

➡ A2-1
2. 대학 이름과 전공 등 학교정보 변경(편입이나 신규 입학은 제외)

➡ A2-2-1
3. 재학 상태와 학교정보 둘 다 변경

➡ A2-1
9. 변경 사항 없음

➡ 재학/휴학/졸업유예 시 A3-2,
중퇴 시 A2-3

A2-1. 현재 재학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대학 재학 상태]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
4. 중퇴
5. 졸업
9. 변경 사항 없음

A2-2-1.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학교 유형]

1. 일반 4년제 대학
2. 2-3년제 대학
3. 산업 대학
4. 교육 대학
5. 방송통신 대학
6. 사이버(디지털) 대학
7. 기능 대학(폴리텍)
8. 기타 ()
9. 변경 사항 없음

A2-2-2.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하단 [학교 검색]란에서 학교명을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상단에 학교코드 및 학교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 [학교 검색]에 본인의 대학교 정보가 없을 경우 '기타'를 검색 후 선택하시고, 상단 기타 칸에 대학교명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대학 이름]

1.()

A2-2-3.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전공명]

1.() 학과 / 학부

9. 변경 사항 없음

A2-2-4.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전공계열]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3. 자연계열
4. 공학계열
5. 의/약학계열
6. 교육계열
7. 예체능계열
8.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경찰대
9. 기타 ()
99. 변경 사항 없음

A2-2-5. 지난 조사 이후 변경된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시 : 지난 조사 당시 학교 소재지]

1. 서울특별시
2. 강원도
3. 경기도
4. 경상남도
5. 경상북도
6. 광주광역시
7. 대구광역시
8. 대전광역시
9. 부산광역시
10. 세종특별자치시
11. 울산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14. 전라북도
15. 제주도
16. 충청남도

- 17. 충청북도
- 18. 기타
- 99. 변경 사항 없음

【A2-3 - A2-3-6은 지난 조사에서 대학 재학 상태(A2_1)가 4. 중퇴, 5. 졸업, 99. 미진학 상태이거나 A2-1에서 현재 재학 상태가 4.중퇴 OR 5.졸업 이라고 대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A2-3. 지난 조사 당시 귀하의 최종 대학(대학원 제외) 경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하신(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이 있으십니까?

| 1) 대학 이름 | 2) 재학 상태 |
|-----------------|-----------------|
| [제시 : 지난 대학 이름] | [제시 : 지난 재학 상태] |

1. 새로 진학한 대학(대학원 제외)이 있다

➡ A2-3-1
2. 새로 진학한 대학(대학원 제외)이 없다

➡ A3

A2-3-1. 현재 재학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

4. 중퇴

5. 졸업

9. 새로 진학한 대학(대학원 제외)이 없다
- ➡ A3

A2-3-2.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한(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의 학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1. 일반 4년제 대학

2. 2-3년제 대학

3. 산업 대학

4. 교육 대학

5. 방송통신 대학

6. 사이버(디지털) 대학

7. 기능 대학(폴리텍)

8. 기타 ()

A2-3-3.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한(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의 대학 이름은 무엇입니까?

※ 검색 시 본인의 대학교 정보가 없을 경우 '기타'를 검색 및 선택하시고 대학교명을 적어주세요.

1. ()대학(교)

A2-3-4.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한(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의 전공 이름은 무엇입니까?

1. ()학과(학부)

A2-3-5.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한(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의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3. 자연계열
4. 공학계열
5. 의/약학계열
6. 교육계열
7. 예체능계열
8.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경찰대
9. 기타 ()

A2-3-6.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한(편입 및 재입학 포함) 대학(대학원 제외)의 학교 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강원도
3. 경기도
4. 경상남도
5. 경상북도
6. 광주광역시
7. 대구광역시
8. 대전광역시
9. 부산광역시
10. 세종특별자치시
11. 울산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14. 전라북도
15. 제주도
16. 충청남도
17. 충청북도
18. 기타

【A3은 지난 조사에서 대학원 재학 상태(A3_1)가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 4. 중퇴라고 대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A3. 지난 조사 당시 귀하의 대학원 경험에 대해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조사 이후 재학 상태가 변경되었습니까?

| 1) 대학원 과정 | 2) 재학 상태 |
|------------------|-----------------|
| [제시 : 지난 대학원 과정] | [제시 : 지난 재학 상태] |

1. 재학 상태 변경 ➡ A3-1
2. 재학 상태 변경 안 됨 ➡ A3-2

A3-1. 현재 재학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수료)
4. 중퇴
5. 졸업

A3-2.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진학하신 대학원이 있습니까?

1. 새로 진학한 대학원이 있다 ➡ A3-2-1
2. 새로 진학한 대학원이 없다 ➡ B1

A3-2-1. 그렇다면, 귀하가 다닌 대학원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석사과정
2. 박사과정
3. 학·석사연계과정
4. 석·박사통합과정

A3-2-2. 귀하의 현재 대학원 과정 재학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수료)
4. 중퇴
5. 졸업

A3-2-3. 대학원에 진학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학문(전공 심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2.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 졸업할 당시 취업이 어려워서
4. 학교 교수님의 권유로
5. 부모님의 권유로
6. 선배, 동기, 친구들의 권유로
7. 기타 ()

B. 직업 훈련 · 교육

다음은 취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B1. 지난 조사 후 귀하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2.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3.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자격증 취득 포함)
4.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5.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6. SNS, 블로그 등 인맥관리
7.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8. 봉사활동 경험
9.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10. 기타()
11. 준비 안 함

B2. 귀하가 생각하기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2.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3.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4.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5.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마련
6. 구직 준비를 위한 탐색 비용 및 구직기간 비용지원
7. 좋은 일자리 창출
8. 공공 일자리 확대
9. 기타()

B3. 지난 조사 이후 귀하가 취업 또는 창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2. 공공기관(서울시, 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4. 부모님이나 친인척
5. 친구, 선후배
6. 기타()
7. 도움받은 경험 없음

B4. 지난 조사 이후 귀하는 취득하신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등),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 등이 있으십니까? 일반 운전면허(2종 보통)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있다 ➔ B4-1
2. 없다 ➔ B5

B4-1. 지난 조사 이후 귀하가 취득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입니까?

1. ()개

《자격증 예시》

| 자격증 유형 | 예시 |
|--------------------------------------|---|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접,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보일러, 금속, 정보통신,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광학, 로봇,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철도, 조선,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타워크레인설치·해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이공계열▶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조리, 제과, 제빵, 미용사, 이용사, 보석감정, 보석가공, 보석디자인산업, 세탁, 잠수, 식육가공, 떡제조기능사, 농작업안전보건, 방재기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한글 속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화기사, 전자상거래 등▶ 비서 등 전문사무 영역의 자격증은 1급일 경우 산업기사에, 2급, 3급일 경우 기능사에 해당됨. |
| 국가전문자격증 | 교사,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약사, 영양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법무사, 한약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경매사, 관세사, 보세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기관사, 운항사, 항해사, 경영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소방시설관리사, 생활체육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가맹거래사, 검량사, 검수사, 경비지도사, 국내여행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손해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
|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 비공인 포함) | 정보검색사, TEPS, 한자능력급수, 번역사 1,2,3급, 증권분석사, 1종 투자 상담사, 정보검색사 1,2,3급, 사회보험관리사 1,2,3급, 웹프로그래머 1,2,3급, PC정비사1,2급, 인터넷 정보검색사 1,2급, 무역영어, 증권분석사, 댄스스포츠지도사, 매경TEST,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AT자격시험(FAT, TAT), 리눅스마스터, 행정관리사(1,2,3급), CS LEADERS관리사, FLEX(외국어), SQL(전문가, 개발자), SMAT서비스경영자격, 정보기술자격(ITQ), 병원행정사, GTQ, 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 데이터분석(전문가, 준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종이접기마스터, 삽마스터, 주거복지사 등 |
| 국제(외국)자격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능력시험(JLPT), TOEIC, TOEFL, 중국어 능력시험(HSK), 미국공인회계사(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선물중개인(AP) 등 |

B5. 귀하는 지난 조사 이후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준비 :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 경험을 의미하며, 공단(공사) 직원의 내부 진급을 위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음

1. 있다
2. 없다

다음은 진로와 직업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분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6. 귀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 1. 진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 2.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물색 중이다(적성·강점 파악)
- 3.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중이다(정보검색, 진로상담·컨설팅)
- 4.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원수강, 스터디참여, 시험준비, 포트폴리오 구축, 입사 지원, 창업 준비, 지인추천/소개)
- 5.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 6. 내가 원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B7. 다음의 항목들이 귀하가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항목이 도움이 된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험 여부 | | 도움 정도 | | | | |
|----------------------|-------|----|-------------------|-------------|------|-----------|-----------------|
| | 있다 | 없다 |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도움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 2 | 1 | 2 | 3 | 4 | 5 |
| (1) 전공지식(대학 경험) | | | | | | | |
|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 | | | | | | |
|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 | | | | | | |
| (4) 취업/창업 상담 및 컨설팅 | | | | | | | |
| (5) 자격증 취득 | | | | | | | |

II. 일자리 공통

C. 일자리 경험 및 인식

다음은 귀하의 지난주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 학생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 활동, 프리랜서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즉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1. 일을 하였음 | ➡ C3 |
| 2. 휴가 및 일시 휴직 | ➡ C2 |
| 3. 일을 하지 않았음 | ➡ C2 |

C2.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시적인 병 혹은 사고 때문에
2. 휴가·연가 등의 사용으로
3. 진학 준비 중 혹은 정규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어서
4. 집안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5.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휴업하여서
6. 일자리가 없어서(구직준비 중, 구직활동 중)
7.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8. 날씨가 좋지 않아서
9. 사업이 부진하여서
10. 기타()

[종사 직업 분류표]

| 구분 | 설명 | 예시 |
|----------------------|---|--|
| 1. 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 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 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기관 부서장, 정부지방서기관장, 경리부서장, CFO, 재무부서장, 예산팀장 등 담당업무 부서의 실장, 부서장, 금융 관련 지점장 관리자, 연구관리자, 유치원 원장 등 ※ 직업군인 중 소대장 등은 '10. 직업군인'임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시험원, 학원 강사, 시스템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시스템 웹 운영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 항공기 및 선박 기관사 및 관계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등), 변호사, 판검사, 법리사, 교사, 공공행정 전문가, 자산운용가, 손해보험 사정사, 기자, 디자이너 등 |
| 3. 사무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 (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회계, 금융, 법률, 감사, 상담, 안내, 통계 등 사무원, 사무보조원 |
| 4. 서비스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 관련 서비스, 돌봄 및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이·미용, 혼례·장례 등 개인 생활서비스, 운송 및 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소방, 돌봄(요양보호사, 보육 및 교사 보조직), 마용, 혼례 및 장례종사자, 항공기, 열차 등 승무원, 호텔 및 오락시설 등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등 여가 서비스 종사원 등 |
| 5. 판매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직, 매장 판매직, 상품대여,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 축산, 원예, 임업, 어업 관련 숙련직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공, 섬유, 의복, 금속, 목재, 가구, 악기, 정보통신, 건설, 운송, 기계, 금속 성형 등 관련해 특정 기능원 (재단사, 제빵사, 정육가공원, 수선사, 전기통신 수리원, 장도차 정비원 등) |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공, 섬유, 화학, 금속, 기계제조, 전기 및 전자, 운전, 상하수, 목재, 인쇄 등 관련 기계를 직접 조작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직 ※ 배달을 위한 차량운전 포함(배달원은 단순노무) |
| 9. 단순노무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 및 적재, 배달원,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정리, 전단지 배포, 주유원 등 |
| 10. 직업군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복무를 제외한 직업 군인만을 의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군인 |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 당시 응답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재직 중이었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C3. 지난 조사 당시 귀하께서 재직 중인 일자리는 총 0개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재직 중인(하고 있는) 일자리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일자리 시작 시기 | 고용 형태 | 직종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월평균 근로 소득 |
|-------|--------------|-------|----|----------------|--------------|
| 일자리 A | | | | | |
| 일자리 B | | | | | |
| 일자리 C | | | | | |

- 1. 일자리 A에 현재 재직 중
- 2. 일자리 B에 현재 재직 중
- 3. 일자리 C에 현재 재직 중
- 4. 제시된 일자리 중 재직 중인 일자리 없음

【C3에서 일자리 A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C3-1. 그만두신 경우, 일자리 종료 시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 | 일자리 시작 시기 | 고용 형태 | 직종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월평균 근로 소득 |
|-------|--------------|-------|----|----------------|--------------|
| 일자리 A | | | | | |

1. 일자리 A 종료시기 ()년 ()월

C3-1-1.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A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항목별로 변경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변경 1 | 변경안됨 2 |
|--|---------|-----------|
| 1) 고용형태 [제시 : 지난 고용형태] | | |
| 2) 직종 [제시 : 지난 직종] | | |
| 3)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제시 : 지난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 | |
| 4) 월평균 근로 소득(세후) [제시 : 지난 월평균 근로 소득] 만 원 | | |

C3-1-2.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상용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3.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4.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
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8. 무급가족종사자
99. 변경 사항 없음

C3-1-3. 현재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직업군인
11. 기타 ()
99. 변경 사항 없음

C3-1-4. 현재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현재 일주일 평균 () 시간 근로
2. 현재 일주일 평균 () 일 근로

C3-1-5. 현재 귀하의 평균 근로 소득(세후)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현재 급여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 선택한 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일급으로 받음 ➡ 세후 1일 평균 () 만 원
2. 주급으로 받음 ➡ 세후 1주일 평균 () 만 원
3. 월급으로 받음 ➡ 세후 1개월 평균 () 만 원

【C3에서 일자리 B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C3-2. 그만두신 경우, 일자리 종료 시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자리 B 종료시기 ()년 ()월

C3-2-1.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B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항목별로 변경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변경 | 변경안됨 |
|--|----|------|
| | 1 | 2 |
| 1) 고용형태 [제시 : 지난 고용형태] | | |
| 2) 직종 [제시 : 지난 직종] | | |
| 3)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제시 : 지난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 | |
| 4) 월평균 근로 소득(세후) [제시 : 지난 월평균 근로 소득] 만 원 | | |

C3-2-2.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상용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3.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4.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쿠팡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
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8. 무급가족종사자
99. 변경 사항 없음

C3-2-3. 현재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직업군인
11. 기타 ()
99. 변경 사항 없음

C3-2-4. 현재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현재 일주일 평균 () 시간 근로
2. 현재 일주일 평균 () 일 근로

C3-2-5. 현재 귀하의 평균 근로 소득(세후)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현재 급여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 선택한 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일급으로 받음 ➡ 세후 1일 평균 () 만 원
2. 주급으로 받음 ➡ 세후 1주일 평균 () 만 원
3. 월급으로 받음 ➡ 세후 1개월 평균 () 만 원

【C3에서 일자리 C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C3-3. 그만두신 경우, 일자리 종료 시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자리 C 종료시기 ()년 ()월

C3-3-1.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C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항목별로 변경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변경 | 변경안됨 |
|--|----|------|
| | 1 | 2 |
| 1) 고용형태 [제시 : 지난 고용형태] | | |
| 2) 직종 [제시 : 지난 직종] | | |
| 3)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제시 : 지난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 | |
| 4) 월평균 근로 소득(세후) [제시 : 지난 월평균 근로 소득] 만 원 | | |

C3-3-2.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상용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3.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4.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쿠팡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
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8. 무급가족종사자
99. 변경 사항 없음

C3-3-3. 현재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직업군인
11. 기타 ()
99. 변경 사항 없음

C3-3-4. 현재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현재 일주일 평균 () 시간 근로
2. 현재 일주일 평균 () 일 근로

C3-3-5. 현재 귀하의 평균 근로 소득(세후)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현재 급여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 선택한 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일급으로 받음 ➡ 세후 1일 평균 () 만 원
2. 주급으로 받음 ➡ 세후 1주일 평균 () 만 원
3. 월급으로 받음 ➡ 세후 1개월 평균 () 만 원

다음은 귀하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C3-4.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셨습니다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한 경험한 일자리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예 ➡ ()개 ➡ C3-4-1
 - 2. 아니오 ➡ C4

C3-4-1. 지난 조사 이후 경험한 새로운 일자리의 시작시기와 종료시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는 ‘현재 재직중’을 체크해주시십시오.

| | 일자리 시작 시기 | 일자리 종료 시기 | 현재 재직 여부 |
|---|-------------------|----------------------------------|----------|
| 1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 2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C3-4-2. 지난 조사 이후 경험한 새로운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C3-4-2. 고용형태 |
|---------------------|--|
| |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상용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3.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4.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 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8. 무급가족종사자 |
| 1. 0000.0-0000.0일자리 | |
| 2. 0000.0-0000.0일자리 | |

C3-4-3. 지난 조사 이후 경험한 새로운 일자리의 직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C3-4-3. 직종 |
|---------------------|---|
|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직업군인 11. 기타 () |
| 1. 0000.0-0000.0일자리 | |
| 2. 0000.0-0000.0일자리 | |

C3-4-4. 지난 조사 이후 경험한 새로운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일주일 평균 () 시간 근로
2. 일주일 평균 () 일 근로

C3-4-5. 현재 귀하의 평균 근로 소득(세후)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현재 급여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 선택한 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일급으로 받음 ➡ 세후 1일 평균 () 만 원
2. 주급으로 받음 ➡ 세후 1주일 평균 () 만 원
3. 월급으로 받음 ➡ 세후 1개월 평균 () 만 원

[C4는 C3-1 or C3-2 or C3-3에서 그만둔 일자리가 있거나 또는 C3-4-1에서 그만둔 일자리 있는 응답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그만두신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C4. 귀하가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는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까?

※ 고용계약의 종료, 업체의 폐업, 해고 등은 '2. 아니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2. 아니오

C4-1. 그 일을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2. 정리해고로 인해(권고사직)
3. 명예퇴직(희망퇴직)
4. 계약기간이 끝나서
5. 원하는 근로조건과 맞지 않아서
6.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7. 일이 임시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8.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9.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10. 건강 등의 이유로
11.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2.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13. 이직 혹은 이직 준비를 위해
14.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등 공부를 위해
15. 기타()

C4-2. 그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2.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3.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4.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5.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6.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7.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8. 기타()
9. 특별히 없었음

C4-3. 귀하는 그 일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 C5
2. 아니오 ➡ C4-4

C4-4.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격조건(가입기간 등)이 미달되어서
4.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5.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6.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7. 기타()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C5. 귀하께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

- 1.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 1.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 2.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 3.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 4.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 5.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 6. 적성에 맞는 일자리
- 7.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 8.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 9. 기타()

C6. 귀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예 ➔ C6-1
- 2. 아니오 ➔ C7

C6-1. 비정규직이어도 취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

- 1. 단기간만 일하기를 위해서
- 2.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 3. 많은 임금을 보장해서
- 4.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 5.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 6.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 7. (일자리가 없는)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 8.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서
- 9. 일의 성격상 비정규직이어도 무방해서
- 10. 기타()

C7. 최근 청년들이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할 때 아래 제시된 항목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1 | 2 | 3 | 4 | 5 |
|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 | | | |
|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 | | | |
|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 | | | |
| (4) 경험이 부족하다 | | | | | |
|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 | | | |
|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 | | | |
| (7) 나이 제한이 있다 | | | | | |

Ⅲ. 취업자

D-1. 주된 일자리

D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1개 이상이라면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봅니다.

- 1. 0000년 0월 시작, 00직종, 세후 소득 0000원
- 2. 0000년 0월 시작, 00직종, 세후 소득 0000원
- 3. 0000년 0월 시작, 00직종, 세후 소득 0000원

다음은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1개 이상이라면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봅니다.

D1-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산업에 해당합니까?

- ※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회사가 하는 일(산업)**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세부 산업에 대한 분류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농업, 임업 및 어업
- 2. 광업
- 3. 제조업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6. 건설업
- 7. 도매 및 소매업
- 8. 운수 및 창고업
- 9. 숙박 및 음식점업
- 10. 정보통신업
- 11. 금융 및 보험업
- 12. 부동산업
-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 교육서비스업
-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21. 국제 및 외국기관

[중사 산업 분류표]

| 중사산업 중분류 | | |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7.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임업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어업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2.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8. 운수 및 창고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금속 광업 | | 수상 운송업 |
|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 항공 운송업 |
|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3.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9.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
| | 음료 제조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 | 담배 제조업 | 10. 정보통신업 | 출판업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방송업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우편 및 통신업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정보서비스업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보험 및 연금업 |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 부동산업 | 부동산업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연구개발업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 | 1차 금속 제조업 |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전기장비 제조업 |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교육 서비스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6.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 | 가구 제조업 | | 보건업 |
| | 기타 제품 제조업 |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협회 및 단체 |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수도업 |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6.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21. 국제 및 외국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
| | 전문직별 공사업 | | |

D2.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사업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회사
3. 공공기관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법인단체
5. 정부부처(공무원(예: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군인)
6. 사회적 기업
7.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8. 기타()

D3.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 종사자 수의 기준은 종사하는 일자리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 수를 말합니다(예. OO은행의 ◇◇지점일 경우 종사자 수를 지점 기준이 아닌 은행 전체 종사자 수로 작성).
-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룹의 △△자동차에 다니는 경우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 수로 작성).
-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급여(임금)를 받는 가족이나 친지도 종사자 수에 포함되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단,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제외).
-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자의 경우 파견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의 종사자 수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파견업체에서 ▽▽업체로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업체 기준으로 작성)
-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300명 이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1-4명
2. 5-299명
3. 300명 이상
4. 잘 모르겠다

D4. 귀하가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평소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사도우미, 입주도우미, 입주 과외선생님, 택시기사 등은 일거리가 있는 장소(방문 서비스 등)에 해당,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은 특정한 장소가 없는 업무(배달, 택배 등)에 해당됩니다.

- | | |
|----------------------------|--------|
| 1. 자택 | ➡ D5 |
| 2. 사업장 내 | ➡ D4-1 |
| 3. 일거리가 있는 장소(방문 서비스 등) | ➡ D5 |
| 4. 특정한 장소가 없는 업무(배달, 택배 등) | ➡ D5 |
| 5. 장소제약이 없음 | ➡ D5 |
| 6. 기타() | ➡ D5 |

D4-1. 이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 일하는 곳이 여러 지역인 경우 가장 주된 근무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택근무의 경우 평소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
2. 경기

- 3. 인천
- 4. 기타()

D4-2. 귀하가 집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왕복)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1. () 시간 () 분

D5. 귀하는 주된 일자리에 고용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D6.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직무 수준 및 전공 일치도는 어떠합니까?

| | 낮다 (불일치 한다) | 유사하다 (어느 정도 일치한다) | 높다 (일치 한다) |
|-----------------------------|----------------|-------------------------|---------------|
| | 1 | 2 | 3 |
| (1) 나의 교육 수준보다 현재 일자리 직무수준이 | | | |
| (2) 나의 기술수준보다 현재 일자리 직무수준이 | | | |
| (3) 나의 전공분야와 현재 일자리의 직무가 | | | |

D7. 귀하는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불만족한다 |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1 | 2 | 3 | 4 | 5 |

D8-D9. 귀하가 주된 일자리를 통해 희망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D8. 본인이 원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 : 약 ()만 원

D9.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D10. 귀하는 현재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2. 없음'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직장 내 괴롭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부여, 타인의 일 전가, 고함 및 모욕적인 발언, 물리적 폭력,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집단 따돌림,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성적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직원의 권리(휴가사용, 복지혜택 등)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 위험한 근로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한 근로 환경에는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 | 있음 | 없음 | 비해당 |
|---|----|----|-----|
| | 1 | 2 | 9 |
| (1) 직장 내 괴롭힘 | | | |
| (2)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 | | | |
| (3) 직장 내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손님, 거래처 직원, 고객 등)으로부터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 | | |

다음은 취업자의 전체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귀하가 현재(조사 시점)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 중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핸드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플랫폼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 ※ 회사에 소속되어 과업을 배정받기 위해 앱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플랫폼의 예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숨고, 크몽, 라우드 소싱, 오투잡 등이 있습니다. 음식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체 라이더, 대리운전앱을 통한 대리운전, 재능공유앱 등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의뢰, 유튜브 편집자 등이 해당됩니다.

- 1. 있다
- 2. 없다

【다음의 D12-D13은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응답해주시요.】

D12. 귀하가 현재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요.

| 1순위 | 2순위 |
|-----|-----|
|-----|-----|

- 1.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 2.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3.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 4. 원하는 일자리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려고
- 5. 이직을 위해 사전에 다른 일 경험을 쌓기 위해서
- 6.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 7.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일할 수 있어서
- 8. 기타()

D13.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전체 일자리)을 통해 희망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귀하의 주된 일과 그 외의 다른일의 합산 소득과 합산 노동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 1. 본인이 원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 : 약 ()만 원
- 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다음의 D14-D14-2는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의 총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응답해주시요.】

D14. 귀하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 2. 건강문제(일시적 병, 사고)
- 3. 날씨가 좋지 않아서
- 4. 휴가·연가, 공휴일
- 5. 교육·훈련 참여
- 6. 육아
- 7. 가족적 이유(육아 외 가족 돌봄 등)
- 8. 노사분규
- 9.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10. 사업부진, 조업중단
- 11. 기타()

D14-1. 귀하는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근로시간 연장) ➡ D14-2
-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 D14-2
- 3.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 D14-2
-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D15

D14-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D15. 귀하는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1. 예 ➡ D15-1
- 2. 아니오 ➡ D16

D15-1. 귀하는 향후 그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직업이 희망 직업인 경우에는 '5.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2 | 3 | 4 | 5 |

D-2. 구직/이직/창업

【다음의 D16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자영업이 아닌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상용 임금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3.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4.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5.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응답해주십시오.】

D16. 현재 하고 계시는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구직활동** : 취업을 위해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에 응시, 신문, 잡지, 인터넷, 휴대폰 어플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사업체에 찾아가 면담한다든지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 지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D17. 귀하는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음 ➡ D17-1
2. 창업할 의향이 있음 ➡ D18
3. 이직 및 창업의향 없음 ➡ D18

D17-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2. 개인발전/승진
3.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4.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6.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7. 개인 사업을 위해서
8. 건강상의 이유로
9.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10. 기타()

D17-2. 언제쯤 이직할 계획이십니까?

1. 3개월 이내
2.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3. 6개월 이상 - 1년 이내
4. 1년 이후
5. 모르겠다

D18. 현재(조사 시점)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귀하는 취업을 위해 이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직장 이직활동을 한 적이 있음 ➡ D18-1
2.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음 ➡ G1
3. 이직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한 적 없음 ➡ G1

D18-1. 귀하는 새로운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
|-----|--|-----|--|

- 1.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 2. 교사, 교수를 통해
- 3.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
- 4.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 8.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9.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10. 기타()

Ⅳ. 미취업자

E-1. 미취업자 - 취업준비

E1.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일자리(창업 준비도 포함)를 구해 보았습니까?

- ※ **일자리**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직장, 아르바이트 등) 내 사업(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을 하거나,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함
- ※ **구직활동** :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당 기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면접, 전화상담,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직장훈련 등이 해당

1. 일자리를 구해보았다 ➡ E2
2.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다 ➡ E1-1

E1-1. 지난 4주 내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 등)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요.

| 1순위 | | 2순위 | |
|-----|--|-----|--|
|-----|--|-----|--|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12.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7. 기타()

E2. 귀하는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일할 수 있었다 ➡ E3
2. 일할 수 없었다 ➡ E2-1

E2-1.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2. 입시학원,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3.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중이어서
4. 학원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준비 중이어서
5.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육아)
6. 가사일 때문에
7. 건강문제로
8. 당분간 쉬고 싶어서
9. 기타()

E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 또는 “개인적 사유” 중 더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1. 사회 전반적 문제
2. 개인적 사유

E4. 귀하는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1. 예 ➡ E4-1
2. 아니오 ➡ E5

E4-1. 귀하는 향후 그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2.미취업자 – 구직/창업

E5. 귀하는 앞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 **구직활동** :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 의미
- ※ **창업을 위한 활동** : 창업 정보 수집, 창업을 위한 교육 수강, 투자자금 확보 등 창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의미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E6. 귀하는 현재(조사 시점)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직장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음 ➡ E6-1-E6-3
2.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음 ➡ G1
3.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한 적 없음 ➡ G1

E6-1. 귀하가 현재(조사 시점)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E6-2. 귀하는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2. 교사, 교수를 통해
3.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
4.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7.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8.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9.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0. 기타()

E6-3. 귀하가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찾고 있는(또는 찾았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에 해당됩니다.

1. 생활비를 벌기 위해
2.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3.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4. 자신의 발전을 위해
5.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6.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7. 기타()

E7.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2.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3.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4.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5. 구직기간 비용지원
6. 기타()

VI. 경제(소득, 소비, 재산, 부채)

G. 경제(소득, 소비, 재산, 부채)

다음은 귀하의 지난해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G1. 2021년 1년 동안 다음 항목별로 본인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소득 제외)

※ 세후 실수령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받는 금액)

※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 소득 유형 | | 소득 금액 |
|--|--|------------------|
| 1. 근로소득 | | 세후 월평균()만 원 |
| 2. 사업소득 | | 세후 월평균()만 원 |
| ※ 사업경역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사무실(상가)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 | |
| 3. 재산 소득 | 3-1.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매매차익,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받는 이자) 등이 포함 | 세후 월평균()만 원 |
| | 3-2. 임대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임대료에 따른 임대수입에서 부동산 유지·관리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세후 월평균()만 원 |
| | 3-3. 기타 ※ 자격증 대여,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 세후 월평균()만 원 |
| 4. 가상자산소득 |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 예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e) 등 | 세후 월평균()만 원 |
| 5. 사회보험 급여나 정부보조금 등 공적 이전 소득 | ※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등)에서 받은 급여가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금, 아동수당, 한부모양육지원금 등 각종 현금수당 | 세후 월평균()만 원 |
| 6. 사적 이전 소득 | ※ 부모, 형제, 자매,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의 현금 및 현물소득 | 세후 월평균()만 원 |
| 7.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 | | 세후 월평균()만 원 |
| 합계 | | 세후 월평균 _____ 만 원 |

G2.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본인 포함) 전체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가구원**이란 같이 살면서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는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가구원에 해당하며, 떨어져 살고 있지만 본인의 생계를 위해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주는 부모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도 가구원입니다.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친구/자매/형제 등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 :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가상자산소득,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 등 사적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후 월평균 ()만 원

G3.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G4.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각각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어설명〉
※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추가된 제도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 | 4,000만 원 | |
| | 재산 | 2억 원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 | 수혜 여부 | | 금 액 |
|----------|-------|--------|------------------|
| | 받았다 | 받지 않았다 | |
| | 1 | 2 | |
| 1. 근로장려금 | | | 2021년 총액 () 만 원 |
| 2. 자녀장려금 | | | 2021년 총액 () 만 원 |

G6-1.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이므로, (4),(5)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 | |
|--------|--|
| 국민건강보험 | · 전국민 대상의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의미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민간건강보험(예. 실손형 의료보험, 상해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
| 국민연금 | · 대상 : 직장(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납부예외기간인 경우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1. 가입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역연금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산재보험 | ·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가입여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직장가입 | 직장가입 피부양자 | 지역가입 | 미가입 | 모름 |
|------------|------|--------------|------|-----|----|
| (1) 국민건강보험 | 1 | 2 | 3 | 4 | 5 |

G6-2 - G6-5.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가입 | 미가입 | 모름 |
|----------------------------------|-----------|-----|----|
| | 1 | 2 | 3 |
| (2) 국민연금 | ➡ (4)고용보험 | | |
| (3)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만 해당) | ➡ G7 | | |
| (4) 고용보험 | | | |
| (5) 산재보험 | | | |

G7. 귀하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1인 적정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적정생활비 총액 월평균 () 만 원

다음은 귀하의 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G8. 현재 기준 다음의 항목별 귀하의 재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유의 사항〉

- ※ 없음은 반드시 '0'으로 표시합니다.
- ※ 재산은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 예컨대,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산 경우, 비록 본인의 집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합니다.
- ※ 공동명의로는 50%로 가정해 응답합니다.

| 자산 유형 | 자산 금액 |
|--|---------------|
| 1. 소유부동산 ※ 1. 주택 2. 주택 외 건물 3. 토지 4. 분양권 등 | ____억 ____만 원 |
| 2.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총액 ※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을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전세금, 가게나 사무실을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____억 ____만 원 |
| 3. 금융자산 ※ 1. 예금 2. 적금 3. 주식·채권·펀드 4. 아직 타지 않은 껏돈 5. 기타 (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 등) | ____억 ____만 원 |
| 4. 가상화폐 ※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전자거래가 가능한 증표를 의미합니다. 예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D) 등 | ____억 ____만 원 |
| 5. 기타() | ____억 ____만 원 |
| 합 계 | ____억 ____만 원 |

G8-1. 현재 기준 귀하의 본인 명의의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의 사항〉

- ※ 없음은 반드시 '0'으로 표시합니다.

1. 본인 명의 소유 자동차 대수 총() 대

G9. 귀하께서 하고 계신 재테크 수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예금 및 적금
- 2. 저축성 보험
- 3. 부동산 투자
- 4. 주식/펀드
- 5. 가상화폐
- 6. 기타()
- 7. 재테크 안 함 → G9-2

G9-1. 귀하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 2. 생활비 마련
- 3. 결혼 준비
- 4. 주택 마련
- 5.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 6. 노후 대비를 위해
- 7.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 8.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 9. 기타()

G9-2. 귀하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재테크할 여유 자금이 없어서
- 2. 재테크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 3.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서
- 4. 재테크 방법과 정보 등을 몰라서
- 5. 재테크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6. 기타()

G10. 귀하는 재테크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다 |
| 1 | 2 | 3 | 4 | 9 |

다음은 귀하의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G11. 현재 기준 귀하의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 ※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이나 학자금 대출은 포함하고, 사업용으로 빌린 돈은 제외합니다.
- ※ 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일반사채 및 기타 부채를 모두 포함
- 금융기관 대출 :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캐피탈, 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과 마이너스통장 등
 - 카드빚 :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카드 할부금,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등
 - 일반사채 :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친인척, 지인 등에게 빌린 돈 등
- ※ 명의를 기준으로 응답
- 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본인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가정

| 부채 유형 | G11-1. 부채 유무 | | G11-2. 부채 금액 |
|---|---------------------------------|----|---------------|
| | 있다 | 없다 | |
| | 1. | 2. | |
| 1. 주택 관련 부채(주택구입비, 보증금, 임대료, 주택 증개축 비용, 전세자금 대출 등) ※ 주택 관련 부채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 됩니다. | <div>→</div> <div>G11-2-1</div> | | ()억 ()만 원 |
| 2. 일반부채 ※ 주택 관련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div>→</div> <div>G11-2-2</div> | | ()억 ()만 원 |
| 합계 | | | ____억 ____만 원 |

G11-3. 일반부채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주택 관련 부채를 제외한 일반부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학자금 마련
- 2.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 3.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 4. 창업자금 마련
- 5. 채무상환
- 6. 기타()

G12. 귀하께서는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매우 부담됨 | 다소 부담됨 | 보통 | 별로 부담되지 않음 | 전혀 부담되지 않음 |
|--------|--------|----|------------|------------|
| 1 | 2 | 3 | 4 | 5 |

VII. 주거

H. 이사 경험 및 계획

다음은 귀하의 이사 경험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H1. 지난 조사 이후 이사(또는 독립)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 I1
- 2. 아니오 ➡ H1-1

H1-1. 지난 조사 이후 (등기상) 점유형태가 변경되었습니까?

[제시 : 지난조사 (등기상) 점유형태]

- 1. 변경됨 ➡ H1-1-1
- 2. 변경 안 됨 ➡ H1-2

H1-1-1. 현재 (등기상)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제시 : 지난조사 (등기상) 점유형태]

- 1. 자가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4. 보증금 없는 월세
- 5. 사글세 또는 연세
- 6. 일세
- 7. 무상
- 8. 기타()
- 9. 변경 사항 없음

H1-2. 지난 조사 이후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습니까?

[제시 : 지난조사 계약당사자]

- 1. 변경됨 ➡ H1-2-1
- 2. 변경 안 됨 ➡ I6

H1-2-1. 현재 계약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제시 : 지난조사 계약당사자]

- 1. 부모
- 2. 본인
- 3. 배우자
- 4. 친인척
- 5. 기타()
- 9. 변경 사항 없음 ➡ I6

[11 - 15는 이사(또는 독립)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 현재 거주지

다음은 귀하의 주거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단독주택
2. 다가구단독주택
3. 영업 겸용단독주택
4. 아파트(5층 이상)
5. 연립주택(4층 이하)
6. 다세대주택
7.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8. 오피스텔
9. 고시원
10.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11. 기숙사
12. 기타()

1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의 제일 위층(예: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탑이 아닌 3. 지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층이나 반지층
2. 지상
3. 옥탑

13.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체면적(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제곱미터(㎡) 중 알고 계시는 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주택의 면적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세준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작성 시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

| 평 | 1 | 5 | 7 | 10 | 15 | 17 | 20 | 23 | 25 | 27 | 29 | 32 |
|---------|-----|------|------|-----|-----|-----|-----|-----|-----|-----|-----|-----|
| 제곱미터(㎡) | 3.3 | 16.5 | 23.1 | 33 | 50 | 56 | 66 | 76 | 83 | 89 | 96 | 106 |
| 평 | 35 | 37 | 40 | 42 | 45 | 47 | 50 | 55 | 60 | 65 | 70 | 75 |
| 제곱미터(㎡) | 116 | 122 | 132 | 139 | 149 | 155 | 165 | 182 | 198 | 215 | 231 | 248 |

1. () 평
2. () ㎡

I3-1. 귀택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 1. 원룸형 ➡ I4
- 2. 원룸형 아님 ➡ I3-2

I3-2. 그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용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 거실, 식당 용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의 일부를 세 준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서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방 () 개
- (2) 거실(대청마루 포함) () 개
- (3) 화장실 () 개

I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가’에 해당됩니다.

- 1. 자가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4. 보증금 없는 월세
- 5. 사글세 또는 연세
- 6. 일세
- 7. 무상
- 8. 기타()

I4-1.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명의 혹은 (전·월세 등)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1. 부모
- 2. 본인
- 3. 배우자
- 4. 친인척
- 5. 기타()

I5. 귀하는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까?

※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을 때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정정 한 것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이사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음

- 1. 전입신고만 하였다
- 2.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다
- 3.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았다
- 4. 둘 다 하지 않았다
- 5. 모르겠다

16.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가격 혹은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한 월세'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세의 경우, 한 달 분(하루 방세×30일)으로 환산하여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 비용을 '보증금 없는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I6-1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1.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현재 주택가격은 얼마입니까?

1. () 만 원

【I6-2는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2.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 및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가 없는 경우, 0원을 입력해 주십시오.

1. 전세 보증금 () 만 원
2. 관리비 월평균 () 만 원

【I6-3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혹은 보증금 없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3.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는 얼마 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한 월세'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 비용을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1. 보증금 () 만 원
2. 월세 월 평균 () 만 원
3. 관리비 월 평균 () 만 원

【I6-4는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세의 경우, 한 달 분(하루 방세×30일)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세 또는 일세 월 평균 () 만 원

【I7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7. 귀하는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등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까?

※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비용을 마련한 경우 1순위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내가 번 돈
- 2.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음
- 3.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4. 정부의 대출(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자금대출)

- 5. 서울시 대출(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차지원 등)
- 6. 민간금융기관(회사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 7. 사채
- 8. 기타()
- 9. 모름

18.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불량 | 조금 불량 | 보통 | 조금 양호 | 매우 양호 |
|--|----------|----------|----|----------|----------|
| | 1 | 2 | 3 | 4 | 5 |
| (1) 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상태),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 | | | | |
| (2)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곰팡이나 습기 상태) | | | | | |
| (3) 채광 상태 | | | | | |
| (4) 냉방 상태(에어컨이나 냉방 시설 유무) | | | | | |
| (5)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 외부소음, 층간소음) | | | | | |
| (6)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 | | | | |
| (7) 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예방 전기시설, 화재대피시설 유무) | | | | | |
| (8) 주택 방범상태(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 | | | | |
| (9) 주택 위생 상태(악취, 벌레 등) | | | | | |

19. 귀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거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불안감을 더 크게 경험한 사유를 순서대로 2개 응답해주시요.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순위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2순위 |
|-----|-----|
|-----|-----|

1.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2.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3.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취약계층, 유아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4.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5.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6.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위험)
7.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8. 보증금 반환 위험
9.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10. 해당 없음

110. 귀하는 2023년에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예 → I10-1
2. 아니오 → J1
3. 잘 모르겠다 → J1

I10-1. 귀하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의 교육, 보육 환경을 위해서
2.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부모님의 이사, 부모님 부양 등)
3.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취·창업 준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등)
4.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직장 등 통근 편의, 집의 크기 확장, 환경 및 건강, 편의시설 등)
5.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결혼으로 인한 신혼집 마련, 독립 등)
6.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비 부담, 평수를 줄이는 등)
7. 내 집을 마련하여서
8. 주거지원을 받게 되어서
9. 기타()

VII. 삶의 여건과 인식

J. 삶의 여건과 인식

다음은 귀하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경험이나 느낌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J1. 귀하는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 비해당 |
|---|----|----|-----|
| | 1 | 2 | 3 |
| (1)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대학등록금 포함)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본인이나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경우 '3. 비해당'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2)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 | |
| (3)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의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 ※ 2021년 이전에 신용유의자가 되어 2021년에도 신용유의자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1.있다'에, 2021년 이전에는 신용유의자였지만 2021년에는 신용유의자가 아닌 경우 '2.없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와 관련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을 지불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 (5)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J2. 귀하는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름/거부 |
|---|--------|--------|-----------|-------|
| | 1 | 2 | 3 | 4 |
| (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 | | | |
| (2)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을 할 수 없었다 | | | | |

J3.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까?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부모에게 빌리거나 무상으로 지원받음
- 2.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 3.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 4.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등 이용)
- 5.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및 사채 이용
- 6.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 해약
- 7. 부동산매각,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 8.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파생금융상품(CD, MMF등) 포함)
- 9.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 10. 기타()
- 11. 해결하지 못함

J4.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귀하의 생활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식비
- 2. 의료비
- 3. 공교육비
- 4.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 5.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6.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 7. 교통비(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유지비용)
- 8. 경조사비
- 9.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 10.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 11. 가족이나 친지 보조(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12. 문화사교비
- 13. 기타()
- 14.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J5.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
|-----------------------|---|---|---|---|----------|---|---|---|---|----------------|
|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 | | | | 보통 이다 | | | | | 매우 만족 한다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illegible]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J7. 귀하는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예
2. 아니오 → J8

J7-1.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취업실패
2.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3. 대인관계의 어려움
4. 학업중단 혹은 진학 실패
5. 실직
6. 부모나 다른 가족과의 갈등
7. 임신, 육아, 출산 등
8.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9. 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10. 기타()

J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 | 있다 | 없다 |
|--|----|----|
| | 1 | 2 |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 |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 |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 |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 |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 |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 |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 |

J9.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런 편이다 | 항상 그렇다 |
|--|-----------------|-----------------|-----------------|-----------|
| | 1 | 2 | 3 | 4 |
| (1) 나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 | | | | |
| (2)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 | | | |
| (3)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 | | | |
| (4)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 | | | | |
| (5) 나는 친구들 안에 속해 있다 | | | | |
| (6) 나는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 | | | |
| (7) 나는 더 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
| (8) 나의 관심사와 의견이 주위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한다 | | | | |
| (9) 나는 주위사람에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간다 | | | | |
| (10) 나는 주위사람들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 | | | |
| (11)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 | | |
| (12)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13)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1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15) 내가 원할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 | | | |
| (16)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 | | | |
| (17) 나는 수줍음을 잘 탄다 | | | | |
| (18) 내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19)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 | | |
| (20)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다 | | | | |

J9-1. 귀하께서 방금 응답하신 문항은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개발한 외로움 평가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한 한국형 UCLA 외로움 척도 평가 지표 (Korean-UCLA Loneliness scale)입니다. 귀하의 외로움 정도를 알고 싶으시면 ‘결과 확인’을, 알고 싶지 않으시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결과확인 ➡ J9-2
- 2. 다음문항으로 이동 ➡ J10

J9-2. 귀하의 결과는 [제시 : J9 응답 결과 합산]점 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J10.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J11. 귀하는 현재(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J11-1
2.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다 ➡ J12
3.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 J12
4.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J12
5. 기타() ➡ J12

J11-1.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요.

| 1순위 | 2순위 |
|-----|-----|
|-----|-----|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4.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5.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6. 기타()

J12.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
|----------------------------|--------------------------|--------------------------|--------------------------|---------------------------|
| | 1 | 2 | 3 | 4 |
|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 | | |
| (2) 비교적 잘 지냈다 | | | | |
| (3) 상당히 우울했다 | | | | |
|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 | | |
|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 | | |
|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 | | |
| (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 | | | |
|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 | | |
| (9) 마음이 슬펐다 | | | | |
|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 | | |
|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 | | |

J1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1. 예 → J13-1
- 2. 아니오 → J14

J1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 이유 때문에(사업이나 투자실패, 실직, 생활고 등)
- 2.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 3.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 4.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의 갈등이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 5. 진로나 직장 문제 때문에(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취업 실패 등)
- 6. 기타()

J14.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그냥 참는다
- 2.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 3. 심리상담을 받는다
- 4. 수면을 취한다
- 5.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 6. 과식/폭식/미식 또는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
- 7. 가족과의 교류(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8. 기타 지인과의 교류(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9.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 10.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 11. 종교활동을 한다
- 12. 기타 ()
- 1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귀하의 사회에 관한 인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J15.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 지않는 다 | 별로 동의하 지않는 다 | 보통 이다 | 어느 정도 동의한 다 | 매우 동의한 다 |
|--|-----------------------|-----------------------|----------|----------------------|----------------|
| | 1 | 2 | 3 | 4 | 5 |
| (1)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 | | | | |
| (2)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 | | | | |
| (3)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 | | | | |
| (4)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 | | | | |
| (5)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 | | | | |

J1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1 | 2 | 3 | 4 | 5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 | |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 | | |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 |

J17.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하 | | | | | | | | | 최상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J18. 현재와 비교하여 30년 후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약간 나빠질 것이다 |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약간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 1 | 2 | 3 | 4 | 5 |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N1. 귀하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다?

| | | | | | | | | | | |
|---------------------------|---|---|---|---|----------|---|---|---|---|-------------------------|
| 전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 | | | 보통 이다 | | | | | 완전히 일상을 회복 하였다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N1-1. 귀하는 언제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1. 1년 미만
- 2. 1년 이상 2년 미만
- 3. 2년 이상 3년 미만
- 4. 3년 이상 4년 미만
- 5. 4년 이상 5년 미만
- 6. 5년 이후

N1-2. 귀하가 생각하기에 아래 항목 중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소득활동
- 2. 소비활동
- 3. 신체 및 정신 건강
- 4. 여가생활(여행, 문화생활 등)
- 5. 가족관계
- 6. 사회적 관계
- 7. 교육참여
- 8. 생활환경
- 9. 종교활동
- 10. 해당없음(모두 회복될 것)

X. 가구배경

L. 가구 배경

L1.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의 가구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명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할머니’ ➡ 2명 입력

형제 1명, 자매 1명과 살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 2명 입력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기타’ 선택 후 관계를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할아버지 ➡ ()명
- 4. 할머니 ➡ ()명
- 5. 형제, 자매 ➡ ()명
- 6. 배우자(사실혼 포함)
- 7. 자녀 ➡ ()명
- 8. 친인척 ➡ ()명
- 9. 친구 ➡ ()명
- 10. 기타 () ➡ ()명
- 11. 없다 (1인가구)

L1-1.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취업/학업 때문에 같이 살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있다 ➡ l1-2
- 2. 없다 ➡ l1-3

L1-2.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항목의 가구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명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할머니’ ➡ 2명 입력

형제 1명, 자매 1명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 2명 입력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기타’ 선택 후 관계를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할아버지 ➡ ()명
- 4. 할머니 ➡ ()명
- 5. 형제, 자매 ➡ ()명
- 6. 배우자(사실혼 포함)
- 7. 자녀 ➡ ()명
- 8. 친인척 ➡ ()명
- 9. 기타 () ➡ ()명
- 8. 친인척 ➡ ()명
- 9. 기타 () ➡ ()명

L1-3. 귀댁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주십시오
예) 외할아버지, 첫째 형

1.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2.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L1-4. 가구구성원의 취업 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구성원 정보 | 취업 | 미취업 | 비해당 |
|------------------------------|----|-----|-----|
| | 1 | 2 | 9 |
| 1.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 |
| 2.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 |

L2.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박사) | 잘 모르겠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1. 아버지 | | | | | | | | |
| 2. 어머니 | | | | | | | | |

L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혼모 포함)
▪ 미혼 유배우 : 법적으로 혼인하지는 않았지만 동거인이나 동반자가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 포함)
▪ 기혼 유배우 : 법적으로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별 :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별거 :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

1. 미혼 ➡ L3-1
2. 미혼 유배우(사실혼 등) ➡ L3-1
3. 기혼 유배우(법적 혼인) ➡ L3-3
4. 사별 ➡ L3-1
5. 이혼 ➡ L3-1
6. 별거 ➡ L4

L3-1. 앞으로 결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 L3-3
2. 아니오 ➡ L3-2
3. 모르겠다 ➡ L3-3

L3-2.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독신생활이 좋아서
2. 학업 때문에
3.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4.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L3-3.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1. 학교 안 다님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2-3년제 대학 졸업
6. 4년제 대학 졸업
7.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8. 잘 모르겠음

L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L4-1
2. 없다 ➡ L4-3

L4-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명

L4-2. 자녀의 출생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년
2. ()년

L4-3. 앞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L4-4
2. 없다 ➡ L5

L4-4.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가지실 계획이십니까?

1. ()명

L5. 귀하는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 L5-3
2. 아니오 ➡ L5-1

L5-1. 귀하는 언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셨습니다?

1. ()년부터

L5-2. 귀하가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
2. 양육자와의 불화
3. 양육자 안 계심(사망)
4. 결혼 후 분가
5. 기타() ➡ L6

L5-3. 언제쯤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인 독립하실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만약, 6개월 후로 예상하신다면 0.5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향후 () 년 후
- 2. 잘 모르겠다

L6. 귀하의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예 ➡ L6-1
- 2. 아니오 ➡ L6-3

L6-1.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 2. 양육자가 독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3. 학교, 직장 등의 통근 문제가 없기 때문에
- 4. 외로움에 대한 걱정 때문에
- 5. 자녀 양육 및 가사 문제 때문에
- 6. 독립계획이 없어서
- 7. 건강상의 이유로
- 8. 기타()

L6-2. 언제쯤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만약, 6개월 후로 예상하신다면 0.5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향후 ()년 후
- 2. 독립 의향 없음 ➡ L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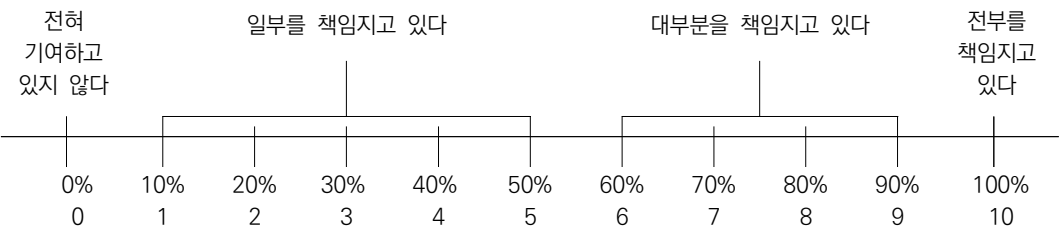
L6-3. 언제부터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으셨습니까?

- 1. ()년부터

L6-4.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업 또는 진로준비
- 2. 취업
- 3. 결혼 후 분가
- 4. 양육자와의 불화
- 5.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 6. 양육자 안 계심(사망)
- 7. 기타()

L7. 귀하는 가구의 생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L8.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십니까?

- ※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목욕이나 식사 돕기, 병원 모시고 가기,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보기, 말동무하기 등이 모두 돌봄에 해당합니다.
- ※ 혼자 돌보는 것, 다른 가족과 함께 돌보는 것 모두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 L8-1
2. 아니오 → M1

L8-1. 귀하께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정기적(규칙적)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L8-2. 귀하께서 돌보시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돌보고 있는 가족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머니
2. 아버지
3. 형제자매
4. 할머니
5. 할아버지
6. 기타 다른 친척

L8-3. 귀하께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1. 직접 돌봄 제공 (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 목욕, 식사 돕기, 병원 동행 등)
2. 생계를 책임짐 (예.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등 마련 또는 식비, 주거비, 생활비 마련 등)
3. 둘 다 제공

L8-4. 귀하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매우 어렵다 | 어려운 편이다 | 보통이다 | 별로 어렵지 않다 | 전혀 어렵지 않다 |
|--------|---------|------|-----------|-----------|
| 1 | 2 | 3 | 4 | 5 |

M. 기본정보

다음은 귀하의 성장배경 및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M1. 현재 귀하의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의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 | | | | | | | | 최상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M2. 귀하는 진단받은 장애가 있으십니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미등록장애 등

- 1. 있음
- 2. 없음

M2-1. 귀하의 가구원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 1. 있음
- 2. 없음

IX. 정책 경험과 평가

K. 정책 경험과 평가

K1-1. 다음은 서울시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 | 안다 | 모른다 |
|---------|------|---|----|-----|
| | | | 1 | 2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ships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참 여 공 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K1-2는 K1-1에서 인지 여부에 ‘① 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1-2. 현재(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있다 | 없다 |
|---------|------|---|----|----|
| | | | 1 | 2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참 여 공 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K1-3은 K1-2에서 이용 여부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1-3. 이용해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 1 | 2 | 3 | 4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 청년 일자리 | |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 | |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
| 참여·공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 |

K1-4. 향후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 | 있다 | 없다 |
|-------|------|---|----|----|
| | | | 1 | 2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참여·공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K2-1. 다음은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 안다 1 | 모른다 2 |
|-----|--|---------|----------|
|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희망이음 등 정부일자리 사업 | | |
| (2)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 | |
| (3)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 정책 | | |
| (4) |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주택자금 대출(주택금융) 지원 정책 | | |
| (5)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 |
|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 |

【K2-3은 K2-2에서 이용 여부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2-2. 현재(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1 | 없다 2 |
|-----|--|---------|---------|
|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희망이음 등 정부일자리 사업 | | |
| (2)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 | |
| (3)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 정책 | | |
| (4) |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주택자금 대출(주택금융) 지원 정책 | | |
| (5)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 |
|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 |

【K2-2는 K2-1에서 인지 여부에 ‘① 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2-3. 이용해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1 | 2 | 3 | 4 |
|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희망이음 등 정부일자리사업 | | | | |
| (2)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
| (3)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 정책 | | | | |
| (4) |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주택자금 대출(주택금융) 지원 정책 | | | | |
| (5)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 | | |
|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 | | |

K3. 귀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소득 지원(현금, 물품지원)
- 2. 자산 형성 지원
- 3. 공공일자리 제공
- 4. 고용(취·창업)지원
- 5.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6.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 7.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 8. 토래모임 지원
- 9. 시민교육
- 10.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 11. 부채경감 지원
- 12.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13. 주거 지원
- 14. 기타()

조사 후 기록표

조사담당자

|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

응답자 정보

| | |
|---------|--|
| 응답자 성명 | |
| 응답자 연락처 | <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

조사 정보

| | | | |
|---------|--|--------|--|
| 조사일시 | 2022년 <div></div> <div></div> 월 <div></div> <div></div> 일 | 유치일 | 2022년 <div></div> <div></div> 월 <div></div> <div></div> 일 |
| 최종완료일 | 2022년 <div></div> <div></div> 월 <div></div> <div></div> 일 | 방문 횟수 | 총 <div></div> <div></div> 회 |
| 조사 요일 | <div>① 평일</div> <div>② 주말·공휴일</div> | 조사 시간대 | <div>① 9시 - 12시 이전</div> <div>② 12시 - 15시 이전</div> <div>③ 15시 - 18시 이전</div> <div>④ 18시 - 21시 이전</div> <div>⑤ 21시 이후</div> |
| 조사 소요시간 | <div>총</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분</div> | | |

2_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표(신규표본)

※ 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신규표본)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 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사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사항 | | | |
|---------|--|---------|---|
| 집계구 번호 | | 집계구 자치구 | |
| 응답자 번호 | | 패널 구분 | 1. 기존 2. 신규 |
| 응답자 성별 | 1. 남자 2. 여자 | 응답자 생년월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
| | |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
| 응답자 연락처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조사 주관기관 | 조사 수행기관 |
|--|---|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Hankook Research |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서울시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2020년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들의 기본배경, 교육,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경험과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니 연구 참여 동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연구목적** : 서울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참여대상** : 이 연구의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입니다.
3. **연구 참여 절차** : 조사원에게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신 분 중 조사대상자 확인(거주지역, 나이 등) 절차를 거쳐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웹조사 링크를 발송합니다. 참여대상자는 발송된 웹조사 링크에 접속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참여 기간** : 본조사는 패널조사로 매년 1회(본조사)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5년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조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조사 참여로 부담하셔야 하는 금전적 비용은 없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조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지 정보 등입니다. 이 정보는 조사 참여자 선별 및 설문지 발송, 사은품 및 사례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져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귀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철회 및 중단 보장** : 귀하께서 희망 시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참여 중단을 희망하시면, 연구책임자나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이 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리서치 서울청년패널조사팀 : 전화 02-3014-1025 / 이메일 kimjy@hrc.co.kr
 -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조사팀 : 전화 02-2149-1249 / 이메일 sypanel@si.re.kr

I. 교육·훈련

A. 학교교육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A1 ~ A1-5는 지난 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 상태(A1_1)가 1. 재학, 3. 중퇴, 4. 휴학, 5. 다닌 적 없음이고 검정고시로 졸업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분(A1_4 = 2. 아니오)만 응답해 주십시오.】

A1. 귀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 1. 현재 재학 중이다
- 2. 졸업하였다
- 3. 중퇴하였다
- 4. 현재 휴학 중이다
- 5. 다닌 적이 없다 ➡ A1-4

A1-1. 귀하가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일반계고/인문계고(종합고 인문계 포함)
- 2. 특목고(과학고, 외고)
- 3.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 4. 마이스터고교
- 5. 특성화고(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가사/해양전문계, 종합고(전문계) 등)
- 6. 예술·체육고교
- 7. 기타(대안학교, 해외고교, 방송통신고)

A1-2. 귀하는 고등학교에 언제 입학하셨습니다까?

- 1. ()년

A1-3. 귀하는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휴학/중퇴 하셨습니다까?

- 1. ()년 ➡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답 후 A2

A1-4. 귀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까?

- 1. 예
- 2. 아니오 ➡ A4

A1-5. 귀하는 언제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까?

- 1. ()년

A2. 귀하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B1

A2-1. 귀하는 몇 개의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 대학원이나 교환학생, 단기연수는 제외하고, 대학(학부)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개

A2-2. 귀하가 경험한 대학(교)명과 전공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학교 검색]란에서 학교명을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상단에 학교코드 및 학교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학교 검색]에 본인의 대학교 정보가 없을 경우 '기타'를 검색 후 선택하시고, 상단 기타 칸에 대학교명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 | 대학 이름 | 전공이름 |
|---|---------------------|----------------------|
| 1 | ()대학(교) | ()학과(학부) |
| 2 | ()대학(교) | ()학과(학부) |
| 3 | ()대학(교) | ()학과(학부) |
| 4 | ()대학(교) | ()학과(학부) |

A2-3. 귀하가 경험한 대학(교)의 학교 유형과 전공 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 경험한 대학 순서 | 학교 유형 | 전공계열 |
|--------------|--|---|
| | 1. 일반 4년제 대학 2. 2-3년제 대학 3. 산업대학 4. 교육대학 5. 방송통신대학 6. 사이버(디지털) 대학 7. 기능대학(폴리텍) 8. 기타 () |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3. 자연계열 4. 공학계열 5. 의/약학계열 6. 교육계열 7. 예체능계열 8.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경찰대 9. 기타 () |
| 1 | | |
| 2 | | |
| 3 | | |
| 4 | | |

A2-4. 귀하가 경험한 대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 학교 소재지 | |
|---|----------|-------------|
| | 1. 서울특별시 | 10. 세종특별자치시 |
| | 2. 강원도 | 11. 울산광역시 |
| | 3. 경기도 | 12. 인천광역시 |
| | 4. 경상남도 | 13. 전라남도 |
| | 5. 경상북도 | 14. 전라북도 |
| | 6. 광주광역시 | 15. 제주도 |
| | 7. 대구광역시 | 16. 충청남도 |
| | 8. 대전광역시 | 17. 충청북도 |
| | 9. 부산광역시 | 18. 기타 |
| 1 | | |
| 2 | | |
| 3 | | |
| 4 | | |

A2-4. 귀하가 경험한 대학(교)의 입학년도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 | 입학년도 |
|---|-------|
| 1 | () 년 |
| 2 | () 년 |
| 3 | () 년 |
| 4 | () 년 |

A2-5. 귀하가 경험한 대학(교)의 재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휴학과 중퇴의 경우 마지막 휴학·중퇴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시고, 졸업의 경우 최종 졸업년도를 기입하여 주세요.

| | 재학 상태 | 휴학/중퇴/졸업년도 |
|---|--|------------|
| |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 4. 중퇴 5. 졸업 | |
| 1 | | ()년 |
| 2 | | ()년 |
| 3 | | ()년 |
| 4 | | ()년 |

A3. 귀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1.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다(재학, 휴학, 중퇴, 졸업)
2. 다닌 적이 없다

A3-1. 그렇다면, 귀하가 다닌 대학원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석사과정
2. 박사과정
3. 학·석사연계과정
4. 석·박사통합과정

A3-2. 귀하의 현재 대학원 과정 재학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재학 중
2. 휴학 중
3. 졸업 유예(수료)
4. 중퇴
5. 졸업

B. 직업 훈련 · 교육

다음은 취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B1. 지난 1년간 귀하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2.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3.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자격증 취득 포함)
4. 인턴·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5.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6. SNS, 블로그 등 인맥관리
7.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8. 봉사활동 경험
9.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10. 기타()
11. 준비 안 함

B2. 귀하가 생각하기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2.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3.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4.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5. 다양한 형태의 경험 기회 마련
6. 구직 준비를 위한 탐색 비용 및 구직기간 비용지원
7. 좋은 일자리 창출
8. 공공 일자리 확대
9. 기타 ()

B3. 지난 1년간 귀하가 취업 또는 창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모두 선택해주시십시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2. 공공기관(서울시, 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4. 부모님이나 친인척
5. 친구, 선후배
6. 기타 ()
7. 도움받은 경험 없음

B4. 지난 1년간 귀하는 취득하신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등),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 등이 있으십니까? 일반 운전면허(2종 보통)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있다 ➡ B4-1
2. 없다 ➡ B5

B4-1. 지난 1년간 귀하가 취득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 입니까?

1. ()개

《자격증 예시》

| 자격증 유형 | 예시 |
|--------------------------------------|---|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 용접,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보일러, 금속, 정보통신,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광학, 로봇,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철도, 조선,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타워크레인설치·해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이공계열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조리, 제과, 제빵, 미용사, 이용사, 보석감정, 보석가공, 보석디자인산업, 세탁, 잠수, 식육가공, 떡제조기능사, 농작업안전보건, 방재기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한글 속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 등 ▶ 비서 등 전문사무 영역의 자격증은 1급일 경우 산업기사에, 2급, 3급일 경우 기능사에 해당됨. |
| 국가전문자격증 | 교사,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약사, 영양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법무사, 한약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경매사, 관세사, 보세사, 치과공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기관사, 운항사, 항해사, 경영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소방시설관리사, 생활체육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가맹거래사, 검량사, 검수사, 경비지도사, 국내여행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손해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
|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 비공인 포함) | 정보검색사, TEPS, 한자능력급수, 번역사 1,2,3급, 증권분석사, 1종 투자 상담사, 정보검색사 1,2,3급, 사회보험관리사 1,2,3급, 웹프로그래머 1,2,3급, PC정비사1,2급, 인터넷 정보검색사 1,2급, 무역영어, 증권분석사, 댄스스포츠지도사, 매경TEST,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AT자격시험(FAT, TAT), 리눅스마스터, 행정관리사(1,2,3급), CS LEADERS관리사, FLEX(외국어), SQL(전문가, 개발자), SMAT서비스경영자격, 정보기술자격(ITQ), 병원행정사, GTQ, 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 데이터분석(전문가, 준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종이접기마스터, 샵마스터, 주거복지사 등 |
| 국제(외국)자격증 | ▶ 일본어 능력시험(JLPT), TOEIC, TOEFL, 중국어 능력시험(HSK), 미국공인회계사(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선물중개인(AP) 등 |

B5. 귀하는 지난 1년간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준비 :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 경험 모드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직원의 내부 진급을 위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음

- 1. 있다
- 2. 없다

다음은 진로와 직업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분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6. 귀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1. 진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2.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물색 중이다(적성·강점 파악)
3.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중이다(정보검색, 진로상담·컨설팅)
4.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원수강, 스터디참여, 시험준비, 포트폴리오 구축, 입사 지원, 창업 준비, 지인추천/소개)
5.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6. 내가 원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B7. 다음의 항목들이 귀하가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먼저 항목별로 경험 여부를 응답해 주시고,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험 여부 | | 도움 정도 | | | | |
|-------------------------|-------|----|-----------------------|-----------------|----------|-----------|-----------------|
| | 있다 | 없다 | 전혀 도움되 지 않는다 | 도움되 지 않는다 | 보통이 다 |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 2 | 1 | 2 | 3 | 4 | 5 |
| (1) 전공지식(대학 경험) | | | | | | | |
|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 | | | | | | |
|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 | | | | | | |
| (4) 취업/창업 상담 및 컨설팅 | | | | | | | |
| (5) 자격증 취득 | | | | | | | |

다음은 귀하의 지난주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 학생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 활동, 프리랜서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등 이 모두 포함되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즉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일을 하였음 ➡ C3
2. 휴가 및 일시 휴직 ➡ C2
3. 일을 하지 않았음 ➡ C2

C2.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시적인 병 혹은 사고 때문에
2. 휴가·연가 등의 사용으로
3. 진학 준비 중 혹은 정규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어서
4. 집안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5.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휴업하여서
6. 일자리가 없어서(구직준비 중, 구직활동 중)
7.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8. 날씨가 좋지 않아서
9. 사업이 부진하여서
10. 기타()

다음은 귀하의 과거 모든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C2-1.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인턴, 프리랜서, 자영업,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 무인점포 운영이나 숙박 임대업 등은 포함하되, 부동산 임대나 주식투자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E1

C2-1-1. 귀하는 언제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지셨습니까?

1. ()년 ()월

C2-1-2. 귀하는 최근 3년간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 포함)

※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 개

C2-1-2. 귀하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에 대하여 일자리 시작시기와 종료시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는 '현재 재직중'을 체크해 주십시오.

※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일자리 시작 시기 | 일자리 종료 시기 | 현재 재직 여부 |
|---|---------------------------------|--|----------|
| 1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 2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 3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 4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 5 | ()년 ()월 | ()년 ()월, 현재 재직중(체크 박스) | |

C2-3. 귀하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에 대하여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경험 일자리 | 고용형태 |
|--------|---|
| | 1. 정규직 임금근로자 |
| | 2. 상용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
| | 3. 임시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 | 4.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대리운 전 기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 |
| | 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인 프리랜서 포함) |
| | 8. 무급가족종사자 |
| 1 | |
| 2 | |
| 3 | |
| 4 | |
| 5 | |

C2-4. 귀하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에 대하여 직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직종 |
|---|----------------------|
| | 1. 관리자 |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 3. 사무 종사자 |
| | 4. 서비스 종사자 |
| | 5. 판매 종사자 |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9. 단순노무 종사자 |
| | 10. 직업군인 |
| | 11. 기타 () |
| 1 | |
| 2 | |
| 3 | |
| 4 | |
| 5 | |

C2-5. 귀하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일주일 평균 () 시간 근로
2. 일주일 평균 () 일 근로

C2-6. 귀하가 최근 3년간 경험한 일자리의 평균 근로 소득(세후)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급여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받으셨는지) 선택한 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일급으로 받음 ➡ 세후 1일 평균 () 만 원
2. 주급으로 받음 ➡ 세후 1주일 평균 () 만 원
3. 월급으로 받음 ➡ 세후 1개월 평균 () 만 원

[종사 직업 분류표]

| 구분 | 설명 | 예시 |
|----------------------|---|--|
| 1. 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기관 부처장, 정부지방서기관장, 경리부처장, CFO, 재무부처장, 예산팀장 등 담당업무 부서의 실장, 부처장, 금융 관련 지점장 관리자, 연구관리자, 유치원 원장 등 <p>※ 직업군인 중 소대장 등은 '10. 직업군인'임</p>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시험원, 학원 강사, 시스템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시스템 웹 운영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 항공기 및 선박 기관사 및 관제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등), 변호사, 판검사, 변리사, 교사, 공공행정 전문가, 자산운용가, 손해보험 사정사, 기자, 디자이너 등 |
| 3. 사무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 (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회계, 금융, 법률, 감사, 상담, 안내, 통계 등 사무원, 사무보조원 |
| 4. 서비스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 관련 서비스, 돌봄 및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이·미용, 혼례·장례 등 개인 생활서비스, 운송 및 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소방, 돌봄(요양보호사, 보육 및 교사 보조직), 미용, 혼례 및 장례종사자, 항공기, 열차 등 승무원, 호텔 및 오락시설 등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등 여가 서비스 종사원 등 |
| 5. 판매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직, 매장 판매직, 상품대여,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 축산, 원예, 임업, 어업 관련 숙련직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공, 섬유, 의복, 금속, 목재, 가구, 악기, 정보통신, 건설, 운송, 기계, 금속 성형 등 관련해 특정 기능원 (재단사, 제빵사, 정육가공원, 수선사, 전기통신 수리원, 장도차 정비원 등) |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공, 섬유, 화학, 금속, 기계제조, 전기 및 전자, 운전, 상하수, 목재, 인쇄 등 관련 기계를 직접 조작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직 <p>※ 배달을 위한 차량운전 포함(배달원은 단순노무)</p> |
| 9. 단순노무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 및 적재, 배달원,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정리, 전단지 배포, 주유원 등 |
| 10. 직업군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복무를 제외한 직업 군인만을 의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군인 |

[다음의 C4-C4-4 파트는 C2-2에서 종료된 일자리가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C4. 귀하가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는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까?

※ 고용계약의 종료, 업체의 폐업, 해고 등은 '2. 아니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2. 아니오

C4-1. 그 일을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2. 정리해고로 인해(권고사직)
3. 명예퇴직(희망퇴직)
4. 계약기간이 끝나서
5. 원하는 근로조건과 맞지 않아서
6.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7. 일이 임시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8.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9.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10. 건강 등의 이유로
11.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2.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13. 이직 혹은 이직 준비를 위해
14.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등 공부를 위해
15. 기타()

C4-2. 그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2.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3.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4.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5.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6.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7.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8. 기타()
9. 특별히 없었음

C4-3. 귀하는 그 일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 C5
2. 아니오 ➡ C4-4

C4-4.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격조건(가입기간 등)이 미달되어서
4.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5.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6.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7. 기타()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C5. 귀하께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일자리
- 1. 급여(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
- 2.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 3.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 4.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일자리
- 5. 미래 성장 비전이 있는 일자리
- 6. 적성에 맞는 일자리
- 7. 복리후생이 우수한 일자리
- 8.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 9. 기타()

C6. 귀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예 ➡ C6-1
- 2. 아니오 ➡ C7

C6-1. 비정규직이어도 취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단기간만 일하기를 위해서
- 2.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 3. 많은 임금을 보장해서
- 4.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 5.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 6.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 7. (일자리가 없는)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 8.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서
- 9. 일의 성격상 비정규직이어도 무방해서
- 10. 기타()

C7. 최근 청년들이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할 때 아래 제시된 항목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1 | 2 | 3 | 4 | 5 |
|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 | | | |
|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 | | | |
|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 | | | |
| (4) 경험이 부족하다 | | | | | |
|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 | | | |
|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 | | | |
| (7) 나이 제한이 있다 | | | | | |

Ⅲ. 취업자

D-1. 주된 일자리

D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1개 이상이라면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봅니다.

1. 0000년 0월 시작, 00직종, 세후 소득 0000원
2. 0000년 0월 시작, 00직종, 세후 소득 0000원
3. 0000년 0월 시작, 00직종, 세후 소득 0000원

다음은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1개 이상이라면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봅니다.

D1-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산업에 해당합니까?

- ※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회사가 하는 일(산업)**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세부 산업에 대한 분류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중·소기업 분류표]

| 중·소기업 중분류 | | |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7.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임업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어업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2.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8. 운수 및 창고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금속 광업 | | 수상 운송업 |
|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 항공 운송업 |
|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3.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9.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
| | 음료 제조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 | 담배 제조업 | 10. 정보통신업 | 출판업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방송업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우편 및 통신업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정보서비스업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보험 및 연금업 |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12. 부동산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부동산업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전문 서비스업 |
| | 1차 금속 제조업 |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전기장비 제조업 |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6.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보건업 |
| | 가구 제조업 |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기타 제품 제조업 |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수도업 |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가구 내 고용활동 |
| 6.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21. 국제 및 외국기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전문직별 공사업 | | 국제 및 외국기관 |

D2.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사업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공공기관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부처(공무원(예: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군인)
- 6. 사회적 기업
- 7.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 8. 기타()

D3.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 종사자 수의 기준은 종사하는 일자리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 수를 말합니다(예. OO은행의 ◇◇지점일 경우 종사자 수를 지점 기준이 아닌 은행 전체 종사자 수로 작성).
-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룹의 △△자동차에 다니는 경우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 수로 작성).
-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급여(임금)를 받는 가족이나 친지도 종사자 수에 포함되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단,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제외).
-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자의 경우 파견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의 종사자 수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숲속파견업체에서 ▽▽업체로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업체 기준으로 작성)
-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300명 이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1-4명
- 2. 5-299명
- 3. 300명 이상
- 4. 잘 모르겠다

D4. 귀하가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평소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사도우미, 입주도우미, 입주 과외선생님, 택시기사 등은 일거리가 있는 장소(방문 서비스 등) 에 해당,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은 특정한 장소가 없는 업무(배달, 택배 등) 에 해당됩니다.

- | | |
|----------------------------|--------|
| 1. 자택 | ➡ D5 |
| 2. 사업장 내 | ➡ D4-1 |
| 3. 일거리가 있는 장소(방문 서비스 등) | ➡ D5 |
| 4. 특정한 장소가 없는 업무(배달, 택배 등) | ➡ D5 |
| 5. 장소제약이 없음 | ➡ D5 |
| 6. 기타() | ➡ D5 |

D4-1. 이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 일하는 곳이 여러 지역인 경우 가장 주된 근무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택근무의 경우 평소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울
- 2. 경기
- 3. 인천
- 4. 기타()

D4-2. 귀하가 집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왕복)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 () 시간 () 분

D5. 귀하는 주된 일자리에 고용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D6. 귀하의 가장 주된 일자리의 직무 수준 및 전공 일치도는 어떠합니까?

| | 낮다 (불일치 한다) | 유사하다 (어느 정도 일치한다) | 높다 (일치 한다) |
|-----------------------------|----------------|-------------------------|---------------|
| | 1 | 2 | 3 |
| (1) 나의 교육 수준보다 현재 일자리 직무수준이 | | | |
| (2) 나의 기술수준보다 현재 일자리 직무수준이 | | | |
| (3) 나의 전공분야와 현재 일자리의 직무가 | | | |

D7. 귀하는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불만족한다 |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1 | 2 | 3 | 4 | 5 |

D8-D9. 귀하가 주된 일자리를 통해 희망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D8. 본인이 원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 : 약 ()만 원
D9.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D10. 귀하는 현재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직장 내 괴롭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부여, 타인의 일 전가, 고함 및 모욕적인 발언, 물리적 폭력,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집단 따돌림,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성적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직원의 권리(휴가사용, 복지혜택 등)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 위험한 근로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한 근로 환경에는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 | 있음 | 없음 | 비해당 |
|--|----|----|-----|
| | 1 | 2 | 9 |
| (1) 직장 내 괴롭힘 | | | |
| (2)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 | | | |
| (3) 직장 내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손님, 거래처 직원, 고객 등)으로 부터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 | | | |

다음은 취업자의 전체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귀하가 현재(조사 시점)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 중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핸드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플랫폼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 ※ 회사에 소속되어 과업을 배정받기 위해 앱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플랫폼의 예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숨고, 크몽, 라우드 소싱, 오투잡 등이 있습니다. 음식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체 라이더, 대리운전업을 통한 대리운전, 재능공유앱 등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의뢰, 유튜브 편집자 등이 해당됩니다.

- 1. 있다
- 2. 없다

【다음의 D12-D13은 C2-2에서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응답해주시시오.】

D12. 귀하가 현재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시오.

| 1순위 | 2순위 |
|-----|-----|
|-----|-----|

- 1.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 2.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3.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 4. 원하는 일자리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려고
- 5. 이직을 위해 사전에 다른 일 경험을 쌓기 위해서
- 6.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 7.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일할 수 있어서
- 8. 기타()

D13.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전체 일자리)을 통해 희망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주당 노동시간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귀하의 주된 일과 그 외의 다른일의 합산 소득과 합산 노동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예. 농사나 일용 건설 노무자 등)의 경우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였을 시에 환산 시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하루 평균 근무시간 6 × 5일 =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 1. 본인이 원하는 세후 월평균 소득 : 약 ()만 원
- 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다음의 D14-D14-2는 C2-5에서 현재 재직중인 일자리의 총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응답해주십시오.】

D14. 귀하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 2. 건강문제(일시적 병, 사고)
- 3. 날씨가 좋지 않아서
- 4. 휴가·연가, 공휴일
- 5. 교육·훈련 참여
- 6. 육아
- 7. 가족적 이유(육아 외 가족 돌봄 등)
- 8. 노사분규
- 9.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10. 사업부진, 조업중단
- 11. 기타()

D14-1. 귀하는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근로시간 연장) ➡ D14-2
-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 D14-2
- 3.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 D14-2
-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D15

D14-2.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D15. 귀하는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1. 예 ➡ D15-1
- 2. 아니오 ➡ D16

D15-1. 귀하는 향후 그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직업이 희망 직업인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2 | 3 | 4 | 5 |

D-2. 구직/이직/창업

【다음의 D16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자영업이 아닌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상용 임금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3.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4.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5.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D16. 현재 하고 계시는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구직활동 : 취업을 위해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에 응시, 신문, 잡지, 인터넷, 휴대폰 어플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사업체에 찾아가 면담한다든지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 지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D17. 귀하는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음 | ➡ D17-1 |
| 2. 창업할 의향이 있음 | ➡ D18 |
| 3. 이직 및 창업의향 없음 | ➡ D18 |

D17-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2. 개인발전/승진
3.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4.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6.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7. 개인 사업을 위해서
8. 건강상의 이유로
9.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10. 기타()

D17-2. 언제쯤 이직할 계획이십니까?

1. 3개월 이내
2.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3. 6개월 이상 - 1년 이내
4. 1년 이후
5. 모르겠다

D18. 지난 1년간 귀하는 취업을 위해 이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직장 이직활동을 한 적이 있음 | ➡ D18-1 |
| 2.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음 | ➡ G1 |
| 3. 이직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한 적 없음 | ➡ G1 |

D18-1. 귀하는 새로운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
|-----|--|-----|--|

- 1.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 2. 교사, 교수를 통해
- 3.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
- 4.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 8.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9.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10. 기타()

E-1. 미취업자 - 취업준비

※ **일자리**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직장, 아르바이트 등) 내 사업(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을 하거나,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함

※ **구직활동** :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당 기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면접, 전화상담,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직장훈련 등이 해당

- E1-1. 지난 4주 내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 등)를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12.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7. 기타()

E2. 귀하는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1. 일할 수 있었다 ➡ E3
- 2. 일할 수 없었다 ➡ E2-1

E2-1.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2. 입시학원, 취업, 창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3.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중이어서
- 4. 학원에 다니지 않고 취업, 창업 준비 중이어서
- 5.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육아)
- 6. 가사일 때문에
- 7. 건강문제로
- 8. 당분간 쉬고 싶어서
- 9. 기타()

E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전반적 문제” 또는 “개인적 사유” 중 더 큰 것은 어떤 것 입니까?

- 1. 사회 전반적 문제
- 2. 개인적 사유

E4. 귀하는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1. 예 ➡ E4-1
- 2. 아니오 ➡ E5

E4-1. 귀하는 향후 그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아니다
- 2. 아니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E-2.미취업자 – 구직/창업

E5. 귀하는 앞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 구직활동 :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 의미
- ※ 창업을 위한 활동 : 창업 정보 수집, 창업을 위한 교육 수강, 투자자금 확보 등 창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의미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E6. 귀하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직장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음 ➡ E6-1-E6-3
2.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음 ➡ E7
3. 구직 활동 및 창업 준비를 한 적 없음 ➡ E7

E6-1. 귀하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E6-2. 귀하는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 ※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1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통해서
2. 교사, 교수를 통해
3.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
4.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7.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8.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9.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0. 기타()

E6-3. 귀하가 일자리(직장, 일거리)를 찾고 있는(또는 찾았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에 해당됩니다.

1. 생활비를 벌기 위해
2.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3.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4. 자신의 발전을 위해
5.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6.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7. 기타()

E7.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2.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3.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4.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5. 구직기간 비용지원
6. 기타()

VI. 경제(소득, 소비, 재산, 부채)

G. 경제(소득, 소비, 재산, 부채)

다음은 귀하의 지난해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G1. 2021년 1년 동안 다음 항목별로 본인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소득 제외)
※ 세후 실수령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받는 금액)
※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 소득 유형 | | 소득 금액 |
|--|--|------------------|
| 1. 근로소득 | | 세후 월평균()만 원 |
| 2. 사업소득 | | 세후 월평균()만 원 |
| ※ 사업경역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사무실(상가)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 | |
| 3. 재산 소득 | 3-1.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매매차익,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받는 이자) 등이 포함 | 세후 월평균()만 원 |
| | 3-2. 임대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임대료에 따른 임대수입에서 부동산 유지·관리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세후 월평균()만 원 |
| | 3-3. 기타 ※ 자격증 대여,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 세후 월평균()만 원 |
| 4. 가상자산소득 |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 예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e) 등 | 세후 월평균()만 원 |
| 5. 사회보험 급여나 정부보조금 등 공적 이전 소득 | ※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등)에서 받은 급여가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금, 아동수당, 한부모양육지원금 등 각종 현금수당 | 세후 월평균()만 원 |
| 6. 사적 이전 소득 | ※ 부모, 형제, 자매,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의 현금 및 현물소득 | 세후 월평균()만 원 |
| 7.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 | | 세후 월평균()만 원 |
| 합계 | | 세후 월평균 _____ 만 원 |

G2.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본인 포함) 전체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가구원**이란 같이 살면서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는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가구원에 해당하며, 떨어져 살고 있지만 본인의 생계를 위해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주는 부모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도 가구원입니다.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친구/자매/형제 등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 :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가상자산소득,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 등 사적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후 월평균 ()만 원

G3.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받았다
2. 받지 않았다

G4.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각각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어설명〉

※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추가된 제도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 | 4,000만 원 | |
| | 재산 | 2억 원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 | 수혜 여부 | | 금 액 |
|----------|-------|--------|------------------|
| | 받았다 | 받지 않았다 | |
| | 1 | 2 | |
| 1. 근로장려금 | | | 2021년 총액 () 만 원 |
| 2. 자녀장려금 | | | 2021년 총액 () 만 원 |

G5.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생활비 제외)

E5-1.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지출하신 생활비 중 각 항목별 지출 비중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의 지출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비율 |
|-----------|--|-------------|
| 1. 식비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음식 및 음식 포장 등에 지출 비용 | ()% |
| 2. 주거비 | 월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 | ()% |
| 3. 의류/잡화비 | 옷, 신발 등 의류 구매 및 세탁비, 수선비용 등 | ()% |
| 4. 교통비 |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등 | ()% |
| 5. 통신비 | 휴대폰, 인터넷 등 요금 | ()% |
| 6. 교육비 | 등록금, 학원비, 자기계발, 교재구입비 등 | ()% |
| 7. 양육비 |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8. 의료비 |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용 등 | ()% |
| 9. 문화 여가비 |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교양문화비, 여행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에 지출 비용 | ()% |
| 10.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비용 | ()% |
| 합계 | | 100% |

G6-1.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이므로, (4),(5)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 | |
|--------|--|
| 국민건강보험 | · 전국민 대상의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의미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민간건강보험(예. 실손형 의료보험, 상해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
| 국민연금 | · 대상 : 직장(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납부예외기간인 경우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1. 가입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역연금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산재보험 | ·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가입여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직장가입 | 직장가입 피부양자 | 지역가입 | 미가입 | 모름 |
|------------|------|--------------|------|-----|----|
| (1) 국민건강보험 | 1 | 2 | 3 | 4 | 5 |

G6-2 - G6-5.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가입 | 미가입 | 모름 |
|----------------------------------|-----------|-----|----|
| | 1 | 2 | 3 |
| (2) 국민연금 | ➡ (4)고용보험 | | |
| (3)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만 해당) | ➡ G7 | | |
| (4) 고용보험 | | | |
| (5) 산재보험 | | | |

G7. 귀하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1인 적정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적정생활비 총액 월평균 () 만 원

다음은 귀하의 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G8. 현재 기준 다음의 항목별 귀하의 재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유의 사항〉

- ※ 없음은 반드시 '0'으로 표시합니다.
- ※ 재산은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 예컨대,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산 경우, 비록 본인의 집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합니다.
- ※ 공동명의로는 50%로 가정해 응답합니다.

| 자산 유형 | 자산 금액 |
|--|-----------------|
| 1. 소유부동산 ※ 1. 주택 2. 주택 외 건물 3. 토지 4. 분양권 등 | _____억 _____만 원 |
| 2.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총액 ※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을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전세금, 가게나 사무실을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_____억 _____만 원 |
| 3. 금융자산 ※ 1. 예금 2. 적금 3. 주식·채권·펀드 4. 아직 타지 않은 껏돈 5. 기타 (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 등) | _____억 _____만 원 |
| 4. 가상화폐 ※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전자거래가 가능한 증표를 의미합니다. 예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G), 리플(xrp), 테더(usdt), 도지코인(dogD) 등 | _____억 _____만 원 |
| 5. 기타() | _____억 _____만 원 |
| 합 계 | _____억 _____만 원 |

G8-1. 현재 기준 귀하의 본인 명의의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의 사항〉

- ※ 없음은 반드시 '0'으로 표시합니다.

1. 본인 명의 소유 자동차 대수 총() 대

G9. 귀하께서 하고 계신 재테크 수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예금 및 적금
- 2. 저축성 보험
- 3. 부동산 투자
- 4. 주식/펀드
- 5. 가상화폐
- 6. 기타()
- 7. 재테크 안 함 → G9-2

G9-1. 귀하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 2. 생활비 마련
- 3. 결혼 준비
- 4. 주택 마련
- 5.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 6. 노후 대비를 위해
- 7. 여가/취미생활을 위해
- 8.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 9. 기타()

G9-2. 귀하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재테크할 여유 자금이 없어서
- 2. 재테크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 3.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서
- 4. 재테크 방법과 정보 등을 몰라서
- 5. 재테크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6. 기타()

G10. 귀하는 재테크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다 |
| 1 | 2 | 3 | 4 | 9 |

다음은 귀하의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G11. 현재 기준 귀하의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 ※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이나 학자금 대출은 포함하고, 사업용으로 빌린 돈은 제외합니다.
- ※ 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일반사채 및 기타 부채를 모두 포함
 - 금융기관 대출 :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캐피탈, 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과 마이너스통장 등
 - 카드빚 :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카드 할부금,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등
 - 일반사채 :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친인척, 지인 등에게 빌린 돈 등
- ※ 명의를 기준으로 응답
 - 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본인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가정

| 부채 유형 | G11-1. 부채 유무 | | G11-2. 부채 금액 |
|---|---------------------------------|----|-------------------|
| | 있다 | 없다 | |
| | 1. | 2. | |
| 1. 주택 관련 부채(주택구입비, 보증금, 임대료, 주택 증개축 비용, 전세자금 대출 등) ※ 주택 관련 부채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 됩니다. | <div>→</div> <div>G11-2-1</div> | | ()억 ()만 원 |
| 2. 일반부채 ※ 주택 관련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div>→</div> <div>G11-2-2</div> | | ()억 ()만 원 |
| 합계 | | | _____억 _____만 원 |

G11-3. 일반부채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주택 관련 부채를 제외한 일반부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학자금 마련
- 2.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 3.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취득 비용
- 4. 창업자금 마련
- 5. 채무상환
- 6. 기타()

G12. 귀하께서는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매우 부담됨 | 다소 부담됨 | 보통 | 별로 부담되지 않음 | 전혀 부담되지 않음 |
|--------|--------|----|------------|------------|
| 1 | 2 | 3 | 4 | 5 |

VII. 주거

H. 이사 경험 및 계획

다음은 귀하의 이사 경험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H1. 귀하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1. 서울 ➡ H1-4
- 2. 서울 이외의 지역(국내) ➡ H1-1-1
- 3. 국외 ➡ H1-1-2

H1-1-1.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1. ()광역시/도 ()시군구

H1-1-2.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1. ()

H1-2. 귀하는 언제 서울로 이사하셨습니까? ()년부터 서울로 이사하여 거주

※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한 경험이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서울로 이사온 년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H1-3. 서울로 이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을 따라서
- 2.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 3. 학업을 위해서
- 4.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5.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 6.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 7. 내 집을 마련하여서
- 8. 주거지원을 받게 되어서
- 9. 주거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 10. 자녀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해서
- 11. 기타()

H1-4. 귀하가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17. 세종
- 18. 국외

I. 현재 거주지

다음은 귀하의 주거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단독주택
- 2. 다가구단독주택
- 3. 영업 겸용단독주택
- 4. 아파트(5층 이상)
- 5. 연립주택(4층 이하)
- 6. 다세대주택
- 7.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8. 오피스텔
- 9. 고시원
- 10.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11. 기숙사
- 12. 기타()

1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의 제일 위층(예: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탑이 아닌 3. 지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지하층이나 반지층
- 2. 지상
- 3. 옥탑

13.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체면적(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제곱미터(㎡) 중 알고 계시는 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주택의 면적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세준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작성 시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 | | | | | | | | | | | | |
|----------------|-----|------|------|-----|-----|-----|-----|-----|-----|-----|-----|-----|
| 평 | 1 | 5 | 7 | 10 | 15 | 17 | 20 | 23 | 25 | 27 | 29 | 32 |
| 제곱미터(㎡) | 3.3 | 16.5 | 23.1 | 33 | 50 | 56 | 66 | 76 | 83 | 89 | 96 | 106 |
| 평 | 35 | 37 | 40 | 42 | 45 | 47 | 50 | 55 | 60 | 65 | 70 | 75 |
| 제곱미터(㎡) | 116 | 122 | 132 | 139 | 149 | 155 | 165 | 182 | 198 | 215 | 231 | 248 |

- 1. () 평
- 2. () ㎡

I3-1. 귀 닻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 1. 원룸형 ➡ I4
- 2. 원룸형 아님 ➡ I3-2

I3-2. 그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용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 거실, 식당 용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의 일부를 세 준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서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방 () 개
- (2) 거실(대청마루 포함) () 개
- (3) 화장실 () 개

I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가’에 해당됩니다.

- 1. 자가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4. 보증금 없는 월세
- 5. 사글세 또는 연세
- 6. 일세
- 7. 무상
- 8. 기타()

I4-1.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명의 혹은 (전·월세 등)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1. 부모
- 2. 본인
- 3. 배우자
- 4. 친인척
- 5. 기타()

I5. 귀하는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까?

※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을 때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정정 한 것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이사 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음

- 1. 전입신고만 하였다
- 2.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다
- 3.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았다
- 4. 둘 다 하지 않았다
- 5. 모르겠다

16.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가격 혹은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한 월세'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세의 경우, 한 달 분(하루 방세×30일)으로 환산하여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 비용을 '보증금 없는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I6-1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1.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현재 주택가격은 얼마입니까?

1. () 만 원

【I6-2는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2.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 및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가 없는 경우, 0원을 입력해 주십시오.

1. 전세 보증금 () 만 원

2. 관리비 월평균 () 만 원

【I6-3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혹은 보증금 없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3.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한 월세'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 비용을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1. 보증금 () 만 원

2. 월세 월 평균 () 만 원

3. 관리비 월 평균 () 만 원

【I6-4는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6-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세의 경우, 한 달 분(하루 방세×30일)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세 또는 일세 월 평균 () 만 원

【I7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7. 귀하는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등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

- ※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비용을 마련한 경우 1순위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
|-----|--|-----|--|

1. 내가 번 돈
2.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음
3.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4. 정부의 대출(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자금대출)

- 5. 서울시 대출(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차지원 등)
- 6. 민간금융기관(회사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 7. 사채
- 8. 기타()
- 9. 모름

18.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불량 | 조금 불량 | 보통 | 조금 양호 | 매우 양호 |
|--|----------|----------|----|----------|----------|
| | 1 | 2 | 3 | 4 | 5 |
| (1) 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상태), 난방 및 단열, 방수 상태 | | | | | |
| (2)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곰팡이나 습기 상태) | | | | | |
| (3) 채광 상태 | | | | | |
| (4) 냉방 상태(에어컨이나 냉방 시설 유무) | | | | | |
| (5)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 외부소음, 층간소음) | | | | | |
| (6)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 | | | | |
| (7) 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예방 전기시설, 화재대피시설 유무) | | | | | |
| (8) 주택 방범상태(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 | | | | |
| (9) 주택 위생 상태(악취, 벌레 등) | | | | | |

19. 귀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거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불안감을 더 크게 경험한 사유를 순서대로 2개 응답해주시요.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순위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2순위 |
|-----|-----|
|-----|-----|

1.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2.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3.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취약계층, 유아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4.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5.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6.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위험)
7.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8. 보증금 반환 위험
9.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10. 해당 없음

110. 귀하는 2023년에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예 → I10-1
2. 아니오 → J1
3. 잘 모르겠다 → J1

I10-1. 귀하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의 교육, 보육 환경을 위해서
2.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부모님의 이사, 부모님 부양 등)
3.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취·창업 준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등)
4.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직장 등 통근 편의, 집의 크기 확장, 환경 및 건강, 편의시설 등)
5.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결혼으로 인한 신혼집 마련, 독립 등)
6.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비 부담, 평수를 줄이는 등)
7. 내 집을 마련하여서
8. 주거지원을 받게 되어서
9. 기타()

VII. 삶의 여건과 인식

J. 삶의 여건과 인식

다음은 귀하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경험이나 느낌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J1. 귀하는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 비해당 |
|--|----|----|-----|
| | 1 | 2 | 3 |
| (1)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대학등록금 포함)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본인이나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경우 '3. 비해당'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2)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 | |
| (3)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 의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 ※ 2021년 이전에 신용유 의자가 되어 2021년에도 신용유 의자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1.있다'에, 2021년 이전에는 신용유 의자였지만 2021년에는 신용유 의자가 아닌 경우 '2.없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와 관련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을 지불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 (5)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J2. 귀하는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름/거부 |
|---|--------|--------|-----------|-------|
| | 1 | 2 | 3 | 4 |
| (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 | | | |
| (2)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을 할 수 없었다 | | | | |

J3.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

1. 부모에게 빌리거나 무상으로 지원받음
2.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3.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4.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등 이용)
5.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및 사채 이용
6.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 해약
7. 부동산매각,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8.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파생금융상품(CD, MMF등) 포함)
9.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10. 기타()
11. 해결하지 못함

J4.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귀하의 생활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

1. 식비
2. 의료비
3. 공교육비
4.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5.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6.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7. 교통비(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유지비용)
8. 경조사비
9.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10.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11. 가족이나 친지 보조(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12. 문화사교비
13. 기타()
14.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J5.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 | | | | 보통 이다 | | | | | 매우 만족 한다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J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illegible]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J7. 귀하는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예
- 4. 아니오 → J8

J7-1. 최근 한달 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취업실패
- 2.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 3. 대인관계의 어려움
- 4. 학업중단 혹은 진학 실패
- 5. 실직
- 6. 부모나 다른 가족과의 갈등
- 7. 임신, 육아, 출산 등
- 8.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 9. 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 10. 기타()

J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 | 있다 | 없다 |
|--|----|----|
| | 1 | 2 |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 |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 |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 |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 |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 |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 |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 |

J9.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런 편이다 | 항상 그렇다 |
|--|-----------------|-----------------|-----------------|-----------|
| | 1 | 2 | 3 | 4 |
| (1) 나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 | | | | |
| (2)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 | | | |
| (3)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 | | | |
| (4)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 | | | | |
| (5) 나는 친구들 안에 속해 있다 | | | | |
| (6) 나는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 | | | |
| (7) 나는 더 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
| (8) 나의 관심사와 의견이 주위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한다 | | | | |
| (9) 나는 주위사람에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간다 | | | | |
| (10) 나는 주위사람들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 | | | |
| (11)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 | | |
| (12)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13)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1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15) 내가 원할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 | | | |
| (16)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 | | | |
| (17) 나는 수줍음을 잘 탄다 | | | | |
| (18) 내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19)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 | | |
| (20)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다 | | | | |

J9-1. 귀하께서 방금 응답하신 문항은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개발한 외로움 평가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한 한국형 UCLA 외로움 척도 평가 지표(Korean-UCLA Loneliness scale)입니다. 귀하의 외로움 정도를 알고 싶으시면 '결과 확인'을, 알고 싶지 않으시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결과확인 ➡ J9-2
2. 다음문항으로 이동 ➡ J10

J9-2. 귀하의 결과는 [제시 : J9 응답 결과 합산]점 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J10.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J11. 귀하는 현재(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 | |
|-------------------------|---------|
|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 J11-1 |
| 2.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다 | ➡ J12 |
| 3.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 ➡ J12 |
| 4.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 J12 |
| 5. 기타() | ➡ J12 |

J11-1.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 1순위 | 2순위 |
|-----|-----|
|-----|-----|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4.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5.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6. 기타()

J12.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
|----------------------------|--------------------------|--------------------------|--------------------------|---------------------------|
| | 1 | 2 | 3 | 4 |
|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 | | |
| (2) 비교적 잘 지냈다 | | | | |
| (3) 상당히 우울했다 | | | | |
|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 | | |
|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 | | |
|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 | | |
| (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 | | | |
|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 | | |
| (9) 마음이 슬펐다 | | | | |
|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 | | |
|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 | | |

J1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1. 예 → J13-1
- 2. 아니오 → J14

J1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 이유 때문에(사업이나 투자실패, 실직, 생활고 등)
- 2.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 3.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 4.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의 갈등이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 5. 진로나 직장 문제 때문에(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취업 실패 등)
- 6. 기타()

J14.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그냥 참는다
- 2.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 3. 심리상담을 받는다
- 4. 수면을 취한다
- 5.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 6. 과식/폭식/미식 또는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
- 7. 가족과의 교류(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8. 기타 지인과의 교류(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9.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 10.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 11. 종교활동을 한다
- 12. 기타 ()
- 1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귀하의 사회에 관한 인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J15.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 지않는 다 | 별로 동의하 지않는 다 | 보통 이다 | 어느 정도 동의한 다 | 매우 동의한 다 |
|---|-----------------------|-----------------------|----------|----------------------|----------------|
| | 1 | 2 | 3 | 4 | 5 |
| (1)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 | | | | |
| (2)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 | | | | |
| (3)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 | | | | |
| (4)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 | | | | |
| (5)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 | | | | |

J1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1 | 2 | 3 | 4 | 5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 | |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 | | |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 |

J17.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하 | | | | | | | | | 최상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J18. 현재와 비교하여 30년 후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약간 나빠질 것이다 |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약간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 1 | 2 | 3 | 4 | 5 |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N1. 귀하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다?

| | | | | | | | | | | |
|---------------------------|---|---|---|---|----------|---|---|---|---|-------------------------|
| 전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 | | | 보통 이다 | | | | | 완전히 일상을 회복 하였다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N1-1. 귀하는 언제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1. 1년 미만
- 2. 1년 이상 2년 미만
- 3. 2년 이상 3년 미만
- 4. 3년 이상 4년 미만
- 5. 4년 이상 5년 미만
- 6. 5년 이후

N1-2. 귀하가 생각하기에 아래 항목 중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주시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소득활동
- 2. 소비활동
- 3. 신체 및 정신 건강
- 4. 여가생활(여행, 문화생활 등)
- 5. 가족관계
- 6. 사회적 관계
- 7. 교육참여
- 8. 생활환경
- 9. 종교활동
- 10. 해당없음(모두 회복될 것)

X. 가구배경

L. 가구 배경

L1.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의 가구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명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할머니' ➡ 2명 입력

형제 1명, 자매 1명과 살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 2명 입력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기타' 선택 후 관계를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3. 할아버지 ➡ ()명
4. 할머니 ➡ ()명
5. 형제, 자매 ➡ ()명
6. 배우자(사실혼 포함)
7. 자녀 ➡ ()명
8. 친인척 ➡ ()명
9. 친구 ➡ ()명
10. 기타 () ➡ ()명
11. 없다 (1인가구)

L1-1.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취업/학업 때문에 같이 살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있다 ➡ I1-2
2. 없다 ➡ I1-3

L1-2.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항목의 가구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명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할머니' ➡ 2명 입력

형제 1명, 자매 1명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 2명 입력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기타' 선택 후 관계를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3. 할아버지 ➡ ()명
4. 할머니 ➡ ()명
5. 형제, 자매 ➡ ()명
6. 배우자(사실혼 포함)
7. 자녀 ➡ ()명
8. 친인척 ➡ ()명
9. 기타 () ➡ ()명
8. 친인척 ➡ ()명
9. 기타 () ➡ ()명

L1-3. 귀댁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주십시오
예) 외할아버지, 첫째 형

1.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2.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L1-4. 가구구성원의 취업 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구성원 정보 | 취업 | 미취업 | 비해당 |
|------------------------------|----|-----|-----|
| | 1 | 2 | 9 |
| 1.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 |
| 2.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 |

L2.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박사) | 잘 모르겠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1. 아버지 | | | | | | | | |
| 2. 어머니 | | | | | | | | |

L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혼모 포함)
▪ 미혼 유배우 : 법적으로 혼인하지는 않았지만 동거인이나 동반자가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 포함)
▪ 기혼 유배우 : 법적으로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별 :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별거 :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

1. 미혼 ➡ L3-1
2. 미혼 유배우(사실혼 등) ➡ L3-1
3. 기혼 유배우(법적 혼인) ➡ L3-3
4. 사별 ➡ L3-1
5. 이혼 ➡ L3-1
6. 별거 ➡ L4

L3-1. 앞으로 결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 L3-3
2. 아니오 ➡ L3-2
3. 모르겠다 ➡ L3-3

L3-2.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독신생활이 좋아서
2. 학업 때문에
3.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4.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L3-3.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1. 학교 안 다님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2-3년제 대학 졸업
6. 4년제 대학 졸업
7.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8. 잘 모르겠음

L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L4-1
2. 없다 ➡ L4-3

L4-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명

L4-2. 자녀의 출생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년
2. ()년

L4-3. 앞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L4-4
2. 없다 ➡ L5

L4-4.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가지실 계획이십니까?

1. ()명

L5. 귀하는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 L5-3
2. 아니오 ➡ L5-1

L5-1. 귀하는 언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셨습니다?

1. ()년부터

L5-2. 귀하가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
2. 양육자와의 불화
3. 양육자 안 계심(사망)
4. 결혼 후 분가
5. 기타() ➡ L6

L5-3. 언제쯤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제적인 독립하실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만약, 6개월 후로 예상하신다면 0.5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향후 () 년 후
- 2. 잘 모르겠다

L6. 귀하의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예 ➡ L6-1
- 2. 아니오 ➡ L6-3

L6-1.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 2. 양육자가 독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3. 학교, 직장 등의 통근 문제가 없기 때문에
- 4. 외로움에 대한 걱정 때문에
- 5. 자녀 양육 및 가사 문제 때문에
- 6. 독립계획이 없어서
- 7. 건강상의 이유로
- 8. 기타()

L6-2. 언제쯤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만약, 6개월 후로 예상하신다면 0.5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향후 ()년 후
- 2. 독립 의향 없음 ➡ L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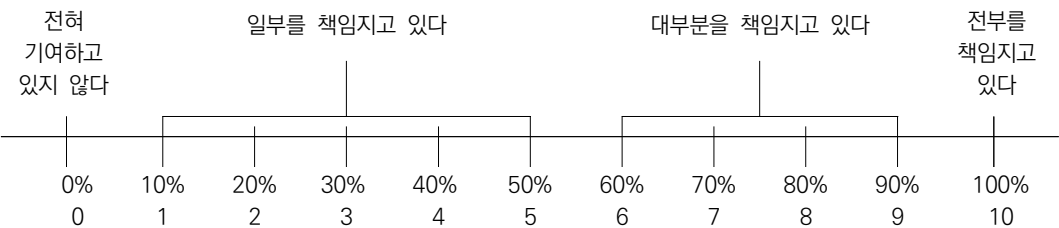
L6-3. 언제부터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으셨습니까?

- 1. ()년부터

L6-4.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업 또는 진로준비
- 2. 취업
- 3. 결혼 후 분가
- 4. 양육자와의 불화
- 5.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 6. 양육자 안 계심(사망)
- 7. 기타()

L7. 귀하는 가구의 생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L8.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십니까?

- ※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목욕이나 식사 돕기, 병원 모시고 가기,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보기, 말동무하기 등이 모두 돌봄에 해당합니다.
- ※ 혼자 돌보는 것, 다른 가족과 함께 돌보는 것 모두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 L8-1
2. 아니오 ➡ M1

L8-1. 귀하께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정기적(규칙적)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3. 예
4. 아니오

L8-2. 귀하께서 돌보시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돌보고 있는 가족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머니
2. 아버지
3. 형제자매
4. 할머니
5. 할아버지
6. 기타 다른 친척

L8-3. 귀하께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1. 직접 돌봄 제공 (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 목욕, 식사 돕기, 병원 동행 등)
2. 생계를 책임짐 (예.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등 마련 또는 식비, 주거비, 생활비 마련 등)
3. 둘 다 제공

L8-4. 귀하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매우 어렵다 | 어려운 편이다 | 보통이다 | 별로 어렵지 않다 | 전혀 어렵지 않다 |
|--------|---------|------|-----------|-----------|
| 1 | 2 | 3 | 4 | 5 |

M. 기본정보

다음은 귀하의 성장배경 및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M1. 현재 귀하의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의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 | | | | | | | | 최상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M1-1. 만 14세일 무렵 귀하의 부모님(혹은 주된 양육자)의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 | | | | | | | | 최상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M2. 귀하는 진단받은 장애가 있으십니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미등록장애 등

- 1. 있음
- 2. 없음

M2-1. 귀하의 가구원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 1. 있음
- 2. 없음

M3. 귀하는 군대에 복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K1-1

M3-1. 복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년부터 월 - 년부터 월

IX. 정책 경험과 평가

K. 정책 경험과 평가

K1-1. 다음은 서울시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 | 안다 | 모른다 |
|---------|------|---|----|-----|
| | | | 1 | 2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ships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참 여 공 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K1-2는 K1-1에서 인지 여부에 ‘① 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1-2. 현재(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있다 | 없다 |
|---------|------|---|----|----|
| | | | 1 | 2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참 여 공 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K1-3은 K1-2에서 이용 여부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1-3. 이용해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 1 | 2 | 3 | 4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 청년 일자리 | |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 | |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
| 참여·공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 |

K1-4. 향후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 | 있다 | 없다 |
|-------|------|---|----|----|
| | | | 1 | 2 |
| 일자리 | (1) | 청년인재와 유망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미래청년 일자리 | | |
| | (2) |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 | |
| | (3) | 최대 23개월간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는 서울 뉴딜형 일자리 | | |
| 주거 | (4)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중 임대료의 30-95%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 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 | |
| | (5) | 보증금 5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 | |
| 복지 | (6) |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 | |
| | (7) |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 | |
| | (8) | 최대 7회(1회당 50분)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
| | (9) |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 |
| | (10)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환급, 연간 최대1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 | |
| 참여·공간 | (11)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 | |

K2-1. 다음은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 안다 1 | 모른다 2 |
|-----|--|---------|----------|
|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희망이음 등 정부일자리 사업 | | |
| (2)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 | |
| (3)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 정책 | | |
| (4) |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주택자금 대출(주택금융) 지원 정책 | | |
| (5)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 |
|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 |

【K2-3은 K2-2에서 이용 여부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2-2. 현재(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원을 받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1 | 없다 2 |
|-----|--|---------|---------|
|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희망이음 등 정부일자리 사업 | | |
| (2)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 | |
| (3)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 정책 | | |
| (4) |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주택자금 대출(주택금융) 지원 정책 | | |
| (5)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 |
|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 |

【K2-2는 K2-1에서 인지 여부에 ‘① 안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K2-3. 이용해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1 | 2 | 3 | 4 |
|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희망이음 등 정부일자리사업 | | | | |
| (2)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
| (3) |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 정책 | | | | |
| (4) | 청년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주택자금 대출(주택금융) 지원 정책 | | | | |
| (5)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지원 정책 | | | | |
|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정책 | | | | |

K3. 귀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소득 지원(현금, 물품지원)
- 2. 자산 형성 지원
- 3. 공공일자리 제공
- 4. 고용(취·창업)지원
- 5.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6. 심리상담, 생활 고민상담 등 상담 제공
- 7.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 8. 토래모임 지원
- 9. 시민교육
- 10. 취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
- 11. 부채경감 지원
- 12.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13. 주거 지원
- 14. 기타()

조사 후 기록표

조사담당자

|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

응답자 정보

| | |
|---------|--|
| 응답자 성명 | |
| 응답자 연락처 | <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

조사 정보

| | | | |
|---------|---|--------|--|
| 조사일시 | 2022년 <div></div> <div></div> 월 <div></div> <div></div> 일 | 유치일 | 2022년 <div></div> <div></div> 월 <div></div> <div></div> 일 |
| 최종완료일 | 2022년 <div></div> <div></div> 월 <div></div> <div></div> 일 | 방문 횟수 | 총 <div></div> <div></div> 회 |
| 조사 요일 | <div>① 평일</div> <div>② 주말·공휴일</div> | 조사 시간대 | <div>① 9시 - 12시 이전</div> <div>② 12시 - 15시 이전</div> <div>③ 15시 - 18시 이전</div> <div>④ 18시 - 21시 이전</div> <div>⑤ 21시 이후</div> |
| 조사 소요시간 | 총 <div></div> <div></div> <div></div> 분 | | |

3_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조사표(위성패널)

※ 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위성패널)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 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사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사항 | | | |
|---------|--|---------|--|
| 집계구 번호 | | 집계구 자치구 | |
| 응답자 번호 | | 패널 구분 | 1. 기존 2. 신규 |
| 응답자 성별 | 1. 남자 2. 여자 | 응답자 생년월 |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년 <div><div></div><div></div></div> 월 |
| 응답자 연락처 | <div><div></div><div></div><div></div></div> -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 | |

| 조사 주관기관 | 조사 수행기관 |
|---|---|
| <div> 서울특별시</div> <div>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div> | <div> HankookResearch</div> |

「서울청년패널조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서울시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2020년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들의 기본배경, 교육,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경험과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니 연구 참여 동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연구목적** : 서울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참여대상** : 이 연구의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입니다.
3. **연구 참여 절차** : 조사원에게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신 분 중 조사대상자 확인(거주지역, 나이 등) 절차를 거쳐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웹조사 링크를 발송합니다. 참여대상자는 발송된 웹조사 링크에 접속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참여 기간** : 본조사는 패널조사로 매년 1회(본조사)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5년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조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조사 참여로 부담하셔야 하는 금전적 비용은 없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조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지 정보 등입니다. 이 정보는 조사 참여자 선별 및 설문지 발송, 사은품 및 사례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져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귀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철회 및 중단 보장** : 귀하께서 희망 시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참여 중단을 희망하시면, 연구책임자나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이 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리서치 서울청년패널조사팀 : 전화 02-3014-1025 / 이메일 kimjy@hrc.co.kr
 - 서울연구원 서울청년패널조사팀 : 전화 02-2149-1249 / 이메일 sypanel@si.re.kr

1. 1인가구
2. 다인 가구

O3-2. 서울로 다시 이사할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의 교육, 보육 환경을 위해서
- 2. 거주 환경을 위해서(학교, 직장 등 통근 편의, 편의시설 등)
- 3. 결혼이나 가족과의 합가 등을 위해서
- 4. 기타()

O4. 귀하는 정기적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 1.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에서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 → O4-1
- 2.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 → O4-1
- 3. 타 시도로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시도나 서울 외) → O4-1
- 4.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O5

O4-1. 귀하가 출근/등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왕복)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시간 분

O4-2.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2. 약간 불만족
- 3. 보통
- 4. 약간 만족
- 5. 매우 만족

O5. 귀하의 주된 생활권은 어디입니까?

- 1. 현재 살고 있는 시도 내
- 2. 서울
- 3. 현재 살고 있는 시도와 서울을 제외한 지역

O6. 이사 한 이후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P. 현재 거주지

다음은 귀하의 주거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P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단독주택
- 2. 다가구단독주택
- 3. 영업 겸용단독주택
- 4. 아파트(5층 이상)
- 5. 연립주택(4층 이하)
- 6. 다세대주택
- 7.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8. 오피스텔
- 9. 고시원
- 10.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11. 기숙사
- 12. 기타()

P2.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체면적(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제곱미터(㎡) 중 알고 계시는 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주택의 면적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세준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작성 시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면적 단위 환산표] | | | | | | | | | | | | |
|----------------|-----|------|------|-----|-----|-----|-----|-----|-----|-----|-----|-----|
| 평 | 1 | 5 | 7 | 10 | 15 | 17 | 20 | 23 | 25 | 27 | 29 | 32 |
| 제곱미터(㎡) | 3.3 | 16.5 | 23.1 | 33 | 50 | 56 | 66 | 76 | 83 | 89 | 96 | 106 |
| 평 | 35 | 37 | 40 | 42 | 45 | 47 | 50 | 55 | 60 | 65 | 70 | 75 |
| 제곱미터(㎡) | 116 | 122 | 132 | 139 | 149 | 155 | 165 | 182 | 198 | 215 | 231 | 248 |

- 1. () 평
- 2. () ㎡

P2-1. 귀 닥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 1. 원룸형 → P3
- 2. 원룸형 아님 → P2-2

P2-2. 그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용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방, 거실, 식당 용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의 일부를 세 준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서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방 () 개
(2) 거실(대청마루 포함) () 개
(3) 화장실 () 개

P3.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가’에 해당됩니다.

1. 자가 ➡ P4-1
2. 전세 ➡ P4-2
3. 보증금 있는 월세 ➡ P4-3
4. 보증금 없는 월세 ➡ P4-3
5. 사글세 또는 연세 ➡ P4-4
6. 일세 ➡ P4-4
7. 무상 ➡ P5
8. 기타() ➡ P5

【P4-1은 P3에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4-1. 귀하가 거주하는 (자가인 경우)집의 현재 주택가격은 얼마입니까?

1. () 만원

【P4-2는 P3에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4-2.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 및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가 없는 경우, 0원을 입력해 주십시오.

1. 전세 보증금 () 만원
2. 관리비 월평균 () 만원

【P4-3은 P3에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4-3.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는 얼마 입니까?

-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한 월세'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 비용을 '월세'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0원으로 작성).

- 1. 보증금 () 만원
- 2. 월세 월 평균 () 만원
- 3. 관리비 월 평균 () 만원

【P4-4는 P3에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4-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세의 경우, 한 달 분(하루 방세×30일)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세 또는 일세 월 평균 () 만원

P5.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불만족 한다 |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만족 한다 | 매우 만족 한다 |
|-----------------------|-----------------|-----------|----------|----------|----------------|
| | 1 | 2 | 3 | 4 | 5 |
|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 | | |
|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 | | |
|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 | | | | |

II. 경제

Q. 소득

다음은 귀하의 지난해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2021년 1년 동안 본인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 소득 제외)

※ 세후 실수령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받는 금액)

※ 소득 :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가상자산소득,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 등 사적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후 월 평균 ()만 원

Q2.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본인 포함) 전체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가구원이란 같이 살면서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는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가구원에 해당하며, 떨어져 살고 있지만 본인의 생계를 위해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주는 부모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도 가구원입니다.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친구/자매/형제 등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 :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가상자산소득,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 등 사적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후 월평균 ()만 원

III. 가구 정보

R. 가구 배경

R1.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의 가구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명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할머니’ ➡ 2명 입력

형제 1명, 자매 1명과 살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 2명 입력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기타’ 선택 후 관계를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할아버지 ➡ ()명
- 4. 할머니 ➡ ()명
- 5. 형제, 자매 ➡ ()명
- 6. 배우자(사실혼 포함)
- 7. 자녀 ➡ ()명
- 8. 친인척 ➡ ()명
- 9. 친구 ➡ ()명
- 10. 기타 () ➡ ()명
- 11. 없다 (1인가구)

R1-1.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취업/학업 때문에 같이 살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있다 ➡ R1-2
- 2. 없다 ➡ R1-3

R1-2.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항목의 가구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명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할머니’ ➡ 2명 입력

형제 1명, 자매 1명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 2명 입력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기타’ 선택 후 관계를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할아버지 ➡ ()명
- 4. 할머니 ➡ ()명
- 5. 형제, 자매 ➡ ()명
- 6. 배우자(사실혼 포함)
- 7. 자녀 ➡ ()명
- 8. 친인척 ➡ ()명
- 9. 기타 () ➡ ()명

R1-3. 귀 닥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친인척.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주십시오
예)외할아버지, 첫째 형

- 1. [제시 : R1, R1-2 가구 구성원 정보]
- 2. [제시 : R1, R1-2 가구 구성원 정보] ➡ ()

R1-4. 가구구성원의 취업 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구성원 정보 | 취업 | 미취업 | 비해당 |
|------------------------------|----|-----|-----|
| | 1 | 2 | 9 |
| 1.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 |
| 2. [제시 : L1, L1-2 가구 구성원 정보] | | | |

R2.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박사) | 잘 모르겠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1. 아버지 | | | | | | | | |
| 2. 어머니 | | | | | | | | |

R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혼모 포함)
- 미혼 유배우 : 법적으로 혼인하지는 않았지만 동거인이나 동반자가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 포함)
- 기혼 유배우 : 법적으로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별: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별거: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

- | | |
|------------------|--------|
| 1. 미혼 | ➡ R4 |
| 2. 미혼 유배우(사실혼 등) | ➡ R3-1 |
| 3. 기혼 유배우(법적 혼인) | ➡ R3-1 |
| 4. 사별 | ➡ R4 |
| 5. 이혼 | ➡ R4 |
| 6. 별거 | ➡ R4 |

R3-1.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1. 학교 안 다님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2-3년제 대학 졸업
6. 4년제 대학 졸업
7.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8. 잘 모르겠음

R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R4-1
2. 없다 ➡ 설문종료

R4-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명

R4-2. 자녀의 출생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년
2. ()년

조사 후 기록표

| 조사담당자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 응답자 정보 | | | |
|---------|--|---|--|
| 응답자 성명 | | | |
| 응답자 연락처 | <div> <div></div> <div></div> <div></div> </div> | - |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

| 조사 정보 | | | |
|---------|-------------------------------------|--------|--|
| 조사일시 | 2022년 <div></div> 월 <div></div> 일 | 유치일 | 2022년 <div></div> 월 <div></div> 일 |
| 최종완료일 | 2022년 <div></div> 월 <div></div> 일 | 방문 횟수 | 총 <div></div> 회 |
| 조사 요일 | <div>① 평일</div> <div>② 주말·공휴일</div> | 조사 시간대 | <div>① 9시 - 12시 이전</div> <div>② 12시 - 15시 이전</div> <div>③ 15시 - 18시 이전</div> <div>④ 18시 - 21시 이전</div> <div>⑤ 21시 이후</div> |
| 조사 소요시간 | 총 <div></div> 분 | | |

Abstract

The 2022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 (SYPS)

Geum-Sun Byun · Sangil Kim · Seung-Yun Kim · Jinha Kim · Hyun-Chan Ahn
· Seong-Ah Kim · Min-Jin Park · Ah-Reum Lim · A Hyun Ryu · Jong Seon Lee

Youth policy should provide measures to cope with risk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 life changes in youth and life transitions of the life cycle. Recently, various surveys have been conducted on youths in South Korea. However, the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not sufficient to analyse the process of change in youth, and policy and feedback evaluation is difficult.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 Seoul Institut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nned the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 (SYPS) and conducted the first survey in 2021, and the second survey in 2022.

The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 (SYPS) survey included 5,265 young adults aged 18 to 34 years from Seoul during the first survey year in 2021 and an additional 1,321 individuals during the second survey year in 2022.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content from various areas of life such as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economic life, housing, perceptions, policy evaluation, and COVID-19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life transitions of the life cycle of youth.

This study includes a descriptive report and a longitudinal analysis report. The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nalysis results for each questionnaire area and serves as a reference for researchers using the Seoul Young Adult Panel Survey data. The longitudinal analysis report analyses the data from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targeting a total of 3,762 participants, to examine the changing trends among the youth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while analysing youth issues.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Survey Overview
- 3_Survey results

02. Sampling Design

- 1_Sampling Design
- 2_Sample Size
- 3_Sample and Weight

03. Survey Content and Methodology

- 1_Survey Content
- 2_Research Methods and Survey System

04. Descriptive Analysis

- 1_General Features
- 2_Life Transition Features of Youth
- 3_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 4_Work
- 5_Economic Life
- 6_Housing
- 7_Life Condition and Perception
- 8_Life Change Caused by COVID-19
- 9_Experience in receiving Policy Program and Policy Evaluation
- 10_Satellite Panel

05. Longitudinal Analysis

- 1_General Features
 - 2_Life Transition Longitudinal Features of Youth
 - 3_Comparison of Key Indicators
-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연 2022-BR-16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11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794-3 93330 2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